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 호

평 양 근로자사 1966

근로자

제7호 (29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원 준 영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이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다. 거기에는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피흘려 싸운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업적이 깃들어있으며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이 구현되여있다.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 우리 인민의 모든 복리의 원천이다. 이 제도를 고수하며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며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담보이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 그 발양의 길을 옳게 인식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사회주의제도는 온갖 선행한 사회제도,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모든 착취계급의 사회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과거의 모든 사회력사는 지배자들의 이러저러한 교체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극소수 착취자들이였다는 사정으로 하여 제도의 본질은 언제나 반인민적성격으로 특징지어졌다. 사회주의하에서만 처음으로 착취자들의 지배가 청산되고 근로하는 대중—인민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다. 사회주의는 인류력사에 인민적인 제도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는 철저히 인민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이 제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근절하였다. 우리의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적권이며 나라의 모든 생산수단의 주인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인민대중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국가주권은 근로인민들의 혁명적전취물을 수호하며 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있다. 그것은 과거사회에서 인민대중을 탄압하고 극소수 착취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던 반동정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인민의 리익의 참된 대변자로 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수단은 전체인민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리용된다. 사회주의적생산은 착취자들의 치부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진행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성격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사회는 로동계급이 핵심으로 되는 사회이며 령도계급으로 되는 사회이다. 로동계급의 사상인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지도사상으로 되며 맑스-레닌주의당은 이 사회의 향도력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국가주권은 프로레타리아독재로 특징지어진다. 사회주의사회의 경제문화적발전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국가주권의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기능에 의하여 실현된다.

로동계급은 인류력사상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로동계급은 온갖 억압과 착취를 소멸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할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수립과 공고발전에 가장 밀접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제도를 창설하며 그것을 고수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계급도 로동계급의 핵심적, 령도적 역할을 대신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은 로동계급의 정치적, 국가적령도에 있다.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제도의 기본징표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계급적성격, 계급적본질은 이 제도의 인민적성격과 불가분리하게 련결되여있으며 통일되여있다.

로동계급에게는 사회의 리익, 인민의 리익과 대치되는 그 어떠한 리익도 없다. 로동계급은 그 사회력사적처지로 보아 인민대중전체를 해방하지 않고는 자체를 해방할수 없는 계급이다. 그들은 정권을 잡는 첫날부터 착취자들을 진압하면서 인민대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로동계급은 온갖 억압과 착취를 소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만큼 자체의 리익뿐만 아니라 전체근로인민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은 이 제도하에서의 로동계급의 령도와 인민의 리해관계의 불가분적련관을 파악할 때라야만 정확히 인식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성만을 강조하고 그 계급적본질을 잊어서는 안되며 로동계급의 령도를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성과 대치시켜서도 안된다. 그것들을 통일적으로 보는 립장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립장이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 그 사회계급적 성격은 사회주의사회가 인류사회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하여 제약된다.

사회주의제도는 공산주의사회의 첫 단계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에로 가는 과도적단계에 놓여있는 사회인 동시에 공산주의구성태에 속하는,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자본주의로부터 갓 벗어난것으로 하여 낡은 사회의 잔재, 자본주의의 잔재를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이 낡은 잔재들을 청산하면서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수행하고 경제문화발전의 높은 수준을 이룩함으로써 공산주의에로 나아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이것은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요구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를 요구한다. 여기로부터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동계급과 그 당의 령도를 고수하며 혁명을 계속하는 립장을 견지할 필요성이 나온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사회는 혁명을 계속하여 공산주의에로 나아가야 할 과도적단계에 처하여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이미 착취계급이 소멸되고 주권과 기본적생산수단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의 인민적성격이 또한 필연적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의 첫단계인 것만큼 여기서는 인민적성격을 띠는것

들이 부단히 발생하며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되는 행정에서 더욱더 증대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제도는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철저히 인민적성격을 띠는 제도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이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자본주의제도와 질적으로 구별케 하는 본질적특성이며 근본적우월성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은 온갖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였으며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하고있다. 로동계급과 맑스-레닌주의당은 인민들을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에로 인도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이며 이 제도의 다른 모든 우월성들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II]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발전을 비상히 촉진할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추동력들을 낳는다. 이 추동력들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며 이 제도의 커다란 우월성들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 생산수단의 주인이라는 자각으로 하여 국가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로동에 대한 적극성, 창발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동력이며 이 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는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데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력사의 전진속도는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이 자기들의 활동에 어떠한 의의를 부여하며 얼마나 열의와 재능을 발휘하여 일하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활동과 투쟁에 절실한 리해관계와 확고한 목표를 안겨줌으로써 그들이 사회적로동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자극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근로자들이 사회적생산에 대하여 결코 리해관계를 가질수 없으며 거기에 고상한 목적과 의의를 부여할수 없다. 거기서 근로자들의 로동은 착취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고되고 불명예스럽고 혐오스러운 일로서 특징지어진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오직 기아와 채찍의 규률, 기만과 회유로써만 생산활동에 내몰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창조적로동으로 되며 자신들과 사회를 위한 홍겹고 보람찬 일로 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사회적로동이 가지는 이러한 고상한 성격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적극성과 창발성은 집단과 사회의 리익에 대한 그들의 자각적태도의 발현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개인적리익과 사회적리익은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통일되여있다. 이것은 집단과 사회의 리익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과 자각성을 낳는 물질적바탕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석법

열성과 창발성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사회주의제도는 애국주의를 그 가장 높은 형태인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로 발전되게 한다. 파거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착취와 압박에 기초하고있는 당시의 사회제도는 증오하지 않을수 없었다. 계급사회에서도 근로인민들은 조국의 산천과 력사, 문화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될 제도를 념원하였다. 사회주의하에서 이러한 념원은 실현되였으며 인민들의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을 포괄하게 되였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발전하게 되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인민대중을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의 자유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로 고무하는 강력한 힘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새로운 추동력의 하나로 되였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우월성의 하나는 인민들의 정치도덕적 통일이다. 그것은 자본주의하에서는 전혀 있을수 없는, 사회주의제도에 고유한 특성의 하나이며 우리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인민들의 정치도덕적통일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 계급들의 목적의 공통성에 기초하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사람들의 리해관계를 호상분리시키고 대립시킨다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 단합되게 하며 통일되게 한다. 이러한 경제적토대우에서 로동계급과 농민, 인테리들의 호상관계는 우의적인것으로 된다.

리해관계의 공통성은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시킨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같이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을 접수함으로써 자신들을 혁명화하기에 힘쓴다. 이러한 사회적지반우에서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농동맹이 강화되고 전사회가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게 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은 개별적사람들의 힘의 단순한 총화에 비할바 없는 새로운 위대한 힘을 낳으며 우리 사회발전을 강력히 추동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들의 정치도덕적통일은 비판과 자기비판에 의하여 더욱 공고화되며; 비판과 자기비판은 사회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논다.

사회주의하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은 대중적성격을 띠게 되며 낡은 사상잔재와 보수주의적경향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무기로 된다. 그것은 또한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의 승리를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비판과 자기비판은 동지적인 성격을 띤다. 그것은 사람들속에서 부족점과 오유를 시정하도록 방조하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단결할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것은 비판과 자기비판이 인민의 정치도덕적통일에 기여하며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유력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연 및 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타산하면서 사회를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해 나갈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이 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로 된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

유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을 면할수 없다. 자본주의하에서 개별적자본가들의 기업활동은 세밀히 타산되고 계획되지만 사회적범위에서의 생산활동은 사람들의 통제밖에서 무계획적으로 진행된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성들을 사회적으로 인식리용하는 문제가 설수 없다. 거기서는 객관적법칙들이 맹목적으로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자연과학, 기술과학의 성과들도 제대로 리용할수 없다. 자본가들은 아무리 훌륭한 과학기술의 성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들의 리윤추구의 목적에 맞지 않을 때에는 생산에 결코 도입하지 않는다.

오직 사회주의하에서만 사회발전의 요구를 계획적, 의식적으로 실현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할수 있다. 사회주의는 객관적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설계된 로정을 따라 전진하는 제도로서 력사무대에 새페지를 열어놓는다. 사회주의는 사실 과학적인 계획에 따라서만 건설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인류는 《필연의 왕국》으로부터 《자유의 왕국》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실현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리용할수 있는것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부단한 발전에 공통된 리해관계를 가지며; 사회발전법칙들의 요구를 실현시키는데 저항하는 사회적력량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대중은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는데 다같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생산의 장성이나 기술적발전이 과잉공황과 근로자들의 빈궁화를 초래하는 자본주의하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하에서는 그것들이 항상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합법칙성을 적극 인식리용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준다. 전면적으로 전개되는 사상, 문화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자연적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와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교양한다.

우리 사회의 계획적인 건설을 위하여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이러한 조건과 가능성들에 기초하여 당과 국가가 통일적인 로선과 정책을 가지고 령도한다는 사실이다. 객관적인 합법칙성에 의거하는 전사회적인 발전의 통일적계획으로서의 당의 정책과 그 집행을 떠나서는 사회의 합목적적인 건설을 생각할수 없다.

우리 사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파악한 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자기들의 앞길을 확신한 대중의 자각적인 투쟁에 의하여 미래에로 성과있게 전진하고있다.

사회발전의 객관적요구와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의식적, 계획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사회는 나라의 전반적 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해결할수 있으며 사회의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력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할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이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였고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의 애국적헌신성과 창발성, 공동의 리해관계에 기초한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 사회와 자연의 객관적합법칙성들의 인식리용은 우리 사회에서 모든것을 높은 속도로, 전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여준다. 모든것이 높은 속도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전진운동이 가지는 기본특징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의 표시로 된다.

한 사회제도의 다른 사회제도에 비한

선진성, 우월성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전진속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와는 비할바없이 빠른 속도로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며 인민생활이 향상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높은 경제문화발전속도는 생산력의 성격에 대한 생산관계의 적응에 의하여 조성된 생산력의 자유로운 발전의 가능성에 기초하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사회주의적소유는 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광활한 길을 열어주며 그것을 강력히 추동하는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높은 속도는 이러한 선진적인 경제토대에 기초하면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사회발전의 새로운 강력한 추동력들에 의하여 달성된다.

우리 나라의 남북에 조성된 현사태는 사회주의하에서 경제, 문화, 인민생활 등 모든것이 자본주의하에서와는 비할바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국의 남북땅이 상반되는 두제도로 갈라짐으로써 지난 20년간에 조성된 판이한 두세계는 이것을 실증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는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의 락원을 이룩하였고 남반부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일제 때보다도 더한 인간생지옥으로 변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 생산력수준의 급격한 장성은, 이것과 대조적현상을 이루고있는 남조선형편에 비해볼 때 사회주의제도의 생활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북반부에서는 전후 1954년부터 1963년까지의 10년간에 공업생산이 년평균 34.8%의 속도로 발전하였는데 반면에 남조선의 공업생산은 계속 침체와 쇠퇴의 길을 밟아왔다.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협동경리제도하에서 농업생산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알곡생산량은 해방전의 2배에 달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농업생산이 계속 해방당시의 3분의 2 정도를 헤아리고있다. 땅이 메마르던 북반부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되였는데 곡창지대이던 남반부는 해마다 80만~100만톤의 량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근지대로 되였다.

사회주의는 물질적생산령역에서만이 아니라 과학, 교육, 문학, 예술, 보건 등 분야에서도 급속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요구로부터 출발하는것이며 사회의 경제적토대의 급속한 공고발전에 의하여 안받침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이 전체인민에게 속하며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의 향상과 사회주의생산의 확대에 리용되고있다. 1964년에 국민소득은 1949년에 비하여 4.8배, 1953년에 비하여 6.9배로 장성하였다. 1964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임금은 1949년에 비하여 2.2배로 장성하여 그들에게 근심걱정 없는 생활을 보장하고있다. 그런데 계속 하강선을 걷고있는 남조선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5.16》 이후에만도 약 30%나 저하되여 그들의 최저생활비의 4분의 1에도 달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북반부에서는 농민들의 실질소득도 훨씬 증가하여 정전직후 그처럼 곤난하던 빈농민문제가 해결된지 오랬으며 전반적인 농장원들이 중농 혹은 부유중농의 수준에 올랐다. 1964년에 협동농장의 호당분배몫은 1954년에 비하여 알곡은 3.3배, 현금은 15배로 장성하였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이고있으며 해마다 100만호 이상의 절량농가가 발생하고있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자라나게 한다. 사회주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사회적 및 물질문화적조건들을 조성하여준다.

북반부에서는 지난날 문명세계와 멀리 떨어져있던 천대받고 억압당하던 로동자, 농민들, 그들의 자녀들이 문명하고 지혜있는 사람들로 자라나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민족간부로 활동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수립된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 어디서나 배우고 가르치는것이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되는 우리 사회의 생활적요구와 관련되여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있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복무하며 서로돕고 이끄는것을 가장 아름다운 일로 간주하고있다. 사람들의 이러한 변화는 오늘 남반부에서 사람들을 더욱더 무지몽매로 이끌며 타락의 구렁텅이에로 몰아넣는 비참한 사태에 대비할수 없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있다.

이 모든 우월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군사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는 그 어떠한 원쑤들의 침해도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할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강력한 혁명기지로 전변되였다.

[Ⅲ]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결코 저절로 발양된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모든 우월성은 인간의 능동적활동, 무엇보다도 이 사회의 지도적력량인 맑스-레닌주의당의 정확한 조직자적 및 교양자적역할을 전제로 하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킴에 있어서 자체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은것은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우리 당은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능숙하게 리용하면서 생산력의 성격에 대한 생산관계의 적응의 법칙의 요구를 제때에 실현시켰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를 촉진하였다. 당은 창설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면서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공고히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특히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중심적임무로 제기하고 그 실현에 주력하였다.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령도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과 가능성들을 원만히 리용할수 있게 하는 정확한 방침을 실시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면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켜 관철하여 왔다. 계급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그 우월성의 발양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계급로선을 관철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적진지를 강화하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모든 활동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을 고수하여야만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을 튼튼히 꾸리고 그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이 원만히 실현되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시키는데 일관된 주의를 돌려왔다.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전체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력을 높여야만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은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정부의 주위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적력량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계급로선에 기초하여야만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시킬수 있으며, 군중로선을 떠나서는 계급로선이 무의미하다.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은 로동계급의 계급진지가 강화되고 그 령도적역할이 제고되는 기초우에서만 보장될수 있다. 계급로선에서 리탈할 때에는 군중로선을 관철시킬수 없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제도자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그러나 계급로선을 관철하는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계급로선을 관철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력량을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데로 조직동원하기 위한것이다. 로동계급은 광범한 군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만 자체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도 이 사회의 전체근로자들의 단결된 력량에 의거할 때라야만 전면적으로 발양될수 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의 계급적로대를 부단히 공고히하면서 전체인민의 정치도덕적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당은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은 혁명발전의 매시기에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주되는 대상을 명백히 규정하였으며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혁명의 편에 끌수 있는 모든 계층들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적극적으로 교양개조하는 능동적인 방침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당의 정책은 각계각층군중의 열성과 적극성을 더욱 제고하였으며 전체인민의 단결을 강화하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그러나 이때 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동시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과 정부주위에 단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제도가 조성하는 인민들의 정치도덕적통일의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시키면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극소수 의식적인 악질분자들을 제외하고는 전체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공산주의로까지 끌고가야 하며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 립장을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의 이러한 립장이야말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에 부합되는 가장 정확하고 혁명적인 립장이다.

계급로선에 기초한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온 우리 당의 립장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위대한 천리마운동에서 뚜렷이 확증되였다. 천리마운동과정에서 전체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이 고도로 발현되였으며 인민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동지적인 단결협조가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이 운동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우리 당은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시

킴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부단히 제고시키는데 일관한 주의를 돌려왔다.

사회주의는 이 사회의 주인들인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높일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하고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높이는것은 그들의 적극성, 창발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의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다》(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사회주의하에서는 근로대중의 자각성을 제고시키며 그것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일보도 전진할수 없다. 사회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자각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건설할수 있다. 야수적인 경쟁과 기아의 규률에 의거하여 로동아 강요되는 자본주의하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하에서는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사상이 없이는 로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나올수 없다.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적로동과 전반적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창발적으로 참가하게 하자면 그들속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적리익에 대한 자각적태도를 배양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에 대한 고상한 의무감으로 무장시킬때라야만 그들을 사회적로동과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에 주인답게 참가시킬수 있다.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기 위하여 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는것은 사회주의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근로자들의 로동에는 질적인 차이가 남아있고 사람들의 의식수준에도 제한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분배의 실시,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의 보장은 객관적인 필연성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물질적자극을 옳게 적용함이 없이는 광범한 근로대중을 사회적로동에 동원할수 없으며 그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를 배양하는 과업도 실현할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에 대한 적극적태도는 사회적리익과 개인적리익의 통일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서는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에 다같이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고 물질적관심만 내세우는것은 사회주의의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근로대중의 자각성을 약화시키고 리기주의적경향을 조장함으로써 생산의 장성과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 반면에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성을 무시하고 사상의식만을 강조하는것은 군중들을 리탈시키며 그들을 사회적로동에 동원하는것을 방해할뿐만 아니라 로동에 대한 자각적태도를 배양하는데도 장애를 주게 된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로력열의를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상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결합시키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이 결정적역할을 논다는데로부터 출발하면서 일군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도록 하였다.

당은 당사업을 강화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시켰으며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을 당정책교양과 결부하여 꾸준히 전개하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견지한 중요한 방침의 하나는 과학기술적인 지도를 근로자들의 앙양되는 열의에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의 인식에 기초한 과학적인 계획과 지도는 이 사회의 모든 우월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전 사회적범위에서의 과학적인 조직과 지도가 없이는 사회주의사회를 움직여 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대중의 창발성, 적극성도 정치사업에 과학적지도가 결합될 때라야만 높이 발양된다. 과학적인 계획과 조직에 의해서만 근로자들에게 명백한 전망과 그 실현방도를 제시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추진을 위하여 대중의 로력투쟁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와 정치적지도를 반드시 결합하여야 한다. 과학적지도는 정치사업의 선행이 없이 관철될수 없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수 없다. 우로부터의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사업태도의 결합은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과학적지도의 정확한 관철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반면에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정치적지도는 과학기술적지도를 떠나 그 사명을 다할수 없다. 모든 분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해당한 사업내용과 조건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적지도가 있을 때라야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항상 이 사회의 현재와 장래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대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였다.

당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현대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도입하며 민족기술간부의 대렬을 급속히 확충하고 생산에 대한 과학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대중의 의식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사업에 과학기술적인 지도를 결합하는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앙양된 로력열의는 더욱큰 물질적성과들을 가져올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성과적추진을 보장할수 있었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관철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청산리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은 당의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청산리방법의 본질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선행시켜 군중을 발동하며 지도에서 과학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우리 당은 경제관리에서 청산리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와 기업적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확립된 이 관리체계와 방법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 완전히 부합되는 맑스-레닌주의적체계이며 방법이다. 이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와 개인의 책임성을 결합시키며 생산에 대한 통일적인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우의 지도를 대중속에 최대한으로 접근시킬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이것은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당의 원칙을 더욱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하며 경제관리 실천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견지히 관철시킬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모든 사업을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수 있게 한다. 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더 면밀히, 과학적으로 세우는 문제도, 모든 생산수단들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문제도, 전반적경제관리를 개선해나

가는 문제도 이 체계에 의하여 훌륭히 해결될수 있다. 결국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기업적농업지도체계는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는 기초우에서 사회주의하에서 작용하는 모든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잠재력을 훌륭히 조직동원할수 있는 위력한 체계이며 방법이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 당에 의하여 확립된 이 체계와 방법이 사회주의제도에 고유한 특성을 전면적으로 체현한 가장 정확한 관리형태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이 체계를 더욱더 완성하고 매개일군들의 사업작풍과 지도수준을 이 체계의 본질적요구에 상응하게 개선함으로써 그 위력을 훌륭히 발양시키는데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중요한 예비를 보고있다. 매개 일군들이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주관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작풍을 근절하며 모든 사업에서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사업기풍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체계의 위력은 훌륭히 발휘될것이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양될것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당이 취하고있는 모든 방침들의 기저에는 혁명적군중로선과 함께 우리 당의 확고한 주체적립장이 놓여있다.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은 맑스-레닌주의적원칙을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옳게 적용할때에만 보장될수 있다.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특성,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자체의 우월성을 발양할수 없는것이다.

또한 대중을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며 그들의 주인다운 자각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 자력갱생의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자각성, 창발성은 자신의 힘으로 능히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다는 신심을 가질때라야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남에 대한 의존사상, 사대주의사상이 남아있는 한 근로자들속에서 주인다운 자각이 나올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회주의는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를 높이려면 그들을 자기 민족의 우수한 애국전통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자기 나라력사와 전통을 잘 알고 민족적자부심을 가지는 조건에서만 훌륭히 발휘될수 있다.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져야만 사회주의제도가 열어놓은 유리한 조건을 원만히 리용할수 있다.

경제건설에서도 자력갱생의 립장에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원칙을 관철시킬때라야만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이러한데로부터 우리 당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여 왔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조선의 현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자체의 정책을 규정하였다. 확고한 자주성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조선혁명의 진정한 주인

이 될수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적극성, 창발성, 주인다운 자각성을 고도로 발양시킬수 있었다.

또한 당의 자립경제건설로선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는 다방면적, 종합적으로 발전하여 나라의 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었으며 짧은 시일내에 사회주의건설의 추진과 인민의 생활향상을 자체의 힘으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등도 당의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현실이 제기하는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에 맞는 선진적인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과업들이 옳게 해결되여 왔다.

우리 당의 확고한 주체적 립장은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견지하면서 어떠한 편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있게 한 담보였다.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과 함께 계속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　*　*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백방으로 발양시키는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인민의 생활에서 사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가능성들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 수 있게 하는 담보이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화하며 그 우월성을 가일층 발양시키기 위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인식시켜야 하며 그것을 발양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에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게 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에 대한 교양은 구체적인 사업과 생활을 두고 진행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자각적립장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증산과 절약투쟁을 더욱 강화하는데 적극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당정책을 심오히 연구하자

윤 영 기

일군들이 당정책을 심오히 연구하고 그에 정통하는것은 혁명가로서의 일차적인 임무로 되며 혁명적실천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기본열쇠를 가지는것으로 된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우리 나라의 현재와 장래의 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혁명과 대중이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 명백한 투쟁목표를 제시한다.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작성된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전체인민의 절실한 리익, 요구들이 구현되여있으며 그로부터 제기되는 혁명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들이 과학적으로 천명되여있다.

우리 당은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 나라 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인으로서의 립장에 확고히 서있으며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정신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튼튼히 의거하고있다.

우리 당정책은 그 혁명성, 정당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정책의 빛나는 구현이며 결실이다.

당정책—이것은 우리 나라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키며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등대이며 라침판이다.

일군들이 우리 당정책에 정통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혁명과 건설을 위한 유일무이한 혁명적리론과 행동의 지침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지향을 체득하는것으로 된다.

자기 당의 정책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맑스-레닌주의서적을 읽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잘 알고있어도 그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써먹을수 없으며 자기 앞에 주어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일군들은 우리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그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동요없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완강히 전개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정책은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천과 결부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의 지침이다. 이것을 파악하고 있다는것은 자를 가지고있는것이나 다름 없다. 모든 현상을 다 이 자를 가지고 잴수 있다. 이것이 당정책에 맞는가, 안 맞는가, 어느 길로 가야 당정책을 관철할수 있는가를 판단해야만 시비를 가릴수 있고 원칙을 고수할수 있으며 제기된 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있다》(《강서군당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그 어느 부문에서 일하든지, 혁명위업의 어느 단위, 어

느 초소에서 일하든지 누구나가 다 당정책을 심오히 학습하여야 한다.

현시기 당은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일군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더욱 심오히 연구할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요구이며 조선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이다.

* *

당정책을 심오히 연구하는것은 일군들의 지휘능력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한층 높이기 위하여 제기되는 선차적이며 필수적인 요구이다.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되고있는 혁명과업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굳게 다지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며 국제 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여야 할 이 모든 혁명과업들은 례외없이 우리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실천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이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리는 지도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을 어떻게 지휘하며 조직지도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과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 자신이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이 제도의 우월성과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혁명적으로 그리고 능숙하게 대중을 조직동원하는가에 따라 당정책집행에서의 성과여부, 사회주의건설의 촉진여부가 크게 좌우된다.

우리의 일부 일군들은 아직도 우리나라현실발전의 눈부신 전진속도와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자기의 지휘능력, 지도수준을 따라세우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진 도상에서 적지 않은 부정적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

우리 당은 지도일군들의 지휘능력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따라세우는 문제에 응당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그의 해결방도들까지 명시하고 있다.

지휘성원들의 지휘능력을 제고한다는것은 당정책집행에서 항상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를 틀어쥐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일군들이 높은 지휘능력을 소유하여야 당정책집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옳게 찾아낼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일군들이 우리 당정책을 심오히 연구하고 그것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라야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오직 우리 당정책으로 자신을 확고히 무장한 일군만이 당정책집행에서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파악하고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리론과 과학기술지식들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능숙하게 구사할줄 아는 유능한 지휘관으로 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전당에 학풍을 수립하고 모든 일군들이 정력적으로 학습할것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제기하면서 그중에서도 당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문제를 가장 선차적이고 중심적인 과업으로 제기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정책에 대한 심오한 연구는 일군들의 지휘능력을 높여줄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상수양을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도 된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전사이며 혁명가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것을 가르치고있다. 이것은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수양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일군들의 사상수양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다. 일군들은 일상적인 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당정책연구를 비롯한 모든 당정치학습을 잘하며 당정책집행을 위한 혁명적인 실천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단히 단련되며 세련되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실천활동과 일상생활은 결국 당정책을 접수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련관되여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당정책을 무조건접수하고 옹호하며 그것을 심오히 연구하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적각오정도, 당적수양정도를 표시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일군들은 혁명가로서의 고상한 사상-도덕적풍모를 소유하기 위해서 당정책을 거울로 삼아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항상 거기에 비추어보며 사상 상의 착오, 사업작풍과 방법상의 부족점들을 찾아내고 그러한것을 발로시킨 원인을 알아내여 극복하도록 일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은 당정책의 요구에 부합되게 자기의 사상수양을 부단히 진행할수 있다.

일군들의 사상수양정도는 결국 실천활동과정에서 그들의 사업작풍과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의 당정책학습은 낡은 사상잔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온갖 주관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낡은 사업작풍과 방법을 청산하는 《해독제》로 되며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하는 가장 훌륭한 방도로 된다.

당정책에 대한 심오한 연구는 일군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수 있게 한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 당정책은 우리 나라현실에 구체화된 산맑스-레닌주의이다. 우리 당정책에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어데까지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자립의 혁명정신과 의지가 관통되여있으며 집중적으로 표현되여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우리 당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은 곧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당적원칙을 견결히 지키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혁명활동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다.

만일 일군들이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할 때에는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여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독자성과 자주성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혁명적실천투쟁에서 대국주의, 사대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좌우경적기회주의경향들과도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없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정책을 심오히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체득함으로써만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해나갈수 있는 참된 당의 전사로 될수 있다.

*　　*

당정책을 심오히 연구하는데서 제기되는 선차적인 요구는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일군들은 당정책을 자기의것으로 체득해야지 그저 문구나 외워가지고는 안된다. 일군들은 당정책의 본질과 그것이 나오게 된 근거를 똑바로 알아야 능동적으로 활동할수 있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당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며 당이 그 문제를 제기한 근거를 정확히 리해한다는것은 우리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가 무엇이며 그 문제에 대한 당의 의도가 무엇인가, 인민 대중의 요구가 무엇이며 해당시기에 풀어야 할 중심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알아내는것을 의미한다.

당정책에 담겨진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여야만 비로소 당정책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수 있고 이것을 자로 하여 실천활동에서 창발성과 능동성을 발휘할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연구를 개별적인 문구를 외우는데 그치거나 그것을 통째로 삼키는식으로 대치한다면 그 문제의 진수를 알수 없으며 따라서 실천활동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질수 없고 좌왕우왕하면서 이러저러한 편향을 발로시킬수 있다.

또한 당정책을 본질적으로 깊이 리해하지 못한 일군들은 그것을 실지 사업에서 한갖 구호로만 제기할따름이지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며 그 집행에서 중요한것을 놓치고 부차적인것에 매달리며 지어는 당정책집행을 중도반단하는데까지 이르게 된다.

당정책의 본질, 그에 담겨져있는 당의 의도를 정확히 리해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리론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 한다. 당 정책은 맑스-레닌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작성되여 있으니만큼 리론적으로 깊이 연구할때만이 그 본질을 더 잘 알수 있다.

우리 당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 문헌을 연구하는 경우를 실례로 들수 있다. 이 문헌에는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림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제반 대책적 문제들이 제기되여있다. 또한 지도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며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선행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이 모든 문제들의 본질을 심오히 리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들과 경제적공간들의 인식리용문제,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관적 요인, 대중의 자각성이 노는 역할에 관한 문제, 당조직정치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 문제들과 밀접히 결부시켜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리론적인 깊은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 그 본질을 똑똑히 알게 되며 또 그것이 자기의것으로 확고히 습득되여 실천활동의 지침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이 당정책학습을 맑스-레닌주의리론학습과 결부시켜 깊이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당정책학습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폭 넓게 연구하는것이다.

당이 매시기에 제기한 정책들을 정확히 리해하자면 그것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그와 련관되여 있는 부문의 정책들을 폭 넓게 연구하여야 한다.

새로운 당정책은 선행 당정책 및 다른 부문의 당정책과 련관되여있다. 현행 당정책에는 그 부문에 대한 지난 기간의 당정책이 고려되여있으며 또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이 고려되여있고 안받침되여있다. 따라서 해당정책을 정확히 리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선행정책을 결부시켜 연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해당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만 그 문제에 대한 당의 기본요구는 무엇이고 그것이 지난기간에는 어느 정도로 해결되였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이에 기초해서 현시기 그 문제에서 기본적인 요구가 어데있다는 것을 옳게 인식할수 있다.

또한 어떠한 부문의 당정책도 그것을 다른 부문의 당정책과 관련시켜 연구하여야 더 잘 리해할수 있다. 가령 해당시기의 경제정책에서 중공업정책과 경공업정책 및 농업정책은 서로 련관되여있다. 농업부문에서도 알곡생산문제와 축산업문제에 대한 당의 정책들은 서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당의 공업정책을 잘 알기 위해서는 농업정책도 함께 연구하여야 하며 농업정책을 전면적으로 더 잘 리해하기 위해서는 공업정책도 알고 알곡생산을 위한 당의 방침뿐 아니라 축산업발전을 위한 당의 방침도 잘 알아야 한다. 어느 한부문의 당정책도 다른 부문의 당정책들과 련관시켜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폭 넓게 연구하지 않고 일면적으로 단편적으로 연구한다면 그 인식과 집행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면할수 없다.

당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폭 넓게 학습한다는것은 결코 이것저것 널어놓는식으로 산만하게 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것은 당정책연구에서의 중심과 선후차를 옳게 가려내는것이다.

물론 해당시기 자기 부문앞에 제기된 당면한 혁명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당정책연구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정책연구의 순차는 우선 당면한 문제의 연구에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점차 폭을 넓히여 다른 부문 당정책도 연구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여야 한다.

자기 부문의 당정책연구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 당정책에 기초해서 자기 사업을 리론적으로 총화하는 형식으로 학습하는것이 필요하다.

당정책에 기초해서 자기 부문사업을 리론화한다는것은 자기 부문사업에 대한 당의 의도와 요구를 리론적으로 체득하는것을 의미하는만큼 그것은 실천활동에서 일군들이 더욱 정확한 사업방향과 방도를 내세울수 있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 대한 지도리론과 판단력을 더 잘 소유할수 있게 한다.

만일 일군들이 자기 부문정책을 리론적으로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면 맑스-레닌주의원칙과 객관적요구에 합치되는 지도리론과 정책적 안목을 확고히 소유할수 없을것이다.

당정책을 자료 삼아 자기 부문사업을 리론적으로 분석총화함으로써만

해당부문사업에서 거둔 긍정적인 성과들을 종합체계화할수 있으며 나타난 결함들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수 있다. 이것은 당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긍정적인 경험들을 일반화하며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정확히 제기할수 있게 하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한다.

금속공업성당위원회에서 조직진행한 당정책학습의 경험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현행정책집행에서 걸린 문제를 놓고 그것을 리론적으로 학습해나가는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 방법은 사실상 당정책집행에서 걸린 문제를 푸는 좋은 방도로 되는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일군들의 정책적 안목과 맑스-레닌주의적 판단력을 높여주는 방법이기도 한것이다.

당 정책학습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자면 책임일군들이 학습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의 직접적인 조직집행자인 동시에 선전자이다. 사실상 당정책이 당원들과 대중속에 침투되는 과정은 지도일군들이 아래일군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알려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지도 일군자신들이 당정책연구를 심속있게 진행하지 않으며 당정책의 본질적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아래일군들과 대중에게 당정책을 정확히 전달하고 깊이 침투시킬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아래일군들과 대중이 당의 의도로 확고히 무장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지도일군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혁명적인 학풍을 세우고 당정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또한 아래일군들에게 학습조건을 잘 보장해줄뿐 아니라 직접 정책학습을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학습방향을 옳게 이끌어 나가며 토론을 활발히 진행케 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결론을 지어주는것 등은 다 지도일군들이 응당하여야 할 일이다.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대중속에서는 당정책집행을 위한 창발적인 의견들이 나올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이것을 적극지지해주고 실천에 도입할 대책을 제때에 세워주어야 한다.

당정책연구가 이처럼 심화되면 학습이자 곧 사업으로, 사업이자 학습으로 되여 학습과 사업은 불가분적으로 통일되면서 다같이 은을 내게 되는것이다.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는 목적은 결국 그것을 실천활동에 더 잘 구현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당정책연구를 심화하는 동시에 그것을 자기 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며 이악하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하자면 당정책의 본질적요구를 충분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자체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대책안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당정책집행대책을 당의 요구와 자체실정에 맞게 옳게 세우는것은 당정책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중요한것은 전형적인 한단위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시험적으로 그 집행대책안을 적용해보는것이다. 시험적인 실천과정에서 그의 정확성여부를 검토하며 불비한 점은 군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거하여 보충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당정책집행을 위한 대책안이 정확하다고 인정되였을 때 비로소 자기

단위의 전반에 걸쳐 실천하는데 들어서야 한다.

당정책집행대책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도 우선 지도일군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방식상학을 조직하여 아래일군들에게 그 실행방법을 가르쳐주는것이 필수적인 공정으로 요구된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방식상학은 아래일군들의 사업수준을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동시에 또 당정책을 모든 단위에서 정확히 관철시킬수 있게 하는 방도이기도 하다.

방식상학은 잘 준비되고 조직되여야 그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한다. 당정책 집행을 위한 실천적대책이 과학적이고 구체적이여야 하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지만 그것을 실천적으로 시험해보는 방식상학과정에서도 지도일군들은 제기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결론과 처리대책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진지하게 조직된 방식상학만이 아래일군들로 하여금 산지식을 배울수 있게 하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동요없이 당정책을 관철해나갈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

당정책집행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것은 당정책연구를 심화시키고 충분한 인식단계를 거칠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이 없이 일군들이 자기의 주관주의적인 구상과 개인독단을 내려먹이면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게 될것이며 결국은 당정책을 옳게 집행하지 못하거나 지어는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초래할수 있다.

당정책은 그것을 집행할 전체성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일치한 견해에 도달하며 일단 합의되고 결심한 다음에는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가져야 그것이 물질적힘으로 전환될수 있다.

당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초에는 열정도 있고 기세도 좋다가 다소의 난관에 부닥치면 곧 그것이 식어버리고 소심하여지며, 하면 말면 하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난관이 조성되여도 굴하지 말고 사업을 정력적으로 앞으로 전개해나아갈줄 알아야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높은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나갈때 우리 당의 정책은 모든 단위, 모든 령역에서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할것이다.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한 수 동

문화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후 사상, 기술혁명과 함께 계속 실현되여야 할 중요한 혁명임무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중심적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은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을 의미할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정신적, 문화적생활분야까지를 포함한 사회생활전체 령역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모든 성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높은 문화와 선진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게 하여 사회를 문화적으로 개조하고 생산을 고도로 발전시킴으로써만 자체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앞에는 경제토대를 축성하는 사업과 함께 과거착취사회에서 오래동안 과학과 문명에서 멀리 떨어졌던 근로자들을 계몽교양하며 그들의 정치적각성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를 창건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제기된다.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목적은 결국 전체근로자들에게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날로 장성하는 물질적, 문화적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문화혁명을 부단히 추진시켜 근로자들을 무지와 몽매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며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선진문화와 기술을 소유한 인간으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나라의 전반적 문화수준을 한층 높이는데서 농촌문화혁명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문화와 문명은 도시에 편중되고 농촌은 무지와 몽매를 강요당하였으며 도시의 수모를 받았다. 이러한 농촌을 문화적으로 개조하며 수백만의 농업근로자들을 교양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수준상에서의 차이를 없애지 않는다면 농촌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문화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농촌문화혁명은 기술혁명과 사상혁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기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혁명을 하여야 하며 사상혁명도 문화혁명을 떠나서는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문화혁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첫공정이라고 말할수 있다》(김일성).

농촌기술혁명은 현대적인 기술과 선진농업과학의 성과를 농업생산에 도입하고 보급하는 과정인만큼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떠나서는 그것을 생각할수 없다. 농촌문화혁명을 수행하여 농업근로자들을 높은 기술과 과학지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은 현대적인 기술을 농업생산에 더 잘 적용할수 있게 하며 비문화적인 생활습성을 청산하고 생산 및 생활문화를 높이며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수 있게 한다.

농촌문화혁명은 또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발전을 촉진하며 로동계급의 세계관으로 그들을 튼튼히 무장

시킬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농촌문화혁명은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을 퇴치하고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농촌건설에 더 잘 참가하게 하며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사회주의의 전반적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문화혁명은 짧은 기간내에 일거에 해결될수는 결코 없으며 최대의 견인성을 발휘하여야 하는 장구한 사업이다. 이것은 농업근로자들을 발전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며 농촌기술간부를 많이 양성하며 낡은 사상잔재에 근원을 두고있는 락후한 생활양식, 관습을 청산하며 농민들로 하여금 살림살이를 알뜰히 조직하고 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려나가게 하는 력사적 변혁과정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과거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처지에서 해방된 우리의 실정에서 농촌문화혁명은 더욱 절실하며 많은 난관이 제기되는 어려운 과업이다. 그것은 일제의 악독한 우민화정책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근로자층이 문맹상태에 있었고 민족기술간부가 거의 없었으며 생산기술적측면에서도 락후한 유산을 물려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나라의 사회경제적형편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농촌문화혁명의 기본내용을 규정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당의 농촌문화혁명수행에 관한 정책을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농촌문화혁명과 학교

농촌문화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농업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이다.

인간의 지식은 문화성의 기초이며 실천활동의 무기이다. 협동농민들에게 이 무기를 소유시킴이 없이는 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을 원만히 진행할수도 없고 협동화된 농촌을 옳게 운영해 나갈수도 없으며 현대적기술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론할수도 없다.

더우기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이 확립되고 높은 기술문화를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들을 육성하는 사업은 일반 및 기술지식수준의 제고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농업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그 자체가 문화혁명수행의 중요내용으로 되는 동시에 농촌문화혁명을 강력히 전개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당은 농업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켜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다. 그리하여 농촌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7년제까지의 일반지식을 소유하게 되였다. 농촌에 기술학교가 광범히 설치되여 수많은 농촌청년들이 기술교육을 받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촌청년들이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육성되여 협동농장들에서 문화혁명, 기술혁명의 역군으로 일하고있다.

농촌에서 학교는 자라나는 세대들을 교육교양하는 기관으로 될뿐 아니라 광범한 농촌주민들속에 현대과학과 기술, 문화를 보급하는 기지로 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기술력량을 길러내는

사업, 농촌의 생산문화를 제고하는 사업, 농업근로자들에게 문화와 일반지식을 보급하는 사업 등에서 학교는 더욱 큰 역할을 놀아야 한다.

농촌학교들에서는 교육내용을 더욱 개선하여 쓸모있는 인재를 더 많이 길러내며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을 높이는데 더욱더 큰 작용을 놀아야 한다. 농촌학교들은 학생들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서적 소양을 배양하며 자라나는 세대를 농촌의 알뜰한 살림군으로 키우는데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모든것을 아껴쓰고 깨끗이 거두도록 습성시키며 집단과 공동재산을 사랑하고 생활을 알뜰히 조직하도록 교양하여야만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행동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 문화수준제고에서 성인교육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성인교육은 사회주의건설을 직접 담당하고있는 농촌의 비교적 나이 많은 주민층에게 새지식을 주는 좋은 방도의 하나이다.

해방직후 당은 전체근로자들을 무지와 몽매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문맹퇴치와 대중계몽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여 짧은 기간내에 문맹을 퇴치하였다. 우리 당은 생산단위들에 성인교육체계를 확립하여 농민들도 초급중학교 이상의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농촌의 자연부락의 분포상태, 농장원들의 구성과 생산활동의 특성, 통학거리, 농업생산의 계절적제약성 등을 잘 고려하여 근로자학교, 근로자중학교를 광범히 조직하였고 기술학습반, 기술기능전습제 등을 조직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교육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농촌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고 농업부문 대학을 증설하였으며 통신교육체계를 확립하였다.

농촌학교들은 농민들의 전반적수준을 더 높이기 위하여 성인교육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학구역내 근로자학교, 근로자중학교강사들을 위한 강습회, 교육방법연구회, 경험교환회들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각이한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교원들과 학생들은 또 자기 마을, 자기 인민반과 거리에서 문화혁명의 선봉적역할을 수행한다. 만일 방대한 수의 학생집단들을 옳게 교양주어 자기 자신과 자기 집부터 문화사업에서 모범이 되게 하고 마을과 거리에서 문화혁명의 선두에 나서게 한다면 전체 주민들속에서 문화적변혁을 일으키게 할것이다.

이리하여 학교의 역할을 각방면으로 높이는것은 농촌문화혁명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농민들의 생활문화의 제고

농촌에서 나라의 자원을 잘 관리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경제사업을 과학적타산밑에 조직운영하는것은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아무리 농업생산이 장성되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이 강화되여도 농촌살림살이를 되는대로 하거나 낡은 생활습성을 그대로 가지고있을 때는 잘 살수도 없으며 문화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수도 없다.

《농촌에서 온갖 락후한 생활양식과 생활관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우리는 교육, 보건, 주택조건, 문화후생시설 기타 모든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더욱더 축소시키며 그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할것이다》(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농민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낡은 습성, 관습을 그냥두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고치며 살림살이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해나갈것을 기대하는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므로 농촌주민들속에서 계몽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며 공산주의교양을 꾸준히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당과 국가에서는 막대한 자금, 자재와 로력을 투자하여 모든 농촌에 문화주택들과 학교, 구락부, 민주선전실, 리발소, 목욕탕 등 각종 문화후생시설들을 지어놓았다. 이러한 후생시설들을 잘 보호관리하여 대중계몽사업과 문화생활에 잘 리용함으로써만 농민들의 생활문화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표현으로서 생활면에서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할뿐 아니라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한 생활문화를 확립하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

생활환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가정을 알뜰히 꾸리며 주위환경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비록 오막살이에서 살면서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살림을 윤나게 해왔다. 우리는 조상전래의 훌륭한 미풍을 살려 살림방과 부엌을 잘 거두는 동시에 집주변을 아담하고 아름답게 꾸리는데 힘써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고상한 정서를 안겨주며 생활을 명랑하고 유쾌하게 할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된다. 집집마다 꽃밭과 남새밭, 과수목을 조성하고 잘 가꾸며 울타리도 규모있게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농가들이 어데서 보나 아담하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안겨주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것은 사람들의 교양에 적극적인 영향을준다.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잘 하고 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인식시키는데 있어서도 자기 환경, 자기 향토부터 훌륭하게 꾸며놓는것이 중요하다.

농촌의 비문화성을 극복하는데서 위생문화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생문화사업은 우리 제도하에서 가장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촌진료소일군들은 정상적으로 농촌주민들속에 들어가 해당지역의 실정을 당의 보건정책과 결부시켜 해설선전하여 그들의 위생지식을 높여주며 위생열성자들을 통한 정상적인 위생계몽선전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문화위생적으로 사는 습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오늘 농촌의 로력구성에서 녀성들의 비률이 적지않으며 농촌의 문명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는것을 고려할 때 녀성들에게 자녀교양과 가정살림을 잘 돌볼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이 필요하다. 가정의 주부로서의 녀성들의 생활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 일면만 생각하는 현상과 어린이들의 보육에 대한 무관심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다.

협동농장지도일군들은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을 잘 꾸려주며 보육원, 교양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기 지방의 유리성을 리용하여 원아들의 영양을 개선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리하여 우리는 농촌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리며 생활에서 나타나는 낡은 습성을 퇴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상차이를 점차 극복해나가야 할것이다.

농촌문화혁명과 군의 역할

농촌문화혁명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군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이며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다. 군은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된후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중심적인 혁명과업으로 제기되고있는 기술혁명,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촉진시키는 거점으로 되고있다.

군은 그 위치와 보유하고 있는 물질기술적 및 문화적수단들로 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각방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를 옳게 실현하며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이리하여 군은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농촌사업에서 반드시 관철하여야 할 기본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지역적단위로, 거점으로 되고있다.

국가는 군을 통하여 농촌에 대한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실현하게 되며 감독통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농촌에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며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농촌의 관리간부들과 기술일군들을 길러내는 사업, 농민들의 전반적인 사상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 사업 등 이 모든 사업은 군이 자체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전반적사회주의건설과 문화농촌건설에서 군이 차지하는 이러한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은 군사업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군의 역할이 제고된 결과 농민들의 사상, 기술,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대중이 당주위에 튼튼히 결속되게 되였으며 농촌문화혁명을 촉진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나라의 경제, 문화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째여져가고있는 우리의 현실생활은 농촌에 대한 군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지도기능을 일층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호주로서의 군인민위원회는 군내의 자연경제적조건, 온갖 물질기술적수단들과 잠재하는 예비들을 동원하여 농촌을 성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 오직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하여야 농촌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갈수 있으며 농촌지원에 대한 군내 해당 행정기관들의 사업도 계통적으로 감독통제할수 있다.

군인민위원회는 군내 전반적인 경제문화부문의 실정을 료해장악한 기초우에서 당면하게 또는 전망적으로 끌고나갈 사업대상을 규정하고 한고리씩 풀어나가기 위한 《섬멸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일을 벌려만놓고 이것도 저것도 닥치는대로 하는 식의 사업방법으로는 농촌문화혁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추진시킬수 없다. 군인민위원회들에서는 리인민위원회들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창조된 우수한 경험을 장악하고 그것을 보급일반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모범적인 협동농장, 부락들의 위생문화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사실들을 방송과 예술수단을 통하여 소개선전하며 영화, 신문, 도서를 비롯한 선전수단들이 농촌에 더 잘 들어가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문화성과 자각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모든 사업에서 한단위에 모범을 창조해놓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단위를 추켜세우며 모든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이 몇백번의 강연이나 명령, 지시보다 더 낫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여기에서 군소재지를 잘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실물교육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군소재지는 도시의 선진적인 문화와 생활풍습을 농촌에 보급하는 기지로 된다. 군소재지를 아름답게, 아담하게,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려 농촌이 이를 따라오도록 하여야 한다》(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농업근로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군소재지를 모든 방면에 걸쳐서 잘 꾸리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의 표본이 되게 하는것은 농촌에 선진문화를 들여보내는 과정으로 되며 농민들에게 실물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군소재지의 도로, 주택, 편의봉사시설, 학교, 병원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며 군생활문화관, 도서관 및 영화관을 통하여 대중계몽사업, 생활문화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각방면으로 농촌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는 군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화성이 높을 때 그것은 농촌생활에 직접 큰 영향을 줄수 있다.

농촌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부터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농촌문화혁명은 장기간에 걸친 낡은 생활에서 형성되여 온 유습을 청산하는 투쟁과정인것만큼 우선 일군들속에서 종전에 농촌을 홀시하여 온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농촌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게 해야 한다. 종전에 사람들은 농촌의 생산조건의 특성으로하여 문화적인 생활과 환경을 꾸리는것은 곤난하다고 그릇되게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생각은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장애로 된다. 오늘 아담하게 꾸려진 문화농촌들의 현실은 이러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농촌문화혁명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군을 비롯한 리의 지도일군들이 우선 자신들의 문화수준을 한층 높이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데서 이신작칙해야 한다.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의 성과의 기본은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군당위원회는 농촌당조직들의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사회단체들이 문화농촌건설에서 주인이 되도록 키잡이를 옳게 하여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알뜰하고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며 농업근로자들의 기술, 문화수준을 높이며 생활에서 낡은 면모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농촌문화혁명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의 생산과 분배

전 영 국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는 동시에 분배를 옳게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 경제생활의 근본문제들중 하나이다. 그것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며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파거의 모든 계급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제도의 착취자적성격으로 하여 물질적재부의 생산과 분배가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된 재부는 지주, 자본가들의 수중에 들어가며 아무리 많은 물질적부가 생산된다 하여도 절대다수 근로자들의 살림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인민의 주권이 세워지고 생산수단이 사회의 수중에 장악된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이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진행되며 생산의 증대와 생산물의 정확한 분배는 자각된 모든 근로자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된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에게 우리 인민경제에서의 물질적부의 생산과 분배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며 이 문제에서 주인다운 관점을 확립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대중적증산절약운동의 심화발전을 위하여 큰 의의를 가진다.

*　　　*

우리 사회의 총생산물, 국민소득은 전부 공업, 농업, 기본건설, 화물수송, 사회급양 등 물질적생산부문에 종사하고있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생산된다.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 부문들은 사회주의생산의 유지와 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물질적재부들을 생산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물질적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의 균형을 옳게 설정하며 물질적생산부문에 필요한 일군수를 반드시 보장하고 그것을 부단히 증대시켜야 하며 이 부문 종업원 매사람당 생산량을 계속 증대시키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러한데로부터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매단계에서 물질적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에 적합한 비률로 로력을 배치하며 사회적 로동생산능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증대시키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왔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물질적부의 생산이 부단히 증대된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근로자들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된다. 여기서는 더많이 생산하고 더많이 절약할수록 근로자들의 복리가 더 향상되게 된다.

그런데 생산된 재부들이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분배되고 리용되는 과정은 사회주의경제의 객관적인 합법칙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일찌기 맑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로동자들이 사회총생산물을 그들 사이에 다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라쌀의 소위 《로동전수권》설을 비판하면서 해마다 생산되는 물질적부의 분배방식에 관한 원리를 제시하였다.

총생산물을 분배함에 있어서 사회주의국가는 우선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생산물

을 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생산의 발전에 따라서 점차 증대 된다. 그것은 인민경제의 기술장비 수준 제고가 사회적로동생산능률장성 의 중요조건이며 기술장비수준의 제 고는 사회생산물 총액중 감가상각비, 자재비 등의 비중을 증대시키기 때문 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사회 의 총생산액이 국민소득보다 빠른속 도로, 장성하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우 리 나라에서 사회총생산액의 장성과 국 민소득장성간의 호상관계를 보면 다음 과 같다:

(%)

	1949년	1960년	1964년
사회총생산액	100	364	545
국민소득	100	328	479

국가는 사회총생산액중 생산수단의 보상비를 공제한후 나머지 즉 국민소득만을 분배할수 있다.

그런데 국민소득의 분배에서도 우선 생산의 확대와 개선을 위한 축적폰드와 불의의 사변, 자연재해 등에 대처할 예비 및 보험폰드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나머지가 소비의 목적을 위하여 분배, 리용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소비폰드는 물질적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외에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공동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돌려져야 하며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폰드, 국가관리, 국방 등을 위한 비용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매개 생산자들은 이러한 비용들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받게 된다.

국민소득의 분배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 이외의 목적에 리용되는 부분들도 다 그들자신의 리익을 위한것이며 결국 그들의 복리향상에 기여한다.

축적폰드는 사회주의생산을 더욱 장성시켜 근로자들의 장래소비를 증대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우리는 생산이 증대하는데 따라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부단히 생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축적에 힘써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생활의 향상은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실현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주관적욕망에 따라 갑자기 올릴수 없다는것을 옳게 인식하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면 국가축적을 증대시켜야 하며 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적축적은 생산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결국은 인민생활의 향상에 복무한다. 그러므로 인민생활문제를 생산의 장성, 국가축적의 증대와 결부시켜 보아야 한다>(김일성선집 제5권, 110 페지).

사회주의하에서 축적과 소비는 다같이 계통적으로 증대하여야 하며 급속한 기술적진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축적이 앞서 장성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전후 10여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빈터우에 그처럼 빨리 자립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민들의 살림을 부유하고 문명하게 꾸려놓을수 있은것도 모두다 앞날을 내다보면서 근검절약하여 축적에 힘쓴것과 떼여서 생각할수 없다.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 부문에 대한 공동적인 요구의 충족을 위하여 돌려지는 국민소득부분은 사회전체성원들의 물질-문화적복리향상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특히 전면적인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우리 나라의 현실정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 부문들에 대한 지출은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더욱더 증대되며 개인적소비의 장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라는

추향을 가진다.

국가관리, 국방, 사회보장 등을 위한 비용도 근로자들의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사회주의사회의 전체근로자들이 응당 부담하여야 할 지출이다.

축적, 예비, 공동적 수요 등을 위한 사회적폰드가 근로인민, 사회의 수중에 장악되였으며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조성되고 리용되게 된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의 하나로 된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로동의 유지비를 초과하는 로동생산물의 여분과 이 여분에 의한 사회적생산폰드와 예비폰드의 조성 및 축적은 온갖 사회적, 정치적 및 지적진보의 기초였으며 또 지금도 그러하다. 종래의 력사에서는 이 폰드가 이러저러한 특권계급의 소유로 되여 있었는데 이 소유와 함께 정치적권력과 정신적지도권도 또한 이 특권계급의 수중에 들어갔다. 당면한 사회혁명은 처음으로 이 사회적생산폰드와 예비폰드…를 특권계급에게서 몰수하여 전사회에 공유재산으로 넘겨줌으로써 그것을 현실적인 사회적폰드로 되게 할것이다》(《반듀링론》220~221페지).

개인적소비폰드는 직접 매개 근로자들에게 분배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를 위한 국민소득부분이 다 근로자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배의 형태를 취하는것은 아니다. 일부개인적소비를 위한 상품들은 그 가치이하로 판매될수 있으며 주택, 편의시설 등의 사용료가 렴가하게 설정될수 있다. 이것은 가격공간을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촉진하는데 계획적으로 리용하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특히 크다. 우리 나라에서는 각종 사회문화시책들을 위한 국가의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는 동시에 인민생활에서 사회의 부담에 의한 개인소비가 특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국가부담에 의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개인소비에서 가장 큰것의 하나는 인민들의 살림에서 1차적의의를 가지는 식량, 주택, 연료, 피복 등의 렴가한 공급이다. 당과 정부는 거의 무료나 다름없이 도시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도록 하고있으며 아주 낮은 료금으로 주택과 연료를 보장하여주고있다. 국가는 또한 인민경제 각부문의 기술자와 전문가들, 교육보건일군 등에게 무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는 아주 싼값으로 의복을 공급하고있다. 기타 로동보호물자, 교통비보조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도 상당하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생계비구성에서 식량구입비, 주택사용료, 연료대, 수도료 및 전등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합하여 10% 정도에 지나지 않고있다. 자본주의나라근로자들의 생계비중에서 음식비, 집세 등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다는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참으로 대조적인 현상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자들은 집세에만도 자기 임금의 4분의 1내지 3분의 1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조선에서는 부양가족 5명을 가진 로동자가정의 순주식비만도 최소한 월 4,800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한달임금은 화학공업부문에서 4,256원, 섬유공업부문에서 3,410원, 《국영》부문인 《전매》부문에서 5,200원에 지나지 않고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자본주의나라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주식비와

집세 등이 얼마나 무거운 부담으로 되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 등을 위한 각종 사회문화시책비가 또한 1964년에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 약 5.5배로 장성하였으며 국가예산지출중 그것의 비중은 1956년의 12.7%로부터 1964년에는 20.4%로 증가하였다.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학부형들로부터 략탈하여 충당하고있는 남조선의 현실과 대비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무료교육제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주고있는 혜택만 하여도 얼마나 큰것인가를 쉽게 알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자제들은 아무런 수업료 기타의 학비부담이 없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는데 남조선에서는 학생 1명이 《국민학교》로부터 대학과정을 마치자면 100만원 이상을 자체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월평균 3,000~4,000원의 임금을 받는 로동자가 20여년간 벌어야 할 돈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시험지옥》을 뚫고 입학은 하였으나 과중한 학비부담으로 중도퇴학하는 학생수가 계속 늘고있는데 그것은 매년 평균 대학생수의 약 20%에 달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고있는 혜택은 실로 다 측정하기 어려우며 그들의 실질소득에서 사회적인 혜택은 로동에 의한 직접적인 분배와 대등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의 대략 4분의 3이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와 사회적소비에 충당되고있으며 4분의 1이 축적에 돌려지고있다.

사회적폰드들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있는 당과 정부의 방침은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안정향상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여 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의 복리향상은 사회적생산과 국민소득의 부단한 장성, 국가축적의 증대와 사회문화시책의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생산을 증대시키며 국민소득분배에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을 관철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복리향상을 실현하는 필수적조건이다.

* *

사회주의하에서 사회적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분배에 관한 일반적원리는 전사회적인 범위에서만 아니라 인민경제의 매개 부문, 기업소들의 경우에도 다같이 적용된다.

특히 인민경제의 지도적부문인 공업기업소들에서 창조되는 국민소득의 분배를 옳게 진행하는것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공업은 더우더 많은 사회성원들을 망라하며 로동의 기술장비도와 로동생산능률에서 다른 부문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소유의 높은 형태인 국가적, 전인민적소유에 기초하고있다. 그리하여 공업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에서 주도적위치에 놓여있으며 나라의 사회총생산액과 국민소득의 압도적부분도 여기에서 생산되고있다. 이미 1964년에 사회총생산액중 공업이 차지한 비중은 62.3%였으며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중 그것의 비중은 76%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공업은 우리 나라에서 축적폰드와 사회적인 공동소비폰드의 형성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등의 형태로 기업소들에서 창조되는 국민소득의 일부를 국가수중에 장악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것이다. 1964년에 국가예산수입중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은 98%였으며 그중 거래수입금은 52.1%, 국가기업리익금은 20.5%를 차지하였다.

기업소들에서 창조되는 국민소득중 다른 부분은 근로자들에 대한 로임지불에 리용되고 다른 일부는 해당 기업소에서의 생산의 확대, 기업소기금의 조성 등을 위하여 리용된다.

우리 당은 국가소유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창조되는 국민소득을 사회의 공동수요충족과 기업소자체의 자금원천 및 로임으로 분배함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성과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당과 정부는 사회의 공동수요충족을 위한 순소득부분을 국가수중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엄격한 질서와 제도를 수립하고있다. 기업소들은 생산계획과 축적과제를 수행하고 국가납부의무를 완수하는 조건하에서만 자금리용상의 권한과 특전을 다 행사할수 있으며 상금폰드를 제대로 조성할수 있다.

기업소들에서 창조된 국민소득분배에서의 이러한 제도, 방식이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옳게 보장하며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리익과 복리향상을 가장 잘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것은 명백하다.

사회주의공업기업소들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의 분배에 관한 원리는 국가계획과제의 범위내에서나 계획과제를 초과하는 증산절약투쟁의 성과에 대하여서나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타당하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증산절약투쟁은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속도를 높이며 국가의 재정적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데로부터 출발한것이며 그 성과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인민경제앞에 제기되고있는 절실한 과업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자각성에 기초한 애국적운동이다. 이 운동의 성과는 기본생산과제의 완수에서와 같이 무엇보다도 국가의 순소득과 기업소의 폰드를 증대시키는데 리용되여야 한다.

대중적인 증산절약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물질적자극의 공간들을 옳게 리용하는것이 물론 큰 의의를 가진다. 그리하여 증산절약의 성과에서 일부가 이 목적에 돌려질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증산절약운동이 지니고있는 기본임무를 옳게 수행하는 테두리내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업부문이 창조하는 국민소득의 분배도 기본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공업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나 구체적조건이 다른만큼 일련의 특성과 차이를 가진다.

농업은 공업부문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로동생산능률수준이 낮으며 농촌의 생활수준은 도시에서보다 뒤떨어져있다. 이러한데로부터 농업-농민문제의 성과적인 해결을 위하여 공업, 도시가 농업, 농민을 백방으로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테제에 기초하여 오늘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있으며 금년부터는 전반적협동농장들에 대하여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우리 나라가 과거 락후한 농업국가였던 까닭에 혁명이 승리한후 일정한 기간은 공업화를 위하여 농업으로부터 얼마간의 자금을 얻어오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공업화의 기초가 축성된후에는 농촌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것이 로동계급앞에 부과된 의무이며 국가적, 전사회적 리익에도 부합된다.

농업로동은 기계화수준이 낮으며 그 질, 최종적결과가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야 명백히 나타난다. 이것은 분배를 생산결과와 밀접히 결부시킬것을 요구한다.

농업에서는 또한 협동적, 집단적소유가 지배하고있으며 생산과 분배가 협동농장의 범위내에서 조직되며 실현된다.

공업에 비한 농업의 이러한 모든 특성으로부터 협동농장들에서의 생산물의 분배는 공업기업소들에서의 그것과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공동경리로부터 들어오는 총수입의 많은 부분을 로력일에 따라 농장원들에게 분배하며 그 일부를 생산의 확대와 농장원들의 공동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돌린다.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작업반우대제, 분조도급제 등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계획과제를 넘쳐 수행한 부분을 거의다 해당집단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이 적용되고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나라 농업의 실정에서 완전히 정확한것이다. 국영공업기업소들에서와는 상당히 다른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국가의 방조하에 협동경리의 경제적기초를 공고히 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려는 당의 방침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며 정치사업의 강화와 배합하여 농업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적극성, 책임성을 가장 잘 자극할수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킨다.

* *

사회주의하에서의 생산과 분배의 합법칙성과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에 대한 인식은 근로자들을 로동에 대한 더욱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교양하는데 기여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하에서의 생산과 분배의 전과정은 전체사회와 집단과 개인의 리해가 밀접히 결합되여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적인 생산의 장성과 생산물의 정확한 분배가 우리 제도의 공고화와 인민의 복리향상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 하는것을 파악하는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적로동, 증산절약투쟁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성을 가지게 한다. 그것은 로동에 대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도록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기여한다.

오늘날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국가의 재산이자 나의 재산》이요, 《국가의 일이자 나의 일》이란 구호밑에 군중적인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는것은 우리 제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합법칙적현상이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은 개인적인것, 소집단적인것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인 범위에서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근로대중의 관심성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물질적관심성은 사

회적로동에 대한 그들의 고상한 자각성과 밀접히 결부되여있으며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련결되여있다. 그것은 근로대중의 로동에 대한 자각성의 직접적인 경제적기초로 된다.

오늘날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그것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이 과업의 해결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로동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며 책임적인 태도의 배양은 중심적인 위치의 하나를 차지한다. 근로자들의 증산과 절약운동을 더욱 힘있게 추동시키는데 있어서 개인적, 소집단적인 물질적관심성을 리용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사회적생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로동에 대한 애국적, 사회주의적자각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증산절약투쟁을 고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확신한 대중의 힘, 높은 계급적자각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양시키는데 최대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강화와 정치도덕적자극에 항상 1차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것을 발전시키는데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규모에서 조직진행되는 사회주의생산에서는 근로자들의 사회적리익에 대한 자각적태도를 떠나 효과적인 증산절약운동을 생각할수 없다.

근로자들에게 사회적리익과 개인적리익의 통일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그들의 사회적리익에 대한 관심성, 자각성을 높이는것은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조건이다.

자기 당, 자기 계급, 자기 인민, 자기의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이 강하여져야 인민들의 생활에 더욱 큰 행복이 깃든다는 자각이 높아질 때 대중의 로력열의는 더욱 제고될것이며 그들이 못하여낼 생산과제는 없을것이다.

상품주문제의 본질과 특성

리　선　담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상품주문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들과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적요구에 잘 적응하는 상품공급제도이다. 그것은 우리 당이 상품생산과 류통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이다.

상품주문제의 본질과 특성을 해명하고 일군들에게 그것을 인식시키는것은 상품 류통 사업을 개선하고 경제건설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리론,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상품주문제의 본질은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생산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주의 기업소간, 생산과 소비간의 련계를 계획적으로 실현한다는데 있다.

일찌기 김일성동지는 주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문제를 확립한다는것은 우리의 상업을 계획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주문제란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계획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생산과 소비는 서로 밀접히 결부되여 있으며 그 하나는 다른 하나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전제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서 흘러나오는 객관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며 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상품류통사업을 옳게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상품주문제는 생산과 소비를 련결하는 환절인 상품류통사업을 옳게 조직진행하게 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상품주문제는 상품의 계획적인 생산과 분배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로, 상품주문제는 주민들의 상품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장악된 자료를 생산에 제기함으로써 계획화와 생산조직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게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상품류통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비품생산을 소여시기의 주민수요에 일치시켜 생산기관들로 하여금 현실적수요에 적응하는 소비품을 생산하도록 하는것이다.

현실적인 수요에 기초하여 생산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수요변동에 상응하게 생산을 기동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을 주는것은 수요없는 상품의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며 설비, 원재료, 로력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상품의 실현을 촉진하며 순조로운 확대재생산을 가능케 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상품주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의 량과 그 재질, 규격, 색갈 등의 질적요구조건들을 정확히 조사장악하고 그것을

생산에 제기하여 제품의 질과 량이 수요에 부합되도록 생산을 자극한다. 즉 주문제를 통하여 상업은 상품생산 및 류통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들,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성격을 띠는 자료들을 제공해준다. 이와 같이 상품주문제는 현실적수요를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을 조직하며 수요변동에 따라서 생산을 기동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을 주는데 이것은 자재, 설비, 로력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케 하며 생산된 제품의 실현을 확고히 담보해준다.

상업이 생산에 영향을 주며 그 발전을 자극하는 방법은 상품주문제외에도 허다하다. 상품수공급계약, 수공급자들의 협의회, 계약위반에 대한 재산적제재, 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의 인수거절 등도 생산을 자극하는 중요방법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역할은 주로 확정된 계획이나 체결된 계약의 정확한 리행을 추동하는데 있는것이다.

이와는 달리 상품주문제는 계획판리기관들, 기업소들에서의 생산계획작성과 그 실행 및 생산된 상품의 실현에 이르는 전부면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상품주문제가 생산에 대한 류통의 반작용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주도적형태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둘째로, 상품주문제는 생산된 상품을 모든 지역과 각이한 주민계층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

사회주의상업에서 상품의 합리적인 공급이란 생산기업소에서 상업망에로, 상업망에서 주민들에게로 상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정확히 분배하며 상품구매자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도모해주는것이다. 상품의 합리적인 공급, 이것은 우선 제기된 주문대로 상품을 생산하며, 생산된 상품을 수요에 기초하여 상업망에 송달하고 조직적으로 분배할 때 옳게 실현될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상품주문제의 실시에 의하여 보장될수 있다. 상품주문제는 상품공급분야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상품주문제는 소비품생산과 분배에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상품생산령역에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는 자원과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들을 최대한으로 생산보장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것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상품이 근로자들의 생활상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상품은 인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수 없다.

이로부터 상품생산과 류통분야에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들의 수요규모와 그 구조를 정확히 계산하는것이 필요하며 다음은 이에 의하여 소요생산설비와 자재와 로력을 가지고 빈틈없이 생산을 조직하는것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생산된 상품을 근로자들이 소비할수 있도록 공급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요구들은 상품주문제를 철저히 관철할 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소비품생산과 류통령역에서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는 상품생산과 인민들의 수요간의

계획적련계를 보장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소비품생산은 인민들의 수요에 기초하여 계획되여야 하며 수요구조의 변화발전에 따라 그 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상품주문제는 매시기에 소비품생산의 과학적인 계획화를 위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과 소비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할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 상업에서 상품주문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에 기초한 새로운 상품공급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요구는 국내상품류통분야에서 사회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한 1958년에 제기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1958년에 이르러 공업 및 농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업에서도 사회주의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되였다. 생산과 류통령역에서 자본주의요소가 근절되고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결과로 이제는 상품류통에 인입되는 상품폰드를 사회주의적인 공업과 농업이 담당하게 되였으며 조성된 상품폰드 역시 사회주의상업이 유일적으로 접수하여 전국의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되였다. 이것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상품공급체계를 더욱 합리화하며 주민들의 수요에 기초하여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계획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그러한 체계의 창설을 요구하였다.

상품공급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게 된 또하나의 조건은 전후시기 당과 정부의 옳은 경제정책들에 의하여 인민생활이 급격히 향상된 사실이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시책들은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수입을 급속히 증대시켰다. 근로자들의 상품수요가 좋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구조상에서도 크게 변화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에 상응하게 생산구조를 설정하고 생산량을 더욱 장성시키며 수요자들에게 기동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것이 당의 인민생활향상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품공급체계는 조성된 사회경제적조건과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적요구에 비하여 뒤떨어져있었다. 상품공급체계에서 계획화가 응당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였다. 특히 생산과 소매상업을 련결하는 기간적환절인 도매상업기관들이 생산과의 밀접한 련계를 가지지 못하고 생산된 상품을 고려없이 인수배정하여 소매에 내려먹임으로써 상품의 체화, 지역적편재와 절품현상을 조성하게 하였으며 상품회전을 지연시키고 인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 전원회의는 주문제에 기초한 새로운 상품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의 상업체계를 대담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의 상업체계는 내려먹이는 식의 체계로 되여있는것이 결함이다…

우리의 상업체계를 대담하게 주문제도로 고치는것이 좋을것 같다》(김일성선집 제5권, 531폐지).

우리 나라 상업에서의 상품주문제는 주객관적인 조건들이 성숙됨에 따라 더욱 개선되면서 사회주의상업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상품주문체계는 상업부문별로 인민들의 수요가 종합분석되고 행정구역별로 그것이 집계되여 생산기관들에 반영되도록 조직되여있다.

상업부문별 주문체계는 매부문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에 대한 수요를 연구파악할수 있게 한다. 소매기업소들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지난시기의 판매실적에 기초하여 상품주문서를 작성하며 도매기업소들은 소매기관의 상품주문서와 도매류통실적, 상품교류협의회 등을 통하여 수요를 연구하고 상품주문서를 작성한다.

상업부문별로 작성된 상품주문서는 행정구역별로 집계되고 종합된다. 행정구역별 주문체계는 지역별로 주민수요의 특성을 파악할수 있게 하는 동시에 중앙 및 지방공업관리체계에 상응하게 즉 군급 상업기업소는 군지방공업위원회에, 도급 상업기관은 도지방산업총국에, 상업성은 경공업성에 상품주문을 적절히 제기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상업에서 실시하고있는 상품주문제는 그 실현방법과 역할 등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상품주문제의 실현방법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되는것은 상품주문체계에 모든 지역의 각급 상업기관 및 기업소가 다 망라되고있으며 또 모든 상품들이 포괄되고있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상품주문제가 철저하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상품주문제에는 특정된 상업기관에서만 주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모든 상업기관이 모든 지역의 상품수요를 과학적,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한다.

우리의 상품주문제는 또한 모든 상품들이 주문에 따라 생산되고 공급될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소비품 일체에 대하여 품종별, 규격별, 색갈별로 상업이 주문하며 그에 기초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게 되여있다. 이것은 지정된 일부상품에 대하여서만 주문제를 실시하는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상품주문제를 확고한 과학적기초우에 올려놓을수 있게 한다.

물론 모든 상업기업소, 기관들이 수만종에 달하는 상품의 주문서를 작성종합하여 생산에 반영하고 그에 기초하여 상품생산계획을 작성시달하며 상품공급을 조직하는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상업을 진정 과학적인 기초우에서 계획적으로 조직전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나라 상품주문제의 또하나의 특성은 주문한 상품을 상점망까지 직접 날라다주는 송달제를 그 중요일환으로 하고있는 점이다.

상품을 실어다주는 송달공급체계는 상점일군들을 상품인수와 확보를 위한 사업부담에서 해방시켜주며 그들이 주민들에 대한 봉사성, 상업의 문화성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

이 방식은 또한 상품을 보장하는 기관들인 생산기업소들과 도매기업소들이 상품수요와 판매현실을 더 잘 파악할수 있게 하며 상점망과의 련계를

더 긴밀히 맺을수 있게 한다. 상품송달공급체계는 상업부문에서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구현이며 대안체계도입의 일부분이다.

우리 나라 상업에서의 상품주문제는 상품공급에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관철시키는데 가장 훌륭히 복무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상품주문제에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밑으로부터 우로 종합하며 생산된 상품들은 우로부터 아래에 직접 날라다 주는 민주주의적방식을 취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주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주문제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상품을 공급하는 민주주의적상품공급방법이다>**.

우리나라 상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품주문제는 소비품생산과 분배의 전국가적인, 통일적인 계획화에 복무하고 있다.

우리의 주문제는 기업소들간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법적인 전국가적 인민경제계획화에 종속되고있다.

그것은 소비품생산 및 류통에 관한 통일적인 계획화에 기초하여 자기의 사명을 실현하며 인민경제발전의 계획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상품주문제가 인민경제관리에서의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의 관철과 뗄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상품주문제는 그것이 도입된 이후 우리 나라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생산과 상업의 보다 긴밀한 련계로 인한 상품회전의 촉진, 상품구성의 부단한 개선, 상업에서의 문화성과 봉사성의 가일층의 제고 등은 적지 않게 상품주문제에 의하여 보장된것이다.

상품주문제를 당이 요구하는대로 정확히 실시한다면 상품류통사업을 훨씬 더 개선할수 있다.

상품주문제의 정확한 실시는 소비품생산기업소들이 인민의 수요에 부합되는 상품들을 더욱 다양하게 더 잘 만들게 하는데 기여할수 있으며 생산된 상품들의 더욱 합리적인 분배를 촉진할수 있다.

그러나 현시기 일부상업기관일군들의 조직사업에서의 결함으로 인하여 주문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있으며 그 객관적 가능성이 최대로 동원되지 못하고있다. 아직까지 일부상업기관 및 경공업기업소일군들은 주문제를 불원만하게 실시함으로써 의연히 상품의 체화편재현상 및 불합리한 상품수송을 존속시키고있으며 생산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고있다.

상품주문제의 운영을 개선하고 그 우월성을 더욱 발휘시키는것이 상업부문사업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상업부문일군들은 이 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천에서 그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상업부문일군들은 주문제가 진실로 인민의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제때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수요의 조사연

구와 주문서작성을 과학적기초우에 올려놓아야 할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을 견지하고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주민대중들과의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것이다.

상품주문제를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은 상품의 분배와 공급에서 기동성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만약 상품주문제를 《관철한다》고 하여 오래전에 제기된 주문 그대로만 상품을 분배할 때에는 수요와 공급간에서 불일치가 조성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제에 기초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요변동에 대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리며 그 변동에 상응하게 공급조직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는것이 요구된다.

오직 그래야만이 상품의 체화, 편재 및 절품현상들을 완전히 근절할수 있으며 지어진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상품수요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상품주문제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창발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방법과 형식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과거의 양식과 규정에만 매달리고 주문제를 공연히 복잡한것으로 만들어서는 안될것이다.

상업부문에서는 상품류통의 제조건의 변동에 따라 주문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갈것이며 소여시기의 조건에서 일군들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인 형식과 방법을 택하도록 할것이다.

례하면 한 상업기업소에서 수요변동이 그리 심하지 않으며 생산과 수요를 쉽게 알아낼수 있는 직물섬유제품 등은 분기주문을 받을수 있으며 생산과 수요의 제조건이 비교적 복잡한 일용잡화들은 월주문을 받을수 있다.

요컨대 모든 상품이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게 생산되고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공급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지방정권기관들과 상업부문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상품주문제의 실시를 단순한 기술실무적사업으로만 여기지 말고 인민의 복리향상에서 그것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똑똑히 인식하고 더욱 높은 자각성과 혁명적열의로써 그 정확한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 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하도록 할것이다.

남부웰남에로의 《국군》파병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자

김 기 현

지금 남조선에서는 남부웰남에로의 대규모적인 《국군》파병이 계속되고있다.

최근 괴뢰국회에서는 남부웰남침략전쟁에 1개 전투사단병력과 1개 련대의 보충병력을 증파하기로 결정하고 그중 5,000여명을 얼마전에 파견하였다.

이미 남부웰남에 끌려간 《국군》은 2만 5,000여명에 달하고있다. 이제 1개 전투사단병력이 증파되면 그수는 근 5만명을 헤아리게 된다.

1964년부터 시작된 남부 웰남파병은 금년 4월까지 기간에 이미 다섯차례에 걸쳐 진행되였다.

처음에는 《의무중대》의 이름으로 시작된 파병이 오늘에 와서는 공공연한 군단규모의 대전투병력의 파병으로 전환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웰남파병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심산이다. 《10개 사단을 동원할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한 괴뢰국무총리의 발언과 《금후의 증파는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의 재량으로 실행할 법률안을 검토중》이며 《공군, 포병부대까지 동원시키겠다》고 한 괴뢰국방장관의 발언 등은 이를 시사하고있다.

*　　　*

《국군》의 남부 웰남파병은 남조선청장년들을 저들의 총알받이로 써먹으려는 미제와 이에 추종하여 여명을 부지하려는 박정희도당간의 범죄적공모의 산물이다.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고있는 미제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 들어가고있다.

《초토화》작전도, 무차별폭격도, 독가스, 세균무기의 사용도, 하루 평균 2천500만딸라의 전쟁물자소비도, 근28만명에 달하는 미군병력의 투입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있다. 전쟁개시이래 그들은 근5만명의 미군과 61만여명의 남부웰남괴뢰군을 잃었다.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남부웰남인민들과 해방군은 이미 1천만 이상의 인구와 전령토의 5분의 4에 달하는 지역을 해방하였다.

최근에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반미반괴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미제는 이 궁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웰남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무모한 길에 들어서고있다.

전쟁확대책동의 일환으로 미제는 웰남침략전쟁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기 위하여 발광하고있다.

그런데 미군의 군사동원능력은 방대한 대외군사기지의 유지, 국내에서의 《치안》유지, 웰남전쟁에서 격증되는 유생력량의 소모 등으로 인하여 이미 그 한계점에 접근하고있다.

미국회상원 군비위원회 위원장마저 《웰남전쟁이 미군의 현역전략 예비병력을 거의 소진했다…구라파 및 한국에 주둔하는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는 한 웰남에 미군병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것은 어려울것》이라고 고백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는 《동맹국》의 군대를 웰남전쟁에 밀어넣으려고 획책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이미 1964년 4월 《세아토각료리사회》와 《나토 15개국 각료리사회》에서 미제는 남부웰남파병을 요청하였으나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즉 《나토 리사국》은 물론 웰남사태와 직접 관련되여있다고 인정되는 세아토 《동맹국》들도 미제의 파병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동맹국》들까지도 미제의 무모한 전쟁확대책동에 말려들어가는것을 꺼려하고있다는 구체적표현이다. 《뉴욕 타임스》지는 《세계의 어느 한 나라도 사실상 웰남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지지하지 않고있다 …우리의 범죄행위는 력사의 교과서에 오를것이다》라고 비명을 올리고있다.

자국내의 병력도 《동맹국》의 힘도 바랄수 없게 된 미제는 궁여지책으로 쉽게 동원할수 있는 추종국가괴뢰군을 웰남전쟁에 투입하여 자기의 침략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이에 있어서 미제는 남조선《국군》의 웰남파병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것은 남조선괴뢰군의 통수권을 저들이 장악하고 있을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값싼 군대라는것, 또한 남조선이 아세아괴뢰들중에서도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지고있다는것 등을 고려한데 있다.

그리하여 1964년 5월 워싱톤지배층은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하여 괴뢰정부에 《국군》파병을 지시하였으며 1965년 5월에는 박정희를 호출하여, 만일 괴뢰군을 다량 파병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군사원조》를 삭감 또는 중단하며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남부웰남에 이동시키겠다고 하였다.

박정희도당은 미제의 파병요구에 적극 추종하여 상전에 충성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파병으로 상전의 신임과 지지를 더욱 확고한것으로 만들어 계속 괴뢰정권에 눌어붙으려 하고있다.

오늘 박정희는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여가고있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을 암흑천지로 만든것도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것도 바로 박정희도당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를 가리켜 《제2 리완용》, 《가공할 독재자》, 《면장만도 못한 정치인》이라고 저주하고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박정희는 미제에게 더욱 충성을 다함으로써 그로부터 지지를 받아 정치적지위를 강화하며 래년도 괴뢰대통령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여 장기집권할것을 획책하고있다.

이와 함께 박정희도당은 파병의 대가로 미제의 《원조》를 더 받아 심각한 경제위기를 완화하며 괴뢰군의 장비를 《현대화》하려 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파병을 통하여 아세아《반공》 국가들간의 《뉴대》를 강화함으로써 미제의 《동북아세아군사동맹》결성을 촉진시켜 아세아 《반공세력권》내에서 더 큰 《발언권》을 얻으려 하고있다.

이러한 추악한 목적밑에 박정희도당은 미제상전의 지시에 따라 《국군》파병을 감행하고있는바 이는 가장 철저한 매국배족의 무리만이 할수 있는 저주로운 소행이다.

* *

《국군》의 남부웰남파병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침략을 도와주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할것을 대외정책의 총목표로 삼고있는 미제는 오늘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 특히 웰남에 돌리고있다.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뒤를 이어 남부웰남에 기여든 미제는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고 저들의 식민지로 전변시키며 나아가서는 아세아침략의 교두보로 만

들려고 책동하고있다.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은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감행하고있는 침략전쟁을 처음부터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그를 통하여 웰남에서의 민주해방투쟁을 진압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려고 망상하고있다. 이것은 웰남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이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는 남부 웰남에 침입한 첫날부터 그곳을 군사적감옥으로 전변시켰으며 마침내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선전포고없는 전쟁》을 벌려놓았다. 그들은 온갖 범죄적전쟁수단을 다 동원하여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파괴하는 초토화》작전을 벌리고있으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강도적침략을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라오스에서 전쟁을 확대하고있으며 캄보쟈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이것은 미제야말로 평화를 짓밟는 전쟁도발자이며 민족해방운동의 교살자이며 세계반동의 가장 흉악한 원흉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흉악무도한 침략전쟁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할 대신에 이를 돕는것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교란하며 세계인민들 앞에 엄중한 죄과를 범하는것으로 된다.

박정희도당은 미제의 무모한 침략행위를 대규모적인 파병으로써 직접 돕고있다.

그들은 범죄적인 《국군》파병을 남부웰남괴뢰도당과의 《공동방위》를 위한것이라고 떠벌리고있다. 이것은 실로 허황한 소리이다. 웰남을 침략하고있는 자는 대양 건너로부터 온 양키무리들과 그 주구들이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웰남인민은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있는 미제를 몰아내기 위하여 자기 강토에서 정의의 해방전쟁을 하고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강도적침략을 돕는 《국군》파병이 그 무슨 《방위》를 위한것으로 되겠는가.

박정희도당의 구실이야말로 엄연한 사실을 외곡한 강도적론리이다. 그 어떤 궤변으로도 《국군》의 남부웰남파병의 명분을 세울수는 없다.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과 추종국들도 웰남파병에 대한 미제의 요구를 반대회피하고있는데 박정희도당만이 파병을 계속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이 미제의 가장 충실한 주구이며 상전의 지시라면 어떠한 범죄행위도 감행하는 인간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박정희도당의 웰남파병은 민족적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웰남인민 앞에 엄중한 죄악으로 된다.

웰남인민은 장기간의 투쟁행정에 일본군국주의자들과 프랑스침략자들을 물리쳤으며 오늘 다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영웅하게 투쟁하고있다.

웰남인민이 진행하고있는 영웅적항전은 자기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전쟁일뿐 아니라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인민의 공동위업의 일환이다.

웰남인민의 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어떠한 행동도 그것은 곧 세계혁명운동을 반대하는 행위로 된다.

미제는 조선과 웰남에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하고있는 장본인이며 두나라 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다.

력사적으로 조웰량국인민은 서로 자주독립을 귀중히 여기면서 친선관계를 유지해왔다. 지금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전우이며 형제이다.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이 남부웰남에 파병하여 미제를 돕는것은 민족적해방과 자주독립, 국토의 완정을 위하여 싸우는 웰남인민에 대한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우리 민족력사에 오점을 남기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국군》의 남부웰남파병은 웰남에 끌려간 남조선청장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막대한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오늘 남조선괴뢰군이 끌려가 있는 퀴논, 빙케, 칸안, 캄란 등 지대는 이미 미군과 웰남괴뢰군이 무수히 녹아났던 지대로서 조선의 《함정골》을 방불케 한다. 여기에서 미제는 가장 간교하고 전률할 《전투명령》을 수행하는데로 《국군》을 내몰고있다.

남조선《국군》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심대한 타격을 받아 무리죽음을 당하고있다.

남부웰남해방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국군》사상자수는 작년 4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4,500명에 달하고있으며 특히 금년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동안에 빈 딘주에서만도 남조선괴뢰군은 1,700여명이나 녹아났다고 한다.

웰남에 파견된 《국군》들속에서 사상자의 속출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가져다주는것으로 된다.

남부웰남과 같은 죽음터로 끌려가는 것은 주로 권력없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의 자제들이다.

남조선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 남편을 잃은 안해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치고있다.

남부웰남 죽음터에 남편과 아들을 빼앗긴 가족들은 빈궁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들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까지 일어나고있다.

양키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침략을 돕는 수치스러운 일에 동포혈육을 잃는 이 불행을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박정희도당은 오늘 파병을 기화로 남조선에서 전쟁준비와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파병을 계기로 남조선에서 전쟁소동을 일으켜 공포와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파쑈테로통치를 공고히 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전쟁태세를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박정희도당은 《민간방위법》의 조작, 《국가총동원체제》의 수립 등을 서두르고있다. 또한 그들은 1개 전투사단의 파병대신 미국의 《군사원조》로 3개 예비사단을 완전히 무장시키며 전연부대의 장비를 《현대화》하려고 광분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전역에 《경비명령 제1호》를 하달하여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검거선풍을 일으키고있다.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팽배하는 통일기운, 일제의 재침과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항거를 《반공법》위반, 《국시위반》 등의 《죄》명으로 마구 탄압하고있다.

최근 오스트랄리아 기자가 쓴 《불길속의 웰남》이라는 글을 게재했다는 리유로 《반공법》에 걸어 《부산일보》 편집일군들을 구속한것은 하나의 구체적례이다.

웰남파병을 계기로 한 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과 전쟁준비의 강화는 조선에서의 정세발전에 더욱 긴장성과 복잡성을 조성하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장애를

조성하리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국군》의 남부웰남파병은 미제의 침략을 도와주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며 웰남인민과 조선인민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범죄행위이며 조선혁명과 국제혁명운동발전에도 저애를 주는 반동적책동이다.

*　*

정의를 사랑하고 겨레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남부웰남에로의 《국군》파병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

북반부인민들은 《국군》의 웰남파병을 견결히 반대하며 싸우는 웰남인민에게 물심량면으로 지원을 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전국을 요새화하며 전인민이 무장하여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지키는것으로써 싸우는 형제적웰남인민을 도와주고있다.

북반부 전체인민은 공화국정부성명에서 수차 천명된바와 같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때나 지원군으로 동원될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국군》의 웰남파병이 가지는 범죄적성격과 매국배족적인 본성을 폭로규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 회의는 남조선괴뢰정부의 남부웰남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파병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것을 남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남조선인민들 앞에는 사랑하는 혈육들이 더는 미제의 총알방패로 웰남에 끌려가지 못하게 하며 이미 웰남에 끌려간 청장년들의 소환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국군》의 남부웰남파병은 남조선근로인민과 학생들에게 직접 고통을 주고있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생존의 권리와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파병반대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용감하게 투쟁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두게 될것이다.

남조선《국군》은 미제의 총알받이로 웰남에 끌려가는것을 단호히 거부하여 나서야 하며 자기들에게 죽음의 길을 강요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남부웰남에 끌려간 《국군》장병들은 저주로운 식민지고용군살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며 《국군》은 무고한 남부웰남인민들에게 총부리를 돌릴것이 아니라 미군지휘관들과 《국군》반동장교들에게 돌려야 하며 전투명령을 거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수치스러운 죽음을 모면하고 삶의 길을 찾으려면 남부웰남해방군의 편으로 넘어가야 할것이다. 이것이 곧 조국에로 통하는 길이며 자유와 행복을 마련하는 길이다. 《국군》의 남부웰남파병을 포함하여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박정희도당의 파쑈테로통치에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계속 둥지를 틀고있는한 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박정희도당을 타도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웰남전쟁에서의 미제의 심대한 군사적패배와 웰남에 파견된 괴뢰군속에서

의 사상자수의 증대는 남조선인민들과 사회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 속에서 파병반대기운이 점차 높아지고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감이 강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벌써 작년 《한일협정》반대투쟁시에 《우리는 웰남사태에 양키의 총알방패가 될수 없다》는 구호를 들고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최근 고려대학교학생들은 《국군웰남증파반대성토대회》를 열어 대규모의 증파책동을 규탄하려 하였다.

《국군》병사들은 웰남에서 괴뢰군의 유해와 부상자가 계속 돌아옴에 따라 파병을 죽음의 길로 명백히 인식하고 《웰남에 가 죽는 장성보다 산 2등병이 낫다》하면서 웰남에 가라는 명령이 내릴가봐 저마다 두려워하고있다. 《국군》병사들이 웰남파견을 기피하여 도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있다.

파병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하여 남조선의 한 신문은 《가망없는 미국의 고독한 전쟁에 왜 우리만이 계속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 파병을 미끼로 군사원조나 경제원조를 받는다느니 뭐니 하는것은 피를 파는것이며 생각하기도 싫다》고 썼다.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미제의 전쟁확대책동과 함께 《국군》의 남부웰남파병을 더욱 강력히 반대규탄하고 있다.

미국내에서까지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고있다.

《국군》의 남부웰남파병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붕괴과정을 촉진시킬뿐이다. 남조선에서 파병을 계기로 날로 높아지는 대중의 불만과 사회정치적불안의 증대, 그로 인한 지배층 내부모순의 격화는 그 구체적표현이다.

웰남파병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정의의 투쟁이며 애국적인 투쟁이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철연적인 리익을 위한것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남부웰남에로의 《국군》파병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자.

남조선혁명과 농민운동

강 룡

남조선에서 농민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남조선혁명은 미제를 위시하여 모든 외래침략세력과 그의 주구인 국내반동세력들을 청산하고 민족적해방과 민주주의적변혁을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다.

이 혁명에서 남조선농민은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 그와 함께 혁명의 주력부대로 되여야 할 기본계급이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의 주위에 로동계급과 근로농민을 굳게 결속시키고 그들을 튼튼한 주력군으로 꾸리지 않고서는 승리를 달성할수 없다.

이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경험에서 이미 실증되였으며 다른 나라에서의 민주주의혁명의 선행경험들과 현시기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민족민주주의혁명의 현실적경험들도 잘 말하여주고있다.

레닌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는 그의 혁명적투쟁에 농민대중이 가담하는 조건밑에서만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련전련승의 전사로 될수 있는것이다》(전집 제9권1분책 79~80페지) 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남조선혁명에서도 례외가 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농민은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거대한 세력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투쟁은 남조선혁명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농민대중의 적극적인 진출은 남조선농촌 및 농민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혁명에서 농민들은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농촌문제해결의 주동적인 세력으로 되여야 한다.

그것은 그 누구도 농민들의 사활적요구를 그들을 대신하여 해결하여 줄수 없으며 오직 농민스스로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정확히 해결할수 있기 때문이다.

남조선혁명은 반드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각계각층 인민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통일되고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현실과 우리나라 혁명운동발전의 객관적이며 합법칙적인 요구이다.

*　　　*

남조선에서 농민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농민대중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진출을 도모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서 농민대중이 달성해야 할 기본요구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인 토지문제의 민주주의적해결과 그들의 사회정치생활의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는데 있다.

일제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토지소유와 착취관계를 청산하고 밭갈이하는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은 남조선농민운동앞에 제기되는 기본임무이다.

남조선농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적인 농촌정책으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요구를 여전히 성취하지 못하고있다.

해방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른바 《농지개혁》을 실시하고 남조선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와 착취관계를 그대로 유지보존하였을뿐 아니라 농민들의 령세화과정을 일층 촉진시켰다.

결과 현재 남조선농촌에는 토지에서의 생산물만으로써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고농, 빈농이 220만호나 있다. 이것은 남조선 전 농가호수의 약 77.5%를 차지한다. 그중 전혀 토지를 가지고있지 못한 고농의 수만해도 30여만호에 달하고있다. 땅이 적거나 전혀 없는 빈고농들의 생활처지는 말할수 없이 비참하다. 그들은 자기의 령세한 토지에서 착취자들의 부단히 강화되는 수탈로 항시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고있다.

1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농민들도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수탈로 말미암아 부단히 파산몰락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농촌정책과 봉건적토지소유 및 착취관계의 잔존, 그로 인한 농민들의 령세성 등은 남조선농촌에서 생산력발전을 억제하는 질곡으로 되고있다.

특히 고률의 소작료, 고리채, 고역제 등을 통한 착취는 농업기술의 침체와 사회경제적관계의 정체를 가져오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무엇보다 먼저 남조선농민들로 하여금 토지문제의 민주주의적해결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다. 남조선농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강탈한 모든 토지들과 지주들이 가지고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민주주의적토지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토지를 개간(남조선에는 미개간지 80만정보를 비롯하여 간석지, 하천부지, 매몰지, 폐경지 등 200만정보에 달하는 개간가능지가 있다)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할것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쟁만이 토지소유의 령세성을 퇴치하고 농민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정당한 길이다.

남조선농민들은 토지문제와 함께 사회정치생활의 완전한 민주주의적 자유를 획득하여야 한다.

토지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농민문제해결의 불가분의 통일된 한구성부분으로 되며 그의 각이한 두측면을 이룬다.

농민들은 토지의 주인으로 될뿐만 아니라 일체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압박과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모든 인민들과 함께 완전한 정치적자유와 평등을 쟁취하여야 한다.

현시기 남조선농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농촌의 봉건세력들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착취와 략탈을

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심한 압박과 탄압을 받고있으며 지어는 인신적 및 인격적 멸시와 모욕, 박해, 천대까지 받고있다. 때문에 남조선농민들은 완전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원쑤들의 모든 탄압과 압박을 청산하며 남조선농촌의 제반관계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할것을 요구하여 완강히 진출하여야 한다.

남조선농민운동은 토지와 자유에 대한 이러한 강령적요구들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에서 응당 해결되여야 할 농민들의 사회-혁명적요구이다. 만일 이 요구를 견지하지 못하고 사회-개량적인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이는 농민들의 혁명적의욕과 진출을 저애할것이며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마침내는 남조선혁명에서 농민들의 역할을 심히 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사실상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농민들에게 중요치 않은 극히 부분적인 양보로써 그들의 혁명적진출을 마비시키려 하고있으며 현조건하에서도 농민들의 생활처지가 개선될수 있는듯한 환상을 조성하려고 집요하게 시도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이와 같은 기만술책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농민들은 토지문제의 민주주의적해결과 완전한 정치적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반드시 조국의 통일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은 토지와 자유에 대한 남조선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며 농촌경리의 부흥과 농민생활의 획기적개선을 실현할수 있는 결정적담보이다.

남조선농민은 이상의 혁명적요구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 농촌의 모든 반동세력들을 쓸어버리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한결같이 과감히 진출하여야 한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타도하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함이 없이는 토지문제의 민주주의적해결도, 농민의 완전한 정치적자유도 획득할수 없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달성할수 없다.

남조선농민운동은 그의 앞에 제기된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적임무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농민들의 혁명적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로동계급과의 동맹과 각계각층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조선농민운동은 농민들의 혁명적 요구를 실현할뿐 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그 위치와 역할을 빛나게 고수할수 있을것이다.

* *

남조선농민운동은 남조선혁명에서 농민들의 사회-혁명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당면한 투쟁을 더욱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민운동의 주객관적인 제조건— 농촌의 제반 모순관계들과 농민들의 준비정도, 농촌에서 혁명과 반혁명의 력량관계, 전반적인 인민운동발전과 정세의 객관적인 발전추세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농민운동발전의 옳은 전술적지도를 보장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군사정변》에 의하여 일시 침체상태에 있던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은 최근년간 부단히 강화되고있다. 그들은 괴뢰정권과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며 영농조건의 개선, 생활조건의 보장, 략탈당한 토지의 반환 등을 요구하여 년평균 200건 이상의 각종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 투쟁행정을 통하여 농민들의 각성과 적극성은 부단히 제고되고있다. 농민들의 투쟁에서 적극적형태의 비중은 1964년에 22.9%였다면 작년에는 27.4%로 증대되였다.

농민들의 투쟁은 일련의 새로운 발전추세들을 나타내고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투쟁은 자연발생적 성격과 경제적 요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광범한 농촌과 농민대중을 망라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농민들의 당면한 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농민들의 절박한 생활상 요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며 이 투쟁을 남조선에서 전반적인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전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수탈당한 모든 토지의 무조건반환과 그의 보상을 요구하여 투쟁하며 법적한계를 벗어난 《3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자들의 해당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할것과 토지를 개간하여 공정하게 분배할것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토지를 위한 투쟁과 함께 소작료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며 고역제도를 반대하고 고농들에게 안착하여 생활할수 있는 토지와 영농조건을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또한 필요하다.

현시기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에서 미제와 괴뢰정권의 직접간접으로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는 투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면하여 남조선농민들 앞에는 미국잉여농산물도입의 략탈적성격을 폭로배격하는 투쟁을 위시하여 농업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조치들의 강구, 농지세의 인하, 가렴잡세의 철폐와 단일 누진세제의 실시 등을 요구하며 비료대와 공산물가격 및 공공료금의 인하, 농산물가격의 적정화, 영농조건의 보장대책과 영농자금의 공정한 융자, 고리채리자들의 대폭인하 등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면한 생활상 요구를 위한 농민들의 경제적투쟁은 정치적요구와 더욱더 밀접히 결합되여야 할것이다.

미제와 괴뢰정권의 폭력과 박해, 온갖 파쑈적인 조치들과 탄압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농민들은 당면한 경제투쟁의 성과를 공고히 할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권리를 전취하여야 할것이다. 농민들은 이 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자기의 자주적인 민주주의적단체의 결성과 그의 자유로운 활동을 실현하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등의 자유를 획득하여야 할것이다.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농민들의 당면한 투쟁에서 그의 투쟁대상을 정확히 선정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민운동의 전략적인 투쟁대상은 미제와 괴뢰정권이며 그와 야합한 봉건적지주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타도

하기 위한 당면한 투쟁에서는 농촌의 괴뢰통치기관들과 그의 관공리들을 대상으로 하여 투쟁의 예봉을 집중시키는것이 필요하다.

남조선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미제와 괴뢰정권 및 지주들의 지배와 략탈이 대부분 이 괴뢰통치기관들과 그 관공리들을 통하여 진행되고있다. 지어 일부 지주들이 직접 관공리로 변신하여 농민들을 억압착취하는것이 거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여있다. 이것은 농촌의 괴뢰통치기관들과 그 관공리들이 남조선농민운동의 전략적투쟁대상인 미제와 괴뢰정권 및 봉건지주들의 지배와 략탈의 직접적인 집행기관이며 그의 하수인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정은 미제와 괴뢰정권을 반대하며 농촌의 지주들을 반대하는 당면한 농민들의 투쟁이 괴뢰지방통치기관들과 그 관공리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면한 투쟁은 농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해방과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며 점차 미제와 괴뢰정권과 봉건적지주들을 반대하는 직접적이며 공개적인 투쟁에로 나아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로 될것이다.

이 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경험이 보여준바와 같이 농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각성과 자각을 급속히 높이고 그들을 투쟁속에서 단련시킴으로써 마침내 괴뢰정권과 지주 그리고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를 몰아내기 위한 농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을 야기시키는데로 나아가게 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이 투쟁은 필연적으로 남조선인민운동의 전반적발전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남조선전역을 포괄하는 농민대중의 결정적인 혁명적진출을 촉진시키게 될것이다.

남조선농민운동의 기본임무와 그의 당면한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대중을 계급적 및 민족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시켜야 한다.

혁명의 원쑤들은 농민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각성과 단결을 저애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그의 세분화된 소규모경영에 의하여 심히 분산되여있을뿐만 아니라 《농지개혁》후에는 각종 은폐된 형태로 착취가 진행되고있는 사정 등에 의하여 계급적 및 민족적원쑤들을 식별하는데서 적지 않은 장애를 받고있다.

이와 같은 제한성들을 리용하여 혁명의 원쑤들은 농민대중을 무지와 몽매에 얽매여놓고 그들의 혁명적에네르기를 분산시킴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강화하려고 꾀하고있다. 원쑤들의 이 음흉한 시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농민들의 의식성과 조직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의식성과 조직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농촌 및 농업관계의 착잡성을 해명하고 그 본질을 농민들이 잘 리해하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혁명적요소들을 지지조장하고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도록 유용한 수단, 수법들을 가르쳐주어야 할것이다.

남조선의 근로농민들은 자기들의 비

확한 생활처지와 사회의 참담한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혁명에 커다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들에게 명확한 혁명적의식을 배양한다면 농민의 혁명적결단성은 발휘될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혁명적의식과 결단성을 앙양시켜 주는것은 오늘 남조선농민운동앞에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되고있다.

특히 농민들의 혁명적력량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농민들의 혁명적력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사회적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농촌에 대한 계급정책에서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위 《농지개혁》과 그후의 제 농업정책을 통하여 농촌에서 대지주들을 중소지주로 전환시키고 부농층을 일정하게 길러내여 그들을 빈고농들과 대립되는 세력으로 꾸리려 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 정책은 오늘 남조선에서 빈고농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그들의 적대적감정과 반항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일층 파렴치한 형태로 나타나고있다. 박정희《정권》의 소위 《중농정책》과 《안전농가조성정책》은 이를 단적으로 실증해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근로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단결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시켜야하며 적들의 분렬책동과 야만적폭압을 물리치고 전체 근로 농민을 하나의 정치적군중조직에 튼튼히 결속시켜야 할것이다.

남조선농민들은 합법적군중단체 결성에 대한 괴뢰도당의 간섭과 어용화책동을 분쇄하고 자주성과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근로농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적군중단체를 결성하여야 한다.

남조선농민들은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다면 반드시 혁명에서 자기의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것이다.

미제의 침략정책과 일본군국주의

현 명 준

근대력사에서 일본은 군국주의가 가장 전형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하나였다. 일본에서 군벌은 절대주의적 천황제기구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 나라인민을 끊임없는 침략전쟁에로 내몰았다. 일본군벌은 일본인민과 동방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웠다.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한지 20년이 지난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다시 되살아나 머리를 쳐들고있다. 그들은 지금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에 복무하면서 그를 업고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저들의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재생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는 오늘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대두하고 있다》(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 *

일본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것은 2차 대전후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였다.

미제는 아세아침략정책의 기본을 아세아사회주의국가들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민족해방투쟁을 탄압말살함으로써 저들의 식민지체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두고 있다.

미제는 이러한 침략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본이 놀수 있는 역할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첫째로, 일본이 가지고있는 전략상 유리한 지리적조건과 풍부한 인적자원 둘째로, 일본의 발전된 공업력 특히 군수산업의 커다란 잠재력 세째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가장 야수적인 침략경험에 착안하였으며 이 모든것을 전후에 급격히 장성한 아세아의 혁명력량을 반대하는데 돌릴것을 타산하였다.

미제는 이와같은 전략적타산밑에 한편으로는 일본의 전령토를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며 다른편으로는 일본반동세력과 결탁하여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다아는바와같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제의 패망은 일본군국주의를 종식시키고 일본에서 평화애호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과 극동위원회결의 등 전후대일문제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국제문헌들에는 쏘련의 적극적역할과 세계민주력량의 강력한 진출에 의하여 군사파쑈기구의 해체와 전범자들에 대한 처벌, 경제, 사회, 문화생활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실시,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새 일본정부의 수립 등 기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이 반영되였다.

그러나 일본의 민주주의적발전과 비무장화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는 미제는 일본을 단독점령한 첫날부터 상술한 국제문헌들을 란폭하게 유린하였고 구일본군국주의세력을 재편성하여 저들의 아세아침략계획수행의 《돌격대》로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45년 8월 26일 일제의 패망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방성이 맥아더에게 보낸 《항복후 초기 미국의 대일정책》에서는 《련합국간의 의견상이가 있을 때는 미국정책이 우선(優先)한다》고 하였고 《천황을 포함한 일본의 정부기구 및 기관을 통하여》 정책이 실시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일본에 대한 단독점령정책을 실시하며 구통치기구와 반동세력의 지반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초기정책의 기본을 두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는 우선 일본반동세력의 지주인 천황제를 청산할 대신에 그를 재군국화의 도구로 보존하였다. 당시 맥아더가 《천황은 기계화부대 20개 사단보다 더 나은 전력(戰力)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전범자처벌, 군국주의세력의 추방, 재벌《해체》, 《농지개혁》 등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였다. 일본의 군부와 군국화의 기구들도 그대로 보존되였다. 미국기자 마크 케인은 자기의 《일본일기》에서 이렇게 썼다:《이 전쟁기구의 해체는 하나의 사기적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병사들은 고향에 돌아갔으나 계획자들은 뒤에 남았다. 북해랑복원국은 일본이 항복한 그 날부터 일본의 군사적재생을 계획하는 소참모부라는것이 나의 확신이다》.

군사관료기관의 책임적지위에 있은 《추방》해당자 66만 3,988명중 1947년말까지 겨우 1%만이 《추방》되였는데 그것마저 조선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해제되였다.

일본의 재군국화를 위한 미제의 책동은 1948년경부터 더욱 로골화되였다.

미제는 당시까지는 점령정책의 기본을, 이른바 《민주화》정책을 통하여 일본재벌과 통치세력내부의 적대적 및 경쟁자적측면을 제거하고 그것을 예속적인 세력으로 개편하는데 두었다면 이제와서는 저들에게 추종하는 세력을 더욱 공공연히 비호육성하는데로 나아갔다. 이것은 아세아에서의 혁명력량의 급속한 장성과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총붕괴에 대처하려는것이였다.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은 일본의 재군사화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의 정규무력을 창설하는데 착수하였고 일본전령토를 군사기지로, 후방공급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정책을 급속히 추진시켰다. 그들은 일본의 재군국화와 군사기지화를 합법화하며 일본을 군사동맹에 끌어넣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쌘프랜시스코단독강화조약과 미일《안전 보장》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선전쟁을 도발한지 2주일후인 1950년 7월 8일 맥아더는 당시 일본수상 요시다에게 《8월말 전으로 7만 5,000명의 국가경찰 예비대를 창설함과 동시에 해상 보안대의 현유해상보안력에 8,000명을 증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지시하였다.

조선전쟁은 미제의 《원조》하에 부활되기 시작한 일본독점자본가들에게 일대호경기를 가져왔다. 그들은 전쟁기간에 22억딸라의 미군《특수》주문을 받아 공업생산을 70% 높였으며 독점의 기초를 가일층 강화하였다.

일본의 재군국화는 특히 1960년 신《안보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미제는 이 조약을 통하여 일본을 저들의 핵전략체계에 완전히 끌어넣고 미일《공동 작전》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을 전면적으로 《협조》하며 재군국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한 의무를 지게 되였다.

미제는 일본의 재군국화를 위하여 막대한 군사경제적《원조》를 주었는데 그것은 1954년의 일미《호상방위원조협정》체결이후 급속히 전개되였다. 이것은 물론 그 이전에는 《원조》가 없었다는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협정》체결이전에도 미제는 조선전쟁기간의 《특수》주문을 제외하고 1946년부터 1951년말까지 일본독점자본가들에게 21억 딸라를 제공함으로써 군수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게 하였다. 그들은 또한 《극동미륙군공급계획》에 따라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일본군대에 제공하였다.

1954년의 《호상방위원조협정》체결후 일본군대의 무장장비를 위한 일련의 새협정이 체결되였는데 1954년의 일미《함정대여협정》, 1956년의 《방위기술원조협정》, 1957년의 《항만방비기재대여협정》, 로케트 비행기생산에 관한 4개협정(1955, 1956, 1957, 1958) 등이 그 대표적 실례들이다.

일본에 대한 미제의 군사《원조》는 1951년 4월부터 1962년 6월말까지 기간에 무려 5,036억원(일화) 즉 14억딸라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1962년 현재 일본무력에서 땅크, 대포, 고사포, 류탄포, 박격포, 로케트포 및 기관총의 거의 전부와 자동포의 90%, 무한궤도차의 85%가 미국의 《원조》로 공급된것이였고 군용비행기의 47.5%, 해상《자위대》소속의 총합선수의 42.2%(총톤수의 51.9%)가 역시 미국에서 공급된것이였다. 이 밖에 일본에서 생산된 최신무기들도 그 대부분이 미국의 기술문건에 의해 제작된 것이였다

이러한 몇가지사실들은 일본의 재군국화가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으며 그들의 적극적인 비호와 육성하에서 진행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 *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과 그로부터 출발한 대일정책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리해관계와의 일치점을 발견하였고 《살길》을 찾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원조》를 리용하면서 잠재력을 동원하여 재군비를 촉진시켰고 군국주의지반을 꾸리는데 광분하였다.

일본군국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자위대》는 인민탄압과 대외침략을 위한 현대적장비로 급속히 무장되고있다. 1950년에 7만 5,000명의 《경찰예비대》로 발족한 일본《자위대》는 현재 예비《자위관》을 포함하여 30만 이상으로 자라났다. 일본함대는 기본함선 200수십척과 보조함선 250여척(총15만톤)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항공력은 초음속최신폭격기를 주력으로 한 각종 군용비행기 1,700여대로 구성되여 있다. 이리하여 오늘 일본《자위대》사단의 화력과 기동력은 전전에 비하여 각각 5배, 8배에 이르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의 군사력을 《공동작전》수행에 적용시킬 목적 밑에 소위《제3차 방위정비계획》(1967∼1971년)을 작성하고 급속히 추진시키고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자위대》가 핵로케트무장화에로 나아가고있으며 공격무기체계에로 넘어가고있는 사실이다.

군국주의부활의 경제적기초인 일본독점자본도 급격히 팽창되고있다. 일본의 공업생산은 전전(1936~1937년)의 5배 이상에 달하였다. 특히 군수산업의 토대로 되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언제나 경제를 군수경제로 개편하고 대대적인 무기생산체계에로 넘어갈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에 토대하여 일본독점들은 《자위대》무기의 국산화구호하에 각종군용비행기, 함선, 땅크, 유도탄등을 비롯한 무기생산과 그 개발에 혈안이 되고있다.

일본의 재군국화의 이러한 발전은 이미 우에서 언급한 미제의 군사경제적《원조》와 함께 본래 일본이 가지고있은 커다란 잠재력에도 기인한다.

군사적측면에서 일제는 패전당시 700만이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에는 력사적으로 침략에 대한 갈망이 골수에 사무친 군부와 관료집단이 형성되고 있었다.

일본의 재군국화과정을 통하여 구《황군》출신군인들이 대대적으로 《자위대》의 골간으로 기용되였다.

그리하여 구《황군》출신군인들이 일본군대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장급의 81.2%, 소장급의 80.7%, 대좌급의 79.3%, 중좌급의 66.9%, 소좌급의 48%, 위관급의 29.8%를 각각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구《황군》의 침략적전통이 《자위대》에 계승되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군부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의 잠재력도 가지고있었다. 패전 당시 일본경제가 혼란상태에 있었고 적지 않은 공업시설이 파괴되였으나 중공업설비를 특히 군수산업과 판련된 부문은 크게 파괴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5년 9월 현재 주요중공업설비능력은 전전인 1937년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1937년	1945년 9월 현재
강철(100만톤)	5.8	11.6
선철(〃)	2.3	6.2
발전(100만kw)	4.6	7.6
조선(1,000톤)	450	700~800

현대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군국주의와 파쑈즘은 같은 토양의 산물이며 그것들은 서로 보강하며 의존한다.

오늘 일본에는 재군국화의 강화와 함께 각양각색의 우익파쑈단체들이 횡행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지배층의《별동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애국》, 《구국》이라는 미명하에 군국주의부활의 정신적 및 정치적지주로서의 천황의 신격과 절대주의적권력을 회복하며 재무장의 강화를 공공연히 요구하여 나서고있다. 현재 일본에는 약 800만명을 헤아리는 반동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행동대》라고 할수 있는 우익만도 수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우익단체의 두목들은 거개가 구군벌과 관료에 속하는 자들이며 일본독점자본, 자유민주당 및 국가기관과 이러저러하게 련결되여 있고 그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공급받고있다. 공식적자료에 의하면 1959년 여름부터 1960년 6월까지 기간에 그들이 독점자본가들과 정치계층들로부터 받은 자금은 약 5억원(일화)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에서의 파쑈단체들의 이와같은 급속한 재생은 일본이 더욱더 군사파쑈테로체제의 확립을 다그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와함께 국가기구의 반동화, 교육의 반동화를 위한 책동이 로골화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각종 악법을 조작함으로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말살하려고 광분하고있으며 《자위대》의 《해외파병》, 징병제의 실시, 방위청의 국방성에로의 승격 등 재군국화를 더욱 로골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현행헌법을 개악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각종 수단들을 통하여 군국주의사상과 복수주의사상을 반광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사태는 오늘 군국주의가 국가생활의 모든령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것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　　　*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세계반동의 지주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와 결탁하고있으며 그의 예속하에 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 교활하고 위험하다.

일본군국주의는 일본독점자본주의의 대외침략과 인민탄압의 무기로 복무하면서 동시에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복무한다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복무하면서 그 대가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자기보다 강한 제국주의에 아부하면서 그를 업고 이웃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은 력사적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통이며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들은 이전에도 바로 이러한 수법에 매달려 미영제국주의의 지지하에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였고 아세아에서 《헌병》행세를 하였던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 전통적인 수법은 현 일본지배층의 정책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오끼나와와 오가사하라군도는 물론 일본의 전령토를 아세아사회주의국가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미제의 핵전략기지로 내맡기고 있는바 오늘 하늘과 바다로부터 매일과 같이 웰남을 공격하는 미국폭격기들과 함선들이 일본이 제공한 기지들을 중계지로 리용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궁지에 빠져 허덕이는 미제를 돕기 위해 각종 무기와 탄약을 비롯한 군사물자들을 대량적으로 공급하고있을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직접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붙는 불속에서 밤알을 줏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한협정》체결후 남조선에 대한 정치경제적침투를 강화하는 한편 미제의 사촉하에 《동북아세아군사동맹》조작책동에 적극 발벗고 나서고있다. 그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이른바 악명높은 《세개화살작전》과 《날아가는 룡작전》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외교분야에서도 일본지배층들은 소위《자주적외교》라는 간판을 들고 나오나 기실은 미국의존외교를 실시하면서 각종 국제기구들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비호해 나서고있다. 미제의

《두개중국》조작음모, 아세아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봉쇄》정책 등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앞장에 서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에 추종하여 그에 적극 복무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의 침략적야욕을 달성하려고 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책동은 《일한협정》체결과 최근에 있은 이른바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각료회의》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일한협정》을 통하여 사실상 남조선의 박정희도당과 군사적제휴를 합법화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금번의 소위《각료회의》에서 《협력》이라는 간판하에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에로 손을 뻗치려는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드러내놓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대외팽창은 오늘 남조선, 대만, 남부웰남 등 미제의 《세력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한편으로 미제의 침략정책에 협조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의 대외팽창의 야욕을 달성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과잉생산으로 하여 시장문제에 고통을 겪고있는 일본경제의 난관을 타개하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및 군사적발판을 구축하려 하고있다.

상술한 제반 사실들은 전후의 새로운 조건하에서 미제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예속이 심화되고있으며 그들간의 침략적공모와 결탁이 극히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전후 일본 독점 자본주의가 빨리 되살아나고 제국주의 세계에서의 그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제고되였다는것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나머지 일본의 예속성을 보지 못하는것은 부당하다.

현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그 경제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제국주의적징표들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군사적, 외교적 및 금융적으로 미국에 강하게 예속되여 있다.

일본의 미국에 대한 예속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일미간의 모순을 과대평가하는 견해와 상통하며 그것은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데로 나갈수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자주적외교》를 표방한다고 하여 그의 기만적언사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자주성을 주장하는것은 현 일본지배층의 대미의존정책을 반대하는 일본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전후자본주의발전의 불균등성에 의하여 제국주의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기타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의 지위는 현저히 강화되였다. 미일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일본독점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한 결과에 미국과 일본간의 모순은 증대되였고 앞으로 그것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그들간의 모순보다도 오히려 결탁의 측면이 보다 정면에 나서고있는바 그것은 다른 정치적요인과 결부되여 모순이 계속 증대되는 조건하에서도 앞으로 일정한 시기까지 지속되지 않을수 없다.

아세아정세가 근본적으로 변천된 현조건에서 미제는 일본을 발판으로 하고 일본군국주의를 리용하지 않고서는 아세아와 극동에서 침략과 전쟁정책을 충분히 실현할수 없다. 다른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도 현조건에서 미제를 등에 업지 않고서는 침략적야망을 실

현할수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미일반동들은 그들간의 모순이 현재 일정하게 커지고있으나 대외침략을 실현하려는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더욱더 결탁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 *

현재 미제의 세계전략의 중심이 아세아로 옮겨지고 이 지역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제는 저들의 아세아침략정책에서 일본이 노는 역할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일본침략자들 역시 미제와 결탁하여 대외침략을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와 결탁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강화하여야 한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만약 미제는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그와 결탁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여주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전세계인민들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의 전철을 밟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침략적야망은 결코 실현될수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현병》행세를 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의 아세아는 과거의 아세아가 아니다. 아세아의 반제력량의 선두에는 강유력한 사회주의국가들이 서있으며 세계의 광범한 민주력량이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을 반대하여 강력히 진출하고있다.

미일반동을 반대하며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와 중립을 위한 일본인민의 투쟁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

그 어떠한 세력도 민주주의적인 새 일본을 건설하기 위한 일본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저지할수 없으며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진출을 막을수 없다.

일본을 또다시 침략의 길로 끌고 가며 아세아인민을 노예화하려는 미일반동들의 책동은 파탄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퇴폐적인 부르죠아반동문학에 대한 찬미와 추종

김 해 균

오늘 남조선에서 문학을 민주주의적 민족문학의 길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외국문학에 대하여 옳은 태도를 취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외국문학에서 선진적인것, 민주주의적인것들을 적극섭취하고 반동적이며 퇴폐적인것들을 배격하면서 자체의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도상에서만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민족문학의 발전이 가능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저들의 반동적문예정책에 따라 조선인민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외곡말살하기 위한 술책을 꾸미는 한편 외국의 퇴폐적인 부르죠아 반동문학을 백방으로 류포시켜 왔다. 실로 외국반동문학의 독소는 남조선 문학을 파국에 놓이게 한 가장 해독적인 요인의 하나이다. 오늘 남조선반동문학가들의 절대다수는 외국문학《전문가》 또는 그 추종자들이며 그들이 남조선반동문학의 선두에 서서 새로운 민주주의적민족문학의 형성발전을 방해하고있다.

남조선문학에 끼치는 그들의 해독성은 외국문학에서의 선진적인것을 묵살 또는 외곡하는데서, 반동적이고 퇴폐적인것을 극력찬미하고 추종하는데서, 외국의 반동문학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 악랄하게 도전하고 있는데서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들이 외국문학에서의 선진적인것을 어떻게 묵살 또는 외곡하고있는가를 먼저보자.

일찌기 레닌은 부르죠아사회에서 매개민족문화에는 부르죠아적인 문화와 더불어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문화의 요소들이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그것은 매개의 민족에는 이러한 문화를 낳는 근로대중이 존재하며 그들의 생활조건이 불가피하게 민주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산생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외국문학《전문가》들은 계급사회에서의 두가지문화의 존재를 거부하고 다만 부르죠아문화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반동적인 《유일 문화 조류론》에 따라 외국문학에서의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문학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외면하고있다.

남조선출판물에 발표되고있는 수많은 외국문학에 관한 론문이나 평론들 가운데는 외국의 진보적인 문학사조, 진보적인 작가와 작품들을 취급한것이 거의 없으며 퇴폐적인 문학조류와 반동작가와 그들의 작품들만이 소개선전되고있다. 남조선의 반동문학가들은 혹간 외국의 선진적인 고전작가나 작품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그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을 말살하고 력사적제한성에서 오는 락후한 측면을 과장하여 리상화하는것이다. 가령 《사회적 질서. 쉑스피어의 예술》이라는 글에서 남조선의 한 영국문학전문가가 쉑스피어를 한낮 부르죠아사회의 질서를 긍

정하는데서 행복을 발견한 작가로 외곡하고있는것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물론 섹스피어의 일부 초기작품들에는 영국에서의 자본주의발전의 첫시기인 문예부흥기에 인문주의자들이 지녔던 락천적인 현실긍정의 사상을 표현한것들이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의 전체창작과정에서 주요한것은 인문주의자들의 리상이 부르죠아도덕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데 대한 분격의 목소리였으며 부르죠아사회의 정치적모순에 대한 폭로였다. 《베니스의 상인》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로 된다.

우에서 말한 남조선의 필자는 섹스피어예술의 주도적인 특징 즉 그 진보적인 측면을 말살하려 했을뿐 아니라 영국자본주의초기의 인문주의자-섹스피어의 락천성을 죽어가는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려는 현대부르죠아반동작가들의 허위적인 락천주의와 슬쩍 바꾸어놓으려 하고있으며 선진인류가 낳은 위대한 예술가의 한사람을 자기들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의 사환군으로 전락시키려 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외국문학《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는 한편 외국문학중에서도 가장 퇴폐적인것, 반동적인것을 남조선문학에 적극소개선전하고있다.

그들이 목청을 돋우어 소개선전하고 있는 외국작가들 가운데서 19세기부르죠아퇴폐문학의 《할아비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반동작가 에드가 앨란 포, 현대영국문학에서의 악명높은 《반공》작가 죠지 오웰, 모더니즘의 두목들인 에즈라 파운드, 죠지 엘리오트 등이 큰 자리를 차지하여 있다. 에드가 앨란 포로 말하면 미국의 한평론가까지도 《그의 진생애에서 세속적인 악덕과 저속한 도덕적 결합밖에 찾아낼 것이 없다》고 말할만큼 성격파탄자였으며 패덕한이였다. 또한 죠지 오웰은 1946년에 흉악한 《반공》소설 《동물농장》을 발표한 이래 미영반동출판물들이 《고전적풍자작가》로 추켜세우고 있는 미제의 충실한 사환군이다.

남조선의 외국문학《전문가》들은 하많은 외국작가들 가운데서 정치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만을 골라서 대서특기하여 선전함으로써 남조선작가들을 그들의 《모범》으로 《교양》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남조선의 한출판물에 《현대문학씨리즈》란 표제 아래 련재된 외국작가들에 대한 소개론문들을 보아도 명백하다.

한필자는 《서구작가와 사회의식-정치적태도를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1930년대에 변절한 서구타파의 일련의 반동작가들을 극력 옹호하면서 그들의 《전향》이 당연한것으로 묘사하였다. 다른 한필자는 《인종편견과 작가 량심》이란 글에서 흑인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모욕으로 자기 작품들을 판롱시키고있는 미국의 반동작가 포크너를 《인내와 성실의 미덕》을 찬양한 《량심적인 작가》로 추켜 세웠다. 1962년 포크너가 사망했을 때에 당시 미국대통령 케네디가 《미국문학에 그와 같이 거대하고 항구적인 기념비를 남긴 작가는 없다》(《뉴욕 타임스》)고 말한것을 상기할 때 우에서 말한 남조선의 필자가 누구의 잡패대를 앵무새처럼 옮기고있는가를 넉넉히 짐작할수 있다.

특히 《티.에스.엘리오트를 추모하여》라는 표제밑에서 쓰인 일련의 론문들에서 남조선의 미영문학전문가들은 티.에스.엘리오트를 《상징과 신앙의 위대한 시인》이니, 《영국비평사상 획기적인 평론가》니, 《리론과 실천량면에 걸치는 업적을 남긴 극작가》니 하고 요

란스럽게 떠들어대였다.

이와 같이 하는 남조선외국문학《전문가》들의 진의도를 알기 위하여 티.에스.엘리오트의 경력을 간단히 살펴보는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영국에 귀화한 미국의 반동작가 티.에스.엘리오트는 제1차 세계대전전에 파씨스트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대대적인《문화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에 히틀러독일에 류학하여 파씨즘을 배워 왔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전후시기에 수많은 론문과 소책자들을 통하여 세계주의와 카톨릭주의를 설교하는 한편 죽음과 절망을 부르짖으며《반공》사상을 고취하다가 작년 1월에 그 추악한 일생을 마친 대표적인 미영반동작가이다. 미제와 그 사상적머슴군들은 남조선의 작가들에게 티.에스.엘리오트의 뒤를 따라 미제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옹호자로, 퇴페적인 모더니즘의 신봉자로 될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엘리오트와 함께 남조선의 반동문학가들이 스승으로 섬기고있는 에즈라 파운드의 경력을 보면 남조선반동문학가들이 무엇을 남조선작가들에게 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미국반동작가 에즈라 파운드는 무쏠리니의 로마침공시기부터 파씨즘의 광신자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딸리아에서 살면서 자기의 모국을 향하여 파씨즘을 선전하는 방송을 발광적으로 해오다가 1945년 이딸리아빨찌산에게 체포되여 미국사령부로 이송되였고 워싱톤에서 반역죄로 기소되였었다. 그러나 미국반동들은 그를 옹호하여 《정신이상》이란 명목밑에 12년간 병원에서 안일하게 지내게 하다가 마침내 기소를 해제하고 그를 이딸리아로 돌려 보냈다. 파운드는 이와 같이 철두철미파쑈스트의 충실한 주구이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고상한 사상성과 예술성을 가진 작품이 나올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티.에스.엘리오트와 에즈라 파운드는 1920~1930년대부터 모더니즘의 지도자들이였으며 히틀러와 무쏠리니를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훼방중상하는것을 창작의 기본으로 삼아왔다. 그들의 시라는것은 호상 아무런 련관성도 없는 무의미하고 상징적인 언어의 라렬이며 정신이상자의 병적심리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의 외국문학《전문가》들과 그 추종자들이 소리높이 소개선전하고있는 외국작가들중 몇명의 미영반동작가들만 놓고 미루어보아도 남조선에서 외국문학 소개사업이 미제의 사상적노예화정책에 복무하고있다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

남조선의 반동문학가들은 외국작가들 가운데서 정신분렬자, 패덕한, 변절자, 반역자들을 골라 그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작품의 퇴페성과 반동성을 미화하기 위하여 《사회정치로부터의 문학의 독립성》이니,《문학의 초계급성》이니 하면서 《순수문학》을 들고나온다. 우에서 이미 말한 《서구작가와 사회의식-정치적 태도를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필자는 일반적으로 작가의 사회의식을 거부하면서 《작품의 사회개조를 위한 힘과 가치는 반비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문학》에 대한 주장은 진보적작가들의 사회정치적립장과 진보적작품의 고상한 사상적내용에 대한 그들의 공포의 표현이며 부르죠아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려는 계급적립장의 표현이다. 적대계급으

로 분렬되여있는 계급사회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작가도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정한 계급의 견해와 리상,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남조선의 반동문학가들은 《순수문학》의 간판을 들고 외국의 반동작가들과 작품들을 정당화하려 하고있을뿐 아니라 그것들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 로골적으로 도전함으로써 그 반동적본질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보이고 있다.

우에서 본 《론문》의 필자는 작가의 사회의식이 그의 작품의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자기의 그릇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30년대 우리 나라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을 포함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그 정치사상적내용으로 하여 《무가치》한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우에서 말한 《현대문학씨리즈》에 대한 총결론적으로 씌여진 《서구전통과 우리의 문제》라는 글에서 한 외국문학《전문가》는 문학의 목적이 쾌락을 주는데 있다고 하는 영국문학에서 배울것을 주장하면서 그와 배치되는 문학의 실례로서 《1930년대의 한국프로문학이 그랬고, 사회주의적리얼리즘의 작품(을 읽어본적이 없지만)이 례외일수 없는것이다》라고 썼다.

여기에서 필자는 문학의 사회적내용을 거부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공격하기 위하여 남의 나라문학의 전통까지도 서슴없이 외곡하고있다. 우에서 말한 섹스피어만을 보더라도 영국의 문학가들 모두가 결코 문학의 목적이 쾌락에 있다고 간주한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실로 선진적인 영국의 고전작가들은 모든 나라의 선진적인 작가들이 그러했던바와 같이 당해시기의 사회적모순속에 깊이 침투하여 시대의 본질을 천명함으로써 자기들의 작품에 불후의 가치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결코 사회생활과 동떨어진 《쾌락》으로써 근로인민들의 사회정치적의식을 마비시키는데 문학의 목적을 둔것은 아니였다.

고상한 사상성에 안받침되여있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예술성에 대한 남조선반동작가들의 비방은 허황한것이다. 문학작품의 사상적내용은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일차적요소로 된다. 작품이 제기하는 사상이 허위적이고 기만적일 때 그러한 작품에서는 생활현상의 란폭한 외곡을 찾아보게 된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사상성과 함께 형상성을 높이기위하여 얼마나 진지한 예술적탐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남조선반동문학가들의 시도는 이 문학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말살해 보려는 악랄한 책동에서 나온것이다. 그것은 남조선반동문학가들이 선전하고 있는 외국문학작품들 가운데에 데닌적당성원칙에서 벗어난 일부수정주의작가들의 작품이 《가치있는 작품》으로서 렬거되고있는것만 보아도 명백하다.

남조선의 반동문학가들이 외국의 반동문학을 소개선전하는 궁극적목적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거부하고 서구문화 특히 퇴페적인 미국식문화를 부식하려는데 있다. 우에서 말한 《서구전통과 우리의 문제》라는 글에서 필자는 《한국의 근대화는 불가피하게 서구화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서구문학을 《과감하게 도입》할것을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외국문학《전

문가》들은 우리 나라문학에는 전통이 없다고 하는 《무전통론》 또는 우리 나라문학은 외국문학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모방론》을 들고 나오는 이른바 《한국》문학전문가들과 목청을 합하여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동적 문예정책의 실천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동적문예정책과 반동문학가들에 의한 서구문학의 《과감한 도입》은 남조선문학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 왔다.

오늘 남조선문학에 《도입》된 반동문학평론가운데에서 《신평론》(뉴 크리티시즘)은 원래 티.에스.엘리오트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모더니즘문학의 지도적인 평론으로 조작된것이다. 그것은 문학작품의 사회적본질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언어구성의 형태적제요소를 분석설명》하는 것이 평론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신평론》은 모더니즘신봉자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반동평론의 《미학적지침》으로 되고있으며 남조선문학에서의 평론의 선도적역할을 마비시키고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되고있다.

또한 남조선문학에 소개선전되고있는 외국반동작가들이 대표하는 부르죠아반동문예사상조류들은 남조선의 많은 작가들을 그 독소로 오염시켜 퇴페타락케 하고 절망, 변절, 반역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하고있다.

특히 미국의 《두들겨맞은 세대》(비트 제네레이션), 프랑스의 《반소설》(앙띠 로망) 등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기에 구미에서 발생한 잡다한 퇴폐적인 문학류파들은 그 창시자들의 이름과 함께 남조선반동문학에 널리 류포되고있다. 그것들은 남조선의 젊은 작가들의 창조적재능의 발현을 가로막고있으며 남조선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극도로 기형화하고 파괴함으로써 그것을 헤여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특히 최근시기 남조선의 량심적인 문학가들이 우리 민족문학유산의 계승과 외국문학의 성과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체의식의 확립을 강조하고있는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새로운 민주주의적민족문학의 발전에 대한 남조선인민의 불타는 지향을 반영한것이다.

최근 남조선출판물에 발표된 《주체성과 비평정신》이란 글은 부분적인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필자는 《사회와 문학의 근대화에 우리 주체성을 확립하고 이 주체성에서 과거에 돌아가 알맞는 전통을 계승하여 오고, 외국에 나아가 유익한 문화를 이식하여 와야 할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남조선문학에서의 주체의식의 확립을 강조하고있다. 또한 《독선과 모방의 탈피》라는 글에서 필자가 《아무런 저작과 소화도 없이 마구 외국작품을 모방하는것은 자기 주체의 빈약을 로정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의 작품에서 우리가 참고할것이 무엇인가를 색출해내여서 우리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해야 될것이다》라고 쓴것은 남조선에서의 외국문학도입에 대한 정당한 립장의 표시이다.

문학에서의 주체의식의 확립은 외국문학을 무턱대고 배격하고 좁은 울타리속에서 자기것만 좋다고 하는 협애한 립장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문제는 외국문학현상을 정확히평가하고 그 인민적이며 선진적인것을 우리의 민족적토대우에서 적합하게 섭취하여 자기 민족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주체적립장에 있는것

이다.

남조선의 한필자는 벌써 여러해전에 《외국문학수입에 대한 관견(管見)》이란 글에서 까뮤, 싸르트르 등 외국의 실존주의문학작품들이 남조선에서 번역문학의 주류를 이루고있는 사실을 개탄하면서 《수많은 후진들에게 그 이전의 세계명작을 소개해주지 못한 과오가 얼마나 크게 영향될 것인가?》라고 경고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외국문학도입의 한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 필자의 경고는 아주 정당하다.

세계의 가치있는 고전문학을 소개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해당작가 또는 작품의 선진적이며 긍정적인 측면과 반동적이며 부정적인 측면을 엄격히 구별하여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견지에서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다. 세계고전작가들 가운데는 시대적,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그의 세계관이 복잡하고 따라서 그의 작품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있는 작가가 드물지 않다. 일찌기 레닌은 《로씨야혁명의 거울 레브 똘스또이》에서 똘스또이는 《한편으로는 로씨야생활의 비할바 없는 화폭들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에서 제1급 가는 작품들을 내놓은 천재적예술가이다. 다른편으로는 크리스트에 미친 지주이다》(레닌전집 제15권, 235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똘스또이에 대한 레닌의 지적은 일반적으로 고전작가들의 세계관의 모순성과 그들의 작품의 현대적의의를 리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된다.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 평론가들은 작품평가에서의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외국문학에서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요소들 섭취함과 동시에 외국문학의 그릇된 도입이 남조선문학에 가져온 엄중한 후과를 시급히 청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필봉을 더욱 날카롭게 하여야 할것이다.

근 로 자 제 7 호 (루계 29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6년 7월 15일 발행 • 1966년 7월 20일

ㄱ—63236 값 50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8 호

평양 근로자사 1966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8 호 (294)

차 례

자주성을 옹호하자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과거에 우리 나라는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사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해방후 여러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혁명사업에 참가하게 되였으며 당대렬의 구성도 복잡하였다. 또한 일부 일군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수양이 낮고 혁명투쟁의 경험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당내에 교조주의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계속 당의 정확한 정책의 관철을 방해하였다. 전후시기에 들어와 교조주의의 해독적작용은 더욱 혹심하게 나타났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것은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1955년에 우리 당은 모든 분야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것은 종파주의자들의 맹렬한 반항에 부딪쳤다. 1956년에 그들은 당의 자주로선에 정면으로 항거하여나섰다. 종파분자들의 반당적활동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혁명도 건설도 더 전진시킬수 없었다.

우리 나라의 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수정주의자들이며 교조주의자들이였다. 그들은 또한 사대주의자들이며 민족허무주의자들이였다. 이리하여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현대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였다.

우리 당은 종파분자들의 반당적진출을 단호히 물리쳤다.

결과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였으며 당원들속에서는 주체사상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모든 사업에서 당의 자주로선이 관철되였다. 주체의 확립은 당내에서 실로 새로운 사상해방을 가져왔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나타났다.

국제관계에서도 우리 당은 자주적으로 활동하였다.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우리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 정세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갔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이다.

제반 사실은 우리 당이 취한 모든 방침이 전적으로 옳았다는것을 확증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거둔 승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자주로선의 결실이다.

1.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혁명과 건설은 간고하고 복잡하고 창조적인 사업이다.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은 모든 낡은 세력들의

필사적인 변향에 부닥치게 되며 허다한 난관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과거에 누구도 당하여보지 못한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이 부단히 생겨난다.

이 모든 경우에 써먹을수 있는 미리 준비된 처방이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을 지도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며 자기의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그래야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매개 나라의 실정은 그 나라 당이 잘 안다. 남이 더 잘 알수는 없는것이다. 또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해서는 그 나라 당이 책임지고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똑똑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해나갈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독자적으로 맑스—레닌주의서적을 보고 리해할수 있다. 그들은 능히 자체로 맑스—레닌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혁명수행의 정확한 방도를 찾을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대가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바로 처리해나가는데 있어서 자기의 독자적두뇌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경우에 쓸수 있는 그러한 처방이나 혹은 그러한 일반적통칙…을 만들어내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매개 개별적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판별할줄 알자면 독자적인 두뇌를 가져야 한다**>.

독자적인 두뇌를 가진다는것은 사물과 현상을 자기 머리로 관찰하고 판단하며 자주적으로 행동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매여살수 없다. 사상적으로 남에게 매여있어서는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사상적으로 자유로와야 한다. 또한 자기 정신으로 살아야 하며 확고한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남의 품에 놀수 없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머리로 사고하지 않는다면 자주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아무런 주견과 신념도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남이 말하는대로 따라 말하며 남이 움직이는대로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다.

자주성을 잃은 당은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수 없다. 그러한 당은 오늘은 이랬다 래일은 저랬다 한다. 그리고 부단히 한 편향으로부터 다른 편향으로 왔다갔다 하게 된다. 바람이 부는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할수 없다.

독자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잃게 되면 옳고그른것을 식별할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자기도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교조주의를 하면 자기도 교조주의를 하게 된다. 달리는 될수 없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상정치분야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하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며 어떠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옳고그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독자성과 자주성을 잃게 되면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좌우경적기회주의를 다 범할수 있으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사업을 망쳐버릴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결과 손해를 보게 되는것은 다름아닌 그 나라 당이며 그 나라 혁명이다. 이것은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도 해로운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는 자기 정신으로 활동하지 않았기때문에 혁명에 큰 손실을 끼친 쓰라린 경험들이 적지 않다.

물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할수 없다. 혁명을 헐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것이다.

자주정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장애로 되는것은 사대주의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고 떠받드는 노예적굴종의 사상이다. 그것은 대국주의를 끌어들이며 교조주의를 낳게 한다.

지난시기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대주의는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다. 력대적으로 우리 나라 봉건통치배들은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였다. 그들은 대국에 아부굴종하며 그에 의거하여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려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는 오랜 기간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한때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작고 락후한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우리 나라의 일부 사람들을 사대주의에 물젖게 하였다.

물론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가 나올수 있는 사회계급적조건은 없어졌다. 그러나 사대주의사상잔재는 의연히 남아있었다.

사대주의자들은 한때 혁명위업에 적지 않은 해독을 끼쳤다. 그들은 모든 일을 자기 머리로 사고할 대신에 우선 남을 쳐다보고 남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것만을 기다렸다. 그리하여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였으며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다. 이런자들은 큰 나라의것이라면 무조건 숭배하였으며 모든 일에서 남을 모방하는데만 골몰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정신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태도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것도 아니며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것도 아니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서부터 혁명을 하고있다.

스스로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주견없이 남에게 맹종맹동할수 있겠는가. 사대주의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울수 없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갈수 없었다.

우리 당은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내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주적립장이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었다. 또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련결되여있다. 만약 우리 당이 모든 문제를 자기의 정신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립장을 견지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오늘과 같은 성과를 달성할수 없었을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이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정확히 처리해야만 자기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하며 자주정신을 가지고 주체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2.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이며 그 나라 인민이다. 따라서 혁명을 수행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공산주의자들은 주인된 립장에 서야 하며 우선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혁명도 건설도

할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줄수는 없는것이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으며 수입할수도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그 나라 내부력량이라는것을 가르치고있다. 혁명의 승패는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 당과 인민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에 달려있다.

매개 나라의 혁명은 물론 세계혁명과의 련관속에서 진행되며 국제적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적요인의 작용을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된다.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전세계 로동계급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본적인것은 그 나라 내부요인이다.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오늘날 윁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에서의 승리는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윁남인민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원을 받고있다. 이것은 물론 윁남인민에게 도움으로 되고있으며 고무적힘을 주고있다.

그러나 오늘 남북윁남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전쟁에서 거두고있는 위대한 승리의 주되는 요인은 외부의 원조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자신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영웅적투쟁에 있다.

그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은 승리할수 없는것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우선 자기 나라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자기 인민의 힘에 확고히 의거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문제는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그 힘을 옳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떠한 창발성과 적극성도 발휘할수 없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기대할수도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도 잃어버리게 된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혁명력량을 준비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원조만 앉아기다린다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며 혁명의 전취물도 고수할수 없을것이다. 이것은 남에게 의존하여 남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하려는 태도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고 외부의 지지성원은 부차적인것으로 여겨야 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투쟁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할수 있으며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도 기여할수 있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어디까지나 자기 힘을 첫자리에 놓고 외부로부터의 원조는 다음자리에 놓아야 한다. 이것은 혁명의 주인이 그 나라 당과 인민이라는 원칙에 비추어보아도 정당한것이다.

자기 힘을 위주로 한다는것은 다른 나라의 지지와 원조를 배척하는것이 아니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국제적지지와 원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커다란 힘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와 원조만 바라면서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혁명의 전진은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주인이 똑똑하여야 그 원조를 옳게 리용할수 있다. 외부의 원조가 어느 정도 은을 내는가 하는것은 원조 받는 사람들에게 많이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원조라해도 원조 받는 사람들이 잘하지 않으면 원조가 큰 도움을 줄수 없다.

자기 힘을 위주로 하는것은 다른 나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자는것이다. 이것이 곧 다른 나라들의 원조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며 참된 공산주의자들의 립장이다.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정신의 발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만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장애들을 뚫고

나아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은 순조롭게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진과 함께 후퇴도 있을수 있으며 승리와 함께 실패도 있을수 있다. 혁명과 건설과정에서는 예견치 않던 난관도 생기며 희생도 나오게 된다.

모든 일에서 자기 힘에 의거하려는 태도가 없이는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사소한 곤난앞에서도 동요하고 주저앉게 된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용감성과 인내성을 발휘하여 투쟁할수 있다. 그리하여 곤난을 타개하고 불리한 정황을 유리한것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자기 힘을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왔다. 우리는 언제나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당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고있다.

전후복구건설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당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배격하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였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재더미우에서 전후복구건설의 첫삽을 들었다. 모든것이 부족하였으며 어려웠다.

당시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동요가 있었다. 특히 종파분자들은 복구건설이 우리 인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힘을 믿지 않았으며 모든것을 남의 원조에 의거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우리는 인민의 무진장한 힘에 의거한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건설할수 있다는 깊은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물론 우리는 형제나라들로부터 경제기술적원조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으로 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남의 원조만 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민의 무진장한 창조력과 국내자원에 의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형제나라들의 원조도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방침을 받들고 일떠섰다. 그리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면서 짧은 기간내에 전후복구건설을 완성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 대중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그의 로력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 대중은 당주위에 단결하여 모든 난관과 애로를 뚫고 나아갔다.

이 행정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일어났으며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였다. 숨어있던 수많은 예비들이 동원되여 도처에서 기적들이 창조되였으며 나라의 경제형편도 풀리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당당히 제 발로 걸어갈수 있게 되였으며 어떠한 시련도 능히 극복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경험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것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타개할수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매개 당이 자기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다른 나라 인민들을 지원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다른 나라 인민들의 혁명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의 혁명력량이 튼튼하여야 한다. 주체적혁명력량이 강해야 다른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며 그들에게 지원도 줄수 있다.

혁명적인민들을 지원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특히 혁명을 먼저하였거나 앞서 발전한 나라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투쟁을 하고 있는 인민들과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 인민들을 각방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상에 포로되여서는 안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할

수 없으며 계급적형제들을 잊을수 없다. 만약 자기 나라 혁명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세계혁명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혁명투쟁을 중도에서 포기하는것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혁명력량과 단결하여 공동위업의 승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맑스—레닌주의는 행동의 지침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를 자막대기로 삼아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국제로동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일반화한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합법칙성이 명시되여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류의 모든 선진적사상의 최고봉이다. 그것은 세계혁명의 지도사상이며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며 백전백승의 무기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오직 맑스—레닌주의리론에 의하여 지도될 때에만 혁명에서 전위투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은 방향을 잃게 되며 결국에는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에 주관주의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명제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멋대로 풀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 맑스—레닌주의를 외곡하고 비속화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종파분자들이 한때 그렇게 행동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종파주의목적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명제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 본질을 외곡하였다. 또한 나라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한것처럼 자처하였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를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권리를 독점하고있는듯이 행동하였다. 이러한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으며 남이 하는 일은 다 틀렸고 보잘것없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었다. 맑스—레닌주의의 몇개 명제를 교조적으로 외우거나 하였지 그의 알맹이는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갖 행세식맑스—레닌주의자에 불과하였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쓰딸린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몇몇 쟁이들과 독경주의자들은 맑스주의와 맑스주의의 개별적결론 및 정의들을 사회발전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교조의 집합으로 간주하고있다. 그들은 만일 이 결론과 정의를 암기하여 제멋대로 인용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암기한 결론과 정의가 모든 시기와 모든 나라 및 생활상 모든 경우에 다 그들에게 유용하리라고 타산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자는 맑스주의의 문자는 보나 그 본질은 보지 못하며 맑스주의의 결론과 정의는 암기하나 그 내용은 리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뿐이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을 리해하고 그 혁명적진수를 파악하며 그것을 혁명의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맑스—레닌주의의 매개 명제들을 력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는것이 중요하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적명제들은 우선 그 당시의 혁명투쟁과 결부되여있다. 우리는 그 명제가 어떤 구체적조건과 어떤 계급투쟁의 환경에서 나왔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하며 그 기본사상을 체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옳은

대답을 줄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 그것은 실천속에서 검증되며, 보충되며, 풍부화되여 나간다.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옳게 령도하자면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발전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명제를 제시하고있을뿐이다. 그것은 매개 나라의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줄수 없다.

사회는 부단히 변화하며 발전하여나아간다. 그렇기때문에 현실은 언제나 리론보다 풍부하고 복잡하고 구체적이다.

맑스—레닌주의명제들은 매개 나라의 생동한 현실과 결부되여야 한다. 그래야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옳게 동원할수 있다.

우리는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실천하는데서 나라의 민족적 및 력사적특성을 결코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매개 나라는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처하여있으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의 수행방도도 똑같을수 없다.

원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전술의 통일은 결코 민족적다양성의 말살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원칙을 민족적 및 국가적차이에 옳게 맞추어 적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매개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것은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를 보장케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각국 당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에서 자기 나라의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원칙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부합되는것이라면 이미 있는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체의 지도리론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확한 지도리론이 있어야 정확한 전략과 전술이 나올수 있다. 다른 당의 지도리론을 가지고서는 결코 자기 나라의 혁명을 령도하여나갈수 없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독자적인 지도리론을 확립하였다. 그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반영되여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조선의 현실에 구현된 산 맑스—레닌주의이다.

매개 당의 지도리론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범위에서 의의를 가진다. 어느 한 나라 당의 지도리론이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하더라도 혁명의 요구와 정세가 나라마다 다른 조건에서 그것이 모든 당들에 통용될수는 없는것이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적용하는데서 어느 한 편향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구체적특수성만 내세우고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칙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우경기회주의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정세의 변화》, 《창조적발전》이라는 구실밑에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외곡하고 수정하였다.

력사적실례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수정주의진창속에 빠지게 되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거세하고 그 보편적진리를 부인하게 된다. 그리하여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계급협조를 설교하며 낡은 제도의 혁명적전복이 아니라 그 개량을 주장한다. 수정주의자들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그들을 미화하면서 로동계급을 혁명의 길에서 리탈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리익을 위해 로동계급의 근본적리익을 저버린다.

유고슬라비아의 실례는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른 편향도 경계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만 강조하면서 변천된 정세와 나라의 구체적특성을 무시하는것도 잘못이다.

시기와 조건을 가리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기계적으로 옮겨놓는다면 그것은 교조주의적편향을 낳게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맑스—레닌주의는 생기를 잃게 되며 죽은 교리로 되고말것이다. 또한 당은 대중과 현실로부터 리탈될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혁명과 건설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온갖 그릇된 편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하여 나아갈수 있다.

4.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매개 나라의 각이한 실정과 특수성으로부터 오는것이다. 앞으로 많은 나라 인민들이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설수록 더욱더 다양하고 귀중한 경험들이 창조될것이다.

큰 당이나 혁명한지 오랜 당만이 좋은 경험을 창조하는것이 아니다. 작은 당이나 청소한 당도 맑스—레닌주의원칙에 서서 자주성을 견지하여나아간다면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유익한 경험들을 창조할수 있다.

모든 당들이 이룩한 긍정적경험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보물고를 풍부히하며 맑스—레닌주의를 더한층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매개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더 헐하게 더 빨리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데 도움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형제당들이 창조한 경험들을 다 존중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특정된 어느 한 당의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당들의 경험이 다 귀중하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한 당의 경험만이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모범으로 될수는 없다.

어떤 당이 창조한 경험이든지 다 실천속에서 검증되여야 한다. 만일 어떤 당의 경험이 리론적으로 옳고 실천적으로 유익한것이라면 그것은 정당하게 평가될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큰 당의것이든 작은 당의것이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 리로운 경험이라면 다 존중하고 여기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형제당의 경험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것은 자체의 실정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당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누구도 간섭할수 없다.

형제당의 경험을 배운다는것은 결코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형제당들의 경험을 배우는 목적은 그것을 자기 나라 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당들의 경험을 통채로 삼키지 말아야 한다. 통채로 삼켜서는 아무리 좋은 경험도 혁명과 건설에서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해를 가져올수 있다. 본받을 가치가 있는 경험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자체의 실정과 특수성에 맞추어서 혁명에 유익하게 그것을 소화하여야 한다.

모든 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험은 있을수 없다. 매개 당들이 활동하고있는 조건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형

면에서 비록 한 나라에서는 적합하고 유익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을수 있다.

이러저러한 경험은 매개 나라에서의 구체적인 혁명적실천속에서 창조되였다. 그러므로 구체적조건이 다른 나라에 그 경험을 그대로 옮겨놓을수 없는것은 명백하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형제당들의 경험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경험들이 그 나라들의 어떠한 력사적발전단계와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계급적관계에서 창조되였으며 그것을 적용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조주의의 오유를 피치 못할것이다》.**

형제당들의 경험을 도입하는데서 우선 중요한것은 그 경험에서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가를 옳게 가려내는 문제이다.

주체적립장이 확고하지 못하면 남의 경험을 환상적으로 대하게 되며 덮어놓고 숭배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 어느것이 배울 가치가 있고 없는지도 전혀 분간할수 없게 된다.

형제당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대하며 그것을 자기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것은 결코 그 경험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형제당들 사이의 국제주의적친선관계는 그들 사이에 그 어떤 맹종맹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형제당들의 경험을 받아들이는데서도 항상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왔으며 또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은 형제당들의 고귀한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지만 그것을 항상 비판적으로 대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에 도움이 될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때 우리 당내에 잠입하였던 일부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형제당들의 경험에 대한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을 맹렬히 반대하여나섰다.

그들은 우리 당의 자주적인 태도가 형제당들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이단시》하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대내외활동에서 다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기계적으로 모방할것을 요구하였다.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서 완전히 리탈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실정과 특수성을 무시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업한것이 아니라 다른 당의 정책에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당에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나라 당정책과 일치하는가 하는것부터 따지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외국의 본대로 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시비하여나섰다. 여기에서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그 어떤 문헌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해본 경험이 없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였다.

교조주의자들은 현대적농기계를 생산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농업협동화정책을 제기하는것이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농업협동화의 력사적필연성을 부정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자 또한 협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자본주의적상공업을 리용하지 왜 개조하는가 하면서 당의 방침에 도전하였다.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오랜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정책에 대하여 당을 《우경화》하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오랜 인테리가 《자본주의분자》이기때문에 숙청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물론 오랜 인테리들은 대부분이 유산계급의 출신이며 과거에 착취계급에 복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외래 제국주의의 억압과 민족적차별을 체험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정한 혁명성도 있는것이다.

교조주의자들은 오랜 인테리의 부정적측면만 보고 그들의 긍정적측면은 보지 못하였다.

당은 오랜 인테리들에 대한 현명한

태도를 배격하고 그들을 교양하고 혁명화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오랜 인테리들은 투쟁속에서 단련되였으며 붉은인테리로 개조되여 일을 잘하고있다.

우리 당은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의 온갖 그릇된 주장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었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외국의 경험도 참작하였지만 우선 자기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기본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자체의 경험을 창조하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갔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로선상 좌우경의 편향을 범하지 않았으며 원칙적착오를 면할수 있었다.

현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우리는 자기가 이룩한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당들이 이룩하는 고귀한 경험들로 하여 더욱 풍부화되고 발전될것이다.

5. 민족적긍지를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혁명을 하고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기본임무는 우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여야 세계혁명에도 이바지할수 있다.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긍지를 가져야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 잘 투쟁할수 있다.

인민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하에서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의 하나이다.

이러한 애국주의정신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를 잘 아는데서만 배양될수 있는것이다. 자기 나라의 력사와 우수한 전통을 잘 알아야 하며 또한 오늘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자기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모르고서는 애국심도 민족적긍지도 자주정신도 생길수 없다.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적극성과 헌신성을 발휘할수 없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면 필연코 민족허무주의에 빠진다.

민족허무주의는 자기 나라의 모든 우수한것을 부정하고 남의것을 덮어놓고 례찬하며 우상화하는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이다.

민족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주성도 가질수 없고 민족적자주권도 보존할수 없으며 혁명을 수행할수도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에게 아부굴종하며 자기 나라 인민의 영예와 리익을 저버리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허무주의를 허용할수 없다.

민족허무주의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고취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략탈을 위하여 인민들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적리해관계를 배반하도록 사상공세를 강화하고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민족

허무주의사상에 빠져들어갈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에 한때 민족허무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가 조선사람이며 따라서 조선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기본립장을 잊어버리고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조선사람으로서의 영예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론 똑똑한 자기 정신을 가질수 없었다.

민족허무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현실과 자기 당의 정책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혁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다른 나라 당의 정책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 나라의 력사와 혁명전통을 다 부인하였으며 우리의 고귀한 과학문화유산들을 모조리 묵살하였다.

후대들을 교육하는데서도 당의 정책, 조선의 력사, 지리, 문화, 풍습 등 우리 나라를 더 잘 알고 우리 나라 혁명에 더 잘 복무할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지 못하게 하였다. 그보다도 외국의것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돌리게 하였다.

문학예술도 조선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민족적바탕에서 발전시키는것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노래와 춤도 우리의것은 집어던지고 서양본을 따게 하였다. 심지어는 그림도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생활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외국의것을 더 많이 그리게 하였다.

민족허무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민의것은 다 보잘것없고 유치한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것을 내세우는것을 못마땅해하였고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 그리고 외국의 흉내를 내는것우 고상한 일로 생각하였다.

민족허무주의는 우리의 혁명사업에 적지 않은 손실을 주었다. 그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부인하며 당의 령도하에 인민이 이룩하여놓은 혁명적 업적들을 부정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관하게 전개하여왔다.

무엇보다도 대중들로 하여금 남의것이 아니라 자기의것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잘 알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인민이 이룩한 업적들과 자기 나라의 성과를 긍지를 가지고 대하며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사람으로서의 영예를 간직하고 조선혁명에 복무하겠다는 각오를 굳게 하며 주체의식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민족적전통과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에서 중요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문화유산에 결코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로동계급이야말로 민족의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사명을 지닌 계급이다.

자기 인민이 창조한 모든 애국적이며, 인민적이며 선진적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새로운 토대우에서 더한층 발전시켜야 한다. 파거 사회의 유산이 착취계급과 이러저러하게 관련되여있다고 하여 그것을 모조리 부정해버려서는 안될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급적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분리하지 말아야 하며 량자를 옳게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문화는 빈터우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문화의 모든 진보적유산들을 계승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창조될수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문화는 어디선가 알지 못할 곳에서 뛰여나온것도, 프로레타리아문화의 전문가로 자칭하는자들에 의하여 안출된것도 아니다. 이러한 말은 모두 잡꼬대다. 프로레타리아문화는 자본가의 사회, 지주의 사회, 관료의 사회의 압박밑에서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합법

최적발전이여야 할것이다.〉

만일 과거의것을 다 부정한다면 무엇을 밑천으로 하여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겠는가.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비판적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계승할만한 민족적유산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력사적제한성에서 완전히 벗어날수는 없다. 그러므로 민족적유산을 맑스—레닌주의적유물사관의 견지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긍정적인것들을 다 뽑아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문화는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이며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이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다른 극단에 흘러 복고주의적편향을 범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편향도 반드시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과거를 잘 알뿐만 아니라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과거만을 연구하고 현실에 대한 연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현실을 모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해하지 못하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할수 없다.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는것도 현실을 정확히 리해하고 파악하며 혁명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것이다.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이것은 민족배타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량자는 불가분리적으로 통일되여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존중하고있다. 자기 조국을 진실로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참된 국제주의자로 될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민족적긍지도 자주성도 가질수 없다.

우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민족적긍지와 자주정신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주체를 세우고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될것이다.

6.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정권을 잡은이후 공산당 및 로동당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을 계속 추진시킬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경제건설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 경제건설을 잘하지 못하면 다른 혁명과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혁명의 정치적과업과 경제적과업은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본은 자립적민족경제를 창설하고 강화하는것이다.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정치적자주성도 보장할수 없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립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하며 경제를 자기 의사대로 움직일수 없다면 그 나라를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매여있는 민족은 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의존에서 벗어날수 없는것이다. 경제적의존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의존을 가져오며 경제적예속은 정치적예속을 낳는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지난 시기에 식민지 및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에서 특히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 시기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물려받았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식민지적편파성을 제거할수 없으며 나라의 기형적발전을 면할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영원히 락후한 상태에서 빠져나올수 없으며 완전히 자주적인 나라로 될수도 없다.

물론 이러한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려면 많은 자금과 로력과 시간이 요구되며 허다한 곤난도 겪게 된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을수 있으며 제품의 원가도 높고 질도 낮을수 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정한 시일을 경과하면서 간부들이 양성되고 로동자들이 숙련되며 경험이 축적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해결되는 문제이다. 곤난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발로 걸어가자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만일 어렵다고 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수호할수 없으며 자주권을 고수할수 없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여왔다. 우리는 오늘도 이 로선을 계속 견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1947년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 자립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자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자립적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수 없고 건국도 할수 없고 또한 살아갈수도 없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우리 나라 형편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았다. 우리에게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민족간부도 부족하였다. 경제건설의 경험이 없었으며 기술수준도 심히 뒤떨어져있었다.

여기에 또한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종파분자들의 반대를 받았다. 종파분자들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민족주의》니 《페쇄적경제》니 《국제적협조에 배치된다》느니 하고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심각한 사상투쟁을 동반하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되고 힘있고 문명한 민족으로 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확고하게 동요없이 전진하였다. 우리 당은 곤난을 극복하면서 한걸음한걸음 걸어나갔다. 이리하여 결국에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오늘 우리는 주로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외국에 의존하던 나라로부터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할수 있는 나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의 위대한 전변을 의미한다.

과거에 우리는 뒤떨어진탓으로 하여 기계설비들과 소비품들, 심지어는 식량까지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의 공업품들과 농산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물론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아직 풍부하지 못하며 질도 높지 못하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기계와 설비들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들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할수 있게 되니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더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는 밑천으로 될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주의식을 크게 높여주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속에서 아직 질은 좀 낮지만 자기 나라의 제품을 사랑하고 아껴쓰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있다. 자기 나라 제품은 무시하고 외국의 상품들만 바라보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인민들이 경제생활에서도 자주의식을 발양하여 자립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습관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코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워야 하

며 좋은것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과 자립적으로 살아간다는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자립적으로 살아나가는 기풍을 세워야만 인민들의 사상생활도 건전할수 있으며 자주성도 더 강화될수 있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하루빨리 자기 나라를 선진국가의 대렬에 올려세워야 한다.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모든면에서 세계선진수준을 따라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에서나 세계에 자랑할만한것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만 현대사회의 문명한 민족으로 떳떳이 나설수 있으며 사대주의도 완전히 극복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국제관계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누릴수 있다.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평등이란 빈말공부에 불과하다. 제발로 걸어가지 못하면 남의 눈치를 보며 남에게 구걸하는 처지를 면할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부인하는것은 사실에 있어서 매개 나라들의 평등권과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것이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짐으로써만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활동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호상협조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문을 닫아걸고 남의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쇄국주의도, 폐문주의도 아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호상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서로 유무상통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주의나라들의 호상협조는 매개 나라들의 자립적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형제나라들 사이에서는 협조를 구실로 매개 나라의 자주성을 침해하며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매개 나라의 자립성을 무시하면서 경제적협조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나라들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게 한다. 이것은 불피코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것이다.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자립적경제건설만이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며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

7.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오늘 세계에는 수많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있다. 그들중에는 큰 당도 있고 작은 당도 있으며 오랜 력사를 가진 당도 있고 비교적 청소한 당도 있다. 또한 사회주의나라 당도 있고 자본주의나라 당도 있다.

매개 당들은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혁명투쟁을 진행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형제당들 사이에서 호상관계를 옳게 맺을것을 요구하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큰 당과 작은 당, 사회주의나라 당과 자본주의나라 당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경험은 흔히 큰 당과 작은 당, 사회주의나라 당과 자본주의나라 당 사이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의 관계를 옳게 처리하려면 형제당들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호상관계는 완전한 평등, 자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동지적협조 등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권적당도 있을수 없다. 큰 당과

작은 당은 있으나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은 있을수 없다. 누구는 그 어떤 중앙적위치에서 지시하고 통솔하며 누구는 그밑에서 복종하고 떠받드는 관계란 허용될수 없다. 그들은 다같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동등한 성원들이다.

매개 당들은 서로 평등한 립장에서 접촉과 협의를 가지며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한다.

이러한 호상관계의 원칙은 1957년과 1960년에 있은 각국 당대표들의 회의에서 확인되였다.

형제당들 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는것은 모든 당들에 있어서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이다. 이 의무에는 큰 당이나 작은 당, 사회주의나라 당이나 자본주의나라 당이 모두다 충실하여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는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단일한 국제당산하에 결속되여 활동한 시기가 있었다. 그때에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중앙집권적원칙에 따라 국제당의 결정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 필요하였던것이다.

제3국제당이 조직될 당시만 하여도 대부분의 나라에는 아직 공산당이 창건되지 못하였었다. 그때 전세계 공산당원수는 약 40만에 불과하였다. 제3국제당창립대회에는 공산당 및 공산주의적조직들과 사회당좌파들까지 포함하여 30개 나라의 대표 51명이 참가하였을뿐이였다. 창건된 당들도 아직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하지 못하였다.

오늘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그때보다 비할바 없이 장성강화되였다.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되였다.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약 90개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활동하고있으며 여기에는 약 5천만의 당원들이 망라되여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시련을 겪고있으나 현시대의 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되고있다. 각국 인민들의 혁명운동도 미증유의 규모로 확대되였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있다.

오늘과 같은 거대한 규모에서 발전하고있는 세계혁명운동을 그 어떤 단일한 중앙이 유일적으로 지도할수는 도저히 없다. 그것이 어떠한 형식을 띠든간에 모든 당들을 지도할수 있는 국제적중앙은 오늘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현실적 요구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어느 한 당이 모든 형제당들을 지도한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당이 《세계혁명의 중심》이나 《지도적당》으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해서는 그 나라 당이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대신할수 없다.

만일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세계혁명의 중심》이나 《지도적당》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 당의 특권적지위를 인정하는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당은 명령하고 지시할수 있으며 다른 당들은 그밑에서 복종하여야만 할것이다. 매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또한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지도할수도 없게 될것이다.

형제당들 사이에 있어서는 다른 당들의 정책에 대하여 간섭하며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을수 없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호상관계는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의 국제관계이다. 매개 당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승리를 위한 공동위업에서 호상리해와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진정한 동지적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년간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기의 그릇된 로선과 견해를 다른 형제당들에 강요하며 이것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등 참을수 없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국주의적행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국주의는 형제당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국주의는 원래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다. 그것은 작은 나라를 멸시하고 압박하던 낡은 사회통치배들의 사상이다. 대국주의가 허용된다면 형제당들 호상간에 동지적이며 평등한 관계가 유

지될수 없다.

어느 한 당의 정책이나 결정은 다른 당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성이나 구속력도 가질수 없다. 그 어느 당이 아무리 오랜 력사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반적로선으로 내려먹일수 없다. 한 당의 결정은 어데까지나 그 당내에서만 의무적인것으로 된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당들이 자기 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따를것을 강요할수 없다. 특히 큰 당이나 사회주의나라 당이 자기의 지위를 리용하여 작은 당이나 자본주의나라 당에 자기 정책을 내려먹이거나 또한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일관하게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나라의 혁명운동을 정확히 령도하고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에 기여하고있는 일본공산당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여왔으며 또 지지하고있다.

매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독자적으로 자기 정책을 규정할수 있으며 또 규정하여야 한다.

현대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그 투쟁방법과 형식은 매개 당이 처한 실정에 따라 다를수 있다. 각국 당들이 활동하는 조건과 구체적임무가 각이한 형편에서 이것은 의례히 있을수 있는 일이며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다.

모든 당들의 활동을 그 어떤 한개의 틀에다 얽매여놓을수는 없다. 어떤 방식을 택할것인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매개 당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다.

형제당들의 자주적립장이 어느 개별적인 당의 립장과 같지 않다고 하여 결코 그것이 맑스—레닌주의에 배치된다고 말할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당들의 자주적태도가 《기회주의》나 《중립주의》나 《절충주의》로 될수도 없다.

다른 당들의 정책이 자기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 틀렸다고 하며 함부로 딱지를 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의견상이가 있는 조건밑에서 형제당들 사이에 련계와 접촉을 가지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결정할수 없다. 이 문제도 자기의 구체적실정에 따라 매개 당이 자주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이 하는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남의 지시에 추종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라면 자기의 신념을 고수할줄 알아야 한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공산주의자로서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 환경의 지시에 반하여, 외부의 <지령에 의하여> 활동할것을 승낙할 그런 공산주의자들은 세상에서 찾아내지 못할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곳에 있다면 이런자들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자들일것이다…공산주의자들의 가치는, 특히, 그들이 자기 신념을 고수할줄 아는데 있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형제당들의 자주적활동에 대하여 선입감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조급하게 속단하고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형제당들의 자주적인 태도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당들은 서로 응당한 리해를 표시하여야 한다. 매개 당들은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제행동에서 언제나 다른 형제당들의 정책과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의 신중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할것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에 있을수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에서의 견해와 방법상의 차이가 그들의 친선과 단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형제당들을 모욕하며 그 자주성을 유린하는 행위는 오직 형제당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해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결과 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이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형제당들 사이의 자주성의 원칙이 확고히 보장되여야 한다.

자주성은 단결의 전제이며 기초이다. 자주적권리가 침해당하면 단결은 약화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형제당들 사이

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주성과 단결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은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1957년 선언과 1960년 성명의 혁명적원칙에 립각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조건밑에서만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의 친선단결이 진심로 강화될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력도 가일층 증대될것이다.

8.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자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주성의 원칙은 고립주의로 나가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반제투쟁에서 국제적련대성과 공동행동을 거부하는것도 아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도 잘하고 세계혁명도 잘하자는것이다.

혁명의 민족적과업과 국제적과업은 서로 통일되여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 투쟁할뿐만 아니라 국제로동계급의 공동위업을 위해서도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옹호하면서 반제공동투쟁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하는것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임무이다.

미제국주의는 가장 큰 국제적착취자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국제헌병이다.

최근년간의 모든 정세발전은 이 명제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증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책동을 부단히 감행하고있다. 또한 민족해방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압살하며 세계도처에서 평화를 교란하고있다.

오늘 미제는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꺼리낌없이 진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만적폭격을 하노이와 하이퐁지역에까지 확대하고있으며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하고있다. 그들은 웰남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런식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고있다.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은 동시에 전체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침략이며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도전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은 제국주의의 강도적본성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절코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멸망의 날이 가까와올수록 더욱 발광적으로 침략과 전쟁의 수단에 매여달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이 약화된 기회를 리용하여 세계제패의 야망을 달성해보려고 제멋대로 날뛰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단결되여있지 못한것은 세계정세발전에 일정한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만일 우리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마음대로 침략과 전쟁을 일삼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헤아릴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태를 가만히 앉아보고 있을수 있겠는가.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에게 공격의 창끝을 집중하여야 하며 집단적인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웰남문제는 오늘 반제투쟁의 초점으

로 되고있다. 웰남문제에서 전세계 진보적력량과 반동적력량이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을 저지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세계의 규모에서 조직화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정황밑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투쟁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물론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심지어 미국내부에서도 지배층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력량의 투쟁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충분하다고 말할수 없다.

반제력량은 강력한 단결된 힘을 가지고 미제와 맞서야 한다. 우리의 힘은 단결에 있다. 모든 반제력량이 굳게 단결한다면 능히 전쟁세력을 압도하고 미제를 패배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진영,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반제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 힘을 몇배로 증대시킬것이다. 또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고무할것이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진정한 단결에로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다.

오늘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반제투쟁의 선두에 서있는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는 심각한 의견상이가 존재하며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조성된 난관은 저절로 해결될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의견상이가 심각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탐구하여야 한다.

정세는 우리들에게 반제공동행동의 실현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반제공동행동의 실현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나선 선차적이며 절박한 혁명과업이다.

의견상이에서 주되는것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가 하지 않는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매개 당들의 맑스—레닌주의적립장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물론 의견상이문제는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위해서는 다른 문제들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공동행동을 취할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반제투쟁문제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오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또한 웰남인민에게 일정한 물질적원조를 주고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현시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초보적기초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것은 실제 투쟁속에서 검열된것이며 명백하여질것이다. 실천은 진실성여하를 밝혀줄것이며 맑스—레닌주의와 기회주의 사이의 계선도 더 똑똑하게 보여줄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반제력량과 단결하여야 한다.

불철저하고 동요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동맹자를 쟁취하여 반제전선을 확대하며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레닌이 지적한바와 같이 《비록 일시적이며 불안정하며 불견고하며 신임치 못할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반제투쟁의 길에 나서게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겠다고 하면 그러한 력량을 반제공동투쟁에 이끌어넣어야 한다.

반제투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제투쟁에 나서도록 하여야 하며 반제투쟁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세계혁명의 전반적리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반제공동투쟁은 무원칙하게 타협하자는것도 아니며 덮어놓고 단결하자는것도 아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의 의견상이는 심각하며 원칙적성격을 띠고있다. 이 의견상이는 어물어물 덮어둘수 없다. 그것은 사상투쟁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반제공동행동을 취하면서도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자기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는 조건에서 행동통일을 하자는것이다. 기회주의적요소는 비판하고 극복하며 반제적측면은 지지하고 조장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반제통일전선정책에서 단결하며 투쟁하는 원칙을 항상 견지하여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더 주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반제공동투쟁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미제를 반대하고 웨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의 형성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곧 현시기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원칙에 충실한 길이며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지금은 모든 반제력량이 단합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수족을 얽어매고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려야 한다.

모든 력량이 반제통일전선에 결속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할 때 제국주의는 마침내 꺼꾸러질 것이며 세계혁명은 승리할것이다.

* *

우리 당은 지난기간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우리의 큰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이 경험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키여 자기의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여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형제당들 호상간에 심각하고 원칙적인 의견상이가 존재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우리에게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시기와 같이 앞으로도 대내외활동에서 독자성을 견지할것이며 자주로선을 관철하여나갈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형제당대표들의 회의선언과 성명을 준수할것이며 세계혁명수행에서 지닌 자기의 민족적의무와 국제주의적의무에 항상 충실할것이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우리 당은 현대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모든 반제력량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워나아갈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공업의 건설을 위하여

중요산업국유화실시 스무돐을 맞으며

우리 나라에서 중요산업이 국유화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나갔다.

산업의 국유화는 자립적민족공업의 건설을 위하여 광활한 길을 열어준 력사적변혁이였다.

20년이란 한 나라의 공업건설력사로서는 긴 시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기간에 자본주의국가들이 백년, 수백년에 걸쳐 걸어온 공업발전의 길을 달려왔으며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다.

자체의 공업기지를 가지지 못하고 모든것을 남에게 의존하던 락후한 처지는 영원한 과거로 되였다. 지금 우리는 힘있는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를 가지고있으며 주로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 공장들을 건설하고 자신이 만든 제품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있다.

우리의 현실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건설하는것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나라들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립적공업을 건설하여야만 제국주의의 예속을 전반적으로 타파하고 나라의 정치경제적독립을 굳건히 할수 있으며 세기적인 락후를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실현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령도를 강화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촉진할수 있다.

튼튼한 민족경제의 핵심으로 되는 발전된 공업을 가지지 않고서는 번영하는 새사회의 건설도, 국방력의 강화도, 현대적과학기술과 문화의 개화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또한 이러한 공업을 가져야만 인민들의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제힘으로 꾸려나갈수 있다.

낡은 사회에서 락후한 경제를 넘겨받았으며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고 미제침략세력과 직접 대치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게 된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운명 및 그 전도와 관련된 문제로, 더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으로, 새사회를 건설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창건 첫시기에 벌써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건설할데 대한 명백한 로선을 제시하고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는 이 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였다.

우리가 지나온 공업건설의 길우에는

수많은 난관이 겹쳐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준엄한 시련을 겪어왔다.

우리는 두 차례의 혹심한 파괴를 입었으며 두 차례의 복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에게는 자금도 기술도 인재도 없었으며 공업을 건설하여 본 경험도 없었다. 더우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파괴암해활동이 계속되였으며, 반당종파분자들과 외부의 그 지지자들은 우리 당의 공업건설로선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시련도 방해책동도 당의 로선을 관철하려는 우리 인민의 굳센 의지를 꺾을수 없었으며 그 전진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우리 인민이 공업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군중로선에 튼튼히 의거한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령도에 의하여, 그리고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근로대중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당은 공업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기하였으며 인민대중을 발동하고 국내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자립적민족공업의 초석을 하나하나 쌓아올렸다.

생활은 우리 당의 공업건설로선과 그 령도가 전적으로 정확하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자립적공업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며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I

해방후 우리 인민은 반제반봉건민주혁명단계에서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을 수탈하여 그것을 인민의 소유로 넘기고 점차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하여왔다.

이것은 일찌기 조국광복회의 강령에서 밝힌 길이며 우리 나라에서 민족공업을 짧은 기간내에 훌륭히 건설할수 있게 한 정당한 길이였다.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나라들에서 자립적공업을 건설하려면 우선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예속자본의 경제적지반을 없애버려야 한다.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의 지배를 마스고 민족경제의 명맥을 인민의 수중에 장악하지 않고서는 자립적공업건설의 길을 개척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꺾을수 없다.

인민경제의 명맥을 국가가 직접 틀어쥐여야만 나라의 중요한 생산수단들과 재부를 공업의 자주적발전과 전체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이 해마다 식민지리윤으로 긁어가던 막대한 재부를 공업건설에 돌릴수 있고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의 힘과 모든 잠재력을 적극 동원하여 새사회의 건설을 촉진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이 계속되는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산업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없애지 않는다면 나라의 재부를 그들에게 내여맡기게 되고 인민들을 다시 착취와 략탈에 얽매이게 하며 민족공업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이 원하는 길이며 나라와 민족의 리익에

어긋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46년 8월 10일에 실시된 중요산업국유화에 의하여 일제와 예속자본가의 소유였던 산업, 운수, 체신, 은행들이 몰수되여 인민의 소유로 되였다.

중요산업의 국유화에 의하여 1천 34개의 기업이 몰수되여 전체 산업의 90% 이상에 달하는 압도적대부분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산업을 국유화한 우리 당의 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몰수대상을 일제와 예속자본에 국한하고 그것을 단꺼번에 철저히 몰수한것이다. 여기에서 민족자본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은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였다.

해방전에 경제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의 지배는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을 억제한 질곡이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청산하는것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기본과업이였다.

민족자본은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에 억압당하고 파산과 몰락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으며 일정하게 반제적경향을 가지고있었다.

민족적리익에 이바지하려는 민족자본가들에게 발전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새 사회건설에 적극 인입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인민정권의 정치경제적기초를 공고히 하는데서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된 결과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이 수탈되고 제국주의적착취와 예속의 경제적지반이 청산되였다.

산업국유화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한 고리로서 실시되였으나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근로인민의 정권이 수행한것이였으며 국가가 경제의 기본명맥을 틀어쥐게 함으로써 장차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민족공업을 건설할수 있는 결정적전제를 마련하였다.

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국영경제가 지도적자리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나라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새국면이 열리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정권의 주인일뿐만 아니라 산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강화하여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게 되였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북반부혁명기지를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굳건히 다지는 력사적변혁이였다.

북반부에서 실시된 산업의 국유화는 남반부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미제와 예속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우리 나라의 산업국유화는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동방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고무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예속에서 해방된 뒤떨어진 나라들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혁명단계에서 산업을 국유화하며 그것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수행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산업의 국유화는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한편으로 토지문제의 옳은 해결은 국유화된 산업이 자체의 튼튼한 식량원료기지를 가지게 하고 민족공업의 국내시장을 개척하며 확장함으로써 인민경제전반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산업을 국유화함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소유인 생산수단들과 모든 자연부원을 다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넘겨야 하며 국유화를 제때에 철저히 할수록 유리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청산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무엇보다도 자체의 힘으로 그리고 나라의 실정에 맞게 민족공업을 건설하여나갈수 있다.

산업을 국유화하여 민족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적기초를 마련한 다음에는 공업을 건설하고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민족공업을 건설하며 그 자립성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경제의 일면성, 식민지적예속성을 청산하고 자주적인 생산구조를 갖추며 국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는 발전된 공업을 건설하며 민족간부를 육성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민족공업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시기부터 이 과업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한걸음한걸음 해결하여 나아갔다.

이 과업을 해결하는데서의 기본적인 장애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빚어낸 우리 공업의 심한 기형성과 락후성에 있었으며 민족기술 및 관리간부와 원료, 자재, 자금이 극히 부족한데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점한 이후 민족공업의 발전을 극도로 억제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모든 자원을 독차지하고 조선을 완전한 상품판매시장으로, 원료산지로, 병참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원료채취공업과 일부 반제품생산에 치우친 중공업만을 허용하였다.

일제는 조선경제를 마사버리고 우리 나라의 부원을 한없이 략탈하였으며 조선인민을 기아와 빈궁속에 몰아넣었다.

그들은 해마다 우리 나라에서 수백만톤의 철광석과 수십만톤의 선철, 강철을 략탈하여갔으며 각종 희유금속 등 전략자원들을 모조리 빼앗아갔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강탈하여간 재부는 개괄적계산에 의하더라도 우리 나라 화폐가격으로 수천억원에 달한다.

해방전 조선공업은 심히 락후하였을뿐만아니라 그 구성자체가 말할수 없이 편파적이였다.

약간 있었다는 공업은 그 대부분이 채취공업이였으며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중요한 가공공업부문들은 거의 없었다.

1944년에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공업이 공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겨우 1.6%였다.

공업의 각 부문간에는 물론 한 부문내에서도 련계가 극히 미약하였다.

경공업은 더우기 한심하였으며 지어 일제는 재래의 수공업마저 파괴하여버렸다.

경공업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일용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으며 변변한 식료품공장 하나 없었다. 1944년에 북반부의 방직공업은 인구 1인당 불과 0.14메터에 해당하는 직물을 생산하였을뿐이다.

일제는 이러한 공업마저 패망당시 심히 파괴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국토의 량단은 우리 공업의 기형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우선 파괴된 공업을 복구하여야 하였으며 그와 함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을 퇴치하여야 하였다.

우리 당은 일제가 파괴하고 간 공장, 기업소들을 빨리 복구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과거에

가장 락후하던 기계제작공업, 경공업부문의 발전에 많은 힘을 돌렸다.

기계제작공업은 인민경제복구건설에 필요한 부속품을 생산하는것부터 시작하였으며 경공업에서는 대중소비품을 생산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과도기의 첫시기에 공업을 건설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경제형태들간의 호상관계를 옳게 해결하고 공업발전을 촉진시키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국영부문의 지도적역할을 부단히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국영부문과 협동조합부문과 개인경리부문을 옳게 결합시키는》(김일성)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은 국영산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국영산업을 급속히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민영기업도 장려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진지를 강화하면서 공업건설을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영부문의 지도적역할을 강화하면서 다른 경제형태들을 옳게 결합한것은 공업건설에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며 비사회주의경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이와 함께 민영기업을 새 조국건설에 적극 인입하게 하였다.

당은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공업건설의 정책과 방향을 세우고 우리 인민의 힘과 재간으로 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체 인민들을 이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이미 과도기의 첫시기에 공업건설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전쟁전복구기에 우리 공업은 해마다 평균 49.9% 그중 국영 및 협동단체공업은 61.6%라는 비약적인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전쟁직전에 공업생산수준은 이미 일제시기의 그것을 릉가하였다.

특히 지난날 뒤떨어졌던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공업, 방직공업 등을 비롯한 일련의 부문들이 빨리 발전하여 공업내부구성이 변화되여갔으며 우리 나라 공업은 식민지적외곡성을 털어버리고 점차 자주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의 경제건설을 각방면으로 방해하였으며 드디여 1950년 6월에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평화적공업건설을 중단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당은 전후에 복구건설을 본격적으로 전개할것을 예견하면서 기계제작공업의 기지를 창설하며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고 지하자원을 개발하는데 많은 힘을 돌렸으며 국내외에서 수많은 민족간부를 양성하였다.

당의 이러한 조치들에 의하여 전후 대규모적으로 전개된 공업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력량이 준비되여 나갔다.

II

1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공업의 건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전후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3년간의 가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혁명과 건설사업에는 헤아릴수 없는 난관이 조성되였다.

전쟁기간에 인민경제의 손실은 불완

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42억원의 거액에 달하였으며 8,700여개소의 공장, 기업소들이 파괴되였다.

특히 금속, 화학공장들과 발전소를 비롯한 중공업공장들이 거의 다 파괴되였으며 경공업, 교통운수 등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

인민생활은 령락되고 주택과 먹을것, 입을것도 부족하였다.

전후의 이러한 형편에서 자립적민족공업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복구건설의 방향과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며 중심고리를 옳게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이였다.

이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적은 밑천을 가지고 많은 일을 빠른 시일내에 수행하여야 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문제였다.

1953년 8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는 전후시기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짧은 시일내에 안정향상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급속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정확한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과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력사적조건들과 당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철저히 의거한것이였다.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과업을 동시에 빨리 해결하여야 하였던 전후의 형편은 공업건설의 새로운 방도를 찾을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먼저 중공업을 건설하고 그후에 경공업을 발전시킬수도 없었으며 반대로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점차 중공업을 건설하는 방도를 내올수도 없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전후 공업건설의 첫시기부터 생산수단과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공업의 두부문을 다 갖춘 현대적공업을 건설할수 있게 하였으며 공업화의 기초도 닦으면서 동시에 인민생활도 높일수 있게 하였다.

물론 모든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것이 부족한 형편에서 중공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건설하며 경제토대도 축성하면서 인민생활도 급속히 향상시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였으며 여기에는 많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여있었다.

당은 온갖난관들과 장애를 박차고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현재뿐만 아니라 앞날을 예견한 정당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가 택한 길을 따라 전진하였다.

당은 중공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되 중공업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현대적중공업은 자립적민족공업의 초석이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확고한 원칙이다. 오직 자체의 중공업을 건설하는 조건하에서만 경공업, 운수 및 농촌경리의 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은 중공업을, 전후복구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심고리로 인정하고 선차적으로 복구발전시켰다.

전후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복구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빨리 추켜세우는것도, 령락된 인민생활을 시급히 향상시키는것도 다 중공업의 복구발전에 달려있었다.

중공업을 선차적으로 복구발전시키는

것은 또한 공업건설을 위한 우리 나라의 현실적및처으로 보아서도 매우 절실한것이였다.

〈중공업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로선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주로 국내의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발전하며 그리고 우리 인민경제에 필요한 자재, 원료, 연료, 동력 및 기계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는 자체의 중공업기지를 창설하는데 있었다〉(김일성).

중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데 있어서 중심문제로 된것은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부문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키는것이였으며,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가공공업을 급속히 추켜세우면서 채취공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였으며 국내의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중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였다.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인민들의 의식주문제해결에 절실히 필요한 부문들에 중점을 두고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경공업, 농업, 수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면서 공업화의 토대도 닦아나갔다.

〈…우리가 하려는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발전에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이요, 앞으로 우리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중공업〉(김일성)이다.

중공업발전의 우위를 보장하면서 그것을 경공업 및 농촌경리발전과 옳게 련결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인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이 중공업의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농업이 인민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에서 그것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경지면적이 적고 땅이 척박한 조건에서 우리는 관개시설과 농기계, 화학비료와 농약들을 생산공급하는 중공업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 농업이 공예작물원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락후한 경공업을 추켜세우고 발전시키자면 우리의 중공업이 이 부문에 기계설비들뿐 아니라 원료까지 생산하여 대주어야 하였다.

전형적인 식민지공업을 물려받은 우리 나라에서 원료반제품생산에 치우쳤던 중공업의 기형성을 퇴치하고 완세가공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공업생산구조를 개편하는것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중공업을 건설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당은 지난날 거의 없었던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부문의 급속한 발전에 힘을 넣으면서 부문들 내부에서도 완제품생산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 특히 원료원천과 제품에 대한 수요를 심중히 타산하였으며 공업발전의 수준에 맞게 점차 공업의 다면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데로 나아갔다.

현대적기계제작공업은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발전의 기초이다.

우리 당은 이미 전쟁시기부터 현대적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하는데 착수하였으며 전후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기계제작공업은 간고한 투쟁속에서 창설되였다.

우리 당은 자체의 발전된 기계제작공업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전후 복구건설에 수많이 요구되는 기계설비들과 부속품문제를 해결할수 없고 인민경제를 선진기술로 장비할수 없으며 현대적공업국가를 건설할수 없다는데로부터 전

후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물론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였던 우리가 현대적기계제작공업을 건설하자니 많은 고초를 겪어야 하였으며 난관을 이겨내야 하였다.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를 악물고 투쟁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생산해냈으며 당의 의도를 받들고 기계공업의 기지를 꾸려나갔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발전된 기계제작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매시기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발전시켰다. 우선 기계제작공업의 모체로 되는 공작기계공업을 건설하는 한편 지하자원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광산탄광기계설비들,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과 건설의 발전을 위한 기계설비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꾸렸으며 점차 금속화학설비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세웠다.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처음에는 부속품 및 중소기계설비들을 생산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대형 및 정밀기계를 생산하는데로 넘어갔으며 다음에 현대적인 공장들의 종합설비를 생산공급하는 단계에로 한걸음한걸음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중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1965년 기계설비에 대한 국내자급률은 94.4%에 달하였다.

당은 흑색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이 부문들의 생산구조를 개선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였다. 선철생산에 치우쳤던 흑색금속공업에서는 강철, 강재의 생산이 확장되고 2차가공제품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

화학공업은 농촌경리의 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적진보를 촉진시키며 국내의 자연부원을 다각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당은 화학공업부문에서 주로 질소비료를 생산하던 일면성을 퇴치하고 무기화학공업의 기초를 강화하였으며 유기합성화학공업을 광범히 발전시켰다.

우리 당은 가공공업을 창설하고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공업의 첫 공정인 채취공업의 발전을 선행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것은 지난날 일제가 우리의 지하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기형적으로 발전시켰던 채취공업을 우리 나라 공업의 튼튼한 원료기지로 개편하며 그것을 급속히 발전하는 가공공업에 따라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는 지하자원에 대한 탐사사업을 강화하고 채굴공업에 투자를 계속 증대시켜 광물원료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원료반제품생산으로부터 점차 완제가공품생산에로 넘어갔으며 자체의 원료기지와 가공기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중공업의 토대를 축성할수 있었다.

가공공업을 급속히 추켜세우면서 채취공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이 부문간에 밀접한 생산적련계가 이루어지고 원료를 채굴하는데로부터 그것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르는 일관된 생산순환이 보장되게 되였다.

1944년에는 중공업생산액에서 광석채굴업이 차지한 비중이 22.9%였는데 야금공업은 19.4%,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공업은 2.3%로 극히 기형성을 띠고있었던데로부터 1965년에 그 비중은 각각 4.5%, 10.5%, 56.7%로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에 기초하여 중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이다.

공업발전을 위한 원료를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정도는 그 나라 경제의 자립성과 안전성, 전망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우리 당은 국내자원에 기초하여 공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채굴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난날 가지지 못하였던 가공원료, 화학원료의 생산기지를 강화하였다.

자연원료와 가공원료의 생산부문을 다같이 발전시키는 당의 방침은 현대공업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것이며 있는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있는것으로 대용하는 적극적인 방침이다.

당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을 리용하는 제철제강법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자원에 기초하여 각종 화학섬유와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부문을 창설하고 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에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던 경공업원료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

우리 나라의 섬유 총소비량중에서 화학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에 이미 36%에 달하였다.

튼튼한 경공업을 건설하는것은 자립적민족공업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우리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자체의 경공업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돌렸다.

우리 당은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것을 경공업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우리 당은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대규모중앙공업을 건설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것은 경공업의 토대가 거의 없던 우리 나라에서 그의 골간을 꾸리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자체의 경공업기지를 창설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것이였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중앙경공업공장들을 적지 않게 건설하고 기술장비를 부단히 강화하였으며 각종 소비품생산을 적극 증대시켰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형편으로보아 현대적인 대규모공장들을 단꺼번에 많이 건설할수도 없었고 또 거기에만 의존하여서는 급속히 장성하는 대중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도 없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의 혁신을 위하여서는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였다.

우리 당은 중공업기지와 중앙경공업기지가 상당한 정도로 꾸려진 유리한 조건에서 지방경공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전개하였다.

지방공업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 1958년 6월 전원회의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몇달동안에 1,000여개의 중소규모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튼튼한 지방공업체계가 확립되였다.

지금 2,000여개에 달하는 지방공장들이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면서 계속 발전하고있으며 국내소비품생산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있다.

지방공업의 광범한 발전은 국가의 자금과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 주로 지방에 잠겨있는 원료와 유휴로력 등 모든 예비들을 적극 찾아내고 리용하여 짧은 기간내에 인민소비품생산을 급속히 증대시켰다.

이것은 자금축적의 원천을 확대하며 더 많은 국가자금을 중공업건설과 인민경제발전에 돌릴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것은 공업을 농업에 접근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며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촉진시켰다.

우리의 경험은 경공업부문에서는 그 경제기술적특성으로보아 일반적으로

대규모공장과 중소규모공장을 병진시키는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중소규모의 지방공장들을 광범히 건설하는것은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소비품생산의 장성과 전반적인 공업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당은 공업화의 기초가 축성되고 경제발전수준이 높아진 오늘에 와서도 계속 지방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힘을 돌리고있다.

오늘 우리의 지방공업은 전문화체계를 확립하고 기술장비를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물질기술적토대우에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힘있는 중공업의 골간을 꾸려놓았으며, 방직, 식료가공 및 일용품공업 등을 갖춘 자체의 튼튼한 경공업기지도 가지게 되였다.

공업이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그 내부구조가 개선된 결과 오늘 우리의 공업은 나라의 자연부원에 확고히 의거하고있으며 유기적으로 련결된 종합적인 공업체계로 전변되고있다.

2

나라를 공업화하는 과정은 곧 현대적 기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며 선진기술을 소유하고 경제를 관리운영할수 있는 자체의 민족간부를 가지지 않고서는 자립적민족공업을 건설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간부문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관련하여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당은 우리 나라에서 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는 전 과정에서 민족간부 특히 기술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문제의 해결에 앞세웠으며 이를 위하여 정력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당은 민족기술간부의 대렬을 꾸리는데서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경제건설에 적극 인입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이것은 과거 식민지예속하에서 자체의 기술간부를 가지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은 지난날 식민지인테리로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민족적차별대우를 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본래부터 혁명성이 있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그들을 믿고 처음부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인입하였다. 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들과 끝까지 손잡고 함께 나가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혁명투쟁의 시련을 통하여 훌륭한 사회주의적인테리로 개조되였다. 그들은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으며 계속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를 개조하는 동시에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짧은 시일내에 많이 양성하기 위하여 대담한 창조적인 방침을 취하였다.

당은 아직 나라의 축적이 많지 못하고 생활이 넉넉치 못하였던 조건하에서도 하루바삐 현대적공업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족기술간부를 양성하는데 모든것을 아끼지 않았다.

당의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이미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와 전쟁기간에 양성된 수많은 간부들이 전후복구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각급 교육망이 정비확장되였으며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키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광

범히 창설되였다.

특히 1960년부터 광범히 발전한 공장대학제도는 로동제급속에서 새로운 인테리들을 많이 양성할수 있게 하였으며 교육과 생산, 리론과 실천을 밀접히 결부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을 생산의 기지인 동시에 간부양성의 기지로 되게 하였다.

현대적공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술인재를 양성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 기술을 배우도록 한 당의 방침은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많은 기술자를 양성할수 있게 하였으며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긴급히 요구된 기술인재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1964～1965학년도 우리 나라에서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는 160명에 달하고 있다.

해방직후 964명의 기사와 4,721명의 기수밖에 가지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가 1965년에는 36만 7,000명에 달하는 민족기술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다.

과학기술에서 멀리 떨어져있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현대적공장들을 설계하고 건설하며 관리운영하고있다.

식민지예속하에서 기술을 소유하지 못하였던 인민들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일이다.

기술을 발전시켜야 현대적공업을 건설할수 있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과거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값싼 로동력을 착취하여 높은 리윤을 얻어내는데만 골몰하고 현대적기술을 도입하려 하지 않았다. 공장, 제조소, 광산할것없이 도처에서 등짐과 손로동이 지배하였다.

당은 력사적으로 조성된 나라의 기술적락후성을 청산하고 민족공업을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정확한 방침을 세우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 이 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립적민족공업의 토대를 쌓는 시기에 기술개건의 첫단계의 과업이 실현되였으며 오늘은 기술혁명이 전면적으로 수행되고있다.

이 과정은 바로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뒤떨어진 처지에서 어떻게 선진기술을 소유하고 어려운 기술문제를 풀어나갔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당이 견지한 기본원칙이다.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응당 다른 나라들에서 이룩한 최신기술성과들을 도입해야 한다. 뒤떨어진 나라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되지 못한다면 쓸모있게 리용될수 없으며 큰 힘을 나타낼수 없다.

우리 당은 선진과학기술의 최신성과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부단히 받아들이면서 국내자원에 립각한 자립적공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기술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데 기본을 두었다.

당은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군중을 적극 동원하고 그들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기술발전을 촉진시켰다.

기술을 발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근로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오랜 시일이 걸린 일을 우리는 짧은 기간에 실현하여야 하는만큼 기술발전에서 대중의 창조적힘을 동원하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발전을 위한 넓

은 길이 열려져있으나 과거에 현대적기술을 다루어보지 못했던 근로자들을 기술발전에로 힘있게 동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술에 대한 낡은 관점을 깨뜨리는것이 필요하였다.

과학과 기술을 신비화하는 관점을 마스고 대중자신이 능히 새 기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킬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하는것은 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위대한 창조력을 발동시키는 선결조건이다.

당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대한 사상, 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대중자신이 새기술을 습득하고 창조하는 사업에 대담하게 나서게 하였다.

이와 함께 당은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편향을 경계하면서 생산과정에서 직접 기계를 다루는 로동자들과 과학을 소유한 기술자들 사이의 창조적합작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서로 돕고 경험과 과학이 서로 결합되여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대중속에서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보수주의가 타파되고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가 강화됨으로써 지금까지는 간단한 기계나 만들고 수리하던데서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기계설비들이 생산되였다.

특히 우리의 근로자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한데서 일어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은 기술혁명수행과 기계공업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며 그것은 또한 근로자들이 자기 손으로 능히 현대적기술을 만들어낼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기술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은 또한 현대적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하여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부단히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발전을 위한 온갖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였다.

우리는 현대적기술과 함께 수공업적기술도 리용하고 대규모기계화와 함께 중소규모의 기계화를 배합하는 동으로 그것이 로력을 절약하고 더 많이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 모두다 적극 리용하였다.

기술발전을 위한 이와 같은 당의 조치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혁명이 빠른 속도로 폭넓게 추진되였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적민족공업은 자체의 힘으로 건설되여야 한다. 남의 힘으로는 자립적공업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으며 또 남이 그것을 건설해줄수도 없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의 원조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그런데 남의 원조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공업건설을 위한 자금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우리 당이 견지한 확고한 원칙이다.

사회적재부를 만들어내는 원천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이다. 자기 인민의 로동으로 나라의 부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리용한다면 공업건설을 위한 자금문제를 능히 해결할수 있다.

더우기 착취와 랑비를 근절한 사회주의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으로 이룩된 밑천으로 공업을 건설할수 있는 훌륭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는 전후공업건설에 소요된 방대한 자금을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거하여 주로 국내의 가능성과 생산내부예비, 특히 공업자체의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하여 해결하였다.

특히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를 쌓는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설을

때 자금문제의 해결에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였다.

방대한 5개년계획을 수행하려니 많은 자재와 자금이 요구되였으나 우리에게는 원천이 부족하였으며 인민생활도 그때에는 아직 어려웠다. 국내외의 정치정세도 매우 복잡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을 동원하여 자기의 힘으로 어려운 자금문제를 풀것을 결심하고 대중을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눈부신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천리마운동을 일으켰으며 도처에서 방대한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냈다.

이리하여 1957년 한해에만 하여도 공업부문에서 설비리용률제고, 물자 및 로력절약 등에 의하여 그 해에 이 부문에 대한 기본건설투자액의 1.2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제품이 계획외에 더 생산되였다.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과 지방산업공장들의 대대적인 건설은 자금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의 현실은 뒤떨어진 나라들이 공업건설을 위한 자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큰것만 바라보거나 남이 도와줄것만을 기대할것이 아니라 우선 작은 공장이라도 세워야 하며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자금원천이 생기고 점차 확대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건설의 빠른 속도는 많은 자금을 긴급히 요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공업내부에서 축적의 규모를 급속히 확대하게 하였다.

1954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기간에 공업에서 생산된 국민소득은 13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공업건설의 첫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농업에서 지원 받았다.

이것은 과거에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불가피한것이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리익과 농촌경리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것이였다.

우리 당은 공업건설을 위한 자금원천을 적극 증대시키는 한편 조성된 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건설과 투자의 경제적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주의를 돌렸다.

공업건설에서 복구, 개건, 확장 및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였으며 건설의 선후차를 정확히 배합하는 동시에 기본건설투자를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은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우리는 전후시기에 형제국가들로부터 도합 5억루블리에 해당하는 원조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복구건설에 큰 도움으로 되였다. 우리는 이 귀중한 원조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쌓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승리하였으며 자립적민족공업의 토대를 닦는 력사적과업이 승리적으로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승리이다.

Ⅲ

1

5개년계획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중공업과 경공업의 골간이 튼튼히 꾸려졌으며 공업화의 토대가 축성되였다. 이것은 자립적민족공업건설에서의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는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혁명을 철저히 실현하며 자립적공업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였다.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과업은 공업생산의 구조를 한층더 완비하고 그 기술적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공고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최신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자립적공업체계를 확립하는것이다》(김일성).

공업의 토대를 쌓은 다음에 우리 나라의 공업을 일층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이미 꾸려놓은 중공업을 보충정비하는것과 중공업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7개년계획기간에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미 건설해놓은 중공업을 정비.보강하여 그것을 더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갖추면서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에 더 잘 복무하게 하며 중공업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옳은 길이다.

전후에 우리가 짧은 기간에 주로 자체의 힘으로 많은것을 건설한 관계로 우리의 중공업은 아직도 부차적인 여러 부문들을 갖추지 못하고있으며 미비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우리가 건설한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여 공업부문들과 생산시설들의 부족점을 보충완비한다면 그 다면성과 자주성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공업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중공업을 건설하고 그것을 정비보강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에 더 잘 복무하게 하여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데 대한 중공업건설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다.

공업을 정비보강하는것은 또한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공정간의 균형을 맞추고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함으로써 앞으로 중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공업의 토대를 닦은 다음에 새 건설에 치우치지 않고 이미 꾸린 밑천을 잘 리용하도록 한것은 투자와 력량을 분산시키지 않고 축적과 인민생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옳은 방도였다.

중공업을 정비보강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실현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생활이 향상되는 동시에 중공업의 장래발전을 위한 토대가 훌륭히 마련되고있으며 자립적공업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미 꾸려놓은 중공업을 보충완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에서 중요한것은 이 부문에서 대규모기업소들과 함께 중소규모기업소들을 광범히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이다.

기간적중공업기업소들이 건설되고 기본적인것들을 해결할수 있게 된 오늘 중소규모중공업기업소들을 광범히 발전시키는것은 부차적 및 보조적부문을 보충하여 중공업의 생산구조를 한층 완성하는데서, 적은 자금으로 다종다양한 중공업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게 하는데서 그리고 전문화와 협동화를 발전시켜 공업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당은 특히 기계, 금속가공, 화학공업부문들에서 중소규모기업을 적극 발전시켰다. 짧은 기간내에 수백개의 화학공장과 기계공장들이 건설되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우리 당은 중공업을 보충정비하면서 채취공업, 동력공업,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및 기계제작공업부문들에서 큰 기업소들과 생산시설들을 새로 건설하며 확장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있다.

최근년간 평양화력발전소, 운봉발전소를 비롯하여 탄광, 광산, 화학공장, 제철, 제강, 제련 및 압연직장들, 경공

업공장 등 수많은 대규모기업소와 직장들이 신설확장되였다.

자립적공업체계를 확립하는 시기에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는것은 더욱 큰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현대적기계기술과 과학기술의 최신성과를 광범히 도입함이 없이는 새로운 생산부문을 창설하고 발전시킬수도 없고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할수도 없으며 따라서 자립적민족공업의 체계를 확립할수 없다.

우리 당은 자립적공업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전면적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도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현존생산설비들을 현대화하며 모든 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고 생산의 자동화수준을 현저히 높이며 과학기술의 최신성과를 도입하여 생산공정을 부단히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당은 공업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기계화, 자동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자동화기구 및 계기공업을 꾸리고 자동기계의 생산을 증대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시기 기술혁명수행에서 긴절한것은 공장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걸리고있는 기술문제, 설비리용률을 높이며 원단위를 낮추기 위한 기술적대책, 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기술문제 등을 해결하는것이다.

나라의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 모든 문제들은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로력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킴으로써 자립적공업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것이다.

2.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건설된 대규모의 현대적공업을 옳게 지도하고 관리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공업에 대한 관리문제를 능숙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미 쌓아놓은 공업토대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으며 공업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없다.

특히 공업건설이 추진되고 생산력발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도관리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우리 나라에 창설된 사회주의제도는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그후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공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인민경제적범위에서나 매개 기업소의 범위에서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키도록 관리운영을 개선하는것은 공업의 발전을 위한 본질적문제의 하나로 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게, 생산력의 발전수준과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공업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의 확립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공업관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업관리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공업관리에 광범히 참가시키는 혁명적체계이며 현대적생산의 요구에 맞게 경제기술적지도를 강화하는 과학적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당위원회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관리운영에서 집체성을 보장한데 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 이것은 기업관리운영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경제관리단위들에서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는 관리운영의 기본적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정확한 방향과 실천대책을 세움으로써 관리부서들이 당정책에 립각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의 모든 문제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기업을 옳게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는 또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경제관리에 군중을 적극 참가시키게 한다. 그것은 경제관리운영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군중의 자각적열성을 높이며 그들을 당정책수행에로 조직동원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군중을 기업관리에 광범히 인입하는것은 개인의 소총명과 주관주의, 형식주의, 명령주의 등이 나올수 없게 하고 객관적현실에 엄밀히 립각하여 기업을 정확히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서는 행정지도체계의 기능이 일층 높아지고 지배인으로부터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된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된 이후의 현실은 이 체계가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동시에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적요구를 실현하는 우월한 체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적지도는 서로 분리시키거나 대립시킬수 없는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공업의 규모가 커지고 관리운영이 복잡하여진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하여 중앙집권적지도를 소홀히 하거나 중앙집권적지도를 내세우면서 민주주의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경제를 지도관리함에 있어서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기술적지도를 훌륭히 보장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경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현대생산기술발전수준에 적응하게 엄밀한 타산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것을 요구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은 지출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생산을 계획하고 기술적지도를 잘하여 생산의 요소들과 모든 단위들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경제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정치사업에 경제기술사업을 안받침하여 과학적관리를 실현할수 있게 한다.

여기서는 생산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도하여 합리적인 생산지도를 보장하고있다.

이와 함께 경제지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로임, 가격, 독립채산제 등 경제적공간들을 리용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관심을 높이는데서도 큰 우월성을 나타내고있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관심을 옳게 배합하는것,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중을 동원하는 우리 당의 기본방법이다》(김일성).

사회주의공업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경제기술적지도에만 치우치면서 정치적지도를 차요시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한편 정치적지도 일면만을 내세우면서 경제기술적지도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였다.

3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우리는 자립적민족공업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우리 나라의 공업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전후 1954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기간에 그것은 해마다 평균 28.1%로 장성하였으며 1965년에 공업생산은 해방전 1944년에 비하여 15배, 1946년에 비하여서는 42배로 장성하였다.

특히 해방후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공업은 269배, 야금공업과 화학공업은 각각 28배, 방직공업은 143배, 식료 및 기호품공업은 16배, 일용품공업은 462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공업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6년에 28%이던것이 1965년에는 78%로 되였다. 이 기간에 공업총생산액중에서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부터 29%로 높아졌다.

공업의 위력이 커짐에 따라 농촌경리에 대한 공업의 지원은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우리의 공업은 농촌에서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추진하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농업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보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공업은 생산구조와 원료기지, 기술장비의 모든 면에서 자립적공업의 믿음직한 면모를 갖추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는 위력한 경제적지반을 이루고있다.

자주적이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업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를 더욱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1954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대외무역총량은 7.8배로 장성하였으며 이 기간에 수출품중에서 원료의 비중은 67.3%에서 12.7%로 떨어진 반면에 가공품의 비중은 32.7%에서 87.3%로 높아졌다.

이 모든것은 자립적민족공업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준다.

현실은 우리 나라와 같이 국토가 그리 크지 않고 인구가 비교적 많지 않은 나라에서도 공업을 능히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이렇게 할 때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을뿐만 아니라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더 잘 기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주자립의 길로 전진한 공화국북반부와는 달리 철저한 예속의 길을 걸어온 남조선의 공업은 전면적인 파탄과 몰락의 상태에 처하여있다.

일제가 소유하였던 공장, 광산, 탄광들은 미제의 비호를 받는 매국적인 관료, 예속자본가들의 수중에 넘어갔으며 남조선공업은 미제와 또다시 기여든 일본독점재벌들의 략탈과 예속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1964년에 중요공업제품 인구 1인당생산량에서 남조선은 공화국북반부에 비하여 전력은 11분의 1, 강철은 20분의 1, 석탄은 3.5분의 1, 화학비료는 36분의 1, 세멘트는 5분의 1, 수산물은 3.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남조선에서 경제의 자주적발전의 길은 완전히 페쇄되고있으며 공업은 미제에 전적으로 예속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재정예산의 45~50%, 금융자금의 30%를 장악하고있으며 원자재공급의 70~80%, 수입무역의 80%를 독점하고있다.

남조선에는 중공업의 기초로 되는 금속공업과 기계제작공업이 거의 없으며

얼마간 있다는 경공업도 제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은 강재, 목재, 세멘트를 비롯한 중요원자재의 대부분과 원면,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경공업원료의 거의 전부를 외국에 의존하고있으며 외부의 《원조》가 끊어지면 공장들을 하루도 움직일수 없는 형편이다.

남조선의 현실은 미제의 《원조》가 무엇을 가져다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고 외세에 의존하는 길로 나갈 때에 어떠한 후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외래자본의 억압을 반대하고 자립적경제를 갈망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 20년동안 자립적민족공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우리의 투쟁경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우선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짧은 기간내에 현대적이며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립적민족공업을 건설하여야 하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인민이 굳게 단결하고 나라의 모든 자원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능히 해결할수 있을뿐 아니라 빨리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자립적민족공업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착취와 압박이 없고 나라의 모든 자원을 인민이 장악하는 새 사회제도를 창설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경험은 자립적민족공업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실정에 맞는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우리는 자립적민족공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이미 마련하여놓은 공업의 밑천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적설비를 갖춘 광산, 탄광, 발전소, 야금공장, 화학공장, 기계공장, 경공업공장들을 수많이 건설하여놓았다. 이것은 모두다 우리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것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우리가 꾸려놓은 이 밑천을 잘 리용하고 그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면 나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한층 향상시킬수 있다.

우리는 공업을 계속 정비보강하여 모든 생산시설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야 하며 기계설비들과 생산면적의 리용률을 높이고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선행시켜야 하며 전기, 화학섬유생산 등 원료동력공업을 앞세워야 하며 협동생산에서 규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한다.

모든 경제기관들과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도입하여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양시켜야 한다.

우리는 계속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위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

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한사람이 열사람을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움직이고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여 모든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동시에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합리화하며 기준화사업을 잘하고 물자를 절약하며 원단위를 낮추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력관리를 잘하고 사회주의로동규률을 강화하여 한사람의 로력도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원자재를 극력 아껴쓰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적은 물자, 적은 자금을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은 오늘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과업이다.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더 강화하여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높여야 하며 제품의 원가를 낮추고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제품의 질을 선진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하나를 만들어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쓸모있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값눅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을 훌륭히 해결하고 우리 공업을 더 발전시키자면 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을 잘 알아야 하며 기술지식을 습득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국제국내적으로 긴장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배합할데 대한 당의 일관된 방침을 관철하여 혁명진지를 더욱 굳게 다져야 한다.

우리는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전쟁을 도발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여 그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국방건설에 더욱 큰 힘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평화적건설의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경제건설을 더 잘하여 사회와 인민의 재부를 증대시키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 하며 그의 전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체 인민이 한손에는 무기를, 다른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하며 사회주의를 더욱 훌륭히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나라를 보다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다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의 현대성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김 기 철, 하 수 홍

진보적이며 긍정적인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은 문화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원칙적 문제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촉진하며 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은 문화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시대의 변천, 사회적조건의 변화에 따라 창조되는 문화는 선행한 시기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발전단계를 이룬다. 그러나 문화의 발전은 소여시대의 사회적, 정치경제적환경에 의하여 제약될뿐만 아니라 계승발전의 력사적과정을 이루고있다. 문화발전의 이 력사적 과정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는 낡은 요소들이 부단히 제거되여가는 과정인 동시에 선행한 진보적이며 긍정적인것이 보존되면서 새로운 생활현실에 맞게 혁신되여가는 과정이다.

사회주의문화는 인류문화의 력사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이루며 그 발전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문화발전의 력사적합법칙성을 떠나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문화유산을 섭취하고 그 우에 올라섬으로써 달성되는것이다.

일찌기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가 건설하는 문화가 빈터에서 솟아나는것이 아니라 선행시기에 이루어진 문화적부의 합법칙적인 계승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류의 전발전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의해서만, 그 개작에 의해서만 프로레타리아문화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명확히 리해함이 없이는 우리는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할것이다. 프로레타리아문화는 어딘지도 모르는데서 떨어지는것도 아니며, 프로레타리아문화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안출하는것도 아니다.》(레닌전집 제31권, 342페지).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 필수적 전제이다.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문화의 건설은 인류가 창조한 진보적인 문화유산을 섭취하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루어진다. 민족의 문화적유산의 토대를 떠나서 독자적인, 자기 인민의 생활과 감정에 맞는 사회주의적문화를 결코 발전시킬수 없다.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은 인민들을 주체사상과 애국주의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유산은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심의 원천으로 된다. 자기 나라의 력사와 문화전통은 사람들에게 높은 긍지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게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조국땅우에 이루어진, 인간에 의한 인간

의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적사회제도에 대한 사랑과 함께 자기 조국의 력사와 문화전통에 대한 인식과 사랑에 기초하고있다.

사람들은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수호하는 투쟁에서와 압제자를 반대하며 나라의 광명한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선조들이 이룩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전통을 배우고 유구한 력사와 자랑스러운 문화전통을 가진 민족의 한 성원으로 태여났다는 자각을 가질 때 더욱 뜨거운 애국심을 간직하게 된다.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은 우리 나라에서 특히 절실하게 제기되였다.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고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문화는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하에서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문화유산의 발굴, 정리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귀중한 유산들이 파괴되고 류실되였다. 일제의 식민지우매화정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조국의 력사와 문화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큰 장애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해방후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형편은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에서 오늘날까지도 존속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닥치는대로 략탈파괴하였으며 《미국식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을 극력 류포시키면서 우리 민족문화의 독자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 당은 새로운 민족문화건설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 첫날부터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민족문화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문화인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가운데서 우수한것은 계승하고 락후한것은 극복하며 선진국가들의 문화가운데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는 진보적인것들을 섭취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민족문화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김일성선집 제1권, 100페지).

그러나 사대주의에 물젖은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을 백방으로 반대외곡하였으며 그 관철을 악랄하게 저해하였다. 이자들은 우리 민족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거부해나섰으며 그것을 말살해버리려 하였다. 그들은 우리것은 다 나쁘고 좋은것은 남에게만 있는듯이 말하면서 외국의 문학예술을 우상화하고 기계적으로 모방하는데만 급급하였다.

우리 당은 반당종파분자들의 사대주의적, 민족허무주의적편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복고주의적경향도 철저히 반대하였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그릇된 편향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립장을 고수한 우리 당의 정확한 문예정책은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민족적향기를 풍만하게 풍기는 《황금》의 문학예술을 개화발전할수 있게 하였다.

* *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은 현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만 정확히 이루어질수 있다.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알고 이어나가는것은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전진하며 오늘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문화유산계승에서 현대성의 요구는

문화유산을 오늘의 생활과 인민들의 미학적기호에 순응하게 섭취하며 오늘의 조건에 부합되게 발전시키는데 있다.

현대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되는것은 계급적원칙을 고수하며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서 문화유산을 대하는것이다.

각이한 계급들은 자기의 계급적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립장에서 문화유산을 평가하고 리용한다. 부르죠아계급은 그 착취자적본성으로 하여 과거의 문화에서 선진적이며 인민적인것을 두려워하며 반동적인것, 퇴폐적인것을 숭상하고 조장시킨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에 비추어 부르죠아계급과는 정반대되는 립장에 선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매개 민족문화로부터 다만 그 민주주의적요소와 사회주의적요소만을 취할뿐이며, 다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매개 민족의 부르죠아문화와 부르죠아민족주의에 대립시키면서 그것을 취하는것이다》(레닌전집 제20권, 10페지).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화유산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진보적인것을 가려낼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전통을 판지하는 기준, 척도를 혁명과 전진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와 같은 립장에 확고히 설 때만이 우리는 문화유산에서 락후한것과 선진적인것, 반동적인것과 인민적인것을 구별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리용할수 있다.

문화유산계승에서 현대성원칙, 계급성원칙은 반드시 력사주의적원칙과 결합되여야 한다.

문화유산계승에서 계급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결코 오늘의 요구, 로동계급의 리상에 비추어 아무런 흠집도 없는 문화유산을 찾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는 문화유산계승에서의 현대성, 계급성을 단순화하며 일면화하는것이다.

모든 문화유산은 력사적제한성을 면할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오늘의 높이에서 내려본다면 거기에는 이렇게나저렇게나 낮은 단계의 세계관, 낮은 단계의 현실, 낮은 단계의 수법에서 오는 제한성들이 있기마련이다. 그런만큼 만일 누가 과거의 유산에서 그 시기에는 아직 제기될수 없었던 문제들, 그 당시의 세계관의 높이로써는 도저히 넘을수 없었던 사상리론적수준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실현될수 없을것이다. 이러한 비력사적인 태도는 사실상 문화유산의 계승을 거부하는 허무주의적립장에 떨어지지 않을수 없다.

력사주의적원칙은 각이한 사회구성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소여의 력사적단계에서 사회 앞에 제기된 과업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리용할수 있었던 수단들을 정확히 평가하고 민족문화유산에서 시대적조건에 의하여 초래된 제한성과 력사적으로 선진적이며 인민적인것을 가려낼것을 요구한다.

과거계급사회의 문화에는 비록 통치계급의 문화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하더라도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요소들이 있는것이다. 그것들은 당시 피압박인민대중의 생활과 지향, 압제와 략탈을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을 반영한것이다. 착취자사회의 모순을 폭로규탄하며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근로인민들의 념원, 그들의 진실하고 풍부한 정서는 과거의 문화속에서 민주주의적이며 선진적인 요소들을 산생케 하였다. 이것들은 비록 통치계급의 반동적인 문화와 엉켜있고 그것에 의하여 억압되고 외곡되였

다 하더라도 자체의 존재를 그치지 않았다. 특히 착취계급의 사회가 붕괴기에 처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앙양될 때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요소들은 더욱 증대되고 전면에 나설수 있었다.

지난 시대의 과학리론과 문학예술은 당시의 주객관적조건의 미숙성과 관련된 부족점들을 가지면서도 당시의 절박한 문제들과 리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 때 력사적의의를 가지며 그 시대의 귀중한 문화적기념물로 될수 있는것이다. 그것들에는 제한성과 함께 그 이후의 문화발전과 현대의 문화건설을 위하여 긍정적의의를 가지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여있다.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우수한 민족고전의 하나인 《춘향전》에도 그것이 창작된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으로 말미암은 제한성이 반영되여있다. 례하면 작가는 전횡을 일삼는 봉건통치배들과는 다른 선량한 관리, 리몽룡의 형상을 통하여 어질고 착한 관리로 잔인하고 포악한 관리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고있으나 봉건제도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해나서지는 못하였다.

인민 해방의 리념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이러한 제한성은 《춘향전》작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 봉건통치자들을 계몽시키는데 일정한 기대를 걸었던 실학사상가들에게서도 볼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는 뚜렷한 진보적성격을 가졌던 이들의 세계관적제약성과 관련되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성은 결코 실학사상가들이나 《춘향전》창작자의 진보성과 인민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춘향전》창작자의 인민적인 사상은 리몽룡과 춘향의 애정관계를 줄거리로 하면서 당시의 사회생활과 각계층인물들의 호상관계를 잘 묘사하고 리조사회말기의 봉건통치배들의 포악성과 비렬성을 신랄하게 폭로규탄하며 인민들의 장성하는 반봉건적의식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게 하였다. 리몽룡과 춘향의 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남녀간의 자유로운 접촉이 전혀 허용되지 않던 당시에, 더우기 넘을수 없는 신분적장벽을 사이에 둔 그들이 사랑과 믿음으로써 결합되게 한것은 문제설정 그자체가 벌써 반봉건적이며 민주주의적인것이다.

《춘향전》이 오랜 세월을 두고 그처럼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아오는것은 중요한 사회적의의를 가지는 주제의 설정과 선명한 예술적형상화에 의하여 달성된 그 높은 사상예술성에 기인한다.

《춘향전》뿐만 아니라 《심청전》, 《토끼전》 등 민족고전들이나 리규보, 리제현, 김시습, 림제, 정철, 박인로, 허균, 김만중, 박지원, 정약용 등의 작품들 역시 이러저러한 사상미학적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소여시기 인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문학예술의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춘향전》을 비롯한 고전작품들에 《선량한 관리》의 형상이 나온다거나 비현실적이며 환상적인 서술이 있다 하여 그것들에 표현되여있는, 봉건통치계급의 부패성, 반인민성에 대한 증오와 규탄, 봉건사회의 모순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춘향전》을 비롯한 고전작품들은 그 진보적인 사상적내용과 생동한 예술적형상성으로 하여 오늘에 있어서도 억압과 착취를 증오하는 인민들의 심정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커다란 감명을 준다.

레닌은 레브 똘스또이의 사상적인 제한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동시에 그의 창작이 가지는 긍정적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씨야로동계급은 레브 똘스또이의 예술작품들을 연구함으로써 자기의 원쑤들을 더 잘 알게 될것이며, 전체 로씨야인민은 똘스또이의 학설을 고찰함으로써 자기의 해방사업을 끝까지 수행할수 없게 한 자체의 약점이 어디 있었는가를 반드시 리해하게 될것이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리해하여야 한다》 (레닌전집 제16권, 445페지).

우리는 과거의 문학예술작품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것이 산생된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에서 어떠한 선진적인것을 체현하고있으며 문학예술의 발전에서 어떠한 긍정적작용을 놀았으며 오늘을 위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시고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오직 이러한 립장에서만 고전작품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사실을 리해할수 있으며 그 귀중한 유산들을 오늘의 인민적인 문학예술발전을 위하여 옳게 리용할수 있다.

계급성원칙과 력사주의원칙을 결합시키는 립장에서 우리 민족의 문학예술유산을 대할 때 우리는 작품들의 제한성을 반드시 비판적으로 대하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결코 가리여질수 없는 사상예술적가치를 찾아낼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훌륭한 작품들 속에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나라와 인민의 원쑤에 대한 증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고결한 지조, 정의롭고 선한것의 승리를 믿는 락관주의, 고상한 도덕적 순결성과 인도주의 등 소여시기에 선진적이였으며 우리 시대의 조명속에서도 의연히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고 계승발전시킬수 있는것이다.

고전유산에 대한 비력사주의적태도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신적성격에 빙자하면서 표현형식의 민족적특성을 무시하는데서도 표현된다.

새로운 생활내용과 인민들의 발전하는 미감은 표현형식의 혁신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 혁신은 어디까지나 오랜 시일에 걸쳐 형성된 민족적기호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체의 민족적특성을 구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와 작가가 다른데 따라 형상창조에서 리용되는 표현수단과 수법들은 변화하지만 문학예술형식의 변화발전과정에서는 민족적표현방법에 고유한 특성들이 보존되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문학예술고전들에서 우리는 우아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속에 서리는 고상한 정서성, 온은한 표현속에 고동치는 운동감, 본질적인것들을 표현하는데서의 간결성과 함축성, 등 표현방법의 우수한 특성들을 찾아보게 된다.

표현형식에서 민족적특성을 구현함으로써만 우리의 문학예술은 인민들의 감정과 기호에 맞는 조선적인 선과 색채, 조선적인 선률과 률동을 창조할수 있다. 민족적특성을 무시하고 외국의 표현형식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모방하는것으로써는 조선의 현실과 조선인민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으며 조선인민이 리해하고 사랑하는 예술작품을 창조할수 없다. 자체의 민족적 바탕을 떠난 예술은 독자성과 창조성을 잃게 됨으로써 자기 인민의 구미에 맞을수 없을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의 보물

표에 응당한 기여를 할수도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당의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서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복무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은 인민들의 향유물로 되고 그들의 사랑을 받게 됨으로써 커다란 힘을 나타내는것이다. 민족적특성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문학예술은 인민들에게 리해될수 없고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것이며 따라서 자체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의 진보적인 내용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있어서와 같이 민족문학예술의 형식적특성들을 옳게 계승리용하는데 있어서 그것들을 새로운 조건에 맞게 부단히 개선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수한 형식들도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따라 그 개별적인 속성과 요소들은 변화되며 또 변화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률, 새로운 률동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7페지)라고 교시하였다.

당의 정확한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 문학예술발전에서는 전통적인 형식들이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과 감정에 맞게 개선되여 왔으며 더욱 풍부화되였다. 한 실례로서 우리의 창극발전과정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과거의 창극작품들에서 봉건사상의 영향을 제거하고 그 언어를 현대사람들이 리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었으며 낡은 판소리조를 없애고 밝고 아름다운 민요조를 도입하는 한편 중창, 합창, 무용 등 수법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오늘날 우리 인민의 생활과 사상감정에 맞게 그 사상성과 예술성을 훨씬 높이였다. 이리하여 일제시기에 창조, 상연이 금지되였던 이 전통적인 예술형식을 복구, 보존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가극으로서 사상예술적으로 더욱 완성시켰다.

＊ ＊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는 고전유산들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굴, 정리하며 그것을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할 과업이 절실하게 나서고있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은 찬란하고 풍부하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아직 충분히 발굴, 정리되지 못하였다. 해방전에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사업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혹심하게 박해당한데로부터 그 본격적인 실현은 우리 시대에 부과된 과업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찬란한 우리 민족예술의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선조들이 남겨놓은 아름답고 진보적인 모든것이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92페지).

우리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하는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튼튼한 군중적토대우에서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와 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배양하는 사업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문화유산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소유물로 되게 하고 그들이 고전유산들과

더욱 친숙해지게 하기 위하여 고전작품들을 현대의 말로 옮겨놓는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의 적지 않은 고전저작들은 낡은 투로 되여있는 관계로 현대사람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리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하루 속히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여야 한다.

민족문학예술의 계승발전에서 예술고전들을 정리하며 일부 입으로 전해지고있는 불완전한 이야기, 노래 등도 적극 발굴, 수집하여 온전한 작품으로 구성하고 그것들을 정당하게 개작, 각색하여 보급하는 사업이 또한 중요하다.

예술유산을 개작, 각색하는 사업에서도 현대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문학예술유산들의 개작, 각색에서 고전작품들의 사상주제의 인민적성격을 정확하게 찾아내며 과거에도 절실하였고 현대에 있어서도 의의있는 그런 문제를 포착하여 전면에 내세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전유산의 개작, 각색은 부르죠아적인 외곡된 《현대화》와는 인연이 없다. 부르죠아앞잡이들은 예술고전을 《현대화》한다는 구실밑에 되는대로 개악, 훼손시키고있다.

남조선반동예술인들은 우리 민족의 과거문학에서 애국주의와 인민해방의 사상을 반영한 선진적인 작품들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민족문학의 독자적인 발전력사까지도 부인해나설뿐만 아니라 저들의 반동적 목적에 따라 문학예술고전들을 함부로 뜯어내고 들이맞추면서 외곡하며 기형화하고 있다.

남조선반동예술인들이 《춘향전》을 색정 문학으로, 깡패와 색광을 그린 《현대물》로 날조한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이것은 민족문화유산의 반동적, 반인민적 악용이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민족문학 예술유산을 저속한 부르죠아적취미를 충족시키는 값싼 상품으로 만드는 용허 못할 모독행위이다.

민족문화의 고귀한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주체적인 립장에 확고히 서서 새로운 민족문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은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독창적이며 자주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우리 나라 력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찬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계승발전에서의 당의 정확한 방침을 견지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서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유산들이 우리 시대의 문화혁명수행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케 하여야 할것이다.

오데르—나이쎄국경선은 변경될수 없다

신 근 필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하에 급속히 재생된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대외팽창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다.

서부독일에서는 한때 히틀러가 부르짖던 《독일생존권》이니, 《구라파신질서》니하는 팽창주의적구호가 다시 고창되고있으며 복수주의자들은 그것을 실현시켜보려는 야망을 감추지 않고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외팽창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특히 구라파사회주의국가들을 반대하는 소동을 벌려놓고있다.

서독복수주의자들은 미제의 사촉하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무력으로 병탄하려 하고있을뿐만 아니라 2차 대전후에 형성된 독일국경을 《재검토》할것을 표방하면서 뽈스까와 체스꼬슬로벤스꼬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령토적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서독제국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야욕은 오데르—나이쎄강을 국경으로 한 뽈스까의 서부 및 북부지역에 대한 령토적요구에서 로골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오데르—나이쎄국경선을 재검토할데 대한 서독군국주의자들의 령토적요구는 장구한 기간 뽈스까를 강점하고 지배해온 독일침략자들의 팽창주의정책의 계속이다.

독일침략자들의 팽창주의정책으로 말미암아 뽈스까령토의 3분의 1, 인구의 4분의 1을 포괄하는 뽈스까서부와 북부지역은 장기간 독일침략자들의 강점하에 놓여있었다. 이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오데르—나이쎄국경은 오래동안 침범당하였다.

독일침략자들은 전통적인 뽈스까의 오데르—나이쎄국경을 유린하면서 뽈스까의 서부와 북부지역을 강점하고 이 지역에서 가혹한 억압과 략탈을 감행하였다.

특히 두차례의 세계대전기간에 독일제국주의자들은 뽈스까국가의 존재까지 없애버리려 하였다.

2차 대전에서 쏘련군대 및 그와 함께 싸운 뽈스까군대의 투쟁에 의하여 독일제국주의자들이 뽈스까로부터 쫓겨남으로써 오데르—나이쎄국경이 회복되였고 뽈스까의 서부 및 북부지역이 독일군국주의자들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뽈스까에 다시 귀속되게 되였다.

그러나 서독군국주의자들은 히틀러의 인종주의와 배타주의정책을 계승하면서 팽창주의적야망을 포기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전후에 이미 종국적으로 해결되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문제로도 되지 않는 오데르—나이쎄국경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와 국제적인 소동을 일으키려 하고있다.

본 지배층들은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아야 한다느니, 오데르—나이쎄국경을 변경시켜야 한다는 등 허황한 주장을 되풀이하고있다.

서부독일수상 에르하르트는 서독은 오데르—나이쎄국경《지역을 포기하지 않으며 또 포기할수도 없다》고 하면서 히틀러독일이 강점하고있던 지역에 대한 령토적요구를 공공연히 제기하고있다.

그들은 과거 뽈스까의 서부 및 북부지역에 살다가 서독으로 이주하여간 사

람들을 규합하여 《동프로씨아동향회》, 《실롱쓰크동향회》 등 복수주의적 단체들을 조작하고 그들을 오데르—나이쎄국경을 반대하는 깜빠니야에로 추동하면서 부질없는 소동을 벌려놓고있다.

심지어 금년 6월 23일에 서독하원은 오늘 서독 경외의 과거 독일 《령토》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이 서부 독일의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령》까지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복수주의적이며 팽창주의적인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다시 모험주의적인 길로 나아가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다.

* *

서독제국주의자들의 령토적요구는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뽈스까는 국가창건당시부터 오데르—나이쎄강을 경계로 하여 자기의 령토를 형성하고있었으며 그것이 뽈스까의 국경이라는것은 력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오늘 서독군국주의자들이 제기하는 국경선문제는 순전히 과거 독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의하여 조성된것이다.

오데르—나이쎄국경선은 력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2차 대전후에 체결된 국제협약들에서 확인된 것이다.

1945년 8월에 체결된 포츠담협정에서는 오데르—나이쎄 두강 동쪽에 있는 독일의 주들을 모두 뽈스까의 관할하에 넘긴다는것이 명백히 규정되였고 그와 함께 뽈스까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을 독일에 송환할데 대한 문제도 결정되였다.

이것은 뽈스까와 독일간의 력사적관계와 현실적조건으로보아 정당한 조치였다.

특히 오데르—나이쎄국경선은 1950년 7월 뽈스까인민공화국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지역에서 공고화된 새생활이 오데르—나이쎄국경선변경문제를 배제하고있다.

전후시기에 뽈스까정부는 이 지역에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며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금 이 지역은 뽈스까의 경제적 및 행정적유기체의 구성부분으로 되였으며 뽈스까령토의 분리할수 없는 일부로 되였다.

지난 20여년간에 뽈스까인민은 독일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나라에 귀속된 이 지역에서 인민주권을 수립하고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독일군국주의자들의 파쑈통치의 후과를 청산하였다.

파쑈독일의 침략과 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되였던 이 지역에서 경제와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뽈스까인민의 새생활이 꽃피고있다.

이 지역에서 이미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출생하여 뽈스까의 새세대로 자라나고있으며 20여개의 대학들에서는 수만명의 학생들이 뽈스까의 새로운 일군으로 육성되고있다.

제반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데르—나이쎄국경문제란 더는 존재할수 없다. 그것은 오직 서독제국주의자들의 망상적인 팽창주의적야욕속에만 존재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뽈스까정부는 자기의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오늘 뽈스까가 구라파의 일부분인것과 마찬가지로 뽈스까의 서부 및 북부지역이 뽈스까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공인되여 있다.

…이 국경은 결코 론쟁과 흥정의 대상으로 될수 없으며 더우기는 독일련방공화국의 야망의 대상으로 될수는 없다. 때문에 국경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뽈스까인민공화국정부의 1966년 4월 28일 성명).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독군국주의자들은 계속 《국경문제》의 재검토를 들고나옴으로써 흉악한 정치적목적들을 실현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과거 독일제국주의자들의 《유산》인 《국경문제》를 다시 들고나옴으로써 독일인민들 속에서 복수주의적 및 배타주의적사상을 고취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국경문제》의 재검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구라파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며 서독군국주의자체의 부활을 촉진시키려 하고있는것이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마치 《전후에 뽈스까 및 기타 나라들과 독일간의 호상관계문제가 잘못처리》되였기때문에 이 지역에서 긴장상태가 조성된듯이 사태를 묘사함으로써 사실상 저들의 군국주의재생에 의해 조성된 긴장상태의 진정한 원인을 가리며 지어 그것을 허황하게도 사회주의국가들에 들씌우려 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은 재군비를 추진시키고 군사력을 증강하는것이 이러한 긴장상태에 대처하기 위한것인듯이 그릇된 인상을 조성함으로써 저들의 침략정책에 대한 규탄을 약화시키며 세계여론을 오도하려 하고있다.

서독복수주의자들은 군국주의를 재생시킴으로써 히틀러의 《모범》을 따라 이미 파산된 《독일제국》을 재건해보려 하고있다.

그들은 결국 뽈스까뿐만 아니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및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병탄하고 나아가서 쏘련을 비롯한 구라파사회주의국가들을 침략함으로써 구라파에서의 히틀러식《신질서》를 회복해보려고 망상하고있다.

서독복수주의자들의 《국경문제》에 관한 소동, 그들의 군국주의재생책동은 구라파의 평화를 다시 유린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해보려는 흉악한 제국주의적반동정책의 표현인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들,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기 위한것이며 《반공》선전책동의 일부인것이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의 《령토문제》를 둘러싼 반동선전은 오늘날 세계제국주의반동세력이 발광적으로 전개하고있는 침략정책의 한구성부분이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소동은 세계반동의 원흉 미제의 《반공》정책의 주요한 일환으로서 오늘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무를 받고있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의 복수주의적대외팽창정책은 미제의 침략적세계전략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복수주의적야망을 실현함에 있어서 동방의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제국주의침략세력의 《돌격대》로 나섬으로써 미제와의 협조하에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달성해보려 하고있다.

한편 미제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팽창주의적야욕을 리용하여 구라파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정책을 추진시키려 하고있다.

이와 같은 침략적이며 팽창주의적인 리해관계의 일치로하여 미제는 전후초기부터 국제협정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서독군국주의자들을 부활시켜 왔고 서독군국주의자들도 또한 미제와 결탁하여 그들의 침략정책수행에서 중요

한 일익을 적극 말아나섰던것이다.

서독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팽창주의적구호를 들고나오는것은 서독에서의 대독점들과 파쑈분자들의 득세 및 이들에 의한 반동적인 대내정책의 실시와 결부되여있다.

전후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급속히 부활된 서독군국주의는 오늘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반동화되고있으며 파쑈화되고있다.

서독에서는 파쑈체제가 다시 수립되고있으며 인종주의와 배타주의가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되고있다. 2차 대전시기의 나치스전범자들이 아무러한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공공연히 나돌고있으며 그들은 정계를 비롯하여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문에서 중요한 직위에 등용되고있다.

이와 함께 경제의 군사화가 더욱 강화되고있다. 본정부의 군사비는 해마다 늘어나 지금에 와서는 년간 208억마르크에까지 달하고있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핵무장화를 추진시키려고 날뛰고있으며 《오네스트존》로케트 등 신형중장비를 갖춘 50만명의 군대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다.

서부독일은 구라파에서 반동의 중요거점으로 되고있으며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돌격대》로서 미제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다.

서독제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사촉하에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에서 이스라엘배타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에게 각종 무기를 공급해주고있다.

뽈스까에 대한 서독군국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책동도 미제와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공모와 결탁의 산물이며 그것이 워싱톤의 적극적인 추동하에 진행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1953년에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이 《나는 미국대통령으로서 독일지역들이 뽈스까의 소유지로 넘어오는것을 찬성한적이 없으며 그의 최종선을 인정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서독의 팽창주의적야망을 추동해주었으며 지난해 9월 미국무성공보과 마이트가 《뽈스까와의 서방의 국경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면 독일문제의 평화적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한데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이것은 오늘 뽈스까에 대한 서독군국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책동의 배후조종자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것을 여지없이 폭로해준다.

미제와 적극 야합하면서 세계제국주의의 반동세력의 《돌격대》역할을 말아나선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구라파에만 국한되지 않고있다.

그들은 구라파사회주의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지역나라들에까지 간섭과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아세아에서 그들은 남조선을 비롯한 일련의 지역들에 침투하고있으며 서독의 여러 독점들이 경제적침략의 촉수를 내밀고있다. 그들은 또한 남부윁남을 비롯한 식민주의전쟁마당에 고용살인자들을 대량수출하고있다.

아프리카에서 그들은 직업적인 식민주의적살인자로서 이름을 날리고있으며 남아프리카의 버워드당국과 야합하여 이 지역에서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광분하고있다.

현실은 서독제국주의자들이 히틀러의 패망에서 아무러한 교훈도 찾으려 하지 않으며 저들의 무모한 복수주의적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침략의 길로 계속 나가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독군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날뛰여도 이들의 복수주의적야망은 실현될수 없다.

이미 시대가 달라졌으며 정세가 달라졌다. 지금은 30년전과 같이 독일군국주의자들이 구라파에서 제멋대로 인민들을 위협하고 다른 나라들을 침범할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 독일군국주의자들의 침략대상으로 되여온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이 나라들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위력을 급속히 강화하였다. 이 나라들은 강대한 사회주의진영의 성원들이며 오늘 사회주의진영은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들의 간섭과 침범에 대하여서도 섬멸적인 반격을 가할수 있다.

외래침략자 특히 히틀러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간고한 시련을 겪어온 뽈스까인민들은 피로써 전취한 나라의 독립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고 서독군국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책동으로부터 자기의 령토를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뽈스까는 오늘 나라를 사회주의공업 및 농업국가로 전변시킴으로써 자기의 천년의 력사에서 일찍 있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혁을 이룩하였다. 나라의 경제, 군사적위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뽈스까에 가져다 준 고귀한 결실이며 서독군국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정책을 분쇄하고 자국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오늘의 새시대, 새로운 조건에서 팽창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다.

뽈스까에 대한 서독군국주의자들의 령토적요구는 비단 뽈스까에 대한 팽창주의적책동으로 될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

사회주의진영은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그것을 묵과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은 서독군국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야망을 단호히 규탄하며 오데르—나이쎄국경을 수호하기 위한 뽈스까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이미 해결된지 오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현존 오데르—나이쎄국경을 변경시켜보려는 팽창주의적야욕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히틀러의 전철을 밟는자들은 결국 그와 동일한 말로에 이르지 않을수 없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의 흉악한 팽창주의적야욕은 그 어느 때나 실현될수 없다. 만일 그들이 계속 그것을 고집한다면 사회주의진영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엄격한 규탄과 반격을 받을것이며 응당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한 맑스, 엥겔스의 투쟁

최 금 춘

전세계 로동계급의 위대한 스승이며 수령인 맑스와 엥겔스는 맑스주의의 리론과 전술을 작성하고 그것을 국제로동운동의 실천에 적용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위업에 불멸의 위훈을 남겼다.

맑스와 엥겔스의 생애와 활동은 계급적원쑤들과 그들의 리익을 직접 대변한 반동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행정인 동시에 로동운동내에 나타난 각종 《좌》우경기회주의조류들과의 리론실천적인 첨예한 투쟁행정이였다.

《좌》우경기회주의는 로동계급에 가해지는 부르죠아지와 부르죠아사상의 압력의 영향하에 로동계급대렬내에 있는 소부르죠아적요소들, 로동귀족들, 로동계급의 본성을 상실한 일부 견실치 못한 사람들을 지반으로 하여 발생한다.

부르죠아지는 폭압과 회유기만을 교활하게 적용하는 량면 전술로써 로동계급의 일부 견실치 못한 층들을 혁명적 로동운동으로부터 떼여내려고 책동한다. 부르죠아사상, 습성, 관습, 기분은 부르죠아사회와 이러저러하게 련결되여 있는 로동계급의 일정한 층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그 당내에 부단히 침투되며 부르죠아지는 이러한 사상적영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한다. 부르죠아지와 부르죠아사상의 압력은 로동계급의 대렬내의 견실치 못한 일부 층으로 하여금 기회주의의 진창속에 끌려들어가게 한다.

로동계급은 자기 대렬내에 다양한 층을 포괄하고있다. 쓰딸린은 로동계급을 첫째로, 《이미 오래전에 자본가계급과의 련계를 끊어버린 〈순결한〉 프로레타리아대중》, 《로동계급의 기본대중》, 《그의 핵심》과 둘째로, 다른 계급의 출신으로서 《겨우 얼마전에야 로동계급의 성원으로 들어왔을 따름이며 자기들의 관습과 습성, 자기들의 우유부단성과 동요성을 로동계급속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세째로, 로동귀족, 《로동계급의 상층으로서 로동계급중에서 생활이 가장 안정된 부분》으로 크게 나누었다. 그는 첫째층이 《맑스주의의 가장 믿음직한 기둥》이며 둘째층이 《온갖 무정부주의적, 반무정부주의적 및 〈극좌적〉 집단들을 위한 가장 좋은 지반》이며 세째층이 《부르죠아지와의 타협을 지향하며 세상의 강자들에게 순응하려는 기분이 농후하고 〈출세〉하려는 기분이 있는 사람들》, 《로골적인 개량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지반》이라고 지적하였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외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로동계급의 이 마지막 두층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사회층으로서 기회주의 일반을 배양하고있는바 이 층은 로동귀족의 기분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공공연한 기회주의를 배양하며 그리고 로동계급중에서 아직 소부르죠아층과 완전히 손을 끊지 못한 반소시민적층의 기분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좌익적인〉 문구로 은폐된 기회주의를 배양한다》(쓰딸린선집 제 2권, 204페지).

《좌》우경기회주의는 그 사회적근원이 존재하는한 이러저러한 형태로 계속 발생할수 있으며 따라서 그와의 투쟁은 매개 나라에서와 국제적범위에서 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그 날까지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맑스와 엥겔스는 《좌》우경기회주의조류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그들을 리론적으로 폭로분쇄하는 동시에 로동운동실천에서의 그것들의 영향을 철저히 제거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좌》우경기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시종일관 과학적공산주의의 원칙적인 립장을 견지하였으며 견결하고 비타협적이였다. 그들은 계급투쟁과 로동계급의 세계사적사명에 대한 력사적유물론의 기본적인 리론적명제들, 로동계급의 전위당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관한 문제들, 국가에 관한 과학적리해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역할에 대한 문제들, 혁명투쟁에서의 전략전술의 기본적문제들 등에서 과학적공산주의의 유일하게 정확한 립장을 무조건 고수하였으며 이 원칙적문제들에서 결코 어떠한 흥정도 허용하지 않았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이다. 《좌》우경기회주의는 로동운동에 헤아릴수 없는 해독을 끼치는바 그 영향을 철저히 극복함이 없이는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인도할수 없다.

로동계급은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공산주의의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력사적사명을 명확히 인식하며 혁명투쟁의 정확한 방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 대렬을 굳게 결속하고 계급적원쑤들과의 대중적혁명투쟁의 길로 용감히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이 맑스주의의 사상적무기를 소유하는것을 백방으로 방해하며 그들의 단결을 파괴하고 혁명투쟁에서 대중을 그릇된 길로 오도하려 한다. 레닌은 《좌》우경기회주의의 해독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량자는 모두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사업 즉 여하한 조건하에서도 훌륭하게 자기 기능을 수행할줄 아는 대규모적이고 강대하고 잘 일하는 조직으로, 다시 말하면 계급투쟁의 정신으로 일관되고 자기의 목적을 명백히 자각하고 참으로 맑스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교양되는 조직으로 로동자들을 단결시키는 사업을 방해하는것이다》(레닌전집 제16권, 440페지).

《좌》우경기회주의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원칙적이며 철저한 투쟁, 이 투쟁에서 그들이 취한 정확한 방법은 오늘날까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불후의 모범으로 되고있다.

* *

맑스와 엥겔스는 맑스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첫시기부터 로동운동내의 각종 《좌》우경적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840년대초 구라파 각국에서는 혁명정세가 성숙되여가고 로동운동이 일정하게 장성하였으나 당시 《사회주의》적조류들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었고 그것들은 대체로 혁명투쟁이 아니라 개량의 방법에 매달리거나 소수음모가들에 의거하여 사회적해방을 달성하려 하고 있었다.

루이 블랑, 프루동 등은 소규모적인 사적소유를 리상화하면서 그에 기초한 협동조합의 창설로써 사회적빈궁을 제거하려는 개량주의적견해를 류포시키고 있었으며 데자미, 와이틀링 및 블랑끼는 자본주의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혁명의 필요성을 리해하고는 있었으나 그 담당자는 소수혁명가들, 일부 인테리들이라고 보았다.

맑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사조들을 비판하면서 맑스주의기본원칙들을 확립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이 시기에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의 필요성, 그 수행방도, 로동계급의 당의 필요성 등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특히 그들은 《공산당선언》에서 각종 기회주의조류들의 반동적본질을 전면적으로 폭로하면서 맑스주의의 기본원칙들과 기본명제들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1848~1849년 혁명이 있은후 맑스와 엥겔스는 그 경험을 개괄하면서 혁명에서의 로동계급의 령도권, 로농동맹, 계

속혁명, 국력투쟁, 프로레타리아독재등에 관한 맑스주의원칙들을 더욱 발전시켰다.

1848~1849년 혁명실패후 로동운동은 일시 퇴조기를 겪은 다음 1857년의 경제공황을 계기로 다시 앙양기에 들어섰으며 1864년에는 제1국제당이 창건되였다.

맑스는 제1국제당의 기본과업을 각국의 로동계급이 부르죠아운동의 영향에서 분리되여 자립성을 가지도록 지도방조하며 그들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맑스주의의 승리를 촉진하도록 하는데 두었다.

제1국제당에서 맑스는 여러 나라의 로동운동을 통합하고 맑스주의이전의 각종 비프로레타리아적사회주의, 례컨대 프루동주의, 바꾸닌주의, 트레드유니온주의, 라쌀파 등을 공동활동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들의 리론을 비판극복하면서 여러 나라 로동계급의 프로레타리아적투쟁의 통일적인 전술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제1국제당의 첫시기에는 프루동주의와의 투쟁이 전면에 제기되였다.

프루동주의는 자본주의발전에 의하여 파산에 직면한 소부르죠아지의 공포와 사적소유에 대한 미련을 반영한 우경적인 개량주의사상이였다. 그것은 독립된 소상품생산자들, 소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정치적리상으로 삼고있었다.

그후 제1국제당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프루동주의의 무정부주의적측면을 계승한 바꾸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꾸닌주의는 영락된 소부르죠아지, 룸펜프로레타리아트, 락후한 농민층을 사회적지반으로 한 기본상 《좌》경적인 기회주의적사조였다. 그것은 조급하게 사회적해방을 달성할것을 바라는 소부르죠아지 및 일부 락후한 로동자층에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이 시기에 맑스와 엥겔스는 주로 프루동주의, 바꾸닌주의와 투쟁하는 동시에 당시 로동운동에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던 블랑끼주의의 《좌》경적편향 및 극히 우경적인 트레드유니온주의, 라쌀주의 등과의 투쟁도 진행하였다.

제1국제당은 창건된 때로부터 빠리꼼뮨에 이르는 기간 프루동주의 및 바꾸닌주의를 비롯한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맑스주의적전략 및 전술의 기본적원칙들을 확립하였으며 국제로동운동의 조직적중심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1871년의 빠리꼼뮨후 맑스와 엥겔스는 그 경험을 총화하면서 프로레타리아혁명리론과 전술을 가일층 풍부화시켰으며 빠리꼼뮨실패의 중요원인중 하나로 된 프루동주의, 블랑끼주의 등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오유를 철저히 비판하였다.

꼼뮨이 실패한후 제1국제당내에서는 각종 기회주의자들이 또다시 책동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빠리꼼뮨실패후 각국 부르죠아지들이 제1국제당에 가한 박해와 함께 제1국제당의 위기를 증대시켰다.

빠리꼼뮨후 제1국제당에서 내부적위기를 조성한것은 우선 영국의 트레드유니온주의자들이였다. 그들은 영국의 로동조합을 협소한 경제적리익만을 추구하는 혁명성이 결여된 조직체로 전변시켰을뿐만 아니라 제1국제당까지도 자기들의 경제주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 하였다. 그들은 제1국제당이 빠리꼼뮨을 지지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자 제1국제당에서 집단적으로 탈퇴하였으며 부르죠아지와 공공연하게 타협하고 그에 복무하는 길에 들어섰다.

제1국제당내에 특히 엄중한 위기를 조성한것은 바꾸닌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이였다. 바꾸닌주의자들은 빠리꼼뮨이 맑스주의의 정당성을 확증한것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의 정당성을 확증한듯이 떠들어대면서 프루동주의자, 블랑끼주의자, 트레드유니온주의자 등 다른 기회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제1국제당의 조직상 분렬의 위기를 조성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지도하에 제1국제당

은 바꾸닌주의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1872년 헤그대회에서 그들을 축출할것을 결정하였다.

19세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라파 각국에서 더욱 장성발전한 로동운동앞에는 민족국가단위의 사회주의정당들을 창설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1876년에 제1국제당이 해산된후 맑스와 엥겔스는 각국의 맑스주의자들을 지도하여 로동계급의 당들을 창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으며 특히 독일사회민주로동당을 조직하는데 큰 주의를 돌렸다.

독일사회민주로동당의 창건과 활동을 지도하면서 맑스와 엥겔스는 특히 라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라쌀주의는 《평등한 소유》를 리상으로 하고 비스마르크반동정부와의 타협을 통하여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 철저한 우경기회주의였다.

그들은 이전에 제1국제당에 가입도 하지 않으면서 제1국제당의 활동을 각방으로 방해하였으며 청소한 독일로동계급속에서 소부르죠아사상과 봉건적 및 민족주의사상의 영향을 증대시키는 해독적작용을 놀았다.

맑스와 엥겔스는 독일사회민주로동당에 대한 라쌀주의자들의 영향을 제거하는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맑스는 특히 《고타강령비판》을 집필하여 라쌀주의의 우경기회주의적본질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였다.

제1국제당이 해산된후 맑스와 엥겔스는 또한 독일로동운동에 대한 듀링의 우경기회주의사상의 영향을 제거하는데도 주의를 돌렸다. 특히 엥겔스는 《반듀링론》을 집필하고 듀링의 소부르죠아적기회주의리론에 대하여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당시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영국의 로동귀족을 사회적지반으로 한 훼비안협회의 계급타협주의를 반대하여서도 투쟁하였다.

1883년에 맑스가 서거한후 엥겔스는 제2국제당의 첫시기에 프랑스의 포씨빌리스트들과 영국의 《사회민주련맹》지도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한편 독일당내의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지도하였다.

전쟁일반을 반대하면서 전쟁을 방지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로동자들의 총파업이라고 주장한 무정부주의자들, 비합법적투쟁만을 절대화한, 독일당내에서 《청년파》라고 불린 《좌》경기회주의자들이 엥겔스에 의하여 철저히 비판되고 파산당하였다.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리론을 외곡하고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평화적방도만을 절대화한 폴마르, 카우쯔키 등의 우경기회주의적편향도 엥겔스에 의하여 비판되였다.

엥겔스는 또한 당시 대두하기 시작한 베른슈타인을 대표로 하는 수정주의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대하여서도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

각종 우경기회주의조류들은 서로 다른 력사적배경아래에서 서로 다른《론거》를 들고나왔지만 일정한 공통된 특징들을 가진다. 그것들은 계급투쟁을 거부하고 혁명이 아니라 사회개량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사회적해방을 달성할수 있다고 설교하였다.

레닌이 지적한바와 같이 우경기회주의의 정치적내용은 《계급협조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부인이며, 혁명적행동의 거부이며, 부르죠아적합법성에 대한 굴복이며,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불신, 부르죠아지에 대한 신뢰이다》(레닌전집 제21권, 535~536페지).

우경기회주의적편향은 맑스주의발생초기부터 로동운동의 발전을 저해하였고 제1국제당시기와 그후 맑스, 엥겔스의 활동의 마지막시기까지 항상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역할을 놀았다.

우경기회주의의 특징은 우선 혁명을 거부하고 계급협조를 설교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을 반대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은 자기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부르죠아제도를 혁명적으로 전복함으로써만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

그런데 프루동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사회주의를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에 기초한 자립적인 소생산자들의 사회제도로 돌아가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로동자들을 소생산자로 되게 하고 부르죠아국가의 방조하에 《교환은행》을 창설하며 류통부면의 개조에 의하여 자본주의착취로부터 벗어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트레드유니온주의자들은 공공연히 《주인과 로동자간의 진정한 리해관계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그것은 일치한다》고 하면서 로동계급의 임무는 단순히 《정당한 로동일에 대한 정당한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라쌀주의자들은 비스마르크정부의 방조하에 《생산협동조합》을 창설하여 로동계급의 사회적해방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듀링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청산하지 않고서도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평균적분배제도가 실시되는 경제적《콤뮨》을 설치함으로써 계급투쟁이 없이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할수 있다고 설교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계급협조를 설교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로동계급의 해방이 혁명적계급투쟁의 길에서만 달성될수 있다는것을 론증하고 로동계급을 이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맑스는 프루동의 주장을 《소시민적환상》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엥겔스는 트레드유니온주의자들의 주장이 《비교적보장된 처지를 얻을수 있었으며 또 이 처지를 자기들의 노력의 최종목적으로 보고있는》 로동귀족들의 립장에서 나온것임을 폭로하였다. 그들은 라쌀주의자들의 계급협조리론을 가리켜 《비스마르크왕국정부의 사회주의》라고 락인찍었다.

맑스와 엥겔스의 비판에 의하여 그리고 로동운동의 실천적경험에 의하여 우경적계급협조론의 부당성은 여지없이 증명되였고 로동운동내에서의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게 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저러한 변종들은 계속 되살아났으며 맑스와 엥겔스는 그것들과의 투쟁에 계속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우경기회주의자들의 주장과 사상에서 또하나의 반동적측면은 그들이 국가의 계급적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반대한데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국가를 그 어떤 초계급적인 존재로 보는 관념론적관점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렸으며 로동계급의 해방투쟁에서는 무엇보다도 부르죠아국가를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수립하는 과업을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프루동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부르죠아국가의 방조하에 사회적개량으로 로동계급의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는 허황한 국가미신을 제창하면서 다른 한편 온갖 국가를 반대한다는 구실하에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였다. 프루동은 국가를 《온갖 악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도 《최선의 경우에 힘이 센 다수가 힘이 약한 소수를 억압》하는것에 불과하기때문에 이것 역시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라쌀주의자들은 초계급적인 《자유인민국가》에 대하여 떠벌렸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에 적대되는 립장을 취하였다. 그는 국가를 《자유로운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통파맑스주의자》로 자처한 카우쯔키는 혁명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할 과업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평화적방도에 대해서만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가 집필한 《에르프르트강령》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각종 기회주의조류들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프로레타

리아독재의 필요성과 그 과업에 관하여 정연한 리론을 제시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수립없이 로동계급의 해방을 이룩할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라쌀의 《자유인민국가》에 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유인민국가운운은 순전한 공담이다. 프로레타리아트가 아직 국가를 필요로 하는 동안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적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것이며 자유에 관하여 말할수 있게 되는 때에는 국가로서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될것이다》(맑스엥겔스선집 제2권, 35페지).

사상리론적으로 맑스주의의 적이였던 우경기회주의조류들은 로동계급의 해방투쟁의 전략전술문제들에서도 극히 그릇된 립장에 서있었다.

이것은 우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고 정치투쟁을 경시하고 왜소화하며 일부 경제투쟁만을 절대시하는데서 명백히 나타났다.

맑스는 계급투쟁에서 경제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로동계급의 계급적해방을 위한 결정적인 투쟁으로는 될수 없다는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였다. 맑스는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최고의 투쟁형태는 정치투쟁이라는것을 지적하면서 《계급대 계급의 투쟁은 정치투쟁이다》(맑스엥겔스전집 제4권, 208페지)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제1국제당 로잔느대회는 정치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첫째로, 정치적해방이 없이는 로동자들의 사회적해방이 실현될수 없으며 둘째로, 정치적자유의 쟁취는 초보적이고 절대적인 요구로 된다고 인정한다》라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프루동은 정권전취를 위한 로동계급의 정치투쟁을 거부하고 협동조합의 발전과 《로동은행》의 창설과 같은 경제적시책들이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방도라고 주장하였다. 트레드유니온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정치투쟁을 외곡하면서 선거개혁을 위한 투쟁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정치투쟁을 부인하였으며 라쌀주의자들은 일반선거권의 전취를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만능적인 구호인것처럼 떠들어댔다. 베른슈타인도 의회를 통하여 평화적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할수 있다고 극력 선전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정치투쟁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다만 의회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에만 국한시키려는 시도들에 대하여 단호한 반격을 가하였다.

맑스는 《현대사회의 최하층인 프로레타리아트는 공적사회를 구성하고있는 상층부전체를 폭파해버리지 않고서는 일어날수도 없고 허리를 펼수도 없는것이다》(맑스엥겔스전집 제4권, 500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의회적방도》만을 절대시한 라쌀주의를 비판하면서 엥겔스는 폭력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해방을 달성할수 없으며 폭력혁명을 부단히 준비하면서 의회와 기타 합법적투쟁무대를 능숙하게 리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끊임없는 투쟁에 의하여 정치투쟁에서 로동계급을 떼내려던 기회주의자들의 시도는 파산되였으며 또한 폭력투쟁에 대처하면서 의회투쟁의 방법도 능숙히 리용하는 전술적원칙이 국제로동운동을 지배하게 되였다.

정치투쟁을 경시하며 외곡한 우경기회주의자들은 사실상 경제투쟁자체에 대하여서도 부정확한 관점에 서있었다. 프루동주의자들은 로임인상을 위한 투쟁의 의의를 부정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하에서 로임이 설혹 증대된다 하여도 그것은 로동자들에게 하등의 리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로임이 올라가는만큼 식료품가격도 또한 등귀할것이므로 로동자들의 로임인상을 위한 투쟁은 헛된 일이라는것이다. 라쌀도 역시 《로임철칙》설을 주장

하면서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 무용하다고 말하였다. 그의 《로임철칙》의 본질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빈궁의 원인이 착취에 있는것이 아니라 인구의 증대에 있으며 그리하여 그것은 어쩔수 없는 영원한 사회적현상이라고 하는데 있다.

이것은 말사스 《인구론》과 같은 반동적인 주장이다. 맑스는 타쌀의 그릇된 견해를 철저히 폭로비판하였으며 특히 《고타강령비판》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우경기회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독자적혁명투쟁을 거부하면서 로동계급의 정치적당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제1국제당의 창건 및 그 성격문제를 둘러싸고 우경기회주의자들이 벌려놓은 론의들에서 뚜렷이 드러났고 그후에도 우경적편향에 빠진 자들에게서 항상 볼수 있는 중요특징의 하나였다.

프루동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정당을 창건하는것은 《유해로운 제의》라고 하면서 제1국제당은 단순히 로동운동에 관한 《연구단체》이며 그의 목적을 《회원의 취직알선, 회원에 대한 신용대부, 회원이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도처에 매점과 국제적인 상점을 여는것,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의 공급》 등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레드유니온주의자들은 제1국제당을 영국로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주는 외국로동자들의 영국에로의 류입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상층로동자들의 협애한 리익을 옹호하면서 선거개혁을 실현하여 의회에 들어가는 길을 개척하는 도구로 되게 하려 하였다.

베른슈타인은 당이 《일면적》인 로동자당으로 된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로 충만된 모든 사람의 당》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로동계급당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해 나섰다.

우경기회주의자들은 당의 조직내에서 규률을 세우며 당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는것을 거부하여나섰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일종의 《토론구락부》 같은 무정형적인 존재로 되게 하려는 주장이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제1국제당이 과학적인 강령과 전술을 가진 국제로동운동의 정치적지도력량으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서 조직된 통일된 력량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또한 제1국제당이 해산된후에는 매개 민족국가들의 범위내에서 이러한 당을 창건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 *

국제로동운동발전의 경험은 《좌》경기회주의 역시 우경기회주의에 못지 않게 로동계급의 해방위업을 저해하는 유해로운 현상이며 맑스주의의 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운동은 그것을 철저히 극복함으로써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고 낡은 사회를 개조하는 력사적 사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좌》경기회주의는 극단한 주관주의와 조급성, 음모적방법과 모험주의, 정치적무정형성과 량면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부인하며 로동계급이 혁명의 주되는 동력이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수의 음모가들, 테로분자들에 의하여 혁명을 할수 있는듯이 주장하였다.

바꾸닌주의자들은 소수 인테리들과 소소유자들의 락후한 계층, 령락된 룸펜프로레타리아트 등이 사회혁명의 동력으로 될수 있는듯이 주장하였다. 와이틀링, 블랑끼 등도 이 문제에서 그릇된 립장에 서있었으며 대중의 혁명적투쟁의 의의를 보지 못하고 혁명의 담당자는 소수 혁명가들의 집단이라고 보았던것이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사명을 제대로 리해하지 못하였고 혁명투쟁에서의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부인해나섰다.

맑스와 엥겔스는 혁명의 주되는 동력이 로동계급이며 자본을 반대하는 그들의 계급투쟁만이 로동계급에게 해방을 가져올수 있다는 맑스주의의 기본명제를 견결히 옹호하였으며 혁명의 동력에 관한 《좌》경기회주의자들의 그릇된 견해가 로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블랑끼에 대하여 그가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 희생적으로 투쟁한 혁명정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가 로동계급이 아니라 소집단의 음모가들에 의거하여 그나마 객관적 정세를 타산함이 없이 《혁명》을 하려고 한데 대하여서는 엄격히 비판하였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은 또한 국가에 대한 비과학적인 견해를 가진데로부터 국가 일반을 적대시하였으며 나아가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거부하였다.

바꾸닌은 《사회적평등》이라는 기만적 구호하에 모든 국가의 즉시적이며 무조건적인 폐절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제거하여야 할 주되는 악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토대한 자본가와 임금로동자들간의 계급적 대립인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였다.

바꾸닌을 비롯한 《좌》경기회주의자들이 국가의 즉시적폐절에 대하여 떠들어댄 본의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려는데 있었던것이다. 바꾸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하에서 새로운 《소수특권계층》과 《피지배계급》이 출현하여 서로 대립하게 된다고 하면서 혁명가가 자본의 권력을 전복하고 새로운 혁명정권을 수립하는것은 용서할수 없는 일이라고 떠벌렸다.

맑스와 엥겔스는 《국가의 폐절이란 사회적변혁이 앞서지 않고는 황당무계한 일인데 자본의 폐절이 바로 그 사회적변혁이며 전체 생산방식의 개조를 내포하는것이다》(맑스엥겔스선집 제2권, 546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정확한 태도가 가지는 결정적의의를 천명하면서 《좌》경기회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의 국가전반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거부가 로동계급의 해방위업에 끼치는 해독성을 폭로하였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의 모든 국가에 대한 거부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역할에 대한 부정과 결부되여있었다.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좌》경기회주의적무정부주의의 립장이 실제에 있어서 혁명을 위하는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모든것을 때려부시자는것이며 로동계급과 모든 피착취대중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것이 아니라 소수음모가들의 독재를 수립하고 질서대신에 혼란을, 《자유》와 《평등》대신에 소수자들의 무제한한 전횡을 허용하는것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폭로하였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은 혁명투쟁의 전략전술적문제에서 여러가지 그릇된 견해들을 내놓았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대중적투쟁을 조직하고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정치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거부하였다.

바꾸닌은 《일반강령》에서 《국가의 파괴》가 최고원칙이며 폭동에 의하여 국가를 파괴할수 있으니만큼 폭동이외의 일체의 정치투쟁이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비조직적이며 자연발생적인 폭동을 부단히 진행한다면 그것은 자연히 현존제도를 뒤집어엎는 총폭동으로 전환될것이며 그것은 곧 온갖 국가를 파괴하는 혁명의 완성으로 될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바꾸닌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주관주의로부터 자본주의하에서는 항상 혁명정세가 조성되여있으며 인민들은 언제나 폭동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에 혁명은 언제 어디서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수 있게 되여있으며 따라서 대중적인 정치투쟁의 조직은 소용없는 일인듯이 주장하였다.. 그는 필요한 순간에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민들속에서 불평과 반란정신을 선동

하는 개별적혁명가들의 선동적활동이면 충분하며 그것에 상응하게 소수혁명가들의 비밀조직이 필요할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좌》경기회주의자들이 대중의 혁명적진출을 조직할 필요성을 거부하고 혁명의 주객관적요인의 고려없이 무모한 폭동을 일삼는것을 혁명의 승리가 아니라 혁명력량에 대한 타격밖에 가져올것이 없는 《정권쟁탈유희》라고 신랄히 규탄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항상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의 대중적투쟁에 의거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조건이 성숙되기까지 온갖 형태의 정치투쟁을 조직하면서 로동계급을 교양훈련하며 그들의 력량을 축적하는 일상적인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엥겔스는 바꾸닌을 비판하면서 《정치를 회피할것을 로동자들에게 설교하는것은 곧 그들을 승려들이나 부르죠아공화주의자들의 품안으로 몰아넣는것으로 된다》(맑스엥겔스선집 제2권, 546페지) 라고 지적하였다.

《좌》경기회주의의 행동강령에서 또하나의 특징으로 되는것은 혁명의 단계를 뛰여넘으려는 그릇된 시도이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은 봉건적전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조건하에서도 혁명발전의 민주주의적단계를 거부하고 당장 사회주의혁명의 구호를 제기하려 하였다.

바꾸닌은 폭력으로 자본주의사회에 죽음을 주면 국가는 자동적으로 파괴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가대신 《모든 사람, 모든 콤뮨, 모든 지방, 모든 민족의 자유로운 공동체》가 즉시로 출현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 황당한것은 그들이 이러한 조건에서 즉시 소비재에 대한 《절대적인 평균분배》에로 이행할것을 부르짖은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관리운영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주지 못하였다. 한때 《좌》경기회주의적 무정부주의자들이 일부 지방에서 저들의 권력을 수립한적이 있었으나 거기에서도 그들의 교리는 결코 실현된적이 없었으며 또 실현될수도 없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민주주의의 전취가 《사회주의에로의 제1보》라고 지적하고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최저강령과 최고강령을 천명하였다. 맑스, 엥겔스는 독일과 기타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성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과업의 수행이 가지는 의의를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단번에 무계급사회로 도약할수 없다는것을 루차 천명하였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는 비록 자기 운동의 자연법칙의 실머리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발전계단을 뛰여넘을수도 없으며 법령에 의하여 그것을 페지할수도 없는것이다》(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495페지).

《좌》경기회주의자들은 또한 폭력투쟁형태만을 제창하면서 합법적가능성을 조직선전사업에 리용할 필요성을 무시하였으며 경제투쟁의 과업을 홀시하였다.

블랑끼주의자들은 오직 소수혁명가들에 의한 무장봉기만으로 낡은 정권을 전복하고 소수지도자에 의하여 장악된 독재정권을 수립하는것을 유일한 투쟁강령으로 삼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온갖 경제적 및 정치적개량을 위한 투쟁이 개량주의에 떨어지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바꾸닌주의자들도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결부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도 돌리지 않았다.

이러한 그릇된 립장은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엄격하게 비판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정치투쟁의 결정적의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것과 경제투쟁을 밀접히 결부시킬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경제투쟁과 개량을 위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준비시킬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우경기회

주의자들이 정치투쟁을 홀시하고 경제투쟁에만 매여달리는것이 유해로운 동시에 《좌》경기회주의자들처럼 경제투쟁과 개량을 위한 투쟁의 의의를 보지 못하는것도 혁명력량의 준비를 위하여 큰 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밝혔다.

* *

맑스와 엥겔스는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우경기회주의자들의 식민지민족문제에 대한 그릇된 립장과 이들에 의한 로동운동내에서의 종파적책동을 반대하는데도 큰 주의를 돌렸다.

맑스와 엥겔스는 항상 피압박민족들의 해방문제를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고찰하였다. 그들은 《타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수 없다》(맑스엥겔스전집 제18권, 509페지), 《다른 민족을 노예화하는 민족은 자기자신의 질쇄를 만드는것이다》(맑스엥겔스전집 제16권, 438페지)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았으며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는것이 로동계급의 국제주의적의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프루동주의자들, 트레드유니온주의자들, 라쌀주의자들과 같은 우경기회주의자들은 부르죠아민족주의적, 사회배외주의적립장에 서서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빈곤과 무권리를 없앨 때까지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해서는 안되며 피압박민족들은 《뒤골방에 온순히 앉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회혁명을 위해서는 민족문제를 부인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떠벌렸다.

프루동주의자들은 뽈스까의 민족적독립문제를 국제당대회의 의정으로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쌀주의자들은 사회배외주의를 로골적으로 제창하면서 반동적프로씨야의 침략정책을 적극 옹호하여나섰다.

《좌》경기회주의자들도 민족문제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으며 아일랜드, 뽈스까 등에서 첨예하게 제기되였던 약소민족들의 해방문제에 대하여 외면하고있었다.

맑스는 프루동주의자들을 비롯한 우경기회주의자들의 립장이 민족적압박을 영구화하려는것이며 피압박민족에 대한 부르죠아지의 민족배외주의적략탈정책을 도와주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규탄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지도하에 제1국제당은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련대성을 명백히 표명하였다. 맑스, 엥겔스의 지도하에 제1국제당은 19세기 60년대 아일랜드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짜리로씨야의 기반에서 해방을 달성하려는 뽈스까인민들의 투쟁에도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제1국제당이 영국로동자들 속에 《아일랜드의 민족적해방이 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 결코 추상적인 정의 및 인정문제가 아니라 그들자신의 사회적해방의 첫째조건으로 된다》(1870년 4월 9일 마리야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는 의식을 침투시켜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구라파뿐만 아니라 동방식민지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하여서도 커다란 주의를 돌렸으며 그것을 적극 지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동방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많은 론설들을 집필하여 동방에 대한 자본주의렬강의 침략을 폭로규탄하였으며 종주국에서의 혁명과 식민지민족해방혁명과의 밀접한 련계를 론증하였다.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맑스와 엥겔스의 투쟁은 동시에 국제로동운동내부에서의 기회주의자들의 분렬책동과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이기도 하였다.

바꾸닌주의자들을 비롯한 종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협소한 종파적목적과 리익을 로동운동의 전체적리익의 우에 올려세우고 《령도권》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무원칙한 행동도 감행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로동운동에 유해로운 종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진행하였다. 제1국제당을 창건한 중요한 목적의 하나도 프루동주의, 바꾸닌주의를 비롯하여 당시 각국에 존재하였던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로동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프루동주의를 비롯한 우경기회주의자들과 특히 바꾸닌을 대표로 하는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제1국제당내에 들어와서도 계속 종파주의적분렬책동을 감행하였다.

바꾸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령도권》을 달성해보려고 《분파의 자유》, 《종파의 유익설》을 주장하면서 저들의 주위에 각종 기회주의의 잔당들, 불순분자들, 계급적탈락분자들을 긁어모았다. 그들은 국제당의 지부들을 맑스, 엥겔스의 영향하에서 떼여내기 위한 책동을 부단히 감행하였으며 실제 적지 않은 지부들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함으로써 제1국제당의 통일적활동을 방해하였다. 특히 그들은 빠리콤뮨이후 소위 《통일》이라는 구호밑에 프루동주의자들, 트레드유니온주의자들, 라쌀주의자들을 규합하여 맑스주의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제1국제당내부에 위기를 조성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기회주의자들의 종파적활동, 특히는 바꾸닌주의자들의 종파적분렬책동을 폭로규탄하였다. 맑스는 바꾸닌주의자들이 《공격의 예봉은 현존하는 정부에 돌리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리와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혁명가들에게 돌리고있다》(맑스엥겔스전집 제18권, 329폐지)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종파주의적행동이 극심해짐에 따라 맑스와 엥겔스는 결국 그들을 제1국제당대렬내에서 축출하지 않을수 없었다.

* *

《좌》우경기회주의조류들은 각각 자체의 특성들을 가지는 동시에 서로 상통하며 교차되여있다. 바꾸닌의 《좌경》적인 기회주의에는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적대관계를 모호하게 하며 계급투쟁을 반대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는 사상들이 포함되여있다. 반면에 우경기회주의자들의 그릇된 립장에도 《좌경》적인 요소들이 섞여있다. 프루동의 사상에 적지 않게 무정부주의적요소들이 포함되여있으며, 바꾸닌주의가 바로 프루동의 무정부주의사상을 계승한 사실이 이것을 말해준다.

력사적사실은 《좌경》이란 《극좌적》언사로써 자기정체를 가리고있으나 그 기회주의적본질은 우경기회주의와 다름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우익과 〈극좌익〉은 실제에 있어서는 쌍동이며 따라서 기회주의적립장에 서있는데 단 우익은 자기의 기회주의를 언제나 은폐하는것은 아니나 좌익은 자기의 기회주의를 〈혁명〉적언사로써 언제나 은폐하고있다는 차이가 그들사이에 있다는 점이다》(쓰딸린저작집 제8권, 11~12폐지).

《좌》경 및 우경기회주의조류들은 로동계급을 기만오도하기 위하여 자체를 교활하게 분식하며, 맑스주의에 의하여 그 본질이 폭로되는데 따라 더욱 교묘하게 자체를 가장하여나선다. 기회주의자들은 맑스주의가 국제로동운동내에서 승리한 후에는 더욱더 맑스주의적 《언사》들을 써가면서 저들의 주장을 그럴듯하게 꾸며댔으며 지어는 맑스주의의 가면하에 맑스주의를 수정해나섰다.

그리하여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맑스와 엥겔스의 투쟁은 그들의 전 활동기간에 걸쳐 진행되였으며 그것은 더욱 교활하게 가장한 적대적사상과의 복잡한 투쟁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모든 반맑스주의적기회주의조류들을 성과적으로 폭로분쇄했으며 과학적공산주의의 사상리론적 순결성을 끝끝내 고수하였다.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운동의 사상

리론적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그들과의 통일행동을 거부하지 않았다.

맑스와 엥겔스는, 제1국제당 조직당시 아직 사상리론적으로 미숙하였고 《좌》우경기회주의를 범하고있던 일부 기회주의류파들을 국제당조직내에 포섭하고 그들과 공동행동을 취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사상리론적인 영향을 주어 점차 극복해나가는 방침을 실시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로동운동 발전의 리익에 부합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단결과 비판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고 기회주의조류들이 맑스주의의 원칙적립장에 정면으로 적대하고 로동운동에 실질적인 해독을 끼칠 때에는 이들과 조직적으로도 명백히 계선을 가르는 립장을 취하였다. 제1국제당내에서 바꾸닌주의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배반하고 해독적인 종파적 활동에 전락하였을 때 맑스와 엥겔스가 그들을 국제당으로부터 단호히 축출한 것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어느 때나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의 견지에 확고히 섰으며 로동계급의 오늘의 리익과 함께 전망적인 리익, 부분적인 리익과 함께 전반적인 리익, 민족적인 리익과 함께 국제로동운동의 리익을 옳게 옹호하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로동계급의 진정한 리익,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는 원칙적인 립장은 맑스와 엥겔스로 하여금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옳고 그른것을 식별할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가질수 있게 하였으며 로동운동에 해를 끼치는 모든 편향들과 철저히 투쟁할수 있게 하였다.

부르죠아지는 로동운동을 저지하고 약화시키며 로동자들을 혁명투쟁으로부터 떼여내기 위하여 교활한 기만책동을 적용하였다. 그들은 가혹한 탄압조치에 주로 의거하는 동시에 일정한 조건에서는 부차적인 《양보》정책도 실시하였다. 프랑스에서 1848년 2월혁명후 집권한 부르죠아지는 림시정부에 로동자《대표》를 입각시키는 기만술책을 적용하였다. 이때 무이 블랑일파는 림시정부에 참가하고 그 방조로 생산협동조합을 발전시킴으로써 로동계급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는듯이 주장해나섰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부르죠아지가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자《대표》를 정부에 인입하는 술책을 적용한 이때 즉시로 그 기만적성격을 폭로하고 부르죠아정부에 대한 협조정책의 반역적성격을 지적하였다.

구라파에서 처음으로 보통선거권이 전취된 때에도 로동운동내부에서 일정한 동요가 발생하였다. 구라파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독일에서는 1866년에, 영국에서는 1867년에, 프랑스에서는 1868년에 각각 보통선거권을 쟁취할수 있었다. 이 때 기회주의자들은 그것을 리용하여 의회적방법으로 로동계급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는듯이 주장해나섰다. 그러나 맑스주의창시자들은 보통선거권과 의회제도를 로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리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환상적태도를 배격하고 로동계급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대중적혁명투쟁의 길을 고수하였다.

전쟁은 로동운동에 복잡한 정세를 조성한다. 1870년의 프로씨아—프랑스전쟁당시 량국부르죠아지들은 저들의 협애한 계급적리익을 위한 이 전쟁을 그어떤 민족적리익을 위한 전쟁인듯이 묘사하면서 로동계급을 기만하여 그들을 혁명투쟁에서 떼여내고 저들의 전쟁수행에 리용하려 하였다. 그리고 기회주의자들, 특히 독일의 라쌀주의자들은 자기 나라를 《방위》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부르죠아지의 전쟁정책에 협력해나섰다. 이때 맑스와 엥겔스는 프로씨아—프랑스전쟁의 계급적성격을 폭로하고 량국로동계급이 각취자들의 리익을 위

하여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하며 침략적인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맑스, 엥겔스가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좌》우경기회주의의 본질을 명확히 폭로할수 있은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리익에 대한 원칙적인 충실성과 함께 사회발전과 로동계급의 해방투쟁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에 확고히 의거함으로써 가능하였던것이다. 맑스와 엥겔스에 의한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의 작성, 발전은 로동계급에게 《좌》우경기회주의와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리론적무기를 제공하였으며 그 어떤 교활한 형태의 기회주의사조도 능히 폭로극복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주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각종 기회주의조류들을 리론적으로 분쇄하고 극복하기 위한 과학리론사업에 항상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맑스와 엥겔스의 불후의 로작들인 《헤겔법철학비판》, 《독일이데올로기》,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철학의 빈곤》 그리고 《공산당선언》, 《고타강령비판》, 《자본론》, 《반듀링론》 등은 맑스주의리론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회주의조류들을 리론적으로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필되였던것이다.

맑스주의는 《좌》우경기회주의와의 견결한 투쟁과정에서 더욱 발전되고 세련되였다. 《좌》우경기회주의와의 투쟁행정은 맑스주의의 확립과 가일층의 발전, 국제로동운동내에서의 그 영향력의 증대와 전면적인 승리의 과정이였다.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은 어느때나 각종 사기적《리론》, 위선적구호들을 들고나왔으나 로동계급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고 과학적공산주의의 혁명적원칙들에 의거함으로써 맑스와 엥겔스는 항상 기회주의자들의 교활한 위장을 벗겨버리고 그 본질을 낱낱이 폭로할수 있었던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의 온갖 기회주의조류들을 근본적으로 폭로비판함으로써 그들이 돌아간 후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좌》우경기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쌓았으며 귀중한 교훈들을 남기였다.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맑스와 엥겔스의 빛나는 투쟁업적은 오늘까지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온갖 기회주의조류들을 반대하는 위력한 리론적무기와 방법을 가르쳐주며 맑스—레닌주의의 정당성과 자기 사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더욱 큰 신심을 안겨준다.

근 로 자 제8호 (루계 29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1966년 8월 15일 발행· 1966년 8월 20일

ㄱ—63275 값 50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 호

평양 근로자사 1966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9 호 (295)

차 례

—자 료—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의 정치—도덕적통일은 사회주의 사회에 고유한 특성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적추동력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적대계급으로 분렬되고 대립되여있었던 과거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성원들의 통일이란 있을수 없었다. 그것은 사적소유, 리해관계의 상치와 계급적대립이 사람들을 단합할수 없게 만들었기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진정한 통일과 화목의 길을 열어준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정치—도덕적통일은 사회경제제도에 기초한 객관적필연성이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 사회적사회주의적소유의 전면적지배는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대립을 청산하였으며 전체인민들의 사회적처지와 목적, 리해관계의 공통성을 조건지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인테리들이 다같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우의적계급, 계층으로 되고있다. 사람들은 동일한 목적과 공동의 번영을 지향하여 통일단결된 힘으로 일해나가고있다.

사회—경제적, 계급적관계에서의 리해의 공통성은 전사회가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객관적전제이다.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는 인민대중의 정치—도덕적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하에 그의 조직사상적사업에 의하여 실현된다. 당은 대중을 교양하고 결속시키는 향도력이다.

우리 당은 항상 사회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 심중한 주목을 돌려왔다.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확고히 관철시키면서 전사회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다. 이 방침은 반혁명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시키는것이다. 그리하여 전사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고 새사회건설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 인민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자는것이다.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은 우리 인민들이 과거 오래동안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생활하였고 8.15해방후에는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을 겪었으며 국제반동의 원흉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남북이 분렬되여있는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정치적구성이 복잡한 환경에서 광범한 혁명력량을 결속시키는데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기본군중의 핵심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면서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꾸준히 교양개조하는 원칙에서 계급교양을 위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을 부단히 심화시켜왔다. 특히 교양과 실천을 결합하고 인간개조를 대중자신의 일로 전환시킨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대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데 있어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당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

조가 완성된 후에 있어서도 적대적요소와의 투쟁, 계급투쟁에 응당한 주의를 돌렸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그것은 우선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표현된다. 우리는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며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방해하는 반혁명적대분자들, 간첩파괴암해분자들의 음모책동을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와의 투쟁도 계급투쟁의 한형태로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공동의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는 근로자들의 정치—도덕적통일을 더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이 사업을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과는 달리 당의 령도밑에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어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시키고있다.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들의 정치사상의식과 도덕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로동계급은 항상 우리 사회의 령도계급으로서 자기들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왔으며 그들의 선봉적역할은 날로 더 높아가고있다. 농민과 인테리들도 로동계급의 동맹자로서 똑같이 새사회의 주인공답게 일하여왔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들의 열성과 재능을 훌륭히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당과 인민대중, 인민대중 호상간에 공고한 통일단결이 이룩되였다. 우리 인민들은 한결같이 당의 정책을 받들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그것의 관철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다.

이리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과 협조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단결은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 기간 걸어온 혁명의 간고한 로정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중에서 가장 귀중한것의 하나이다.

경험은 사회의 통일단결이 우리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정치적통일과 단결은 북반부에서의 새생활의 건설을 위한 결정적담보일뿐 아니라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의 하나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43페지).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단결은 우선 당의 령도, 당의 로선과 정책이 원만히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우리 사회의 통일단결은 인민대중 호상간의 통일인 동시에 바로 당과 대중의 통일이다. 우리 사회의 통일단결이 이룩되는 행정은 전사회에 당적사상체계가 확립되는 행정이였으며 당의 령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는 행정이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정책을 자기들의 생활적리해관계의 표현으로 보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어떠한 애로와 난관이 있어도 뚫고 나갈 혁명적각오로 충만되여있다. 우리사회의 굳건한 통일은 당이 제기하는 모든 정책이 성과있게 실현되여 산 물질적힘으로 전환되게 하였다.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은 또

한 모든 사업에서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합치여 무궁한 창조력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과거사회에서 사람들간의 반목과 질시, 적대적경쟁이 사회적력량의 분산을 가져왔고 지혜와 창발성을 압살하는 작용을 놀았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통일로 하여 이러한 현상이 근절될수 있게 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한사람을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원칙이 지배하며 사람들이 서로 돕고 보살피는 사회적기풍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사회의 통일은 대중들 호상간의 동지적협조와 방조를 강화하면서 긍정적인것들을 서로 본받게 함으로써 혁명실천에서 창발성, 헌신성을 더욱 높이 발양케 하는 역할을 논다. 선진적인것, 긍정적인것들은 사회의 지지를 받고 일반화되며 사회발전에 장애로 되는 낡은것, 보수적인것들은 대중의 힘에 의하여 극복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인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대중의 단합된 력량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전후 재더미우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우리의 비약적전진,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기저에도 우리 인민의 위대한 통일단결의 힘이 놓여있다. 당의 정책이라면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미풍이 우리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통일은 이미 우리 사회발전, 우리 혁명발전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혁명은 전진하며 사회는 발전하면서 부단히 새로운 문제와 더욱 무거운 과업을 제기한다. 우리는 달성된 성과에 만족할수 없으며 머물러있을수 없다. 새로운 전진, 혁명과 건설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발전의 추동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현단계는 우리 사회의 통일과 단결을 더한층 공고히 하며 심화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보다 급속히 추진시켜야 할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오늘 우리앞에 제기되고있는 당면한 혁명과업은 이미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속 줄기차게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미 마련된 경제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평화적인 경제건설도 다그쳐야 하며 국방건설도 유감없이 해야 한다.

이 과업은 이미 이룩된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을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게 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보다 힘찬 정치적 및 로력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우리는 또한 남반부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혁명위업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통일단결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완성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우리 당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 *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을 보다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사람들의 정치—사상적단결을 일층 공고히 하면서 그들이 도덕—의리적으로, 동지적으로 더욱 긴밀하게 단합되도록 하는것이다.

인민들의 정치—사상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사회의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는데서 선차적인 의의를 가진다. 정치—사상적결합은 사회의 통일단결의 골격이며 출발점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단결의 기초는 무엇인가? 단결의 기초는 당에 대한 충실성, 당정책에 대한 충실성이다»(«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126페지).

혁명발전의 순탄한 시기에는 물론, 그 어떤 어려운 시기에도 동요함이 없이 일편단심 당을 따라나가며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바칠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은 전체인민을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는 길이다.

해방후 20여년간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당의 령도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체험하여왔으며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되여왔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혁명적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였으며 자기들의 운명을 당에 의탁하고 어느때나 당을 따라 나갈 각오로 충만되여있다.

혁명의 전진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계속심화시키고 그들의 의식성을 부단히 제고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관철의 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되도록할것을 요구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대중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계속 심화시키면서 전사회를 혁명화하며 전체인민을 로동계급화하는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이것은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전체인민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사상, 문화혁명의 추진에 의하여 해결되는 력사적과업이다. 이것은 일체 낡은 사상잔재의 극복을 요구하며 결코 짧은 기간내에 일거에 해결될수 없다. 우리는 꾸준한 사상교양사업에 의하여 전사회의 혁명화의 과업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사람들의 공산주의적의식성이 제고되고 그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공고화되는 행정에 사람들의 도덕—의리적결합도 또한 강화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사상, 이것은 집단주의적이며 인도주의적인것으로서 특징지어진다. 적대와 분열, 착취와 억압, 약육강식을 본성으로 하는 일체 낡은 사회의 청산과 전인류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무엇보다도 인간, 근로하는 인간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며 공동의 투쟁으로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하는 집단주의적정신에서 출발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사상, 여기로부터는 진실로 아름답고 고상한 집단주의적도덕과 참된 인간성이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회주의제도하에 살면서 공산주의사상에 의하여 통일단결될 때 우리는 또한 도덕—의리적으로, 인간적으로도 긴밀하게 단합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의 물질적생활조건과 정치—사상적견해는 그들의 도덕, 정서생활 기타 일체 정신문화생활을 규정하는 요인이다.

오늘 우리 사회의 통일단결을 더한층

공고히 함에 있어서 전체 군중의 사상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그들이 도덕—의리적, 인간적인 면에서 더욱 밀접히 단합되게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이 도덕—의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더욱더 화목하고 친숙해진다면 우리 사회의 통일단결은 더욱 불패의것으로 강화발전될것이다.

사람들의 도덕적감정이나 정서는 사회생활에서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도덕생활, 정서생활은 인간생활의 홀시할수 없는 일면이다. 오늘 우리들속에서는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사상에 적응한 도덕적감정과 정서가 발생발전하고있다. 사람들의 생활의 도덕적, 정서적측면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는것은 사람들의 동지적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의 통일을 공고히 하는데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사람들사이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로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자면 사업과 생활에서 계급적, 사상적립장의 유일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그것이 도덕적감정과 의리로, 인간성과 동지우애심으로 안받침되게 하여야 한다.

동일한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동지들 호상간의 관계는 행정적, 실무적결합에 그칠수 없으며 동시에 밀접한 인간적, 도덕—의리적결합으로도 되여야 한다.

15개성상 가장 어려운 조건하에서 일제와 싸워 이긴 항일빨찌산들의 동지적단결, 이는 확고한 정치—사상적결합인 동시에 도덕—의리적인 결합이였다. 그럼으로 하여 항일빨찌산들은 어느때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강철의 대오로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었다.

우리는 항일빨찌산들의 이 고귀한 전통을 이어 오늘 우리 사회를 더욱 굳게 결속시키는 당의 방침을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인민대중이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될 때 우리 사회의 통일되고 단합된 력량은 그 어떤 혁명과업도 반드시 승리적으로 해결하고야 말것이다.

＊ ＊

전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단결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 일군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들은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동시에 대중을 당주위에 결속시켜야 한다.

일군들이 대중속에서의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것은 전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일군들은 이미 이룩된 정치—도덕적통일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되며 그것이 당과 인민앞에 제기된 혁명과업들을 해결해나가는데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를 깊이 리해하고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전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 이 문제의 본질과 그가 가지는 의의 등을 깊이 리해하고 이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능동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일군들은 대중을 실제로 더 잘 묶어세울줄 아는 사업능력을 충분히 소유하여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당적책임성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히 할수 있는 명도예술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일군들이 사람들을 더 잘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부단한 학습으로써 당정책과 맑스—레닌주의원리에 정통하는 동시에 공산주의적인 도덕적수양, 군중의 심리동태, 정서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 예술적소양 등을 가지는것이 필요하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제일 도덕을 잘 지키며 인민의 아름다운 풍습을 존중히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일군들은 사상정치적수준이 높아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고상한 도덕적수양이 있어야 한다. 당일군들은 사람과 접촉하는 태도로부터 일체 행동에 이르기까지 혁명적도덕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사상정치적수준이 높고 당사업원칙들을 잘 알고 고상한 도덕적수양이 있어야 비로소 능숙한 당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선집 제6권, 303페지).

전사회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군중관점을 확립하며 인민적인 사업작풍, 사업방법을 체득하는것이다. 사실상 인민대중을 통일단결시키는것은 그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사업과 생활을 같이하고있는 일군들, 특히 초급일군들의 군중관점, 사업작풍, 사업방법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일군들은 군중을 대담하게 믿고 사랑하면서 그들과의 사업을 폭넓고 도량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우선 로동계급을 비롯한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이 모든 부문에서 계속 핵심적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이끌어주는것이 요구된다. 기본군중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통일단결을 심화시킴에 있어서도 역시 핵심적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핵심들이 튼튼하고 그들자신이 통일되여야만 사람들을 더 잘 묶어세울수 있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 군중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우는것이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아량있게 포섭하며 실지 사업에 적극 인입하여 의식적으로 일을 맡기고 실천을 통하여 교양하는것이다. 사회정치생활이 각이한 사람들에 대하여 대담하게 믿어주고 거둔 성과물을 정당하게 평가해주며 그들의 사회정치적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창조적열의를 발휘하도록 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이 옳은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소유하는것은 군중을 통일단결시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풍부한 인간성, 문화성이 요구되며 대중과 어울려 그들을 설복하고 납득시킬줄 아는것이 요구된다.

일군들은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주며 사업과 생활의 량측면을 잘 결합시켜보면서 매 사람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세심히 관심하고 배려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일에서 성수를 내게 되며 상하간에도 혁명동지로서의 결합을 더 잘 이룩할수 있다.

원칙성과 로숙한 사업방법을 잘 결합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생활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군들은 당적원칙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사람들의 각이한 준비정도와 개성을 고려하여 사물을 능숙하게 처리하며

넓은 도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상하부간, 동지간에 서로 소통하고 웃사람들은 아래사람들을 더 잘, 더 깊이 리해하게 되고 아래사람들은 웃사람을 따르면서 서로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굳건히 단결되게 된다. 이것은 모든 일군들이 군중들을 고무추동하고 사람들간에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활을 들끓게 하며 전사회의 화목을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된다.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단결에 방해로 되는것은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이다. 만약 일군들이 군중앞에서 틀을 차리거나 사람들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며 제기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군중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해버린다면 대중을 당주위에 더 잘 묶어세울수 없게 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당은 일군들 속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적사업작풍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에 계속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있다.

전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정확히 사용하며 긍정을 통한 감화교양을 옳게 진행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의 단결에는 원칙이 있는것만큼 비원칙적이고 비도덕적인 현상들은 응당 비판되고 극복되여야 한다.

집단내에서의 비판은 원칙적이여야 하는 동시에 교양과 단결을 위한것이여야 한다. 따라서 비판은 어데까지나 단결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여야 하며 동지적결합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들 속에서 긍정을 통한 감화교양을 옳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긍정교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높은 자각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키게 하며 우리 사회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논다.

이와 같이 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서의 조직정치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할 때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단결은 더욱 불패의것으로 될것이다. 이것은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임무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는 위력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계획화사업

리　재　영

오늘 우리 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 4기 제 12차 및 제 13차전원회의의 정신을 받들고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수준을 급속히 높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인민경제의 계획화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고리로된다.

그러므로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간부들과 관리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된다.

인민경제의 계획화는 사회주의제도가 열어준 생산력발전의 가능성들을 실현하는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창조적적극성과 동지적 협조, 사회적생산의 합리적조직과 균형적인 발전, 자본주의에 고유한 사회적 랑비현상의 성과적인 극복, 생산과 분배간, 축적과 소비간의 련계의 합목적적인 실현 등을 보장할수 있는 넓은 가능성들을 열어준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자본주의에 비할바 없는 생산력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할수 있게 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은 저절로 발양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당과 사회주의국가의 계획적지도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당과 국가는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사회경제발전법칙들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면서 자체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새사회건설을 계획적으로 지도한다.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는 사회주의계획화는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계획적지도를 실현하는 기본형태로 된다. 계획화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와 함께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을 비롯한 사회주의하에서 작용하는 모든 경제법칙들의 요구들도 타산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사회적생산과정의 모든 단위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활동은 하나의 길, 하나의 목표에로 통일되며 생산수단 및 로력자원과 생산물은 인민경제 각부문들에 균형적으로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간의 합리적인 련계가 설정되며 전반적으로 인민경제의 균형과 속도간의 호상관계가 해결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계획화사업이 모든 사업의 출발점으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나라의 일체 경제생활이 계획에 의하여 진행된다. 모든 물자와 자원이 계획적으로 리용되며 모든 공장, 기업

소들이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계획에 의하여 일한다>.

계획화사업은 나라전반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림에 있어서나 인민경제의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관리운영수준을 높임에 있어서나 항상 선차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업이다.

계획화사업이 잘되여야 전국적규모에서 국토와 부원이 전망성 있게, 더 유용하게 개발리용될수 있으며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인민생활의 부단한 향상이 보장될수 있다.

또한 계획화사업이 잘되여야 매개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설비와 원료, 자재, 로력, 자금 등 모든 생산자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되고 생산의 정상화와 그 체계적인 장성이 보장될수 있다.

실천적경험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생산조직과 지도, 기술 및 설비관리, 물자와 재정관리, 로력조직과 로력관리, 로동보호와 후방사업 등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자면 우선 계획화사업부터 잘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계획, 동원적이며 적극적인 계획, 모든 보장조건들이 잘 맞물린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는 질서정연한 관리운영에 대해서나 사회적생산의 부단한 장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발전에서 계획화사업이 차지하는 중대한 위치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부터 전당이 이에 주목할것을 강조하여왔으며 특히 최근년간에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당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체계를 수립하고 이 사업에서 군중로선을 관철시키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또한 당은 매개 부문, 단위들에서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부단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과 방도들을 명백히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지도하였다.

당의 적극적인 대책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인민경제에서의 계획화사업은 부단히 개선되여왔다.

사회주의건설의 가일층의 심화발전은 매개 부문, 매개 생산단위들에서 계획화사업을 더 급속히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금속공업부문의 실정만 놓고 보아도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오늘 전반적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 기본문제로 되고있다.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적극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국가계획실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바로 여기에 금속공업부문이 담당한 혁명적임무를 정확히 실행하는 담보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간부들과 관리일군들은 우선 계획화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추켜세우는데 달라붙어야 할것이다.

* *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계획화의 방향을 규정해주는 확고한 지침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으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된 모든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한다. 당은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인민경제 각부문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일련의 원칙적요구들을 제시한다.

계획화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무기이다. 우리의 인민경제계획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대중의 생활향상을 위한 계획이다.

따라서 계획화사업에서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정확히 구현되여야 하며 인민경제계획의 하나하나의 지표와 수자에 당의 의도가 철저히 반영되여야 한다.

특히 당은 최근년간 종업원 1인당생산액을 2배로 높일데 대한 문제,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내부예비를 적극적으로 동원할데 대한 문제, 기본건설에서 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중심고리에 집중할데 대한 문제, 《섬멸전》의 방법으로 걸린문제를 한고리씩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원료, 연료, 자재예비를 확보하고 설비관리를 잘하여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 로동보호와 안전,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며 수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 질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등 많은 과업들을 제기하고있다. 이러한 과업들은 우리의 매 경제부문들, 기업소들이 그 어느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두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매개 부문들에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들은 통제수자에 반영된다. 통제수자에 제시된 지표들은 전국가적견지에서 매개 부문들이 담당수행하여야 할 국가적요구이다. 그러므로 통제수자의 지표들은 반드시 보장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초과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이 이런 립장에 튼튼히 서서 사업하여야 전반적인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다.

이와 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확고히 립각하는것은 계획화의 생명이다. 이것은 계획화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부문간, 기업소간, 기술공정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계획의 구체적지표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규정하는 전과정에서 관철되여야 할 요구이다.

계획화사업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균형을 옳게 설정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매개 부문, 매개 기업소, 매개 기술공정간의 균형을 맞추는데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경제가 보장하여야 할 총적인 균형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기본로선에 명백히 제시되고있다.

당은 이 로선을 관철시키면서 매시기 인민경제계획을 편성함에 있어서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공업과 농업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며 원료, 연료생산부문과 동력부문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채취공업과 가공공업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또한 당은 인민경제 각부문들의 부문내 균형과 공장, 기업소의 기술공정상 균형까지도 구체적으로 맞물릴데 대하여 강조하여왔다.

인민경제의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생산공정에 대한 해부학적검토를 잘하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공정간의 적극적인 균형을 실현하는것이다.

오늘 당은 기본건설을 조직함에 있어서나 공장, 기업소의 생산공정들에 살을 붙임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 약한 고리, 선차적고리에 투자를 집중하여 국가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것을 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만일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공정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검토가 없이 기본건설을 진행한다면 선차적으로 보강보충하여야 할 공정은 놓치면서 력량을 분산시키고 국가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정이 잘 갖추어진 조선에서도 운수,

동력, 용수, 원료공급, 제품처리 등과 같은 고리들이 걸려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최근 황해제철소를 비롯한 일련의 공장, 광산, 기업소들에 대한 해부학적분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이 강조하고있는 이 문제가 계획화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절실히 체험하였다.

인민경제의 균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매개 제품의 생산을 인민경제적수요에 엄격히 립각하여 계획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 각부문들간의 균형을 잘 맞물리자면 우선 품종과 규격이 다종다양한 제품들과 원료, 연료, 자재, 부속품들의 수요를 세밀하게 연구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 사업이 없이 계획을 세울 때 계획실행과정에서 일부 제품이 체화, 결품되는 현상이 나올수 있다. 또한 그것은 생산하기 쉽고 금액이 높은 일부 제품의 생산에 치우치고 세소품종의 생산에 주의를 적게 돌리는 현상을 낳게 하는 원인의 하나로도 된다.

제품의 수요를 잘 타산하고 그에 엄격히 립각하여 계획을 세워야만 우리는 생산의 균형성을 부단히 유지할수 있으며 인민생활의 향상도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은 계획화사업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크게 주목을 돌리고있다.

인민경제계획은 전국가적범위에서나 매개 부문, 기업소 및 그 내부단위의 범위에서나를 막론하고 생산의 제요인들 즉 로력, 설비, 원료, 자재와 자금상태를 상세히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세워야 한다.

객관적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없이 세워진 계획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계획이 아니다. 인민경제계획은 주먹구구식 사업방법으로나 또한 주관적욕망만으로는 작성할수 없다.

생산의 모든 요인들 지어는 사람들의 의식상태까지도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세운 계획이야말로 옳은 계획으로 될수 있다. 만일 기업소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이 없이 계획수자를 내려보낸다면 주관주의를 범하게 된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수자를 억지로 맞추는것과 같은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낳게 한다.

따라서 계획화사업에서의 과학성의 보장은 계획을 작성할 때에나 그것을 시달할 때에나 항상 기업소들의 구체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사업을 선결조건으로 한다.

또한 계획화사업에서의 과학성은 현실의 발전을 무시하는 소극성, 보수주의를 극복하는 투쟁을 전제로 한다. 생산과 기술의 부단한 발전은 생산발전의 새로운 잠재력들을 낳는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동원할수 있는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는것은 계획화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일군들이 될수록 계획과제를 《눅게》 받아 가지고 일을 쉽게 하려는 안일한 사업태도도 역시 주관주의의 표현으로 된다. 이것은 특히 공장, 기업소 등 밑의 일군들 속에서 나타날수 있다.

우리 당은 계획화사업에서 주관주의의 편향을 엄격히 경계하고 모든 일군들이 객관적립장—당적, 국가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데 대하여 누차 강조하였다. 바로 계획화에서 일원화체계를 확립한 중요목적도 이것을 보장하는데 있는것이다.

계획화사업에서 우리 당이 제기하고 있는 원칙적요구의 다른 하나는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는 계획화사업에서 군중로선을 관철시킴으로써 이 사업을 수공업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집체적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으며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계획화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는 담보도 군중로선을 관철시키는데 있다.

생산의 구체적실정을 제일 잘 아는 생산자대중을 인입하여야만 로력, 설비, 자재 등에 대한 타산을 정확히 할수 있으며 창의고안, 합리화안, 절약안들의 광범한 도입에 근거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다.

또한 계획은 책임일군들이 주동이 되여 생산조직과 지도, 로력관리, 기술 및 설비관리, 업무활동, 재정관리, 후방공급 등 각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적극 참가시킬 때에만 정확히 세울수 있다. 계획화사업은 생산과 관리의 모든 측면들과 관련되여있는것만큼 몇몇 계획부서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진행할수 없다.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이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생산자대중의것으로 전환시킬 때라야만 계획화는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될수 있다.

우리 당은 이상과 같이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함께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도들도 제시하고있다.

❋ ❋

당이 제시한 원칙적요구들을 구현함에 있어서 오늘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세우는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모든것이 계획에 의하여 생산되고 소비되는것만큼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리용되는 모든것이 계획화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 특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매개 생산단위들에서 생산되는 품종이 많아지고 그 경영활동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이러한 요구는 더욱더 절박하여진다.

물론 계획화실천에서 크고 중요한 지표들에 일차적주목을 돌려야 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러나 몇가지 《큰 지표》만을 계획화하고 모든 제품생산을 품종별, 재질별, 규격별로 완전히 계획화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계획화는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또한 경영용 자재, 설비의 부속품 같은 보장조건을 빠짐없이 계획화하지 않거나 설계없이 기본건설을 계획화하고 세부랍사없이 갱저실을 계획화한다면 결국 《큰 지표》들의 수행도 보장할수 없을것이다.

실천적경험은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생산의 모든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모든 생산지표들을 품종별, 재질별, 규격별로 세밀히 계획화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들을 더욱 잘 실천함으로써 생산과 관리에서 온갖 우연적요인들의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의 정상화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계획화사업에서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작성을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들이 준비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은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계산되고 타산된 전국가생활의 리정표이다. 여기에서는 일체 추상적인 《예측》이나 짐작이 용납될수 없다.

계획에 예견되는 하나하나의 지표들은 모두 과학적인 기술기준화방법, 경험통계적방법, 그리고 예리한 비판적검토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따져진 수천수백의 기초자료에 튼튼히 발붙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들을 질서정연하게 기록하고 검증, 확인

하며 호상 대조하는 사업 그리고 그 지표들의 동태에 대한 체계적이며 정상적인 분석사업을 진행하는것은 계획화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지금 기술경제적지표들의 등록, 매지표들의 동태분석에 대한 사업분공이 잘되여있지 않는데서 응당 체계적으로 분석연구되고 계산통제되여야 할 일부 지표들이 도외시되는 례가 없지 않다. 례컨대 제철소들에서의 철종합실수률이라든가 마그네샤크링카공장의 규산분의 동태라든가, 광산들의 광석채취률 등과 같은 중요한 지표들이 계산과 통제에서 소홀히 취급되고있다. 이것은 과학적인 계획화사업을 장애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성, 국에서부터 공장, 기업소 그리고 기업소내의 직장, 작업반에 이르기까지 계획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들의 등록, 분석사업체계를 잘 세우고 모든 지표들을 과학적으로 조사장악하고 연구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진행함이 없이는 과학적인 계획작성사업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항상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계획화의 기초자료들을 분석하며 계획지표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지난기간의 실적에 대한 비판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다. 이것은 계획의 동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기간의 실적은 새로운 시기의 계획작성을 위한 기초로 된다. 특히 지난시기에 달성한 각종 기술경제적기준지표들은 새로운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분석되여야 할 기초적자료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시기의 기술경제적기준지표들을 무비판적으로 대하고 그것을 그대로 새로운 계획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기간의 실적을 당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비판적으로 분석해본다면 거기에서는 많은 부족점들과 약점들을 찾을수 있는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난기간에 달성한 선진적인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이 발전하고 일군들의 사업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그것을 초과할수 있는 방도들이 얼마든지 나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비판적분석은 생산에 숨어있는 예비들을 적발동원하고 생산의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기 위한 근본적조건으로 된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지난시기의 기술경제적지표들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계획을 작성한다면 그때에는 생산의 장성을 로력의 절대적인 증가, 추가적인 기본건설자금의 투하에 의해서만 달성할수 있게 될것이며 결국에는 원료, 연료, 자재의 소비기준의 초과, 원가의 제고, 1인당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올수도 있게 될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과 모순되는 현상이다.

우리는 모든 단위에서 지난기간의 실적에 어떤 비경제적요소들이 있는가, 어떤 기술적 약점들이 있는가, 사업조직상 빈틈은 없는가 등을 당적립장에서 검토하고 새로운 계획기간에 그것을 어느정도로 시정할 가망이 있는가를 엄밀하게 따지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계획작성사업의 출발점으로 되여야 한다.

계획화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계획지표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질적지표들을 선차적으로 규정짓고 그에 기초하여 량적지표들을 계획화하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각종 질적지표들은 량적지표들을 규정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로력의 배치기준과 로동정량, 1인당생산량과 생산액, 설비능력, 설비의 보수주기와 부속품들의 수명, 물자의 소비기준, 각종

식수률, 연료의 연소률, 공업로의 열효률 등을 비롯한 질적지표들은 제품의 생산량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된다. 례컨대 강철생산량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의 보수주기, 보수기간, 제강시간, 회당출강량, 원료 전력연료의 소비기준, 지시강종 등과 기타 모든 질적지표들을 먼저 타산해야 한다. 만일 강철생산량을 먼저 규정해놓고 그에 맞추어 이러한 질적지표들을 《역산》의 방법으로 도출해낸다면 과학적인 계획을 세울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지금 생산계획일면에 치중하면서 기술지표들과 로동계획, 원가, 재정계획, 공무동력계획, 로동보호계획, 후방공급계획 등의 정확한 작성에 주의를 덜돌리는것이 우리의 중요한 결함의 하나로 되고있다.

우리는 반드시 량적지표와 질적지표를 동시에 작성하되 질적지표들에 확고히 기초하여 량적지표들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과학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표들간의 호상련관도 더 명백히 드러나게 되여 계획지표들간의 모순을 방지할수 있으며 또한 내재하고 있는 많은 예비들을 적발동원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확한 기초자료들을 비판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분석연구한 기초우에서 모든 지표들과 수자들이 과학적으로 맞물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우리는 매개 부문, 매개 공장, 기업소의 관리운영사업을 옳게 진행할수 있으며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할수 있다.

*　　*

계획화사업을 현실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업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계획화사업에서도 대안체계의 본질적요구를 철저히 관철시키는데 문제해결의 결정적고리가 있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계획화사업에는 모든 단위들과 매개 관리부서들 그리고 모든 간부들과 기술자들이 참가하게 되는것만큼 우선 이 사업에서의 각급단위와 부서들의 직능을 정확히 규정하고 사업한계를 명백히 설정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을 지도하는 책임일군들을 중심으로 모든 일군들이 움직이게 하며 계획부서를 중심으로 생산지도부, 기술부, 공무동력부, 운수부, 자재공급부, 로동임금부, 재정부기부, 후방공급부 등 모든 부서들이 계획화사업에서 응당한 역할을 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계획화사업을 수공업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집체적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한 당의 요구도 해결할수 있다.

계획화사업을 집체적방법으로 진행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모든 간부들과 기술자들 속에 계획화원리와 원칙, 당의 정책과 김일성동지의 교시, 해당시기 당이 특별히 내세우고있는 정책적요구, 계획화사업의 실무적방법들을 철저히 침투시키는것이다. 일군들이 인식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획작성사업과 같이 그렇게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에서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활동할수 없다.

간부들과 기술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체학습과 광범한 토론과 론쟁, 보충강연과 시범상학 등 다양한 방법을 배합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험은 간부들속에서는 자체학습을 위주로 하면서 토론과 론쟁을 배합하고 그에 기초하여 매개 일군들로 하여금 학습답안을 작성케 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법은 원리학습, 정책학습, 기술실무학습을 유기적으로 배합할수 있게 하며, 사업과 학습을 결합시킬수

있게 하며, 상하간부들의 견해상 일치를 가져다준다. 또한 그것은 일군들의 행정식, 명령식사업방법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로도 된다.

계획화사업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또한 군중토의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군중토의의 기본단위는 작업반이다. 이와 함께 직장(갱)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직장(갱)은 계획작성의 거점이며 생산을 조직하는 말단단위이다. 직장(갱)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생산을 직접 조직하는 일군들이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계획을 작성하는 원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를 이루고있다.

군중들과 계획을 토의할 때에는 정치사업을 충분히 선행시킨 기초우에서 군중이 제일 잘 알고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하는것이 필요하다. 즉 로력배치와 로동정량, 설비상태와 설비능력, 설비보수주기와 보수방법, 부속품의 규격별수요, 원료자재의 보장정형과 그 원단위소비기준작성방도 등 생산자들이 제일 잘 알고있는 실제문제들을 가지고 군중토의를 진행할 때 그들 속에서는 창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이 더 잘 나올수 있다. 이런 기술경제적지표들과 생산과정에서 실지로 걸리고있는 문제들의 해결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한다면 그에 기초하여 생산수자를 규정짓기는 사실상 어려울것이 없다.

사업체계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계획화사업을 년중 정상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이다.

계획화사업은 년간계획의 작성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월계획, 분기계획, 년간계획, 전망계획 등 계획작성사업을 년중 계속하고있으며 계획집행은 매시간마다 끊임없이 진행하고있다. 만일 계획화사업을 년간계획작성사업에만 국한된것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잘 세워진 년간계획도 결국은 성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것이며 사회주의 계획화의 본질적요구들을 실현하지 못할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작성된 계획을 구체화하는 사업, 특히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에서도 정연한 질서와 강한 규률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의 방침들이 실지 실현될것이다.

이와 함께 계획화사업의 체계를 수립하는데서는 그 기초자료들을 수집정리분석하는 실무적사업질서에 대하여서도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례컨대 통계작성체계, 숫자취급과 재정부기체계를 강화하며 각종 기술경제적지표들을 정상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업도 질서정연하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화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사업이다. 특히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관리사업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더 어려운 문제들에 많이 부닥치게 된다.

우리는 매개 단위들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잘 배합하며 일군들의 사상문제와 실무적능력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계획화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계획화사업이 개선될때 전반적관리운영수준이 현실의 요구에 상응하게 제고될것이며 나아가서는 생산력발전이 더욱 촉진될것이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

한 희 호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는 농민 농업문제의 성과적해결과 사회주의건설의 추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로동계급과 농민간, 공업과 농업간,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경제적련계에서 기본문제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정치경제적의의를 가진다.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를 정확히 설정하여야만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농업을 추켜세워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는 도시의 지원하에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며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접근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는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테제에서는 지난시기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 생산적련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쌓은 경험이 총화되였으며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방향과 구체적과업들이 천명되였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를 옳게 보장하는데 항상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특히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는 투쟁의 일환으로서 이 련계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켰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를 실현함에 있어서 항상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는데 주되는 주의를 돌리면서 동시에 상업적인 련계형태를 배합하여왔다.

이것은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촉진하며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방침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는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놀일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건설 특히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만 보장될수 있다. 《농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설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는 바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의 강화는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촉진한다. 그것은 개별적협동농장의 경제토대 및 내부축적에 제약됨이 없이 농촌경리의 기술적토대축성을 계획적으로 급속히 추진시킬수 있게 한다. 직접적인 생산적련계 형태를 통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공업의 장성이 조성하는 물질기술적가능성들을 가장 합목적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또한 직접적련계형태를 통하여 로동계급은 농민에 대한 정치사상적영향을 강화하고 농촌에 공업의 선진적인 기술, 관리방법, 생산문화를 더 잘 보급할수 있다. 이것은 농촌에서의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 사상혁명의 성과적인 추진에 기여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의 강화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접근시키는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는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두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농업생산의 사회화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협동적소유의 사회화수준을 더빨리 높일수 있는 전제를 조성한다.

이 모든것은 직접적인 생산적련계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촉진하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접근을 보장하는데서 유력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는 사회주의하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의 기본형태로 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당은 상업적련계형태도 옳게 리용하였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에 차이가 있고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이 잔존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도시와 농촌간에는 상품교환을 통한 생산적련계도 필요하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생산수단에서 기본을 이루는것들의 소유권은 국가수중에 장악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화학비료, 농약등을 비롯한 일부 생산수단들은 상업적련계를 통하여 협동농장들에 팔아주는것이 합리적이다.

국가적소유는 협동적소유에 생산수단들을 다 직접 보장할수는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국가는 그러한 부담을 감당할수 없으며 그것은 또한 협동적소유의 모든 가능성을 동원리용하는데 지장을 줄수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상업적인 생산적련계, 가치법칙작용의 정확한 타산은 협동농장들로 하여금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장성시키는데서 자체의 잠재력을 적극 동원하도록 자극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상업적인 련계를 배합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생산적련계가 아니라 상업적인 생산적련계를 위주로 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를 설정한다면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는 접근되는것이 아니라 더욱 분리될수 있다. 이것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적역할과 정치사상적영향을 약화시킬수 있다.

반면에 모든것을 국가가 장악하고 직접적, 생산적련계 형태만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를 설정한다면 협동경리가 가지는 가능성들을 제대로 리용할수 없다. 그것은 또한 국가에 지나친 부담을 줌으로써 전인민적소유의 발전에도 부정적영향을 주고 결국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것이다.

이로부터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직접적련계를 위주로 하면서 상업적련계를 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의 발전에 의거하여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재정적, 로력적지원을 부단히 증대시키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렸다.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국가의 기본건설투자를 부단히 증대시키면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촉진하였다. 당은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확대강화하고 그것들을 협동경리의 농업생산에 적극 참가케 하였으며 그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경리에서 선진적농기계들, 관개시설 등을 비롯한

국가적소유에 속하는 생산수단들의 역할이 제고되였다.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직접적인 로력적지원도 더욱 증대되였으며 일층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또한 당은 기업적방법에 의거하는 농업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고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였다. 이것은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농업생산과 협동적소유의 사회화수준을 부단히 높이게 하였다.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의 발전은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의 공고화, 두소유간의 련계강화 및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당은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부단히 발전시키면서 상업적인 생산적련계도 더욱 장성시켰다. 농촌에 대한 축력농기계, 소농기구, 화학비료, 농약과 종곡 등의 공급을 증대시켰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교류에서 가격공간을 능숙하게 리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인 생산적련계와 함께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 *

우리 당은 현시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현실적조건에 부합되게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를 발전시키고있다.

당은 특히 농촌경리의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며 농기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케 하기 위하여 협동농장들로 하여금 뜨락또르의 리용을 직접 계획하고 조직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뜨락또르리용체계의 이러한 개편은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현시기 조건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 아는바와 같이 최근년간에 농촌에서의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생산에 복무하는 국가의 기본기계수단인 뜨락또르의 대수가 급격히 증대되였다.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이며 농업생산에서 그 역할을 제고하는것은 농업생산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고있다.

뜨락또르들의 리용을 더욱 개선하며 농기계들이 협동농장의 생산에 더잘 복무케 하기 위하여서는 뜨락또르들의 관리리용에서 협동농장들의 능동적역할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특히 협동경리들에서의 생산과 로력조직의 계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실히 요구된다.

다른 한편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의 증대는 매개 협동농장들에 그것들을 고정배치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뜨락또르 중대 또는 소대를 협동농장들에 고정배치하여 그것을 협동농장의 기계화작업반 또는 분조로 개편하고 그 리용을 협동농장들이 직접 계획하고 조직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국가가 뜨락또르의 소유권을 자체의 수중에 그대로 장악하면서 리용권은 협동농장들에 넘겨준것으로 된다.

국가는 과거와 같이 국가기업소들로 하여금 뜨락또르의 대보수를 담당수행하게 하고있으며 농기계리용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봉제사업을 강화하게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매개협동농장들로 하여금 뜨락또르의 운영비와 그 감가상각기금을 납부케 하며 뜨락또르의 소수리와 정비사업을 자체로 담당수행하게 하고있다. 뜨락또르의 운영과 그 소수리, 정비를 위한 자재들은 국가가 협동농장들에 팔아주게 되였다.

뜨락또르의 리용을 이와 같이 협동농장들에 맡기면서 농촌에 대한 농기계공급을 계속 증대시키며 그 사용료를 대폭 인하한 당과 정부의 조치는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를 더욱 촉진할수 있게 하였다.

뜨락또르운영체계의 이러한 개편은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는 조치로 되는 동시에 상업적련계형태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방법으로도 된다. 거기서는 직접적인 생산적련계와 상업적인 생산적련계가 결합되여있다.

의연히 국가적, 전인민적소유로 되여있는 생산수단들은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보장하며, 소유권과 리용권의 분리는 직접적인 생산적련계와 상업적인 련계형태의 합리적인 결합을 가능케 하고있다.

협동농장에로의 뜨락또르의 리용권의 이전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업적인 생산적련계의 범위를 일정한 정도로 확대하나 결코 직접적인 련계를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협동농장에로의 뜨락또르의 리용권의 이전은 결코 그 소유권의 이전, 국가적소유의 역할의 저하를 의미하지 않기때문이다. 국가는 여전히 뜨락또르들에 대한 소유권은 자기 수중에 가지고있으며 그 대보수의 실시, 리용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통제, 운전수들의 로력보수의 일부부담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기여한다.

이것은 농기계들의 공급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리용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조치로 된다.

전투에서 기본부대에 배속된 지원수단들이 기본부대의 전투계획에 복종되여 움직여야만 성과적으로 전투를 진행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활동에서도 협동농장이 자기에게 배속된 생산도구들을 자기 계획에 따라 리용할 때에 그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시킬수 있다.

과거에도 우리 당은 농기계작업소의 뜨락또르의 작업을 협동농장들의 농업생산계획과 결부시키며 그것들을 농업생산의 요구에 복종시키도록 하는데 항상 관심을 돌려왔다.

금번의 이 조치는 당의 이러한 방침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것이다.

뜨락또르들을 자체의 계획에 따라 리용하며 그것들의 정비수리사업도 담당하게 된 조건에서 협동농장들은 뜨락또르의 관리와 합리적리용에 대하여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될것이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창발성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농기계들에 대한 협동농장들의 관계는 국영공업기업소들에서 로동수단을 책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체계에 접근하게 될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급속히 축성하며 농촌기계화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면서 협동적소유의 잠재력을 훌륭히 동원할수 있는 정확한 길을 열어놓았다.

오늘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와 상업적인 련계의 배합은 기술적개조를 가장 효과가 높은 지대로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해나가는 동시에 각이한 지대농민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방침을 실현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의 혜택을 농민들이 고루게 받도록 하며 벌방지대농민들과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이 균형적으로 향상되게 하는데 일관한 주의를 돌리고있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 련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당의 이러한 방침을 실현하는 과업을 타산하여야 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의 혜택을 모든 농민들이 동일하게 받도록 한다는 것은 모든 농촌지역에 기본건설투자와 생산수단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방향으로 생산적련계를 설정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당은 농촌에 생산수단들을 공급함에 있어서 수익성을 높이며 나라의 농업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기 위하여 벌방지대를 위주로 하는 방침을 실시하고있다.

벌방지대에 투자를 집중하며 더많은 생산수단을 보내주는 방향으로 직접적인 생산적련계가 설정되는 조건에서 산간지대농민들이 벌방지대농민들과 같이 국가적지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업현물세제가 전반적으로 폐지되고 벌방지대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조건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벌방지대협동농장들에 자금과 생산수단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면서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동시에 높이기 위하여서는 다른 시책들과 함께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산간지대에 적응한 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농기계의 사용료와 수매가격에서 지대별 등차를 두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왔다. 현시기 조건에서 가격공간의 합리적리용은 더욱 큰 역할을 놀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면서 농촌상업을 개선하며 농민들의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하는데도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것은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농업생산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 농민들의 수입은 급격히 증대되게 되였다. 농민들의 수입의 장성에 상응하게 농촌상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오늘날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농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은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생산열의를 높이며 농촌경리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는 중요조건이다. 농민들의 수요를 더잘 충족시키는것은 그들의 생활과 로동조건을 보장하는 문제이며 농촌에서의 로동행정과 정치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그러므로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촌의 생산적수요와 함께 농민들의 생활상 요구에 대하여서도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 당은 오늘날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상업을 발전시켜 농민들의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더잘 충족시키도록 하는데 커다란 력량을 돌리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구체적상태를 정확히 분석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 생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들을 취하고있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 생산적련계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농업생산의 장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중요과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

김 재 하

사상성과 예술성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문학예술창조의 정확한 길을 밝히며 그 사회적기능을 높이는데 있어서 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맑스—레닌주의미학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고찰하면서 오직 고상한 사상성이 높은 예술성과 결합될 때만이 문학예술은 거대한 인식교양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다고 가르치고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미학의 원칙에 엄격히 립각하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며 또한 온갖 반맑스주의적미학사상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전투적기치를 고수하는 투쟁으로 된다.

문학예술은 형상적수단으로 현실을 반영한다.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이면서 동시에 다른 의식형태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문학예술의 독자적특성이 여기에 있다.

훌륭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는것은 그속에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심오한 사상적내용이 담겨져있고 그것이 예술적형상으로 잘 구현되여있기 때문이다.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그것을 형상적으로 훌륭하게 구현하는 높은 예술성의 어느 한쪽을 떠나서는 문학예술의 참다운 가치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 사회적, 생활적 의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미학의 원칙은 문학예술의 이와 같은 본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우리 당은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고상한 사상성을 높은 예술성과 결합시키는 문제를 작가, 예술인들이 창조사업에서 실현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인민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할데 대한 우리 문학예술의 기본사명이 이것을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높은 예술성과 결합된 고상한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함에 있어서 유일하고 정당한 기준이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15페지).

우리 당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유기적인 통일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미학원칙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그 호상관계를 예술리론이나 창작실천에서 올바르게 해결하게 하였으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릇된 편향들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였다.

맑스—레닌주의미학은 서로 작용하며 서로 의존하는 사상성과 예술성의 변증법적통일에서 주도적인것이 사상성이라는것을 지적하고있다. 사상적내용은 문학예술작품의 핵을 이루며 그 심오성에 의하여 예술성의 높이가 결정된다.

문학예술의 사상성은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의 표현으로서 작가, 예술인의 세계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작품의 사회

정치적경향성이다. 모든 작가, 예술인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간에 사회의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 그 견해를 대표하며 그것에 의하여 생활현실을 평가하고 반영한다. 이것은 문학예술이 계급적성격을 띠게 하며 사상적경향성을 가지게 한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리상을 표현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이 다른 모든 문학예술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 공산주의적사상성에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혁명위업에 충실하며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히고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당성의 발현이다. 이와 같은 고상한 사상적지향을 제쳐 놓고서는 결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높은 예술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호상관계에서 사상성이 가지는 의의를 무시하고 예술성만을 내세우는 수정주의적견해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당적이며 계급적인 본질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문학예술의 사상성에 대한 거부는 예술의 가치를 계급을 초월한 《전인류적인것》에서 찾으며 현시대의 계급투쟁현실을 외면하면서 《무계급적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예술창조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서 표현된다. 사회계급적본질이 반영되여있는 작품을 《도식》이라고 비방하며 작품의 질적수준을 《예술성》에서만 보려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주장은 부르죠아반동문학예술이 고창하는 형식주의, 예술지상주의와 상통하는것이다.

부르죠아반동문학예술은 부르죠아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예술의 사상적내용과 사회적의의를 부인하며 추상적형식의 조작으로 《순수한 예술적쾌감》만을 추구한다. 이리하여 부르죠아반동문학예술에서는 생활의 진실이 외곡, 거부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이 리해할수 없는 잡다한 기형들로 가득차있다. 이것은 바로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부르죠아계급의 퇴폐적인 향락에 복무하는 부르죠아반동문학예술의 계급적지향, 은페된 당성의 표현인것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사상성을 거부하는 그릇된 견해는 마치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인듯이 가장하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부르죠아반동문학예술의 향락주의, 퇴페주의를 추종하고 그 몰락의 길을 따라가고있다. 모든 사실은 문학예술의 사상성의 거부가 결국에는 예술성자체의 파괴를 가져온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미학원칙으로부터의 리탈은 또한 사상성 일면을 강조하면서 예술성을 홀시하는데서도 표현된다.

예술성에 대한 사상성의 우위는 예술성에 대한 과소평가와는 인연이 없다. 예술성은 예술이 예술로 되는 필수적조건이며 그것이 다른 의식형태들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속성이다.

작품에서 예술가의 사상적의도는 직선적으로, 그 어떤 사회정치적명제들의 라렬로 표현되는것이 아니다. 참된 예술작품에서는 예술가의 사상적지향이 사건의 전개와 성격들의 발전과정, 예술적형상의 전체 체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문학예술의 사상을

형상화된 사상이라고 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에 대한 문제에서 사상성 일면만을 강조하면서 예술의 독자성을 홀시하며 그것을 사회적의식일반에 융해시켜서는 안된다. 물론 사회적의식의 여러형태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고찰되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개 의식형태들의 상대적독자성을 부인하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미학은 문학예술의 인식적기능의 특성을 밝히면서 철학이나 기타 과학의 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것을 경계하고있다. 문학예술의 인식적특성은 현실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과학과는 달리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재현하는데 있으며 론리적인 사고에만 의거하는 과학과는 달리 사람들의 사상감정에 정서적으로 작용하는데 있다.

그 어떤 고상한 사상성도 그에 상응한 높은 예술성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생경한 정치적구호로 로출될 때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미학적설득력을 가질수 없다. 예술가의 주관적의도나 주제의 시기성만으로는 예술작품의 사상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사회정치적 명제를 추상적으로 도해하는 작품들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상성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는것이다.

문학예술은 인간과 인간생활을 묘사대상으로 하며, 예술가는 전형적환경에서의 전형적성격의 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예술적화폭을 통해서 그 사상적지향을 예술적으로 구현한다. 때문에 현실의 예술적일반화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성도 중요하게는 이것을 통해서 실현된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미학원칙과 그에 배치되는 미학사상과의 대립이 인간성격의 창조문제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는 리유도 여기에 있다.

문학예술에서 인간성격의 창조는 그것이 인간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있을 때만이 의의를 가진다. 맑스—레닌주의미학은 문학예술이 소여시대와 일정한 계급의 대표자로서의 인간 즉 사회계급적본질을 체현하고있는 인간성격을 창조할것을 가르치고있다. 이것은 문학예술의 계급적성격에 관한 원칙적인 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다.

사회계급적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요구는 현실을 개성적이며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예술의 특성과 배치되지 않는다. 사회생활현실에서 전형적인것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들속에 구현되여 있다. 구체적인 인간들은 어느 때나 각양한 성격적특성, 생활처지를 가지고 나타나며 인간성격과 생활은 그 자체가 벌써 다양한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계급적본질에 합치되는 전형적인 성격이란 다양한 개성으로 되지 않을수 없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여야 한다.

인간성격들이 사회계급적본질을 구현하고있을 때만이 그것은 인민들을 계급의식과 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 귀감으로서의 생활적내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들을 창조하는것으로써 사실주의적작가, 예술인들은 낡은것, 반동적인것을 반대하고 새것, 선진적인것을 옹호하는 자기의 사상미학적리상을 표현한다.

예술가의 사상미학적리상과 실제현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작가, 예술인들은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더 많이 긍정적 성격의 형상화에 관심과 정력을 기울이게 된다. 아름다운것과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인것으로 되고 모든 긍정적인 현상들이 곧 사회적모범으로 보편화될수 있는 조건이 지어지고있는 사회주의현실에서 긍정적주인공의 형상화에 대한 작가, 예술인들의 지향은 응당하며 합법칙적인것이다.

문학예술의 사상성을 거부하는 그릇된 편향은 인간성격의 창조에서 사회계급적본질의 구현을 반대한다. 이러한 편향은 전형적인것에 대한 원칙적인 견해를 현실에 대한 형상적반영의 특성을 무시한것이며 《생활의 다양성》, 따라서 예술적일반화의 다양성을 무시한것이라고 한다. 시대와 사회, 계급을 뛰여넘은 인간특질, 즉 여러 사회계층들을 다 흥분시키는 《순수한 예술적전형》이야말로 예술에서 항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영웅적인 성격의 창조를 회피하며 긍정적성격 대신에 어둡고 기형적인 형상을 추구하는데로 나가게 된다.

또한 반대로 전형적인것을 협애하게 해석하고 문학예술의 당성, 계급성을 작품에 묘사된 주인공이나 기타 인물들의 계급출신과 그 비률로써 규정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은 그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의 기본동력인 로동자, 농민을 작품의 기본주인공으로 설정할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공들이며 인민의 대표자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각계각층인민대중이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사상에 고무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과정, 혁명투쟁의 복잡한 과정을 폭넓게 묘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생활을 혁명적발전속에서 진실하게 묘사할것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부합되며 당성의 원칙에 전적으로 합당한것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급속한 발전, 그 사상예술성의 부단한 제고는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미학원칙에 엄격히 의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런 때만이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서의 그 전투적기능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 *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과업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미학적준비정도, 그들의 정치사상적수양과 형상창조능력 여하에 달려있다.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우선 중요한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맑스—레닌주의세계관과 우리 당의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문학예술창조에서 예술가의 세계관이 원칙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문학예술에서의 현실 반영이 생활의 기계적인 복사가 아니며, 묘사대상에 대한 예술가의 주관적관계에 따라 그것이 정당하게도, 혹은 외곡되게도 반영될수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세

계관으로 무장할 때만이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현실생활을 평가하며 그것을 예술적화폭으로 진실하게 재현할수 있다.

특히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정책, 우리 당의 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킨것이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행로를 가리켜주며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오직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려낼수 있으며 본질적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우선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현실에 대한 당의 혁명적립장과 맑스—레닌주의적인 과학적태도와 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25페지).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문학예술의 정치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문학예술의 정치성은 사상성의 높은 발현이며 당성의 직접적인 요구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의도를 충분히 리해할 때만이 작품창작에서 당면한 정치적문제들을 예리하고 민감하게 반영하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창작상 제문제를 당의 정책적방향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이래야만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나라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사업의 한부분으로서, 당사상사업의 일환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할수 있다.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을 실현할데 대한 과업은 작가, 예술인들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할뿐만 아니라 현실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산 체험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실과의 깊은 련계, 인민대중의 실천활동과의 밀접한 련계는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리해함이 없이는 그들의 정신적특질과 그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정당하게 재현할수 없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 당의 정확한 군중로선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당주위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치고있는 위대한 현실이다. 이 현실속에서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인민대중의 심장을 파악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구현되고있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잘 리해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심오히 체득할수 있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창조사업을 인민들의 생활에 확고히 토대하여 진행할것을 항상 강조하여왔으며 그들의 현실침투를 위한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이 약동하는 현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그리고 높은 생활적진실성을 가지고 재현하고있는것은 당의 옳은 방침을 받들고 작가, 예술인들이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산 체험을 풍부히 얻게 된 결과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예술가의 기교이다.

예술적기교는 주제의 탐구, 현실에 대한 예술적파악, 예술적표현수단들과 수법의 구사 등 작품창작의 전과정에서 작용하는 예술가의 창조능력을 말한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이 옳게 보장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예술가의 형상창조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예술적기교만 내세우면서 예술가의 정치사상적수양과 현실체험의 중요성을 거부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성을 홀시하는데로부터 예술가의 기교의 의의를 낮잡는 경향 역시 맑스—레닌주의미학원칙과는 인연이 없다.

예술가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형상적화폭의 창조를 통해서 표현되는것만큼 예술가의 기교가 높고 낮은데 따라 그것은 정확하고 선명하게 표현될수도 있으며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기교의 의의를 과소평가하는것은 형상적화폭의 질을 저락시키는것이며, 이렇게 되면 예술가의 사상은 아무리 고상한것이라 하더라도 미학적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인민대중에게 사상미학적영향을 줄수 없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이 미학적지식을 심오히 하며 민족예술의 우수한 경험과 전통적인 표현수법, 수단들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그것을 개선발전시키며 창작실천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고 풍부히 하는 등 예술적기교의 련마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것을 일관하게 강조하여왔다.

문학예술창조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민족적향기가 풍만하게 풍기게 하며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의 훌륭한 결합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을뿐만 아니라 세계인민들로부터도 높은 찬사를 받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 그 높은 사상예술성은 새로운 민족문학예술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우리 당 문예정책의 정당성을 말해준다. 오직 주체적인 립장에 튼튼히 섬으로써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고상한 사상적내용을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적형식으로 구현한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조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의 발전하는 현실과 우리 인민의 장성하는 미학적수요는 문학예술창조에서 더욱 높은 사상예술성을 실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맑스—레닌주의세계관과 우리 당의 정책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민족문학예술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면서 그 예술적기량을 일층 높임으로써 약동하는 현실을 더욱 높은 예술적견지에서 반영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인 10월항쟁

권 영 욱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성과 투쟁력량을 크게 시위한 영웅적 10월인민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20년이 지났다.

1946년 10월 남조선인민은 미군정의 폭압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요구하여 항쟁에 일떠섰다.

미제와 국내반동을 반대하고 민족의 존엄과 생존의 권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궐기한 10월인민항쟁은 남조선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보여주었으며 남조선인민의 반미구국투쟁사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는 10월인민항쟁을 비롯한 일련의 남조선인민운동에 대하여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항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조선인민의 해방투쟁력사에 빛나는 페지를 남겨놓았다》(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에 제하여)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　　*

10월인민항쟁은 미군정의 류례없는 파쑈적폭압과 식민지예속화정책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울분의 폭발이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그 첫날부터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해방자》, 《구원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창의에 의해 수립된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반동세력을 규합하고 민족분렬을 획책하면서 식민지통치지반을 강화하려고 미쳐 날뛰였다.

미제는 공산당을 비롯한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탄압하며 애국적인 인사들을 대량적으로 검거투옥하고 민주주의적출판물들을 페간시키는 등 민주력량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였다. 남조선은 테로와 학살의 무법천지로 변하여갔다.

민주력량을 탄압하는 한편 미제는 남조선을 새전쟁도발을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군사시설을 정비확장하고 괴뢰군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쳤다. 그리고 주구들을 규합하여 괴뢰정부조작에 광분하였다.

미제는 민족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적산이라는 명목밑에 미제는 남조선공업의 94%에 달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강탈하여 경제명맥을 완전히 틀어쥐였고 파괴략탈을 자행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토지수탈을 감행하는 한편 봉건적토지소유제도, 고률의 소작료와 강제공출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막대한 량곡을 빼앗아갔다.

미제의 파괴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침체에 빠지게 되였고 격증되는 실업과 식량난으로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령락되여갔다.

남조선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미제

와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지 않고서는 자주독립도, 생활개선도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분격은 날로 강화되여갔다.

바로 이러한 때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루어진 제반 민주개혁과 민주건설의 성과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에서 이루어진 혁명적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민주주의적자주독립과 제반 민주개혁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일떠서게 되였다.

해방후 남조선에서는 삼척탄광로동자들의 파업투쟁, 서울화물자동차공장과 동양방직인천공장로동자들의 파업, 각지에서 진행된 8.15해방 1주년기념투쟁, 하의도농민들의 《하곡수집》을 반대하는 폭동 등을 비롯하여 로동자, 농민, 각계층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파업투쟁은 8.15해방후 1년간에만 하여도 1,297건에 달하였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 정치적폭압과 경제적파탄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였다. 이것은 드디여 남조선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파업인 9월총파업과 전인민적반미구국투쟁인 10월인민항쟁을 일으키게 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의 9월총파업은 철도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발단으로 하여 시작되였다. 남조선전역의 4만여명 철도로동자들은 1946년 9월 24일 식량보장과 임금인상, 미군정의 일체폭압중지, 북조선과 같은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의 실시 등의 요구를 내걸고 대중적파업투쟁을 단행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각 산업부문의 로동자들이 파업에 일떠섰다. 학생, 사무원들도 로동자들의 투쟁에 합세하였다. 또한 미군정산하 각기관사무원들과 광범한 시민들이 투쟁에 합류하였다. 철도로동자들의 파업은 전체 남조선로동계급의 총파업으로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드디여 각계각층 인민들을 망라하는 일대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총파업은 처음부터 로동자들의 절실한 생활상요구와 함께 높은 정치적요구를 내세운 정치투쟁으로 전개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총파업은 미제와 남조선반동배들을 극도로 당황케 하였다. 미군정은 파업로동자들과 이에 합세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미군정의 류혈적인 탄압은 인민들의 분격과 반항을 더욱 격발시켰다. 로동자들은 파업으로부터 대중적시위투쟁으로 나아갔으며 10월에는 전인민적반미항쟁으로 넘어갔다.

10월 1일 무장경찰대는 파업로동자들과 《쌀을 달라》고 나선 대구시민들에게 총을 쏴 희생자를 내게 하였다. 이에 격분한 로동자, 학생, 시민들은 대중적폭동을 일으켜 대구경찰서를 습격하였다. 인민들의 투쟁에 일부 《국방경비대》 병사들도 동조하여나섰으며 일부 경관들도 인민의 편으로 넘어왔다. 시위군중은 경찰서를 점거하고 경찰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류치장에서 애국자들을 구출하였다.

대구시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항쟁은 남조선 전지역에 급격히 확대되였다. 각처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이 항쟁에 궐기하였으며 군중

시위와 파업투쟁, 폭동이 계속되였다.

항쟁군중은 도처에서 경찰서와 군청, 신한공사출장소, 반동단체사무실을 습격하고 반동들을 처단하였다.

10월초순에 경상북도를 휩쓴 항쟁의 불길은 곧 경상남도로 타번졌다. 10월하순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에서도 항쟁이 일어났다. 인민항쟁의 파도는 10월말경부터 11월중순사이에 호남지방에 파급되였다.

10월인민항쟁에는 투옥되였던 수감자들도 적극 참가하였다. 특히 전주,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였던 애국자들을 비롯한 1,700여명의 수감자들은 탈옥 또는 파옥을 일으켜 항쟁에 호응하여나섰다.

항쟁이 치렬해지자 당황한 미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인민탄압에 혈안이 되였다. 항쟁으로 말미암아 대구에서 경찰력량이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자 미제는 《해방자》의 탈을 벗어던지고 중무장한 미군부대와 경기도, 충청남북도의 경찰대 1,100여명을 이 지대에 투입하여 파쑈적으로 탄압하였다.

종파분자들도 미제와 결탁하여 항쟁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는 죄악적인 책동을 하였다.

미제의 야수적인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 말미암아 10월인민항쟁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10월인민항쟁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기개를 크게 시위한 영웅적투쟁이였다.

* *

10월인민항쟁은 남조선을 또다시 기아와 빈궁, 테로와 폭압의 암흑천지로 전변시킨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고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반제반봉건투쟁이였다.

항쟁군중은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한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통일정부를 수립하라》, 《북조선에서와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는 구호를 정면에 내세웠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국내반동들의 매국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견결히 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투쟁의 예봉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데로 돌려졌다는것을 의미한다.

미제는 전차, 기관총으로 무장한 미군부대까지 동원하여 탄압에 미쳐 날뛰였으나 항쟁자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으며 미군정통치기관들을 습격파괴하였다.

이것은 항쟁군중이 미제의 파쑈적폭압과 식민지통치를 반대한 직접적표현이다.

항쟁군중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라》,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 《소작제와 강제공출을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착취를 반대하여나섰다. 예천, 영천, 보성군을 비롯한 적지 않은 지역의 항쟁자들은 악질지주의 집을 습격하고 가산을 몰수하여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많은 지역의 항쟁농민들은 지주의 리익을 옹호한 반동관리들과 경찰을 처단하였다. 이와같은 농민들의 투쟁은 항쟁이 반제투쟁인 동시에 반봉건투쟁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10월인민항쟁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애국적인민들을 망라한 전인민적반미구국투쟁이였다.

로동자들의 총파업으로부터 시작된 항쟁에는 약 230여만명의 애국적인민

들이 참가하였다.

항쟁의 주력군은 로동자, 농민이였다. 대구, 부산, 마산, 개성, 광주, 화순, 목포, 청주 등을 비롯한 도시들과 산업지대들에서의 투쟁선두에는 로동계급이 서 있었으며 그들은 자기 희생성을 다하였다.

로동자들과 함께 농민들도 항쟁에서 적극성과 완강성을 발휘하여 용감히 싸웠다. 항쟁에 참가한 계층별인원수에 있어서 농민은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청년학생들과 시민들도 항쟁에 궐기하여 훌륭히 싸웠다. 청년학생들은 미제의 노예교육정책을 반대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대구, 청주, 광주 등지에서와 같이 로동자들과 함께 앞장에 서서 용감히 싸웠으며 시민들도 미제의 《식량정책》을 반대하고 쌀과 일자리를 요구하여 항쟁에 궐기하였다.

지역적으로도 10월인민항쟁은 남조선의 전역을 휩쓸었다. 항쟁은 남조선의 73개시, 군이란 광활한 지대에서 일어났다. 특히 령남지방과 호남지방인민들이 항쟁에 광범히 참가하였다.

10월항쟁은 높은 정치적요구를 내세운 전인민적구국투쟁이였을뿐만 아니라 애국적인민들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뚜렷이 시위하였다.

항쟁군중은 미제의 야수적탄압과 학살에도 굴하지 않고 견결히 투쟁하였다.

미제는 인민들의 평화적인 시위투쟁을 유혈적으로 탄압하여나섰다. 항쟁자들은 원쑤들의 폭압에 폭력으로 대항하였다. 항쟁군중은 적들의 발악적인 야수적만행에 대항하여 경찰서를 비롯한 반동통치기관들을 접거하였으며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고 용감하게 싸웠다. 인민들은 미제와 국내반동의 야만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9월총파업으로부터 10월항쟁에 이르는 기간 남조선전역에 걸쳐 근 두달동안이나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과시한 10월인민항쟁은 원쑤들에게 커다란 공포와 타격을 주었다.

* *

10월인민항쟁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놓았다.

항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10월인민항쟁으로 하여 원쑤들은 일대혼란에 빠졌다. 통치기관과 통신시설이 파괴되고 통치기능이 마비되였다. 인민들은 여러곳에서 일시적이나마 행정권을 장악하였다.

항쟁이 격렬했던 령남일대와 경기도 일부지역, 전남지방들에서 경찰서와 군청, 반동단체기관들이 파괴소각되거나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높아지자 원쑤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거나 잔명을 부지하기에 급급하였다. 이것은 미제의 정치적지반을 약화시켰으며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미제는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1947년 2월에 민정장관제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군정청의 간판을 형식상으로나마 《남조선과도정부》로 바꾸어 놓지 않을수 없었다.

항쟁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여지없이 폭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야말로 조선인민의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이며 《구원자》가 아니라 략탈자이고 흉악한 살인귀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10월인민항쟁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대중의 정치적 및 계급적각성을 더욱 높이고 혁명력량을 전

루적으로 단련시켰다.

남조선인민들은 항쟁을 통하여 고귀한 경험을 쌓았으며 정치적으로 더욱 각성되였다. 《해방자》의 탈을 쓴 미군의 정체와 미군정통치가 어떤것인가를 더 잘 알게 되였으며 미제를 반대하지 않고서는 생활처지의 개선도, 자유도, 자주독립도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았다. 항쟁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은 발톱까지 무장한 미제침략군 및 경찰, 테로분자들과 맞서 투쟁함으로써 혁명적으로 단련되였다. 항쟁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10월인민항쟁은 해방직후부터 전개된 남조선인민운동을 고조에 이끌어 올렸으며 그후 전개된 투쟁에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항쟁은 반미구국투쟁에서 하나의 커다란 경험을 남겼으며 인민들에게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철폐되지 않는한 굴함없이 계속투쟁하여야 한다는 정신을 고취하였다. 10월인민항쟁은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성의 모범이였다.

항쟁용사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10월항쟁후 미제와 국내반동들은 대중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으려고 포악무도하게 발악하였으나 남조선인민들은 이를 물리치고 여러차례에 걸쳐 총파업과 전인민적투쟁을 전개하였다. 남조선로동계급의 단결된 위력을 시위한 3. 22총파업, 《유엔조선위원단》의 입국반대와 《단선》, 《단정》음모책동을 반대한 2. 7구국투쟁, 망국단선을 반대한 5. 10투쟁 등은 그 실례들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전후시기에 와서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리승만괴뢰정부를 쓸어버리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준 4월봉기와 3. 24, 6. 3투쟁 그리고 현재 계속되고있는 각종투쟁은 원쑤들의 온갖 범죄적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예와 민족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내고야말 남조선인민들의 굳은 투지와 견결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은 날로 우심해가는 미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아래에서 신음하고있으며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은 일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말살된 테로와 학살이 감행되는 암흑천지로 되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박정희도당의 파쑈통치에 기인한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없어지지 않고 파쑈폭압이 계속되는한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10월인민항쟁의 고귀한 뜻을 살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미제를 몰아내고 박정희도당을 쓸어버리며 남부윁남에로의 파병을 반대하고 일제의 재침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절대로 외롭지 않다. 그들의 편에는 북반부혁명기지의 위력한 지원이 있으며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

북반부의 강력한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인민들의 애국력량은 반드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승리의 신심을 굳게 다지고 한결같이 일어나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박정희도당의 파쑈폭압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워야 한다.

단결된 인민의 힘앞에 원쑤들은 무력하다. 원쑤들의 그 어떠한 폭압도 결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의 긴절한 과업

림 춘 광

현시기 남조선에서는 가장 우심한 파쑈적폭압이 자행되고있다.

미제의 조종하에 남조선괴뢰정권은 인민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정치적자유를 완전히 빼앗고있으며 악독한 《정보정치》로써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총검과 군화밑에서 모든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금지되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검거투옥학살되고있다. 정의와 진보의 온갖 요소들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박정희괴뢰정권은 인민에게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암흑상태를 강요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를 분쇄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김일성). 이것은 오늘 남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선차적과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인민들은 《생의 무방비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다.

* *

다 아는바와 같이 파쑈통치는 로골적인 폭압에 의거하는 가장 흉악한 부르조아독재형식이며 멸망하는자들의 최후발악적지배형태이다. 제국주의시기에 이르러 부르조아지는 극심한 계급적고립과 부단히 격화되는 지배층내부모순, 정치적위기로 인하여 자본주의상승기나 일시적안정기에 회롱하던 부르조아민주주의를 지속할수 없게 되며 파쑈테로독재로 여명을 부지한다.

과거 파쑈독일, 일본, 이딸리아 등과 오늘날 일련의 제국주의나라들의 례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파씨스트들은 민주주의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일체 요소들을 탄압하며 리성과 문명에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선다.

오늘 미제는 악명 높은 《매카란법》, 《공산당규제법》 등 악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국내의 파쑈화를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로골적으로 인종주의를 고취하고있다.

자기 나라에서 파쑈통치에 매달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더욱 란폭한 암흑통치를 감행하고있으며 식민주의를 소위 《선민의 특권》으로, 《신의 섭리》로 묘사하면서 백인종에 의한 유색인종의 지배, 강대국에 의한 약소민족의 정복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에서 파쑈통치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계급적모순과 함께 민족적모순이 극히 첨예하기때문이다. 미제의 식민지인 남조선에서의 파쑈통치가 미국본토에서의 그것보다 더욱 가혹한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 파쑈통치는 신식민주의방법으로 위장되고있다. 미제는 파쑈통치에 저들이 관련되여있지 않는듯한 인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술책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파쑈통치의 장본인

은 미제이다. 남조선의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의 하수인으로, 교형리로 복무하고있는데 불과하다.

박정희정권은 그 잔인성과 가혹성에 있어서 력대괴뢰정권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남조선에서는 두개의 괴뢰정권이 멸망하고 현재 세번째의 괴뢰정권에 박정희도당이 눌어붙고있다. 세개의 괴뢰정권은 공통적으로 《반공》정책을 《국시》로 삼고 파쑈적탄압을 자행하였을뿐 그중 어느 정권도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한적이 없었다.

《민주주의진렬장》이라고 미제가 선전하던 리승만정권은 극악무도한 파쑈테로독재였다.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갈망하는 인민대중의 4월봉기에 의하여 리승만정권이 타도된후 남조선에서 파쑈통치체계는 혼란상태에 빠졌고 반동보수세력은 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되였다.

4월인민봉기후에 나타난 장면정권은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압력에 못이겨 리승만정권시기보다는 테로폭압을 일정하게 완화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대중의 투쟁이 앙양될수 있었다.

당황한 미제국주의자들은 5.16군사정변을 통하여 괴뢰정권에 가장 악랄한 군사파쑈도당을 들어앉혔다.

박정희도당은 《정권》을 거머쥔 첫날부터 《반공국시》를 고창하면서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모든 운동을 살인적으로 탄압하며 특히 로동자, 농민의 투쟁을 파괴말살하려고 날뛰였다. 그들은 민주주의적로동조합을 조직할 자유를 박탈하고있으며 《쟁의신고》요, 《랭각기간》이요, 《조정》이요 하면서 파업의 권리마저 박탈하고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애국적운동까지 중무장한 군대를 풀어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들은 학원을 함부로 폐쇄하며 학원내에서 모든 학술연구의 자유와 학생들의 민주주의적활동의 자유를 박탈하였으며 수많은 애국학생들과 량심적인 교수들을 학교에서 추방하거나 체포구금하여 《재판》에 붙이고있다.

인민의 극히 초보적권리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박정희도당은 가장 횡포한 파쑈적공격을 가하고있다. 그들은 《정당법》, 《사회단체등록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 온갖 악법들을 조작하여 모든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적활동의 길을 완전히 막아놓았으며 수많은 애국자들과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고있다. 또한 《불온사상》이요, 《사회륜리의 침해》요, 《시설불비》요 하면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출판기관들을 닥치는대로 폐쇄하며 무고한 언론인들을 함부로 체포투옥하며 비렬하게도 이들에 대한 《정치테로》까지 빈번히 감행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의 무제한한 파쑈테로통치는 방대한 폭압기구에 의하여 감행되고 있다. 그들은 집권후 모든 힘을 다하여 군대, 경찰, 정보망을 확장하기에 광분하여왔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4만여명을 헤아리는 경찰과 38만여명의 특무를 망라한 《중앙정보부》가 인민들의 민주

주의적권리를 여지없이 유린하고있다.

악명높은 《중앙정보부》는 군대와 기관, 단체내는 물론 도시와 농촌의 모든 곳에 정보망을 펴놓고 인민의 일거일동을 날날이 감시하고있으며 무제한한 권한을 행사하고있다. 또한 남조선에는 근 6만명의 미제침략군과 60여만에 달하는 괴뢰군이 있는바 박정희도당은 이들을 인민탄압에 직접 리용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발광적인 파쑈통치를 합리화하여보려고 온갖 기만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들은 《서구라파식민주주의는 한국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민족적민주주의》니, 《주체성에 집목한 민주주의한국화》니, 《지도성이 도입되는 행정적민주주의》니 하는 등의 괴변들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전례없이 강화된 파쑈테로통치를 《정당화》하며 극악한 친미친일주구로서의 자체의 정체를 가리고 저들을 《민족주의자》로, 《민주주의자》로 분장해보려는 서투른 술책이다.

력사는 인간쓰레기들이 자기의 정체를 가리기 위하여 흔히 과목이 붙은 의상을 빌려 입고 나타나는것을 보여준다. 만고의 매국역적 박정희도당도 민족의 이름을 팔아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하여나서고있다. 그러나 이에 속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

박정희도당은 또한 인민의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칭포한 파쑈적공격을 《반공》이라는 구호로써 합리화하며 하고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어떠한 행동이나 주장에 대해서도 《용공》이요, 《공산주의에 대한 동조》요 하는 딱지를 붙여서 마음대로 탄압처형할수 있게 만들어놓고있다. 지어 조국통일과 남북래왕, 서신거래만 주장해도 즉시 《반공법》을 적용하며 보수야당계의 정치활동을 억누르기 위해서도 《반공법》을 휘두르고있다.

실로 《반공》의 구호는 저들의 군사파쑈독재를 유지함에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편리한 도구로 리용되고있다.

리승만으로부터 박정희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이 부르짖는 《반공》나발은 저들의 파쑈적탄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연막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

남조선에서 파쑈테로통치를 분쇄하고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는것은 현시기 인민들 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중심투쟁과업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정치적자유를 위한 투쟁은 모든 투쟁의 기초를 이룬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선행 또는 병행시키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전진시키기 어려울뿐더러 그들의 당면한 생존과 민족적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도 발전시킬수 없다.

파쑈적폭압을 분쇄하고 정치적자유를 획득하는것은 곧 남조선혁명의 전략적과업 — 미제의 침략세력을 몰아내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개혁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빨리며 잘 수행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실현하여야 할 과업이다.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구성부분인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세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남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로동자, 농민을 혁명화하고 그들 속에 맑스—레닌주의를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당을 깊이 뿌리박게 하는것이 급

선무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며 민주력량을 결속강화함에 있어서 오늘 결정적장애로 되는것은 파쑈테로통치이다.

전대미문의 극악성을 띤 파쑈테로통치의 조건하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며 민주주의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와 같은 정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찌기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이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는것은 바로…정치적자유의 요구인것이다.

우리들은 정치적자유, 즉 국회(의회)를 선거하는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일시에 근로인민을 곤궁과 압박으로부터 해방하는것은 아직 아니라는것을 알고있다. 도시와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단번에, 부자를 위한 로동에서 해방하는 수단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로동하는 인민들은 자기자신에 의뢰하는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수 없는것이며 그 누구에게서드 바랄것은 없다…전제적경찰정부가 온갖 집합, 온갖 로동자신문, 로동자대의원의 온갖 선거를 금지한다면 수백만의 로동자는 함께 단결할수 없다. 단결하기 위하여서는 온갖 동맹을 결성할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결사의 자유를 가져야 하며, 정치적자유를 가져야 한다…로동자들 자신이 단결하는 이외에 곤궁과 투쟁하는 다른수단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정치적자유가 없다면 수백만의 인민이 단결할 가능성은 없는것이다》(레닌전집 제6권 2분책, 160~161페지).

오늘 남조선에서도 바로 정치적자유의 쟁취는 혁명력량을 축적하고 남조선혁명을 촉진시키는 조건으로 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파쑈적폭압을 짓부시고 정치적자유를 쟁취할수 있는 주체적력량이 장성하고있다.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혁명가들이 자라나고있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의 투쟁과 청년학생, 지식인들의 투쟁을 호상 결합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각계각층을 망라한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광범한 남조선인민대중속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로동자, 농민대중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자유를, 언론인은 출판의 자유를, 학자들은 과학연구의 자유를, 정치인들은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또한 남조선 각계각층인민들속에서 생활조건의 개선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며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자립을 지향하며 《국군》의 웰남파병을 반대하는 기세도 드높다. 지어 보수야당까지도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폭압과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의 앙양은 파쑈적폭압을 분쇄하고 인민의 정치적자유를 쟁취할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파쑈통치하에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정치적자유는 오직 원쑤들과의 비타협적이며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수 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파쑈통치를 민주정치로 가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들을 마련하고있다. 한편 탄압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그를 부정하는 조항들을 첨부하고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괴뢰헌법의 《민주주의적권리보장》조항들은 남조선인민들이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리용할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된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합법성에 의거할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각종 악법들과 파쑈적폭압을 《헌법》의 민주주의적조항들에 위반되는 행위로 폭로규탄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괴뢰헌법의 기만성과 악법의 반동성을 철저히 폭로함으로써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다.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악법들과 통치배들의 수법들을 폭로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민대중은 자체의 실시투쟁으로써 악법들을 휴지화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인민들이 악법들을 무시하고 투쟁에 나설 때 그것들은 아무런 효력도 가질수 없었다.

3.24, 6.3투쟁과 지난해 8월투쟁당시 수십만의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대중적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발악하는 경찰들에게 반격을 가하였다. 이때 박정희도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란동》이라고 위협은 하였으나 실지 처벌하지는 못하였다.

최근 남조선로동자들은 《로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랭각기간을 무시하고 파업을 단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박정희도당은 그를 묵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은 미군의 만행에 격분하여 《허가》없이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미군과 투석전까지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감히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였다.

악법의 적용여부는 적아간의 력량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힘이 강하고 그들이 《법》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 그 어떠한 악법도 효력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리용할수 있는 최대한의 합법성을 리용하는 동시에 실력으로써 악법들과 파쑈적폭압을 분쇄하여야 한다.

* *

남조선에서 파쑈적폭압이 제아무리 악랄하다 하여도 인민들의 투쟁을 멈출수 없다.

인민대중의 단결과 투쟁은 총검보다 강하다. 리승만정권도 군대와 경찰, 정보망이 없어서 멸망한것이 아니다. 파쑈적폭압에 정비례하여 민주주의세력과 혁명력량이 부단히 장성강화된다는 것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현상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미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는 남조선의 식민지제도를 결코 구출할수 없다. 파쑈적군사테로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격화시킬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있다.

영웅적인 10월인민항쟁으로부터 2.7구국투쟁, 제주도인민봉기, 5.10단선반대투쟁, 려수, 순천폭동, 4.19인민봉기 등을 거쳐 3.24, 6.3봉기, 작년 8월투쟁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파쑈테로통치를 분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성취하려는 그들의 굳은 결의의 표현이였다.

오늘 박정희도당의 파쑈테로통치가 아무리 간악하다 할지라도 더는 그대로 살아나갈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대중이 단결하여 용감히 투쟁한다면 능히 파쑈테로통치를 분쇄하고 민주주의적권리와 정치적자유를 쟁취할수 있을것이다.

웰남인민에 대한 지원은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

김 남 영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가일층의 전쟁확대책동으로 말미암아 웰남과 동남아세아지역에는 매우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분노에 찬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웰남침략전쟁을 계속확대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민주공화국의 수도 하노이와 하이퐁지역을 포함한 북부웰남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은 더욱 횡포해졌고 더욱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지배층들은 뻔뻔스럽게도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얼마든지 확대해나갈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리고있다.

미제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확대하고 남부웰남에 미군부대를 대규모적으로 증파하면서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급속히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현재 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의 주력으로 직접 전면에 나섰다. 이전에 미제는 주로 《군사고문》의 명목으로 일부군대를 파견하고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괴뢰군을 리용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미군부대가 주되는 력량으로 되였다. 현재 남부웰남주둔 미륙군부대는 미륙군총수의 4분의 1, 미해병대는 미국해병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미제는 남부웰남주둔 미군수를 현재의 31만으로부터 금년내로 40만~50만명으로 증가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저들의 병력밖에 남조선괴뢰군을 비롯하여 오스트랄리아, 필리핀, 타이 등 추종국가들의 고용병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미제는 웰남전쟁에서 저들의 모든 현대무기들과 전투기재들을 적용하고있으며 더욱 야수적인 살인무기들을 개발, 도입하는데 혈안이 되고있다.

미제는 웰남전쟁에 1,700여대의 직승비행기를 포함하여 3,500여대의 각종비행기들을 동원하고있으며 미제의 가장 큰 함대인 제7함대의 70%가 웰남전쟁에 동원되고있다.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은 그들의 웰남전쟁확대책동에서 새로운 단계를 획하는것이다.

미제는 《바크보만》 사건이후 특히는 1965년 2월이래 이른바 《보복》조치라는 구실밑에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을 감행함으로써 민주웰남은 물론 사회주의진영전체에 대하여 직접 도전해나섰고 그리하여 남부웰남에 대한 식민주의적무장간섭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났다.

민주웰남에 대한 미국공중비적들의 폭격은 더욱더 란폭하고 야수적인 형태를 띠게 되였으며 그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있다. 초기에는 주로 연해와 분계선지역을 침범하였다면 오늘은 민주웰남의 수도 하노이와 기타 도시들의 주

민지역, 산업중심지들을 폭격파괴하고 있다. 미제지배층은 민주웰남에 대한 폭격을 계속 강화하고있을뿐만 아니라 더나아가 대규모적인 지상전투를 벌려놓을것을 획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확대로 말미암아 오늘 웰남전쟁의 형태와 규모는 크게 달라졌다. 웰남전쟁은 세계제국주의 반동세력의 원흉인 미제가 직접 본격적으로 달라붙은 대규모적전쟁으로 되였으며 더욱 가렬한 성격을 띠게 되였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불굴의 투쟁전통과 빛나는 애국전통을 이어받은 영웅적웰남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북부를 수호하고 남부를 해방하며 조국의 재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있다.

남부웰남해방군과 인민들은 자기의 유일하고 진정한 대표인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미국전략가들의 모든 전쟁계획을 련이어 파탄시켰다.

남부웰남에서의 미제의 《특수전쟁》은 이미 완전히 파탄되였고 국부전쟁 역시 패배당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북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도 파산당하고 있다.

북부웰남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미제공중비적들과의 격렬한 싸움에서 이미 적기 근 1,500대를 격추하는 찬란한 위훈을 세웠다.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전투태세를 견지하고있으며' 적들의 어떠한 공세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도록 자기 조국을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키고있다.

전체 웰남인민들은 오늘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이 아무리 격화되고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싸워 미제를 몰아내고 최후승리를 달성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호지명주석은 지난 7월 17일 전국의 인민들과 전투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국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앞에 지닌 우리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민과 군대는 한사람같이 단결하여 비록 희생과 난관이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완전승리의 날까지 단호히 투쟁할것이다》.

전체남북웰남인민들은 호지명주석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그 어떤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마도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자기 앞에 부과된 민족적의무와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 *

미제의 강도적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구국항전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 국토의 완정을 위한 투쟁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시기 진보적인류의 반미반제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

웰남인민은 자기의 피어린 투쟁으로 미국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줌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의 동남방초소를 굳건히 지키고있으며 사회주의진영전체의 안전을 수호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 침입한 첫날부터 그 곳을 웰남민주공화국과 기타 사회주의진영국가들을 반대하는 기지로 전변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여 왔다. 미국지배층들은 웰남에서의 저들의 목적이 사회주의국가들을 《봉쇄》하는데 있다는것을 로골적으로 말하고있다. 이것은 웰남인민의 반미투쟁이 곧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을 위한 투쟁이며 전체 사회주의진

영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웰남인민들은 또한 불굴의 완강한 투쟁으로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으며 그 승리를 촉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채택된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과 웰남과의 련대성을 위한 3대륙위원회의 호소문에서는 《웰남인민들이 달성하고있는 이 확고한 승리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전세계에서 투쟁하고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고있으며 민족해방과 독립, 자유와 평화의 정당한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은 사회주의진영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혁명의 한구성부분이며 현력사적단계에서 반제투쟁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을 탄압하고 말살함으로써 남부웰남을 저들의 식민지로 유지할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저지하고 무너지고있는 식민지체계를 다시 수습하는 계기를 열어보려고 날뛰고있는 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 다른 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전술과 무기를 완성하며 《경험》을 축적하려 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여러번 떠벌렸다.

웰남인민은 또한 자기의 영웅적반미구국항전을 통하여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세아와 세계평화의 리익을 수호함에 있어서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은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웰남에서 미제의 침략책동을 파탄시키는것은 동남아세아와 세계에서 전쟁의 불길이 더욱 확대되는것을 막는 길이며 오늘날 세계의 주되는 전쟁세력인 미제와 그 추구들이 평화를 위협하는 불장난을 좌절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이 웰남인민자신뿐만아니라 전체사회주의진영과 국제로동운동,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과 세계평화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　*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을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국가들과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지체할수 없는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이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 국제로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 그리고 세계의 모든 평화력량들의 당면한 시기의 절박한 과업이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을 저지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웰남침략전쟁을 계속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침략자들에게 응당한 징벌을 가하여 톡톡히 교훈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광포해질것이며 세계혁명에 헤아릴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투쟁하고있는 웰남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며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것이다.

오늘 사회주의진영국가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 세계의 평화애호력량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정의의 항전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을 널리 전개하고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은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면서 싸우는 웰남인민에 대한 물심량면의 원조를 강화하고있으며 웰남민주공화국정부가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싸우는 웰남인민을 돕기 위하여 지원병을 파견할것이라고 성명하였다.

현재 미제침략자들이 웰남침략전쟁을 계속 계단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침략에서 새단계를 획하였고 사회주의진영과 세계평화의 리익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조건에서 웰남인민에 대한 사회주의국가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지원은 더한층 강화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은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웰남인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실질적인 원조로써 미제의 침략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남부웰남에 병력을 대규모적으로 집중하고 저들의 온갖 신형무기들을 끌어들이여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야수적인 초토화작전을 감행하고있으며 북부웰남의 도시와 마을들을 매일과 같이 야만적으로 폭격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웰남인민에 대한 지원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미제침략자들에게 엄격한 징벌을 가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싸우는 웰남인민에게 경제적원조를 증대하는 동시에 현대전투의 수요에 순응할수 있는 각종 신형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원조를 더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현재 웰남인민은 세계반동의 두목인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어려운 구국항전을 전개하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미제가 사회주의진영의 한성원인 웰남민주공화국의 안전을 강도적으로 침범하는것을 허용하면서 사회주의진영전체의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진영전체를 옹호하는것은 모든 사회주의나라,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반미구국항전에 궐기한 웰남인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는 의무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대한 충실성의 시금석이다.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원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항상 웰남인민이 처하고있는 처지와 립장에 대하여 정확히 리해하며 언제 어디서나 웰남인민의 정당한 립장과 요구를 무조건 지지하는것이다. 웰남문제에 대해서는 그누구보다도 웰남인민자신이 잘 알고있으며 미제를 반대하여 어떻게 싸울것인가 하는것은 그들자신이 가장 잘 알고있다.

사회주의국가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웰남민주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도인 4개항목 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5개조항 성명을 무조건지지하여야 한다.

미제가 벌려놓고있는 《평화협상》소동은 그들의 전쟁확대책동을 은페하기 위한 하나의 상투적 기만술책이며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렬을 더욱 조장시키기 위한 음모책동의 일부이다.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은 미제의 《평화협상》기만극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여야 하며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 랭정하고 원칙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원하는것은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절박한 의무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면서 민족해방운동전반에 타격을 가하려 하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인민들, 세계평화애호국가들과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전쟁범죄자들을 징벌할데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웰남민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에 대한 폭격과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모든 침략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남부웰남으로부터 미제침략군대와 추종국가군대 및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물러갈것을 요구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세계의 평화애호국가들과 자본주의나라들의 진보적력량들도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세계의 평화애호국가들과 자본주의나라들의 진보적력량들은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고 자금과 의약품을 수집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지원병부대를 조직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웰남침략전쟁수행을 위한 무기와 전쟁수단의 생산 및 수송을 거부하는 등 온갖 형태와 방법을 다하여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대중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강력한 타격을 줄수 있다.

웰남에 대한 지원은 세계혁명력량이 통일됨으로써만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모든 반제력량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의 힘은 단결에 있다. 세계반제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공동행동을 취한다면 전쟁세력을 압도하고 미제침략자들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진영,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 한다.

미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간고한 투쟁을 하고있는 웰남인민을 지원함에 있어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현시기 웰남과 세계에 조성된 정세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반제공동행동의 실현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반제공동행동의 실현은 사회주의진영과 모든 맑스—레닌주의당들 앞에 나선 미룰수 없는 선차적이며 절실한 혁명적과업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또한 반제투쟁에서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하고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면 우선 그러한 력량을 반제공동투쟁에 적극 주동적으로 끌어넣어야 하며 사소한 가능성도 다 동원하여 미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광범

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것은 오직 실제투쟁과정에서 검열될것이며 명백해질것이다.

전세계 혁명력량은 현시기 반제투쟁의 초점으로 되고있는 웰남문제에서 힘을 합쳐야 하며 자기의 국제주의적립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주의국가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한 투쟁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정치도덕적타격을 가하고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며 싸우는 웰남인민들의 수중에 강력한 정신적 및 물질적투쟁수단을 쥐여줌으로써 그들의 종국적승리를 촉진시킬수 있다.

*　　　*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땅에서 침략전쟁을 벌려놓은 첫날부터 그를 단호히 규탄하여왔으며 영웅적웰남인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시종일관 지지하여왔다.

조선인민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기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으며 그들과 한 전선에 서서 끝까지 싸워나갈 확고부동한 립장과 결의를 무차 표명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분쇄하며 북부를 수호하고 남부를 해방하며 조국의 재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웰남로동당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모든 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굳은 련대성을표시하여왔다.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의 전쟁확대책동이 악랄하여지고있는 오늘 형제적웰남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을 완전히 타승할 때까지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지난 7월 18일 호지명주석에게 보낸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종국적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웰남인민에게 지원병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전문은 싸우는 웰남형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다시한번 표명한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각지에서는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웰남인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이 강화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웰남인민을 무조건 지지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원조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조선과 웰남 두나라인민들은 다같이 오래동안 외래침략자들의 압박하에서 불행과 고통을 겪어왔으며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오늘 우리 두나라인민들은 동일하게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을 진행하였으며 지금도 그들과 직접 대치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을 더욱 몸 가까이 느끼고있으며 웰남인민의 처지와 립장에 대하여 깊은 동정과 리해를 가지고 대하고있다.

조선인민과 웰남인민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한 전선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혁명적전우이며 형제이

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에서 남북웰남인민이 달성한 승리를 자기의 성과와 같이 기뻐하고있으며 앞으로 더욱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것을 열렬히 축원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 어떤 역경과 풍파속에서도 웰남인민의 편에 계속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그들과 함께 싸우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여 자기의 국제주의적의무를 충실히 수행할것이다.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되면 될수록 애국적웰남인민의 정의의 항전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전쟁규모의 확대와 더욱 파괴적인 전쟁수단의 적용에 의하여 웰남인민을 놀래우며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을 협박하려는 미제전쟁상인들의 기도는 어리석기짝이 없는것이다. 침략이 확대되는데 따라 항전은 더욱 급속히 강화될것이다.

웰남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웰남—이 말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 속에서 미제를 반대하여 정의의 위업을 고수하고있는 영웅적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지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더 없는 멸시와 증오를 상징하고있다. 미제가 웰남에서 강도적침략행위를 확대하면 할수록 웰남인민에 대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체 진보적인류의 지원은 강화될것이다.

미제는 전쟁의 확대에 의하여 더욱 심한 정치도덕적고립과 일층 참담한 군사적패배밖에 걸어들일것이 없다. 그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수 없는 부정의의 전쟁을 진행하고있으며 너무나도 큰 오산과 시대착오를 범하고있다. 미제의 웰남침략은 미국인민을 포함하여 전세계인민들의 규탄을 받고있으며 오늘날 세계는 제국주의자들이 응당한 징벌을 받음이 없이 다른 나라, 다른 인민을 제멋대로 침략유린할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미제강도들은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웰남땅에서 더욱 큰 손실과 수치밖에 기대할것이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부웰남에서 직면하고있는 궁지로부터 헤여날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이미 웰남민주공화국정부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이 제시한 웰남문제의 유일하게 정당한 해결방도인 4개항목 립장과 5개조항 성명을 무조건접수하고 웰남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즉시 중지하며 남부웰남에서 자기의 모든 침략군대와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물러가는데 있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진영과 전세계인민들의 견결한 반대와 엄숙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전쟁확대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들은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며 저들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사회주의진영나라들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웰남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조국의 재통일과 평로완정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웰남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한 레닌, 쓰딸린의 투쟁

박 근 영

1

맑스와 엥겔스의 위업의 계승자들인 레닌과 쓰딸린은 새로운 력사적조건하에서 맑스주의를 옹호발전시켰고 실천활동에 적용하여 로씨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맑스주의기치하에 더욱 전진시켰다.

지난세기말과 20세기초에 자본주의는 사회주의혁명의 전야인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섰다.

제국주의는 로자간의 모순, 극소수 지배적《문명》민족들과 세계의 수억만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간의 모순, 그리고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을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제국주의는 사회계급적 및 민족적모순을 격화시킴으로써 사회혁명을 실천적문제로 일정에 올려세웠다.

레닌은 새로운 력사적조건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맑스주의의 혁명적원칙들을 고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조건에 적용하면서 프로레타리아혁명, 프로레타리아독재, 로동계급의 당건설, 민족식민지문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 등에 관한 리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레닌은 또한 자본주의의 최후단계이며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전야인 제국주의의 본질과 력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개별적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에 관한 리론을 작성하였다.

맑스주의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케 한 레닌의 창조적리론사업은 로동운동의 전략전술을 더욱 완성하며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담보를 조성하였다.

레닌에 의하여 더욱 풍부화된 맑스주의리론은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와 쏘련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추진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다.

레닌의 리론실천적활동은 로씨야에서와 국제무대에서의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맑스와 엥겔스가 서거한후 대두한 우경기회주의적, 수정주의적조류는 새로운 조건에 빙자하면서 맑스주의의 혁명적원칙들을 란폭하게 외곡하고 수정하려 하였다.

우경기회주의적수정주의의 대두는 당시 국제로동운동의 사회력사적조건과 밀접히 관련되여있었다.

독점자본가들은 고률리윤 특히 식민지초과리윤에 의하여 급속히 비대해졌으며 이것은 로동계급의 상층부를 매수하여 저들의 사회군, 로동귀족으로 육성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로 이행하는데 따라 소부르죠아지의 파산과 농촌에서의 계급분화가 급속히 촉진되였으며 그 결과 로동계급의 대렬내에는 소부르죠아층들이 더욱 많이 흘러들어오게 되였다.

이와 함께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의회투쟁의 부분적성과가 우경기

회주의적편향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되였다. 19세기 90년대이후 자본주의는 비교적《평화》적으로 발전하였고 로동운동에서 합법적투쟁의 가능성이 일정하게 증대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오지리 등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민주당들이 의회선거에서 상당한 표를 획득하였다. 이것은 로동운동내의 견실치 못한 요소들을 현혹시켰다.

제2국제당내부의 수정주의적조류는 바로 이러한 사회력사적배경을 반영하는 동시에 맑스주의가 이미 로동운동에서 지배적사상으로 된 조건에 적응한것이였다. 당시의 기회주의자들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경험에 비추어보나 맑스주의의 정당성이 확증된 조건하에서 종전의 기회주의적조류들과 같이 맑스주의를 공공연하게 반대하여나설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은폐된 방법으로 즉 맑스주의의 탈을 쓰고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새로운 방법에 매달리게 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력사의 변증법에 의하여 맑스주의의 리론적승리는 맑스주의의 적들로 하여금 맑스주의로써 자기자신을 가장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레닌전집 제18권, 744폐지).

이들은 맑스주의를 시인하는체 하면서 《비판의 자유》의 구실밑에 맑스주의로부터 그 혁명적알맹이를 거세하고 그것을 부르죠아지의 전략과 전술에 순응하는 《사상》으로 변질시키려 하였다.

수정주의는 《부르죠아적세계관과 그 영향의 직접적산물》이며 《부르죠아지의 견해의 상당히 정돈된 체계》(레닌)이다. 레닌은 수정주의자들을 《부르죠아지의 노복》이며 《부르죠아지의 진정한 앞잡이이며, 자본가계급의 로동자사환군》(레닌전집 제22권, 210폐지)이라고 지적하였다.

수정주의의 더욱더 강화되는 영향하에서 제2국제당은 우경기회주의적당으로 전락되였으며 그것은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파산되지 않을수 없었다.

1919년 3월에 레닌의 직접적인 투쟁과 지도하에 제3국제당이 창건되였다. 제3국제당의 창건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리익을 배반한 제2국제당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승리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발전, 각국당들의 조직사상적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이 시기에 레닌은 맑스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고 새로운 력사적조건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좌》경기회주의적조류들이 국제로동운동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레닌은 국제로동운동내에서 블랑끼주의, 바꾸닌주의 등의 《좌》경적, 무정부주의적기회주의조류의 잔재, 새로운 형태를 위한 그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10월혁명후 로씨야에서의 급격한 정세변동하에서 나타난 《좌》경교조주의적편향들, 제3국제당에 망라된 공산당들에서 발로된 《좌》경적,종파주의적편향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0월혁명이 승리하고 쏘련에서 사회주의건설이 당면한 과업으로 제기되였으며 국제로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정세하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뜨로쯔끼주의자들의 책동이 로골화되였다. 체계화되고 《완성된》《좌》경기회주의인 뜨로쯔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로씨야혁명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문제였다. 《극좌적》인 언사로 은폐된 투항주의인 뜨로쯔끼주의의 반혁명적죄행은 레닌에 의하여 엄격히 폭로비판되였으며 레닌의 서거후 쓰딸린에 의하여 철저히 분쇄되였다.

레닌의 충직한 제자이며 그의 위업의 계승자인 쓰딸린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후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심화되는 력사적환경에서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실현시켰으며 제3국제당의 활동을 지도하였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면서 사회주의를 력사상 처음으로 실생활에 구현하는 창조적이고 복잡한 과업이였다. 쓰딸린은 레닌의 강령적교시들을 지침으로 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나갔으며 맑스—레닌주의를 견결히 수호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다.

쓰딸린의 지도하에 쏘련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과업이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정당성을 엄연한 현실로써 확증하여주었다.

쓰딸린이 쏘련공산당을 령도하던 시기에 국제로동운동앞에도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20세기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안정을 얻은 자본주의는 쏘련을 반대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악적책동을 감행하였다. 제2국제당기회주의잔당들도 제3국제당을 파괴분렬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쓰딸린은 국제로동운동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며 세계혁명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모순이 비상히 첨예화된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공공연한 폭력에 기초한 부르죠아독재형태인 파쑈적독재체제를 수립하게 되였다. 이딸리아, 일본에서의 파쑈적정치체제의 수립에 뒤이어 독일에서 1933년에 히틀러파쑈정권이 수립되였다. 파쑈도당들의 집권은 이 나라들에서 부르죠아민주주의의 사소한 흔적마저 말살하는 동시에 쏘련을 침공하며 식민지를 재분할하기 위한 제국주의전쟁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시기에 제3국제당은 반파쑈통일전선전술을 제시하고 파쑈적폭압과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정확한 길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침략성이 더욱 강화된 조건에서 국제로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쓰딸린의 대내대외적인 활동은 쏘련공산당내부에서와 국제로동운동에서의 《좌》우경기회주의와의 계속되는 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쓰딸린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반대해나선, 도시와 농촌의 부르죠아적요소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우경적편향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하였으며 뜨로쯔끼를 괴수로 하는 《좌》경기회주의적편향과 날카로운 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쏘련에서 혁명과 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기회주의자들의 지반이 더욱 더 무너져가게 되자 부하린, 리꼬브 등의 우경기회주의도당과 뜨로쯔끼주의적 《좌》경기회주의집단은 하나의 반당적, 반혁명블럭으로 야합하였다. 쓰딸린의 령도하에 쏘련공산당은 이 반당적집단을 조직사상적으로 청산하였다.

쓰딸린은 국제로동운동내에서의 사회민주주의적조류들을 비롯한 각종 《좌》우경적기회주의조류들과도 견결히 투쟁하였다.

2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레닌이 주되는 주의를 돌린것은 제2인터나쇼날의 내부에 발생한 수정주의적 조류였다. 그것은 이 우경기회주의적편향이 로동운동내에 광범히 류포되고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쳤으며 하나의 체계화된 사상조류로서 맑스주의의 혁명적학설에 도전해나섰기때문이다.

수정주의는 처음 독일사회민주당내의 베른슈타인—카우쯔키파로부터 시작되여 영국의 페비안협회파, 프랑스의 입각파, 로씨야의 《합법적맑스주의자》, 경제주의자, 멘쉐위크 등으로 점차 확대되여 갔으며 하나의 국제적조류를 형성하게 되였다.

이 조류의 시조는 베른슈타인이였다. 그의 악명높은 저서 《사회주의전제와 사회민주당의 임무》를 비롯한 일련의 책들에서 수정주의리론이 체계화되였다.

레닌은 《무엇을 할것인가》, 《맑스주의와 수정주의》, 《제2인터나쇼날의 파산》, 《자본주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 《국가와 혁명》, 《프로레타리아혁명과 변절자 카우쯔키》 등의 로작을 통하여 수정주의를 사상리론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정력적이며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속에서 레닌은 수정주의의 계급적본질, 그들의 개량주의적 및 기회주의적립장과 해독성을 철저히 폭로분쇄하고 맑스주의의 혁명리론을 고수하였으며 그것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더욱 발전시켰다.

레닌에 의하여 폭로비판된 수정주의의 가장 본질적측면은 우선 그들이 맑스주의의 계급투쟁리론을 반대하고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사회개량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개량주의적립장이였다.

레닌은 《계급투쟁에 관한 문제는 맑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레닌전집 제19권, 127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로동계급이 자본의 권력에서 해방되여 착취없고 억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계급투쟁, 사회혁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을 비롯한 수정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혁명이 없이도 자연생장적으로, 점차적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경제생활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개량이라고 하였다.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란 《협동조합적사회조직》에 도달하기 위한 운동 또는 그러한 《사회조직상태》이기때문에 이러한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로자간의 타협, 협조가 요구될뿐이라고 하였다.

여기로부터 자본주의하에서의 계급적대립을 부인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존재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는 프로레타리아트란 《각이한 사회계층의 합성물에 불과》하며 《계급투쟁자체가 갈수록 문명한 형식을 취하고》있으며 이 《문명화의 길이 사회주의실현의 가장 훌륭한 담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수정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하여 사회가 더욱 부유해지면 빈부의 차가 점점 적어지고 프로레타리아트자체가 부르죠아지에 접근되므로 그들간에 그 어떤 적대적대립이나 장벽이 있을수 없다고 하며 따라서 계급투쟁이란 전혀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로부터 베른슈타인은 《종국적목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운동이 전부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았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을 그만두고 경제적리익을 위한 투쟁만 하자는 수정주의자들의 개량주의적 및 기회주의적립장을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구호이다.

레닌은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립장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는 개량주의가 《혁명은 로동자들에게 필요없고 유해하다는것, 로동자들은 혁명에로 〈밀고 나아갈〉것이 아니라 령리한 머슴애처럼 온순하게 개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레닌전집 제17권, 238페지)는 배신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이 지적한바와 같이 개량주의는 자본주의의 법률제도에 도취하여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간의 비타협성을 망각하고 부르죠아지의 법률제도를 영원한것으로 생각하며, 사회주의를 이 법률제도의 테두리안에 들어갈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는것이다.

이런데로부터 개량주의를 찬미한 수정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정치투쟁을 거부하고 경제투쟁만 주장하였으며 폭력혁명을 반대하고 《의회투쟁》, 《협동조합》의 보급 등등의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에로 평화적으로 진화시킬것을 설교하였다.

일찌기 맑스주의창시자들은 프로레

타리아트의 세가지 투쟁형태 즉 경제투쟁, 정치투쟁, 사상투쟁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투쟁이며 바로 정치투쟁을 통하여서만 로동계급은 정권을 전취할수 있고 자기의 완전한 계급적해방을 달성할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투쟁은 결국 부르죠아통치기구를 파괴하고 그것을 새로운 프로레타리아국가기구로 교체하는 근본적인 혁명 즉 폭력투쟁을 수반하게 된다는것을 천명하였다.

수정주의자들은 맑스주의의 이런 원칙을 반대하고 부르죠아국가를 극력 미화분식해나섰다. 그들은 《현대 제국가들의 정치적조직이 갈수록 민주화되여 정치적대변혁의 필요성과 기회가 갈수록 감소》되기때문에 의회제민주주의만으로도 사회주의에로 평화적으로 이행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국가기구를 쳐부시는 혁명을 할것이 아니라 부르죠아《사회질서》를 더한층 발전시키고 더욱 세련시키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른슈타인은 폭력혁명을 그 어떤 《무지각》에서 오는 《경거망동》인듯이 비방하면서 의회주의를 절대화하였다. 그는 《백년전에는 류혈적혁명없이는 실현될수 없었던 개혁을 오늘 우리는 투표, 시위행진 및 이와 류사한 위협적수단만으로도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고 떠벌렸다.

카우쯔키 역시 맑스주의적폭력혁명을 반대하면서 제국주의국가내부모순은 《근로대중에게 가장 적은 고통과 희생을 주는 형식의 투쟁으로 근절》할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틀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의 세기를 창조할수도 있을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수정주의자들의 이 모든 주장들은 레닌이 지적한바와 같이 본질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정권전취를 위한 정치투쟁은 안중에 두지 않고 경제적요구와 개량으로 프로레타리아트를 혼미상태에 빠뜨리려는 《골수까지 물젖은 변절정신》의 발로이며 《운동의 근본적리익을 순간적리익, 혹은 가장 근시안적이며 피상적인 타산에 기초한 판단에 희생시키》(레닌전집 제16권, 390페지)려는 기회주의적립장의 표현인것이다.

레닌은 경제투쟁만을 절대시한 수정주의자들의 견해를 철저히 폭로비판하였다. 레닌은 맑스주의의 계급투쟁리론의 본질과 정치투쟁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계급투쟁은 그것이 정치의 분야를 포괄하는 때에라야 비로소 진정하고 철저하고 발전된것으로 된다고 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맑스주의는 계급투쟁이 정치를 포괄할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가장 본질적인것 즉 국가정권의 조직을 문제로 삼는 때에라야 비로소 그것을 완전히 발전된 (전민족적인)것으로 인정한다》(레닌전집 제19권, 128페지).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혁명적권력의 창설, 폭력의 적용을 거부하였거나 그것을 《블랑끼주의》니, 《독단론》이니 하면서 부르죠아민주주의와 의회제도를 미화분식하고 의회투쟁을 로동계급의 유일한 투쟁형태로 간주한 수정주의적견해에 대해서도 신랄히 비판하였다.

레닌은 맑스주의자들도 평화적방법으로 정권을 전취할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 즉 의회투쟁을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사용할수 있는 하나의 투쟁수단으로 보지 않고 《폭력》을 불필요하게 하는 주요한, 거의 유일무이한 투쟁형태로 보는것은 《악당이거나 또는 머저리들뿐이다. 이것은 최고의 우둔이거나 또는 최고의 위선이며, 이것은 계급투쟁과 혁명을 낡은 제도, 낡은 정권하에서의 투표와 바꾸어놓는것》(레닌전집 제30권, 54페지)이라고 신랄히 규탄하였다.

레닌은 부르죠아의회제도란 의회의 막뒤에서 지배계급이 꾸미는 반인민적정책을 가리는 연막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것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죠아공화국일지라도 계급압박의 기관이라는 그 본질을 제거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로출시킨다…공황 및 정치혁명의 배제가 아니라 도리여 그 정치혁명기에 있어서의 국내전쟁의 최고도의 격화를 준비한다》(레닌전집 제15권, 28페지)고 지적하였다.

수정주의자들의 배신적면모는 그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민주주의를 대치시킨데서도 뚜렷이 표현되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급투쟁의 필연적연장이며 그 핵심이다. 레닌은 로씨야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실지 체험한 기초우에서 《력사는 독재의 시기, 즉 정치적권력을 쟁취하며, 착취자들이 언제나 감행하는 가장 가렬하고 가장 광포하고 어떠한 범죄적행위도 서슴지 않는 반항을 폭력으로써 진압하는 시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느 한 피압박계급도 결코 지배권을 장악하지 못하였으며 또 장악할수도 없었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레닌전집 제28권, 582페지)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기 위하여 독재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대치시켰다. 그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그 어떠한 민주주의도 배제하는 순수폭력수단인듯이 묘사하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온갖 자유를 보장하는 《순수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궤변의 명수이며 《부르죠아지의 편에 투항한…전형적인 대표자》인 카우쯔키는 괴이하게도 계급투쟁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맑스주의사상을 외곡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권력기관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가 국가기관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순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지껄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카우쯔키의 공담을 조소하여 레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변절자 카우쯔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상식과 력사를 조롱하지 않는다면 아직 각종 계급이 존재하고있는 이상 〈순수민주주의〉를 말할수는 없고 다만 계급적민주주의만을 말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순수민주주의〉란 계급투쟁 및 국가의 본질에 대한 몰리해를 폭로하는 무식한 문구일뿐만 아니라 전혀 공허한 문구이다》(레닌전집 제28권, 296페지).

수정주의자들의 견해는 맑스주의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보다더 강한 적인 부르죠아지 즉 패배는 당하였으나 아직 반항을 정지하지 않고 그 반항을 강화하고있는 부르죠아지에 대한 새계급, 자기 수중에 정권을 틀어쥐고있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무자비한 전쟁이라고 말하였다.

동시에 레닌은 프로레타리아독재란 오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 폭력이 전부도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실시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천명하였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민주주의를 대치시키며 민주주의를 계급적립장에서 고찰하지 않는 수정주의자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의 민주주의만이 광범한 근로대중에게 대해서 실시하는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민주주의를 론할 때 《맑스주의자는 〈어떤 계급을 위해서인가?〉 하는 문제의 제기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민주주의와 대립시키는 수정주의자들의 진의도는 레닌에 의하여 백일하에 폭로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 부르죠아민주주의간의 본질적차이를 모호하게 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는 혁명의 원쑤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였던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의 배신행위는 로동계급의 당을 사회혁명의 당으로부터 사회개량의 당으로 만들려고 한데서도 표현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의 당이 《개량의 방도로써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혁하는 당》, 《산업의 평화적촉진을 위한 기

루》, 《전국민적리익을 깊이 철저하게 확보할 임무를 수행하는 당》으로 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전위대로서가 아니라 대중의 뒤꼬리를 따르는 추미주의적인 당으로, 개량주의의 당으로 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부터 베른슈타인은 독일사회민주당의 과업은 경제적으로는 소비협동조합을 창설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대로써 부르죠아의회를 《인민의 주인으로부터 인민의 실질적인 종복으로 바꿀수 있는 도구》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로씨야의 멘쉐위크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과 당의 강철같은 규률을 반대하고 당내에서의 《비판의 자유》, 《분파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였으며 기회주의자들에게 당의 문을 광범히 개방할것을 주장하였다.

레닌은 그의 천재적로작 《일보전진 이보퇴각》, 《민주주의혁명에 있어서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두가지 전술》 등에서 수정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본질을 철저히 폭로하고 새형의 맑스주의당의 사상조직적 및 전술적기초를 천명하였으며 당에 관한 맑스주의학설을 완성하였다.

레닌은 자기의 저서에서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정권쟁취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조직이외의 다른 무기는 없다》(레닌전집 제7권 2분책, 387페지)라고 지적하면서 로동계급의 정치적조직으로서의 당은 응당 사상의지적인 통일과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된 전일체로 되며 어떠한 분파도 허용하지 않는 통일적인 프로레타리아트적규률을 가져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오직 이러한 당으로 될때만이 프로레타리아트와 광범한 근로대중을 령도하여 자본주의를 전복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종국적목표를 실현할수 있다고 레닌은 가르쳤다.

제2국제당수정주의자들은 전쟁과 평화, 식민지민족문제에 관한 태도에서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혁명을 포기하는 립장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으며 제국주의부르죠아지의 공공연한 사환군으로 등장하였다.

그들은 전쟁의 근원이 제국주의에 있다는것을 부인하였으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의 혁명투쟁을 분리하였다.

《초제국주의》론을 제창한 카우쯔키는 제국주의의 본성이 변화되고있기때문에 제국주의렬강간의 호상협약에 의하여 전쟁을 능히 방지할수 있으며 《항구한 평화》를 이룩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자본가들에게는 전쟁을 할 리유가 없으며 그들 모두가 평화와 《군비축소》에 대해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음으로 이들을 침략전쟁에 매달리지 않도록 능히 설복시킬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카우쯔키와 더불어 제2국제당의 모든 기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한패가 되여 반제투쟁을 수반하지 않는 평화선전을 일삼았으며 평화는 제국주의렬강정부들의 선의에 의하여 이룩될수 있다는 환상을 대중속에 류포시켰다.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 그들은 모두 《자국》의 리익을 옹호하는 부르죠아민족리기주의 즉 사회배외주의의 립장에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쟁이 초래하는 정치, 경제적위기를 리용하여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자본주의통치제도의 파산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젤대회의 결정을 배반하고 《조국옹호》의 구호하에 제국주의정부의 침략전쟁을 지지하였으며 각국의 로동자들이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이리하여 맑스주의의 탈을 쓰고 등장한 제2국제당기회주의자들은 맑스주의의 사소한 흔적마저 깡그리 털어버리고 프로레타리아트의 공공연한 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레닌은 《제2인터나쇼날의 파산》, 《사회주의와 전쟁》 등의 로작들에서 전쟁과 평화에 관한 기회주의자들의 배신적 면모를 전면적으로 폭로비판하고 이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적립장을 천명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는 전쟁의 근원이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전쟁의 근원도 남아있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자체를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될수 있다고 가르쳤다.

레닌은 평화문제를 대중의 반제혁명투쟁과 분리시키는 기회주의적평화선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대중의 혁명적행동의 호소를 수반치 않는 현재의 평화선전은 환상을 전파하며 부르조아지의 인도주의에 대한 신뢰를 고취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를 타락시키며 그들은 교전국들간의 비밀외교에 우롱당하게 할뿐이다》(레닌전집 제21권, 178페지).

레닌은 전쟁문제에 있어서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을 엄격히 구분하여야 하며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사회적 및 민족적해방을 위한 온갖 혁명전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제국주의시기에 와서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위하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레닌은 특히 동방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돌렸으며 이를 홀시하고 오히려 식민지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비호해나선 제2국제당기회주의자들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제2국제당과 그의 두목 카우쯔키의 씻을수 없는 죄악은 특히 그들이 민족자결문제에서 항상 부르조아적해석에 빠져 그 문제의 혁명적의의를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민족문제를 제국주의와 공개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적지반우에서 제기할줄 몰랐거나 또는 제기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민족문제를 식민지해방문제와 련결시킬줄 몰랐거나 또는 련결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쓰딸린선집 제1권, 182페지).

그들은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민족을 《문명한》 민족과 《렬등한》 민족으로 구분하고 《렬등한》 민족은 《문명한》 민족의 지배를 응당 받아야 한다고 떠벌렸다. 지어 그들은 식민지 정책이 락후한 나라의 《개발》을 도와주며 제국주의국가가 식민지를 략탈함으로써 사회적재부의 축적이 많아지며 그것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유리하게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레닌은 제2국제당기회주의자들의 부르조아민족주의적주장을 전면적으로 폭로분쇄하고 민족해방운동이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일환이라는것을 밝혔다.

레닌은 서방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투쟁이 식민지피압박민족들의 근로대중, 우선 동방식민지나라 근로대중의 해방운동과 결합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압박받는 민족의 해방투쟁을 무조건 지지할것을 호소하였다:《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이며 보상없는 그리고 지체없는 식민지의 해방을 단지 요구만해서는 안된다. 이 요구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자결권의 인정이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야말로 단호하게 이 나라들의 부르조아민주주의적민족해방운동의 가장 혁명적인 요소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압박하는 제국주의강국을 반대하는 그들의 폭동을—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혁명전쟁도—원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레닌전집 제22권, 195페지).

이와 같이 레닌은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를 폭로분쇄하면서 제국주의시기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승리를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제공하였다.

* *

레닌은 제2인터나쇼날의 수정주의적 우경기회주의조류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로씨야에서 나타난 그의 여러가지 변종들, 각종 우경기회주의적편향들도

철저히 폭로분쇄하였다.

레닌은 우선, 로씨야에서 자유주의적부르조아정책의 뒤꼬리를 따르면서 로동계급의 독자적인 정치투쟁을 반대하였으며 맑스주의적언사를 쓰면서 그의 핵심인 프로레타리아혁명과 프로레타리아독재리론을 거부한 《합법적맑스주의자》들, 정치투쟁을 거부하고 경제투쟁에만 매달리면서 로동운동을 자연발생성에 내말기려고 한 《경제주의》를 철저히 비판하였다. 레닌은 또한, 맑스주의당의 조직 원칙을 반대하여나섰고 정권쟁취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을 거부하였으며 악독한 종파행동을 일삼은 멘쉐위크들과 견결히 투쟁하였다. 1905년 혁명의 실패후 당의 일체 비합법적투쟁을 거부하고 맑스주의당을 청산해버리려고 한 투항주의적인 《청산파》도 레닌에 의하여 철저히 비판되고 분쇄되였다.

* *

쓰딸린은 우경기회주의조류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레닌의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옹호하였다. 쓰딸린은 레닌이 서거한후에 레닌주의의 기치를 고수하면서 제3국제당내외의 사회민주주의적편향들과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각종 우경적편향들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쏘련공산당이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전면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집단화를 비롯한 혁명적시책들을 실시하게 되자 부하린, 리꼬브 등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들은 《계급투쟁소멸론》, 《균형론》, 《소농견실론》 등을 들고나와 당의 협동화정책과 사회주의적공업화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후에는 계급적원쑤들이 반항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체 진지를 양보할것이며, 꿀라크는 스스로 사회주의에로 전화할것이니 그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으며, 부르조아지가 점점 부유해지는것은 사회주의에 아무런 위험도 되지 않는다고 선동하였다. 그들은 당의 협동화정책을 반대하여 집단경리와 함께 소농경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의 급속한 진척에 겁을 집어먹고 쏘련에서의 성과적인 공업건설을 갖은 방법으로 반대해나섰다. 그들은 쏘련에서의 공업건설이 《시기상조》이며 공업화가 인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며 중공업보다 경공업을 우선 건설해야 한다고 떠벌렸다.

쓰딸린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승리를 위하여 이러한 우익적편향을 철저히 극복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당내에서의 우익적편향의 승리는 자본주의의 힘을 자유롭게할것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진지를 허물어뜨릴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부활될 기회를 증대시킬것은 의심할바 없는 일이다》(쓰딸린저작집 제11권, 322페지) 라고 쓰딸린은 강조하였다.

쓰딸린은 부하린, 리꼬브의 우익적편향은 당내에 있어서의 꿀라크의 앞잡이이며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에 당황한 자본주의적요소들의 공포와 불안의 반영이라는것을 밝혔다.

쓰딸린의 정력적이고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쏘련공산당내의 우경기회주의적편향은 조직사상적으로 완전히 격멸되였다.

3

레닌과 쓰딸린은 각종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철저히 폭로비판된 《좌》경적, 무정부주의적기회주의조류는 그후 형태를 바꾸고 다시 등장하여 로동운동에 해독을 끼쳤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무정부주의가 대두한것은 한편으로 광범한 중소소유자층의 몰락과정이 촉진된것과 다른편으로 근로대중이 제2인터나쇼날의 기회주의적정책에 환멸을 느끼게 된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레닌은 《무정부주의는 가끔 로동운동의 기회주의적죄악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였다. 이 두가지 기형물은 서로서로 보충하였다》(레닌전집 제31권, 18페지)고 말하였다.

무정부주의는 과학적공산주의리론과는 근본적으로 적대되는 소부르죠아지 및 룸펜프로레타리아트의 이데올로기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류파에 따라 일정한 차이는 있으나 그들 모두 사회에 있어서의 어떠한 정치적권력도 폐지하며 모든 국가를 페기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적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정치를 부인한다는 구실밑에 로동계급의 정권쟁취를 위한 조직적투쟁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부르죠아적정책에다 로동계급을 종속시키는것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조직과 당의 규률을 부정하는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또한 모험적인 전술을 들고나오며 사회주의혁명의 《즉시적실현》을 요구한다.

레닌과 쓰딸린은 무정부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철저히 폭로규탄하고 로동운동에 대한 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레닌의 로작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와 혁명》 등과 쓰딸린의 저서 《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는 무정부주의를 사상리론적으로 격파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레닌은 《무정부주의는 그것이 존재하기 시작한 후…35～40년동안…착취를 반대하는 일반적언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준것이 없다》(레닌전집 제5권 2분책, 40페지)고 폭로하면서 그들이 첫째로, 착취의 원인을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둘째로, 사회주의에로 이르는 사회발전의 과정을 알지 못하며 세째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창조적힘으로서의 계급투쟁을 몰랐다고 지적하였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우경기회주의자들과 같이 사회배외주의적립장에 떨어졌으며 10월혁명후 로씨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여 악랄한 파괴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무정부주의의 진면모, 그의 반동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레닌과 쓰딸린의 사상, 리론적 및 실천적투쟁에 의하여 무정부주의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로동운동에 대한 그 영향력이 기본적으로 제거되였다.

무정부주의는 그후 점차 무정부주의적싼지칼리즘으로 전화되여갔다. 레닌과 쓰딸린은 이에 대하여서도 계속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그 반동적본질을 폭로하였다.

10월혁명이 승리한후 좌경기회주의와의 투쟁은 더욱 첨예한 성격을 띠게 되였다. 그것은 정세의 급격한 전환과 관련하여 로동운동내에서 소부르죠아적요소들의 동요가 격화되였고 제3인터나쇼날에 망라된 일부 공산당들에게 혁명투쟁의 경험이 부족하였던 사정과 관련되였다.

1918년에 쏘련공산당내에는 부하린, 라데크, 뺘따꼬브 등을 중심으로 한 《좌익공산주의자》들의 그루빠가 형성되였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즉시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혁명의 운명은 제국주의와의 동시적인 전투로써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과도적단계와 커다란 조직사업이 요구된다는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에 대한 급진적공격》의 방법으로 로씨야에 사회주의를 즉시 《도입》할것을 제창하였으며 《공동경환》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선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관주의적이며 모험주의적인 립장은 당시 불가피하였던 브레스트강화조약의 체결을 반대해나선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레닌은 로씨야 《좌익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된 조건과 관련하여 그들이 《…〈눈부신〉 구호에 매혹되여있으나, 세

로운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정세를 포착하지 못하고 전술의 신속하고도 급격한 변경을 요구하고있는 제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있다》(레닌전집 제26권, 555～556페지)고 하였다.

레닌은 이런 또는 저런 나라의 내부적조건의 타산이 없이, 프로레타리아트와 피착취자대중의 계급투쟁의 첨예화가 없이 외부로부터의 《충동》에 의하여 세계제국주의를 전복하려는것이 어리석은 망상이라는것을 지적하였다.

레닌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라 한 력사적시대의 조직사업을 요구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좌익공산주의자》들이 현실로부터 완전히 리탈되였고 소부르조아적인 조급성에 빠져있다는것을 엄격히 지적하였다.

레닌의 비판과 교양에 의하여 《좌익공산주의자》들의 그릇된 립장이 혁명에 큰 해독을 끼칠수 없게 되였으며 그 성원들의 적지 않은 부분이 자신의 오유를 인정하고 쏘련공산당의 정책을 지지하게 되였다.

1919년에 제3국제당이 결성된후 레닌은 이에 망라된 민족국가별 공산당들의 대열내에 발생한 《좌익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독일공산당과 영국, 이딸리아, 화란, 기타 나라 공산주의적조직들에서 나타났던 《좌익공산주의자》들은 조성된 객관적정세와 구체적력량관계를 타산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온갖 합법적투쟁과 《타협》을 거부하여나섰다. 그들은 직업동맹이나 협동조합들의 상층부가 반동적이라는 구실하에 거기에서 탈퇴하여 이러한 조직들을 파괴할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의회정치가 낡아버린것》이라고 하면서 부르조아의회에 참가하는것을 무조건 반대하여나섰다.

레닌은 이러한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을 집필하였다.

레닌은 《좌익공산주의자》들의 립장이 합법적무대에서의 간고한 계급투쟁을 회피하며 당을 대중으로부터 리탈시키는 종파주의적전술에 매여달리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직업동맹이나 협동조합은 비록 반동적조류의 영향하에 있는것이라 할지라도 대중이 망라되여있는 조직들이며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조직내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사업함으로써 반동적상층부의 영향에서 대중을 떼여내여 혁명적인 길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이러한 〈반동성〉을 겁내여 그것을 피하려 하며 그것을 건너뛰려고 시도하는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의 가장 뒤떨어진 층과 대중을 훈련하며 계몽하며 교양하며 또한 새생활로 인도하는데 있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대의 역할을 겁내는것을 의미하는 까닭이다》(레닌전집 제31권, 42페지).

레닌은 또한 아직 대중속에 부르죠아의회정치에 대한 편견들이 남아있는 한 공산주의자들은 의회내외에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의회가 로폐한것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거기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그릇된것임을 지적하면서 레닌은 《우리에게 있어서 로폐한것을 계급에게 있어서도, 대중에게 있어서도 로폐한것이라고 오인하여서는 안된다》(레닌전집 제31권, 52페지)라고 하였으며 의회투쟁을 통하여 대중을 각성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산주의운동에서의 타협문제와 관련하여 레닌은 적에게 투항하며 원칙을 위반하는 타협은 반대하지만 적을 고립시키고 동맹자를 획득하기 위한 타협전술은 능숙하게 리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레닌의 철저한 비판에 의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발로되였던 《좌익》소아병은 극복되였으며 제3국제당은 건전한 맑스—레닌주의적길로 발전할수 있었다.

⁂ ⁂

레닌과 쓰딸린이 활동하던 시기에 맑스주의의 특히 위험한 적으로 된것은 체계화된 《좌》경기회주의조류인 뜨로쯔끼주의였다.

뜨로쯔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좌》경모험주의이며 《극좌적》언사로 은폐된 투항주의이다. 《실제상의 투항주의가 내용이고 〈좌익적〉언사 및 〈혁명적〉—모험주의적행동이 그 투항주의적내용을 가리우며 또 광고하는 형식인것—이것이 뜨로쯔끼주의의 본질이다》(쓰딸린저작집 제12권, 497페지).

뜨로쯔끼는 단 한번도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립장에 서 본적이 없으며 좌왕우왕하면서 나중에 제국주의간첩, 파괴분자로 전락될 때까지 일생을 통하여 반혁명적활동에 종사하였으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그리고 국제로동운동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주었다.

뜨로쯔끼주의가 체계적으로 완성된것은 1920년대초였다. 이 시기는 10월혁명의 영향하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앙양되였던 혁명투쟁이 진압되고 자본주의의 일시적안정이 조성된 시기였으며 쏘련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하는것이 실천적문제로 제기된 때였다.

뜨로쯔끼는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혁명을 반대하여 공공연히 도전하여 나섰으며 갖은 모략과 책동을 감행하였다.

레닌은 뜨로쯔끼의 배신적정체를 간파하고 그의 반혁명적책동을 그때마다 단호히 폭로하고 물리쳤다.

레닌이 서거한후 쓰딸린은 쏘련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고 제3국제당사업을 령도하면서 레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였다.

쓰딸린은 《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 《레닌주의 제문제에 대하여》, 《10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 《우리 당내의 사회민주주의적편향에 관하여》, 《우리 당내의 사회민주주의적편향을 다시 한번 론함》을 비롯한 일련의 저서들에서 뜨로쯔끼주의의 기회주의적본질과 반동적정체를 폭로하였으며 당과 혁명에 도전하여나선 뜨로쯔끼주의자들의 종파집단을 조직적으로 철저히 분쇄하였다.

뜨로쯔끼의 좌경모험주의적립장은 그의 《영속혁명》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여있다.

《영속혁명》론의 첫째측면은 모든 혁명이 민주주의적혁명단계를 뛰여넘어 곧 사회주의혁명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며 둘째측면, 주되는 측면은 한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혁명정세의 성숙여하에 관계없이 구라파와 세계무대에서 동시에 사회주의혁명을 당장 실현하는데로 돌진할것을 주장한 황당한 리론이다.

뜨로쯔끼의 《영속혁명》론은 맑스의 계속혁명에 관한 사상을 외곡한 협잡물이다.

계속혁명의 사상은 맑스주의의 기본사상의 하나이며 그것은 레닌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였다.

레닌은 19세기말 20세기초에 로씨야의 구체적인 사회력사적조건을 분석한 기초우에서 사회주의혁명은 민주주의혁명을 전제로 하며 또 민주주의혁명은 불가피적으로 사회주의혁명에로 장성발전한다는 사상을 천명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하에서는 반제투쟁이 반봉건투쟁과 떼여놓을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또한 제국주의 그 자체가 민주주의일반을 부정하기때문에 로동계급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레닌은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에서 로동계급은 농민과 동맹하여 부르죠아지를 고립시키고 그후 전진하여 자본주의를 청산하여야 한다는 전략적원칙을 제시하였다.

민주주의혁명단계를 뛰여넘으려는 뜨로쯔끼의 궤변은 레닌의 이 전략전술적원칙을 반대하는것이며 로동자와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의 구호를 비방

중상한것이다.

뜨로쯔끼는 혁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사회주의적과업과 민주주의적과업간의 관계를 무시하고 제국주의시기의 로동계급에게 있어서는 오직 직접적인 사회주의혁명만이 있을수 있다는듯이 주장하면서 로동계급을 모험주의에로 내몰려고 책동하였던것이다.

레닌은 이러한 견해를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모험주의에 빠지지 않으며, 자기의 과학적량심을 배반하지 않으며, 안가한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다만 한가지를 말할수 있으며 또 말한다. 즉 우리는, 전체농민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그들을 도울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프로레타리아당이 새로운 그리고 고급한 과업인 사회주의혁명에로 될수록 빨리 넘어가는것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레닌전집 제9권 1분책, 376페지).

계속혁명에 관한 레닌의 리론의 정당성은 로씨야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완전히 확증되였다.

제국주의시기의 로동계급에 있어서는 오직 직접적인 사회주의혁명만이 있을수 있다고 주장한 뜨로쯔끼는 로씨야에서 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직접 일정에 나서게 되자 사회주의혁명의 수행을 정면으로 반대하여나섰다.

뜨로쯔끼는 한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의 리론을 반대하고 이에 《세계혁명》의 동시적수행이라는 모험적인 구호를 대치시켰다. 뜨로쯔끼는 문제는 오직 《세계적인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무대》에서만 해결될수 있으며 인류가 사는 위성전체에서 새사회가 건설되여야 해결된다고 하면서 한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은 세계혁명의 《에피소드》라고 하였다.

한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부인하는 뜨로쯔끼의 궤변은 제국주의에 대한 그의 그릇된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레닌은 자본주의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본질과 그의 력사적위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본주의국가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발전의 불균등성을 밝혀내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의 포위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도 사회주의혁명이 한나라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리론적으로 확증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제적 및 정치적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법칙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의 승리는 처음에는 소수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혹은 심지어 개별적인 한자본주의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레닌전집 제21권, 409페지).

이것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동시에 승리할것이라고 한 맑스의 리론을 제국주의시기의 새로운 조건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이며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천명한것이다.

그러나 뜨로쯔끼는 제국주의시기의 자본주의의 불균등적발전법칙을 거부하고 제국주의시기에는 독점이전시기보다 도리여 사회경제발전에서 《균등화》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어느 한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은 일어날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뜨로쯔끼는 한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레닌의 리론에 《구라파합중국》의 구호를 대치시켰다.

뜨로쯔끼는 1906년에 쓴 《우리 혁명》이라는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로씨야의 로동계급은 구라파로동계급의 직접적인 국가적지지가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수 없으며 자기의 일시적지배를 장기간의 사회주의적독재로 전화시킬수 없다. 이에 대하여서는 일순간도 의심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이것은 한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구라파의 로동계급이 정권을 전취하기전에는 불가능하다는것을 말한것이다.

또한 뜨로쯔끼는 1917년에 발표한 《평화강령》이란 소책자에서 한나라에서

사회주의승리는 불가능하며 사회주의 승리는 다만 《구라파합중국》으로 련합되는 구라파의 몇개의 중요한 나라(영국, 로씨야, 독일)들의 승리로써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단적으로 《로씨야나 영국에서의 혁명승리는 독일에서의 혁명없이는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며 또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쓰딸린은 뜨로쯔끼의 이러한 그릇된 견해를 반박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혁명적로씨야가 보수적구라파 앞에 견디여낼수 없으리라는 뜨로쯔끼의 성명은…어떠한 의의를 가질수 있는가?

이 성명은 다만 한가지 의의만을 가진다. 즉 첫째로, 뜨로쯔끼는 우리 혁명의 내부적위력을 느끼지 못하며 둘째로, 뜨로쯔끼는 서방의 로동자들과 동방의 농민들이 우리 혁명에 주는 그 정신적지지의 무한한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며 세째로, 뜨로쯔끼는 현재 제국주의를 좀먹고있는 그 내적병집을 발견하지 못한다는것이다》(쓰딸린선집, 제1권, 426~427폐지).

오직 세계프로레타리아혁명의 동시적 폭발에만 기대를 걸며 《혁명을 린접국에 확대하고 그곳에서 손에 무장을 들고 반란을 지지하여야 한다》고 한 뜨로쯔끼의 《좌》경모험주의는 실제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모순과 취약성을 보지 못하고 제국주의세력을 과대평가하며 반대로 국내혁명력량을 과소평가하는데로부터 출발한 투항주의였다.

로씨야에서 10월혁명의 력사적승리는 레닌의 천재적예견과 그의 학설의 정당성을 생활로써 확증하였으며 뜨로쯔끼의 반동적리론의 파산으로 되였다.

덮어놓고 《세계혁명》을 위하여 돌진하여야 한다고 한 뜨로쯔끼의 주장은 혁명정세에 대한 극단한 주관주의적평가에 기초하고있다.

그는 제국주의시대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혁명정세가 최고도에 달하였으며 따라서 아무데서나 폭동을 일으키면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하였다.

뜨로쯔끼는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무시하였으며 다른 나라에 혁명을 《수출》할것을 강요하였다.

뜨로쯔끼주의자들은 지어 《정세의 열쇠》는 《당의 수중》에 쥐여져있다느니, 《자본주의의 일시적안정기는 리용되지 않는 혁명정세에 불과하다》느니 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선동하였다.

뜨로쯔끼는 한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승리의 가능성을 부인하였을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도 부인하였다.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당시 실천적으로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여있었다.

레닌은 맑스주의리론과 혁명적실천의 경험에 기초하여 한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능히 가능하다는것을 천명하였으며 그 길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뜨로쯔끼는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이 《세계 자본주의지옥가운데서 오아시스와 같은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려는 공상에 불과하다느니, 《애국적사회주의》니, 《민족공산주의》니 하면서 레닌의 리론을 반대하였으며 쏘련공산당의 사회주의건설계획과 그 방침을 반대하였다.

뜨로쯔끼는 한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론거》로서 정치적면에서는 쏘련이 보수적구라파에 대항하여 나갈수 없고 제국주의의 군사적침략으로 평화적건설의 시기가 있을수 없으며 파도기는 부단한 내부투쟁과 충돌로 하여 사회의 균형이 유지될수 없기때문에 경제를 건설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또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생산력발전에 대한 《리론》을 내놓았다.

뜨로쯔끼는 제국주의시기에 생산력은 《국제적》성격을 띠며 어느 한나라도 외부의 지원이 없이 자체의 힘만으로는 사회주의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의 발전수준에 도달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국제적》성격을 가진 사회

주의경제를 한나라에서 건설하는것은 《민족국가의 틀》과 서로 모순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므로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뜨로쯔끼는 구라파의 여러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동시에 승리하여 경제적으로 련합되여야만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50년이나 100년, 몇대가 걸려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였다.

레닌은 《협동조합에 관하여》와 기타 일련의 저작들에서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에 대하여 로동계급의 수중에 주권이 있고 생산수단이 장악되여있으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이 있다는것,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전부라고 가르쳤다. 또한 국제적조건으로서 제국주의국가들간의 모순, 국제로동계급의 지지, 식민지민족들의 혁명투쟁 등을 지적하였다.

쓰딸린도 쏘련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수립, 로농동맹,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의 형성에 근거하여 쏘련 한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보장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론증하였다. 이와 함께 쓰딸린은 국제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부르죠아제도의 복구의 위험성을 낳게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불가능하게 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쓰딸린은 《사회주의경제는 가장 통일되고 집중된 경제라는 사실과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들은 과연 사회주의경제가, 내적모순들로 하여 분렬되며 공황으로 하여 붕괴되고있는 자본주의경제제도보다 우월하다는것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립증할 모든 유리한 점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는것이 아닌가?

사실이 이러한 이상 여기서 50년이나 100년이라는 전망을 내세우는것은 겁에 질린 속물들이 자본주의경제제도의 전능을 허황하게 믿고 있음을 의미한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쓰딸린선집 제2권, 330~331페지)고 하면서 뜨로쯔끼의 황당한 견해를 비판하였다.

뜨로쯔끼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대립시키면서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건설은 계급의 폐절을 의미하는것만큼 국가와 군대가 량립할수 없는데 제국주의가 있는 한 국가와 군대를 보존하여야 하니만큼 그와 량립될수 없는 경제적기초건설은 할수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다른 한편 소위 《순공업주의》를 떠들면서 도달된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바녀동안에 공업화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황당하고 극단한 주관주의적주장을 들고나왔다.

이러한 뜨로쯔끼의 주장들은 사회주의건설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려는 파괴책동이였다.

쏘련의 로동계급과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이 모든 반혁명적책동을 격파하고 레닌이 가리킨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였으며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건설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뜨로쯔끼주의의 반혁명적본질은 맑스주의의 초석을 이루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비방한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맑스—레닌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은 오직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로동계급의 계급투쟁의 요구이며 모든 계급을 철폐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라고 가르쳤다.

로동계급의 계급적해방과 계급사회의 근본적청산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강력한 정치적지배가 없이는 실현될수 없다. 그것은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고 수천년간의 계급사회에서 형성된 모든 낡은것을 철저히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과업들을 해결할수 없기때문이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사상은 전세계사적교훈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맑스는 모든 혁명의 이력사적 경험을, 이 전세계사적—경제적, 정치적—교훈을 프로레타리아독재라는 날카롭고 정착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공식으로 개괄하였다》(레닌전집 제27권, 329페지).

레닌은 또한 《계급투쟁의 승인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승인에까지 확장시키는 사람만이 맑스주의자인것이다…이 시금석으로써 맑스주의에 대한 진정한 리해와 승인을 시험하여야 한다》(레닌전집 제25권, 521페지)고 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본적측면을 가진다고 가르쳤다: 《① 착취자들의 진압과 국토의 방위와 또한 다른 나라의 프로레타리아들과의 련계의 강화와 전세계에서의 혁명의 발전 및 승리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정권을 리용하는것.

② 부르죠아지로부터의 근로 및 피착취대중의 종국적인 분리, 이 대중과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동맹의 공고화, 사회주의건설사업에의 이 대중의 인입 및 이 대중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적지도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정권을 리용하는것.

③ 사회주의의 조직, 계급의 청산, 계급이 없는 사회,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정권을 리용하는것》(쓰딸린저작집 제8권, 41페지).

그런데 뜨로쯔끼는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관료화된 관료기구라고 비방하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거부하였으며 지어 당의 령도를 《개인의 독재》라느니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독재》라고까지 악랄하게 중상하였다. 그러면서 뜨로쯔끼는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농민이 민주주의를 요구하여나서는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라고 떠벌렸다.

뜨로쯔끼는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구성부분인 로농동맹을 거부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대립시켰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프로레타리아독재는 근로자들의 전위대인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자들의 수많은 비프로레타리아층(소부르죠아, 소경영자, 농민, 인테리겐챠 등등)과의 혹은 그들의 대다수와의 계급적동맹, 자본을 반대하는 동맹… 사회주의의 종국적건설과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의 특수한 형태이다》(레닌전집 제29권, 456페지).

로농동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현하고 공고히 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따라서 로농동맹을 거부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는것으로 된다.

뜨로쯔끼는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시기의 계급투쟁에 대하여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뜨로쯔끼의 《리론》에 의하면 생산이 발전하고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분배로 수입에서 차이가 생기기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불가피하게 도시와 농촌에서 《부르죠아적요소》들이 자라고 강화되며 《부르죠아사회에 특이하게 존재하는 일체 관계와 습관이 재생》하고 확대된다는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사회주의사회가 적대적모순에 찬 사회이며 《도시와 농촌사이에, 집단농장과 개인농민 사이에, 프로레타리아트의 각이한 계층 사이에, 모든 근로대중과 관료배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고 떠벌렸으며 부단한 내부적충돌을 통하여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는듯이 부르짖었다.

사회주의하에서도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계급분화가 일어나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되살아나며 계급들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 뜨로쯔끼의 주장은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이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본주의사회는 로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에, 농민들과 지주들 사이에 조화될수 없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분렬되며 그것이 자본주의사회의 내부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이때, 착취의 기반에서 해방된 쏘베트사회는 이와 같은 모순들을 알지 못하며 계급적충돌이 없으며 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의 우의적협작의

진상을 보이고있다》(《레닌주의의 제문제》, 999~1000페지).

그리고 이러한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룩되는 인민들의 정치도덕적통일, 사회주의적애국주의 등이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을 그릇되게 평가하고 일면적으로 절대화한 뜨로쯔끼는 투쟁의 예봉을 직접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는데 돌려야 한다고 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뜨로쯔끼의 악명높은 《제2의 보충혁명》론은 바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며 전복하자는것이였다.

이 모든 사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며 와해시키려고 발광한 뜨로쯔끼의 반혁명적본질과 요란스럽고 공허한 언사의 그늘밑에서 자본주의의 복구를 쉽게 하려고 책동한 그의 투항주의적정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뜨로쯔끼주의자들은 혁명의 전략과 전술문제에서도 극좌적인 모험주의를 들고 나왔다.

뜨로쯔끼주의자들은 사회발전의 구체적조건과 혁명의 주객관적요인을 고려함이 없이 사회주의혁명의 수행방도로서 폭력적방법을 절대화하였다. 뜨로쯔끼는 폭력과 전쟁만이 혁명을 촉진시킬수 있다는 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도처에서 로동계급을 폭동과 전쟁에로 내몰것을 주장하였다.

맑스는 로동계급이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폭력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제를 내놓으면서 《비판의 무기는 물론 무기에 의한 비판을 대신할수 없다. 물질적힘은 같은 물질적힘에 의하여 전복되여야 한다》(맑스, 엥겔스전집 제1권, 475페지)고 하였다.

레닌도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폭력이 기본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폭동을 절대로 희롱하지 말며 신중하게 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폭동은 음모나 그루빠에 의거할것이 아니라 선진적계급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첫째이다. 폭동은 인민의 혁명적앙양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둘째이다. 폭동은 장성하는 혁명의 력사가운데서 인민의 선진적부대의 적극성이 절정에 달한 때인, 적의 대렬과 그리고 불철저하며 우유부단한 혁명의 연약한 벗들의 대렬내에서 동요가 가장 심한때인 급전기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세째이다》(레닌전집 제26권, 6페지).

레닌은 또한 투쟁형태는 대중의 의식정도, 혁명적부대의 준비정도, 전통, 객관적조건 그리고 적들의 무력사용정도를 옳게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폭력을 절대화하고 우회, 적들 사이에 있는 리해관계의 모순의 리용, 가능한 동맹자들과의 협조와 타협을 미리부터 거부하는 《좌》경모험주의자들의 책동의 해독성을 폭로하였다.

뜨로쯔끼주의자들의 극단한 《좌》경모험주의적립장은 로동계급의 통일과 로농동맹에 관한 문제, 통일전선문제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대한 문제들에서도 나타났다.

로동계급의 행동통일의 보장과 로농동맹, 각이한 계급, 계층과의 통일전선의 실현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전략전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뜨로쯔끼는 로동계급의 각이한 계층간의 행동통일과 로농동맹을 무조건 반대하였으며 다른 계급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가능한 동맹자와 타협하는것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그는 영국공산주의자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은 로동조합과 련계를 맺는것을 반대하였으며 1925년에 쏘련과 영국의 로조간에 《영로위원회》를 조직하는것도 반대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며 모든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행동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각이한 조직—정당, 로동조합, 협동조합, 청년단체, 녀성단체 등등과 협정을 체결하는것이 필요하며 지어 파쑈조직내의 로동자들과도 접촉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혁명에

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민에 대한 문제, 농민을 로동계급의 편에 전취하는 문제이며 혁명의 운명과 프로레타리아혁명의 견고성이 바로 이 문제의 옳은 해결여부에 크게 달려있다는것과 로동계급은 능히 농민을 전취하고 그들과의 동맹을 강화할수 있으며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런데 뜨로쯔끼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리해관계는 대립되고, 농민은 사회주의에로 나갈수 없는것으로 보았으며 로농동맹을 주장하는것은 기회주의이며 우경을 범하는것이라고까지 비난하였다. 그는 1922년에 쓴 《1905년》이라는 책에서 정권을 잡은《로동계급의 전위대는 그 혁명투쟁의 초기에 그를 지지한 온갖 부르죠아집단은 물론 그가 정권을 잡도록 도와준 광범한 농민대중과도 적대적충돌을 하게 될것이다》라고 썼던것이다.

쓰딸린은 이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뜨로쯔끼주의의 기본적죄과는 그것이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전취 및 공고화의 사업과 개개의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사회건설사업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농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에 관한 레닌적사상을 리해하지 못하며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 이를 승인하지 않는데 있다》(쓰딸린저작집 제10권, 101페지).

뜨로쯔끼의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로동계급의 통일을 방해하고 동맹자들을 고의적으로 적대시하며 당을 광범한 대중으로부터 리탈시키려는것이였으며 적을 도와주고 혁명력량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였다.

통일전선문제에 대한 뜨로쯔끼주의자들의《극좌적인》모험주의는 1930년대 반파쑈인민전선운동에 대한 태도에서 우심하게 나타났다.

통일전선로선을 반대한 뜨로쯔끼주의자들의 구실은 모든 련합이 언제나 대중운동을 계급협조에로 나가게 하며 그것이 세계혁명발전에 제동기를 거는것으로 된다는것이다.

뜨로쯔끼는 지어 반파쑈인민전선을《제국주의적부르죠아와의 결탁》이라느니《부르죠아독재를 구원하여주는 투항전술》이라느니 하면서 폭동을 조직하지 않고 통일전선정책을 쓴다고 제3국제당을 비난하였으며 당이 파쑈의 길을 열어준다고까지 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통일전선운동의 반파쑈민주주의적성격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뜨로쯔끼주의자들의 반동적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였다.

뜨로쯔끼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의 역할을 믿지 않고 경멸적으로 대하였으며 민족해방혁명에서 농민과 민족부르죠아지들을 반동적력량으로 보고 그들을 로골적으로 배척하였다.

뜨로쯔끼는 제국주의시기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은 민주주의단계를 뛰여넘어 단번에《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획득》에 이를수 있는듯이 주장하였다.

레닌은 이 황당한 주장을 반박하여 제국주의가 지배하며 봉건세력을 비롯한 반동세력들이 그를 추종하고있는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는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이 목전의 과업으로 제기되며 여기에는 그 나라의 로동자들과 주민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기타 층들이 직접적리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며 따라서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불가피하게 민주주의적성격을 띠지 않을수 없다고 가르쳤다.

뜨로쯔끼는 그의 그릇된 리해로부터 출발하여 식민지나라 민족부르죠아지를 예속부르죠아지와 같은 계렬에 놓고 그들을 혁명의 대상으로 선포하였으며 로동계급이 민족부르죠아지와 동맹하는것은 부르죠아지에 대한《더 이상 없는 원조》로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전략적후비군인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을 떼여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진지를 약화시키려는것이였다.

뜨로쯔끼의 이러한 립장은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있어서 로동계급을 통일

자가 없는 상태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결국 투쟁을 실패에로 이끌어가게 하는 반동적인것이였다.

뜨로쯔끼는 가장 악질적인 분렬주의자였으며 최악의 분파주의자였다.

그의 활동은 볼쉐위크당과 국제로동운동 및 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는 종파적분렬파괴책동으로 일관되였다.

레닌은 뜨로쯔끼의 분파주의의 특징이 《명목상의 통일의 승인과…사실상의 그루빠적분립》이라고 신랄히 폭로하였으며 쓰딸린은 레닌과 레닌주의를 헐뜯고 깎아내리는데 있어서 뜨로쯔끼주의와 비길만한 조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뜨로쯔끼는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폐하고 분파활동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면서 쏘련공산당내에서 반당분파활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이 창건된후 뜨로쯔끼는 레닌적조직원칙을 반대하였으며 1905년혁명이 실패하고 쓰똘리삔반동기가 도래하자 《청산파》와 결탁하여 당을 반대하였다. 또한 1912년에는 《8월쁠럭》을 형성하여 당의 통일을 파괴하려 하였으며 10월혁명이 승리한이후에도 지노비예브도당과 쁠럭을 조작하여 당을 반대하여 로골적으로 진출하였던것이다.

국제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뜨로쯔끼의 분렬주의책동은 무엇보다도 제3국제당과 그 혁명적로선을 반대한데서 표현되였다.

특히 뜨로쯔끼는 레닌의 서거후 공개적으로 국제당에 도전하여나서면서 국제당을 허물고 공산주의운동을 분렬시키기 위한 길에 로골적으로 들어섰던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령도권》을 참망한 뜨로쯔끼의 종파적분렬책동은 그가 국외로 추방된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되였다.

뜨로쯔끼주의자들은 이러저러한 나라들에서 로동운동으로부터 떨어져나간 변절자들, 제국주의에 매수된 간첩들, 지어는 로동계급의 공개적인 원쑤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규합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대렬을 분렬시키려고 백방으로 책동하였으며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발전을 가로막기 위하여 온갖 파괴음모책동을 다하였다.

뜨로쯔끼주의자들은 1938년 9월에 소위 《제4국제당》이라는것을 조작하였는데 이것은 국제반혁명조직이였으며 《국제당》의 이름을 사칭한 종파간첩집단이였다.

이와 같이 종파와 분렬활동을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서슴지 않은 뜨로쯔끼는 드디여 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고 와해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앞잡이로 전락하였다.

모든 사실은 뜨로쯔끼주의자들이 철두철미 레닌주의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배신자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극악한 원쑤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4

레닌과 쓰딸린은 맑스와 엥겔스가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온갖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으며 맑스주의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고 제국주의시대, 프로레타리아혁명시대의 새로운 환경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켰다.

레닌은 우경기회주의가 국제로동운동에서 항상 《주되는 위험》으로 되여왔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좌》경기회주의는 우경기회주의의 그림자이며 이와의 투쟁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이 우경기회주의에 못지 않은 위험성을 조성한다고 가르쳤다.

쓰딸린은 《좌》우경기회주의의 어느것이 주되는 위험으로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좌익적〉외곡자들의 오유는 당내에 있어서의 우익적편향을 강화하며 공고화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는 그런 오유라는 점에 있다…우익편향자들에게 이러한 지반을 주는것은 〈좌익적〉외곡자들, 그들의 오유 및 외곡이다. 그렇기때문에 우익기회주의와 성공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좌익〉기회주의자들의 오유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좌익〉외곡자들은 객관적으로는 우익편향자들의 동맹자인것이다》(쓰딸린저작집 제12권, 307페지).

국제로동운동,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맑스—레닌주의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발전하고 승리하여왔으며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간에 투쟁이 전개되는한 기회주의와의 투쟁이 존재하며 계속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나라들에서 기회주의의 사회계급적근원은 청산되였으나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그것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나타날수 있다.

레닌은 기회주의의 재생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혁명적인 당들이 그 위험성을 《리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시인하는것 그것만으로는…옛날의 과오로부터 벗어날수 없다. 이 과오들은 언제나 상상치 못하던 원인들에 의하여, 다소 새로운 형태를 띠고…나타나군 하는것이다》(레닌전집 제31권, 18페지)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쓰딸린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구체적인 제조건에서 주되는 위험성을 능숙하게 갈라내여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익 및 〈극좌익〉과의 투쟁문제는 공평의 견지에서 고찰할것이 아니라 정치적모멘트의 요구의 견지에서, 소여의 매개 모멘트에 있어서 당의 정치적요구의 견지에서 고찰하여야 하는것이다》(쓰딸린저작집 제8권, 1페지).

레닌과 쓰딸린은 제국주의자들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여 온갖 가능한 수법을 다 리용하며 혁명운동이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 그들의 책략이 더욱 악랄하여질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공산당들이 경각성을 높이며 정치적 순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레닌은 일찌기 기회주의와의 투쟁원칙을 천명하면서 이 투쟁은 매개 나라의 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자주적태도를 무시하고 틀에 몰아넣거나 어느한 개별적당의 립장에 따라세우려는 경향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문제는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기회주의 및 〈좌익적〉공론과의 투쟁의 기본적원칙적임무를 충분히 의식적으로 참작하는 동시에 개별적국가에서 그의 경제, 정치, 문화, 그의 민족적구성, 그의 식민지, 그의 종교분파 등등의 특이점에 따라 이 투쟁이 띠고있는 또한 반드시 띠여야 할 그 구체적 제특성을 충분히 의식적으로 참작하는데 있다》(레닌전집 제31권, 97페지).

이 모든것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한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의 고귀한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위대한 맑스—레닌주의학설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것이다.

근로자 제9호 (루계 295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66년 9월 15일 발행 • 1966년 9월 20일

ㄱ—63315 값 50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 호

평양 근로자사 1966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0 호 (296)

차 례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동지의 보고

(전원 총기립,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동안 장내를 진동하는 가운데 등단)

동지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매우 복잡합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장성하는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더욱더 발악하고있으며 국제정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으며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지며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맞게 당의 대내외활동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검결히 싸워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표자회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토의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1. 국제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동지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력량, 민족해방운동, 로

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은 계속 장성하고있습니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습니다. 제국주의는 이 지역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있으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습니다.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낡은 세계를 짓부시고 새세계를 창조하는 혁명위업에서 새로운 승리들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의 장성과 식민지체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습니다. 제국주의의 내부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간의 갈등이 격화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혁명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일정한 곡절이 없을수는 없으나 전반적정세는 의연히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력량에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결코 자진하여 력사무대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제국주의는 아직도 위험한 세력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평화를 교란하고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54년의 제네바협정을 란폭하게 짓밟고 남부웰남에 더욱 많은 무력을 끌어들여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는》 초토화작전을 감행하고있으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이미 하노이와 하이퐁 지역에까지 확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웰남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계단식전쟁확대》정책이 새로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미국침략자들은 우리 나라 남반부를 강점하고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인민중국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남조선괴뢰들과 결탁시켰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획책하고있습니다.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본전략은 더욱더 많은 미국무력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자기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아세아에서의 혁명력량

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는데 있습니다. 미국침략자들의 이와 같은 책동은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키며 전반적세계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발광하고있는것도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력량이 장성하고 반제혁명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반이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도 앙양되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드시 쫓겨나고야 말것이며 결국은 멸망하고야 말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제국주의의 완전한 멸망은 불가피한것입니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은 미제국주의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전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더욱더 확증하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 광범한 반제력량을 동원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집중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선차적인 과업입니다. 오직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를 달성할수 있습니다.

미제에 대한 태도는 현시기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립장을 검열하는 중요한 척도로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에 대하여 더 땡땡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국제문제들에서 원칙을 버리고 미제와 타협하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다 하여 여기에 반제투쟁을 용해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반제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외교에서도 응당 계급적원칙을 견지하고 미제에 압력을 가하며 그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하고 규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제를 반대한다고 큰소리만 치고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구체적행동을 취하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 더우기 반제력량이 단합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는데 난관을 조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지 못할뿐아니라 도리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더욱 오만하고 횡포하게 만들며 결국 그들의 침략행위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정책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방

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도 결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제투쟁을 전개하여야만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시킬수 있으며 평화를 수호할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웰남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며 조선, 꾸바, 동부독일 등 분렬되여있는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는데 대하여 응당한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침략에 힘을 집중하기 위하여 구라파에서는 정세를 일시 완화 또는 고착시키려고 획책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 전선에서의 긴장상태의 완화가 전반적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다른 전선에서 침략을 강화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줍니다. 따라서 그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더욱 큰 위협으로 됩니다.

현정세에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 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이러저러한 지역과 나라들에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을 각개 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습니다. (박수)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과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미제의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급속히 재생되고있으며 일본과 서부독일은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온상으로 자라나고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재생과 그의 복수주의적야망을 반대하며 그것을 적극 추동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을 견결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독일인민의 투쟁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고있습니다. (박수)

구라파에서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는 동시에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구라파에서 미제와 함께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처럼 아세아에서도 응당 미제와 함

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있습니다. 일본의 사또정부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조선과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짜놓고있을뿐아니라 이미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제와 일본사또정부와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는 쌍무적군사협정들을 통하여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고있습니다. 사또정부는 미제의 윁남침략의 적극적인 가담자로 되고있으며 미국의 주문에 의하여 남부윁남에 각종 무기를 비롯한 많은 군수기자재를 공급하고있습니다. 일본은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에서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로 복무하고있습니다.

사또정부는 미제의 사촉밑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조》, 《공동개발》, 《경제기술적협력》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시하여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그의 침략적야망을 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특히 일본사또정부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을 철저히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합니다.

물론 미제국주의와 일본지배층사이에는 일정한 모순이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일간의 모순이 앞으로 격화되는 경우에 그것을 반제투쟁의 리익에 맞게 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일관계를 전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제와 일제는 서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아침략에 대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종속적동맹관계에 얽혀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하고있습니다. 미일간의 모순을 과대평가하고 그들간의 종속적동맹관계를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일본지배층에 대하여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게 아무러한 기대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않고 사또정부와 가까이하는것은 사실상 일본지배층의 해외팽창을 고무하여주며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여주는것으로 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과 경제적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으나 일본지배층과 정치적문제를 가지고는 어떠한 흥정도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사또정부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일본인민의 리익과 전반적인 반제투쟁의 리익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오늘 일본인민은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며 일본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

군국주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세계평화의 위업에 기여하고있습니다. (박수)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견결히 규탄합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남조선에 대한 그의 침략은 단호히 저지되여야 하며 미제의 조종밑에 체결된 《한일조약》은 페기되여야 합니다. 일본은 미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과 민주주의의 길로 발전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일본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일본공산당을 선두로 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렁찬 박수)

미제국주의자들의 웰남침략과 그것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은 현시기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의 투쟁에서 초점으로 되고있습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은 비단 웰남인민을 반대하는것일뿐아니라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침략이며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도전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입니다.

웰남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단호히 분쇄하며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떠섰습니다. 그들은 침략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줌으로써 미제를 곤궁에 몰아넣고있습니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이미 국토의 5분의 4와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였으며 북부웰남인민들은 미제공중비적들의 야만적폭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있습니다. 남북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인민들의 모범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본대표자회의 이름으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항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있으며 영웅적위훈을 세우고있는 형제적남북웰남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전투적인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웰남인민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피흘려 싸우고있습니다.

미제의 웰남침략과 그것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제국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는가 안하는가,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는가 안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됩니다. 웰남문제에 대한 태도는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민족리기주의를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정의의 해방전쟁을 백방으로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웰남민주공화국이 미제의 침략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미제와 더욱 날카롭게 맞서서 투쟁하여야 하며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동요와 소극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응당 힘을 합쳐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원하여야 할것이며 공동으로 미제의 웰남침략을 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주의진

영나라들은 호상간의 의견상이로 하여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윁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일치한 보조를 취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싸우는 윁남인민을 괴롭히고있으며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윁남민주공화국이 미제의 침략을 받고있는 이 시각에 형제당들은 윁남문제를 가지고 론쟁만 하고있을수 없습니다. 윁남문제의 주인은 윁남로동당입니다. 윁남로동당외에 그 누구도 윁남문제를 가지고 좌지우지할수 없습니다. 형제당들은 윁남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윁남로동당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윁남로동당의 립장을 지지하여야 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윁남민주공화국에 주는 형제나라들의 원조에 대하여서도 누구보다도 윁남로동당이 정확한 결론을 내릴수 있으며 형제당들은 그것을 응당 존중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오늘은 과거에 쏘련이 단독으로 혁명하던 때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에는 아직 세계에 다른 사회주의나라가 없었던만큼 쏘련은 무기를 비롯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대한 사회주의진영이 있는 조건에서 무엇때문에 윁남인민이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어려운 전쟁에서 형제적 사회주의나라들이 주는 원조를 받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나라들은 윁남민주공화국에 원조를 줄 의무가 있으며 윁남인민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윁남인민에게 주는 원조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효과적으로 리용된다면 그것은 오직 좋은 일이며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윁남에서 미제를 패배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형제나라들이 윁남민주공화국에 더 많은 원조를 주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우리는 이렇게 하는것이 실지로 미제의 윁남침략을 반대하는 혁명적립장이며 진정으로 윁남인민을 돕는 국제주의적립장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렁찬 박수)

지금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윁남인민을 정치적으로만 지지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윁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여야 합니다. 미제가 자기의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끌어들여 윁남민주공화국에까지 침략을 확대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진영의 동남방초소를 보위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윁남에 지원병을 파견하여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형제적윁남인민에 대한 사회주의나라들의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그 누구도 사회주의나라들이 윁남에 지원병을 보내는것을 반대할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윁남인민을 도와 미제의 윁남침략을 분쇄한다면 미제국주의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빠지게 될것이며 아세아를 비롯한 세계각국에서의 혁명운동은 크게 앙양될것입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윁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며 윁남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윁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윁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지원병을 파견하여 윁남형제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있습

니다. (우렁찬 박수)

웰남문제의 유일하게 정당한 해결방도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 항목 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5개 항목 성명입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웰남인민의 이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새로운 전쟁확대음모를 가리기 위하여 《평화협상》의 기만극을 벌려놓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어떤 기만술책으로도 자기의 추악한 침략적정체를 가릴수 없습니다. 우리는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협상》에 관한 그들의 기만책동을 규탄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모든 침략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남부웰남에서 자기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와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합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과 사회주의나라들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들은 더욱 커다란 참패를 당할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정의의 위업에 일떠선 웰남인민의 편에 있으며 미제침략자들은 반드시 패망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현시기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꾸바혁명을 보위하는것입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국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입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진영을 서반구에까지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입니다. 꾸바공화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의 기지로 되고있습니다.

오늘 꾸바인민은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투쟁의 선두대렬에서 확고하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꾸바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발책동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꾸바혁명을 보위하는것은 사회주의진영나라들과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형제적꾸바인민의 혁명위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꾸바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혁명의 리익을 최고의 법칙으로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은 꾸바에 대하여 결코 달리는 행동할수 없습니다.

꾸바가 사회주의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형제당, 형제나라들은 그것을 환영하여야 할것입니다. 꾸바혁명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혁명의 리익이 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꾸바가 처한 사정과 꾸바공산당의 립장에 대하여 충분한 리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꾸바문제는 누구보다도 꾸바공산당이 잘 알며 꾸바공산당만이 꾸바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정책을 세울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어느 사회주의나라든지 꾸바공산당의 정책을 존중하며 꾸바인민의 투쟁을 지원할 의무가 있을뿐입니다. 꾸바공산당과 인민에게 압력을 가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혁명력량을 분렬시키는 일은 없

어야 할것입니다. (박수)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기치를 들고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정확히 령도
하고있으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꾸바공산당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또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과 인민은 꾸바를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
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꾸바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꾸바공산당 및 인민
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거대한 혁명적변
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
며 세계평화의 강유력한 요인입니다.
민족해방운동의 전례없는 앙양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달성하였
으며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직도 식민주의의 억압밑에 있는 나
라 인민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순순히 물러가려 하지 않을뿐 아니라 한치
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고 예속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제국주
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있으며 신
생독립국가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여내기 위한 파괴활동을 감행하고있습니
다. 그들은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는 동시에 《원조》를 미끼로 신생독립국가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내부를 와해시키려 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파괴활동과 전복음모는
더욱 격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동들을 매수하고 규합하여 진보적력량
을 반대하게 하며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려 하고있습니다. 그
리하여 이 나라들로 하여금 내부적으로는 혁명력량을 탄압하며 외부적으로는 사회
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반제력량을 와해시키는데로 나아가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례로서 인도를 들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인도의 반
동세력은 나라를 더욱더 우경에로 이끌어가려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이 장성하고 혁명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그 영향이 국내의
헐벗고 굶주린 인민대중에게 미칠것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도의
반동세력은 국내에서 진보적력량을 탄압하는 한편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
키고있습니다. 이것으로써 그들은 국내에서 심해가는 사회적 및 계급적모순을 덮
어버리고 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며 외부에서 혁명적영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반동세력이 국내의 진보적력량을 탄압하
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여 적대행동을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응당 경계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의 인도네시아사태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우익반동세력에 의하여 공산당과 진보적사회단체들이 비법화되고 수많은 공산당원들과 진보적인사들이 검거, 투옥, 학살되고있으며 계속 반공소동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의 일환으로서 그의 추동밑에 진행되고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공산당과 민주력량에 대한 우익반동세력의 탄압과 학살행위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우경에로 돌려세우려는 미제국주의와 국내 반동세력의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도네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진보적력량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렁찬 박수)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태발전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심각한 교훈으로 됩니다. 그것은 공산당을 비롯한 혁명력량이 장성하면 할수록 이것을 말살하려는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의 발악이 더욱 심하여진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가져야 하며 있을수 있는 적들의 폭압에 대처하여 언제나 조직사상적으로, 전략전술적으로 준비되여있어야 할것입니다. 혁명은 복잡하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요구합니다. 오직 혁명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과학적이고 면밀한 투쟁방침을 세우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결정적투쟁을 전개할 때에만 혁명이 승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혁명운동의 이와 같은 경험과 교훈을 깊이 명심하여야 하며 자신의 혁명투쟁에서 그것을 잘 살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청산하고 인민들이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민족해방의 길은 간고한 투쟁의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필사적인 반항도 받게 되며 수많은 난관과 시련도 겪게 됩니다.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 앞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분쇄하며 제국주의 및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은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박수)

우리 당과 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견

결히 규탄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라오스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독립, 중립, 령토완정을 위한 캄보쟈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콩고(킨), 베네수엘라 인민들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또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과 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동지들! 최근년간에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수정주의와 교조주의는 국제혁명운동의 발전도상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함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좌우경기회주의와의 투쟁속에서 발전하여왔으며 승리하여왔습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의 길에서는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는한 그 반영으로서 로동운동내에 좌우경기회주의가 나타나며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게 되는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좌우경기회주의는 로동운동내에 나타난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사상입니다. 그것은 두 극단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외곡하며 혁명에 해를 줍니다. 우리는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두 전선에서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현대수정주의는 《정세의 변화》와 《창조적발전》이라는 구실밑에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하고 그 혁명적진수를 거세합니다. 그것은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계급협조를 설교하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합니다. 현대수정주의는 또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사회적 및 민족적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각방으로 방해합니다.

물론 현대수정주의는 맑스—레닌주의당들의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미 심대한 타격을 받고 내리막길을 걷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수정주의가 완전히 극복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수정주의는 아직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큰 위험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앞에서 나약성을 보이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소극적으로 대하는데서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현대수정주의와 함께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좌경기회주의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명제들을 교조주의적으로 되풀이하며 초혁명적인 구호를 들고 사람들을 극단적인 행동에로 이끌어갑

니다. 또한 그것은 당을 군중으로부터 리탈시키며 혁명력량을 분렬시키며 주되는 적에 공격을 집중할수 없게 합니다.

좌경기회주의가 조장되면 그것도 개별적당이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현대수정주의에 못지 않게 큰 위험으로 될수 있습니다.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는 반제력량을 단결시켜 제국주의와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없으며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잘할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대수정주의와 좌경기회주의는 다 같이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좌경기회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않는것도 잘못이며 또한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현대수정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옳게 지도할수 없으며 국제혁명운동을 힘있게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있습니다. 우리 당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단결의 기치를 고수하여 나아갈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기회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단결을 부인하는 좌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되며 단결을 수호한다고 하여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우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됩니다. 우리 당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현시기 인류력사발전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입니다. 통일되고 강력한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존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제어하며 전세계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하여줍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과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으며 또 감행하고있습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진영을 공동으로 보위하는것이며 그러자면 사회주의진영이 하나로 굳게 통일되여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진영은 내부의 의견상이로 하여 전일적인 대오로, 단합된 력량으로 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세계혁명운동과 국제정세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며 그 통일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진영에 혁명을 배반한자들을 끌어들여도 안되며 사회주의진영에서 이러저러한 나라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여도 안됩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사회주의진영을 와해시키는 행동으로 됩니다. 우

리는 전세계 로동계급의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진영을 마사버리게 할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것은 사회주의진영의 운명과 국제혁명운동의 전도와 관계되는 원칙적문제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진영을 그 어떤 다른 성격의 협동체로 바꾸어놓을수 없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찌또집단을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대렬에 끌어들이는것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찌또집단은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하고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으로부터 떨어져나갔으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선언과 성명을 반대하고있으며 국제혁명운동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으로써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들어올 자격을 잃은지 오랩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유고슬라비아와 국가적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를 사회주의진영의 성원으로 인정할수 없으며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을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한대렬에 놓을수 없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그릇된 태도는 다른 문제들과 함께 오늘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회복하는데서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사회주의진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분렬시키려는 행동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진영이 둘로 갈라지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둘로 갈라지고 모든 당들이 둘로 갈라지는것이 정상적인것으로 될수 없으며 더우기 좋은 일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하여 단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형제당들 사이의 의견상이가 사상리론적계선을 넘어서 풀기 어려울 정도로 된것은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형제당들 사이의 의견상이가 아무리 심각하여도 그것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문제입니다. 당들 사이의 의견상이를 조직적결렬에로 끌고가지 말아야 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결의 념원에서 출발하여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입니다.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도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배제하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도 형제나라, 형제당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외곡된 평가를 내리지 말아야 하며 13개 사회주의나라들중 어느 한 나라도 사회주의진영밖에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밖에 있다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나라, 형제당의 지도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의 신중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당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제국주의와의 관계와 같은 적대적관계로 보아서는 안될것입니다. 형제당지도부가 과오를 범한 경우에도 공산주의자들은 동지적비판을 주어 그가 옳은 길에 들어서도록 도와주는것이 응당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형제나라들의 사회생활의 이모저모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 사회의 성격에 대하여 경솔하게 결론할수 없습니다. 해당 사회의 성격은 정권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어떤가에 따라

규정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와 자본주의나라 사이의 차이를 똑바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와 자본주의나라 사이에는 사회제도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 모순은 그 누구의 주관적의도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지도자들이 취하는 이러저러한 조치에 따라 사회주의나라와 자본주의나라 사이의 모순이 첨예화되거나 혹은 완화될수는 있으나 사회제도가 대립되여있는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이 소멸될수는 없는것입니다.

비록 일련의 부정적측면을 가지고있더라도 형제나라를 적과 한계선에 놓거나 제국주의자들의 편으로 떠밀어버려서는 안될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형제당, 형제나라에 대한 태도에서 결코 편견이나 주관주의에 사로잡힐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의견상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당과 형제나라들에 대하여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며 시간을 두고 투쟁을 통하여 검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렁찬 박수) 그러면서 그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며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들과의 단결을 도모하여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측면에 대해서는 비판하여 고치도록 하며 긍정적측면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지지하는 적극적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박수)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계속 혁명대열에서 전진하는것이 좋은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야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에 더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주의진영은 의견상이로 하여 복잡한 형편에 있으나 그것은 엄연히 존재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진영은 그 누구도 주관주의적으로 취소할수 없습니다. 그 누가 사회주의나라가 아닌것을 사회주의진영에 끌어들인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나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누가 사회주의나라를 사회주의진영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한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나라임을 그만둘수 없는것입니다.

사회주의진영은 공통된 정치적 및 경제적기초에서 단합되여있으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건설의 동일한 목적으로 서로 련결된 하나의 전일체입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는 다 같이 동등한 성원으로서 사회주의진영을 구성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진영에 한 나라라도 더 많이 있으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로 될수 없습니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진영이 확대되여가는 과정을 통하여 달성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전체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며 이 진영을 분렬시키려는 온갖 행동을 반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모든 형제당, 형제나라들과 단결하여 나아갈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형제당대표들의 회의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단결되지 않고있는 틈을 리용하여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특히 미제는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등 모든 대륙에서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지원하는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 투쟁을 세계적범위에서 더 조직화하고 한 계단 발전시켜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조건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도 응당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는가 못하는가, 민족해방운동을 촉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와 관련되여있습니다.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의 실현은 웰남인민에 대한 지원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수 있게 하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시키고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형제당들 사이의 의견상이를 점차 극복하고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회복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반제공동행동은 평화위업의 리익으로 보나 혁명위업의 리익으로 보나 절대로 필요한것입니다.

우리 당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이 개시되자 침략자들에게 집단적반격을 가하기 위한 반제공동투쟁을 전개할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다른 일련의 형제당들도 이것을 제기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반제공동투쟁은 국제공산주의운동내의 의견상이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고 미제를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데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렁찬 박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고 싸우고있는 웰남형제들을 지원할데 대한 당적 및 국가적립장을 수차에 걸쳐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웰남인민에게 경제적 및 군사적원조를 주고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도 미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고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변의 문제들에서 의견상이가 있으나 우선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반제공동행동을 취할수 있는 초보적인 기초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반제공동행동을 거부하는것은 진실로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태도가 아니며 미제를 반대하며 싸우는 윁남인민을 지원하려는 립장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원쑤와 과오를 범한 벗을 똑똑히 갈라보아야 합니다. 원쑤는 때려야 하며 과오를 범한 벗은 비판하여 옳은 길에 돌려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벗들과 힘을 합쳐 주되는 원쑤를 반대하여 싸워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 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 국제민주단체들과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들은 여러가지 문제에서 견해가 같지 않으며 립장도 서로 각이하며 그 구성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은 자기 산하에 많은 군중을 가지고있습니다. 더 많은 군중을 반제투쟁에 끌어들이자면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조직들과의 공동행동을 거부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견해상에서의 차이점만 볼것이 아니라 공통점도 보아야 하며 언제나 문제를 전면적으로 보고 어느 한 극단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 국제민주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그 산하에 망라되여있는 많은 군중이 반제전선에서 떨어져나가게 될것입니다. 군중을 잃고서는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직들과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군중에 접근하여 혁명적영향을 줄수 있으며 그들을 반제투쟁에 동원할수 있습니다. 반제공동행동을 거부하는것은 군중과 리탈하여 고립주의로 나가는것이며 그것은 사실상 반제투쟁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편협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을 결속시켜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반제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비록 불철저하고 견고치 못한 력량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동맹자들을 전취하여 반제전선을 확대하며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그에게 공동으로 타격을 가하는것은 오늘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에서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됩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는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동행동을 취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지난시기 공산주의자들이 실시한 통일전선정책은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민들을 동원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세계사회주의력량이 강화된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을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살려 사소한 가능성이라도 다 리용하여 강력한 반제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오늘 웰남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것은 하나의 국제적조류로 되였습니다. 수정주의를 하던 사람들도 웰남인민을 지원하지 않고는 세계여론앞에서 견디여낼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지하여나서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시기의 자기 과오를 뉘우치고 이 기회에 그것을 씻기 위하여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여 나설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본립장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자기 나라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 못해 반제투쟁에 합류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어떻든간에 이 모든 력량을 반제공동투쟁에 끌어들이는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지난 시기의 과오를 웰남문제에서라도 고치려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좋은 일이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또한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 못해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한다고 하여도 그것 역시 반제투쟁에 도움으로 되지 해롭지는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력량을 반제공동투쟁에 끌어넣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제투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제투쟁에 나서도록 하며 반제투쟁에서 소극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 사이의 계선도 더욱 명백하여질것입니다. 실지투쟁에서 미제를 반대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웰남인민을 지원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것이 밝혀질것입니다. 실천은 옳고 그른것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됩니다. 기회주의도 사상투쟁과 함께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극복할수 있는것입니다.

공동행동을 실현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투쟁하면서 단결하며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공동행동은 덮어놓고 단결하자거나 무원칙하게 타협하자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반제력량과 보조를 같이하며 힘을 합치자는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기회주의적요소들은 비판하고 극복하며 반제적측면들은 지지하고 조장시켜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제공동행동이 결코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적극적인 형태로 되는것입니다.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하는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며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게 하는 적당한 방침으로 됩니다. (우렁찬 박수)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것은 오늘 전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사회주의나라들이 싸우는 웰남인민을 방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지원병부대를 파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이것은 반제공동행동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될것입니다. 우리가 월남에 국제적인 지원병부대를 파견한다면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게 될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월남침략전쟁을 확대하지 못하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국제민주단체들의 활동에서도 반제공동행동을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국제민주단체들은 미제를 반대하며 싸우는 인민들을 지원하는데 그 활동의 중심을 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이 국제민주단체를 통하여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또한 모든 국제민주단체들이 련합하여 미제를 반대하며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국제민주단체들의 활동에서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한다면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될것입니다. (박수)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만으로써는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형제당들 사이에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것입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우선 각기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점차 의견상이를 좁히고 서로 접촉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정한 조건들이 마련되면 형제당들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반제공동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형제당들이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이 현시기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원칙에 충실하며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매개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강화할수 있습니다.

자주성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당의 신성한 권리이며 매개 당은 또한 다른 형제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수)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됩니다. 모든 당들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만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형제당들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호상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규범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에 기초하여 각국 당대표들의 1957년 회의와 1960년 회의에서 규정된것이며 이미 생활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습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이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이 규범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규범이 위반될 때에는 형제당들 사이에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이 파괴되고 전진도상에 많은 난관들이 조성되게 됩니다.

최근년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형제당들간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위반하는 현상들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이것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고있으며 형제당들의 단결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모든 당들은 서로 평등한 립장에서 다른 당들을 존중하고 서로 동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에는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그 어느 당도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특권적지위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는 각국 당들의 활동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으며 공산주의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3국제당이 해산된후에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어떠한 《중앙》이나 《중심》도 없습니다. 따라서 혁명의 《중심》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로 왔다갔다 할수도 없게 되였습니다. 더우기 어느 한 나라가 《세계혁명의 중심》으로 되거나 어느 한 당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당》으로 될수는 없는것입니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은 결코 그 어떤 국제적 《중앙》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 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당의 지도밑에 그 나라 인민의 힘에 의하여 수행되고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그 어떤 《중심》이나 《중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어떤 당의 특권적지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당은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다른 당들에 지시하고 명령할수 있게 될것이며 다른 당들은 그 밑에서 복종하고 떠받들어야만 할것입니다. 형제당들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가 허용되게 된다면 매개 당들은 자주성을 가질수 없게 되며 도대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독자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게 될것입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다같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국제혁명운동과 맑스—레닌주의의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고있습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혁명에서 전위부대의 역할을 하자면 오직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합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실천에서 검증된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학설이며 인류의 모든 진보적사상의 최고봉입니다. (우렁찬 박수) 맑스—레닌주의는 모든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준수되여야 할 일반적합법칙성을 제시하고있습니다.

매개 당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체의 지도리론을 작성하며 그것을 실천하여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다른 당의 지도리론을 가지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할수 없습니다.

매개 당의 지도리론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범위에서 의의를 가지는것입니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만큼 한 나라 당의 지도리론이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나라 당의 지도리론을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리론으로 내세울수 없으며 그것을 다른 당들에

내려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지도적지침은 맑스—레닌주의이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에게는 이밖에 다른 지도사상이 있을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다른 당들에 자기의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 당들이 자기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일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자기의 견해와 로선을 다른 당들에 강요하며 그것을 접수하지 않는다 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현상들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일본공산당에 대한 일부 형제당들의 내정간섭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 형제당들 사이에 의견상이가 있다고 하여 남의 당내의 반당종파분자들을 지지하고 당내부를 혼란시키며 남의 나라 민주운동을 분렬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은 일본공산당의 활동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공산당은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시종일관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고있으며 동요없이 일본인민의 혁명투쟁을 령도하여나아가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도 대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을 받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대국주의자들은 응당한 반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참기 어려웠지만 혁명의 리익과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온갖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대국주의를 경계하여야 합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제 마음대로 결론할 권리를 독점한 당이 없습니다. 그 어느 당도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다른 당들에 내려먹여서는 안됩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여야 하며 서로 합의한 결론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래야만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매개 당들은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서나 형제당들과의 관계에서 주관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여 형제당들을 경솔하게 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당을 불문하고 형제당들의 립장이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하여 맑스—레닌주의에 배치된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더우기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하고있는 형제당들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딱지를 함부로 붙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당들에 대하여 《중간주의》, 《절충주의》, 《기회주의》 등의 딱지를 붙이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원칙한 타협의 길》을 택하고있으며 《두 걸상 사이에 앉아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기의 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자기의 걸상을 버리고 남의 두 걸상 사이에 불편하게 량다리를 걸고 앉아있겠습니까? (우렁찬 박수)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똑바른 맑스—레닌주의걸상에 앉아있을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자기의 옳바른 걸상에 앉아있는 우리를 두 걸상 사이에 앉아있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비뚤어진 왼쪽걸상이나 오른쪽걸상의 어느 하나에 앉아있는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에 대한 비방은 우리 당이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한뿐아니라 좌경기회주의와도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하여줄뿐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자들이기때문에 온갖 기회주의를 다 반대합니다. (우렁찬 박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하며 남이 하는 일은 다 틀렸다고 하는 거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동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 같이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삼고있지만 이러저러한 문제들에서 견해를 달리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서로 리해를 가지고 대하며 진지하게 협의하고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공산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립장이 있으며 옳고 그른것을 판단할줄 압니다. 다른 당들과 련계를 가진다고 하여 덮어놓고 그 당이 다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지지한다거나 거기에 추종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남을 의심하는것은 대국주의와 종파주의의 특성입니다. 대국주의와 종파주의는 남을 함부로 의심하고 이편저편으로 갈라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렁찬 박수) 만일 우리에게 어느 《편》인가고 묻는다면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편》이며 혁명의 《편》이라고 대답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공산주의자들은 형제당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활동을 그 어떤 한개의 틀에다 얽매여놓을수는 없는것입니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고 혁명과업이 다른 조건에서 형제당들의 정책이 같을수 없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적인 로선은 결코 개별적당들의 정책의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대국주의를 견제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모든 형제당들이 누구에게도 맹종맹동하지 말고 자주성을 가지며 대국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당들이 단결하여 그 누구도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국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누가 아무리 대국주의를 부린다고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대국주의는 무력하여질것이며 아무런 효력도 나타낼수 없을것입니다. 대국주의가 없어져야 모든 당들의 자주성이 확고히 보장될수 있으며 형제당들간의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의 신념을 고수할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라면 자기의 신념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남이 말하는대로 따라

말하고 남이 움직이는대로 따라 움직일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하는것도 아니며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해방을 위하여, 국제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혁명을 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며 그것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아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입니다. (우렁찬 박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현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주성과 독자성을 더욱 확고히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의 조건에서 우리가 만일 자주성과 독자성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따라간다면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수 없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혁명과 건설사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될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에도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남의 풍에 놀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으로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그것을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아가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국제활동분야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기초하여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나아가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밀접히 결합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주의자들이기때문에 고립주의나 민족주의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국제적단결을 무한히 귀중히 여기며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귀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다른 당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서로 배우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것은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며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째로 삼키려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자주성과 단결을 옳게 결합시키는 기초우에서 형제당 및 형제나라들과의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형제당대표들의 회의선언과 성명에 립각하여 단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하여나아가는것, 이것은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러한 방침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됩니다. 그것은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조성된 난관들을 극복하며 진정한 단결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할것입니다.

최근년간 국제정세의 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여러 사변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가 거둔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결부되여있습니다. 자주로선

으로 하여 우리 당은 대내외활동에서 로선상 좌우경의 편향을 범하지 않았으며 원칙적과오를 피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우리 당의 위신이 높아졌으며 공화국의 지위가 공고히 되였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자기의 수많은 벗들과 동정자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더욱더 많은 형제당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대내외활동에서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할것이며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것이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선언과 성명의 원칙을 준수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고수하며 전세계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2.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할데 대하여

동지들!

현단계에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인민들이 이미 주권을 잡고 새생활을 창조하고있는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며 북반부를 우리 혁명의 위력한 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혁명력량의 장성은 우리 조국의 통일과 전체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됩니다. 우리는 당과 인민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집행하여온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그에 립각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반대하고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것이라 하여 국방건설에만 치우치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것도 잘못이며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것이 파괴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쟁과 그로 인한 파괴를 두려워하면서 필요한 경제건설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수 없고 인민생활도 향상시킬수 없으며 도대체 제국주의가 멸망하기전에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건설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성하는 전쟁의 위험과 그들이 도발하는 침략전쟁은 우리의 경제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중단시킬수는 있으나 결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는 없는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만 타산하고 국방력을 응당하게 강화하지 않는다면 도리여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은 고사하고 도대체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도 수호할수 없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전쟁방지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결코 평화의 절대적담보란 있을수 없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위험과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여도 안되며 과소평가하여도 안됩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설사 전쟁이 일어나 혹심한 파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은 또다시 새생활을 건설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또한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우리가 준비된 태세에 있을 때에만 원쑤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며 설사 그들이 분별없는 모험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제때에 섬멸적인 타격을 주어 침략자들을 격파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이와 같은 원칙을 견지하면서 매시기 정세발전의 추이를 판단하여 거기에 상응하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적절히 배합하여 진행하여왔습니다.

최근년간에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동지들이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1962년에 꾸바공화국을 반대하여 카리브해의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진영에 도전하여나섰으며 국제정세를 매우 긴장하

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여 바크보만사건을 도발하고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동남아세아와 극동 및 기타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세에 대비하여 우리 당은 이미 1962년에 소집되였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고 경제건설을 개편하는 한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후의 사태발전은 우리 당이 취한 대책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것을 증명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당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국방력을 훨씬 더 강화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미쳐날뛰는 조건에서도 우리 조국의 안전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는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전쟁확대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새전쟁을 적극 준비하고있을뿐아니라 이미 웰남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에 직접 가담하고 있습니다. 정세는 한층더 긴장되였으며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건설을 더욱 강력히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져야 하며 원쑤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자면 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국방에 돌려야 할것이며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을 일정하게 지연시키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경제의 발전속도를 좀 조절하더라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응당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더 큰 힘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부합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야 하며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의 행복한 새생활을 위하여 투쟁합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북반부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우리 인민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력의 발전과 인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더욱 향상시키는것이 중요하며 그러자면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합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달성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하여야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우리 혁명기지의 물질적력량을 강화하는 기본담보로 됩니다. 그것은 북반부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뿐만아니라 우리 조국의 통일과 장래번영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북반부의 경제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줄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원할수 있습니다. 또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적자립경제의 건설은 나라가 통일된후 남조선경제를 급속히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가 자기 나라에서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인 동시에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우리는 자체의 경제력을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하고 이 진영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생활력도,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정책의 정당성도 결국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성과에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하고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비방을 분쇄하고 이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공산주의운동에서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박수)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전후시기에 우리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으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박수) 당의 령도밑에 우리 근로자들은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힘찬 로력투쟁을 전개하여 지난 5년 동안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중공업기지가 보강되고 경공업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현저히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들은 더 잘 꾸려졌으며 인민들의 물질적복리와 문화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제4차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이미 창설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며 모든 분야에서 생산품과 건설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전후 10여년 동안 방대한 건설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 각 부문에 걸쳐 위력한 생산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우리가 건설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사회주의적 농촌경리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경제토대를 더욱 정비보강하여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많은 공업제품과 농산물을 생산하고있으며 인구 1인당 생산량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면 현재의 생산량을 가지고도 인민경제와 주민

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것입니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경제로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건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업부문에서의 중심과업은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선행시키고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기술혁신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농촌경리에서는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토동행정사업을 개선하며 농촌지원을 계속 강화하며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수준을 높임으로써 알곡생산을 훨씬 증가시키는 동시에 공예작물과 남새생산, 축산업, 과수업 등 모든 부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철도를 비롯한 각종 운수사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기본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앞으로 더욱 대규모적인 경제건설을 전개할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로선입니다. 우리는 이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이미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 사회주의진영내부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는 현정세는 우리에게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더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립각한 형제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 그리고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와 경제적으로 유무상통하기를 원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경제적련계와 협조를 발전시켜나아갈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는 어디까지나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실시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체의 경제력도 더욱 강화할수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도 효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부문들과 기업소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개선하며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계속 병행하여 발전시키며 나라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특히 지방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술수준을 높이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발양하여 전진도상에 제기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극복하며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국가와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우리 인민경제를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이 강한 자립경제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혁명군대이며 따라서 그의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간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인 군사규률,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 등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맑스—레닌주의적혁명군대의 특성이며 우월성입니다. 혁명군대는 바로 자기의 이와 같은 정치사상적 우월성으로 하여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침략군대를 능히 격파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하여주며 세계의 수많은 혁명전쟁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로서, 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무력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써 조직된 군대이며 상하가 일치단결되여있고 인민들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군대내 당조직들과 사로청조직들은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일상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그들에게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정책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군대내에서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발양하며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인들로 하여금 자기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원쑤에 대하여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며 전투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용감성을 발휘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군인들을 당과 혁명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전사로 육성하며 우리의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이와 함께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군대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믿음직한 보위자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강력히 진행하여야 하며 각 방면에 걸쳐 인민군대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인민들이 인민군전사, 하사, 군관들을 자기의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군장병들로 하여금 전 당과 전체 인민의 두터운 사랑과 지지와 원호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자기의 군사적임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박수) 일단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군인들과 인민들이 진정한 혁명동지

로서 하나로 굳게 뭉쳐 일편단심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생사와 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워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또한 군인들과 인민들이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며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있을수 있는 전쟁도발에 대비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것은 부르죠아평화주의의 표현이며 수정주의적사상조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적독소가 우리 내부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외부로부터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침공하여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전체 군대와 인민을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군사로선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으며 여기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견지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를 간부화하고 현대화하는것은 우리의 군대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일단유사시에는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민군자체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일뿐아니라 수많은 군사간부들을 길러냄으로써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무력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게 합니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이 현대적군사기술과 결합될 때에는 참말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것입니다. 오늘 세계에서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현대전에는 최신무기와 군사기재들이 동원됩니다. 우리의 원쑤들은 더욱더 새로운 무기로 장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발톱까지 무장한 원쑤들의 침략에 대비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하여 무기들을 현대화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더욱 위력한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군인들속에서 전투훈련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여 그들이 모두가 다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산이 많고 해안선이 긴 우리 나라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이 잘 보여준바와 같이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를 범하게 되면 국방에 심중한 손실을 끼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입하여야 하며 현대적무기와 함께 재래식무기를 옳게 배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막아낼수 있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입니다. 이것은 국방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함으로써 적들의 일상적인 파괴활동을 걸음마다 분쇄할수 있으며 온갖 형태의 무력침공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격파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위체계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기초해서만 수립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와 함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연과 후방을 막론하고 나라의 모든 지역에 반석같은 방위시설들을 축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농적위대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군사훈련에 참가하며 전쟁경험을 연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로농적위대원들과 로동자들은 자기의 공장을 지키고 농촌의 로농적위대원들과 농민들은 자기의 농촌을 지키며 전체 인민이 한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계속 훌륭히 건설하여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그리하여 원쑤들이 우리 나라의 어느 곳에 침입하여도 그들을 철저히 소탕할수 있도록 우리의 온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특히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들을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며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단 유사시에는 모든 경제를 급속히 전시체제로 개편하며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준비하고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당과 인민은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동시에 조국보위의 임무도 훌륭히 수행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혁명과 건설은 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광범한 대중이 동원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단결시키는것, 즉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전취하며 또한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튼튼히 결속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되였으며 당대렬이 확대강화되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계승하여나아갈수 있는 수많은 혁명가들이 새로 자라났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인민은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자기들의 실지 투쟁경험을 통하여 당을 무한히 신뢰하게 되였으며 당주위에 굳게 단결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이미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이 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지마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습니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다같이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박수)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도 바로 이와 같은 통일에 있습니다. (박수)

이것은 물론 우리 내부에 적대적요소가 없다거나 계급투쟁이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됩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은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기여드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파괴활동을 반대하며 부르죠아적 및 봉건적반동사상과 그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표현됩니다. 원쑤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며 자기들의 옛처지를 회복하여보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고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적대적요소들은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원쑤들의 파괴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합니다. 특히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있는 우리의 형편에서는 적들의 파괴암해활동과 사상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중요하게 나서며 우리는 여기에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또한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이것을 반대하는 투쟁도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킨다면 근로자들속에서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사상이 조장될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 큰 지장을 줄뿐아니라 적들의 파괴활동에 쉽사리 리용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 강력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낡은 사상잔재와의 투쟁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 나아가는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이며 그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 나아가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박수)

우리는 낡은 사상잔재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도 안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낡은 사상이 새로 발생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근원은 없으며 우리 근로자들속에서의 지배적인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적혁명사상이며 공산주의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낡은 사상잔재를 능히 극복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인테리의 동맹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며 그것을 과장한다면 좌경적과오를 범하게 될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을 적대분자와 같이 취급할수 있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주의하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고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만 보면서 그것을 절대화한다면 우경적과오를 범하게 될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적대적요소들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게 되고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약화될수 있으며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다비되고 사회생활에서 부르죠아적영향이 널리 퍼질수 있습니다. 결국 좌경적편향이나 우경적편향은 다 같이 적아를 똑똑히 가려낼수 없게 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할수 없게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에 심대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좌우경적편향을 다 반대하고 계급투쟁을 능숙하게 진행하면서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정치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하여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개조하여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습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전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동시에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야 합니다. (박수)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민과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박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로동계급의 대렬이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사회를 개조하는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령도를 약화시키거나 자신을 다른 계층들속에 용해시킴으로써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다른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으로 개조하여나아감으로써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그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이며 그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로동계급을 참말로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들이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농민은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은 농민문제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정확한 농촌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 농촌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봉건관계를 청산하고 전후에 와서는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하여 농민들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전변시켰습니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뿐아니라 그들의 사상의식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기술문화수준도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사회주의의 토대우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은 확고한것으로 되였으며 농민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열성은 계속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과업은 농촌문제의 해결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나아가서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당은 농촌사업에서 우리가 달성한 성과와 경험을 개괄하여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과 구체적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정확한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계속 강화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촌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로동계급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농민들의 사상을 더욱 개조하여 그들을 더욱더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인테리는 새사회의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자기의 인테리대렬을 튼튼히 꾸려야만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가 노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오랜 인테리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며 과거에는 일본제국주의와 착취계급에게 복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민지나라의 인테리로서 외래제국주의의 민족적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아왔기때문에 민족적, 민주주의적혁명성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의 혁명성을 믿고 그들을 새사회의 건설에 적극 인입하여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인테리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은 지난 20년 동안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공훈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통하여 훌륭한 사회주의적인테리로 자라났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정확한 교육정책과 간부양성정책에 의하여 수십만에 달하는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이 양성되였으며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각 분야에서 혁명위업에 복무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이 오랜 인테리들을 개조하고 새 인테리들을 길러냄으로써 자기의 믿음직한 인테리대렬을 꾸려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전체 인테리들이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 주위에 굳게 단결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그 빛나는 승리를 말하여줍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 앞에는 인테리들을 더욱 혁명화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며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인테리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테리들에게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사상잔재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여 인테리의 혁명성을 믿지 않으며 더우기 투쟁의 불길속에서 개조되고 단련된 우리 인테리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인테리를 의심하며 배척하는것은 하나의 종파주의적경향입니다. 인테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것은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이와 같은 경향들은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자기의 인테리들을 믿고있으며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당은 인테리들의 사상개조를 계속 인내성있게 지도하고 도와줄것이며 그들이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더 훌륭히 복무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지어줄것입니다. 우리의 인테리들은 당당한 당의 전사, 로동계급의 전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낡은 사상잔재를 퇴치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과 전투성을 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테리들은 주로 기술과 지식으로써 사회에 복무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자기의 전공분야에 정통하며 과학기술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은 또한 인테리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과학지식과 기술을 허심하게 배워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인테리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과 로동자,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기사, 기수들의 수준에 끌어올리는 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로동자, 농민들과 인테리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간의 창조적협조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더욱 촉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인테리나 오랜 인테리나 할것없이 전체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할것이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과 언제나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데서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의 사업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래동안의 일제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 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에는 많은 복잡성이 조성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주민들의 각이한 계층과의 사업을 특별히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매 사람을 평가하며 적대분자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전취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의 성분이나 사상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기 인민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오늘은 그것을 뉘우치고 좋은 사람으로 개조될수도 있는것이며 성분이 복잡한 사람이라도 사회가 발전하고 환경이 달라짐에따라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게 될수도 있는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언제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적대계급출신의 의식적인 반동분자들은 결코 자기의 진복기도를 버리지 않는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분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한것입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을 믿고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기 위업의 정당성, 그리고 우리 당의 불패의 힘과 권위를 확신하고있기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으며 의식적인 반동분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을 다 교양개조할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우렁찬 박수) 이로부터 우리는 성분이나 환경, 과거의 경력이 복잡한 사람이라도 그가 현재 우리 당을 지지하고 사업에서 열성을 발휘한다면 그를 대담하게 믿어주고 포섭하며 그에게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은 원쑤들의 온갖 리간책동을 분쇄하고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당과 혁명의 편에 쟁취할수 있게 하며 적대분자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그들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게 합니다. (박수) 우리는 앞으로도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실지 사업에서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법각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정책이며 그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사회의 주민구성이 복잡하며 우리가 원쑤들과 직접 대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우리 당주위에 결속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더욱더 앙양되고있는 사실은 이것을 뚜렷이 증명하여줍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하며 전 사회를 굳게 단합되고,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의 로동계급화과정을 촉진하며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며 그들을 단결시킬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와 단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진과 함께 사상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인내성 있게 진행하여야만 실지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할수 있으며 굳게 결속시킬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여있는 복잡한 국제국내정세와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은 대중속에서의 정치사상사업을 더욱더 강화할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결부하여 계속 강력히 진행하며 맑스—레닌주의교양과 당정책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며 그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를 증오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착취와 압박을 당하여보지 않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세대들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계급교양을 특별히 잘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를 증오하고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증오하며 그것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적대계급들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고 그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에 대하여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하며 그것을 걸음마다 폭로분쇄할수 있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 원칙성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는 우리와 직접 맞서고있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이며 우리의 주되는 투쟁대상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언제나 견결히 싸울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민주해방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수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의연히 미제와 그 주구들의 억압밑에서 신음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의무입니다. 우리는 북반부근로자들을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을 반대하

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혁명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이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의 처지와 조국통일의 임무를 잊지 않도록 하며 남조선인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숭고한 정신에서 출발하여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헌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박수)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은 사상분야에서의 계급투쟁입니다.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은 그의 반동사상을 반대하는 투쟁과 떼여놓을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는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없습니다. 더우기 미제와 그 주구들은 우리 내부에 부르죠아반동사상을 퍼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는 락후한 사상요소들을 자기들의 파괴활동에 리용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죠아반동사상의 침습을 반대하며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력히 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 썩어빠진 부르죠아적도덕과 생활양식을 단호히 배격하며 개인리기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와 락후한 인습을 반대하고 고상한 공산주의적사상과 도덕의 승리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이 부화와 안일을 반대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공산주의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고 가는가 못가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자기 활동에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그것을 옳게 적용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고수하고 관철하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원리와 우리 당의 정책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우리의 사상사업에서 언제나 중심문제로 됩니다. 오늘 맑스—레닌주의사상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세계반동의 비방중상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 내부에 각종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나타나고있는 조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교양과 당정책교양은 우리 앞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는 전당적으로 맑스—레닌주의학습과 당정책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대중속에 맑스—레닌주의원리를 반복하여 해석선전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침투시켜야 합니다. 누구나 할것없이 자체의 학습과 사상수양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정신과 그 진수를 체득하며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현대수정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좌우경기회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충분히 인식시키며 그 온갖 표현을 다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그것을 견결히 지지옹호하며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와 좌우경기회주의를 똑똑히 분별할수 있도록 하며 기회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언제나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박수)

특히 우리는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를 극복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였으며 전당에 당적사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오늘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움직이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 당원들은 지난 기간 국제국내정세가 복잡하고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고있던 때에 당내에 숨어있던 반당종파분자들이 국제종파와 결탁하여 당을 공격하여나섰던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 기회주의적조류가 있고 대국주의적경향이 있는 이상 또다시 이러한 시도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복잡한 정세에 처하여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파주의나 기타 기회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대렬내에도 동요분자들이 나타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파주의에 대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을 동요시키며 우리 대렬을 분렬시키려는 내외로부터의 온갖 리간책동과 종파행위를 반대하고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통일을 견결히 고수하며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이와 같이 전당과 전체 인민을 사상리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굳게 결속시켜야만 각종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부에서도 나타나지 않게 할수 있으며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당중앙위원회의 세련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정책을 고수하며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주체를 잃고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여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는것은 물론, 나중에는 옳고 그른것도 가리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며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모든것을 남에게만 의존하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좌우경기회주의를 다 범하게 될것이며 혁명과 건설사업을 크게 망쳐버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의 온갖 표현을 반대하고 그것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하며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발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입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떠나서는 민족의 리익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만이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을 근절하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로 되는것이며 자기의 계급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기타 근로자들만이 참다운 애국적감정을 가질수 있는것입니다. (박수)

우리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착취와 억압이 없고 근로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매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이 사회주의제도의 강화와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한 영예로운 일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재산과 사회재산을 인민의 공동의 재부로서 아끼고 사랑하며 공동경리를 잘 관리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하여 애쓰도록 교양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는 동시에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됩니다. 조선에서 태여난 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합니다. 조선혁명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에게 맡겨진 기본임무입니다. 조선민족과 조선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선의 력사와 전통, 조선사람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고려하지 않고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민족문화와 민족의 모든 훌륭한 유산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우렁찬 박수)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형태의 민족적억압과 불평등을 반대하며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더욱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장래 번영을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을 자기 조국의 산천과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자기의 언어와 민족문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전통에 대하여 옳은 태도를 가지도록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것을 다 부인하고 말살하는 허무주의적경향에 빠져도 안되며 반대로 과거의것을 덮어놓고 답습하는 복고주의적경향에 빠져도 안됩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와 생활기풍을 창조하는데서나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큰 지장을 줍니다. 민족유산 가운데서 락후하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모든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토대우에서만 사회주의의 새문화와 생활기풍을 창조할수 있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기 민족의 현재와 함께 과거를 잘 알고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유산을 사랑하게 되는 때에만 그들의 애국적감정이 더욱 깊어질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교육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모든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귀중히 여기며 민족적미풍량속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들을 오늘의 사회주의 새생활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은 본래부터 국제주의적이며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은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로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부르조아민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배타주의를 배격하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여있습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사람이라야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할수 있으며 또한 진정한 국제주의자가 되여야 진정한 애국자로 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통일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혁명적인민들간의 국제적련대성의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며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며 피압박민족들과 피착취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언제나 견결히 지지성원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나라의 혁명투쟁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귀중히 여길뿐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들의 투쟁업적을 존중하며 그들의 우수한 경험을 겸손하게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형제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모든 나라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과 서로 지지성원하고 서로 배우면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워나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또한 근로자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 세대의 인민들뿐만아니라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위한 위대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세대에 맡겨진 중대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후손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을 물려주기 위하여,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특히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제국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낡은 력량이며 공산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력량입니다. 공산주의에로의 전진도상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장애들이 가로놓여있고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을수는 있지마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가로막을 힘은 없는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책동을 강화하고 요란한 반공소동을 일으키고있지만 그것은 멸망하여가는자들의 발악에 불과하며 또한 지금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심각한 시련을 겪고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진도상에서의 일시적인 곡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력사의 발전법칙이 변경될수 없으며 위대한 공산주의리념이 가려질수 없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맑스—레닌주의학설과 력사적사실들에 근거하여 제국주의의 멸망과 공산주의승리의 필연성, 그리고 공산주의의 참다운 진리를 철저히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이 어떠한 정세에서나 공산주의의 앞날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온갖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력히 진행함으로써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것이며 우리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킬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당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육성하며 광범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개조하며 당과 인민의 통일을 더욱더 강화할 때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이와 같이 혁명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할것이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철석같이 다질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3. 남조선정세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동지들!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발전

시켜야 합니다. 더우기 오늘 우리의 혁명기지가 불패의 력량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의 강화 여하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은 원쑤들의 반혁명공세하에서 간고한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장성하고있으며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는 반혁명에 불리하게,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습니다. 현남조선정세의 중요특징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새로운 더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고있는것입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일관하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뿐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여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수만명의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를 배치하고있으며 60여만에 달하는 방대한 괴뢰군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에 대한 《원조》총액의 40%를 남조선에 투입하고 그 80%이상을 군사장비의 공급과 괴뢰군유지비에 충당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군사적강점과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실권을 틀어쥐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자기들의 군사적목적에 종속시키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중요한 군사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철저히 전쟁정책에 복무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최근년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면서 군사침략기지로서의 남조선과 그 군사적잠재력을 자기들의 전쟁정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미제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이 지역에서 급격히 장성하고있는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말살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의 요구에 따라 괴뢰군병력이 증강되고있으며 그 군사장비는 더욱 현대화되고있습니다. 전술적핵무기와 유도무기 등 대량살륙무기들이 계속 남조선에 실려오고 도처에서 군사시설들이 확장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태세》가 강화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증대되는 군사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군사화하고있습니다. 《군사정변》이후 남조선괴뢰정부예산에서 군사비지출은 2배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군사적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산업부문들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있습니다. 《근대화》의 미명하에 촉진되고있는 경제의 군사화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군사적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공업부문들이 자라나고 무선, 도로, 철도, 항만 시설들이 확장되고있으며 군사경제적잠재력이 더욱 강화

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되고 모든것이 미제의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일대병영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들을 일본을 비롯한 아세아의 반동들과 군사적으로 결탁시키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오래동안 끌어오던 《한일회담》이 미제의 조종하에 조급히 결속되였으며 범죄적인 《한일협정》이 조작된것입니다. 《한일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침투는 더욱 적극화되고있으며 《한일조약》을 기초로 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음모도 더욱 로골화되고있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삼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도발하며 남조선의 군사적잠재력을 아세아에서의 자기들의 침략전쟁에 손쉽게 동원하기 위한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윁남에서 감행하고있는 침략전쟁에 남조선을 직접 끌어들였으며 남조선을 가장 중요한 대포밥공급지로 리용하고있습니다.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괴뢰들은 그 어느 괴뢰들보다도 먼저, 그 어느 추종국가들보다도 많은 병력을 남부윁남의 전쟁터에 밀어넣음으로써 미제의 침략전쟁수행에 충실히 복무하고있습니다. 남부윁남전쟁터에는 이미 수만명의 남조선괴뢰군이 끌려가 미제의 탄알받이로 되고있으며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침략의 도구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적지배와 전쟁정책을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로골적인 군사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습니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그에 철저히 복무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파쑈화정책에서 추구하는 주되는 목적은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실현에서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었으며 전사회를 무서운 공포속에 몰아넣고있습니다. 그들의 파쑈적폭압의 예봉은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탄압하는데 돌려지고있습니다. 모든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 기관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파쑈통치의 희생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자기들의 횡포한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책동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반공》을 중요한 정치, 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습니다.

《반공》의 간판밑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이 벌어지고있으며 또한 《반공》의 간판밑에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략이 허용되고있으며 수많은 청장년들이 남부웰남의 죽음터로 끌려가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이러한 《반공》소동으로써 결코 자기들의 범죄행위를 가릴수 없으며 대중을 속일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탄압과 기만책동으로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장성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미제국주의자들이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정책은 남조선에서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뿐입니다.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였다는 그 자체가 벌써 미제와 그 주구들이 총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뒤흔들리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줍니다.

전쟁정책에 따르는 무거운 군사비부담과 파쑈적폭압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빈궁과 무권리는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더우기 일제의 재침략책동과 웰남파병으로 인하여 민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적불안은 날로 증대되고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더욱 큰 불만을 자아내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점차 강화되고있으며 투쟁과정에서 인민들은 더욱 각성되며 단련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이 반제반파쑈의 기치하에 결속되여가고있으며 반면에 극소수의 반혁명세력은 더욱더 고립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을 강화할수록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불만과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그들의 식민지통치의 붕괴과정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입니다.

동지들! 현정세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백방으로 촉진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주되는 대상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독립국》으로 선전하며 자신을 《원조자》로 묘사하고있으나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는 바로 미국침략자들입니다. 남조선의 소위 《대한민국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괴뢰정권으로서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는 위장물이며 미국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지 않고는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침략군대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지지하며 그에 추종하고있는자들은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입니다. 그들은 미국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하고있으며 침략자들의 온갖 전횡과 략탈행위를 적극 옹호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비호밑에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권세와 향락을 누리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의 주구로서, 안내자로서 복무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며 그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침략책동을 분쇄하는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옛지위를 회복하려고 망상하면서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으며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폐기하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재침략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견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 투쟁은 동시에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타도하여야만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기도를 분쇄하여야만 새로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현시기 외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당면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무력을 증강하고 대량살륙무기를 끌어들이며 군사시설을 확대하면서 새 전쟁도발에 날뛰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반대하며 그것을 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을 《반공》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분쇄하며 특히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는 투쟁은 범죄적인 침략전쟁의 구렁텅이에서 남조선청장년들과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이며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월남인민을 지원하며 아세아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확대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입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남부월남파병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남조선청장년들은 남부월남의 죽음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이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군》 병사들과 장교들은 월남파병을 단호히 거부하여나서며 월남에 이미 끌려간 《국군》 병사들과 장교들은 즉시 귀환을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국군》을 자기들의 추악한 침략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결국은 《국군》 장병들과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더욱 큰 반항에 부딪치게 될것이며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청장년들을 이국땅의 죽음터에 내모는 박정희도당은 천추에 씻을수 없는 그의 죄악으로 하여 반드시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박수)

오늘 남조선을 뒤덮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군사파쑈적폭압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혁명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짓밟히고 파쑈적폭압이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진보도 있을수 없으며 혁명력량이 급속히 장성할수 없고 혁명운동이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적탄압을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파업의 자유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테리를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은 생존의 권리와 자기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은 남조선의 모든 혁명력량과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는 대중적투쟁으로 발전할 때에만 승리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합된 힘으로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과 전횡을 저지파탄시키며 식민지파쑈통치의 가장 악랄한 집행자이며 가장 반동적인 군사독무테로집단인 현군사파쑈정권을 뒤집어엎어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전개하고있는 당면한 모든 투쟁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할 때에만 오늘의 괴로운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습니다. (박수)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의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혁명적대사변을 영접할수 없으며 적들의 일상적인 반혁명공세에도 대처할수 없습니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

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하는것입니다.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대중운동과 투쟁을 맑스—레닌주의의 전략전술적원칙에서 옳게 지도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하지 않고 국내외정세를 신중히 평가함이 없이 모험주의적인 투쟁을 벌린다면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축적하는데 엄중한 손실을 주게 될것이며 결국은 혁명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반면에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도래하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혁명력량을 축적할수도 없고 혁명도상에 조성되는 어려운 국면들을 타개할수도 없게 될것입니다.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하면서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혁명운동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키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주위에 사회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것입니다.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은 로동자, 농민, 진보적인테리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적령도가 없이는 혁명력량의 장성도,혁명운동의 성과적발전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의 투쟁은 비상히 앙양되였으나 진정한 혁명적핵심을 가진 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에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지 못하였으며 전후에도 여러차례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나 혁명적당의 통일적지도가 없었기때문에 인민대중을 결정적투쟁에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투적이고도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당조직들을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적핵심들로써 질적으로 꾸려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의 혁명적당조직들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여있으며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지조를 지킬수 있는 견결한 혁명투사들의 전투적부대가 되여야 할것입니다. 당조직의 지도적골간은 어떠한 복잡한 정황에서도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적원칙에 의거하여 운동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준비된

혁명가들로 꾸려져야 합니다. 당조직들이 이와 같이 견결한 혁명투사들의 조직으로 될 때에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운동을 확신성있게 령도하여나아갈수 있는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만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할수 있으며 당자체를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민들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주위에 집결시켜야 합니다. 대중조직은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진정으로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원칙상 합법적조직으로 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에 로동자, 농민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각성시키며 당주위에 집결시키게 된다면 남조선혁명은 튼튼한 주력군을 가지게 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쟁취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반혁명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과 민족부르죠아지 등 남조선의 광범한 계층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다같이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와 그와 결탁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으로 됩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인민들은 광범한 통일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특히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탄압을 반대하며 웰남파병과 《한일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밑에 가장 광범한 계층들을 결속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통일전선을 형성강화하는데서는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이룩하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에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련합을 전면적인 련합에로 발전시켜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전선의 사회정치적기초로 되는 로농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인테리들의 련합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당면한 통일전선의 형성과 군중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뿐만아니라 남조선혁명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식민지나라들에서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은 민족적압박과 멸시를 당하고있기때문에 대부분 혁명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고 민족적각성이 빠르며 따라서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이러한 모든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현실적

으로 미제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력량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은 청년학생, 인테리들과 굳게 단결하여 당면한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데서나 앞으로 새사회를 건설하는데서나 항상 함께 싸워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박수)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은 적들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말고 투쟁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로동자,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의 운명을 그들과 련결시키면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남조선에서는 60여만에 달하는 청장년들이 《국군》에 복무하고있습니다. 남조선 《국군》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의 절대다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국군》은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도구로서 인민과 민족을 반대하여 총을 겨눌것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식민지고용군대로서 침략전쟁에 끌려다니고있습니다. 《국군》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나 인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국군》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원쑤는 동포들과 부모형제들이 아니라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입니다. 그들은 동족을 살해하고 인민을 탄압하는데 리용될것이 아니라 외래침략자들과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부모형제들과 함께, 인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국군》 병사들과 장교들은 총부리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박수)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자제들이 인민과 민족을 배반하는 범죄행위에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그들이 미제의 침략에 복무하는 고용군대의 치욕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 인민과 민족의 편에 돌아서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국군》 병사들과 장교들을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는것은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국군》과의 사업을 잘하여 병사대중과 중하층장교들을 혁명의 편에 견인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반혁명을 고립시키며 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 모든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입니다.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도 없으며 대중운동을 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원쑤들의 반동적사상공세가 날로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증대되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조직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의식과 인민대중의 민주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계몽하며 각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중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사상을 극복하며 《반공》 사상을 뿌리뽑는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반공》 사상은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으며 특히 일제패망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친미반동세력에 의하여 더욱 깊이 부식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보지 못하고 마치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아나갈수 없을것 같이 생각하고있습니다. 미국을 숭배하며 미국에 의존하여 살려는 사상의 영향은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을 이러한 반동사상의 영향에서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정책을 폭로하고 그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과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성격을 밝혀놓아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주체의식을 높이며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의 사상을 선전하며 민족허무주의사상을 반대하고 조선인민의 애국적민족전통을 널리 선전하여야 합니다. (박수) 그리하여 인민들속에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애국애족의 사상을 고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대중속에서의 이러한 모든 선전은 맑스—레닌주의사상선전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여야 합니다.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인민대중속에 광범히 선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어야 할것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이 《반공》 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사상선전에서는 특히 남조선 로동자, 농민대중에게 북반부사회제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사회제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접수하고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게 될것입니다.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의 정력적인 정치사상사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각성이 높아지고 광범한 대중이 혁명적열의와 용감성을 가지고 투쟁에 떨쳐나선다면 남조선혁명운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어떠한 위대한 혁명도 처음에는 소수의 선각자들로부터 시작되며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사람이 열사람으로 되고 열사람이 백사람으로 되는식으로 점차 광범한 대중이 발동됨으로써 혁명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지도핵심들이 있기만 하면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묶어세워 혁명운동을 발전시켜 나아갈수 있으며 마침내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때 원쑤들을 타도하는 결정적투쟁에서 인민들을 승리에로 인도할수 있습니다. 혁명핵심들이 있고 혁명력량이 강화되기만 하면 인민대중의 지지하에 어떠한 반혁명력량도 타승할수 있는것입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앞당기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기 위하여 사상적 및 조직적력량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하며 폭력적 및 비폭력적인 모든 형태의 투쟁에 혁명군중을 준비시켜야 할것입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 전도는 의연히 간고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도,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남조선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추세에 따라 남조선에서 혁명운동은 계속 전진하고 발전할것이며 투쟁과정에서 혁명대오는 부단히 확대강화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인민대중이 혁명을 하자고 결심하고 영웅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나서 승리하지 못한 혁명이란 없습니다.특히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전체 북반부인민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할것이며 우리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견결히 싸워나갈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하면 북조선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또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의 내부문제이며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도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만 조국통일을 성취할수 있으며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이 우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가져다줄수 없습니다. 외세에 의거하여 통일을 달성하려는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예속을 가져올뿐입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유엔감시하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한사코 방해하고있습니다. 최근 남조선괴뢰도당들은 당장 통일이 실현되면 남조선이 《적화》될 위험이 있기때문에 지금은 《승공》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통일문제는 《70년대후반기》에 가서나 론의될수 있다고 떠벌이고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입으로는 통일에 대하여 운운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조국통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더우기 《승공》이란 하늘의 별따기를 꿈꾸는자들의 어리석은 잠꼬대에 불과하며 《적화》의 위험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그들의 매국배족적본질을 드러내놓을뿐입니다.

오늘 공산주의자들이 나라의 북반부에서 확고한 지도력량으로 되고있으며 북반부인민들이 모두 공산주의사상을 접수하고 그 기치밑에 행복한 새생활을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처놓고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조국이 통일된후 우리 나라에 어떠한 사회제도를 수립하는가 하는것은 응당히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만일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인민들과 마찬가지로 다 공산주의를 원한다면 통일된 우리 나라에는 물론 그러한 리념에 기초한 사회제도가 수립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공산주의사상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밝혀주는 가장 선진적인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북반부인민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들은 공산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할 때 인민을 위하여, 민족적번영과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늘 공산주의사상은 지구상 모든 대륙의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쥐고있으며 그들을 자유와 해방과 새사회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고무하고있습니다. (박수)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지혜와 힘을 합치고 남북의 자원을 통일적으로 개발하여 인민들이 살기 좋은 번영하는 새조선을 건설할수 있을것입니다.(우렁찬 박수)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4천만의 인구를 가진 큰 나라로, 남부러울것이 없는 부강한 나라로 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이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가로막지 못하는것처럼 남조선에서의 혁명운동의 발전과 그 승리를 가로막을수 없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60만 재일 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이 자기 조국의 통일을 원하며 통일된 조국을 찾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일본당국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도 민주주의적민족적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재일 동포들의 투쟁을 저지시킬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전체 조선인민의 격분을 자아낼뿐입니다. 우리는 재일 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과 박해를 단호히 규탄하며 우리 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남북조선에서 전개되고있는 조선인민의 장엄한 투쟁에 의하여, 그리고 해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애국투쟁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통일될 날은 더욱더 다가오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은 조만간 남조선에서 쫓겨날것이며 그들의 지배가 뒤집힐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발붙이고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배격당하고있으며 고립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누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면서 허장성세하지만 그들 역시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운명도 다를것이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 하는데 습관되여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 비호하에 조선을 병탄하고 아세아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발광하였으나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일

본군국주의자들이 이제 또다시 《횡재》의 기회를 노리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기여들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으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입니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닙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침략의 길에 뛰여든다면 그들은 자신이 지른 불길속에서 타버리고 말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그 어떠한 제국주의세력도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을 정복할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제국주의침략자들은 반드시 패망하고 우리 인민은 승리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의 해방과 조국통일의 위업은 성취되고야 말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정당한 위업입니다. 우리 당의 대내외정책은 맑스—레닌주의를 현실과 결합시킨 정확한 정책입니다. 당주위에 결속된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이며 이 대오는 더욱더 확대강화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정세가 복잡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면 될수록 자기 대오를 더욱 결속할것이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더욱더 용감하게 싸워나아갈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의 전당과 전체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반드시 훌륭히 수행할것입니다.

(전원 총기립.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부수상

김일동지의 보고

동지들!

우리 당 제4차대회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 승리를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한 7개년계획의 전망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7개년계획은 공업,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들과 과학, 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예견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입니다. 그것은 또한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강화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며 그 장래번영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민족적 강령입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 5~6년 동안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왔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공업과 농업생산이 장성하고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는 전반적으로 강화되였습니다.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더욱 훌륭하게 건설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되였습니다.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지난 5년 동안에 공업생산의 년 평균증가속도는 14.3%에 달하였습니다. 1965년에는 공업생산이 1960년에 비하여 1.95배로 장성하였으며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서는 12배, 해방전인 1944년에 비하여서는 15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된 새로운 정세에 대비하여 1962년부터 국방건설에 더욱 큰 힘을 돌리면서도 공업생산에서 이와 같이 높은 장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이것은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며 당의 령도밑에 우리 로동계급이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이룩한 또하나의 빛나는 성과를 시위하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5년 동안에 강계청년발전소, 강선제강소의 인발강관공장과 7호전기로, 황해제철소의 2호용광로와 분괴압연직장 및 제3박판압연직장, 성진제강소의 제2중판압연직장, 김책제철소의 전로직장, 남포제련소의

유색압연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흥남종합비료공장의 과린산공장과 노소비료공장, 본궁종합화학공장의 가성소다공장, 평양전선공장, 회천공작기계공장의 주문직장, 덕천자동차공장의 단조직장, 기양뜨락또르공장의 대형가공조립직장, 룡성기계공장의 대형조기직장과 북중기계공장의 조립직장, 락원기계공장의 조립직장, 대안전기공장의 대형발전기직장, 함흥금속건구공장, 만덕광산 선광장, 동방광산 선광장, 혜산방직공장과 혜산제지공장, 선교편직공장, 평양일용품종합공장, 강계제화공장, 회령제탕공장 등을 비롯하여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대규모의 공업기업소들과 직장들만 하여도 300여개나 새로 건설되였으며 이 밖에 2,300여개의 중소규모공장들과 직장 및 분공장들이 더 설치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와 함께 청진화학섬유공장, 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하여 이미 있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운 기술에 기초하여 개건확장되였으며 공업의 원료기지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여 우리 공업은 더욱더 국내의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중공업기지는 더욱 정비보강되였으며 각종 중공업제품의 생산량은 현저히 장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중공업은 125억키로와트시의 전력, 약 2,000만톤의 석탄, 150만톤의 선철과 립철, 130만톤의 강철을 비롯하여 많은 중공업제품들을 생산하게 될것입니다. (박수) 금속공업부문에서는 현존제철소, 제강소, 제련소들의 생산능력이 늘어나고 각종 압연시설들이 많이 신설되였으며 농촌경리의 화학화와 경공업원료기지의 조성을 위한 화학공업이 확장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발전에 상응하게 나라의 연료동력기지는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건설된 기계공장들이 정비확장되고 그 기술장비가 강화되였으며 생산조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기계공업부문의 생산액은 2.7배로 장성하였으며 기계제품의 질도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자주성을 공고히 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전을 촉진하는 물질적토대로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되였으며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 인민생활의 향상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습니다. (박수)

우리는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중앙경공업부문에서는 기존공장들의 개건확장공사와 정비사업이 널리 진행되였을뿐아니라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대규모공장들이 적지 않게 신설되였으며 지방공업에서는 기술적개건사업이 강력히 진행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중앙공업기업소들의 생활필수품직장을 강화하며 분공장과 가내작업반을 대대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중앙공업기업소들에 생활필수품직장이 설치되고 수많은 분공장과 가내작업반이 새로 조직되였습니다. 소비품생산분야에서의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은 생산량을 급속히 증가시켰을뿐아니라 품종확대와 질제고를 촉진하였습니다. 1961~1965년간에 방직공업은 2배, 식료 및 기호품공업은 1.24배, 문화용품 및 가정용품생산은 3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년전부터 넉넉하지는 못하나마 국내산소비품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있으며 앞으로 질 좋고 다양한 소비상품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경공업토대

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박수)

우리는 농촌경리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농업강령으로서 우리의 협동농민들에게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었으며 농촌경리의 발전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반적사업을 추진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테제가 나온후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은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협동농장들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이 개선되고 농촌에 대한 지원이 결정적으로 강화되였으며 농민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열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박수)

지난 5년 동안 농촌기술혁명에서는 새로운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확대공고화하기 위하여 기존관개시설들을 정비하여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을 계속 광범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논면적은 1960년의 51만정보로부터 1965년에는 65만 4천여정보로 늘어났으며 농토와 농작물을 홍수와 사태의 피해에서 더 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가 강력히 추진되여 거의 모든 군에 농기계작업소가 설치되고 뜨락또르대수는 협동농장당 평균 5대씩 차례지게 되였습니다. 1965년에 농촌경리에서의 기계화작업면적은 1960년에 비하여 근 2배로 장성하였으며 중요한 농산작업들과 운반작업이 적지 않게 기계화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농촌전기화와 화학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65년말현재 우리 나라 전체 농촌리의 96%, 농가호수의 81.3%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지난 5년 동안에 경지 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1.8배로, 농약공급량은 1.7배로 각각 장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널리 도입하고 집약적영농방법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농촌기술혁명에서 달성된 이 모든 성과들은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안정된 수확을 보장하며 농촌로력의 긴장성을 완화시키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며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최근년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한재와 풍수해, 랭해, 병충해 등 심한 자연재해가 계속되여 농업생산에서 일정한 굴곡은 있었으나 그래도 1965년도 알곡수확은 1960년에 비하여 119%로 장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벼의 생산량은 137%로 장성하여 알곡생산의 질적구성이 개선되였습니다.

공예작물과 유지작물생산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남새생산이 급속히 발전하여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남새를 더 많이 공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축산업, 과수업, 잠업도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내륙고산지대와 북부랭한지대의 농업생산을 추켜세운것입니다. 지난 시기 이 지방들은 기후가 불리하고 토지가 척박하여 식량과 부식물을 자급자족할수 없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자체의 공고한 알곡 및 남새생산기지를 꾸려놓았습니다. 북부고산지대와 랭한지대의 농업발전은 이 지방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하는데서뿐만아니라 나라의 후방기지를 튼튼히 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집니다.

물론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혹심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생산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로대를 강화하고 농업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합리적인 농업지도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우리의 농촌간부들이 자라났으며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과 사상의식수준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명확한 강령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가 농업생산의 장성과 농촌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됩니다.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하고 생산이 장성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1965년에 국민소득은 1960년에 비하여 1.6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장래발전과 국방력의 강화,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에서 국민소득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산의 확대를 위한 축적을 부단히 증가시키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민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국방건설에 돌리면서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실질수입을 현저히 장성시켰습니다.

특히 국가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국가대부금과 대여곡상환을 면제하여주었으며 공예작물의 수매가격을 높이고 협동농장들에 공급하는 자재와 기계설비의 가격을 훨씬 낮추어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당 제4차대회의 결정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농업현물세제가 완전히 폐지되였을뿐아니라 모든 농촌기본건설을 국가투자에 의하여 진행하며 국가부담으로 농민들에게 주택을 지어주는 등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대한 대책이 실시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국가가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자금은 지난 5년 동안에만도 10억원에 달합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건설이 계속 광범히 진행되여 근로자들의 주택조건은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1961～1965년간에 도시에서 844만 1천평방메터, 농촌에서는 759만 3천평방메터의 주택이 새로 건설되여 근로자들에게 차례졌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도 개선강화되였으며 또한 국가의 사회문화시책이 확대되여 근로자들은 해마다 국가로부터 막대한 물질적 및 문화적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국가의 사회문화시책비는 133%로 장성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보건사업도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대학은 76개로부터 98개로, 고등기술학교는 82개로부터 447개로 늘어났으며 대학생수는 126%로, 고등기술학교학생수는 13배로 장성하였습니다. 특히 9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명년에 우리는 이미 실시하여오던 7년제의무교육으로부터 9년제의무교육에로 넘어갈수 있게 됨으로써 인민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획기적전진을 가져오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와 함께 문학예술이 계속 개화발전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보건시설이 확장되여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는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우리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의하여, 인민의 행복을 자기 활동의 기본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진정한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부단히 향상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의 이와 같은 성과들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닙니다. 지난 5~6년 동안 우리 당과 인민은 국제국내적으로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이 격화되여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였으며, 다른 편으로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현대수정주의를 비롯한 각종 기회주의의 해독적작용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이 약화되고 형제나라들간의 경제문화협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으며 우리가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 일련의 새로운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온갖 불리한 정세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지난 5년 동안에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박수)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면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여 진행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 로선의 빛나는 승리를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이것은 전 당과 전체 인민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결과에 얻어진 성과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당대표자회를 맞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높은 애국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7개년계획의 수행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이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기간 7개년계획의 수행도상에 쌓은 성과와 경험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하며 특히 조성된 정세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이제부터 나는 우리 앞에 나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과업과 결부하여 7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7개년계획을 계속 관철할데 대하여

동지들!

김일성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수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현정세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

기 위한 우리 당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기초우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며 모든 혁명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의 기본임무의 하나입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이 일단 정권을 잡은 이상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며 그들의 복리를 부단히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수 있으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혁명에서 이미 얻은 전취물을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촉진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는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작용을 미칩니다. 북반부인민들이 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우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은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동시에 또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으며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언제나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도발합니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은 무력을 부단히 증강하면서 항상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되며 우리의 군사부담은 평상시에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여 진행하여왔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건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나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하여 경제건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다 반대합니다. 김일성동지가 교시한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전쟁을 도발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여 그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하며 동시에 평화적건설의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것,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여 견지하고있는 원칙입니다. (우렁찬 박수)

최근년간에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된 조건에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당은 1962년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7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것보다 더 많은 힘을 국방건설에 돌리게 되였으며 경제건설도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의 사태발전은 우리 당이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정당하

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경제발전을 일정하게 조절하면서도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기때문에 오늘과 같이 긴장한 정세에서도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는 날로 격화되고있으며 정세는 더욱 긴장되여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윁남에서의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 각종 신형무기를 계속 끌어들이면서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적극 준비하고있을뿐아니라 더욱더 많은 남조선괴뢰군병력을 윁남에서의 침략전쟁에 끌어들이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견지하며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과업과 조국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한 군사적과업을 다 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과업은 7개년계획을 완수하는것입니다.

7개년계획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서 제기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더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력사적인 경제강령입니다. 7개년계획은 우리 당의 정책과 객관적 경제법칙들에 립각하여 작성된 과학적인 계획이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조건과 가능성,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발적발기들에 근거하여 작성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당 제4차대회가 규정한바와 같이 7개년계획의 중심적인 과업은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으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후 3개년계획과 5개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에서 첫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였을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7개년계획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필연적인 과업으로 나섰습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만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달성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훨씬 더 높일수 있습니다.

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는 공업—농업국가로부터 점차 공업국가로 전변될것이며 우리 사회의 면모는 더욱 새로와지고 인민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공업은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비롯하여 원료, 자재 등 생산수단들과 질 좋고 다양한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것입니다. 공업의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원료기지가 강화될것이며 모든 공업부문들이 더욱더 새로운 기술로 장비될것입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선진농업과학의 성과들이 널리 도입됨으로써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의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게 될것이며 농민들의 힘든 로동은 훨씬 덜

어질것입니다. 우리의 도시와 농촌들은 더 아름답게 건설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더욱 향상될것입니다.

7개년계획의 수행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불패의것으로 강화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는데 새 국면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장차 나라가 통일된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며 남반부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개선할수 있는 민족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마련하게 할것입니다.

지난 5~6년간의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은 7개년계획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여실히 증명하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이 규정한 7개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함으로써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닦는데서 새로운 전진이 이루어졌으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제4차당대회가 제시한 7개년계획이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그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계획이라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우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7개년계획을 계속 견지하며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켜 7개년계획의 총적과업과 함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여야 하며 부문별 과제들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는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 우리 조국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가 제시한바와 같이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기초우에서 당의 군사로선—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집행하며 후방을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군수공장들을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군대의 기술장비를 강화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무기와 각종 군사기술기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방어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공업과 방어공사에 더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가 충분한 인적자원을 보유하며 전선과 후방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가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개편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단 유사시에도 중공업제품, 소비품, 농산물을 중단 없이 생산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편성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공업부문들과 기업소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공업의 생산구조를 더욱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리익과 국방상 리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며 나라의 모든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칙에서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들의 발전을 배합하며 생산력의 지리적배치를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대적기술로 장비

된 대규모기업소들을 많이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소규모기업소들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하여놓은 지방산업공장들은 평시에도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는 그 역할이 더욱 커질것입니다. 우리는 중소규모지방산업공장들을 잘 꾸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중공업기업소들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에 각종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주어야 하며 지방에서는 중앙공업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을 보장할수 있도록 자체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들이 주민생활의 제1차적필수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비품생산에서뿐만아니라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등 일련의 중공업부문들에서도 경제적리익을 위해서나 국방상리익을 위하여 대규모공장들과 중소규모공장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공장들을 큰 도시들에 지나치게 집중시키지 말고 여러 지방에 합리적으로 분산시키며 이미 형성된 공업중심지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공업지구를 창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을 비롯한 동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나 국방상 견지로 보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전력공업에서 대규모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배합하며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을 적절히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있을수 있는 전쟁에 대처하여 수력자원이 풍부한 산간지대와 내륙지대에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수력자원이 없는데서는 중소규모의 공장화력발전소나 디젤발전기를 많이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의 정상적발전을 보장하며 더우기 불의의 사건이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물자의 예비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물자에서다 예비가 있어야 하지마는 그중에서도 국방을 위한 전략물자의 예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증산과 절약 투쟁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인민경제와 주민들의 일상적인 수요를 보장하면서도 전략적물자의 충분한 예비를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어떠한 정황에서도 공업과 농업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하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닦아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최근년간에 우리 당이 취하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취하려는 이 모든 전략적조치들은 많은 추가적인 인적 및 물적자원을 요구하며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 인민경제의 발전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국방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우리가 항상 준비된 태세에 있어야 전쟁을 방지할수 있으며 원쑤들이 전쟁을 도발한다고 하더라도 침략을 격퇴하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불패의 방어태세를 갖추어야만 사회주의건설도 안전하고 공고한 토대우에서 확신성있게 추진시킬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할것이며 나아가서는 7개년계획의 수행을 일정하게 연기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7개년계획에 제시된 과제들을 철저히 수행하

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그 기한을 미루자는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현정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서 출발하여 7개년계획의 수행을 3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 문제를 당대표자회의 심의에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당이 제기하는 이 조치는 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대담하고 능동적인 조치이며 그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할것이며 7개년계획에 제시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반드시 완수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2.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며 모든 분야에서 질을 높일데 대하여

동지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입니다.

당의 정확한 정책과 우리 인민의 헌신적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꾸려졌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100여개의 현대적기계공장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규모발전소, 탄광, 광산, 야금공장, 화학공장, 경공업공장들이 있으며 이 밖에도 2천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에는 방대한 관개시설들이 건설되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수많은 농기계들과 자동차들이 있으며 해마다 수십만톤의 화학비료와 농약, 수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이 공급되고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토대는 방대하며 우리의 공업과 농촌경리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경제는 전쟁의 페허우에서 짧은 기간에 급속히 발전하였기때문에 부차적인 여러 부문들을 미처 갖추지 못하였으며 불비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의 경제토대는 자기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있으며 경제발전에서 응당 며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족점을 보충하고 완비하여 우리의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새로운 건설을 하지 않고도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습니다.

다른한편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많은 중공업제품과 경공업제품, 농산물을 생산하고있으며 중요공업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량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아직도 품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질이 높지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나라 공업발전의 력사가 짧은데서 온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생산된 제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수요를 보장하는데 큰 지장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면 현재의 생산량을 가지고도 인민경제와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가 교시한바와 같이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향에 따라 인민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와 관련하여 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중심과업은 생산을 정상화하며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입니다.

공업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선행시켜야 합니다.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공업과 전력공업을 앞세우지 않고는 가공공업을 비롯한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림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공업의 원료기지와 연료동력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동력기지를 실질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규모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들의 건설에 힘을 집중하면서 각지에 중소규모발전소들을 계속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수력자원이 풍부하며 발전소들을 건설할수 있는 유리한 지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는 동력수요를 수력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는 방향에서 풀도록 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위주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짧은 기간에 발전능력을 조성할수 있으며 특히 전력생산의 파동성을 없애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화력발전소들을 건설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수력발전소들과 함께 화력발전소들의 건설을 촉진하여 가까운 년간에 우리의 전력공업을 자연조건의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인민경제 각 부문에 동력을 원만히 공급할수 있는 믿음직한 동력기지로 꾸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채취공업이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비하여 뒤떨어져있으며 여기에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들이면서도 응당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질탐사사업이 앞서지 못한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질탐사사업에 더 큰 관심을 돌려 탐사일군대렬을 시급히 확대하고 이 부문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줌으로써 예비탐사와 특히 세부탐사, 작업탐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탐사의 속도와 효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확보탄량과 광량을 증대시키고 우리의 채취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킬수 있도록 많은 개발후보지들을 확정하여놓아야 할것입니다.

채취공업은 어느 부문보다도 로동이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광부들과 탄부들의 고된 로동을 덜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성능이 좋고 우리 나라 지질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탄광, 광산설비들을 더 많이 대주고 갱도의 영구화사업과 갱내운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선진적인 채굴방법, 특히 로천채굴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의 지하자원을 완전히 조사장악하지 못하고있으며 이미 캐낸 광석, 석탄도 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지는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자원에 대한 조사사업과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 채취공업의 기술장비를 강화하며 채굴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 광석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 이 부문에서의 과학연구사업을 각 방면에 걸쳐 적극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림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순환식채벌을 도입하는것입니다. 산림자원을 정확히 조사한데 기초하여 몇개 구역의 산림지대를 순환하면서 계획적으로 채벌하며 조림사업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원목생산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제재실수률을 높이고 채벌한 원목을 하나도 버리는것이 없이 완전히 리용하는 문제입니다. 림업부문에서는 설비들을 개조하고 제재를 합리적으로 하여 원목에서 더 많은 제재목을 내도록 하며 톱밥, 절두목 등 부산물을 리용하여 목삭판과 목섬유판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업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앞세우는 동시에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공업생산구조를 더욱 개선하고 기업소들을 완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공업부문들과 기업소들을 정비보강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왔으나 아직도 이 분야에는 부족점이 많으며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설하여놓은 공장들에 살을 붙여 모든 공장들을 갖출것을 다 갖춘 온전한 공장으로,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는 완비된 공장으로 만들며 공업생산구조를 더욱 개선하여 우리의 공업을 부문간, 부문내부간, 공정간 균형이 맞고 조화가 잡힌 공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살을 붙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기계제작공업부문들에서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흑색야금공업에서 원료처리와 제품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부대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제철로와 제강로들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광석선별장, 소결직장, 구단광직장 등 철광석예비처리능력을 시급히 확대하고 필요한 파철처리능력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철, 제강능력에 맞게 압연능력과 2차가공능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비료공장들과 화학섬유공장들을 비롯한 화학공업의 모든 공장들을 하루속히 보강완비하고 세멘트공장들에서 분쇄능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약한 고리로 되여있는 주물, 단조 등 소재생산능력을 보강하여 그것을 가공능력에 따라세우며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보충하여 기종간의 균형을 잘 맞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업에 살을 붙이는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중소규모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꾸리는것입니다. 중소규모공장들은 소요량이 그리 많지 않은 수백수천종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짧은 기간에 공업의 부족점을 보충하고 생산구조를 더욱 완성하며 공업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최근년간에 광범히 설치된 중소화학공장들을 잘 꾸려 경공업과 인민경제 각 부문에 필요한 여러가지 화학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두가지의 부속품이나 부분품을 생산하는 전문화된 중소규모기계공장들을 창설하여 대규모기계공장들과 배합작전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업생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설비관리사업을 개선하여 설비리용률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도입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있는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부속품생산을 강화하고 수리공장, 공무직장 등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며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기계설비들이 언제나 정상적으로 움직이며 자기의 성능을 다 발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앞세우고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설비관리사업을 잘한다면 우리의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것이며 공업생산은 급격히 장성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이미 마련된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심과업입니다. 우리는 있는 토지와 이미 건설된 관개시설, 농기계 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농촌에 공급되는 비료와 농약이 최대의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토지는 농촌경리에서 기본생산수단입니다. 경지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 농경지를 보호하고 잘 관리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치산치수사업을 계속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논밭을 홍수와 사태의 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처에서 식수조림사업과 사방야계공사, 하천정리사업을 진행하여 한치의 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정리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여 농경지리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토지를 적극 개량하여야 하겠습니다. 토지를 보호하고 개량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토지건설대를 조직하여 대규모하천정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새땅을 얻기 위한 간석지개간사업을 추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건설된 저수지, 언제, 양수시설, 수로 등 관개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물관리를 잘하여 한방울의 물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더 많은 땅에 물을 댈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현존농기계들을 더욱 효과있게 리용하며 특히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할것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우리 나라 농촌경리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도구가 뜨락또르이며 농업생산의 성과는 뜨락또르를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금년초에 당과 정부는 협동농장들에서의 뜨락또르리용체계를 개편하고 농기계작업료를 대폭 낮추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뜨락또르를 더 적극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밭갈이와 써레질, 운반작업, 토지정리, 탈곡, 양수 등 여러가지 영농작업에 뜨락또르를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각종 련결농기계와 부속품을 원만히 공급하고 농기계의 정비보수사업을 강화하며 기계화작업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직도 농업기계화수준이 높지 못하고 더우기 뜨락또르나 기타 현대적농기계로 하기 힘든 영농작업이 많은 우리 농촌경리의 형편에서 부림소와 축력농기계, 소농기구들을 잘 마

련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농업부문에서는 또한 토양조건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확립하여 화학비료의 효능을 높이며 각종 농약을 잘 리용하여 작물들을 온갖 병충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할수 있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리하여 있는 로지와 관개시설,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등 농촌의 모든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알곡을 비롯한 각종 농작물의 생산량을 더욱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박수)

인민경제 각 부문들과 기업소들간의 생산적련계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철도운수를 비롯하여 자동차운수, 수상운수의 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수송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를 더 많이 공급하며 각종 화차와 특히 대형화차의 대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현존수송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인입선과 구내측선을 더욱 늘이며 상하차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부 철도를 새로 부설하며 철도전기화를 계속 추진시켜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철도운수의 부담을 덜며 수송의 시간성을 보장하며 수송비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수상운수와 자동차운수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수송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각종 운수의 수송능력을 높일뿐아니라 전반적인 수송조직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지역적으로 옳게 련결시킴으로써 공급사업과 수송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역수송, 반복수송 등 온갖 불합리한 수송을 퇴치하며 공차운행을 극력 줄여야 할것입니다.

현존생산토대를 완전히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장성시키는 동시에 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과 같으며 사회적로동을 절약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제품의 질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고 그 품종과 규격을 늘이는것입니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 분야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가 강화되고 기업소들이 더욱더 완비되여가고있으며 우리의 기술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전후 10여년간의 경제건설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얻었으며 숙련을 쌓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품종확대와 질제고의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채취공업에서부터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기계제작공업과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제품의 질제고와 품종확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이 분야에서 일대 변

혁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선탄과 선광을 개선하여 석탄의 질을 높이고 광석의 품위를 높여야 하며 화학섬유를 비롯한 모든 화학제품들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흑색금속공업은 아직도 기계제작공업과 기본건설에 필요한 철재를 재질별, 규격별로 원만히 공급하지 못하고있으며 이것은 생산과 건설에 지장을 줄뿐아니라 많은 철재의 랑비를 가져오게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량질강, 특수강, 고속도강 생산을 증대시키며 인민경제의 수요에 맞게 강종수를 더욱 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계속 확대하며 특히 박판, 랭간압연제품 생산을 발전시키며 강관, 강삭 등 여러가지 2차가공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장성과 기술적진보가 기계제작공업에서 생산되는 기계설비들의 질에 많이 달려있는만큼 이 부문에서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설계력량을 강화하여 기계제품들의 설계를 부단히 완성하며 생산공정들에서 가공의 높은 정밀도를 보장함으로써 우리가 만드는 모든 기계설비들과 부속품들이 성능이 좋고 가볍고 튼튼한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는 것은 경공업부문의 중심과업입니다. 우리는 연사직물과 고급직물 생산을 더욱 증가시키며 직물의 전처리와 후처리, 염색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질기고 색갈과 무늬가 다양하고 근로자들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여러가지 천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각종 가정용품과 문화용품들을 쓸모있고 아담하게 만들며 근로자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는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품종을 늘이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기술공정을 완비하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키는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산자들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일하며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하나의 부속품을 깎아도 알뜰하고 쓸모있게 성의껏 하도록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력히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물의 질에 대한 검사사업과 사회적통제를 강화하며 질제고에 대한 물질적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할것입니다.

지금 중공업제품이나 경공업제품의 질이 높아지지 못하는것은 갖추어야 할 기술공정들이 다 갖추어지지 못하고 기술장비가 뒤떨어져있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습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빠진 공정들을 하루속히 보충하고 완비하며 생산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며 선진기술공정과 선진작업방법을 널리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관리를 개선하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에 엄격히 립각하여 생산이 진행되도록 하는것은 제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입니다.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그것을 생산자대중속에 철저히 침투시키며 필요한 실험기구, 계량계측수단들을 원만히 보장하며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사업을 개선하여 모든 생산과정이 엄격히 기술공정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료의 준비와 관리를 개선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로동자들을 오래 동안 고착시키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고급기능공대렬을 늘이는것은 제품의 질제고와 공업의 전반적발전을 위하여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기능공양성사업을 강화하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로동자들과 특히 녀성로동자들이 마음놓고 고착되여 일할수 있도록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더 큰 국가적 및 사회적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충분히 리용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곤난을 아껴가며 악전고투하여 이루어놓은 위력한 자립적경제토대가 우리 나라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향상에서 더욱 더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도록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3.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면서 확대재생산을 위한 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할데 대하여

동지들!

사회주의건설에서 축적과 소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옳게 배합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축적을 부단히 증가시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하며 인민들이 물질문화적복리를 충분히 누리도록 소비도 계통적으로 장성시켜야 합니다.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을 바로잡으며 인민경제의 장래발전과 인민들의 당면한 수요를 옳게 결합시키지 않고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할수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습니다. 인민생활을 높인다고 하면서 축적을 적게 하고 주로 소비만 한다면 확대재생산을 위한 건설사업을 적극 진행할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전망을 가로막게 되고 나아가서는 소비도 계속 증대시킬수 없게 될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장래행복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민들의 당면한 수요를 돌보지 않고 축적에만 치우친다면 거꾸로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근로자들의 열의와 흥미도 떨어뜨리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경제의 장래발전과 주민들의 당면한 생활을 옳게 결합시키며 축적을 부단히 증대시키면서 소비를 계통적으로 장성시키는 정확한 방침을 견지하여왔습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자체가 바로 이 원칙에서 출발한것입니다. 우리는 당의 이 로선을 관철하여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축성하고 공고히 하는 어려운 과업을 훌륭히 해결하면서 동시에 인민생활을 급속히 안정향상시킬수 있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앞으로도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야 하며 특히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의 기본

방향에 따라 현존경제토대를 정비보강하여 생산을 장성시키고 모든 부문에서 질을 높인다면 우리는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게 될것이며 확대재생산을 위한 밑천도 마련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성된 중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그것을 경공업과 농촌경리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며 소비품과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인민생활을 지금보다 한계단 더 높여야 합니다.

오늘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알곡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것입니다. 알곡이 많아야 주민들에게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수 있으며 축산업도 발전시키고 경공업에 원료도 잘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또한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여 식량예비도 충분히 조성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로력형편, 기후풍토조건, 작물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2모작과 각종 선진영농방법을 널리 도입하며 작물배치를 잘하고 파종과 모내기를 제철에 하며 김을 잘 매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정당수확고를 높이고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할것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농민들이 애써 지은 곡식을 한알의 손실도 없이 다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미공장들을 정비하고 수송수단과 포장재를 원만히 보장하며 량곡창고들을 잘 꾸림으로써 량곡의 도정과 수송 및 보관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그 소비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할것입니다.

식량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남새, 고기, 기름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육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 양, 토끼 등 초식동물들과 돼지를 많이 기르며 특히 가금업의 발전에 큰 힘을 돌려야 합니다. 평양과 송림 등지에 현대적가금목장을 꾸리고 종자를 개량하며 양계기술자도 많이 양성하여 닭고기와 닭알 생산을 집중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도처에서 닭을 많이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수산물가공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 우리는 해마다 50만~60만톤의 물고기를 잡지만 수산물가공사업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있기때문에 물고기를 근로자들에게 원만히 공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어획고를 계속 높이는 동시에 수산물가공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수산물은 생산현장에서뿐만아니라 소비지에서도 가공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중요도시와 로동자구들에서는 랭동시설들을 많이 설치하며 식료품공장들과 가내작업반을 동원하여 수산물가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될수록 랭동하여 생선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다음으로는 병졸임이나 통졸임도 만들고 절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뿐아니라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허실없이 훌륭히 가공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조성하여놓은 13만여정보의 과수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밑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모든 과실나무들이 다 열매를 맺게 하여 가까운 년간에 과실생산량을 훨씬 증가시켜야 할것입니다. 과수원에 기계와 농약도 많이 보내주고 필요한 로력도 보충하여주어야 하며 기술자들도 대대적

으로 양성하고 일군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년내에 과실생산이 지금보다 몇배 늘어날것이 예견되는만큼 지금부터 창고를 비롯한 과실보관시설들을 충분히 마련하며 과실가공대책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입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더 좋은 옷을 입고 잘 살게 하자면 그들에게 훌륭한 여러가지 천들과 의복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급양복천, 외투천을 비롯한 겨울옷감들과 어린이옷감을 훨씬 더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내의, 세타, 쟈케트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가정용품과 문화용품의 생산을 증가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문화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세소상품의 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려 주민들의 생활에 아무러한 불편도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주택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택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우선 중요한것은 이미 지어놓은 주택들을 잘 리용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에 수많은 훌륭한 주택들을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이미 건설된 주택들을 잘 관리하고 보수하며 알뜰하게 거두며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인구가 늘고 세대가 늘어나기때문에 주택수요는 계속 장성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들을 많이 건설하여 근로자들의 주택조건을 더욱더 개선하여야 할것입니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는 우리 당의 모든 활동에서 최고의 원칙입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자립경제의 토대도 결국은 인민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이 밑천을 잘 리용하고 온갖 가능성과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것이며 모든 사람이 다 높은 물질문화적복리를 누리도록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인민생활을 높이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건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

7개년계획에는 확대재생산을 위한 방대한 기본건설이 예견되여있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기본건설사업이 광범히 진행된 결과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기타 생산시설들이 신설 또는 개건확장되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건설하여놓은 건물들과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주력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건설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의 중심문제는 투자의 방향과 건설대상의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고 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발전소의 건설, 새로운 탄광과 광산의 개발 및 기존 탄광, 광산의 개건확장, 화학공장의 건설, 금속공장들의 개건확장 등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건설에 기본투자와 건설력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둘째로 기존생산시설들을 보강완비하기 위한 건설을 위주로 하면서 새로운 생산시설의 건설을 이와 옳게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세째로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는 경우에도 될수록 새 공장을 적게 짓고 기존공장을 확장하거나 거기에 새 직장을 부설하는 방향을 취하여

야 하며, 네째로 한꺼번에 새로운 건설공사를 많이 벌려놓을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힘을 집중하여 건설대상의 조업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 운봉발전소의 건설을 금년내에 완성하도록 하며 뒤이어 서두수, 위원 등 새로운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화력발전부문에서는 평양화력발전소의 건설을 1967년까지 끝내고 60만키로와트의 능력을 가지는 북창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안주탄광과 북부훈륭 지구에 각각 100만톤 능력의 석탄장을 건설하며 일련의 광산들에 필요한 선광장을 건설하여야 할것입니다.

흑색금속공업에서는 김책제철소에 새로운 소결로와 해탄로, 산소전로직장과 압연직장을 설치하기 위한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철생산기지를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콕스를 쓰는 용광로보다 무연탄과 분광을 가지고 철을 생산하는 립철회전로를 건설하는것이 우리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견지에서나 나라의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견지에서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립철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선 강선제강소에 20만～30만톤 능력의 립철직장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유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알루미나공장건설을 추진시켜 알루미니움생산기지를 빨리 꾸려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석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공장의 제3계단 및 제4계단공사와 뇨소비료공장, 가소제공장, 아오지화학공장의 가스화 제2계단공사와 뇨소직장건설을 완성하며 비날론공장과 신의주화학섬유공장 확장공사, 합성고무공장과 원유가공공장건설을 추진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서부지구에 새로운 화학공업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성소다공장과 암모니아공장건설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베아링공장, 전자관공장, 자동화기구공장, 다이야공장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세멘트공장들의 분쇄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세멘트의 생산기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2.8마동세멘트공장과 승호리세멘트공장들에 현대적설비를 갖춘 대형소성로들을 증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함흥모방직공장건설을 완공하며 15만추의 방적능력을 증설하기 위한 건설공사를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건설사업을 이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한편 현존생산면적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에는 아직도 생산면적의 예비가 많습니다. 이것을 동원한다면 새로운 건설을 하지 않고도 생산능력을 훨씬 더 확장할수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면적과 건물의 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거기에 더 많은 설비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본건설은 나라의 백년대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며 인민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건설사업은 특별히 신중하게, 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적과업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기본투자의 규모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할뿐아니라 반드시 엄밀하고도 전면적인 과학기술적타산과 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매개 건설대상과 그 선후차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에서 설계를 앞세우고 그 질을 높이며 시공을 면밀하게 하며 건설대상의 종합적시공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건설하는 모든것이 완공되면 곧 정상적으로 조업하여 나라의 경제문화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훌륭히 복무할수 있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방대한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건설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건설사업을 더욱 공업화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 더 많은 기계설비를 공급하고 모든 설비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건설작업을 적극 기계화하며 조립식건설의 비중을 계속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조직을 더욱 개선하고 선진적인 시공방법을 널리 도입하며 건설일군들의 책임성과 기술기능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기본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확대강화할것이며 앞으로 인민생활을 훨씬 더 높일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게 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4.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촉진할데 대하여

동지들!

7개년계획은 기술혁명의 계획으로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경제의 전면적인 기술개건을 요구합니다. 7개년계획에는 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고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시하며 특히 지방공업의 기술개건을 실현하며 농촌경리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며 선진적영농방법을 널리 도입할것이 예견되여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기술자,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자만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기술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멀었으며 우리의 기술수준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로력을 절약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원단위물자소비기준을 낮추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등 경제관리를 개선하며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많은 문제가 기술에 걸려있습니다.

우리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부문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기술과 새로운 기술공정을 광범히 도입하며 우리의 전반적기술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현시기 기술분야에서의 선차적인 과업은 현존경제토대를 완전히 리용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것입니다. 우리는 공장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걸리고있는 기술문제, 설비리용률을 높이며 원자재와 로력을 절약하기 위한 기술적대책, 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

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문제 등 오늘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절실한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가지고있는 기술과 이미 달성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완성하고 그것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며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전후 10여년 동안의 경제건설을 통하여 인민경제 각 부문에 걸쳐 위력한 생산토대를 닦아놓았을뿐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서도 상당한 밑천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놓은 과학기술적성과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기본적인것만 해결되고 전면적으로 완성되지 못한것들이며 또 완전한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생산에 충분히 도입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의 현존 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여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생산을 훨씬 더 증가시길수 있는것과 같이 우리가 이미 달성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완성하여 생산에 도입한다면 기술혁명의 수행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현존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가 이루어놓은 기술성과들을 완성하여 생산에 광범히 도입하도록 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새공장들을 건설하며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연구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할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가 능히 할수 있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향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추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현존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준수하는것은 현대적생산의 기본요구이며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공정을 빈틈없이 잘 짜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과학적으로 세정하고 기술발전의 성과에 기초하여 그것을 부단히 완성하며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생산과정과 로동자들의 하나하나의 동작이 엄밀하게 기술공정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설비들을 개조하고 완성하며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도입하여 현존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이는것은 기술혁명에서 중심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 공업부문들에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많지마는 낡은 설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중공업, 특히 기계제작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낡은 설비들을 현대적인 설비로 바꾸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설비갱신은 결코 짧은 시일에 실현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업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낡은 기계설비들을 개조하고 완성하여 현대적수준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설비를 개조하는데 있어서도 단번에 현대적인것으로 만들려고 할것이 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의 힘에 맞게 낡은 설비들을 한걸음한걸음 개조하고 완성하여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과학기술분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기술공학, 그중에서도 기계공학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기계공학을 발전시키지 않고

는 현대적인 공장들을 건설할수 없고 현대적설비들을 만들수 없을뿐아니라 있는 공장이나 설비를 제대로 돌릴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부 공장들과 기계설비들이 자기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것이나 과학연구성과들이 빨리 생산에 도입되지 못하고있는것도 주로는 기계공학적부족점들, 즉 설계가 정밀하지 못하고 력학계산, 열계산 등이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공학부문의 과학일군대렬을 늘이고 그들의 자질을 높이며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줌으로써 이 부문의 연구사업을 시급히 추켜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장을 건설하는데서나 기계설비를 제작하는데서 설계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하며 국내외의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인민경제에 도입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기계공학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무선공학과 전자공학을 발전시키는데도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현대과학과 기술발전의 중요한 추세입니다. 화학적방법들은 기술진보를 촉진하며 모든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현재 없거나 부족한 재료들을 새로 만들어낼수 있게 합니다.

경지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에서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원료를 충분히 공급할수 없는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화학공업분야앞에 제기되는 중요과업입니다. 화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무연탄, 갈탄, 석회석 등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를 리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합성섬유와 합성수지를 생산하며 합성고무를 비롯한 각종 유기합성원료생산을 공업화하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질 좋고 성능이 높은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들도 연구완성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유가공을 위한 기술적대책을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유기합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예견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앞에 제기된 과학기술적과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무기화학,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등 기초화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업과학부문에서는 농작물의 다수확을 보장하며 축산물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긴절한 과학적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성이 높은 농작물과 가축의 우량품종의 육성, 각 지방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과학적영농체계의 수립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작물과 가축들의 생육을 촉진하며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야 하겠습니다. 농산과학분야에서는 농촌에 공급되는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미량원소비료와 각종 살초제에 대한 연구, 영양생리, 자극생리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생화학적방법에 의한 병해충구제방법들을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축산과학분야에서는 미생물처리에 의한 조사료의 리용률제고방도, 항생사료와 효모사료의 생산리용방도, 논발 2모작에 의한 사료생산방도 등을 연구하는 동시에 가축들의 효과적인 방역대책들을 해명하여야 하겠습니다.

국토의 70%이상이 산이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에서 산과 바

다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산과 바다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조사하고 그것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림산과학부문에서는 산림자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사업을 빨리 완성하는 한편 경제림을 조성하며 산들을 록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량한 수종의 육성방법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채벌방법, 병해충구제대책 등에 대한 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림산화학도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바다를 정복하려면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리지질 등 해양과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선 해류에 대한 연구, 간석지와 조수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물고기의 회유, 서식, 분포상태와 그 변동에 대한 연구를 선행시키며 어획고를 높일수 있도록 탐색방법을 개선하고 해면과 해저뿐만아니라 바다의 중층과 심해에서도 물고기를 많이 잡을수 있도록 어로방법과 어구들을 완성하여야 할것입니다. 천해양식사업과 수산물가공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 많은 하천과 호소들을 리용하여 담수양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해결하여야 할것입니다.

기술발전을 촉진하며 전반적기술수준을 높이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는 매우 큽니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예견성있게 민족기술간부의 양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체의 과학기술간부대렬을 꾸려놓았습니다.(우렁찬 박수) 지금 우리 나라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일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는 36만 7천여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위력한 과학기술력량입니다. 당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두터운 배려를 돌리고있으며 많은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배려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학습하여 자체의 과학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하며 있는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우리 인민경제의 기술진보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대담하고 창조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연구성과를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에 정통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우리 나라 기술혁명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문제를 자꾸 벌려놓을것이 아니라 달성된 과학기술적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미 시작하였거나 불충분하게 해결된 기술문제들을 끝까지 완성한 다음에 새로운 문제의 연구에 달라붙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제씩 똑똑하게 풀어나아가는것이 생산발전을 위해서나 기술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생산과 직접 관련된 현실적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에는 수많은 기사, 기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발동되여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우리 나라 기술혁명은 비상히 촉진될것입니다.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기사, 기수들은 일상적인 기술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며 로동자들에게 기술지식을 항상 가르쳐줄뿐아니라 자체의 학

술과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연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과학일군대렬을 확대함으로써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과학연구기관들에 필요한 실험공장을 설치하여주며 실험설비와 실험기구들을 더 많이 공급하며 과학기술도서들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연구사업의 조건을 지어주는데 큰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양성하여 과학연구기관들에 배치함으로써 튼튼한 연구집단을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면적기술혁명, 이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는 방대한 사업이며 많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여야만 실현할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전문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수행될수 없으며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동원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하며 생산자대중을 기술혁명의 수행에 광범히 끌어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생산경험이 풍부하고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로동자는 같은 기계를 가지고도 더 좋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으며 설비를 개조하고 기술공정을 완성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급속히 추진되는 기술혁명과 공업화의 요구에 비하여 볼 때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은 높지 못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능공양성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기술학습과 기능전습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면서 고급기능공들의 대렬을 늘이고 그들을 생산에 고착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련계와 협조를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창의고안, 합리화운동을 널리 전개하며 군중의 모든 지혜를 남김없이 기술혁신에 동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의 수행에서 경제지도일군들과 기업소관리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기업소관리일군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혁신에 항상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공업, 농촌경리, 건설,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전망적인 기술개건계획과 현행기술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실행하며 기술혁명과업을 예견성있게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기관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여주며 과학연구성과들과 근로자들의 창발적발기들이 지체없이 생산에 도입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기술통보 및 기술교류사업과 선진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널리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기술혁명의 수행을 더욱 촉진하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할것입니다.

(우명찬 박수)

5.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동지들!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능히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주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있으며 또한 튼튼한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있으며 전체 근로자들이 당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당이 내세운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당의 정책과 객관적경제법칙에 립각하여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지도관리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데 있으며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하는데 있습니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가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커졌으며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새공장, 기업소들과 새로운 생산부문들이 창설되고 부문간의 련계는 대단히 복잡하여졌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였습니다. 지난시기의 낡은 방법이나 단순한 경험만 가지고는 이와 같은 우리 인민경제를 도저히 잘 지도할수 없으며 관리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담보는 모든 분야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창조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훌륭한 형태이며 그 우월성은 생활에 의하여 이미 증명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어느 부문에서나 대안체계를 확립하고 그 요구대로만 사업한다면 경제관리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생산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확립하며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안체계의 기본요구는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에서 항상 군중을 발동하고 군중의 창조력을 동원하며 객관적인 경제법칙들에 립각하여 생산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강화하고 설비, 자재, 로력을 가장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계획화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입니다.

계획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입니다.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할수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이 계획

에 의하여 움직이며 사람들도 계획에 의하여 일하며 일체 자원도 계획적으로 리용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일단 세운 계획은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획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종합적균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물질적 및 로력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서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게 인민경제 각부문의 발전속도와 부문간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축적과 소비를 옳게 련결시켜야 합니다.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의 종합적균형을 정확히 보장할뿐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밀하여야 하며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잘 맞물리도록 되여야 합니다. 어떤 사업에서나 큰 전략적목표만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투계획이 없이 개별적전투를 되는대로 한다면 결코 전략적목표를 달성할수 없는것입니다. 인민경제를 계획화하는데서도 경제발전의 종합적지표와 큰 수자들만 규정하고 그것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그런 계획은 지상공문으로 되고 말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합적계획과 함께 전개된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계획은 당이 규정한 경제발전의 총적방향에 의거하여 종합적균형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도록 작성되여야 하는 동시에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구체적인 실정에 기초하여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잘 맞물릴수 있도록 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계획화에서 대안체계의 요구를 관철하는 길이며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박수)

우리의 계획화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의 량적지표와 함께 질적지표의 계획화를 개선하며 완성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정비보강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 중심문제로 되고있는만큼 계획화에서 질적지표들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리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확대하고 세분하며 모든 질적지표들을 과학적인 기술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정확히 설정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질적지표들의 수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 동원적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개별적생산부문이나 기업소들의 경영활동과 계획수행도 얼마를 생산하였는가에 의해서만 아니라 반드시 로력과 자재, 자금을 얼마나 들여서 생산하였으며 그 생산물의 종류와 규격,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평가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일원화계획체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켜야 합니다.

계획일군들이 경제발전의 객관적현실에 정통하는것은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나라의 전반적경제형편에 대한 연구분석사업과 개별적부문 및 기업소들에 대한 실태조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계획일군들은 생산현장에 내려가 기업소의 설비상태, 로력사정, 자재보장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

들의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현장에서 생산자대중과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일단 세운 계획은 대중에게 철저히 침투시켜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계획화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며 각급 계획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들간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가 혼자서 작성하는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 국, 기업소들과 모든 지방기관들이 다 발동되여야 하며 누구나 할것없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전국가적립장에서 계획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획위원회는 반드시 성, 국, 기업소들과 지방계획기관들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하며 이 기관들의 계획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계획화사업에서 나타나는 온갖 주관주의와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극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로력과 자재, 자금을 극력 절약하면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의 하나입니다. 더우기 오늘 우리는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진행하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만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고 인민생활도 계속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로력과 물자, 자금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며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선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로력배치와 로력조직을 잘하여 나라의 로력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동생산능률을 급속히 높여야 하겠습니다. 비생산부문의 로력을 줄여 생산부문에 돌리며 보조생산부문과 간접부문의 로력을 줄여 기본생산부문의 로력과 직접공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로력배치를 부단히 개선하여야 할것입니다. 녀성들이 사회적로동에 더 많이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며 경로동부문의 남성로력을 녀성로력으로 바꾸는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부문 기업소들에서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작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로동정량사업을 개선하며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온갖 로력랑비를 퇴치하고 1인당 생산액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농촌로력문제의 해결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농촌경리에서는 작업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진행되며 철을 따라 여러가지 작업을 제때에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로동의 결과는 가을에 가서 농작물을 거두어들인 다음에야 정확히 평가할수 있습니다. 농업생산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농촌경리에서의 로력조직은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됩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오늘 로력사정이 긴장하고 기계화수준이 높지 못한 반면에 경리는 고도로 집약화되여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로력문제를 옳게 해결하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농업생산을 장성시키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농촌에는 청장년로력이 적으며 녀자들과 늙은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농촌로력을 고착시키고 도시에서 청장년들을 농촌에 더 파견하여 농촌로력구성에서 장정로력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로력랑비현상을 없애고 있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게 로력배치를 잘하며 모든 힘을 농사일에 집중하도록 로력조직을 개선하며 특히 분조도급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제도를 확립하며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을 아껴쓰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민경제에서 각종 물자의 소비기준은 매우 높으며 도처에서 엄중한 랑비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자를 절약할수 있는 예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물자소비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강한 규률을 세우는 동시에 기술공정을 부단히 개선하고 새 기술과 선진생산방법을 널리 도입하여 원료, 자재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물자를 절약하며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물자의 보관관리와 자재공급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창고를 비롯한 물자보관시설들을 잘 정비하고 각종 물자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물자의 관리와 취급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귀중한 물자들을 헛되이 잃어버리거나 사장시키는 현상을 퇴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공급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자재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합니다.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제때에 종합적으로 공급하며 자재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는 자체의 발전법칙을 가지고있으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운영할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경제정책은 바로 우리 인민경제에서 작용하고있는 경제법칙들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작성된 과학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반드시 객관적 경제법칙들에 튼튼히 의거해야 하며 그것을 정확히 리용하여야 하며 일체 생산과 건설을 엄격한 과학기술적, 경제적 타산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각 부문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와 내부채산제를 강화하고 경제적 타산을 바로하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거나 한채의 건물을 지어도 똑똑하게, 쓸모있게 하여야 하며 로력, 물자, 자금의 소비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공동 경리를 잘 관리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국가경리와 공동경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나라의 일체 재부가 조국의 번영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훌륭히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국가 및 사회 재산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며 도시와 농촌을 규모있게 건설하고 깨끗하게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살림으로부터 개인살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한알의 쌀, 한치의 천, 한그람의 쇠, 한개의 벽돌, 한푼의 돈이라도 아껴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돌린다면 나라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줄수 있는 예비는 도처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답게 이러한 예비들을 남김없이 찾아내야 하며 국가와 인민에게 도움을 주는것이라면 크고작은것을 가리지 말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하나하나 풀어나아

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입니다.

대안체계의 기본은 경제기관, 기업소들이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선행시키고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해결하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곧 경제관리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사업을 지도하는데서 당위원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키잡이의 역할을 잘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들은 경제사업의 중요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그 수행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분공을 조직하여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행정관리일군들은 행정사업을 하고 기술일군들은 기술사업을 하고 당일군들은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된 방향과 분공에 따라 행정관리일군, 기술일군, 당일군들이 각각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하며 그들간의 내합작전을 잘하여야만 제기된 경제과업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것입니다. 결코 당일군들이 경제기술일군들을 제쳐놓고 모든 사업을 도맡아하거나 또는 당위원회가 경제지도사업과 당조직정치사업의 어느 한측면에만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는 당의 정책에 립각하여 경제과업의 수행방향과 방도를 결정하고 분공을 조직한 다음에는 행정기술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사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일상적으로 지도통제하여야 하며 잘못되는것이 있으면 제때에 고쳐주어야 합니다.

당위원회는 이와 같이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하는 한편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잘하여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열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경제과업의 수행에 동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당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당사업방법에 관한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 당의 많은 문헌들과 김일성동지의 교시들에서 이미 다 천명되고 우리 일군들에게 반복하여 해석침투된것들입니다. 김일성동지는 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정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어떤 방법으로 사업하여야 하는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만일 모든 당기관들과 당일군들이 당사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실지 사업에서 정확히 관철한다면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이 다 잘될것이며 우리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이 더욱 촉진될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각급 당기관들과 당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당사업체계와 방법을 더욱더 개선하며 완성하여 나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의 각급 당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인민경제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정치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이것은 당사업의 기본입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간부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는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확대되고 발전하였으나 우리 일군들의 수준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당 및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않고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습니다. 각급 당기관들은 모든 간부들, 특히 경제간부들의 정치사상수준과 리론실무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 최대의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이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간부들을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진정한 혁명가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박수)

우선 일군들속에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정책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리익과 지향을 반영한것이며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맑스—레닌주의적방도를 명시한것입니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당과 혁명에 충실할수 없으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일군들이 당정책을 견결히 지지옹호하며 그에 엄격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정책을 외곡하거나 형식적으로 대하며 그것을 집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는 등 온갖 부정적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자기 사업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당정책집행에 이악하게 달라붙어 그것을 끝까지 정확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속에서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배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이 일을 거칠게 되는대로 하는 형식주의를 반대하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하며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의 온갖 표현을 반대하고 언제나 당적립장, 국가적립장에 서서 일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며 모든 문제를 나라와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에 비추어보며 어떻게 하면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가지 일이라도 더 잘하겠는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머리를 쓰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박수) 매 간부들이 자기가 맡은 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을 지며 어떤 일이나 신중하게 연구하고 세밀하게 짜고들며 사업을 조직하고는 검열하며 또 조직하고 검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박수) 이렇게 하는것이 진정한 혁명가의 립장이며 사업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일군들의 맑스—레닌주의적리론수준, 특히 경제리론수준을 급속히 높이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걸머지고있으며 우리의 매 간부들이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려는 주관적열성이 아무리 높아도 아는것이 없으면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당에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의 학습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하여야 하며 학습이 사업과 결부되여 실속있게

진행되며 완전히 정상화되도록 옳게 지도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양성기관들을 확대강화하여 당 및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을 재교육하는 사업을 더욱 체계있게 길적으로 진행하며 특히 공장지배인, 직장장, 작업반장, 협동농장관리위원장 등 기본생산단위의 간부들에게 생동하고 구체적인 경제관리지식을 주기 위한 교육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려면 맑스—레닌주의원리와 당의 모든 정책을 깊이 소유하여야 하며 누구나 할것없이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더우기 경제일군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여 그 본질을 옳게 파악하며 사회주의하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실지 경제관리에 능숙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의 사상리론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따라 아래를 도와주며 현지에 내려가서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강구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시켜 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사업에서 한측면만 보고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며 목전의 리익만 보고 원대한 리익을 보지 못하는 협애한 관점을 극복하여야 하며 언제나 전반적인 사업을 옳게 틀어쥐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을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업의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를 포착하여 거기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문제를 하나하나씩 철저히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기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조치를 한 다음에는 한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여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방법을 널리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당, 국가, 경제기관의 모든 일군들이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맑스—레닌주의원리와 경제 및 기술지식을 소유하며,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능숙하게 지도하며 조직할수 있는 유능한 일군으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사회주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교양개조하고 단결시키며 그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사업을 선행시키고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을 발휘하게 하는 동시에 이와 배합하여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물질적으로 자극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을 계속 관철하여야 합니다. (박수)

각급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가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그들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더욱 깊이 있고 폭넓게, 그리고 생동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과 함께 모든 근로단체들이 대중정치사업에 동원되여야 하며 당일군, 사회단체일군들뿐만아니라 모든 국가, 경제기관일군들도 행정경제사업을 수행하는데서 우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녀

청동맹 등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동원하는것은 모든 근로단체들의 기본임무입니다. 당의 령도밑에 직맹은 로동자, 사무원들속에서, 농근맹은 협동농민들과 전체 농업부문 근로자들속에서, 사로청은 청년들속에서, 녀맹은 녀성들속에서 이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계속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천리마운동은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운동입니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도덕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부단히 앙양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급속히 높아지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에 맞게 천리마운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천리마운동에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이 사업을 생산에서의 혁신운동, 특히 과학기술을 소유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자기의 사상을 더욱더 개조하며 공산주의적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자기의 일상적인 로동과 학습에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공산주의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사회와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최고의 리익으로 알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자기 개인재산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언제나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서로 도와주면서 열심히 일하고 배우며 선비와 자재를 소중히 다루고 하나의 제품이라도 정성껏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천리마기수이며 참다운 공산주의자입니다. (박수) 각급 당조직들은 이와 같은 방향에서 천리마운동을 옳게 지도하여야 하며 이 운동이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동지들! 오늘 우리가 처하여있는 정세는 복잡하고 긴장되여있으며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매우 방대합니다. 우리는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우리 조국의 통일과 전체 조선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우리 인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와 김일성동지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었으며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인도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하나로 굳게 뭉쳐 싸워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혁명과업이라도 능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계속 힘있게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반드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것이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더 강화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웰남문제에 관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성명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오늘 동남아세아와 세계평화는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서 범죄적인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웰남인민을 반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진영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도전하여나서고있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을 더한층 확대하는 위험한 길에 들어섰다. 그들은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을 하노이와 하이퐁 지역에까지 확대하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민주공화국을 지상으로도 공격할데 대하여 공공연히 떠들고있으며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와 아세아의 다른 지역에 퍼뜨리며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당하고있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령도밑에 남부웰남해방군과 유격대들은 령토의 5분의 4와 1천만명의 주민을 해방하였다. 북부웰남인민군과 인민들은 웰남로동당의 령도밑에 미제공중비적들의 야만적폭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있다.

본대표자회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항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있는 전체 남북웰남인민들에게 가장 열렬한 형제적인사를 보내며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웰남문제는 오늘 전세계 진보적력량과 반동력량간의 투쟁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다. 웰남인민이 진행하고있는 반미구국항전은 비단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일뿐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민족해방혁명과 모든 인민들의 혁명위업에 기여하고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파탄시키는것은 앞으로의 세계정세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그것은 미제를 더욱더 파멸의 위기에 몰아넣을것이며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앙양시킬것이다.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것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 형편에서 사회주의진영,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을 비롯한 전세계 반제력량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단호히 반대하고 웰남인민의 투쟁을 적극 도와나서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며 웰남인민을 돕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사회주의나라들에는 특별히 중요한 역할이 맡겨져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미 30만의 침략군대와 수만명의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까지 끌어들여 남부웰남과 사회주의나라인 웰남민주공화국을 침략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은 결코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집단적반격을 가하여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려야

하며 싸우는 월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월남에 지원병을 보내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사회주의진영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자기 힘을 남김없이 발휘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행위도 능히 막아낼수 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와 더욱 날카롭게 맞서서 투쟁하여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침략자를 치고 사회주의진영의 동남초소를 보위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는 조선인민과 월남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다. 두 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미제에 의하여 국토를 량단당하고 있으며 민족적불행을 겪고있다.

조선인민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여기고있으며 월남인민과 함께 싸울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언제나 월남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월남인민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자기의 국제주의적 의무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종국적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월남인민에게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줄것이다. 우리는 월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요구한다면 언제나 지원병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있다.

미제는 월남에서 피묻은 손을 당장 떼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즉시 중지하며 남부월남에서 자기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와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월남문제는 외세의 간섭 없이 월남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월남문제의 유일하게 정당한 해결방도는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 항목과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의 5개 항목의 원칙이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월남인민의 이 정당한 립장을 확고히 지지한다.

모든 형제당들은 월남문제에서 어디까지나 월남인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월남로동당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협상》의 기만극을 벌려놓고있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며 자기들의 전쟁확대음모를 가리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미제의 이러한 책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에서 아무리 발악한다 하여도 종국적패배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으며 응당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인민들의 거듭되는 경고와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들은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갈것이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전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월남인민이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과 령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 구국항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쟁취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1966년 10월 12일

근로자 제10호 (루계 296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로자사 주소·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66년 10월 15일 발행·1966년 10월 20일

ㄱ—63354 값 50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호

평양 근로자사 1966

제 11 호 (297)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당대표자회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얼마전에 진행된 우리 당대표자회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대표자회의 보고에서 김일성동지는 현국제국내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우리 혁명위업과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의 발전을 추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정확한 방도를 천명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고 우리 인민의 민주적 및 국세적임무를 더욱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현정세하에서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높이들고 우리의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히주었으며 전체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무장시켰다.

실로 당대표자회에서 한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는 강력한 사상, 리론, 실천적 무기이다.

김일성동지의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심오히 연구하고 당대표자회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현시기 우리 인민앞에 제기되고있는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것은 우리의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의무이다.

우리 당의 대내외정책과 모든 활동의 기초에 놓여 있는것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대한 충실성,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확고한 주체사상이다.

우리 당은 항상 우리 혁명의 민족적 및 국제적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주동적으로 수행해나가려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체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관철시켰다.

우리 당은 제4차당대회가 있은이후 지난 5~6년간의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자체의 혁명적원칙성과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관철시켰다.

당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를 촉진시키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반제, 반미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으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대렬내에 발생한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두전선에서의 투쟁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과 자주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세계혁명의 기지인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우리 당은 항상 조선혁명을 세계혁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있으며,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면서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조선혁명의 급속한 추진으로써 세계혁명에 적극 기여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급속히 추진시킴으로써 북반부를 우리 혁명의 더욱 강력한 혁명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혁명을 발전시키며 조국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다.

모든 사실은 우리 당이 일관하여 견지한 로선과 정책들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철저한 혁명적립장, 확고한 자주자립의 사상으로 하여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과정,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행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원칙적인 방침을 취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의 힘을 최대한 동원하여 모든 난관을 다개치면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었다.

당대표자회는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지난기간 우리 당이 실시해온 모든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인하고 현정세에 대처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과업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금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가 명확히 분석한바와 같이 오늘 국제정세는 더욱 긴장성을 띠게 되였으며,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발악과 그들의 가일층의 혼란은 혁명정세가 더욱 성숙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근년간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면서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적모순의 전반적인 격화, 세계도처에서의 제국주의의 정치도덕적 및 군사적 패배는 그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력량, 민족해방운동, 국제로동운동,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대중적운동은 더욱 장성발전하고있다. 전반적정세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혁명에 유리하게, 원쑤들에게 불리하게 발전하고있다.

지금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현대수정주의와 좌경기회주의에 의하여 시련을 겪고있다. 좌우경기회주의는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통적인 통일과 단결에 장애를 조성하고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혁명력량의 통일적인 투쟁을 약화시키고있다.

그러나 좌우경기회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더욱 명백히 인식되여가고있으며 제국주의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투쟁력량은 계속 자라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의 난관을 저들의 반동적목적에 악랄하게 리용하려 하고있으나 력사발전의 전반적추세를 결코 가로막을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국내혁명정세는 혁명의 편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이 급격히 장성하고있는 반면에 남조선에서 반혁명력량은 저들의 반동적, 반인민적 책동들의 필연적 후과로 하여 더욱 궁지에 빠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는 걷잡을수 없는 파탄에 직면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궁여지책으로 더욱 로골적인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체계를 부지하려고 미쳐날뛰고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남조선인민들의 불만과 항거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을뿐이다.

남조선혁명은 아직 미제와 그 주구들

이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파쑈적폭압하에서 시련을 겪고있으나 남조선인민들은 해방후 20년간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되게 되였으며 혁명력량은 더욱더 단련되며 강화되고있다.

우리 혁명의 기지 공화국북반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급속히 장성강화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통일은 날로 공고화되고있다.

우리 당이 최근년간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한 결과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더욱 공고히 된 동시에 국방력도 급속히 강화되였다.

전반적정세는 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의 가일층의 전진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유리하게 조성되여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기 위한 준비를 일층 강화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금번 당대표자회에서 우리 당은 자기의 일관한 혁명적립장, 자주로선을 견지하면서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정확히 규정하였으며 현시기 절실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 당의 명확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의 보고에서 더욱더 횡포해져가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세계의 반제력량을 단합시키며 반제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립장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광범한 반제력량을 동원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집중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선차적인 과업이다. 오직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우리 당은 세계도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키고 그들의 수족을 철저히 얽어맬데 대한 원칙적방침을 제기하였으며 미제에 투쟁의 예봉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미제의 동맹자들인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시급히 강력한 반제, 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제의 윁남침략과 전쟁확대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을 다시한번 명백히 밝혔다.

우리 당이 제기한 이 모든 방침은 현시기 반제, 반미 투쟁의 가장 정확한 길이며 세계혁명운동과 아세아 및 세계평화를 위한 투쟁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며 반제투쟁과 혁명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데 대한 원칙적

립장을 천명하였으며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새로운 력사적조건, 오늘의 정세와 세계혁명의 리익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혔다.

우리 당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두전선에서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사회주의진영 및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적방침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단결을 부인하는 좌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되며 단결을 수호한다고 하여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우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된다. 우리 당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우리 당은 기회주의와의 투쟁에서 환상과 주관적인 편견을 배격하고 원칙적인 사상투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반제투쟁에서 력량을 단합하고 실천적투쟁행정에서 검열하면서 정확한 길로 이끌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오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원칙적인 정확한 방침이며 또한 가장 적극적인 투쟁방법으로 되는것이다.

당대표자회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인 남북반부혁명력량을 더욱 급격히 장성시키기 위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 보고에서 남조선의 현정세를 명확히 분석하면서 남조선혁명의 임무와 대상, 당면한 투쟁과업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부단히 장성시키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우와 같은 문헌).

남조선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대표자회는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주위에 사회의 기본군중을 결속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며 그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당대표자회는 우리 혁명의 기지 공화국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명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최근년간 우리 당이 실시하여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견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당대표자회는 당의 정확한 방침을 관철시킴으로써 7개년계획의 총체적 및 부문적 과업들, 그 주요고지들을 점령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옹성같이 다질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당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당과 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는 과업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우리 당대표자회는 이와 같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

진하기 위한 명확한 투쟁임무를 제시하였으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급속히 강화하여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이것이 금번 우리 당대표자회의 기본사상이며 정신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과업을 실현하는 투쟁에로 한사람과 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우리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모든 방침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주체적 력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리 혁명위업을 종국적승리까지 이끌고야 말려는 우리 당의 철저한 자주로선에 기초한것이다.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전개된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며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이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과정에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립장이다.

이러한 정확한 방침으로 하여 우리는 이미 우리 나라의 절반영인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를 꾸려놓았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확대하고 강화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이 방침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적범위에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인민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는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수정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대국주의,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우리 당의 립장과 방침을 리론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 보고에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운동의 전략전술적 문제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리론적해명을 주었다.

김일성동지의 보고에 담긴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파악하는것은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이 정치리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모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담보로 된다.

당대표자회 결정의 기본정신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상 혁명적으로 살며 일할것을 요구한다.

오늘 전반적세계혁명정세는 복잡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의연히 간고한 투쟁을 거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평화적기분을 배격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무장하며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민족적임무를 우리 세대에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사상적각오를 튼튼히 가져야 한다. 우리 대렬내에서 안일과 해이를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항상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를 유지하며 자유주의, 개인리기주의 등을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며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교양과 당정책교양 그리고 계급교양을 기본

오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통일적으로 강력히 전개하며 특히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조직생활과 혁명적사상수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을 강화하고 일군들의 사상을 꾸준히 단련하고 수양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는 강의한 공산주의자, 열렬한 혁명가로 부단히 준비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는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 우리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단결에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단결시키는것, 즉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우와 같은 문헌).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을 당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어떤 환경속에서도 항상 당중앙위원회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여야 하며 우리의 전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한가정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은 치밀하고 실속있는 조직사업을 요구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여 7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며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모든 과업들은 일군들의 혁명적전개력과 함께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업에서 형식주의적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면밀히 조직하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며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의 간부화,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현존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림으로써 7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할것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대표자회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로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 혁명의 더욱 큰 승리가 이룩될것이다.

현시기 반제, 반미 투쟁의 정확한 방침

원 준 영

금번 당대표자회의 보고에서 김일성동지는 현시기 국제정세를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고 제국주의 특히 미제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보고에서 천명된 현시기 반제, 반미 투쟁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은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투쟁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반제, 반미 투쟁의 방침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세계의 혁명적인 인민들과 더불어 반제혁명투쟁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촉진시킬것이다.

미제는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있다

제국주의가 력사무대에 나타난후 오늘처럼 심각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에 직면한적은 없었다. 모든 진부하고 반동적인것을 대표하는 현대제국주의는 그 발전의 변증법에 의하여 멸망의 막다른 길을 걷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력사적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발붙이고 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배격당하고있으며 고립되고있다. 그들은 아세아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있다.

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면서 허장성세하지만 그들 역시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오늘 전반적인 정세발전은 제국주의가 혁명과 반혁명, 진보와 반동간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멸망의 나락에 떨어지고있으며 세계의 혁명력량이 날로 급속히 증대되고있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혁명이 발전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나 총적으로 볼때 정세는 혁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2차대전후 세계반동의 두목으로 대두한 미제는 국제무대에서 저들에게 근본적으로 불리하게 전변된 력량관계를 만회해보려고 사회주의진영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발악적으로 추구하여왔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떠한 침략과 전쟁책동으로써도 날로 장성강화되는 사회주의진영과 민족해방운동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세계사회주의체계의 형성과 그 위력의 부단한 장성은 제국주의의 반동적진지를 크게 약화시키고 전세계 피압박민족들과 피착취인민들의 투쟁을 전례없이 고조시켰으며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를 가일층 심화시켰다.

세계인민을 반대하기 위하여 미제가 추구하여온 침략정책은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과 신식민주의적기만책동에도 불구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은 거대한 힘으로 장성하고있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침략정책에 강력한 타격을 주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3대륙인민들의 강력한 혁명적인 공세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신구식민주의자들의 《생명선》이 끊어져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며 세계평화의 강유력한 요인이다〉 (우와 같은 문헌).

제국주의세계의 력량관계가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 그들간의 모순이 첨예화됨으로써 미제는 서방《동맹국》들 내부에서도 배척을 당하고있다.

현재 제국주의렬강간의 격렬한 쟁투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는데 이것은 주로 미제의 전횡을 반대하는 기타 제국주의국가들의 진출로 특징지어지고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제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진영의 사분오렬과 《동맹국》 내부에서의 미제의 지배적지위의 붕괴는 오늘 제국주의세력의 전반적인 약화, 특히 미제의 쇠퇴와 몰락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미제가 이른바 《공산주의침략》이라는 날조된 구실하에 조작한 반공군사쁠럭체계는 그 근저로부터 붕괴되고있다. 서방출판물들도 인정하고있는바와 같이 《나토》는 이미 분렬되고 《쎈토》는 생명이 끊어지고 《세아토》는 벌써 아무런 생활력도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특히 《나토》의 중요한 성원국의 하나인 프랑스는 미제가 주장하는 다각적핵무력안을 정면으로 반대하여나서고있을뿐아니라 나토군통합사령부에서 탈퇴하였으며 자기의 령토내에 있던 나토군총사령부를 철수케 하였다. 프랑스는 《나토》에서 프랑스군대를 철수하는 문제까지 들고나옴으로써 사실상 서방군사동맹체제를 붕괴에 이르게 하고있다.

현재 서방동맹국중에서 어느 한 나라도 미국의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정책에 추종하는것을 원치 않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인민들뿐만아니라 서방동맹국들로부터도 고립당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국주의는 오늘 국외에서뿐아니라 자국내에서도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고있다. 미국은 2차대전이후 이미 네차례의 경제공황을 겪었다. 오늘 미국이 직면하고있는 경제위기는 더욱더 만성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생산능력의 과잉으로 하여 조업부족이 상시적 현상으로 되고있으며 국제수지균형의 악화와 금의 대량적인 류출로 《딸라위기》가 더욱 심각화되고있다. 600만~700만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빈궁화가 더욱 촉진되고있다.

미국에서의 사회적 및 계급적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흑인들의 투쟁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인민들의 투쟁은 전국적규모에서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고있는데 그것은 현존순정부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된다. 미제는 군사적으로도 커다란 취약성을 로출시키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정치도덕적 약점은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미제의 군사력은 극도로 분산되고있다. 그들은 해외에 설치한 2,000여개의 침략적군사기지들에 120여만에 달하는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그 지역 인민들의 반항을 불러일으키고있을뿐아니라 여러지역에 못박혀버리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현존순정부는 해외에 설치한 수많은 군사기지와 침략전쟁으로 하여 심각한 병력부족을 느끼고있다. 그들은 이러한 약점을 메우기 위하여 비상 《조치》를 취하고있으나 웰남전쟁에 요구되는 병력을 보충하는데 커다란 난관을 겪고있으며 특히 비행사를 비롯한 기술병종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미제의 핵공갈정책 역시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국가들의 군사적위력의 강화에 의하여 완전히 파산되였다.

미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부패성은 조선전쟁을 통하여 여지없이 폭로되였다. 조선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미제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그들과 싸워능히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세계피압박인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였으며 이것은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의미하는것이였다》(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조선전쟁에서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웰남에서 또다시 새로운 무모한 전쟁을 도발하고있다. 미제는 웰남침략전쟁에서 만회할수 없는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멸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있다. 그들은 궁지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출로를 침략과 전쟁확대에서 찾고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위기를 가일층 심화시킬뿐이다.

이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미제국주의가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 멸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의 흉계를 파탄시켜야 한다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지반이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반제투쟁에 의하여 무너져가고있는 오늘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어떻게 해서나 실현해보려고 갖은 발악과 흉책을 다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 위험한 흉책을 낱낱이 폭로하는것은 현시기 반제, 반미투쟁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에서 김일성동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철저히 폭로하면서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미제는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 조성된 난관을 리용하여 한 지역에서는 정세를 일시 완화 또는 고착시키면서 힘을 집중하여 다른 지역을 침략함으로써 한고리씩 먹어들어가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다》(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미제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아세아가 제국주의의 련쇄중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로 되고있으며 이 지역이 차지하는 군사전략상 및 경제적 의의와 관련된다.

아세아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의 출현과 그 군사경제적위력의 장성,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의 강력한 진출은 이 지역에서 력량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적지반을 붕괴의 위기에 직면케 하였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앙양되고있는 혁명력량의 장성을 저지하고 이 지역에서 식민지체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저들의 침략정책을 추진시켜보려 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목적밑에 미제침략자들은 현재 해외주둔 미군의 근 60%에 해당하는 70만명의 침략군을 아세아와 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있으며 근 1,000개의 군사기지를 아세아 지역에 설치하고있다.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기본전략에서 윁남전쟁은 그의 중요한 일환이다. 미제는 윁남침략전쟁을 확대함으로써 남부윁남에서 당하고있는 군사전략적패배를 수습하며 아세아를 비롯한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저지해보려 하고있다.

윁남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제는 이미 35만여명의 미군과 수많은 괴뢰군을 남부윁남에 끌어들였고 앞으로 그 수를 60만~70만명 혹은 그 이상에 이르게 하며 윁남민주공화국에서까지 지상전을 벌려놓을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윁남침략전쟁의 확대책동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에 원자유도무기를 비롯한 각종 신형무기를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도발행동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인민중국을 반대하는 도발행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면서 당면하게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침략하기 위한 술책을 실천에 옮겨가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윁남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며 조선, 꾸바, 동부독일 등 분렬되여있는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우와 같은 문헌)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제는 그들의 핵독점과 그 우세가 파산된 조건에서 될수록 큰 나라들에 접근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반제, 반미 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도록 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현재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접며》이니, 《우호적접촉》이니 하면서 접근정책을 쓰고있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의 단합된 반격을 피하면서 세계혁명력량의 분렬을 조성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침략하며 그리하여 다음에는 큰 나라들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 하고있다.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작은 나라들과 분렬된 나라들을 하나하나 침략하는 미제의 술책은 오늘 윁남침략전쟁에서 구체적으로 수

진되고있다.

미제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특히 윁남전쟁에 돌리면서 다른 지역에서 정세를 일시 완화 또는 고착시키며 큰 나라들과의 관계는 될수록 악화시키지 않으려는것은 그들의 군사전략적약점을 메우면서 침략정책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전선에서의 긴장상태의 완화가 전반적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다른 전선에서 침략을 강화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다. 따라서 그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더욱 큰 위험으로 된다》(우와 같은 문헌).

공산주의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이 한 전선에서는 정세를 완화 또는 고착시키면서 력량을 집중하여 다른 전선에서 침략정책을 강화할수 없게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책동을 저지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계평화와 혁명투쟁의 발전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할수 있다.

미제의 침략정책에서 《평화책략》은 그들의 군사전략의 보충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책략》을 추진시킴으로써 저들의 군사적침략을 용이하게 실현하려고있다.

미제는 《평화책략》으로써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물론 사회주의나라들에 침투하여 침략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 하고있다.

미제의 평화적기만술책의 반동적본질은 윁남전쟁의 《평화적수습》을 위한 《무조건협상》제의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현존슨정부의 《평화협상》놀음은 윁남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며 세계인민들의 비난과 반항을 무마하고 침략자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음모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자들과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음흉한 침략정책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를 철저히 폭로하여야 하며 면합된 력량으로 반제, 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제에 더욱 큰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투쟁대상의 정확한 규정

조성된 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반제, 반미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계급투쟁의 기본내용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근본적리익을 고수하고 혁명의 위업을 전진시켜왔다.

공산주의자들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정책에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량면정책》의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고 그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나라들과의 외교관계나 경제적교류관계로 하여 반제투쟁을 약화시킬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가질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나라들은 외교에서 항상 계급적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며 결코 반제투쟁을 외교관계에 용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그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한 실제적인 단호한 조치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구호만으로써는 반제투쟁을 대체할수 없다.

반제투쟁에서 주되는 투쟁대상을 옳게 규정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투쟁에서 주되는 대상에 공격의 예봉을 집중함으로써 적에게 보다 강력한 타격을 줄수 있으며 반동진지의 전반적붕괴를 촉진시킬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세계반동의 지주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에 투쟁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광범한 반제력량을 동원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집중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선차적인 과업이다〉**(우와 같은 문헌).

미제국주의는 여전히 제국주의세력의 두목으로 남아있으며 세계혁명력량을 교살하는 국제헌병으로,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으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 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나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렬시켜야 하며 미제가 발을 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동시에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반미투쟁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서독군국주의자들에 대하여 정확한 태도를 취하는것이 오늘날 반제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일본군국주의와 서독군국주의는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였으나 다같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육성하에 되살아나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위험한 전쟁세력으로 등장하고있으며 미제와 결탁하여 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다. 구라파에서 서독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는 동시에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 미제의 충실한 돌격대로 등장하고있으며 미제에 복무하는 대가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곧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철저히 폭로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진행하는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국가들의 의무이다.

미제국주의와 일본독점자본간에는 일정한 모순이 있으며 그것은 더욱더 증대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는 근본적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리해관계를 같이하고있으며 이로 인하여 호상 결탁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와의 관계를 일면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 미제는 아세아침략에 이어서 일본군국주의를 리용하지 않고서는 저들의 침략정책을 수행할수 없으며 일본군국주의 역시 미제와의 종속적인 동맹관계하에서 미제를 등에 업지 않고서는 대외팽창의 야욕을 실현하기 곤난한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미일간의 모순을 과대평가하고 그들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않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는다

면 그것은 곧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며 그의 침략정책을 강화해주는것으로 될것이다.

미제를 반대하는데서 현시기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는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고 웰남인민의 정의의 구국항전을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적극 지원하는것이다.

오늘 미제의 웰남침략전쟁과 그를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은 혁명과 반혁명력량간의 투쟁의 초점으로, 현시기 국제정치문제의 중심으로 되고있다.

웰남전쟁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아세아와 세계정세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제를 반대하며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웰남문제에 대한 태도는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민족리기주의를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된다》(우와 같은 문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웰남인민의 정의의 구국항전을 처음부터 자기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으며 또 하고 있다.

반제력량을 단합시키는 정확한 길

우리 나라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과 민족적독립을 완수함에 있어서나 세계적규모에서 제국주의침략을 분쇄하고 혁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혁명력량을 단합하는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침략을 강화하고있으나 력량관계는 전반적으로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발전되고있으며 적들은 점점더 혼란과 궁지에 빠지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모든 혁명력량이 하나로 단합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도 좌절시킬수 있으며 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혁명력량을 단합하는것은 매개 나라에서와 전세계적범위에서 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이번 우리 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에서 혁명력량을 단합하기 위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반제혁명력량의 단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보장하는것이다.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은 모든 혁명력량을 단합하는데 있어서 기본문제이다.

사회주의진영은 국제로동계급의 장기간에 걸친 피어린 투쟁의 전취물이며 동일한 사회제도와 공통된 사명에 기초하여 결속된 하나의 전일체이다. 사회주의진영은 제국주의진영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가장 철저한 반제력량이며 오늘날 세계의 주되는 혁명력량이다. 사회주의진영은 세계혁명의 거점이며 모든 반제혁명력량을 단합시키는 중심으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며 그 통일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

공산주의자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혁명의 리익,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반의 리익의 견지에 서야 하며 내부에 조성된 복잡한 사태를 시급히 수습하고 전통적인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하

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보장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여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저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원칙적인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당은 금번 대표자회에서 다시금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고 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확한 방침을 천명하였다.

사회주의진영에 유고슬라비아의 찌또도당과 같은 혁명을 배반한자들, 제국주의사환군들을 끌어들이며 이 진영을 그 어떤 다른 성격의 협동체로 바꾸어놓으려 하는것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약화시키며 그 전투적역할을 저하시키는것으로 된다.

또한 사회주의진영에서 이러저러한 나라들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려 하여도 안된다. 이렇게 한다면 사회주의진영을 분렬에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진영과 세계인민들에 대한 범죄적침략책동과 전쟁정책에 미쳐날뛰고있는 정세하에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면서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을 반제통일전선에 결합시키는것이 절실히 요구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에서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는가 못하는가, 민족해방운동을 촉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와 관련되여있다》(우와 같은 문헌)고 지적하였다.

현시기 미제의 발광적인 반동적, 반인민적 책동은 사회주의진영을 중심으로 광범한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결성할 조건을 더욱 조성시키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미제국주의침략정책을 규탄하고있으며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당적, 국가적 립장을 표명하고있다. 또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윁남인민에게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를 주고있다.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더욱 각성되여 반제적길로 나아가고있으며 국제민주단체들, 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과 많은 나라 혁명적인민들의 대표자들이 제국주의침략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이러한 립장은 모든 나라 인민들과 제국주의간의 리해관계의 근본적인 대립에 기초하고있으며 미제의 전쟁책동으로 인한 오늘의 긴박한 세계정세를 반영하고있다.

현시기 사회주의나라 형제당들 사이에는 의견상이로 하여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진영내부문제와 형제당들간의 의견상이가 있다 하여 그것이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의 절박하고 근본적리익으로 되는 반제, 반미투쟁에서의 공동보조와 단결된 투쟁을 배제할수 없다. 적아간의 모순이 가장 첨예한 정면에 있는 오늘의 력사적순간에 있어서 사회주의진영내부의 문제해결에서는 혁명과 반혁명간의 투쟁의 리익을 신중히 타산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모든 형제당과 형제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며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에서 능히 혁명력량의 단합을

실현할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것이 제국주의침략을 파탄시키고 로동계급의 위업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인정하고있다.

지금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 모든 반제력량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는것은 좌우경기회주의이다.

기회주의를 극복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 반제혁명투쟁의 성과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그러므로 그것과의 투쟁은 모든 공산당, 로동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그러나 반제혁명투쟁의 현실적조건은 기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오늘의 력사적조건과 당면한 혁명과업들을 옳게 타산하고 이를 신중히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단결을 부인하는 좌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되며 단결을 수호한다고 하여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우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된다. 우리 당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좌우경기회주의와의 투쟁이 없이는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진정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우리의 단결의 기초는 공동적인 반제혁명투쟁이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에 대한 충실성이다. 이러한 기초를 파괴하는 어떠한 편향도 받아들일수 없으며 견결히 배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투쟁은 그 어느때나 약화시킬수 없으며 단결의 명목하에 그것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된다. 무원칙한 《단결》과 《통일》은 공산주의운동과는 인연이 없다.

그러나 오늘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절대화하면서 단결할수 있는 모든 반제력량과의 단결을 거부하는것은 잘못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기회주의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이 혁명에 적대하고 적의 편으로 넘어가는 때에는 조직사상적으로 단호히 결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혁명대렬내에 불철저한 요소들, 일부 좌우경적편향을 범하는자들에 대하여서는 사상적으로 비판하고 투쟁하면서 공동의 적을 반대하는 마당에서 단결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행동을 실현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투쟁하면서 단결하며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우리 당은 기회주의를 반대함에 있어서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의 부정적면을 비판하고 긍정적면을 정당하게 평가하면서 단합하여 적들과 싸우며 이 투쟁행정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가 안하는가를 검열할것을 주장하고있다.

형제당들에 대한 평가에서 신중성을 기하여야 하며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검열하여야 한다. 현시기 이 검열을 위한 실제적무대는 바로 월남이다.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사이의 계선도 더욱 명백하여질것이다. 실지 투쟁에서 미제를 반대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월남인민을 지원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것이 밝혀질것이다. 실천은 옳고 그른것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된다. 기회주의도 사상투쟁과 함께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극복할수 있는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투쟁하면서 단결하며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밑에 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점차 의견상이를 좁히고 전통적인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할것이다.

월남인민을 돕는 공동행동에 인입하고 실천을 통하여 검열하는것은 기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원칙적이며 현실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될뿐만아니라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적극적인 투쟁방침인것이다.

《반제공동행동을 거부하는것은 진실로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태도가 아니며 미제를 반대하며 싸우는 월남인민을 지원하려는 립장이라고 볼수 없다》(우와 같은 문헌).

현시기 국제적인 반제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의 하나인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세계의 광범한 반제평화력량을 단합시키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신생독립국가들도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서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에 더우더 커다란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하고있다. 이 나라 인민들을 백방으로 지원하여 그들과의 공동적인 반제투쟁을 도모하는 것은 공산당, 로동당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민족해방운동, 신생독립국가들과의 통일전선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립장에 기초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을 백방으로 지원하고 그들과 굳게 손잡는 동시에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고 제국주의전쟁정책과 식민주의정책을 도와주는자들과는 원칙적인 계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

미제의 사촉밑에 나라를 더욱 우경에로 이끌고있는 인도반동세력에 대한 옳은 태도를 취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실상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도와주고있으며 국내의 진보적력량을 탄압하며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여 적대행동을 취하고있는 이러한 나라 지배층에 대하여 응당 경계하여야 한다.

모든 반제력량을 단합시키는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광범한 민주력

량과 평화옹호운동을 단합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하며 반제공동투쟁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계혁명력량의 통일전선을 이룩할 때 현시기의 반제, 반미 투쟁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될것이며 세계혁명의 승리적인 전진은 가일층 촉진될것이다.

* *

우리 당은 일관하게 제국주의 특히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적로선을 견지하여왔다.

우리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침략 및 전쟁 정책을 단호히 폭로하여왔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의 침략을 분쇄함으로써 그들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렸다.

우리 당은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여왔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그 곳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대륙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고있다.

또한 미제의 비호하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작성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당의 정확한 반제투쟁로선을 확고히 고수하고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적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어떠한 사태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고 당의 자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기여할수 있을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신 근 필

최근에 진행된 우리 당대표자회는 조성된 정세에 대한 심오한 분석평가로부터 출발하여 당의 대내외활동의 강령적방침을 천명하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과업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정세의 새로운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 당이 몇해전부터 집행하여온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이다.

오늘 사회주의진영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미제의 전쟁책동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웰남에서 계단식 전쟁확대정책은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전체 아세아에서와 우리 나라에서 정세는 한층더 긴장되였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것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완수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 방침은 우리 당이 일관하여 견지하여온 방침 즉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여 그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하며 동시에 평화적건설의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방침을 현정세의 요구에 부합되게 구체화한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방침은 주권을 장악한 로동계급앞에 제기되는 과업들을 현시기에 여하히 실현해나가는가, 오늘 세계에서 전쟁과 평화문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립장을 취하는가, 현시기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등의 문제들에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자주적인 혁명적로선을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을 구현한것이다.

그것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견지하는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의 표현이다.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앞에 제기되고있는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 ⁂

경제문화건설과 국방력조직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어느 때나 소홀히 할수 없는 과업들이다.

혁명에서 승리한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 기능은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며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데 있다. 이 기능을 옳게 수행하여야만 민족적 및 국제적혁명임무를 완수할수 있다.

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임무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이 일단 정권을 잡은이상은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부단히 증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의 목적은 근로자들을 온갖 민족적 및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할수 있게 만드는데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달성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다. 또한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하여야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다》(우와 같은 문헌).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전복된 착취계급들의 반항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없으며 인민들의 평화적로동을 보위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은 그 어느 때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다.

현시기 조성된 긴장되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은 반드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전쟁의 위험성이 일층 증대되였다고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

오늘날의 조건하에서도 인민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것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뒤로 밀수 없는 절실한 과업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선 원칙적과업을 해결해나가는것이며 인민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차게 동원되게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것이다.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과시하며 자본주의세계 근로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일층 증대시킬수 있게 한다. 이것은 제국주의 기반하에서 빈궁과 무권리에 허덕이는 근로인민들에게 더 큰 혁명적영향을 주며 그들을 반제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키게 한다.

경제건설을 잘 진행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는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제도, 특히는 사회주의경제의 생활력에 대하여 온갖 허위와 비방, 중상을 퍼뜨리며 이것을 《반공》선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있는 조건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건설을 잘 진행하는것은 비단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생활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질뿐만아니라 국내국제적으로 커다란 정치적의의를 가진다.

경제건설의 성과적추진은 오늘 사회

주의나라들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침략을 저지하는 투쟁을 위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제건설을 추진시켜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국방건설을 위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보장할수 없으며 국방을 공고히 다질수 없다. 현대 조건하에서 경제건설을 추진시킴이 없이는 국방건설을 생각할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 많은것이 파괴될수 있다고 하여 경제건설을 그만둘수는 결코 없다. 경제건설을 추진시키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되고있는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설사 전쟁이 일어나 혹심한 파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은 또다시 새생활을 건설할수 있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면서 국방건설에 더욱 큰 힘을 돌리는것은 오늘 정세의 절실한 요구이다.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이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으며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침공이 감행되고있는 오늘 국방력강화에 최대의 주의를 돌리는것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의 혁명적임무이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가질수 없으며 궁지에 빠진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책동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성을 결코 과소평가할수 없다.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방건설을 계속 강화하여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전쟁확대책동을 저지시킬수 있고 세계평화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제국주의침략성과 전쟁정책에 대하여 환상적으로 대하는데로부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만 타산하고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국방력을 응당하게 강화하지 않는다면 도리여 전쟁의 위험성을 증대시킬수 있다. 평화는 오직 충분한 국방준비와 단호한 반제투쟁에 의해서만 보장될수 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느 때나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전쟁의 위험성이 증대된 현시기에도 이와 같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 나가는것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정세의 요구에 직접으로 부합되는 방침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것이라 하여 국방건설에만 치우치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것도 잘못이며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는것도 잘못이다》(우와 같은 문헌).

오늘 조성된 정세는 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켜 확대재생산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방건설에 보다 큰 힘을 돌리며 국방건설의 비중을 현저히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은 현시기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과업의

요구이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준비와 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책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급속히 강화해나가며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시키는 투쟁에 더욱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다같이 커다란 힘을 돌리는 병진로선을 실시하게 된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방침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면서 현시대의 정세에 부합되게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는 가장 정확한 길을 명확히 천명한것이며 우리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방침은 내외의 정세, 주객관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고 혁명력량을 적극 준비하며 주동적으로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확고한 결의를 반영한것이다.

우리 인민은 이 로선을 관철함으로써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급속히 강화하고 정세발전의 어떠한 추이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할수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방침은 우리 당과 인민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실현해온 과정에 이루어진 성과들에 기초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자주, 자립, 자위의 방침을 견결히 관철시키려는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기치하에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분투노력하여 이루어놓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확고한 토대와 국방력은 오늘의 정세하에서 경제건설을 계속 급속히 추진시키며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더욱 큰 사업들을 전개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자주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또하나의 증시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주체적립장을 견지하고 우리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나아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성과적으로 투쟁해 나갈것이다.

* *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들을 고수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혁명발전의 매시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결합시키는 방침을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 우리 당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되였으며 고귀한 경험들이 축적되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현시기 우리 당의 방침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배합하는 방침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 이 경험과 성과들에 의거하고있다. 그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배합하는 당의 일관된 방침의 계속이며 그것을 오늘의 정세의 요구에 부합되게 발전시킨것이다.

해방후 우리 당은 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조선혁명의 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당시의 조건에 맞게 배합하고 적극 추진시겼다.

당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는 원칙에따라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면서 자주독립국가의 경제적기초축성을 위하여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자위의 원칙에 따라 북반부혁명기지를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해방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것은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남반부를 해방할 사명을 지닌 혁명적인민무장력, 조선인민군을 창건한것이였다.

미제의 무력침략을 반대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해방후 혁명기지창설로선을 제시하고 민주주의혁명의 성과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두 과업을 옳게 결합시켜온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여실히 증명하는것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당은 모든것을 전쟁승리에 동원하면서 전선을 지원하고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경제사업에도 부단한 주의를 돌렸다.

당은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군수생산을 증대시키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당은 격파의 가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때에 벌써 전후 인민경제의 골간으로 될 기계공장의 건설을 추진시겼으며 인민경제복구건설의 준비를 진행하였다.

당의 이러한 방침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었고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도 인민생활을 보장하고 전후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조건을 마련케 하였다.

전후시기에 우리 당은 정전이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하여 경제건설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향과, 반대로 정전이 공고한 평화를 의미하는듯이 생각하여 국방건설의 과업을 소홀히 하는 편향을 다같이 반대하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배합할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에 따라 인민경제복구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도록 하는 동시에 국방건설에 커다란 힘을 돌리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에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살려 국방상 리익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조국방위에 준비시키는 사업에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이러한 방침은 짧은 기간내에 우리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키고 인민생활을 급속히 안정향상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북반부혁명기지를 적의 임의의 침략도 격퇴할수 있는 불패의 요새로 꾸려놓을수 있게 하였다.

1962년에 소집되였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 더욱 큰 힘을 돌릴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당시에 미제국주의자들이 꾸바공화국을 반대하여 도발한 카리브해의 위기,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바크보만사건 등은 세계와 아세아에서 긴장상태

를 일층 격화시켰으며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도 경각성을 높이고 국방력강화에 주력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조성된 사태는 또한 오직 자위의 방침을 실현하고 자기의 튼튼한 국방력에 의거하여서만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방침을 견지하는 우리 당은 전반적사업을 정세발전의 추이에 맞게 개편하면서 국방건설에 더 큰 힘을 기울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실시하게 된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7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 사업들을 조절하면서 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는 한편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의 정확한 방침이 실현되는 과정에 우리 나라의 국방력은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경제건설에서도 계속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최근 5년동안에 중공업기지가 더욱 보강되고 경공업, 농업이 계속 발전하였으며 공업생산은 년평균 14.3%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이번에 있은 당대표자회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확고히 견지하며 그에 립각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할것을 제시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오늘 국제정세는 더한층 긴장되였으며 전쟁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였다. 조성된 혁명정세하에서 우리는 국방건설에 더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국방건설의 강화는 보다 많은 인적물적자원을 요구하며 이것은 우리 인민경제의 발전속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을 더욱 다그쳐야만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대표자회는 7개년계획의 수행을 3년간 연기하고 그것을 공고한 토대우에서 확신성있게 계속 추진시켜나가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다같이 역량을 집중할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현시기 정세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방침이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정당한 조치이다.

* *

금번 당대표자회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를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7개년계획을 완수하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군사로선—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방침을 관철하여야 하며 후방을 튼튼히 꾸리고 우리 경제를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확고히 의거하고있으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 서있다. 그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자주로선,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것으로서 현대전쟁의 모든 요구들을 옳게 반영한 가장 위

력한 방위체계를 수립할수 있게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실정 및 현대전의 특성에 부합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국방의 요구를 충분히 타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정세하에서도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확고히 수호할수 있다.

경제건설부야에서 7개년계획의 과업을 완수하는것은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7개년계획이 제시한 경제건설의 방향과 과업들은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와 조선혁명의 리익에 부합되는 전적으로 정당한것이다. 우리는 제4차 당대회가 제시한 7개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함으로써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었다.

우리는 7개년계획의 총적과업과 부문별 과제들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7개년계획에 제시된 중요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인 전진을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건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한다. 공고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여야만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체로 국가와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혁명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두 과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추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이미 축성된 경제토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분야에서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이다. 지난기간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토대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표자회가 제시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기본방향—경제적밀천의 최대한의 리용과 생산 및 건설에서의 질제고를 실현해나간다면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대한 예비를 얻어낼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선행시키고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기술혁신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전체 인민을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단합시키며 조성된 정세하에서 더욱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도록 준비시키는 동시에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발양하며 인민군대를 자기의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원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당의 뜻을 받들고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원될 때 당이 제시한 전략적방침은 성과적으로 실현되나갈것이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빛나는 승리가 달성될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더욱 높이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일군들앞에 나서고있는 책임적인 과업으로 된다.

인민소비품의 질제고를 위하여

리 호 혁

금번 당대표자회는 인민소비품의 질제고와 품종확대를 경공업부문의 중심과업으로 규정하였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는 문제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체계적으로 향상되여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 절박한 문제이며 우리 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현존경제토대의 효과적인 리용에 의거하여 능히 해결할수 있는 성숙된 문제이다.

우리는 정치사업을 선행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따라세움으로써 가까운 년간내에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결정적인 전변을 이룩하여야 한다.

* *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상 절박한 요구이다.

인민들의 의식주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지 오랬으며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량에만 치중하던 시기도 이미 지나갔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고 수요가 다양해졌을뿐아니라 그 질적수준도 매우 높다. 인민들은 아름답고 쓸모있고 견고하며 다양한 소비품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있는 인민소비품은 아직도 질이 높지 못하며 다양하지 못하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는 몇개의 품종에 치우치거나 요구되는 질적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기때문에 제품의 총적수량은 적지 않게 생산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것들은 모자라고 어떤것들은 체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품의 질이 량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는것이 인민의 수요충족에서 장애로 되고있다.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질기게 만드는 것은 량적으로 생산을 증대하는것과 동일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의 질만 높인다면 인민생활을 현저히 개선할수 있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그만큼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게 하는 동시에 생계비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향상을 가져온다. 제품의 질이 높아지는 조건하에서 근로자들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로써도 생활을 더 풍부하고 윤택케 할수 있는것이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의 절약제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소비품은 채취, 금속, 화학공업 등 중공업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원료로 한다. 중공업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도 결국은 인민소비품의 실현을 통해서 회전된다. 인민소비품은 인민경

제 모든 부문에서의 로동지출의 종합적 결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문에서 오작을 근절하고 원료, 자재, 연료의 실수률을 높이며 쓸모있고 견고한 제품들을 만들어 질을 높이는것은 물질적생산부문의 이여의 과정들에서 축차적으로 집직된 막대한 사회적로동의 절약을 의미한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바로 여기에 생산을 더욱 장성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거대한 예비가 있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또한 더 많은 외화를 얻을수 있게 하며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획득에서 인민소비품생산부문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우리는 중공업제품들의 수출과 함께 인민소비품의 수출도 확대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여야만 수출을 증대하여 외화를 더 얻을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높은 신망도 더욱 확고하게 할수 있다.

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며 우리 인민들의 자주의식과 민족적긍지를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들이 쓰고 사는 소비품이 더 좋고, 생활수준이 더 빨리 높아질 때 사람들은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될것이며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해나갈수 있다는 신심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될것이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인민경제발전의 가장 절박한 요구의 하나이다.

오늘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 강력한 중공업기지가 꾸려졌으며 그것은 경공업과 농업발전을 촉진하고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공장들과 함께 2,300여개에 달하는 지방산업공장들과 생활필수품직장들이 건설되였고 그것들은 더욱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여가고있다. 또한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발전은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고있다.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졌으며 우리 일군들은 경제건설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고 수련을 쌓았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소비품의 질제고와 품종확대의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투쟁하는가 못하는가,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　　　*

제품의 질제고와 품종확대를 위한 기본고리는 생산자들속에서 한개의 물건을 만들어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더 알뜰하고 쓸모 있게 정성들여 성심성의로 만들겠다는 높은 책임성과 공산주의적 사상관점을 확립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정신이 높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다 알뜰하고 실속있게 할것이다. 결국은 사상문제이다》(김일성선집 제6권, 256페지).

우리 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지주, 자본가들이 아니라 자기자신과 인민을 위하여 생산한다. 국가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통일되여있으며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질적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나라와 인민의 살림에 리롭다.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생산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할 때 근로자들은 하나를 만들어도 실속있게 만들것이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적은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더많이 만들어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제품의 질제고의 선결조건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그들의 매일매일의 생산활동, 하나하나의 제품생산에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제품을 막론하고 그 질적상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자들의 사상, 정신상태를 반영해준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제품을 보라》라는 선진적로동자들의 구호가 실천적생산활동에서 구현되게 하여야 한다.

경험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된다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평양편직물공장, 신의주신발공장들에서 1등품 비중을 98%이상으로 높이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게 된것도 바로 이 기업소당위원회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애국주의교양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파악시키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며 그것을 하나의 제품생산, 매개의 생산활동에 구체화하고 심화시킨 결과인것이다. 이 공장들에서는 생산의 물질기술적 제조건들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은것도 아니다. 설비와 자재, 원료는 전에 쓰던것들이며 사람들도 이전 그 사람들이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일군들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되는대로 일하며 되는대로 사는 낡은 습성과 거칠은 일본새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이 필요하다.

생산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깐깐한 일솜씨가 제품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인민소비품생산부문에서 이것은 특히 날카로운 문제이다.

되는대로 일하고 되는대로 사는 습성은 일제식민지통치와 착취제도가 남겨놓은 악습이다. 착취자사회에서 생산과 건설이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을 위한것이였고 근로자들이 혹심한 빈궁속에서 허덕이였던만큼 날림식으로 일하는것은 응당하였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오늘에와서 거칠고 무책임한 일본새는 허용될수 없다. 또 원래 조선사람들은 뛰여난 재능과 지혜 그리고 알뜰한 일솜씨로 하여 예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고려자기, 개성의 인삼, 덕천의 항라, 녕변의 비단, 영흥의 명주 등은 우리 인민의 자랑이였다.

모든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생산에서 선조들의 자랑찬 기술문화를 이어받은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요구에 부합되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그만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날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매개 소비품의 선진적수준을 따라잡고 앞서나가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질을 높이는데서 계속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생산계획을 량적으로만 수행하고 제품의 질적수준에 대해서 차요시하는 일부일군들의 형식주의적이며 무책임한 사업태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속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이 인민들의 요구에 맞는가 안맞는가, 나라에 리익을 주는가 손해를 주는가에 대해서 적게 관심하고 제품의 질제

고 사업을 견본이나 시제품생산으로 대치하면서 실지상 국가생산계획을 금액상으로, 량적으로 수행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허용될수 없다.

우리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일부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사업태도를 시급히 극복하고 인민소비품의 질제고에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부문에서 질을 높이고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도는 기술혁신을 강화하여,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기술공정을 부단히 완성하는것이다.

이 문제는 오늘 전체 인민소비품의 약 절반을 생산하고있는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현대적설비로 꾸려진 방직공장들에서는 점차 자동화비중을 높이며 지방직물공장들에서는 준비 및 후처리 공정들을 잘 꾸리고 설비들을 더욱 완비할것이 요구된다. 다른 부문들의 경공업공장들에서도 설비를 더욱 현대화하고 기술공정을 완성하는것이 인민소비품의 질을 현저히 개선하며 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기술혁신운동에서는 큰것만을 바라볼것이 아니라 《작은것》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경험은 처음에는 적은것으로 보이던 혁신안도 정작 그것을 도입하고 보면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나타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중의 창발성과 지혜를 옳게 동원하여 빠졌거나 불비한 생산공정들을 가능한한 자체로 부단히 보충완성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관리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며 생산자들에게 배워주고 그것을 준수할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주는 동시에 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이 제시되지 않은채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시되여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상을 근절하여야 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생산을 촉진한다는 구실밑에 응당 지켜야 할 기술규정을 위반하거나 응당 거쳐야 할 기술공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것과 같은 현상은 철저히 근절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일단 제정된 기술규정을 생산자들속에 철저히 해설침투시킴으로써 모든 생산자들이 그것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데서 검사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제품검사사업에서는 완제품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히는 중간공정에서의 검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매개 공정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중간제품이 다음 공정에 넘어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선행공정에서 결함이 있는 반제품을 다음 공정에 넘긴다면 질을 높일수 없고 오작품이 근절될수 없다.

제품검사원들은 질제고의 초소에 서있다. 검사원들은 제품검사사업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오작품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우수한 검사원들은 제품검사사업에서 원칙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제때에 오작품을 발견할뿐아니라 그 원인

을 생산자들에게 알려주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적극 참가함으로써 질제고와 오작품근절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화할것이 요구된다.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필요한 검사원대렬을 확보하고 그들의 기술수준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검사사업의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감독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품질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은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술전습체계를 잘 세우고 기술학습과 기술전습 및 경험교환회 등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견본품 진렬실 및 공정까비네트를 실속있게 꾸리고 직관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고급기능공들의 대렬을 확대하고 그들을 고착시키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은 오랜 로동년한과 높은 기술기능을 가진 로동자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들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하고 관심하면서 고급기능공들의 대렬을 급속히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확보된 고급기능공들은 타사업에 동원시키거나 다른 직무에 이동시키지 말아야 하며 어데까지나 그들의 개별적전문생산부문에 고착시켜 그 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품생산에서 전문화와 협동화를 강화하고 기업소들의 제품생산 품종들을 고착시킬뿐아니라 매개 생산자들도 한가지 작업에 고착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소들과 매개 생산자들은 제품생산에서 급속히 경험과 숙련을 쌓아 질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여 생산자들의 질제고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소비품생산부문에서는 제품의 량뿐아니라 그 질적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여 좋은 제품을 만든 생산자들과 기업소들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하며 거기에 물질적자극이 배합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정성들여 일한것만큼, 제품의 질을 높인것만큼 정치도덕적으로 고무해주고 물질적으로도 평가해줄 때 정치사업의 선행에 의하여 앙양된 근로자들의 열성과 적극성도 더 확고해질수 있는것이다.

생산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생산자들을 물질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는 매개 생산단위들과 개별적생산자들에게 생산계획을 시달함에 있어서 제품의 질적수준, 품종, 규격 등을 명백히 설정해줄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는것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생산계획을 량적으로만 수행하려는 편향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한다.

생산문화를 확립함이 없이는 인민소비품 질제고의 과업을 실현할수 없다.

일용품은 아름답고 알뜰하게, 식료품은 먹음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생산문화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높은 질을 가진 인민소비품이 나올수 없다.

공장, 기업소들은 주위환경이 언제나 깨끗하여야 하며 문화적이고 위생적이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 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은 소비품의 질제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생산부문에 대한 류통부문의 반작용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상품류통부문일군들은 인민들의 수요연구에 기초하여 상품주문을 책임적으로 하며 소비품생산부문일군들은 그것에 의거하여 사소한 일용잡화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소비품의 질과 품종, 규격 등에 대한 요구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속에 들어가 자기들이 만든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고 고쳐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의 사업경험은 이에 있어서 본보기로 된다. 이 공장에서는 시내에 5개의 신발수리소를 설치하여 직접봉사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신발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의 성별, 년령별, 체질별특성과 결부시켜 연구하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최근 이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신발들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인민소비품생산부문의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찾아내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 사업은 이 부문 일군들의 힘만으로써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이 사업은 다른 부문들 특히 직접 련관되여있는 런접부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인민소비품의 질은 원료, 자재, 연료, 기계, 설비 등의 질과 그 공급의 정상성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그렇기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데 요구되는 조건들을 적극 해결해주어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각종 기계, 설비들과 검사측정기구들을 질적으로 제때에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각종 화학제품들을 계약된대로 정확히 보장해주어야 할것이다. 기타 협동생산품들을 공급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인민소비품의 질제고에 대하여 련대적인 책임을 지고 보장사업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 사업은 현시기 이 부문 일군들에게 부과된 가장 책임적인 과업이다.

그것은 하루이틀에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일군들의 완강하고 꾸준한 투쟁이 요구된다.

인민소비품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가장 긴절한 문제로 제기되는 대상들에 모를 박고 일을 세밀히 조직하고 총화하며 또 조직하고 총화하여 한개, 한개 제품씩 해결해나가는 섬멸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부문의 각급 당위원회들은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생산자대중들과의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이 부문에 제시한 당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의 계급적본질

리 훈

오늘 남조선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최고권력자는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남조선의 《정권》은 《민족정권》, 《국민정권》의 가면하에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고 위장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매국배족의 무리들을 긁어모아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계급적지반으로 삼고있으며 이들에게 제한된 권력을 부여하여 지배자로 행세하게 함으로써 저들의 침략적목적에 복무케 하고 있다.

이 《정권》은 그것이 조작된 첫날부터 미제의 군사적강점을 배경으로 하여 파쑈적성격을 띠게 되였으나 오늘은 소수의 군사관료배들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극악한 군사파쑈독재로 되고있다.

이러한 관계는 물론 외래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또한 남조선사회의 내부에 뿌리를 박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괴뢰정권의 계급적본질을 파악하려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폭로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의 사회경제적 제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1

미제는 총검에 의하여 괴뢰정권을 부지하고있으며 남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신식민주의적시책들로써 저들의 통치와 괴뢰정권의 경제적지반을 강화해보려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원조》를 경제침략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장악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가장 혹심하게 략탈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경제의 혹심한 락후성을 리용하여 주로 재정금융체계의 지배와 시장의 독점을 통하여 남조선의 중요기업소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남조선의 전반적《경제계획》과 그 집행을 좌우하고있다.

현재 그들은 괴뢰정부 재정지출의 30% 이상을 《원조》하는 방법으로 괴뢰정부의 예산을 완전히 틀어쥐고 그것을 미국의 군사예산의 일부로 예속시키고있다. 또 그들은 《원조》물자판매대금의 일부를 금융부문에 투하함으로써 남조선의 금융기관들을 통제할뿐아니라 이 자금대출을 통하여 남조선의 가장 핵심적기업체들도 통제하고있다. 《원조》자금의 이러한 융자액은 지금 남조선의 전 금융기관들의 시설융자의 근 50%에 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수입은 수출의 4배이며 수입중 40%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고있다. 이 결과 남조선은 완전히 미국독점체들의 판매시장으로

화해버렸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의 민족경제는 완전히 자립성을 상실하고 외국의 자금, 외국의 시설, 외국의 《원조》로써 움직이고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경제가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경제로 예속되여있는 점은 본질적으로 일제가 통치하던 시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남조선경제의 내부구성을 보면 일제 때와는 사정이 적지 않게 달라지고있다. 물론 오늘에 있어서도 남조선경제가 자본주의, 봉건주의 및 소상품생산의 세가지 성분으로 구분될수 있으며 식민지예속하에 있는 반봉건경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각 성분의 비중과 호상간의 관계 및 계급들간의 호상관계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난것을 보게된다. 이것은 일제를 계승한 미제가 남조선의 사회경제관계를 저들의 지배와 략탈에 적합하게 재편성하였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후 자기들의 식민지적지배에 더욱 유리한 지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사회경제적관계를 일부 재편성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단행본, 43페지).

그 변화의 기본과정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우선 세가지 경제성분중 봉건적경제형태의 비중이 저하되고있는 반면에 자본주의경제형태의 비중이 현저히 증대되였으며 특히 매판자본이 크게 장성하였다는 점이다.

동시에 소상품생산의 기초가 확대되여가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경제형태들간의 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기이전과 이후시기에 있어서의 제반 조건들의 변화에 의하여 야기된것이다.

일제통치하에서도 자본주의적경제형태의 비중이 컸다. 그러나 거기서 일본인 소유의 자본이 압도적우세를 차지하였고 토착자본은 사회자본의 10% 내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민족경제에서는 봉건적경제형태가 자본주의적경제형태에 비하여 압도적우세를 차지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일제는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위한 앞잡이로서 매판자본가들과 봉건지주들을 다같이 보호하면서도 봉건지주들을 주되는 앞잡이로 삼고있었다. 일본제국주의는 그 자체가 봉건제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토대우에서 오히려 그것을 리용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제국주의에 군사봉건적제국주의의 특성을 부여하였으며 그의 식민지통치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봉건적잔재가 컸기때문에 국내시장이 특히 협애했던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계속 저들의 독점적상품시장으로 보존하였을뿐아니라 토착자본의 장성을 억제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저들의 렬악한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한편 봉건적토지소유제도, 반예농적인 소규모농민경리의 보존을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와 안가한 로력적착취 및 봉건적수탈의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지주계급을 저들의 식민지통치에서 중요한 사회적지반으로 리용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일제와는 다른

주객관적조건에서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와 략탈을 위하여 남조선의 사회경제제도를 일제시기와는 얼마간 다르게 개편하지 않을수 없었다.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지통치가 완전히 청산되고 재반 민주개혁들이 철저히 실시되였으며 이에 고무되면서 남반부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이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남반부인민들은 지주제도의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농민들을 무마하고 민주주의적토지개혁에 대한 요구를 압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는 농촌의 계급적모순을 얼마간 완화할수 있도록 봉건지주제도를 재편성하여 리용할것을 요구하였다.

타방 미제는 조선인민들의 반제투쟁이 치렬한 조건에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을 직접적자본투하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조》의 형태에 주로 의거하여 상업—금융적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사환군으로 토착자본을 매판자본으로 육성리용하는것이 필요했다.

《미제는 남조선을 침략함에 있어서 자기 나라 잉여상품처리의 중매자, 미국사자본침투의 안내자, 자원략탈과 일부 군수품의 현지조달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예속자본의 육성에 제일차적의의를 부여하였다》(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단행본, 48페지).

또한 봉건적관계의 재편성, 미제와 매판자본을 위한 시장확대의 필요성은 농민들의 구성을 일정하게 재편성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경제의 개편은 미국독점자본주의와 일제와의 주관적조건상 차이와도 관련되여있다.

미국독점자본은 과거의 일본독점자본처럼 자국내의 봉건적요소에 의하여 제약받는면이 없으며 자본축적과 그 유기적구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미국독점자본은 일본독점자본과는 달리 남조선의 비교적 취약한 토착자본과의 경쟁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 장성을 봉쇄하기보다 저들의 목적에 맞는 방향에서 조장하여 매판자본화함으로써 이것을 자기들의 앞잡이로 내세우는데 리해관계를 가졌다.

그리하여 미제는 매판자본을 육성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원조》, 《적산불하》, 재정금융적 《특혜》 등으로 축적조건을 그들에게 조성하여줌으로써 그의 급속한 장성의 길을 열어주었다.

지주제도의 재편성에서 미제와 괴뢰도당은 기만적《농지개혁》을 통하여 지주들의 일부 농토를 비싼 값으로 농민들에게 팔아넘기면서 부분적《양보》를 하는척하여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욕망을 무마하면서 나머지 지주소유토지를 보존하고 봉건적지주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봉건지주제도의 일정한 재편성과정에서 농민들도 재편성되였다. 남조선의 일부 농민들은 얼마간 토지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자작농화되였으며 그만큼 소상품생산의 기초가 확대되였다. 그러나 그들의 농가당 평균경작규모는 일제시의 1.07정보로부터 0.87정보로 축소되여 일층 령세화되였다. 그들중 대부분이 소작제, 고역제 및 채무농적 로역에 얽매인 반예농의 상태를 면할수

없게 되였다.

미제강점후 남조선에서의 사회경제구성의 재편성에 의하여 남조선의 사회경제에서는 지주들의 비중이 일정하게 감소되고 매판자본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농민들은 더한층 령세화되였다.

미제국주의는 이러한 변동에 근거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서 일제보다도 더 혹심한 수탈을 강행하고있다.

그들은 오늘 보다 많이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매판자본을 앞장세워 농민들을 착취하고있으며 이에 있어서 봉건적 제관계는 농민들에 대한 2중3중의 가혹한 착취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되고 있다.

소규모농민경리의 가일층의 령세화와 그 반예농적처지는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빈궁화와 농촌의 상대적인 인구과잉을 격화시키고 농산물가격의 가치로부터의 혹심한 배리를 산생시켰으며 다른 편으로는 로동력판매에서 근대적고용관계의 성립을 방해하고 도시에서의 기아적임금수준, 대중적인 만성적실업을 조건지었다.

이러한 관계는 일제통치하에서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일제통치하에서는 일본독점자본이 지주들을 첫째대리인으로 내세웠으며 봉건적인 착취방법이 극히 큰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지주들의 토지가 반감된 오늘에는 지주들을 통한 방법이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착취에서 종전에 비하여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지주들을 통하여 착취하지 못하게 된 것을 괴뢰정부와 매판자본을 통하여 받아내고있다.

이러한 착취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로동자, 농민들에 대한 착취는 일제시대보다 더 심하여졌다. 미제국주의는 매판자본을 앞장세우고 봉건적지주제도를 리용하면서 반예농적소규모농민경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혹심한 저임금로동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있다. 그들은 근로대중을 희생으로 하는 저임금, 저미가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그들의 첫째대리인인 매판자본가들의 육성을 촉진하고있으며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하고 근로인민들의 자제들을 괴뢰군증강을 위한 병력원천으로 만드는데 유리하게 사회경제적 관계를 조성하고있다.

2

남조선의 괴뢰정권은 이상과 같은 사회경제관계의 기초우에 존재하는 예속적이고 반민족적인 《정권》이다.

오늘 남조선에 있어서의 지배계급은 매판자본가와 지주들이다. 이자들은 남조선의 주민들속에서 극소수이면서도 민족적리익을 미제에 팔아먹는 대가로 그의 비호를 받아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있다. 이들간에는 반민족적, 반인민적면에서 리해관계상 공통성이 있으며 또 인민들에 대한 억압자, 착취자로서 계급적동맹관계가 설립되고있다.

따라서 남조선의 괴뢰정권은 매판자본가와 지주계급의 동맹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들이 련합한 반동적인 정치적세력이다.

이것은 남조선괴뢰정권의 대내적인 계급적기초로 되며 그 계급적본질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진정한 주인은

미제국주의 강점자들이며 그 본질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기관이라는데 있다. 괴뢰정권은 외래제국주의의 수중에 있는 침략과 략탈의 도구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는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남조선의 소위 〈대한민국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괴뢰정권으로서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는 위장물이며 미국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오늘 남조선에서 외래독점자본에 종속되고 그들의 식민지통치에 복무하고 있는 토착반동세력의 기본은 매판자본가, 지주들이며 이것은 일제통치하에서의 그것과 계급적 내용, 본질에서 다른 점이 없다.

과거에 민족의 리익을 일제에 팔아먹은 반역적, 반인민적인 반동적요소들이 달라진 주인밑에서 오늘도 의연히 매국배족행동을 계속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외래제국주의에 예속되여 득세하고있는 매판자본가와 지주들의 련합내부에서의 세력구성에는 일정한 변동이 있다.

변동의 기본적내용은 과거시기에 이 세력들의 내부에서 지주계급이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매판자본가들이 더욱 우세한 지위를 차지해가고있다는데 있다.

일제하에서 토착반동세력중 지주들이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은 정치적면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에 리용되였던 반동적요소들의 구성에서도 나타나있다. 례를 들면 일제하에서는 《중추원》의 《참의》로부터 《도회의원》이나 《면협의원》에 이르기까지 압도적다수는 지주들과 그 대변자들로 구성되였다. 그러나 현재의 남조선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지배기구 내부세력구성에서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괴뢰국회의원의 구성을 통하여서도 찾아볼수 있다.

괴뢰국회의원의 사회성분

순차	《선거》 년도	성분별				
		지주	자본가	관료	기타	계
1대	1948	84(42%)	32(16%)	43	39	198
2대	1950	35(16%)	41(19%)	71	63	210
3대	1954	21(10%)	85(42%)	58	39	203
4대	1958	29(12.5%)	92(39.5%)	54	58	233
5대	1960	38(17.1%)	79(37.4%)	30	66	211
6대	1963	16(9.5%)	49(29.2%)	27	83	175

괴뢰국회의원의 구성에 관한 이 자료는 현괴뢰정권이 매판자본가, 지주들과 그 대변자들로써만 구성되여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동시에 그 내부구성변화의 추세도 볼수 있게 해준다.

미제국주의가 남조선의 사회경제관계의 재편성을 진행하기전, 《농지개혁》을 실시하기전에 구성된 괴뢰국회에서는 아직도 지주들이 《국회의원》 총수의 42%를 차지하였고 자본가들은 16%를 차지하고있었다면 사회경제 재편성이 상당한 정도로 감행된 1954년도에 만들어진 괴뢰국회에서는 지주들의 비중이 10%로 저하된 반면에 자본가의 비중이 42%로 증대되였다.

물론 괴뢰국회내의 자본가성분의 모두가 매판자본가라고는 볼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매판자본가이거나 그들의 리해관계를 중심으로 그들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는자들임은 틀

림없다.

남조선반동세력내부구성은 남조선의 반동보수정당들의 구성에도 반영되여있다. 과거의 반동보수정당들이나 오늘날의 《민주공화당》, 《민중당》, 《신한당》 등이나 모두가 다 매판자본가, 지주들을 그의 계급적기초로 삼고있으며 거기서 주도권은 매판자본가의 대변자들이 장악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내부의 권력구성에서 지주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정치경제적으로 그들은 의연히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지주들과 그 대변자들은 괴뢰정권중앙기구들내에 일정한 토대를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지방권력기관들에서는 중앙에서보다 더 확고한 지반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괴뢰정권은 의연히 매판자본가와 지주계급이 련합하여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현하며 로동자, 농민들을 가혹히 착취하는데 복무하는 도구이다.

지주계급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노는 반동적역할은 의연히 크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농민들에 대한 지주들의 세습적관계를 리용함으로써 농민대렬을 분렬시키고 로농동맹을 저해할것을 타산하고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식민지통치의 병풍으로 되는 괴뢰정권의 안정성을 보장하려 하고있다.

지주계급과 매판자본의 계급적본성으로 하여 괴뢰《정권》의 매판성과 극악한 반동성, 매국배족성이 규정된다.

매판자본은 그 예속적인 본성으로 인하여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가장 충실히 받들며 미제의 극악한 반인민적시책을 철저히 집행한다. 특히 남조선의 매판자본은 그 기초가 미약하고 상업고리대자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의 장성을 위해 착취와 투기에서 특히 야수적인 탐욕성을 발휘하고있다.

지주계급 역시 가장 락후한 반동세력의 하나로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적극 떠받들고있으며 야만적착취방식을 고집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적모순이 첨예화되고 정치적위기가 심한 남조선괴뢰정권으로 하여금 파쑈적성격을 띠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괴뢰정권의 관료기구와 폭력기구는 특출하게 파쑈적반인민적성격을 띠고있다.

괴뢰정권은 오늘 60여만의 군대, 3만 5,000여명의 경찰, 1만 5,000여명의 기간 정보원 등을 비롯하여 방대한 관료기구와 폭력기구를 가지고있다. 괴뢰통치기구의 이러한 구성과 그의 파쑈적성격은 관료기구와 폭력기구의 전횡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반동관료배들이 미제의 힘을 배경으로 특히 큰 권력을 쥐고있다. 그들의 지위는 오늘 정당들이나 《국회》 등과는 대비할바 아니며 《대통령중심제》에 의하여 그들은 최고로 권력을 집중시키고있다.

관료들에 의한 권력의 집중은 남조선의 정치위기가 심화되는데 따라 더욱 심해지고있다. 미제국주의와 남조선의 반동지배층은 그들의 식민지통치와 계급적지배의 위기가 심해질수록 괴뢰통치기구에 부여된 권력을 더욱 소수관료의 수중에 집중시키고있다. 그리하여 미제는 드디여 가장 흉악한 군사관료배들에게 《정권》을 장악하게 하였고 가

장 포악한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게 하였다.

미제의 총검에 의하여 부지되는 괴뢰정권은 군사파쑈적관료통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소부르죠아지층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의 소부르죠아지를 무마하고 오도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농지개혁》과정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더욱 령세화되고 더욱 령락하였다. 《농지개혁》은 농민들의 살수도 없고 죽을수도 없는 처지를 더 심화시키는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비교적 처지가 나은 농민들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얼마간의 토지를 획득하게 되였고 소상품생산을 확대하게 되였으며 더 소부르죠아화하였다. 이러한 일부 농민들은 량곡가격의 등귀 특히 그 계절적변동을 리용함으로써 차액지대의 획득에 얼마간 참여하게 되였다. 괴뢰도당은 이러한 층을 오도하여 저들의 반동적목적에 리용하려 하고있는것이다. 괴뢰도당은 이들이 괴뢰정부에 세금을 고분고분 내고 괴뢰군에 병력을 제공하며 반동정당들에게 투표를 하는 등으로 군사파쑈적《정권》의 한 사회적지반으로 되게 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이에 있어서 괴뢰도당은 농촌소부르죠아지의 정치적각성이 아직 어리고 저들의 폭압기구가 농촌에서 제멋대로 놀수 있는 사태를 최대한 리용해보려 하고있다.

괴뢰도당은 도시의 소부르죠아지에 대하여서도 이들의 소소유자 및 근로자로서의 2중성을 악용해보려 하고있으며 특히 그들중 생활이 보다 나은 층들을 저들편에 끌어들이려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인민의 력량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것이며 한줌도 못되는 매국배족의 무리들밖에는 그 어떤 추종자도 가지지 못한 괴뢰도당이 저들의 지위를 유지해보려는 발악적책동인것이다.

3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있는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의 통치기구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하부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통치기구우에는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경제원조단》 등 미제의 《현지통치기구》가 있어 정치, 군사,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 대한 실제적인 최고권한을 장악하고있다.

괴뢰정권은 《현지통치기구》를 통하여 행사되는 미제의 《최고통치권》에 전적으로 종속된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그에 철저히 복무하고있다. 그것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괴뢰정권은 미제국주의의 남조선침략을 용이하게 하고 그의 세력을 남조선에 부식시키기 위하여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침략에 그 어떤 《법적》외피를 씌우는데

복무하고있다.

괴뢰정권은 그것이 조작되자마자 미제와 매국적인 《한미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였다. 이 《협정》은 미제가 군정실시이후 강탈하였던 《적산》과 군정의 재정을 괴뢰정부에 이양한다는 가면하에 실제에 있어서는 미제에게 그들의 점령과 종주국적경제통제권과 미국자본의 경제적특권 등을 보장하는것이였으며 그의 식민지지배와 착취를 《법적》으로 정식화한 매국조약이였다.

이 매국조약을 시작으로 하여 괴뢰정권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지배를 《합법화》하고 괴뢰군대를 그의 대포밥으로 제공하였으며 남조선을 미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서 내맡기였다. 괴뢰정권은 미제의 요구대로 《한미군사협정》, 《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 《한미호상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 등을 조작하였으며 미제침략군의 항구적주둔과 그에 의한 괴뢰군통수권의 장악을 《합법화》하는데 종사하였다.

경제적으로 괴뢰정권은 미국독점자본의 략탈정책의 실시, 식민지초과리윤의 확보에 복무하고있다. 그것은 1948년에 조작된 《한미원조협정》을 위시로 한 각종 매국협정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자주권을 완전히 미국독점자본에 내맡기고 재정, 금융, 운수를 비롯하여 중요 공장, 광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중요 경제명맥들을 미제의 통제하에 내놓고있다.

최근년간 괴뢰정권은 미제의 극동침략정책의 요구에 따라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세력, 일본세력과의 결탁을 도모하고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침략전쟁에 가담하여 월남파병을 실현함으로써 미제의 괴뢰들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주구, 극악한 매국배족의 무리라는것을 온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내놓고있다.

괴뢰정권의 매국적성격은 그것이 미제의 지시라면 그의 침략의 앞잡이로서 동족상잔의 전쟁도 서슴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 나라에서의 미제의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계속 《북진》을 떠들고있는데서 로골적으로 표현되고있다.

괴뢰정권의 대내적인 시책들도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의 목적에 복무하기 위한것이다. 괴뢰정권이 의거하고있는 국내반동계층들의 정치경제적리익을 보장하는 기능도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와 군사기지화정책에 대한 복무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괴뢰정권은 미제국주의를 위하여 군사비와 식민지초과리윤을 보장하여야 하고 매판자본가, 지주를 위하여 자본축적과 토지집중의 공간으로 되여야 한다. 괴뢰정권의 이러한 역할은 각종 략탈적인 조세제도, 공채제도, 인플레정책, 각종 특혜적인 리권부여, 《농지개혁》 등에서 볼수 있다. 조세제도, 공채제도, 인플레정책은 호상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면서 로동자와 농민들이 생산한 전 잉여가치를 강탈하여 미제국주의와 남조선반동계급들의 수중에 넘겨주려는 강제적방법들이다. 그리고 《농지개혁》은 지주들의 토지소유를 보호하고 전반적농민구성을 더 령세화하여 저임금, 저미가체제를 강화할 기초를 조성하였고 또 농촌시장을 확대하는 등으로 미국독점자본과 매판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경제조건을 마련

하는것이였다. 그리고 각종 특혜적리권 부여에 관하여 말한다면 인민들로부터 수탈한 자금, 자재,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미국독점자본가, 매판자본가, 지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것이다. 외자도입상 《특혜》에 의하여 오늘 외국독점자본이 중요 경제기관들을 장악하게 되였고 《적산불하》, 《원조물자불하》 및 《특별융자》 등에 의하여 매판자본가들이 기업소와 자금, 원료 등을 우선적으로 획득하여 급속히 장성하게 되였다.

괴뢰정권은 《국가적조절》의 명목하에 로동자들에게 가중한 로동을 강요하고 로동일을 연장하고 로임을 억제하였고 농민들을 비롯한 소생산자들에게 무거운 부역을 부과하고 그들의 잉여생산물과 때로는 생산수단까지 강탈하는 악랄한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소한 불만의 표시와 반항도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외래제국주의에 대한 예속화정책과 략탈적인 사회경제제도, 정치체제를 유지하려는 괴뢰정권의 파쑈적 폭압은 식민지나라들에서도 가장 흉악무도한 전형으로 되고있다.

괴뢰정권은 그 조작자체가 많은 애국자들을 투옥학살하는 토대우에서 가능하였지만 조작된후에는 더욱 많은 애국자들을 투옥학살하고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들을 총검으로 탄압하고있다.

군사《정권》은 오늘 남조선에서 《반공》의 이름밑에 일체의 반제반정부적 요소들에 가혹한 악형을 가하고있으며 나라의 전 지역을 조밀히 뒤덮고있는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써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요구마저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

* *

오늘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에 의한 군사파쑈적탄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반대하는 력량이 자라나고있으며 미제식민지통치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군사파쑈독재의 수립자체가 이러한 위기의 심각화와 관련되여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정책은 남조선에서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다.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였다는 그 자체가 벌써 미제와 그 주구들이 총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뒤흔들리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남조선에서 전개되고있는 모든 사실들은 괴뢰정권의 기초가 취약하고 불안정하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이 《정권》의 반민족적반인민적본성이 갈수록 더 드러나 인민들로부터의 고립이 더 심해지고있으며 외래제국주의에 대한 예속을 반대하며 현사회경제제도의 변혁을 요구하는 세력이 갈수록 더 커져가기때문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이 갈수록 악화되고 광범한 군중들속에 불만이 증대되고있으며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첨예화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경제의 군사화에 의하여 생산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더 저하되고있다. 경제형편의 악화와 생활수준의 저하는 미제와 괴뢰

도당의 기본정책방침의 반동성으로 인하여 초래되고있는만큼 그 범위가 넓고 정도가 혹심하다. 그리하여 생활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실로 광범한 인민들에게서 발로되고있다. 특히 웰남파병을 비롯한 전쟁책동의 강화는 인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극히 첨예한것으로 만들고 있다.

괴뢰도당내부에서 분열이 심화되고있는 사실이 또한 괴뢰정권에 대한 타격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반동보수정당들이 여당과 야당으로 분렬되여 대립과 투쟁을 계속하고있으며 여당세력내부의 알륵도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쿠데타음모를 비롯하여 부단한 상층위기가 반복되고있다. 현군사파쑈통치하에서 사회적모순이 일층 첨예화되고 이에 따라 인민들의 불만이 커가자 지배계층 내부에서도 저들의 통치와 관련하여 일부동요가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혁명력량은 부단히 장성하고있다. 괴뢰정권의 매국적책동과 파쑈폭압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는 투쟁이 강화되고었으며 민족적자주독립을 위한 저항이 점차 장성하고있다. 특히 일제의 재침략과 웰남파병으로 인하여 외세를 반대하고 괴뢰도당을 규탄하는 기세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력량은 절실한 당면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계기로 하여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여가고있다. 그리하여 반제반파쑈애국력량이 점차 결속되여가고있으며 군사파쑈정권의 고립은 더욱 깊어가고있다.

그리하여 미제를 몰아내고 괴뢰정권을 타도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할 현실적조건들이 성숙되여가고있다. 미제의 침략정책이 세계도처에서 파탄되여가고있으며 특히 아세아에 대한 그의 침략과 전쟁정책이 커다란 곤경에 빠지고있다. 국제적인 반제반미투쟁이 장성하고 혁명력량은 계속 자라나고있다.

특히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우리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옹성같이 다져지고있다. 이런 조건하에서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투쟁이 승리할 혁명적대사변은 각일각 다가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며 그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나라살림살이와 당조직정치사업

(원산철도공장당위원회 사업경험)

김 종 화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투쟁—이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의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간의 하나로 된다. 혁명수행의 매개 단위와 초소들에서 살림살이를 실속있게 꾸리며 나라의 재부와 자원을 책임지고 관리해나감으로써만 전국적으로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은 강화된다.

지금 당은 공장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자대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공장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생산을 증대시키며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어느 때나 공장의 재부를 보위해나갈것을 강조하고있다. 로동계급이 자기공장의 살림살이를 당과 인민앞에서 책임지고 자체로 보위하며 알뜰히 꾸려나가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요구이며 또 이 제도의 우월성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공장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일관하게 강조하였다. 1965년 5월에 우리 공장에 오셔서 이 공장의 로동계급은 혁명성과 전투성은 매우 높다. 이 혁명적인 로동계급을 적극 발동시켜 직장과 공장을 알뜰히 꾸리고 그들이 당과 조국과 그리고 공장을 보위해나가는 충실한 전사로 되게 하며 강재를 비롯한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 철도운수기재의 생산과 수리를 증대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기여할것을 간곡히 교시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생산자대중속에서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 당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왔다. 지난기간 공장당위원회가 조직정치사업에서 중요하게 모를 박아 진행한것은 첫째로, 생산자대중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계급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속에서 혁명가적자각성과 애국심을 높이는것이였으며 둘째로,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생산자들을 기업관리와 살림살이 전반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조직화한것이다.

이러한 당조직정치사업은 생산자들의 정치적열성과 로력적앙양을 불러일으키며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고 모두가 다 머리를 써서 움직이게하였다.

오늘 공장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에서 얻은 초보적인 경험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로동계급이 공장의 살림살이를 직접 책임지고 보위하고 실속있게 꾸려나가도록 조직동원하고있다.

기대를 통한 혁명가적자각성과 애국심의 배양

생산자들속에서 혁명가적자각성과 애국심을 배양하는것은 그들을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적으로 꾸리도록 발동시킴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나선다.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음으로써만 자기일터, 자기공장을 보위하며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기간 공장당위원회는 생산자들속에서 그들의 자각성과 애국심을 배양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적지 않게 진행하였으나 그것이 형식주의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충분한 은을 내지 못하였다.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생산자들의 자각성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자면 교양사업이 실생활과 밀접히 결부되고 문제해결의 초점에 집중되여야 하며 동시에 사상성과 호소성이 높고 생동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의 경험은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이러한 제요구를 관철시킬수 있는 방도로서 기대를 통한 교양을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기대를 통한 정치사상교양이란 기대에 깃든 피어린 투쟁자료를 가지고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계급교양, 혁명전통교양을 진행하는것이다.

우리 공장의 수많은 기대들은 얼핏보면 평범한 생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대들은 우리 혁명의 간고한 로정과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공장의 로동계급의 피어린 투쟁과 영웅적업적들이 깃들어있다. 우리 공장에는 수상동지께서 보내주신 기대, 전쟁시기 공로가 있는 기대, 일제시기부터 돌아가던 기대, 전후 자체로 만든 기대들이 있다. 우리는 매 기대에 깃들어있는 투쟁자료에 의거하여 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수상동지께서 보내주신 기대를 통해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제시기부터 돌아가던 기대를 통해서는 자본주의제도의 본질,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사상교양에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또한 전쟁시기 공로가 있는 기대를 통해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경험과 온갖 사태발전에 대처할수 있는 전투정신으로, 전후에 만든 기대를 통해서는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특별히 주력하였다. 이러한 기대를 통한 교양은 총괄적으로 보면 결국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계급교양, 혁명전통교양으로 되였다.

기대를 통한 교양은 또한 그것이 생산자들의 실생활과 가깝고 또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것임으로 하여 매우 효과적인 교양방도로 된다. 우리 당이 항상 강조하고있는것처럼 생산자들의 생활에 가까운것, 직접 련관되여 있는것을 가지고 교양할수록 그것이 사람들의 사상, 감정, 심리에 주는 감명이 크다.

기대는 생산자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것들에 깃들어있는 투쟁의 이야기들은 바로 생산자들 자신과 그들의 부모형제 그리고 혁명전우들의 피어린 투쟁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이 기대를 통한 정치사상교양이 생산자들에게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커다란 감흥과 충격을 주며 그들을 더욱 분발케 한다.

기대를 통한 교양은 또한 그것이 살림살이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교양과 실천활동을 밀접히 통일시킴으로써 생산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을 공장살림살이에서 가장 주되는 고리에 집중시키게 한다. 기

대는 공장의 생산활동과 살림살이에서 기본으로 된다. 군대에서 무기가 생명인것처럼 기계는 공장의 기본밑천이다.

공장에서 가장 귀중한 밑천인 기대를 잘 거두고 깨끗이 다루며 능률을 높여야만 생산활동이 정상화되고 살림살이 전반이 잘 꾸려져 나갈수 있다. 기대를 통한 교양은 생산자들의 자각성과 애국심을 배양하는 동시에 그들을 기대와 일터를 사랑하고 잘 꾸리는 자각적인 실천적행동에로 이끌어주었다.

기대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선전조직사업이 필요하였다. 기대를 통한 교양을 잘 하자면 우선 매 기대의 래력을 조사장악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매 기대가 생겨난데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으며 그 기대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어떤 업적을 쌓았으며 기대와 함께 싸워온 동무들이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 동시에 기대의 기술능력과 현상태는 어떠한가 하는것 등을 알아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매 기대의 래력을 조사장악함에 있어서 정치적측면과 기술적측면을 결합하면서도 특히 정치적측면에 중심을 둠으로써 기대래력을 알아내는 과정자체가 곧 정치사상적교양과정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는 이 사업을 모든 생산자들이 자기가 맡은 기대의 래력은 자신이 알아내는 원칙에서 군중적인 운동으로 전개케 하였다. 기대의 래력을 알기 위하여 생산자들은 매우 높은 정치적열성을 가지고 동원되였다. 그들은 기대의 래력을 알기 위하여 이전의 기대공들을 찾아다녔으며 신문과 각종 기록문건들을 뒤졌다.

한편 생산자들속에서 《기대래력 발표모임》, 《나의 기대자랑 발표모임》, 《나의 기대전망연구모임》 등 다양한 내용으로 기대에 대하여 더잘 알게 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매개 기대마다 《기대에 깃든 이야기책》을 묶게 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이 교양방법을 더욱 더 체계화하면서 전망적으로 끌고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기대를 통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이미 발굴된 자료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일정한 기간이 흐른후에는 새로운것이 없고 이미 아는 내용을 반복하게 된다. 교양에서 새것이 없을 때 그것은 효과가 적으며 지어 타분해질수 있다. 따라서 이 교양에서 새로운 맛이나도록 이끌고 나가는것이 중요했다.

우리는 이 방도로서 분기에 한번씩 그 기대가 분기간에 쌓은 업적을 작업반적으로 총화하고 이야기책에 첨가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또한 생산자들속에서 자기기대를 《청춘기대》로 만들도록 그들을 발동시켰다. 즉 기대들의 낡은 부속은 새것으로 개선하며 반자동식은 자동식으로 전환시키도록 그들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대를 통한 교양을 정상적으로 부단히 진행할수있게 함으로써 생산자들을 계속 새로운 과업의 해결에로 이끌수 있었다.

기대를 통한 교양이 확고한 혁명가의 세계관을 확립시켜주는것으로 되게 하자면 이 교양을 원리교양과 결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교양이 선동적인것으로만 되는 경우에 교양직후에는 사람들속에 큰 감흥을 주지만 시일이 경과할수록 그에 대한 자극이 희미해지면서 열의가 떨어지는 경향을 낳게 한다. 그러므로 이 교양사업을 원리교양과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이 중요했다.

공장당위원회는 매 기대에 깃든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그에 적응한 원리교양을 배합하여 진행하였다. 가령 일제시기에 있던 기대를 통한 교양에서는 제

국주의의 본질,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원리교양을 배합하였다. 이러한 행정을 통하여 생산자대중속에서 발현된 자각성과 애국심은 점차 확고한 계급적세계관에 기초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조직진행한 기대를 통한 교양은 생산자들속에서 혁명가적 자각성과 애국심을 더욱 발양시켰으며 그들이 기대를 비롯한 공장의 살림살이를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알뜰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높은 정치적열성으로 동원되게 하였다.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는 조직형태로서의 《살림살이 구역담당제》와 《살림살이 사회적부문담당제》

생산자대중이 공장살림살이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면 그들이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하는 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대안체계의 기본은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진행하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해결해나가는것이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곧 기업관리와 살림살이의 조직에서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이 사업에 생산자대중을 적극 인입하는 과정으로 되는것이다.

지난기간 우리는 대안체계의 진수와 그 본질적요구를 옳게 체득하지 못하고 철저히 관철하지 못함으로써 공장살림살이와 기업관리운영에 생산자대중을 인입하는 사업을 형식주의적으로 진행하는 결함을 근절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생산자들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분공을 주지 못하였으며 정확한 지도도 주지 못한데서 표현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생산자들이 공장살림살이와 기업관리에서 주인다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옳게 관철할수 있는 방도로서 모든 생산자들에게 공장살림살이의 한 부문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운영하게 하였으며, 공장의 모든 재부에 그것을 직접 담당한 주인이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공장의 기계, 설비로부터 공구지구와 자재 그리고 생산부지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게 하는것은 살림살이전반을 알뜰하게 꾸리는데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생산자들에게 공장살림살이의 한 부문을 직접 책임지게 하는것은 그들이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성을 높임에 있어서 일반적인 강조에 그칠 때보다 몇배나 더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며 공장의 모든 단위에 실제적인 주인이 있음으로 하여 실속있게 관리운영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생산자대중을 공장살림살이와 기업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방도로서 또한 그들을 작업반살림살이의 여러 부문을 담당하여 운영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업소에서 작업반은 생산활동과 살림살이의 기본단위이며 집단생활의 말단단위이다. 때문에 공장의 생산활동을 정상화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해서는 작업반살림살이부터 깐지게 해야 하는것이다. 작업반내 모든 성원들이 작업반살림살이의 형편을 자기집 세간살이처럼 환히 알게 하고 그 모든 부

문들이 옳게 운영되도록 의식적으로 활동케 하는것이 필요하다.

생산자대중이 공장의 기업관리와 살림살이에 참가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은 종래부터 다양한 형태로 진개되였다. 즉 직일반장제, 사회적검사원, 사회적계산원 등의 형태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기간 공장당위원회가 여기에 주의를 적게 돌렸고 계통적인 지도를 주지 못하였음으로 하여 공고화되지 못하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관철하는 행정에서 이러한 사회적운동형태의 폭을 더욱 넓히고 심화시키면서 그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도록 하였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포착하고 발기하여 조직한것이 《살림살이구역담당제》와 《살림살이사회적부문담당제》 운동이다.

《살림살이구역담당제》는 매개 종업원들이 자기가 다루는 기대, 설비시설, 공장부지의 일정한 구역을 담당하여 그것을 일상적으로 정비, 관리함으로써 공장의 생산과 관리사업에 보다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는 사회적운동이다. 이 운동은 생산자들이 자기가 맡은 기대와 설비 그리고 생산부지를 단순히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청소구역담당운동으로서가 아니라 매개인이 맡은 구역내의 기대와 설비 그리고 생산부지를 당과 인민앞에서 직접 책임지고 국가적립장에서 옳게 관리운영하는 살림살이담당자로 되게 하였다.

우리는 이 운동을 조직진행함에 있어서 공장의 생산부지를 관리하고 기대를 다루는것이 단순한 행정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바로 피로써 지킨 혁명의 전취물을 알뜰히 관리하는 커다란 정치적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이 운동이 더욱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장의 모든 지역이 평면으로만이 아니라 지상, 지하를 다 포괄하여 립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관리되여야 한다는것을 인식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이 지상, 지하 및 공중에 있는 모든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자각적으로 동원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생산자들은 자기가 담당한 구역내의 모든 기대와 설비를 깨끗이 다루고 일터와 직장의 주변을 알뜰하게 거두고있으며 유휴자재를 적극 회수리용하고있다. 이 행정에서 생산자들은 자기 일터와 공장에 더 정을 붙이게 되고 공장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다하게 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이 운동을 가일층 확대하여 공장살림살이의 내적, 본질적측면인 생산활동분야에로 심화시키기 위하여 《살림살이사회적부문담당제》 운동을 조직전개하였다.

《살림살이사회적부문담당제》는 작업반의 매개 성원들 자신이 주인다운 자각성에 기초하여 작업반의 생산활동을 포함한 살림살이의 중요한 부문들을 맡아가지고 그를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해나가는 사회적운동이다. 이 운동은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는 중요한 방도로 되였다.

전체 작업반성원들이 작업반살림살이의 모든 부문과 측면들을 한 고리씩 맡아서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작업반살림살이는 기업관리조직원칙을 말단에 이르기까지 관철시키면서 훌륭히 운영되여나간다.

작업반에서까지 행정부서의 계통에 따라 개별적생산자들이 사회적기술반장, 사회적계산원, 사회적검사원, 사회적설비관리원, 사회적 열 및 전력 관리원 사회적자재관리원, 사회적절약창고장, 사회적위생원, 사회적후방담당원, 사회적

농촌지원담당원 등 14개 부문을(작은 작업반은 그 이하로) 작업반의 크기에 따라 한가지 혹은 두가지씩 사회적운동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작업반운영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생산기술적과제들이 종래 작업반장이나 기타 몇사람들에게만 부과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만히 해결될수 없었던것을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더욱 조직적으로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하였으며 기업관리의 수준을 크게 제고시켰고 공장의 살림살이와 생산활동의 전반사업을 실속있게 하는데서 매우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이 운동은 우선 모든 생산자들에게 공장살림살이와 기업관리의 주인으로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도록 분공을 주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이 사업에서 그들의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이 더욱 발양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에 와서 생산자들 자신이 국가에 얼마나 리익을 주었는가를 따져보며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도록 부단히 노력하고있다.

이와 함께 이 운동은 이미 마련된 물질기술적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생산능력을 백방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하여 생산자들로 하여금 성능이 낮다 하여 잘 다루려고 하지 않던 기대들을 성능이 높은 기대로 개조하며 공장구내에 널려있는 수많은 유휴자재를 탐구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할수 있었다. 바로 이것은 추가적인 투자없이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인민경제에 소요되는 수송수단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자대중이 어떠한 정황하에서나 자기 일터와 자기 공장을 자체로 보위하며 어느 때나 공장의 기계와 설비를 정세의 요구에 따라 기동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을 잘 진행할수 있다.

이 운동은 또한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사업능력을 높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장관리운영과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더잘 기여할수 있게 한다.

이 운동과정에 매개 작업반성원들은 자기가 맡은 사회적분공을 더잘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로부터 학습에 더 큰 열의를 발휘하게 되였으며 혁명적 학습기풍이 심화되여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사업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었다. 생산자대중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업관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이에 따라세우고 그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추동되였으며 이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정치학습과 실무학습을 현실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더욱 실속있게 하도록 자극하였다.

그 뿐아니라 생산과 실천행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호상관계와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심각한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생산자들속에서 서로 밀며 이끌고 나가는 고상한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체 집단이 더욱 굳게 단결되고 있다.

이 운동은 또한 사회적부문담당원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해당부문 행정부서들이 담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 부문의 당정책, 김일성동지의 교시 그리고 기술규정들이 제때에 철저히 관철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장당위원회는 생산에 대해서와 사람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 모든 사업에 깊이 침투됨으로써 공장살림살이와 기업관리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더잘할수 있게 하였다.

생산자대중을 공장살림살이와 기업관리전반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이러한 사회적운동을 옳게 조직전개하는데는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필요하였다.

우선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재능과 기호에 맞게 분공을 주어야 하였다. 또한 이 운동은 사회적운동이기는 하지만 행정적인 지도와 보장이 있음으로써만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따라서 행정관리부서들에서도 행정적인 보장체계가 마련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운동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장적으로 력량을 재편성하고 매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어야 하며 각 부문의 사업직능과 사업체계를 보충개선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을 발동시켜 대중과 의논하면서 이 운동을 전공장적으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였다.

모든 생산자들을 기업관리와 공장의 전반적살림살이에 적극 인입하여 움직이게 하자면 분공을 주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분공을 준 다음에는 그것을 성과있게 수행할수 있는 정확한 지도방법과 정연한 지도체계를 확립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이 사업을 옳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일군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경제관리지식 및 기술기능수준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밀접히 배합시켜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공장당위원회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웃단위가 아래단위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도와 하나가 열을, 열이 백을 움직이는 원칙을 견지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 힘을 경주하였다.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행정, 근로단체와의 배합작전을 잘하여 각기 자기 사업직능에 따라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하였다.

당일군은 당원들과 군중들속에 공장살림살이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조직동원하는 정치사업을 하고 행정관리일군들은 행정실무적으로 걸린 문제들을 직접 아래에 내려가서 풀어주면서 이 사업을 주동적으로 능숙하게 끌고 나가게 하였다. 직맹조직에서는 행정과 보조를 맞추면서 특히 생산문화를 확립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사로청단체는 《붉은기대》운동을 전개하여 청년들이 기대를 알뜰히 다루는데서 선봉에 서도록 하였다.

공장의 지도일군들과 관리부서들이 일상적으로 아래에, 생산현장에 내려가 제기된 과업의 수행방도를 생산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며 조직기술적문제들을 대중과 직접 토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살림살이 전반을 실속있게 꾸릴수 있게 하였다.

생산자들을 기업관리와 살림살이전반에 인입하는 이 사회적운동을 조직하고 일반화함에 있어서는 심각한 사상투쟁을 동반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일부 일군들속에서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각종 편향들을 극복하며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보수주의 등과의 완강한 사상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뿐아니라 생산자들속에서는 지도일군이나 공장살림살이에 대하여 걱정할 일이고 생산자들은 자기들 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나 수행하면 된다는 주인답지 못한 태도와도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전개하여야 하였다.

오늘 우리 공장은 살림살이를 꾸리는데서 일정한 전진이 있지만 이것은 초보적인 성과에 불과한것이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서 얻은 경험도 아직 적은것이다.

우리는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당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할것이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응당한 권리

박 희 석

최근 일본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교육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외국인학교제도》를 창설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서두르고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책동은 외국인학교의 설치 및 폐쇄권을 저들이 장악하고 그의 경영, 교수내용, 교원의 임면 등 일체 문제들에 자의로 간섭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벌칙까지 설정하고있다.

일본정부의 《학교교육법개정안》에 예견된 이 《외국인학교제도》는 사실상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하여 새로운 탄압을 가하려는 기도로 된다.

이것은 지난날에 그들이 감행하여 온 비법적인 탄압책동의 연장이며 이미 세상에 그 본질이 여지없이 폭로된 제국주의적《동화교육》을 강요하려는 범죄적 행동이다.

*　　　*

현대국제법의 규범들은 외국인들에게 민족적박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고있으며 외국인들에게 모든 인권을 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한 국가의 해외공민이 그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자기 나라말과 글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기본적권리의 하나이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타국에 가있는 자기공민자녀들에게 모국어에 의한 민족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일본정부도 아세아, 구라파, 중남미, 북미 등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일본인자녀들에게 그곳 학교제도와는 관계없이 일본의 교육제도에 립각하여 모국어로써 일본력사와 지리, 문학 등을 가르치고있다. 지난 3월 29일 《아사히신붕》은 《일본어를 고수하자》는 론설에서 브라질에 가있는 일본인자녀들이 일본말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데 대하여 상기시키면서 이때문에 그 곳에 가있는 일본인들이 《조국을 생각하며 가슴아파하고있다》고 썼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일본당국도 외국에 가있는 일본인자녀들에게 모국어에 의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권리를 행사하고있으며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시인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오늘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인, 독일인, 카나다인 등 많은 외국인들은 각각 자기의 민족교육을 자유롭게 실시하고있다. 일본당국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일본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학교수는 조선인학교를 제외하고도 24교나된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이 외국인학교들의 사업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간섭하거나 제한하려하지 않고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유독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하여서만 민족교육에 대한 권리를 부단히 침해해왔고 오늘 더욱 가혹한 탄압 조치를 취하려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현대국제법의 공인된 규범을 유린하는 비법적 행위이며 문명세계에서는 결코 허용될수 없는 엄중한 민족차별책동이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의무로서뿐만아니라 도의적책임으로서도 재일조선인자녀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사람들은 가고싶어 그 곳에 간것이 아니다. 그들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적착취와 략탈에 못이겨 고향을 등지고 일본에 류랑해갔거나 《징용》, 《징병》 등의 명목하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며 그 자제들이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재일조선공민들에게 모국어교육은 고사하고 모국어로 말하는 자유마저 박탈하였다.

재일조선인들은 더우기 조국의 력사와 지리, 민족문화전통을 제대로 알길이란 전혀 없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가한 모든 악행들은 일본세국주의의 죄악력사에 뚜렷이 기록되여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은 일제의 폭압과 식민주의정책의 참혹한 후과를 제거하기 위한것이며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조선공민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교육교양을 실시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지지하며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하는것은 일본당국이 응당 져야 할 도의적책임이며 력사와 정의의 요구이다.

이와 같이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오늘날 세계의 국제법규범과 현행국제관례로 보나 재일조선공민들에게 대해서 일본정부가 져야 할 도의적책임으로 보나 그 누구도 결코 부정할수 없는 응당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부당한 제한조치와 방해책동을 감행해왔으며 오늘날 더욱 흉악한 탄압조치를 강구하려 하고있다.

해방후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은 일본정부의 부단한 박해속에서 자라난것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은 해방직후부터 자녀들의 교육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였으며 허다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민족교육을 발전시켜나갔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첫날부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에 대하여 부당한 탄압과 파괴책동을 감행하였다.

1947년 4월에 일본당국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미점령군의 지대정책에 편승하면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달》,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재일조선공민들에게 일본어와 일본교과서에 의한 식민주의적교육을 계속 강요하려 하였다.

이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그들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학교들에 《폐쇄령》을 내리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쫓는 폭행을 감행하였다.

일본당국은 1948년 4월 오사까에서 열린 《민족교육탄압반대 조선인인민대회》에 수천명의 경관을 파견하고 소방차까지 동원하여 이를 탄압하였다. 일본경관들은 마구 물을 뿌리고 권총을 란사하였으며 어린이들을 곤봉으로 구타하고 지어 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대회에 참가한 조선공민들과 이 투쟁

을 지지한 일본인들을 수다히 검거투옥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일본의 저명한 민주인사들로써 구성된 《재일조선학교 사건진상조사단》도 자기의 성명에서 일본당국의 폭행을 규탄하고 이 사건이 《다만 조선인의 학교사건이 아니고 일본인민의 문제이며 세계평화에 관련되는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조사단의 한성원은 이 사건이 《조선인교육문제를 구실로…민족을 리간시키고 조직을 탄압하여 일본에 다시 경찰국가를 재현시키려는 중대한 모략》이라고 규탄하였다.

1949년 4월에 일본정부는 미제의 조종하에 《단체 등 규정령》을 선포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년 9월에 이르러서는 재일동포들의 합법적대중단체들을 모조리 해산시켰다. 동시에 그들은 재일조선인 학교도 응당 폐쇄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1949년 10월 19일 자주적인 조선인학교 337교에 대하여 《폐쇄령》을 내리고 일본어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재일조선인들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일본각지에서 조선인학교들을 강제로 폐쇄시킨 일본정부는 제멋대로 그것을 일본학교의 《공립분교》, 《민족학교》 등으로 《개편》해버렸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탄압조치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의식과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지난시기와 같은 《동화교육》을 강요해보려는 기도에서 나온것이였다.

민족교육을 탄압하고 《동화교육》을 강요하려는 일본정부의 이 부당한 정책으로 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은 당시 매우 커다란 난관과 시련을 겪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전쟁이 개시된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적극 협조해나서면서 당시 조성된 정세를 악용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려고 광분하였다.

1952년 9월 일본정부의 교육정책을 대변하여 도꾜도교육장이라는자는 《일본법률에 의한 교육을 승인한자, 민족과목은 교육하지 않는다는것을 승인한자》만을 일본학교에 입학시킬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정부의 탄압책동은 가혹하고 파렴치한것이였다.

그러나 재일조선공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온갖 탄압책동에 결코 굴함없이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종일관 견결히 투쟁하였다.

1955년 5월에 총련이 결성된후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은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하였다.

총련은 창건된 첫날부터 재일조선인들의 절실한 관심사인 자녀교육사업에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총련의 지도하에 진행되는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미 21차에 걸쳐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었다. 총련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튼튼한 지원과 두터운 배려에 고무되면서 재일동포대중들의 애국적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한 결과 민족민주주의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총련산하에는 현대적실비를 갖춘 조선대학을 비롯하여 70여개의 초급학교, 39개의 중급학교, 9개의 고급학교를 포함한 150여개의 각급정규학교와 3[illegible]0여개의 비정규학교들이 있으며 거기서 4만여명의 동포자녀들이 우리 말과 글로써 조국의 력사, 지리, 문화와 선진과학을 배우고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은 조선인자녀들의 민족적자각과 공화국공민된 긍지를 높이게 하였으며 또한 일본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발전시키는데도 기여하고있다.

일본당국은 지난날에 그들이 감행한 탄압책동의 부당성이 폭로규탄되였고 실생활을 통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사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탄압책동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회담》의 재개를 전후하여 재일조선인학교들에 대한 습격, 방화사건과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을 빈번히 발생시켰다.

1962년 이바라기 조선중고급학교에 대한 대규모적인 습격, 가나가와 조선중고급학교 신영철학생의 살해, 1963년 5월 도꾜중고급학교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 등은 그의 몇개 실례이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작년 4월, 《한일조약》에 가조인한후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그들은 일본 《문부성》내에 치안당국자들로 구성된 《외국인학교련락회》라는것을 설치하고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본격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오늘 《외국인학교제도》의 창설을 주되는 내용으로 한 《학교교육법개정안》의 《최종요강》이란것도 여기에서 나온것이다.

지어 일본수상 사또도 최근에 재일동포자녀들이 《조선어에 의한 민족교육을 받는것은 부당하며 일본학교에서 일본어에 의한 일본교육을 받는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임의의 사립학교에 대하여 〈반일교육〉으로서 탄압한다》고 위협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응당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일본당국자들의 부당한 책동이 더욱 엄중한것으로 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 *

일본당국은 근래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반대하면서 《조선인학교들에서 〈반일교육〉을 하고있다》느니, 《일본국가의 리익과 안전에 배치되는 교육을 하고있다》느니 하는 구실을 더욱 자주들고 나온다.

재일조선공민의 자녀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그 어떤 《반일교육》이라고 하는것은 전혀 무근거한 비방이다. 총련이 재일동포자녀들에게 실시하고있는 민족교육은 모국어와 자기조국의 력사와 지리, 선진과학을 가르치고 그들을 훌륭한 조선공민으로 육성하며 일본을 포함한 세계각국인민들과의 친선과 련대의 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것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이 자주독립국가의 공민으로서 자기자녀들에게 이러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실시하는것이 무엇때문에 《반일교육》으로 되겠는가.

재일조선공민들이 조선인학교들에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일제의 조선침략과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를 가르치는것을 《반일교육》이라고 하는것은 천만부당하다. 자기인민의 력사를 사실대로 가르치는것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응당한 과업이다. 일제가 20세기초엽에 조선의 독립을 빼앗고 《한일합병》을 강요한후 36년간 식민지통치를 계속하면서 가장 횡포한 억압과 략탈을 감행하였고 심지어 조선사람들의 말과 글, 이름까지 말살하려 했으며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생명까지 희생시킨것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이 아니란말인가. 도대

체 이러한 사실들을 떼놓고 조선인민의 근대력사를 어떻게 가르칠수 있겠는가.

1919년 3. 1운동을 비롯한 조선인민의 빛나는 민족해방투쟁의 력사,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슬기로운 력사를 제쳐놓고 어찌 조선의 근대력사를 론할수 있겠는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이 《일본의 리익과 안전에 배치된다》는것도 전혀 무근거한 중상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이 자기자녀들에게 자기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념원하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교육교양하는것이 일본인민의 리익과 안전에 배치될수 없다. 이러한 교육은 전적으로 조선인민의 민족적내부문제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이 자기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도록 자녀들을 교양하는것은 일본을 포함한 다른 어떤 나라 인민의 리익과도 배치될수 없다. 이러한 교육이 다른 나라의 리익에 배치된다고 말할수 있는것은 오로지 타국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꾀하는 자들뿐이다.

일본당국이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계속 부당한 구실밑에 탄압하려 하는것은 자기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려는데서오는 소행으로밖에 달리는 해석할수 없다.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정부의 탄압책동은 《한일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더욱 격화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적대정책의 일환이다.

《한일조약》을 계기로 남조선에 대한 재침기도를 로골화하고있는 일본반동세력들은 60만 재일조선인들속에서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민족적자각과 긍지가 높아지고 그들이 총련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되고있는데 대하여 비우호적태도를 취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미제와 박정희매국배족도당의 비위에 맞추어 재일조선공민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하며 나아가서는 《영주권》신청을 권유하는 등으로 재일동포들과 총련의 민족적권익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려는 책동을 강화하면서 그 한부분으로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재일조선공민들의 단합된 애국적민주력량을 말살하며 나아가서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촉진시키려 하고있다.

《한일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하여 박정희도당이 자주적인 재일조선인학교들을 폐쇄할것을 거듭 일본정부에 간청해나선것은 외래 제국주의의 충실한 주구이며 조선민족의 가장 흉악한 반역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더욱 명백히 드러내놓았다. 바로 박정희도당과같은 매국배족의 무리들과 제국주의적침략을 꾀하는 인민의 원쑤들이 저들의 흉악한 목적으로부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적대시하게 되는것이다.

일본사회계에서 광범히 론의되고있는 바와같이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일본정부의 간섭과 탄압조치의 강화는 일본의 교육제도자체를 다시 군국주의화하려는 책동과 때를 같이하고있으며 그것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는것이다.

미제의 비호하에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정책을 정당화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새로운 침략책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내용에서 지난날 일제의 대외침략의 전 력사적과정을 일본의 《지위향상의 시대》라고 미화하며 특히 조선침략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마

처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며 조일량국의 합의에 의한것인듯이 날조하고 있다. 그들은 각급학교 교과서들에서 조선과 중국 기타지역들에 대한 침략정책을 어느정도 반성하는식으로 서술했던 부분들을 삭제하는 조치까지 취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탄압하는 일본당국의 범죄적책동의 배후에는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조일 량국 인민을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인민들의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이 서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을 강점한 첫날부터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극악한 적대정책을 시종일관 실시하였다.

미점령군은 1946년 11월에 《일본에 남아있는 조선사람은 일본의 국적을 보유하는것으로 취급한다》고 하면서 재일조선인들의 외국인으로서의 응당한 권리를 부인해나섰다.

1948년 4월 오사끼에서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옹호를 위한 집회를 야수적으로 탄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미제8군 사령부는 일본군경의 만행을 적극지원하고 그것을 직접 지휘하였던것이다.

재일조선공민들과 전체조선인민은 오늘도 일본당국의 부당한 민족교육탄압정책의 막후에 서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결코 간과할수 없다.

✻ ✻

재일조선공민들은 일본당국의 온갖 박해와 탄압책동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있다.

총련의 강령에는 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며 그를 고수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할것이 명시되여있다.

이것은 근반세기동안이나 일제의 《황민화정책》으로 온갖 민족적모욕과 박해를 받아왔으며 오늘도 조국으로부터 멀리떨어진 이국땅에서 민족교육의 권리를 란폭하게 유린당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사활적요구와 절실한 념원을 반영한것이다.

지난시기에 일본당국이 수많은 조선인학교들을 강제로 일본학교의 《공립분교》로 만들어놓고 학교의 운영으로부터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부당한 간섭을 계속하여온 조건하에서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은 우선 일본학교의 《공립분교》로 된 조선인학교들을 자주적인 민족학교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가나가와현에서는 재일동포들이 이미 가와사끼 조선초급학교를 비롯한 5개의 《공립분교》를 자주적인 조선학교로 넘겨받았다.

재일조선공민들과 총련은 또한 조선인학교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일본학교에 다니고있는 조선인학생들을 총련산하 학교들에 망라시켜 그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쳐주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총련은 동포들속에 들어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책동과 《동화교육》의 반동적본질을 널리 해설침투시키고있다.

총련은 또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학교들에 대한 법적승인, 재일조선인고등학교졸업생들이 일본대학에로의 진학자격의 인정 등 요구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다.

총련은 그 어떤 일이있더라도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끝까지 옹호하며

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성의를 반영하려서 자기의 성명에서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과거에 조국을 빼앗기고 말과 자기의 성명까지 빼앗겼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있는 재일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민족교육은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60만 재일조선인은 세끼의 끼니를 두끼로 줄여서라도 자기의 자제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키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있다》.

민족교육을 옹호하기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은 그의 정당성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뿐만아니라 광범한 일본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성원을 받고있다.

지금 일본의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 학자, 교육자, 문화인, 법률가 등 광범한 사회계 인사들과 일본인민들이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는 련락회》를 결성하고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성명과 담화,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자기 나라 정부의 《동화교육》 책동을 폭로규탄하면서 견결히 싸우고있다. 일본의 지방자치체들도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민족교육의 보장을 지지해나서고있다. 이미 오까야마, 오비히로, 구라시기 등을 비롯한 일련의 지방의회들에서 《학교교육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일본당국은 반드시 이와 같은 조일량국인민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일본정부의 부당한 탄압책동에도 굴함없이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인민은 재일조선공민들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려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허용할수 없다.

조선인민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비법적으로 침해하려는 일본정부의 무모한 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오늘의 재일조선공민들은 어제날의 식민지노예가아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공민들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은 공화국의 교육정책에 의하여 일본의 사회조건에 적합한 민주주의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응당한 민족적 권익을 침해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엄중한 시대착오를 범하고있다.

일본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을 국제법과 국제적관례에 따라 보호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포함한 제반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의무와 도의적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지금 일본정부의 부당한 태도에 의하여 조일량국의 관계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지속하고있다. 이것은 조일량국인민의 념원과 리익에 직석으로 배치된다.

일본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을 하루속히 시정하여야 할것이며 재일조선공민들의 기본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국제적의무를 다하여 조일량국인민의 정당한 념원을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죠아 경제리론의 주류—케인즈주의

변 락 주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침습하고있는 제국주의반동사조들중에서 부르죠아경제리론들은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자본주의세계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가고있으며 경제발전문제에 관한 사회적관심이 급격히 커가고있는 조건에서 각종 부르죠아옹호리론의 선전에 더욱 큰 힘을 기울이고있으며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을 자본주의적발전의 전망에 대한 환상으로 기만하고 무마하여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각종 반동적부르죠아경제리론들을 류포시킴으로써 남조선사회의 경제적침체, 빈궁과 기아의 진정한 원인을 가리며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략탈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옳은 인식을 저애해보려고 날뛰고있다.

그들은 제국주의경제 특히 미국의 《경제적번영》에 관한 사이비경제리론을 류포시키면서 숭미사상을 고취하며 남조선으로 하여금 저들이 강요하고있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어느때에 가서는 남조선인민도 자본주의적 《복지사회》에서 살수 있는 날이 온것처럼 선전하는데 골몰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류포시키고있는 반동적경제리론들은 반공선전의 중요한 도구로 되고있다. 미제는 각종 부르죠아옹호리론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비방하며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더욱더 커가는 관심과 흠모의 정을 약화시켜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대학들과 학계에 반동적경제학설들을 보급시켜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을 맑스—레닌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떼여내며 경제문제에 관한 그릇된 관념으로써 그들을 오도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와 매국배족의 반동정책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데 얼마간이라도 쓸모있는것이라면 온갖 잡다한 반동적부르죠아경제《리론》들을 죄다 끌어들이고 있다.

워낙 부르죠아경제학설들은 그 비과학성으로 하여 잡다한 류파들을 이루고 있는바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반동적경제학설들도 19세기의 속류경제학파들로부터 현대부르죠아학파들에 이르기까지의 잡다한 혼합물로 되고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적대시하는 비과학적 속류리론이라는데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현시기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죠아경제리론들중에서 주되는 조류를 이

루고있는것은 케인즈주의와 그 아류들이다.

케인즈의 《리론》들과 그 현대판들은 남조선에서 대표적인 경제학설로 공인되고있으며 그것을 선전하는 서적들과 글들이 범람하고있다.

케인즈주의는 남조선대학들에서 지배적인 경제학설로 학생들에게 교수되고있으며 반동적경제학자들은 케인즈주의의 《명제》, 방법에 의거하여 《경제학적분석》을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에 칩습하고있는 반동적부르죠아사조들과의 투쟁에서 각종 부르죠아속류경제학설들, 특히 신구케인즈학파들에 대한 폭로비판은 절실한 과업의 하나이다.

*　　*

케인즈(1883~1946년)는 영국대자본가의 한사람이였으며 영국독점자본의 대변자였다.

케인즈의 학설은 독점자본주의의 심각한 모순 특히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의 조건하에서 자본주의경제가 겪게 된 파괴적공황들의 영향하에 과거의 부르죠아속류경제학들의 파산이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된 1930년대에 대표적인 자본주의옹호론으로 인정되였다.

독점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경제발전의 공황적성격과 대량적실업, 더욱 격화되는 근로자들의 빈궁화는 자본주의의 이 치명적병집들에 대한 새로운 변호론과 자본주의경제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책, 처방을 요구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케인즈주의는 만성적인 대량실업과 경제공황의 원인을 은폐하고 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원할수 있는 경제적《조절》대책을 제시하려 하였다. 경제공황에 대한 그의 리론적《설명》은 생산관계를 떠난 류통과정에 대한 관념론적심리적고찰, 경제관계의 본질을 무시한 량적관계의 피상적고찰로서 철두철미 비과학적인것이였으며 공황과 실업을 방지하는 그의 주되는 처방은 부르죠아국가의 《조절》이였다.

자본주의의 심각한 병집을 사이비과학리론으로 가린것으로 하여 그리고 금융과두들에 의한 부르죠아국가권력의 리용을 그 어떤 번영에로의 효과적인 방도로 묘사한것으로 하여 그의 리론은 독점부르죠아지들속에서 《위기로부터 자본주의경제가 헤여나갈 길을 개척》한 리론으로, 《불황(공황)에서의 방책을 발견하는 복음서》로 간주되였다.

케인즈주의를 선전하면서 제국주의자들과 어용경제학자들은 그것이 《20세기의 금자탑》이며 《현대사회를 리해하는데서 가장 완벽한 리론》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면서 케인즈의 리론이 마치 종래의 부르죠아경제리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 어떤 《경제학에서의 혁명》으로 되는 《새로운》것처럼 묘사하고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케인즈의 모든 리론적고안들과 주장은 이미 맑스주의창시자들에 의하여 격파된 낡아빠진 속류부르죠아경제학의 방법과 리론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속류부르죠아경제학은 자본주의의 착취적본질과 모순을 숨길 목적으로 현실적관계를 무시하고 류통현상에 매여달려 각종 비과학적인 론의들을 조작하였다. 케인즈는 이러한 속류류통주의에 기초하여 화폐, 신용, 분배와 같은 류통현상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면서 생산의 규정적역할을 무시

하면서 생산관계의 분석을 거부하였다. 케인즈의 유통주의리론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모순을 가리고 부르죠아적착취제도를 유지하려는 반동적목적을 추구하는것이다. 그는 선행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속류경제학이 모두 그러했고 특히 경제학상 《심리학파》라고 불리는 《오지리학파》가 그랬던것처럼 철두철미 관념론적인 심리학적리론을 조작하였다. 경제학에서의 심리학적조류는 경제관계와 경제법주를 사람들의 주관적인 심리적문제로 전화시킴으로써 경제관계의 사회계급적내용을 엄폐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있다. 경제학의 기본문제들인 가치리론, 로임리론, 자본, 리윤문제들에서 케인즈는 낡은 부르죠아경제학의 리론들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악명높은 《인구론》의 조작자이며 반동경제학자인 말사스의 리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케인즈의 리론에는 자본주의의 변호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법론에서 선행부르죠아경제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것이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케인즈주의가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형태와 수법에서 과거의 속류경제학과 다른점이 전혀 없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래의 부르죠아경제학은 자유경쟁시기의 자본주의에 상응하게 실업이나 경제공황이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시장기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될수 있다는 이른바 《자유방임》의 교리를 선교하였다. 자본주의가 전반적위기시기에 들어서면서 사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자본주의경제의 자동적인 《조화적》발전을 찬미하던 부르죠아적선교의 기만성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전반적위기시기 부르죠아지의 대변자로 나서면서 낡은 리론을 새로운 조건에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더욱 강화된 국가독점자본주의적추향을 변호하면서 부르죠아국가의 《조절》에 의해서만 자본주의는 구원될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조절적자본주의》론을 조작하였다. 케인즈주의의 《새로운》것이란 바로 종래의 부르죠아경제학을 위기에 직면한 제국주의의 조건에 맞게 뜯어고친 속류경제학의 현대판이라는데 있다.

자본주의 전반적위기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인 만성적이고 대량적인 실업과 파국적인 경제공황과 같은 제반 현상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된 조건에서 케인즈의 학설에서는 실업 및 경제공황문제의 설명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고 그 극복을 위한 부르죠아국가의 《조절》대책이 주되는 내용으로 되게 되였다.

케인즈는 실업의 원인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있는것이 아니라 수입증대에 비해서는 소비를 적게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상태 즉 《소비성향》과 자본증대에 비하여 투자를 적게 하려는 자본가의 심리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우선 사람에게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따라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소득의 증가와 같은 정도로는 증가시키지 않는》 《심리법칙》이 있어서 소비부족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하여 생산과잉과 경제의 침체, 실업이 발생한다는것이다. 관념론적인 《심리법칙》을 가지고 실업문제를 설명한 케인즈의 론의는 황당한것이다. 그의 《소비성향》론으로부터 나오는 실천적결론은 소비를 장려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목적은 전쟁까지도 포함한 자본가들의 기생적소비를 찬미하고 정당화하는데 있다. 그는

로골적으로 《소비는 미덕》이라고 하면서 마치도 자본가들의 사치와 랑비, 전쟁등이 실업을 없애는 길인것처럼 선교하였다. 케인즈는 개인적《소비성향》과 함께 자본투자의 부족이 실업을 규정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론의하였다. 그는 실업과 경제공황을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가 자본투자로부터 얻어질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수익(케인즈는 이것을 자본의 한계효률이라고 불렀다)인데 이것은 자본투자의 전망에 대한 자본가의 심리상태 즉《비관적 또는 락관적기분》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자본가에게 락관적기분이 조성되거나 투자자본량이 적으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반대로 비관적기분이 조성되거나 투자자본량이 많아지면 이전보다 투자를 적게 하거나 지어 투자하였던 자본을 회수하는데까지 이른다는것이다. 케인즈의 사상의 기본은 리윤이 적어져서 자본가에게 비관적기분이 생기면 투자를 안하게 되고 그러면 실업이 나온다는것이다.

《자본의 한계효률》이라는것을 가지고 경제공황문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케인즈는 자본가의 심리상태(리윤이 많겠는가 적어지겠는가에 따라 변하는 락관적 또는 비관적심리상태)가 경제공황(케인즈의 표현에 의하면 자본주의적경기순환)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케인즈의 《경기순환론》은 《심리학적》공황론인것이다. 그는 경제공황을 《심리적》인 요인에 귀결시킴으로써 자본투자를 증대시키고 경제공황을 없애자면 자본가들에게 높은 리윤을 보장해주어 《락관적기분》을 조성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케인즈의 론의가 어느정도로 황당한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신경과민증, 지어 인기상태가 주는 작용 등에 의해서 자본투자가 달라지고 경기변동이 일어날수 있다고 한데서도 볼수 있다. 그는 《투자의 장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투자를 크게 좌우하는 자생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경과민증이라든가 〈히스테리〉라든가 심지어는 인기에 대한 동화 및 반응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케인즈는 자본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자본의 한계효률》과 함께 리자률문제를 내놓고 그것에 대하여 론의하고있다. 그는 차입자본의 리자률과 그 자본으로부터 예상되는 리윤률의 대비에 기초하여 투자가 진행되는데 리윤률이 리자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면 투자가 확대되고 낮으면 투자를 하지 않거나 하였던것도 회수하는데 이른다고 하였다. 케인즈는 리자률도 《고도로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보면서 그것은 《류동성선호》와 화폐량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류동성선호》란 재부를 아무때나 임의의 목적에 쓸수 있도록 류동적인 형태(화폐형태)로 보유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의미하며 따라서 리자률은 《류동성을 포기하는데 대한 보수이기때문에 화폐소유자가 화폐에 대한 류동성지배를 포기하는것을 원치 않는 정도의 척도》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리자란 산업자본가가 대부자본가에게 넘겨주는 잉여가치의 일부로서 자본주의적착취관계를 표현하는것이며 리자률은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대부자본의 운동과 관련된 경제적요인들에 의해서 규정되는것이다.

케인즈의 론의의 핵심은 자본주의하에

서 공황과 실업이 생기는것이 리윤이 낮아지는데 기인하며 그를 없애는 유일한 수단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조절》에 의해서 자본가들에게 높은 리윤을 보장해주는데 있다는것이다. 그가 만들어낸 각종《리론》과 도식들은 이러한 본질을 숨기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실업 및 공황은 케인즈가 설교한것처럼 류통분야에서의 심리적요인들에 기인하는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생산관계자체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형태간의 모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것이다. 따라서 실업과 공황은 자본주의제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없엘수 없다.

케인즈는 국가가 《수요부족》을 《조절》하는 기능만 장악한다면 실업과 공황 등 자본주의모순을 없엘수 있다고 설교하였다. 그의 이 주장은 독점에의 국가기구의 종속과 리용 즉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정당화한것이다.

독점자본가들은 최대한의 리윤추구를 위하여 국가를 더욱더 자기에게 종속시키면서 국가기구를 착취의 강화에 리용하며 특히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와 관련하여 제국주의국가의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수단, 국가에 의한 주문, 신용정책, 인플레정책, 독점에 대한 특혜조치와 장려금의 지불, 부르죠아국가를 통한 직접적투자와 국유화 등 각이한 형태로 표현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가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리윤을 증대시키려는 책동들이다.

케인즈가 설교한 국가의 《경제조절》론은 독점에의 국가의 종속과 그 기구를 통한 착취와 략탈의 강화를 합리화하고 변호하는것으로서 실업과 공황의 퇴치요, 완전고용의 달성이요 하는 등의 구호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반동적본질을 가리기 위한 기만적인 간판에 불과하다.

케인즈는 자본주의경제의 《조절》을 설교하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제기하였다. 그는 자본가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방책으로서 리자률을 조절하고 자본가들에게 리윤을 높여줌으로써 《락관적기분》을 조성시켜줄것을 주장하였다. 케인즈는 리자률을 낮추기 위해서 류통화페량을 조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플레정책을 찬양하였으며 자본가들의 투자를 자극하기 위하여 각종 장려 및 특혜조치를 강구할것을 주장하였다.

소비수요의 부족을 없애야 한다는 구실밑에 케인즈는 자본가들의 각종 기생적소비를 극구 찬미옹호하였으며《전쟁까지도…부의 증가에 도움이 될수 있다》,《전시를 제외할것 같으면 최근에 우리가 완전고용을 초래할 정도로 강력한 호경기를 과연 경험했는가는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호경기와 《완전고용》을 이룩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다고 아무 꺼리낌없이 설교하였다.

동시에 케인즈는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자본가들에게 높은 리윤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것을 로골적으로 설교하고 로임《동결》정책을 주장하였다.

케인즈가 내세운 《조절》방안은 모두가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들로서 독점부르죠아지들이 최대한의 리윤추구를 위해서 적용하고있는 방책들이다. 그러므로 케인즈는 자본주의 전반적위기시

기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변호자로, 독점부르죠아지의 가장 충실한, 추악한 대변자로 되는것이다.

*　　　*

케인즈주의는 제2차세계대전후 독점자본가들에 의하여 더욱 장려되였다. 그것은 보다 광범히 류포되였으며 각종 현대케인즈주의조류들이 산생되였다.

현대케인즈주의는 케인즈의 학설의 원리적명제들을 리용하면서 그것을 자본주의 전반적위기의 가일층의 심각화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대독점들의 반동적목적에 적응하게 《보충》《수정》한 것들이다.

케인즈의 학설은 자본주의 전반적위기의 반영이면서 구체적으로는 1929～1933년 경제공황을 배경으로 하여 출현한 것으로서 주로 공황국면에서 벗어나려는 부르죠아지의 요구를 대변한 《단기적침체리론》이였다.

현대케인즈학파들은 실업과 공황으로써 나타나는 자본주의모순에 대한 케인즈적설명을 확대하여 보다 장기에 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리론을 제공하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단기적》인 케인즈학설의 《장기화》가 기도되고 케인즈학설의 《보충》의 하나가 이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조작된것의 하나가 이른바 한센의 《장기정체론》인바 이에 의하면 지금까지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인구증가, 새로운 령토, 새로운 자원의 발견, 기술진보 등으로 하여 자본투자가 확대되였으나 이제와서는 사정이 달라지면서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장기정체》의 경향이 발생한다는것이다. 한센의 견해에 의하면 첫째로, 인구증가률의 저하로 말미암아 사회의 유효수요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자본축적이 감소되며 둘째로, 자본절약적인 기술혁신으로 하여 현존설비의 보충과 갱신이 설비의 감가상각적립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데프레이숀》이 일어나며 셋째로, 미개척지의 소멸로 하여 자본의 《한계효률》이 적어지는 등 사정이 자본주의경제의 《장기정체》를 가져온다는것이다.

이러한 케인즈론의 현대판도 자본주의경제의 난관의 원인을 자본주의적생산관계와 그 모순의 첨예화에서 찾지 않고 기술적, 경제외적 요인에 귀착시키는 부르죠아변호론의 전통적수법을 그대로 계승하고있는것이다.

현대케인즈주의자들은 케인즈가 제기한 《조절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방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학설의 《현대화》는 소위 《동태화》의 방향에서도 전개되였다. 케인즈는 자본주의경제의 설명에 있어서나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책문제에서나 생산, 기술조건, 인구, 자본규모 등 요인을 불변의것으로 전제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리론은 《정태적》리론으로 되였다. 케인즈의 이러한 리론은 위기의 일시적인 타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지배의 유지와 경제의 안정화를 갈망하는 현대부르죠아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는 불충분한것이였다. 그리하여 《동학화》 또는 《동태화》가 《장기화》와 함께 케인즈학설의 《현대화》의 중요내용으로 되였다.

현대케인즈주의자들은 케인즈의 학설에 《동태》, 《성장》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발전》문제를 론의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케인즈주의적인 《경제성장론》이 나타났다.

또한 종래부터 존재하던 경제현상의

괴상적인 랑각고칠에 대딥리는 부르죠아경제학파들이 케인즈의 명제들에 의거하면서 현대《계량경제학》이라는 케인즈주의의 하나의 변종을 산생시켰다.

오늘 부르죠아경제학에서 중요조류로 되여있는 《경제성장론》, 《계량경제학》, 《국제경제학》 등은 케인즈의 학설과 개념들에 기초하면서 그것을 《수정》, 《보충》했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현대케인즈주의를 이루고있는 동시에 케인즈주의의 현대적변종인 부르죠아경제학의 특수한 《성장론》적조류를 형성하고있는 것이다.

케인즈주의에는 그것이 제창하는 《조절》의 구체적방책문제에서도 일련의 《보충》이 가해졌다.

실천적방안의 측면에서 케인즈주의의 《현대화》는 제2차대전후 자본주의경제의 특징과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부르죠아지의 정책 특히 미국경제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진행되였다.

현대자본주의는 전반적위기의 심각화를 반영하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강화,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정책으로서 특징지어진다. 현대케인즈주의는 이러한 현실과 부르죠아지의 요구를 표현하고있다.

그리하여 현대케인즈주의는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국가의 《간섭》과 《조절》을 설교하며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정제를 더욱 로골적으로 찬미하여나서는것으로써 특징지어진다.

현대케인즈주의자들은 신용조절이나 사적투자에 대한 국가적장려를 전면에 내세웠던 케인즈와 달리 부르죠아국가의 직접적인 지출을 강조하고 그것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그들은 케인즈의 제안이 제한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국가가 《정부 자금》을 형성하여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특히는 국가가 나라의 전반적인 《재정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독점들이 국가기구를 더욱 파렴치하게 저들의 착취적 및 침략적 목적에 리용하려는 책동을 정당화하고 변호하는것이다.

현대케인즈주의자들은 군사비지출이 경기안정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떠벌리고있다. 그들은 세계가 《전쟁에 의하여 소비를 확대할것인가 아니면 공황과 실업에 의하여 생산을 축소할것인가 하는 질렘마에 빠져있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자는 《자본주의의 무제한한 장성경향은 오늘에 와서 대중의 소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게 되였다. 그것은 무기의 팽대한 시장에 의하여 자극되며 실현조건을 가지고있다》고 설교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을 위한 군사비지출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경제공황을 방지하며 자본주의경제의 《번영》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한다.

현대의 미국 케인즈주의자들은 비단 국내적범위에서 《조절》을 설교할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규모에서의 자본주의의 《조절》의 필요성에 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이것은 세계제패에 대한 미제의 야망을 표현하는것이며 동시에 미제가 조작해내고있는 침략과 략탈의 각종 국제기구들의 본질과 정책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는것이다. 미제는 《다른 나라들에서의 고용과 생산수준을 제고》시킨다는 기만적구호하에서 대외침략을 정당화하고있으며 지어는 《세계경제의 통합》에 관하여 설교하여 나서고있다. 결국 현대의 케인즈주의는 국내적으로 국가기구를 리용하여 감행되는 로동계급에 대한 독점

의 략취를 합리화하고 변호하며 대외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와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합리화하는데 복무하고있는것이다.

케인즈주의는 반동적《후진국개발론》의 일부류파들의 방법론적기초로 되고있으며 그것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시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발전의 방향, 방도가 중요한 정치경제적, 리론실천적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특히 이 나라들의 비자본주의발전의 길을 밟아 사회주의에로의 발전방향을 취하는가 또는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을 따라나가며 제국주의나라들의 부속물로 남는가 하는 문제는 발전도상에 있는 이 나라 인민들을 위하여서뿐아니라 사회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의 투쟁, 국제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데로부터 각종 《후진국개발》리론들이 산생되게 되었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은 《후진국》들을 자본주의의 길에 얽매여두기 위한 저들의 책동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반동적인 《후진국개발》리론들을 조작류포시키고있다.

오늘날 반동적《후진국개발론》의 주류는 《후진국》의 구조 및 발전가능성의 연구에 케인즈학파의 방법과 명제들을 적용하고있다. 이러한 《후진국개발론》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후진국》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침략과 략탈의 변호에 복무하고있으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에서 특히는 신구케인즈학파들의 처방을 리용하는 조건에서 경제적《번영》을 점차 이룩할수 있는듯이 인민들을 기만하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 *

케인즈주의는 《완전고용》이니, 《경제성장》이니, 《후진국개발》이니 하는 기만적구호하에 부르죠아지들의 반동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들,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의 강화, 침략과 전쟁정책, 신식민주의 등의 본질을 가리고 현대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며 특히 미국에 대한 환상과 숭배를 조성하는데 리용되고있다.

제국주의부르죠아지들과 그 대변자들은 케인즈주의의 사이비과학성을 리용하여 제국주의반동정책을 리론적으로 정당화하며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무마시켜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부르죠아지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는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신구케인즈학파들이 주장하는 반동적인 《국가적조절》이 그 어떤 사회주의적인 시책으로 될수 있는듯이 떠벌리면서 로동자들속에 제국주의국가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로동운동을 오도하려는 책동을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케인즈주의는 오늘날 독점자본주의의 가장 전형적이며 가장 광범히 류포된 옹호리론으로 인민들속에 적지 않은 해독을 끼치고있다.

케인즈주의는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강배되어 널리 퍼지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 케인즈주의를 류포시키게 된것은 그것이 남조선인민들에게 자본주의 특히 미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략탈과 그 후과를 합리화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매국정책을 미화하는데 편리한것이기때문이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착취는 남조선경제를 침체와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전대미

문의 생활고에 빠지게 하였다. 남조선경제의 파탄과 남조선인민들의 처참한 생활처지는 전적으로 미제와 괴뢰도당의 침략과 반동정책으로 말미암은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각종기만과 궤변으로 저들의 반동적반인민적시책들을 정당화하려 하고있으며 미제의 《원조》와 《경제성장》을 위한 시책들에 의하여 그 어떤 경제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는듯이 떠벌리고있다. 그들은 이에 있어서 괴뢰정부의 간섭과 《조절》이 《경제적성장》과 《근대화》를 이룩케 하는데 기여할것처럼 떠벌리고 《투자유인》, 《지리자정책》, 《인플레정책》 등 케인즈적《명제》와 처방을 저들의 략탈정책을 변호하는데 리용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투자유인》은 대외적인 예속의 강화, 인민들에 대한 략탈의 가중을 가져왔을뿐이며 사기적인 《지리자정책》은 오직 예속자본가들을 배불리고 인민들과 민족자본가들에게 타격을 주었을뿐이다. 인플레정책과 또하나의 케인즈적처방인 로임《동결》이 근로대중의 실질임금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온갖 반동적부르죠아옹호론들 특히는 케인즈학설로써 남조선의 현실을 미화하는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일이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자본주의발전의 길 특히는 케인즈적경제시책들에 의하여 그 어느 앞날에 《복지사회》가 이루어질듯이 선전하고있다. 그들은 1970년대후반기에는 《소비가 미덕으로 되는 대량소비의 풍요사회를 건설하려는 꿈》을 실현해 보겠다고 꿈같은 소리를 줘여치고있다. 그들은 미제의 지시하에 인민수탈과 전쟁정책에 광분하면서 《정부예산》을 통한 경제적시책들, 《조절》을 민주경제의 발전을 위한 방도인듯이 떠벌리고있으나 그 허위성은 가릴수 없다. 미제와 괴뢰도당이 백방으로 찬미하는 미제의 《원조》의 침략적략탈적본질은 날이 갈수록 남조선인민들속에 폭로되여가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이 반동적부르죠아경제사조들로써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모든 반동사조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반공선전이다. 케인즈주의도 바로 자본주의제도의 미화와 사회주의제도, 공산주의사상에 대한 비방에 리용되고있다. 그러나 오늘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이 더욱더 인민들속에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특히는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남조선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지고있는 조건에서 그 어떤 케인즈적변호론도 인민들을 더는 속일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동적부르죠아사조들과 함께 케인즈주의를 비롯한 부르죠아경제학조류들의 진면모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될것이며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와 군사기지화정책을 반대하며 미제와 괴뢰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적발전을 위한 혁명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다.

근 로 자 제11호 (루계 29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6년 11월 20일 발행 • 1966년 11월 25일

ㄱ—63408 값 50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 호

평 양 근로자사 1966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 (298)

차 례

당원의 혁명적의지

1. 혁명적의지는 공산주의자들의 품성에서 기본을 이룬다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지구상에서 착취와 압박, 온갖 사회악을 청산하는 인류력사상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 위대한 혁명적변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역경을 헤치고 나가야 하며 원쑤들의 야수적이고 간교한 책동을 물리쳐야 한다.

원래 혁명이란 간고하고 복잡한것이다.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이겨낼만한 강의한 의지가 없이는 진정한 혁명가로 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것을 결심하고 어떠한 희생과 난관앞에서도 자체의 력사적사명을 배반함이 없이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혁명은 실지사업에서, 투쟁에서, 불속에서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는다. 만약에 그대가 압박받고 착취당하고있어서 착취자들의 정권을 집어던질것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대가 그 전복사업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결심하였다면, 그대는 반드시 전세계의 착취자들의 공격을 견디여내야 할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대가 그 공격에 반격을 주려고 하며 투쟁에서 견디여내기 위하여 새로운 희생을 각오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대는 혁명가일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를 압살하여버릴것이다.

모든 혁명력사는 문제를 바로 이와 같이 설정하고있다》(레닌전집 제29권, 63페지).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100여년의 력사는 계급적원쑤들과의 혁명선렬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충만되여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오직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면서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로 싸워이겼다.

항일무장투쟁은 실로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드문 간고한 투쟁이였다. 항일빨찌산들은 15여성상의 장기간에 걸쳐 수량상으로나 군사장비에서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들과 맞서싸웠다. 그들은 혹한과 수림속에서 힘겨운 행군과 가렬한 전투의 나날을 강의한 혁명적의지로 견디여냈다. 그들은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혁명에 바쳤다.

혁명위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간난신고도 이겨내고 모든것을 바쳐싸운 강의한 혁명적의지는 김일성동지를 선두로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고상한 전통적품성의 하나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형성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의지적풍모는 해방후 우리 인민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전통적인 혁명정신으로 교양된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특히는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에서 혁명적의지의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대대적인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우리 인민들은 강대한 적을 상대로 한 힘겨운 전쟁에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

쟁의 나날에 당과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들은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아군의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우리의 후방인민들은 적의 폭격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가운데서도 낮과 밤을 이어 농사를 짓고 기대를 돌려 전시생산을 보장하였다.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인민의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로 하여 우리는 이겼으며 미제는 무릎을 꿇고야 말았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헤아릴수 없는 난관이 중첩되였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과 풍파에도 굴할줄 모르는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은 강한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 재더미를 헤치고 도시와 마을을 일떠세웠다. 우리 인민은 어려운 고비를 이겨냈으며 또다시 새생활을 이룩하였다.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인민과 령로가 있는한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진 인민은 불사조와도 같이 짧은 기간내에 일떠설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전세계에 과시하였다.

혁명적의지는 당원들이 그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 된다.

혁명적의지는 혁명과업수행에서의 확고한 결의, 강한 투지와 대담성, 책임성과 자기희생성 등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또한 일군들의 자립성과 창발성, 혁명적락관주의의 바탕으로 된다.

혁명적의지가 확고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리익이 요구하는 과업들을 적극 담당해나설수 없으며 사업도상에서 봉착하는 난관들을 극복하고 자기임무를 끝까지 완수할수 없다.

확고한 혁명적의지—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적지조의 전제이다. 혁명적의지가 확고하여야만 어떠한 역경하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키며 자체의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한없이 더 소중히 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혁명적의지가 강해야만 투쟁의 어려운 시기만이 아니라 비교적 순탄한 시기에도 해이되지 않고 견결하게 혁명위업에 투신할수 있다. 계급적원쑤들은 로동계급과 혁명가들에 대하여 총칼과 단두대로 위협할뿐만아니라 간교한 회유와 기만으로 오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혁명적의지가 확고하여야만 공산주의자들은 적과 총칼을 맞대고 싸울 때뿐만아니라 모든 복잡한 조건하에서 혁명적의리와 절개를 끝까지 지킬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적의지는 혁명과 건설에서 당원들의 사업성과를 담보하는 커다란 힘으로 되며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가적풍모의 기본으로 된다.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업적은 대단히 크며 자랑차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할일은 더 많다.

우리 조국의 절반땅은 원쑤들의 발밑에 짓밟힌채 있으며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탄속에서 신음하고있는 우리의 남녘땅 겨레들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시키며 온 나라에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사회를 건설할 혁명적임무는 우리에게 계속 긴장된 투쟁을 요구한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할데 대한 당대표자회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은 의연히 복잡하고 간고하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으며 좌우경기회주의는 세계혁명운동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우리의 전진도상에 있을수 있는 난관과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혁명적의지를 더욱 단련하여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환경에 부닥쳐도 일편단심 당을 따라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혁명에 헌신하는 기풍과 불요불굴의 혁명적의지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2. 혁명적의지는 맑스—레닌주의세계관에 기초한다

혁명적의지는 그 어떤 곤난속에서도 혁명임무를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공산주의자의 품성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에 기초를 둔다.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려는 혁명적각오와 굳센 혁명적의지를 가지게 한다.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이 서고 계급투쟁의 법칙을 파악할 때 사람들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가장 견결한 투쟁의 필요성을 알게 되며 계급적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혁명계급의 련대성, 로동계급의 세계사적사명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질수 있다.

피착취대중의 해방은 오직 착취자들과의 무자비한 혁명투쟁을 통하여서만 이룩될수 있다. 착취계급의 지배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은 허다한 난관과 희생을 동반하나 그것을 극복하여야만 계급적, 민족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자각은 견결한 혁명적의지의 사상적기초로 된다. 사람들이 계급적자각, 계급의식을 높이면 높일수록 계급적원쑤를 쓸어버리고 인민을 해방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게 된다.

혁명적의지는 공산주의자들의 투쟁목적의 정당성, 정의성에 대한 인식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세계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은 공산주의자들의 투쟁목적이 절대다수 피착취인류의 해방을 지향하는것만큼 가장 정당하고 가장 인도주의적이라는것을 천명하여준다.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은 공산주의자들이 선택한 길이 또한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가장 정의롭고 애국적인 길이라는것을 확신시켜 준다.

자기들이 수행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긍지는 사람들에게 혁명의 미래에 대한 열렬한 동경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며 이 감정은 혁명에서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물러서거나 동요함이 없이 투쟁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게 한다. 혁명의 참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며 혁명적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운다.

항일빨찌산들은 바로 자기들이 진행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었음으로 하여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굴함없이 혁명적지조를 지켜낼수 있었다.

<혁명가들은 적의 첩첩한 포위속에서도,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결코 비관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었으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와 광명한 앞날을 확신하고있었기때문이다>(김일성, 《청소년들의 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은 사람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굳건한 신심을 준다.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은 사람들에게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가르쳐주며 자본주의제국주의와 모든 착취제도가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는 필연코 승리하고야 만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혁명적의지는 혁명승리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에 기초한다.

승리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여야 눈앞에는 허다한 난관이 쌓여있고 전도가 요원한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혁명가로서의 립장을 꿋꿋이 지켜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빨찌산들이 무엇을 믿고 그처럼 간고한 투쟁을 전개할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믿은것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하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사회발전법칙에 의해서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였기때문에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끝까지 싸웠**

[1](김일성선집 제5권, 505페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은 인민대중이야말로 력사의 진정한 창조자라고 가르치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면 극복못할 난관이나 시련이 있을수 없다고 가르친다.

확고한 혁명적의지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는데서 나온다.

피착취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간고한 혁명위업을 혁명가들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할수는 없는것이다. 오직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지고 군중을 동원하고 투쟁에로 옳게 이끌어줄 때에만 무비의 힘으로 적과 맞설수 있다. 혁명가들은 그가 군중과 함께 있고 군중과 한덩어리로 되여있는한 무서울것이 없으며, 물불을 헤아림없이 나가려는 힘과 정열이 용솟음치게 된다. 그러므로 군중관점, 군중로선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의지를 확고히 안받침하여주는 중요한 바탕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세계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은 간고한 혁명로정에서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싸워나가도록 하는 사상적바탕이다.

우리 당원들은 로동계급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할수록 어떠한 조건하에서든지 제기되는 혁명임무를 견결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사상의지적으로 더 잘 준비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의지는 혁명의 리익, 집단과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바치는 정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자신을 혁명과 당조직에 전적으로 바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과 혁명의 리익이 목숨보다도 귀중한것으로 되며 이러한 자각이야말로 당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최후의 피한방울까지라도 바치려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로 되게 한다. 자기의 개인적리익을 집단과 계급,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바칠줄 아는 정신은 오직 계급적세계관을 확립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만 얻어질수 있다.

우리 당원들의 당성, 혁명성의 척도는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당이 준 혁명임무에 대한 충실성이다.

중요한것은 우리 당원들이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훈련된 혁명가로서 개인리기주의의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극복하고 조직의 의지, 조직의 규률에 무조건 복종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맡은 혁명과업을 항상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부단히 더욱 큰 혁명과업을 감당할수 있고 더욱 큰 난관도 극복할수 있는 혁명적의지의 소유자로 되여야 한다.

3. 당원은 혁명적의지를 단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혁명적의지는 당원들의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표현되고 관철되여야 한다. 당원들은 어떤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때나 난관을 극복하고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립장을 고수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나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하며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의지를 적극 반양하는 동시에 가장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 처할 때에도 일편단심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도록 고상한 혁명적의지를 단련시켜야

한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의지의 단련은 항상 제일차적인 과업의 하나이며 당성단련에 관한 당규약상의 의무로 된다.

당이 요구하는 혁명적의지,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혁명적지조를 키우는것은 우리 당원들이 계속 꾸준히 진행하여야 할 과업이다.

당원들의 혁명적의지단련의 기본방도는 당조직생활이다.

당원은 일상적인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교양을 받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게 되며 조직의 위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집단주의를 배양하고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난관앞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단련시킨다.

당조직이 주는 혁명임무에 대한 충실한 집행은 당원들의 의지단련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원들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당적위임을 실행하는 과정에 혁명적의지를 더욱 단련시킬수 있다.

당원들은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당적사상체계를 확립하며 혁명적의지를 단련하기 위하여 자체수양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사상리론수준제고는 혁명적의지를 단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맑스—레닌주의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하여주며 그것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업을 명확히 파악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 조국의 사회주의공산주의미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고귀한 리상, 위대한 포부를 안겨준다.

혁명전통교양과 결부된 공산주의교양은 당원들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항일빨찌산들은 바로 누구보다도 혁명의 리익, 조직의 리익을 높이 세울줄 아는 혁명적의지의 소유자들이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갖 간난신고를 마다하지 않고 끝없는 밀림과 설한풍, 싸움에 싸움을 이어가는 그러한 혁명의 길을 택하였다.

항일빨찌산들의 빛나는 전통과 모범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의지를 단련하기 위한 귀감으로 된다.

당원은 군중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혁명적의지를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군중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혁명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질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 헌신복무하려는 결의를 굳게 할수 있다.

혁명군중과의 일상적인 접촉은 당원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들이 더욱 투지를 가다듬고 전진할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원은 군중생활, 군중조직생활에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항상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사업과 생활을 일상적으로 돌이켜보며 자기의 혁명적의지단련에 힘써야 한다.

당원들은 혁명의 앞길에서 있을수 있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이 싸워나가도록 항상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선렬들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자인 우리 로동당원들은 더욱 확고한 혁명적의지를 키워 당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견결히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최　　현

우리 당대표자회는 조성된 내외의 혁명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현시기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특히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와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그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 군사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며 도래하는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뿐아니라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이것은 일반적으로 혁명에 관한, 특수적으로는 전쟁과 군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현국제정세 및 혁명의 당면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견지하고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오늘 우리들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전투적과업이다.

1

현시기 조성된 정세는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뿐아니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력량에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다.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력사무대에서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 없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하고있다. 이리하여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평화를 교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엄중한 단계에 이르게 하고 있으며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 전쟁의 불길을 넓히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중요한 군사전략적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적들은 수만명의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를 배치하고있으며 60여만명의 괴뢰군을 유지하고있을뿐아니라 전술적핵무기와 유도무기등 대량살륙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으며 도처에서 군사시설들을 확장하고 남조선전역에서 《전시태세》를 강화하고있다.

또한 미제는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켜 남조선괴뢰들과 결탁시켰으며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있다.

우리의 혁명기지인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해보려고 노리고있는 미제는 《북진》을 가상한 각종 군사연습을 진행하면서 군사분계선과 해안연선일대에서 련일 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으며 간첩파괴암해분자들을 침입시키고있다.

모든 사태 발전은 미제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이 지역에서 급격히 장성하고있는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말살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더잘 집행하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기본은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군사로선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여기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단행본, 59폐지).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준비하고 공고히 함에 있어서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와 더불어 결정적담보로 된다.

전체 인민의 무장화란 인민자신의 힘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침공으로부터 보위하기 위하여 상비적인 정규무력인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키고 항상 경각성있는 준비태세에 있게 하는것을 의미한다.

일찌기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로동계급이 주권을 장악한이후 내외의 원쑤들의 침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나아가서는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인민적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것을 여러번 강조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무기를 들수 있는 모든 공민을 병사로 만든 무장한 인민이 이 자유의 지주로 된다면, 세계의 어떠한 힘도 자유로씨야를 감히 침해하지 못할것이다》(레닌전집 제10권 1분책, 67폐지).

실로 인민대중은 사회의 물질문화적부의 생산자로서 력사발전의 결정적힘으로 될뿐아니라 무장투쟁을 포함한 모든 혁명투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력량으로 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침략에 대처하는 국방건설과 정의의 전쟁에 목적의식적이며 적극적으로 동원되게 하는것은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전국의 요새화란 현대전의 특성에 적응하게 전연과 후방, 종심과 해안 어디나 할것없이 도처에 방위시설들을 튼튼히 만들어놓음으로써 적의 어떠한 불의의 타격도 능히 막아낼뿐아니라 그것을 격퇴소멸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를 갖추는것을 의미한다.

현대전은 고도로 발전된 투쟁수단들이 적용되는 립체전쟁이다.

이 전쟁은 지역이 넓건 좁건, 전선이건 후방이건 할것없이 모든 지역을 포괄한다.

전투행동은 지상과 공중에서만이 아니라 해상과 해안에서도 진행될수 있다. 전선에서는 적의 지상공격을 격퇴하며 해안에서는 적의 상륙기도를 격파하기 위한 군사행동이 진행될수 있으며 종심에서는 적항공륙전대를 소멸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질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현대적무기와 많은 병력을 가지고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크다.

전국의 요새화는 현대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현대전의 조건에서 어느 한 전선지역을 요새지대로 꾸려놓는것만으로써는 결코 전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할수 없다.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호상 밀접한 련관성을 가지고있으며 서로 통일되여있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전국의 요새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으며 전국을 요새화하지 않고서는 전체 인민의 무장화가 소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없다.

이와 함께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를 떼여놓고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결정적담보는 바로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와 더불어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에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나라의 방위력강화에서 그 어느 하나도 차요시될수 없으며 늦출수 없는 중심적내용을 이룬다.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무장력인 정규군의 강화발전문제를 전체 인민의 무장화문제와 긴밀한 련관속에서 고찰하고 인민군대와 함께 로농적위대를 창설하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사회주의건설의 가일층의 발전과 전국의 요새화를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능숙하게 해결하였다.

이리하여 북반부에서는 이미 적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는 전인민적방위체계가 확립되였다. 근로자들은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창조적투쟁에 헌신하는 동시에 다른 한손에는 총을 쥐고 조국보위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우리는 지금에 와서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우리자신의 힘으로 막아낼수 있으며 그를 능히 우리 조국 강토에서 때려눕힐수 있는 전투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자신만만하게 말할수 있다.

이것은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의 결정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으며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2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이것은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와 더불어 우리 당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된 자위적군사로선이며 맑스—레닌주의적 군사로선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방위의 견지, 현대전의 요구의 견지에서보나 외래침략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력사적투쟁경험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보아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방침의 실현은 매개 사회주의국가들의 방위력을 강화할뿐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담보로 된다.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은 매개 자주독립국가들에 있어서 필수적요구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을 각개격파하여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보려고 음흉하게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이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주의진영의 방위력은 어느 한 나라의 군사력에만 의존할수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진영을 형성하고있는 전체 나라들의 군사력에 의존하며 또한 호상 지원하는데 있다.

한 나라의 발전된 군사기술, 위력한 현대적무기 그리고 한 나라의 거대한 병력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 도움을 줄수는 있으나 그 나라 방위에서 그 국가의 군사력을 대신할수는 없다.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은 자체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나라는 물론 사회주의진영 전체의 안전을 기하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그 어떠한 불의의 침략도 격파하고 사회주의진영의 매개 초소를 보위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국방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막아낼수 있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이다. 이것은 국방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단행본, 61페지).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의 비할바 없는 위력은 그것이 바로 국방에서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한데 있다.

전쟁은 사람에 의하여 진행되며 전쟁의 물질기술적수단인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도 사람이 만들어내며 그것을 전쟁마당에서 다루는것도 다름 아닌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전선과 후방에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헌신적역할이 없이는 전쟁승리를 기대할수 없다는 견지에서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을 동원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혁명적 립장에 확고히 서있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는 방침은 그것이 바로 국방에서 우리 당의 자위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것으로 하여 위력하다.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며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화하는것—이것이 군사분야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자위적원칙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혁명을 더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정치적힘, 자체의 경제적힘과 함께 반드시 자체의 군사적힘을 가져야 한다.

자기나라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창조적열성에 의거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성이며 근본적립장이다.

매개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이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자체의 국방공업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할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진영을 철옹성같이 공고화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기도도 제때에 분쇄할수 있는 강력한 보루를 축성하는것으로 된다.

현대전은 그 수행방법과 형식에서뿐아니라 그 범위와 규모에 있어서도 종전의 전쟁과는 다르다.

현대전은 나라의 전지역과 넓은 공간을 포괄하며 모든 군종, 병종들의 유기적인 협동하에 진행되며 전체

인민이 참가하게 된다.

현대전은 한번의 작전이나 전투로써 결판이 나는것이 아니라 적에 대한 련속적인 타격과 부단한 포위소멸 등 복잡한 무장투쟁형식과 방법의 창조적적용을 요구하며 장기적이고 결정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상비적인 정규군뿐 아니라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 전선과 후방을 하나의 전투진영으로 전환시키며 전쟁시초부터 주도권을 튼튼히 장악하고 정규전과 유격전 등 각이한 투쟁형식과 방법으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을 정면과 익측 및 후방할것없이 도처에서 부단히 타격소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부터 군대를 간부화하고 현대화할뿐아니라 생산을 떠나지 않는 근로대중의 자원적무장력인 로농적위대의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현대전을 감당할수 있도록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되게 하는 전민무장화의 조치는 현대전의 성격에 비추어보아 아주 정당한 방침이다.

대량살륙무기를 포함한 최신무기와 군사기재들이 동원되게 되는 현대전쟁은 불의성의 의의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쟁에 참가하는 나라들의 인적 및 물적 잠재력에 많이 의존한다.

전쟁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이 항상 다른 나라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에서 우세한 위치에 서려고 발광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반원자, 반화학적으로나 반항공, 반전차적으로 견고한 진지를 나라의 도처에 축성하고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견지하는 전국의 요새화와 전쟁의 장기성에 대처한 자위의 튼튼한 물질적토대인 현대적공업과 농업 그리고 운수를 군사에 더잘 복무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한 적절한 조치는 현대전쟁의 합법칙성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현명하고 과학적인 방침인것이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력사적투쟁경험은 국방에서 전인민적투쟁이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결정적담보로 되였음을 보여주고있다.

명장 을지문덕장군이 령솔한 고구려 군대와 인민의 전인민적투쟁의 승리, 리순신장군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단결된 조선인민의 애국적투쟁에 의한 임진조국전쟁의 승리 등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내려오면서 조국방위의 정당한 위업에 떨쳐나서 싸운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보여주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15여성상의 장구한 나날을 하루와 같이 풍찬로숙하며 싸워온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항일유격전쟁은 광범한 반일대중을 조직동원함으로써 이 영웅적항전에서 민족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쟁취하게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유격대를 강화하고 혁명적인민을 무장시키며 혁명근거지를 요새화함으로써 발톱까지 무장한 수십만의 적과도 능히 싸워이겼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은 자위의 혁명사상으로 일관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영광스러운 전투적행로이며 그의 빛나는 승리로 엮어진 력사이다.

해방후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오랜 군사정치간부들을 골간으로 하여 인민군대를 창건하고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16개국의 침략군대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제는 최신기술로 장비된 자기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제7함대를 비롯한 자기해군의 중요력량 그리고 15개 추종국가 고용병과 괴뢰군 등 200여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고 200억딸라이상의 군사비와 4년간의 태평양전쟁에서 쓴 군사물자의 11배에 달하는 7천 300만톤의 군수물자들을 소모하면서 온갖 전쟁수단을 다 동원하여 류례없는 포악무도한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적들이 그처럼 호언장담하던 《총공세》와 《작전》 등도 조선인민군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앞에 산지박산당하고 말았다.

우리는 전투와 작전마다에서 적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섬멸적타격을 가함으로써 조국의 모든 고지와 산골짜기들을 놈들이 몸서리치는 《상심령》과 《함정골》로 되게 하였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력사는 무기를 자기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일떠선 인민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힘으로도 굴복시킬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인민이 주권을 장악하고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인 우월성에 기초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는 《…이러한 방위체계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기초해서만 수립할수 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단행본, 61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토대로 된다.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와 같이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룩됨이 없이 전인민적국가방위체계의 수립이란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이미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이 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다같이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될뿐아니라 사회주의조국방위에서도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이에 기초하여 상비적정규무력인 인민군대를 창건강화하고 비상비적무장조직으로서의 로농적위대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전체 인민을 무장시켰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우리 인민은 자유와 행복을 마련해준 우리 당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서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바 이것은 우리 당이 취한 조치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며 주권이 착취계급에게 장악된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도대체 착취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의 무장화란 실현될수 없다.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적대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착취사회에서의 무장은

반동적군대와 경찰로서 구성되여있으며 다만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수단으로 리용될뿐이다.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인민대중의 수중에 무기가 들어갈 때에는 그것이 바로 그들자신을 멸망케 하는 무서운 힘으로 된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착취계급들은 인민대중을 무장시킬수도 없으며 도리여 인민대중이 무장하는것을 가장 두려워하고있다.

나라의 튼튼한 사회주의경제토대는 또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할수 있게 하는 물질적담보이다.

현대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 및 정치도덕적요인들에만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경제적요인 즉 국가의 경제력, 전시경제의 조직동원 등 후방의 공고성에도 크게 의존한다.

전쟁의 장기성과 더불어 현대적기술장비로 무장한 대량적인 군종, 병종들과 수백만 인민대중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사정은 경제에 방대한 요구를 제기하게 된다.

우리 당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 경공업 기지와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하여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며 일단 유사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전쟁승리에로 동원할수 있는 훌륭한 밑천을 마련하여놓았다.

바로 이러한 정치경제적토대우에서 실현되는 전민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는 그 어떤 현대적무기보다 훨씬 강하며 무비의 위력을 가지고있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방침의 실현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에 기초하여 대중을 정치경제분야에서뿐아니라 군사분야에 전면적으로 인입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토대하여 그들의 비상한 열의와 거대한 창조적힘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방위를 위한 투쟁에 동시적으로 조직동원하는 가장 현명한 조치인것이다.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의 실현과 더불어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는 가장 위력한 전인민적 방위체계의 확립—이것은 사람과 무기, 상비무력과 비상비무력, 정규전과 유격전, 현대전에서 현대적무기와 재래식무기, 립체전에서 방위시설과 경제적잠재력동원문제 등 전쟁에서 반드시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해명한 김일성동지의 군사사상을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실천활동에 옳게 구현한것으로서 이미 그 정당성이 현실에서 확증되였다.

3

오늘 조성된 긴장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들 앞에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방침을 계속 견지하고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들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이 대중자신의 사업이라면 그것을 보위하기 위한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도 역시 대중자신의 일이다.

이것은 오직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광범한 대중이 동원됨으로써만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으며 완벽을 기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며 국방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의 대렬을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야 한

다. 우리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기능과 당의 인전대로서의 직맹, 농근맹, 녀맹, 사로청 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칠저히 관철함으로써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동시에 전체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전사회를 로동계급화하며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통일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전인민적무장의 핵심력량으로서 우리 당의 상비적인 정규군이다. 인민군대는 조국의 자유독립과 우리 인민의 생명재산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영예롭게 수호하고있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군대를 조직정치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 계속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로농적위대는 생산을 떠나지 않는 근로대중의 자원적무장조직으로서 이는 우리 당의 비상비적인 혁명무력이다. 로농적위대는 생산과 건설의 각 분야에서 선구자적역할을 담당할뿐아니라 자기일터와 향토를 적의 온갖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있는 로동계급의 무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농적위대대렬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전취물을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혁명적열의와 각오가 있는 검열된 우수한 적극분자들로서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군인들과 로농적위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기본이며 따라서 우리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처하고있는 복잡한 국제국내정세와 우리들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은 대중속에서의 정치사상사업을 더욱더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하는 인민 그리고 그 무장력은 바로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하여 아무리 강한 침략군대도 능히 격파분쇄할수 있다.

우리의 정치사상적준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그리고 인민군군인들과 로농적위대원들이 일편단심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며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혁명적의지를 더욱 배양하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적의지—이것은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에게 고유한 품성이며 가장 귀중한 품성의 하나이다.

혁명가란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 투사들이다. 혁명가는 맑스—레닌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고있기때문에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비록 꺾이면 꺾일지언정 결코 굽히지 않으며 일단 시작한 일은 기어코 해내고야 만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바로 이러한 혁명적의지로 살며 일하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무장시킬 때 사회주의건설은 일층 촉진될수 있으며 우리의 국방력도 더욱 강화될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맑스—레닌주의교양과 당정책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모든 인민군군인들과 로농적위대원들속에서 당과 인민의 통일,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발양하며 당 및 국가규률과 군사규률을 더욱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체 인민들이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원호하며 로농적위대를 지원하며 일단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그들이 인민군대, 로농적위대와 하나로 뭉쳐 오직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군인들과 로농적위대원들이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며 적들의 침략책동과 있을수 있는 전쟁도발에 대처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을 두려워하는것은 부르죠아평화주의적기분과 수정주의적사상요소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적독소가 우리 내부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외부로부터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침공하여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전인민적무장의 기본핵심인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현대적군사기술을 소유한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로농적위대의 전투훈련을 가일층 강화하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군사훈련에 적극 참가하며 모두가 전쟁경험을 깊이 연구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등급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민군대 자체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일뿐아니라 수많은 군사간부들을 길러냄으로써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정규무력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게 한다.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이 현대적군사기술과 결합될 때에는 참말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오늘 세계에서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은 비상히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현대전에는 더많은 최신무기와 군사기재들이 동원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발톱까지 무장한 원쑤들의 침략에 대비하여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지휘관들속에서 령군술과 지휘기능을 제고하며 군종, 병종들의 전문훈련과 협동훈련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여 전체 인민군군인들이 최신무기를 능숙히 다루며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충분히 소유한 일당백의 군대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산이 많고 해안선이 긴 우리 나라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경험이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를 범하게 되면 국방에서 심중한 손실을 끼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입해야 하며 현대적무기와 함께 재래식무기를 옳게 배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농적위대는 자기의 정치사상적준비와 전투준비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전투훈련과 경비근무를 가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로농적위대 각급 지휘성원들의 지휘능력을 제고하며 대원들의 사격훈련과 전술훈련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

하다.

전투훈련은 지방의 지대적특성과 현대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농적위대는 일단 유사시 인민군대와의 협동하에 또는 자립적으로 자기향토에 침범한 적들을 일격에 격파소멸하는 섬멸전에 떨쳐나설수 있다.

오늘 전쟁경험을 연구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우리 모두가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경험, 그리고 형제적인민들의 혁명전쟁과 민족해방전쟁의 경험들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기 위하여 꾸준히 힘써야 할것이다.

전쟁경험을 보다 풍부히 그리고 심오히 체득하면 할수록 우리는 유사시에 그것을 살려 더욱더 힘있게 적을 타격하고 완전히 소멸할수 있다.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는 사업에 더욱 완벽을 기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적들은 대량살륙무기와 항공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전쟁모험을 감행하려고 계속 날뛰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전령토의 많은 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지형조건에서, 더우기 우리가 전국을 반항공, 반원자, 반화학 방어체계를 갖춘 요새로 전변시키고있는 조건에서 적들이 《하느님》같이 믿고있는 원자탄과 그 어떤 신형무기를 휘두르며 덤벼들더라도 그것은 승산없는 불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적들이 우리 힘을 두려워하는것도 바로 우리가 전체 인민을 무장시켰을뿐아니라 전국을 요새로 전변시키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나라를 요새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산봉우리들을 1,211고지로 만들어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여주지 말며 모든 산골짜기를 《함정골》로 전변시켜 침범하는 적들을 한놈도 살려서 돌려보내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들 앞에 나서는 중요과업은 일단 유사시에 전체 경제를 군사에 복무할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추는 문제이다.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우월한 사회주의경제제도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거하여 전시경제동원준비를 계획적으로, 전망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전시경제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군수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술과 원료로써 국방에 필요한 모든 무기와 기자재들을 더욱 원만히 생산할수 있도록 군수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확충하며 이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수준을 일층 제고시켜야 한다.

국방의 요구를 타산하면서 나라의 생산배치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생산의 배치는 정치경제적요구와 군사적 타산에 기초하여 생산력발전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적의 타격으로부터 나라의 경제력을 보호하며 전쟁수요보장에서 적시성과 기동성을 기할수 있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중공업과 경공업 그리고 농촌경리와 철도, 자동차운수의 전반적분야에서 전시수요에 적응한 동원을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비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전략적예비물자는 물론이고 매개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과 가정들에 이르기까지 더욱 많은 예비들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들은 앞으로 있을수 있는 적들의 침략도발에 대처하여 모든것을 미리부터 갖추어놓음으로써만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방침을 더욱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일층 강화할수 있다.

* *

오늘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있으며 가일층 긴장해지고있다.

미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떠보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승리는 조국통일의 위업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일떠선 조선인민의 것이다.

조선인민은 항상 적들의 불장난에 대해서는 불로 다스려야 한다는 혁명적인 립장에 확고부동하게 서고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조선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기때문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켰으며 전국을 불패의 요새로 전변시켰다.

우리의 힘은 비할바 없이 장성되였으며 강화되였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 우리의 무장력도 어제날에 비할바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현명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으며 당중앙위원회와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으며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다.

우리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와 그 추종국가군대들을 타승하고 침략자들을 굴복시킨 고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며 남조선인민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만약 이제 다시 미제가 조선에서 분별없는 불장난을 일삼는다면 그들의 이마빼기는 두동강이 날것이며 적들은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불길속에서 타죽고 말것이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은 불피코 멸망할것이며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남조선의 현정세와 남조선혁명에 대한 당의 기본방침

김 정 숙

최근에 있은 우리 당대표자회는 현시기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축적하고 혁명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방침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현남조선정세의 중요특징, 남조선에서의 미제식민지통치의 위기의 표징,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투쟁대상 및 과업, 현계단에 있어서의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축적의 내용과 중요방도, 남조선인민들속에서의 정치사상사업의 기본방향,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남조선의 혁명적당조직과 인민들의 투쟁과업을 전면적으로 천명하고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과학적으로 예견하였다.

남조선혁명의 근본적문제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적분석은 맑스—레닌주의전략과 전술을 남조선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것이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체당원들과 인민들 그리고 남조선혁명가들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다.

그러므로 당대표자회에서 제시된 남조선정세에 대한 평가와 남조선혁명에 대한 당의 기본방침을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남조선혁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 *

김일성동지는 보고에서 남조선의 현정치정세의 기본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의 징조와 그 표징을 심오하게 해명하였다.

오늘 남조선혁명은 원쑤들의 반혁명적폭압하에서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으나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는 반혁명에 불리하게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남조선의 현정치정세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남조선정세의 중요특징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새로운 더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고있는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6페지).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기지화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강점하고 아세아를 거머쥐려는 침략정책을 실시하여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남조선에 커다란 군사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는가 하는것은 태평양주둔 미륙군의 약 절반을 남조선에 배치하고 60여만에 달하는 방대한 괴뢰군을 유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아세아에 대한 《원조》총액의 40%를 남조선에 밀어넣고 그 80%이상을 침략전쟁준비를 위한 군사장비의 공

급과 괴뢰군유지비에 돌리고있는데서도 알수 있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의 강화는 《세계제패》를 위한 그들의 전략적요구와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미제는 사회주의진영국가들 그중에서도 분렬되여있는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격파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서 뒤흔들리고있는 식민지지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정책에 매여달리고있다.

미제는 아세아침략에 힘을 집중하면서 우선 윁남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윁남침략과 그를 반대하는 윁남인민의 투쟁은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의 투쟁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윁남침략전쟁에서 부닥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아세아의 괴뢰들을 그러모아 침략적군사동맹을 조작하는데 남조선괴뢰들을 끌어넣고있으며 남조선을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에 본격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미제의 지시에 따라 박정희도당은 어느 괴뢰들보다도 많은 5만의 병력을 남부윁남전쟁터에 밀어넣고있다.

윁남침략전쟁의 《진흙탕》속에서 허덕이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군을 윁남전선에 인입하는데 머물지 않고 또하나의 전선을 조선에 펴놓으려하고있다.

남조선에 제2전선을 형성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은 아세아에서의 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전략의 일환으로 된다.

남조선과 윁남을 통일된 침략전선의 두 익으로 간주하고있는 미제는 남조선에서 엄청난 수효의 괴뢰군병력을 유지하면서도 그를 더욱 증강하며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미제는 괴뢰군을 각종 유도무기로 장비하고 5만명에 달하는 3개의 정규사단과 2개의 전투비행단을 신설하고 괴뢰해군을 새로 증강하였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거듭 침략적도발사건을 일으키고 후방에서는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면서 전시동원체계를 수립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하며 군사적의의를 가진 철도, 도로, 항만, 통신시설을 확장하는데 몰두하고있으며 인민생활의 파탄에는 아랑곳없이 군사비를 대폭 증가하고있다.

《군사정변》후 남조선괴뢰정부의 군사비지출액은 그 이전의 2배이상이나 되는 480억원에 달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전쟁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직접적산물이다. 오늘 미제와 괴뢰도당의 파쑈화정책이 추구하는 주되는 목적은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실현에서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밑에 그들은 각종 파쑈악법을 조작하고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의 강화는 그들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이번 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정책은 남조선에서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다.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였다는 그 자체가 벌써 미제와 그 주구들이 총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뒤흔들리고있다

는것을 말하여준다》(우와 같은 문헌, 91페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는 그들의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과 전쟁정책의 파탄, 미국자체내의 정치경제적위기의 심화, 제국주의렬강간의 격화되는 모순과 핵전략의 파산 등에 의하여 더욱더 심화되고있다.

미제의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전쟁정책의 파탄은 웰남전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강도적전쟁에 근 40만의 병력을 투입하고 매월 20억딸라이상의 막대한 군사비를 소비하면서도 이 전쟁에서 아무런 승리의 전망도 가지고있지 못할뿐만아니라 더욱 솟아날수 없는 심연속에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는 웰남전쟁에서의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예비병력을 동원하고 구라파주둔 미군과 극동지역에 있는 그의 병력까지 끌어가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웰남침략전쟁에서의 파국은 불가피하게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으며 20년이상이나 계속된 강압적지배에 위기를 조성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는 전쟁정책, 군사기지화정책과 관련하여 조성된 경제의 전면적파국에서 나타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개발》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경제적잠재력을 군사적목적에 동원하기 위하여 내세운 《5개년계획》은 완전히 실패되고 민족경제의 심각한 파산은 더욱 촉진되고있다. 괴뢰정권이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지폐를 람발한 결과 통화량은 년초보다 150억원이나 증대되였다.

경제적파국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현재 남조선로동자들의 명목임금은 최저생계비의 30%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의 빈고농들은 이보다 더어려운 처지에 있다. 남조선에서의 실업자 및 반실업자수는 여전히 늘어나고있다.

농촌에서는 해마다 120만호이상의 절량농가와 6만호이상의 리농가들이 나타나고있다. 도시빈민, 소시민계층도 생활의 위협속에서 시달리고있다.

이렇게 하여 군사파쑈정권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으로부터 더욱 고립되여가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전쟁정책에 따르는 무거운 군사비부담과 파쑈적폭압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빈궁과 무권리는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인민들의 격분은 일제의 재침과 웰남파병과 관련하여 더욱 커가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는 밑으로부터의 인민대중의 진출에 의하여 촉진되고있다. 미제와 군사정권의 파쑈적폭압하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점차 강화되고있으며 투쟁과정에서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은 더욱 각성되며 단련되고있다.

이것은 로동운동의 장성에서 나타나고있는바 금년도(9월말 현재) 투쟁에 참가한 로동자수는 작년 1년간의 1.5배가 넘는 46만여명에 달하고있다. 로동자들은 체불임금의 지불, 임금인상, 해고반대, 로동조건의 개선 등 경제적요구로부터 8시간로동제의 실시, 로조활동의 자유, 파쑈적폭압반대 등의 정치적요구를 제기하고있으며 쟁의와 파업 그리고 폭력적투쟁에로까지 나아가고있다.

농민들의 투쟁참가자수도 1.7배나 되는 12만여명에 달하고있다. 농민들은 봉건적착취를 반대하면서 투쟁의 예봉을 괴뢰정권의 수탈을 반대하는데로 돌리고있다. 이것은 농민투쟁건수의 80%이상이 괴뢰정권과 괴뢰단체들의 가혹

한 수탈을 반대하여 진출한데서 나타나고있다.

파쑈적탄압속에서 시련을 이겨낸 남조선학생들의 투쟁도 새로운 추세를 띠면서 발전하고있으며 그들은 군사정권과 매판세력의 타도를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의 사회계와 각성된 인민들속에서는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경제적자립과 정치적자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지향이 강화되고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파멸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을 강화할수록 인민대중의 강력한 반항과 진출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따라서 식민지통치의 붕괴과정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인민대중의 진출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위기와 함께 괴뢰지배층의 내부모순과 정치적혼란의 격화에 의한 《우로부터》의 위기가 결합되여 더욱 수습하기 어려운 처지에 떨어져가고있다.

괴뢰정권은 류례없는 파쑈테로폭압에 매여달리면서도 정치적안정을 얻지 못하고있다. 현재 집권당에 대립한 정치적반대세력은 《한일협정》, 윁남파병 및 군사정권의 만성적부정부패를 비난하면서 집권세력에게 《정권》에서 물러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미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는 남조선의 식민지제도를 구출할수 없게 되였다는것과 식민지통치의 붕괴를 결정지을 혁명정세가 조성되여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가 강화되고 혁명정세가 조성되여가고있는 사태는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혁명운동을 더욱 촉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남조선에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다》 (우와 같은 문헌, 92페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기본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의 대상이 규정된다.

남조선혁명의 주되는 대상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이다.

미제침략자를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분쇄하는것은 남조선혁명의 선차적요구이며 그것은 또한 남조선혁명의 전략적과업이다.

남조선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과업의 승리를 위해서는 미제와 공모하여 남조선에 대한 공개적침략의 길에 들어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물리쳐야 한다.

미제는 아세아침략에서 조성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돌격대로 내세우고있다. 남조선은 미일제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될 위협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세력은 남조선혁명의 중요한 투쟁대상으로 되며 일제의 재침기도를 분쇄하는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된다.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미일제국주의침략세력에 추종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여야 한다.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집단인 괴뢰정권은 미제식민지통치를 가리는 위장물이며 미제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이며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의 길잡이로 복무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미일침략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와 결탁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여야 한다.

*　　*

미일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타도하며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세력을 분쇄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결국 혁명력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 현시기 남조선에서 적들의 파쑈폭압과 공세가 강화되고있는 조건하에서 객관적정세발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남조선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근본적문제로 제기된다. 혁명력량을 축적하고 장성발전시켜야만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으며 적들의 강화되는 반혁명공세에도 대처할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혁명력량의 축적과 강화발전은 현시기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으로 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우와 같은 문헌, 97페지).

혁명력량준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것이다.

혁명의 주력군을 꾸린다는것은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기본계급 즉 로동자, 농민들을 당주위에 묶어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혁명력량을 준비하고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것은 전투적이고도 단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의 건설을 촉진하는것이다.

로동자, 농민들과 진보적인테리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적령도가 없이는 혁명력량의 장성도 혁명운동의 성과적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지난시기 남조선에서 여러차례 유리한 정세가 도래하였으나 인민대중을 결정적승리에로 이끌지 못한것은 혁명적당의 통일적지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였다.

혁명적당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지도핵심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혁명적지도핵심의 형성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일반적원칙으로 될뿐만아니라 군사파쑈테로가 지배하는 남조선의 조건에서 통일적당건설을 촉진하는 중심적과업으로 된다. 어떠한 정황하에서도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적원칙에 의거하여 운동을 능숙히 지도할수 있는 준비된 혁명가들—당조직의 지도적골간이 없이는 당을 창건할수 없고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할수 없다.

남조선의 당조직이 견결한 혁명투사들의 조직으로 꾸려질 때만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며 반혁명적폭력을 격파할수 있는 강대한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과거 남조선에 맑스—레닌주의지도핵심이 없었고 간첩종파분자들이 당지도부에 기여들었기때문에 남조선의 당조직은 참다운 혁명조직으로 될수 없었고 전면적으로 파괴당하지 않을수 없었다.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한 지도핵심이 튼튼히 꾸려지기만 하면 적들의 파쑈적폭압하에서도 당조직력량을 부단히 확

대발전시킬수 있으며 대사변을 영접할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는 어떠한 시련과 풍파속에서도 혁명의 지조를 지킬수 있는 우수한 혁명가들을 지도적골간으로 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건설을 더욱 촉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기 위해서는 당건설을 촉진함과 함께 로동자, 농민들을 군중조직에 묶어세워 그들을 당주위에 집결시켜야 한다.

이로부터 당대표자회는 남조선에서의 대중조직은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진정으로 계급적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원칙상 합법적조직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파쑈적폭압이 지배하고 근로계급의 민주주의적대중조직창설의 가능성이 심히 저애되고있는 현조건을 고려하여 대중조직을 합법과 비합법을 결합시키는 기초우에서 창설할데 대한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남조선혁명력량을 준비하고 확대강화하는데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대중자신의 사업으로서 혁명의 승패는 누가 대중을 더많이 쟁취하는가에 달려있다.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각계각층의 군중을 총동원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강화함으로써만 혁명적당의 대중적지반을 창설할수 있으며 반혁명세력을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할수 있다.

과거 남조선에서 간첩종파도당은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진 모든 계급계층을 쟁취하여 그들과 통일전선을 맺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외곡하고 좌우경적해독행위를 하였기때문에 남조선혁명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유리한 정세를 제대로 리용할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전후에 박헌영도당이 끼친 여독을 뿌리뽑고 애국적민주력량을 결속하는데 힘을 돌려왔다. 오늘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투쟁대렬은 날로 확대되고있으며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첨예화되고있는 정세하에서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을 지지하는 애국적 민주력량을 총동원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이 조성되고있다.

당대표자회는 이러한 제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과업을 명시하였다.

남조선에서의 반미구국 통일전선은 반제반봉건적민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애국적민주력량의 통일전선으로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그의 사회정치적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당대표자회는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에서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이룩하는 당의 방침을 견지할것과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에로 발전시키며 부분적련합을 전면적련합에로 발전시킬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남조선에서 형성되는 통일전선은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당면하게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적 탄압, 월남파병과 《한일조약》을 반대하

며 가장 광범한 계층들을 결속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당대표자회가 규정한 이러한 방침은 반제애국력량의 공동투쟁에서 전략적과업과 전술적과업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에서 그의 사회정치적기초로 되는 로농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인테리들의 련합을 형성하는것은 현시기 남조선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이러한 공동련합의 실현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로동자, 농민의 역할과 함께 남조선에서 청년학생, 인테리들의 선도적, 교량적 역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한것으로서 당면한 통일전선의 형성과 군중투쟁의 확대발전, 남조선혁명의 금후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식민지의 청년학생, 인테리로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적억압과 차별대우를 직접 받고있기때문에 민족적감정과 혁명성을 가지고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은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고 민족적각성이 빠르며 따라서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 그들은 오늘 현실적으로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력량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운동 특히 4.19와 6.3인민봉기,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청년학생들의 영웅적기개가 실증하여주고있다.

당대표자회는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결정적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하는데서 《국군》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을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지나온 남조선의 혁명경험이 보여주듯이 군대를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혁명력량을 성과적으로 준비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력량축적에서 《국군》전취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오늘 남조선에는 60여만의 청장년들이 강제징집되여 《국군》에 복무하고있다. 그들은 미제식민지통치의 도구로 리용되고있으며 자기인민과 민족을 반대하여 총을 겨눌것을 강요당하고있을뿐만아니라 고용군대로서 웰남침략전쟁에까지 끌려가고있다.

《국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혁명의 편에 합류시키는것은 반혁명력량을 와해하고 혁명을 무장시키는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의 절대다수(90%이상)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출신이다. 그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킨다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영향으로부터 떼여낼수 있으며 결정적시기에 혁명의 편에 합류시킬수 있다.

사실상 오늘 《국군》병사대중과 중하층장교들속에서는 웰남파병과 미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기세가 점차 높아가고있다. 괴뢰정권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국군》병사들속에서는 금년 1년간에 약 2만명의 《도망병》이 나타났으며 남조선에는 현재 19만명이 넘는 징병기피자들이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부터 당대표자회는 《국군》병사들과 장교들이 미제침략에 복무하는 식민지고용군대의 치욕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 인민과 민족의 편에 돌아서도록 하는데 남조선혁명조직과 혁명가들 그리고 전체 인민들이 심중한 관심을 돌릴것을 강조하였다.

혁명력량을 축적하고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대표자회보고에서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반혁명을 고립시키며 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 모든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이다.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우와 같은 문헌, 102~103페지).

혁명운동은 대중의 의식성과 자각성을 전제로 하며 대중자체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될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원쑤들의 반동적사상공세가 더욱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속에서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높이는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사상적각성정도와 의식상태는 혁명정세의 급속한 발전에 비하여 아직 전반적으로 낮은 형편에 있다. 적지 않은 인민들이 아직도 자기가 처하고있는 빈궁과 무권리의 진정한 근원을 잘 모르고있으며 그로부터 벗어나는 출로를 깨닫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정체와 식민주의적통치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데로부터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국가》로, 괴뢰정권을 《자주정권》으로, 괴뢰군대를 《민족군대》로, 미국을 《원조자》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공동방위》를 위한것으로 생각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식민주의통치의 교활성과 승미 《반공》사상선전의 공세와 중요하게 관련된다.

정세발전과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간에 조성된 간격을 메우며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인민대중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정력적으로 강화하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미국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사상을 극복하고 《반공》사상을 뿌리뽑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을 폭로하고 그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과 남조선사회의 신식민주의적성격을 발가놓아야 한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주체의식을 높이며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의 사상을 선전하며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조선인민의 애국적민족전통을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상선전교양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의 맑스—레닌주의원리선전과 북반부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는 사업과 결합되여야 한다. 남조선의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이 북반부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할 때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접수하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된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고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혁명력량의 준비없이는 혁명적대사변을 영접할수 없으며, 대중적혁명운동을 발전시킴이 없이는 혁명력량을 축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혁명력량의 준비와 대중운동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하는것이다》

(우와 같은 문헌, 97페지).

남조선에서의 혁명적당의 건설도 민주주의적군중조직의 창설도 광범한 대중적기초를 가진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도 기본계급의 정치사상적각성도 오직 대중적투쟁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촉진될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투쟁은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며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단련시키며 혁명을 전진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그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혁명력량을 꾸리며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하고 대중운동을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적원칙에의하여 정확히 지도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함이 없이 모험주의적투쟁방법에 매여달린다면 혁명력량축적에 엄중한 손실을 주게 될것이며 혁명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과거 남조선에서 박헌영간첩종파도당이 당원들과 인민들을 무모한 투쟁에 내몲으로써 혁명력량을 파괴하고 혁명적대사변에 대처할수 없게 한 범죄적책동이 증시하여주고있다.

그와 반면에 남조선에서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혁명력량을 준비할수도 없고 혁명도상에서 부닥치는 어려운 고비를 타개할수도 없게 된다.

이로부터 김일성동지는 남조선의 혁명조직과 인민들이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 말고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켜나아갈데 대하여 제시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군중투쟁지도방침은 과거 남조선혁명의 경험과 교훈,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좌우경기회주의가 끼치고있는 악영향과 후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우에서 맑스—레닌주의투쟁전술을 남조선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작성한것이다.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남조선의 사회정치생활을 민주화하는것은 혁명력량을 성과적으로 축적하는데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이로부터 당대표자회는 남조선혁명이 처해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분석하고 남조선혁명력량을 성과적으로 축적하며 혁명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할데 대한 과업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였다: 《현시기 외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당면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94페지).

미제와 괴뢰도당의 군사파쑈폭압을 저지시키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취하여야만 혁명력량축적과 혁명투쟁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다.

군사파쑈폭압의 저지,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의 전취가 곧 인민들을 곤궁과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수는 없다.

모든 혁명투쟁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인민들은 자기 수중에 정권을 틀어쥘때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의 쟁취는 인민들의 력량을 단결시키고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며 진

정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도 바로 정치적자유의 쟁취는 혁명력량을 축적하고 남조선혁명을 촉진시키는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파쑈적탄압을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파업의 자유와 민주주의적정당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야 하며 생존의 권리와 생활개선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 *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혁명력량과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중요구성부분인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이다.

조국통일을 실현함으로써만 민족분렬과 국토량단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시급히 제거할수 있으며 남조선의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민족의 번영을 촉진시킬수 있다.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 전도는 복잡하고 간고하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도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남조선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을수는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외롭지 않으며 그들은 북반부에 창설된 강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하면 북조선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정확한 혁명로선과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추세에 따라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가들의 대렬은 부단히 확대강화되고있으며 혁명운동은 계속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의 지배가 뒤집힐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있으며 혁명의 결정적시기는 다가오고있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북반부인민들의 강력한 지원밑에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쟁취할것이며 남북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현존경제토대의 합리적리용은 현시기 우리나라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방향

김 하 광, 김 재 봉

얼마전에 있은 우리 당대표자회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적로선을 천명하면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의 질을 높일데 대한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이미 창설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며 모든 분야에서 생산품과 건설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우리 당은 전후시기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급속히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경제의 기간적부문과 골간을 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장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대규모건설을 진행해나가는 방침을 실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은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여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귀중한 경험이 축적되였다.

이미 창설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의 방침은 지난기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달성된 거대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고있으며 있는 밑천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적극 추진시켜야 할 현실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이미 축성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이로부터 인민경제 각 부문의 중심과업들이 규정되고 있다.

이 방향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은 국방건설, 경제건설, 인민생활향상 등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중요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앞으로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위한 물질적조건들을 마련해나가는데 있어서 관건적인 고리로 된다.

현존경제토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할데 대한 현시기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와 생산잠재력에 의거하고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에 립각하고있다.

나라의 생산잠재력은 경제토대의 크기에 의존하며 경제발전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증대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과 전체 인민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창설되였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믿음직하게 마련되였다.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대규모발전소와 탄광, 광산, 야금공장들과 화학공장, 기계공장,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배치되여있다. 우리 나라 공업은 전후 1954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기간에 년평균 28.1%라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1944년에 비하여 15배, 1946년에 비하여서는 실로 42배로 장성하였다. 오늘 우리의 공업은 1949년의 년간공업생산량을 단 한달이면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공업의 규모가 비상히 커졌을뿐만아니라 그 부문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되였다.

1944년에 중공업생산액중에서 광석채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9%, 야금공업은 19.4%,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공업은 2.3%였는데 1965년에는 그것들이 각각 4.5%, 10.5%, 56.7%로 되였다. 특히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발전의 기초인 기계제작공업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함으로써 기계설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거의 자체로 충족시키고있다. 우리 당은 공업반전에서 연료, 동력기지를 계속 강화하면서 원료반제품생산으로부터 점차 완제가공품생산에로 넘어갔으며 자체의 원료기지와 가공기지를 가지고 자립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중공업의 토대를 축성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믿음직한 경공업기지를 꾸려놓았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짧은 기간내에 급속히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농촌경리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였으며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우리 나라의 논면적은 1960년의 51만정보로부터 1965년에는 65만 4,000여정보로 늘어났으며 뜨락또르대수는 협동농장당 평균 5대씩 차례지게 되였고 1965년말 현재 우리 나라 전체 농촌리의 96%, 농가호수의 81.3%에 전기가 들어갔다. 지난 5년동안에 정시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1.8배로, 농약공급량은 1.7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 축성되여있는 경제토대와 그 잠재력은 생산장성을 위한 거대한 가능성을 주고있다.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거대한 예비로 된다.

현존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은 우리 나라 경제반전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련의 사정들로 말미암아 제대로 발휘될수 없었으며 이것은 현시기 인민경제에서 예비동원을 위한 투쟁을 특히 절실한 문제로 만들고있다.

우리 공업은 남들이 수십년, 수백년 걸려서 진행한 공업건설의 과업을 불과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내에 추진시켜왔다.

전후시기 우리 앞에는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지며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하루속히 안정향상시켜야 할 방대한 과업들이 제기되였다. 그것도 우리는 극히 제한된 밑천을 가지고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이 모든 과업들을 수행하여야 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하에 온갖 난관과 곤난을 극복하면서 력사상 류례가 드문 빠른 속도로 나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자체의 튼튼한 경제토대를 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득이 일부 갖출것을 다 갖추지 못하고 넘어오지 않을수 없었으며 일부 미비한 점을 남겨두고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7개년계획수행의 지난년간 우리 인민경제의 전반적부문들에서는 이러한 미비한 점들이 적지 않게 보충완비되였으나 그것은 아직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 경제에는 이제 조금만 밑천을 들여 보충완비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 거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되는것은 이미 창설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그것이 생산과 건설에서 은을 나타내도록 하는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가 공을 들여 쌓아올린 위력한 경제토대가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것이며 방대한 생산잠재력이 현실적인 생산성과로 실현되여 인민경제와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또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밑

칙을 더 잘 마련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와 같이 현존경제토대에 내재하는 커다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력사적조건을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증대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사회주의건설을 급속히 추진시켜야 할 현시기 정세발전의 요구에 비추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미제가 침략과 전쟁확대에 미쳐날뛰고있는 현시기 조건하에서 어떠한 불의의 사태에도 준비있게 대처하며 도래할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과업이다.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 이것은 현시기 조성된 정세의 절실한 요구이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지며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뚜렷이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국방건설과 함께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장래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건설을 계속 진행하면서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들을 강구할것을 요구한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6차회의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를 1967년 4월 1일부터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국방건설에 더욱 큰 힘을 넣으면서도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계속 향상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뚜렷이 보여준것이다. 우리는 현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력량을 집중하면서 우리 경제의 장래발전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건설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나라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있는 밑천으로 생산을 최대한 장성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당면하게 국방건설을 추진시키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물질적가능성을 주로 현존경제토대의 효과적인 리용에서 찾아내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창설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장성을 보장하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실현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도로 된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 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현시기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은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을 적극 장성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칙적요구에도 부합되는것이다.

생산수단이 사회화되고 모든것이 계획적으로 운영되며 나라의 물적, 인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사회주의하에서 현존하는 경제적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것은 경제운영과 나라살림살이의 기본적문제의 하나로 된다. 소여의 경제토대를 가지고 얼마나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생산잠재력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이미 축성하여놓은 경제토대를 충분히 리용하지 못하면서 기본건설을 널어놓는다면 힘은 분산되고 예비는 사장되며 기본건설의 증대에 비하여 생산장성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저하될것이다. 그리하여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은 낮아지게 되며 생산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과업은 원만히 실현될수 없게 될것이다.

씨를 뿌린 밭을 알뜰히 가꾸어 응당한 수확을 거두면서 새 농토를 더 가꾸어나가는것이 옳은 농사방법인것처럼 있는 밑천을 잘 리용하면서 대규모기본건설을 배합해나가는것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옳은 길이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에서 새로운 기본건설에 매여달리며 건설을 널어놓는 편향을 경계하면서 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나라의 물적,인적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현존경제토대의 합리적리용과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제고는 우리 경제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하는데 있어서 큰 중요성을 가지는 과업으로 된다.

이미 축성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현시기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기본건설분야에서의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 경제관리운영을 더욱 개선하고 전인민경제적인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 잘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될수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사회주의경제운영의 원칙적요구를 더잘 구현하는 적극적투쟁으로 되는것이다.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현정세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담보로 된다.

이 방침은 현시기 경제발전에서 우리 인민경제의 구조와 균형을 더욱 개선하고 생산장성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여줌으로써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를 옳게 설정할수 있게 하며 축적과 소비를 다같이 장성시키는 기초우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을 계속 바로잡을수 있게 할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경제에서의 절약제도의 강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과업수행에 기여한다. 현존경제토대를 잘 리용할 때만이 우리는 각종 원자재들을 더욱 다양하게 그리고 규격별, 재질별로 보다 원만히 공급할수 있으며 기술공정들을 완비케 할수 있다. 이것은 다른 시책들과 함께 여러 생산부문들에서의 제품의 질제고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을 조성하여줄것이다.

현존경제토대의 효과적리용을 위한 시책들은 기본건설사업에서의 당방침의 관철과 함께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가일층의 추진에 이바지한다. 그것은 이미 창설된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보충완비하고 부차적인 부문들과 사소한것들에 이르기까지 정비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적자립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수 있게 할것이다.

이와 같이 현존경제토대의 효과적리용은 우리 나라 인민경제앞에 제기되고 있는 제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서 이 방침의 관철은 실로 거대한 정치, 경제적의의를 가진다.

* *

당대표자회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명백한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현존경제토대를 정비보강하며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더욱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존경제토대를 정비보강하는것은 우리 인민경제에서의 부문간, 부문내부 및 공정간 균형을 개선하여 생산능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할수 있게 하는 조건을 조성해준다. 생산의 정상화는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면서 현존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공업부문에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토대를 더욱 정비하고 생산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연료, 원료 생산부문과 가공부문간의 균형을 맞추며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설비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공업부문에서의 중심과업은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선행시키고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기술혁신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있다〉(우와 같은 문헌).

오늘 공업부문에서는 우선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선행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의 발전에 앞세우는것은 공업발전의 기본적인 요구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년간 우리 나라 인민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공업부문에서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가 비상히 증대되였다. 오늘 채취공업과 전력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우지 않고서는 가공공업을 비롯한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고 자기의 생산능력을 최대로 발휘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킬수 없다.

우리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림업의 발전에 력량을 집중하여 공업의 원료기지와 연료동력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위주로 하고 이에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배합하면서 대중소발전소건설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것이다.

채취공업에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이미 캐낸 광석, 석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림업부문에서는 순환식채벌을 도입하고 재재실수률을 높이며 채벌한 원목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가공공업을 비롯한 모든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인다는것은 무락된 공정이나 불비한 공정을 갖추어 공장을 온전하게 만들며 생산구조를 더욱 개선하여 균형이 맞고 조화가 잡힌 공업으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7개년계획의 첫해부터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분야에서는 미진된것이 많으며 할일이 적지 않다.

우리는 이미 건설하여놓은 공장들을 정비보강하여 자기의 생산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는 완비된 기업소로 만들어야 한다.

공업에 살을 붙이는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중소규모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꾸리는것이다.

중소규모공장의 건설은 국가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짧은 기간에 공업의 부족점을 보충하고 생산구조를 더욱 완성하며 공업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인민소비품 생산에서뿐아니라 화학, 기계제작공업 등 일련의 중공업부문들에서도 중소규모공장들을 많이 꾸리며 특히 전문화된 중소규모기계공장들을 대규모기계공장들과 배합하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공업생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설비관리사업을 개선하여 모든 부문에서 설비리용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우리는 부속품생산을 강화하고 수리기지를 꾸리며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확립하여 기계설비들이 언제나 정상적으로 움직이며 자기의 성능을 다 발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보적인 타산에 의하더라도 현존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새로운 기본건설을 하지 않고도 7개년계획에

예견된 공업총생산액장성의 80%를 보장할수 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도 토지와 관개시설, 농기계 등 이미 마련된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알곡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생산을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경지를 보호하고 잘 정리하며 토지를 적극 개량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토양실태조사사업을 계속 강화하여 토지의 합리적리용을 위한 과학적자료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미 건설된 저수지, 언제, 양수시설, 수로 등 관개시설들을 정비보강하여야 하며 많은 자금과 로력이 든 관개시설을 잘 관리하여 한방울의 물도 새여나가거나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존농기계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에 와서는 우리 나라 농촌경리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도구가 뜨락또르이며 농업생산의 성과는 뜨락또르를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오늘 경지단위면적당 뜨락또르보유대수는 높은 수준에 달하고있으나 그 리용률은 아직 낮은 상태에 있다.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또한 토양조건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확립하여 화학비료의 효능을 높이며 각종 농약을 잘 리용하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경제에서 생산의 정상화를 위하여서는 철도를 비롯한 운수부문에서도 현존물질기술적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철도운수의 긴장성을 풀며 날로 장성하는 수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존운수수단들과 시설들의 기술적장비를 더욱 강화하면서 그 리용률을 높이며 수송에서의 경제기술적지표들을 일층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기본건설부문에서 이미 있는 생산시설들의 보강완비를 위주로 하고 이에 우리 인민경제의 장래발전을 위한 가장 긴절한 건설을 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기본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현존경제토대의 효과적인 리용은 기술혁명을 더욱 촉진시키고 새 기술과 새로운 기술공정을 더욱 광범히 도입하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는 7개년계획에 예견된 과학기술발전과 기술혁명의 과제들을 적극 실현해나가며 특히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상의 모든 방도들은 현시기 우리 인민경제앞에 제기되고있는 과업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선차적으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들이며 계획화사업과 경제관리운영에서 중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과업들이다.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대안체계의 기본요구는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있다.

우리는 경제관리수준을 높이고 생산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법칙들에 엄격히 의거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화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로동행정사업 특히는 농촌로력문제를 해결하며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며 기업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위원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의 역할을 잘하며 분공된 사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통제를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경제사업과 당조직정치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짜고듦으로써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열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현시기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 동원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 경제관리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형식주의적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퇴치하며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식주의는 일을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하며 겉치레만 하고 실속이 없으며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겉만 핥고 돌아가는데서 나타난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정책과 의도를 똑똑히 알고 그에 의거하여 매사를 깊이 연구하며 사업조직에서 치밀하고 구체적이여야 한다. 형식주의의 근절은 우리의 경제사업이 더욱 복잡하고 째여진 오늘의 조건에서 인민경제내부에 숨어있는 예비들을 찾아내게 하며 경제관리운영수준을 한층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일군들은 현시기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고있는 과업들을 실행해나가는데 있어서 《섬멸전》의 방법을 능숙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일들을 벌려놓을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실속있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많은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제도를 더욱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설비, 로력 등에 대한 관리사업을 더 치밀히 하며 인민경제계획화에서 질적지표들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현존생산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경제관리운영수준의 제고와 나라살림살이의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당대표자회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정세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명시하였다.

우리는 당대표자회의 기본정신과 대표자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들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 수행할것인가에 대하여 머리를 쓰며 그 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장엄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우리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일층 제고되고 조직사업이 더욱 개선될 때 근로자들의 줄기찬 로력투쟁은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것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보람찬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축적과 소비의 균형적장성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최 중 국

당대표자회는 조성된 현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키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오늘 우리 앞에는 국방건설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의 경제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인민생활을 일층 향상시켜야 할 절박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이 과업의 실현에서 국민소득의 부단한 장성에 기초하여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해결하며 축적의 효과성을 백방으로 제고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1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은 인민경제계획화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균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것은 확대재생산의 속도와 인민생활향상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소여의 시기에 창조된 국민소득을 축적과 소비로 나눌 때 당면한 소비에만 치중하고 확대재생산을 위한 축적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축적에만 치중하고 당면한 소비를 소홀히 한다면 경제는 균형적으로 발전될수 없으며 결국은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도, 인민생활의 부단한 향상도 실현될수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를 항상 정확하게 규정하는것은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와 인민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잘 리용하여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를 적합하게 해결하였으며 극히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4차당대회가 제시한 7개년계획을 실현하여온 지난 5년간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생활도 부단히 향상되였다. 국민소득은 1960년에 비하여 1965년에는 1.6배로, 공업총생산액은 같은 기간에 1.95배로 장성되였으며 년평균 14.3%의 높은 속도로 장성되였다.

사회주의하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의 성격은 자본주의하에서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된 사회주의하에서는 축적과 소비간에 적대적모순이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의 성격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축적과 소비의 호상관계가 어느 때나 전체 사회와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당면한 소비에 더많이 돌려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래의 소비에 더많이 돌려지는가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축적과 소비는 다같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돌려지는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의 성격은 자본주의제도의 본질과 이 사회의 발전과정을 규제하는 기본경제법칙 그리고 자본축적의 일반적법칙에 의하여 규정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의 근본적차이는 축적 및 소비의 성격에서의 본질적인 차이를 규정하며 동시에 그 호상관계의 변화의 성격, 방향도 규제한다.

자본주의하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의 변화의 성격은 착취자들과 피착취자들간의 적대적모순관계의 가일층의 심화로써 특징지어진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착취자들 특히 독점자본가들에게는 최대한의 리윤이 차례지는 반면에 근로자들에게는 로동력의 가치이하의 몫이 차례지며 근로자들의 절대적 및 상대적빈궁화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자본주의하에서는 착취률이 부단히 제고되는 반면에 자본주의의 부패성과 기생성으로 하여 축적의 률은 낮아진다.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점차 고도화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빈궁과 실업은 증대된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는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전체 사회와 인민의 리익에 더욱더 유리하게 변화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수준, 생산관계의 성숙정도, 인민생활의 수준, 내외의 정세, 소여의 시기에 당이 제시한 정치경제적과업에 따라 변할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하에서 축적과 소비간에 일시적이며 상용적인 모순이 있다. 소여의 시기에 창조된 국민소득중에서 확대재생산을 위한 축적의 몫의 상대적인 제고는 당면한 소비의 몫을 저하시키며 반대로 당면한 소비의 몫의 제고는 축적의 몫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렇기때문에 이 량자중 어느 한쪽만이 오래동안 중시되고 다른쪽이 경시된다면 그것은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축적과 소비간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사회주의하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은 그것이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당면한 소비를 통해서나 미래의 소비를 통해서나 항상 전체 사회와 인민의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는 창조된 국민소득이 축적과 소비에로 어떠한 비례로 나누어지든지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모두 전체 사회와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의 해결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리용할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는 아직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의 정확한 설정과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는 혁명과 건설의 매 력사적단계와 시기들에 제기되는 구체적인 과업과 현실적조건들에 근거하여 정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소여의 시기에 축적과 소비와의 호상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당의 정책이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와 조건하에서도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규정하였을뿐만아니라 량자의 적합한 호상관계의 조성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축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왔다. 특히 전쟁에 의하여 물질적생산의 모든 부문들이 혹심하게 파괴되고 인민생활이 극히 어려웠던 조건하에서 경제건설도 하고 국방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켜야 할 어려운 조건하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김일성동지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후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였다.

이 로선의 중요한 본질적측면의 하나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축적과 소비, 확대재생산과 당면한 인민생활간의 호상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

당이 제시한 이 로선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의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경제건설로선은 확대재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로 되면서 동시에 투자용량이 큰 중공업부문들의 우선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투자용량이 비교적 적으며 투자의 상환기간도 빠른 경공업부문들과 그리고 농업부문들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인민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발전 특히 기술적진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문 즉 기계제작공업, 전력공업, 화학공업, 금속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의 기술적재건과 재무장과정을 촉진시키며 로동생산능률의 부단한 장성을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물질—기술적조건을 조성할수 있게 하였다. 부단한 기술적진보와 기술혁신에 기초한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은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축적의 체계적인 장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으며 축적과 소비간에 더욱 유리한 균형을 조성할수 있게 하였다.

당의 경제건설로선의 관철은 축적실현의 실제적인 물질—기술적조건을 조성하였다. 축적을 실제적인 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순생산물의 현물소재적형태가 그에 상응하여야 한다. 축적의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생산수단과 소비재의 현물형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확대재생산은 실현될수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수단생산의 각이한 부문들과 소비재생산부문들의 호상 조화적인 발전은 축적과 소비의 실현을 위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또한 축적의 효과성을 백방으로 제고함으로써 축적과 소비간에 적합한 균형을 유지하며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켰다.

축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투자의 선후차와 중심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주어진 자재, 자금, 로력으로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동시에 인민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매시기와 단계마다 투자의 방향과 선후차 및 중심을 정확히 규정하였다.

특히 신설에 비한 복구와 개건의 경제적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신설에 비하여 복구와 개건을 앞세우며 이에 신설을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리하여 넉넉치 못한 자금을 가지고도 짧은 시일에 인민경제를 전반적으로 발전시켰다.

동시에 우리 당은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건설에서 집중화의 원칙을 견지하며 건설을 공업화하여 기본건설의 속도를 급속히 제고하도록 하였다. 기본건설에서 전례없는 천리마속도의 창조는 건설원가를 저하시키며 투자의 상환기간을 단축시키게 하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 생산시설들을 단시일내에 건설함으로써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비할바 없이 강화하였다.

이것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창조의 원천을 확대하고 나라의 축적의 밑천을 더욱 튼튼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규정하고 축적의 효과적리용에 커다란 주목을 돌렸을뿐만아니라 축적과 소비간의 적합한 균형의 유지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부단히 조성하는데 특별히 관심하였다.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것은 경제건설에서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경제적예비와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동원, 리용한것이다.

이러한 예비동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생산자대중을 발동시켜 생산능력리용과 물자원단위소비기준저하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고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더욱 제고한것이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1956년 12월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대중

적인 《증산과 절약》투쟁의 전국적범위에서의 전개는 특별한 의의를 가지였다. 《증산과 절약》투쟁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잠재하고있던 예비와 잠재력들을 적극 동원리용할수 있게 하였으며 나라에 조성되였던 자금, 자재의 긴장성을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경제의 비상히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였으며 5개년계획기간 축적과 소비간에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한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현대식방법과 재래식방법의 병진정책의 관철과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은 경제발전에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였다. 특히 소비재생산부문에서의 이 정책의 관철은 국가의 큰 투자없이 혹은 거의 투자없이 지방의 유휴자재, 설비 및 로력을 동원하여 단시일내에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케 하였으며 소비재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리하여 축적과 소비간에는 더욱 유리한 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였으며 경제의 장성속도와 인민생활향상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매시기와 단계마다 자기의 정확한 정책과 세련된 령도로 하여 축적과 소비간에 정확한 균형을 유지케 하였으며 축적과 소비를 다같이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게 하였다.

2

현시기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의 정확한 해결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확고히 관철시키는 원칙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해결할 과업과 관련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특히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일층 악랄해진 정세하에서 국방건설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며 우리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방어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것이다. 이것은 군수공업과 방어공사에 더많은 자재, 자금, 로력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국방건설을 강화하면서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키며 특히 4차당대회가 제시한 7개년계획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7개년계획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나라의 공업화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며 인민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할것이다. 그러므로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7개년계획의 남은 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야 하며 기본건설, 공업, 교통운수 부문들에서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실행의 기본방도는 현존생산능력들을 가장 완전하게 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것과 함께 이것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적토대를 일층 강화하며 생산구조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일련의 기본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것이다.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부단히 강화하는것은 확대재생산의 높은 장성속도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될뿐만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위력한 경제토대 없이는 현대적인 군수공업도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수 없다.

우선 기본건설과업을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

기본건설과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

지하는것은 동력공업부문의 기본건설과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실행하는것이다. 동력공업의 선차적발전이 없이는 나라의 부단한 기술적진보와 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으며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할수 없다. 전력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나라의 경제와 기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대표자회는 또한 계획기간에 채취공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대한 기본건설과업을 제시하였다. 광업, 연료공업, 림업 등 부문의 확고하고 급속한 발전이 없이는 가공공업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흑색 및 유색야금공업, 기계제작공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을뿐만아니라 기본건설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대규모적인 기본건설과 중소규모의 기본건설도 진행하며 현존 공장, 기업소들에 살을 붙이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중소규모의 발전소, 탄광, 광산, 공장들과 이미 있는 공장, 기업소의 생산, 기술공정상 부족점들을 퇴치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사업들이 예견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나 국방력을 강화하며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생산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대표자회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4차당대회의 과업을 계속 추진시킬것을 제시하였다.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소비재생산부문들을 더욱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더욱 장성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의 물질—문화적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 학교, 병원 등의 건설사업을 계속 힘차게 추진시킬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또한 대표자회에서는 과학과 기술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며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일층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있으며 그것이 생산력과 경제발전에서 노는 역할은 비할바없이 제고되였다. 발전된 과학과 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생산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대표자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경제과업들은 국민소득의 분배 즉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규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대표자회에서 제시된 국방건설을 강화하면서 생산적기본건설,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비생산건설, 우리 나라 력사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9년제의무교육의 실시 등은 거대한 규모의 축적을 요구한다.

축적의 규모는 국민소득의 수준과 축적의 률에 의존한다. 생산력과 국민소득이 일정한 속도로 장성되고 국민소득이 소여의 수준일 때 축적의 규모는 축적의 률에 의존하는바 만약 축적의 률을 제고한다면 소비의 률이 저하될것이며 따라서 당면한 인민생활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그러므로 현시기 축적과 소비간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 문제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국방건설, 생산적기본건설,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기본건설 등은 축적의 실현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들과 대상들에 대한 축적의 실현은 재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그것들의 위치와 역할의 차이로 하여 결과들이 같지 않다.

우선 축적폰드의 분배구성이 변화될것이다. 만약 비생산적축적의 몫이 일정할 때 국방건설에 돌려지는 몫의 증가는 생산적축적의 몫을 저하시킬것이며 따라서 생산적축적의 률은 저하될것이다.

생산적축적폰드의 부문별, 대상별 분배구성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예견된다. 대표자회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그것은 주로 동력공업, 채취공업, 흑색 및 유색야금공업, 화학공업 등 부문들의 생산적기본건설을 위하여 분배될

것이다.

이러한 부문들은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들에 비하여 투자용량이 크고 투자의 상환기간도 긴 부문들이다. 즉 이러한 부문들은 인민경제 각 부문들의 평균보다도 생산능력 단위당 투자용량이 크고 건설기간이 길며 총체적으로 큰 투자를 요구하는 부문들이다.

객관적조건에 의하여 제약된 생산적축적이 주로 투자용량이 큰 부문에 돌려져야 할 현실정에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축적의 효과성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는것이 명백하다.

3

현시기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를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축적의 효과성을 백방으로 제고하는것이다. 국방건설을 강화하면서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자면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설정할뿐만아니라 축적의 효과성을 백방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계속 향상시키면서 국방건설을 더욱 강화하는 조건하에서 생산적축적에 돌려지는 축적의 부분 즉 생산적축적률은 일정하게 제한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경제의 발전속도는 중요하게 생산적축적의 률과 수준에 의존한다. 우리는 객관적조건에 의하여 제약된 생산적축적을 가지고 기본건설을 진행하면서 공업을 급속히 장성시키는 동시에 농업, 건설, 운수 등 모든 인민경제 부문들을 계속 빠른속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과업들을 해결하려면 주어진 생산적축적을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생산적축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주어진 생산적축적폰드를 가지고서도 질이 더 높고 더많은 생산물을 생산할수 있다. 그러므로 현시기 축적의 효과성을 백방으로 제고하는것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및 인민생활향상의 과업들을 통일적으로 성과있게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축적의 효과성을 제고할수 있는 객관적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이미 창설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며 모든 분야에서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시종일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력을 다하여 왔다.

당의 정확한 정책과 우리 인민의 헌신적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꾸려졌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공고화되였다.

이미 마련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서 1차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생산적고정폰드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그 효률을 더욱 제고하는것이다. 즉 생산적고정폰드 단위당 생산물의 생산량을 더욱 증대시키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지난시기 경제를 급속히 건설, 발전시키는 행정에서 새로 건설하고 개건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생산설비들이 있다.

이러한 공장, 기업소들에는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고있는 생산적예비와 잠재력이 적지 않게 있으며 이러한 예비를 잘 동원리용한다면 우리는 추가적투자 없이도 생산을 더욱 증대시킬수 있다. 기계, 설비와 생산면적의 리용에서 더많은 사용가치와 가치가 생산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력갱생하여 마련한 나라의 경제적밑천으로 추가적투자 없이 더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으며 대표자회가 제시한 중요한 과업들을 해결할수 있다.

생산을 정상화하여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는데 있어서 물질적생산의 각이한 부문간, 부문내의 능력상, 기술공정상 균형을 바로 맞추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며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생산부문들의 생산능력을 장성시켜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우선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동력공업과 채취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가공공업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것은 기술혁명과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기술적진보를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을 계통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당 전력장비수준을 제고하여야 하며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와 기술발전의 장성된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동시에 채취공업 즉 석탄공업, 광업, 림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채취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없이는 연료에 대한 생산적 및 비생산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으며 흑색, 유색야금공업의 부단한 발전을 보장할수 없으며 목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다. 즉 채취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없이는 가공공업부문들의 기계, 설비들을 완전히 리용할수 없으며 생산의 정상화를 실현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높은 장성속도와 인민생활향상을 보장할수 없다.

축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제품의 질제고는 제품생산에 지출된 산로동과 체화된 로동의 절약을 의미한다.

생산수단생산부문에서 제품의 질제고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산된 생산수단의 질이 높으면 소여의 투자로써도 생산능력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다.

생산수단생산부문에서의 제품의 질제고는 사회적생산의 1부류에는 물론 소비재생산부문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소비재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의 질제고는 소비재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키며 더 견고하고 맵시 있고 쓸모있는 더 좋은 소비재를 종전보다 적은 지출로써 더많이 생산할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조성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제품의 질제고는 주어진 축적의 률을 유지하는 조건하에서도 축적을 증대시키며, 주어진 소비률을 유지하는 조건하에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일층 향상시킬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제품의 질제고는 축적과 소비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준다.

확대재생산을 위한 기본건설은 생산적축적의 실현과정이다.

생산적축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선후차와 중심을 정확히 규정하며 건설을 집중적으로 하며 신설과 개건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며 건설속도를 제고하며 건설물의 질을 제고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대표자회에서 제시된 과업에 따라 국방건설과 확대재생산을 위한 기본건설을 결합시키면서 주어진 투자로써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생산능력 단위당 투자용량이 큰 부문들 즉 전력, 연료, 금속공업 등 부문들의 생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과업들이 제기되고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기본건설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것은 긴절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주어진 투자로써 제기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행하자면 당이 이미 제시한, 건설에서 집중화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건설속도를 백방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설계에 기초하여 건설에서 기계화, 공업화, 조립화의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건설조립계획과 설비생산계획을 정확히 맞물리며 건설물의 질을 제고하여 조업기일을 단축하며 빨리 설계능력에 도달케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투자가 제때에 은을 내여 사회에 필요한 생산물을 생산, 제공케 하며 투자의 상환기간을 단축하며 건설원가를 저하시켜 생산적축적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본건설에서 신설과 개건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며 생산면적을 완전히 리용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우리는 투자

의 효과성제고에 있어서 신설에 비한 개건의 경제적효과성을 옳게 리용하며 아직 완전히 리용되지 않고있는 생산면적들을 완전히 리용함으로써 투자의 장성에 비하여 건설조립액의 장성속도가 더 빠르고 건설조립액의 장성에 비하여 설비의 장성속도가 더 빠르게 하여야 한다.

대규모적인 건설과 함께 중소규모의 발전소, 공장, 기업소의 건설은 축적의 효과성제고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적은 투자로써 빠른 시일내에 생산능력을 획득할수 있으며 투자의 상환기간도 단축시킬수 있게 한다. 그것은 축적의 효과성을 제고할뿐만아니라 국방력과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도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축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생산물의 폰드용량을 저하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투자용량이 큰 부문들의 발전은 생산물의 폰드용량을 제고시키는 경향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기계, 설비와 생산면적리용의 개선, 원단위물자소비기준의 저하 및 로동생산능률의 제고는 생산물의 폰드용량을 저하시킬수 있는 가능성도 조성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진보 및 투자용량이 큰 부문들의 발전에 따르는 생산물의 폰드용량의 제고경향을 전반적인 물질적생산부문들에서 생산적고정폰드리용의 효률의 부단한 제고, 물자의 원단위소비기준의 저하, 로동생산능률의 더욱 빠른 장성에 기초하여 상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광범한 기술혁신에 기초하여 공업의 각 부문들과 부문내에서 공정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 있는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생산능력을 더욱 잘 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군중적인 기술혁신에 기초하여 새기술, 선진기술공정들을 적극 도입하며 생산과 로동조직을 개선하여 로동생산능률을 체계적으로 장성시켜야 한다.

오늘 물질적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을 더욱 빠른 속도로 장성시키는것은 축적과 소비간에 적합한 호상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로동생산능률의 급속한 장성은 단위생산물생산에 지출된 로동량을 감소시키며 전사회적규모에서 로동을 절약한다. 즉 로동생산능률의 급속한 장성은 생산물의 급속한 증가를 보장하며 생산의 확대와 소비의 장성을 위한 가능성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오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로동생산능률을 빠른 속도로 장성시키는것은 대표자회가 제시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우리는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속도를 로동의 폰드장비의 장성속도보다 더 빨리 장성되게 하여야 한다.

* *

축적과 소비간의 정확한 균형의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화수준을 제고하며 경제관리를 일층 개선하는것이 필요하다.

당정책에 기초하여 축적과 소비를 정확히 계획화하는것은 국방력을 강화하며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 특히 경제발전의 속도와 사회적생산의 각이한 부류들과 부문들간의 균형, 계통적인 인민생활의 향상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동시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경제관리수준을 제고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적은 산로동과 체화로동의 지출로써 더 많은 사회적생산물과 국민소득을 창조하며 도처에서 원가를 저하시키며 절약투쟁을 전개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며 비생산적지출을 극력 축소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업실행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경제일군들의 당성을 제고하는것이다. 일군들은 당정책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을 견지하며 수립하며 사업방법과 작풍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 특히 모든 사업에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우며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더욱 적극 인입하며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을 원만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출판물의 전통

리 응 필

지금으로부터 30년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하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정치리론잡지 《3.1월간》을 창간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발전에서와 우리 나라 출판물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혁명적출판물—이것은 로동계급이 자본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새사회를 건설하는 혁명투쟁에서 자기의 수중에 장악된 강유력한 무기이다. 혁명투쟁에서 예리한 사상적무기인 정치기관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일관되고 전면적인 선전 및 선동의 계통적수행은 불가능하다…그것 없이는 정치적불만과 반항의 모든 요소를 집중하여, 그들로써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운동을 결실하게 하려는 우리의 임무는 절대로 수행될수가 없다》(레닌전집 5권 1분책, 11~13페지).

혁명적출판물은 대중속에 혁명사상을 전파하며 혁명의 핵심부대를 교양육성하며 그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집단적선전선동자이며 집단적조직자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1930년대에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며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광범히 결속하여 그들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함으로써 민족적독립과 계급적해방을 달성해야 할 력사적인 위업이 나서고있었다. 이 력사적인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혁명적출판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고 가르치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충실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제와의 간고한 투쟁의 첫시기부터 전투적인 혁명적출판선전활동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이것은 이미 1933년에 간도의 일제기관들에 압수당한 출판물 4만 4,913부중 90%가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을 령도한 동만지방에서 출판되였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실증된다(《동아》 1934년판 참조).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출판선전활동은 1930년대후반기부터 일층 활기를 띠였다. 이것은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나라 혁명적출판물발전의 필연적귀결이였다.

당시 항일무장투쟁은 더욱 광활한 지역에서 전개되였다.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을 위한 대중적학살만행이 계속되고 《집단부락》정책과 기타 형언할수 없는 탄압과 회유기만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였다. 인민대중은 더 참을수 없는 처지에서 분연 일어섰다. 이러한 사정은 일제애국적력량을 반일투쟁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출판선전활동과 함께 정기적인 정치기관지를 창간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1930년대전반기 출판선전활동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그 실현이 능히 가능하였다.

1936년 5월 동강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고 그 기관지로서 《3.1월간》을 발간할것을 결정하였다. 《3.1월간》첫호는 그

해 12월 1일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발간되였다.

《3.1월간》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정기적인 맑스—레닌주의적정치리론기관지로서 선행시기의 출판물과는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있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선진적출판물들이 발간되였다. 즉 10월혁명의 영향하에 로동자, 농민의 혁명운동이 급속히 장성하는 과정에서 《공제》, 《신생활》, 《조선지광》 등 계급적성격을 띤 선진적출판물들이 발간되여 맑스—레닌주의사상을 보급시키는데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출판물들은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하는데 그치였으며 로동자, 농민대중의 계급적요구를 구체적인 혁명투쟁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들은 로동자, 농민의 계급적리익의 대변자로 세상에 출현하고 자체 활동의 첫날부터 로동자, 농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실지 투쟁에 직접 복무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들은 또한 선행시기의 출판물들이 로동계급의 조직에 장악된 투쟁의 무기로 되지 못함으로써 인민대중과의 조직적련계가 없이 산만하게 발행되던 제약성을 극복하고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들고 혁명군중을 조직적으로 교양훈련하는 정기적출판물로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들은 선행시기의 출판물들에서 긍정적측면을 계승하고 그의 제약성과 본질적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강유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였다.

《3.1월간》은 그 창간사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독립전선에 직접 출진하는 유력한 무기》로서 세상에 출현하였다. 《3.1월간》은 그 발간초기부터 조선의 무산계급독재의 전투적기관지로서의 자체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을뿐만아니라 당시 국내외에서 발간되고있던 선진적출판물과 그후에 발간된 《서광》, 《화전민》, 《종소리》를 비롯한 모든 출판물들을 혁명화하고 그 전투적기치를 높이는 선도자로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들이 수행한 거대한 역할은 우선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는데 기여한것이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자기활동의 초시기부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통일된 당의 의의에 대하여 지적하고 로동자, 농민 등 기본군중속에 당건설에 관한 레닌적원칙과 당생활규범을 체계적으로 해설하며 종파분자들과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죄행과 그 본질을 폭로규탄하는데 크게 관심하였다. 이리하여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에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김일성동지의 론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해설하는 론설, 과거 반일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소개하는 론설들이 수다히 게재되여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3.1월간》에 게재된 《3.1 독립운동의 회고》, 《독립군의 실패원인》, 《광주학생사건의 교훈》 등 론설들에서는 그 운동의 실패원인이 《정치상 군사상 통일성이 없은데》있었다고 정확히 지적되였으며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의 파괴적, 분파주의적책동을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는것이 혁명승리의 기본담보로 된다는것이 강조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또한 자기의 보급망과 통신망을 통하여 당시 국내외 각지에 분산되여 활동하고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령도핵심의 주위에 결속시키는 조직자적기능도 훌륭히 수행하였다.

혁명적출판물은 또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확대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국광복의 성전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은 당시 각계각층군중을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힘있는자는 힘으로, 지식있는 자는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전민족이 총동원하여 반일광복전선에 참가하라!》는 《3.1월간》의 절절한 호소는 로동자, 농민뿐만아니라 청년학생, 지식인, 소시민들과 민족자본가, 량심적인 종교인들 지어 반일부대의 병사들과 적기관에 복무한 일부 사람들까지 반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에 일떠서게 하였다. 또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대한 해설론문들의 감화력은 완고한 민족주의자들도 선득시켜 유격대에 합류케 하였으며 천도교의 상급두령이 자기산하의 교인들을 설복하여 조국광복회에 망라시키게까지 하였다.

혁명적출판물은 또한 항일유격대의 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는 선전 고무자적역할도 훌륭히 수행하였다. 혁명적출판물은 항일유격대의 목적과 사명, 그 전투위훈을 소개선전하면서 광범한 군중들에게 자진하여 무장대오에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국내각지의 애국청년들이 개별적으로나 혹은 집체적으로 항일유격대에 자원입대하여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령솔한 항일유격대가 도처에서 일본제국주의군경들을 격멸소탕한 소식을 혁명적출판물을 통하여 알게 된 수많은 애국청년들은 매일같이 혁명조직을 거쳐서 또는 전투를 끝마치고 철수하는 유격대오를 따라 항일유격대에 자원 입대하였다. 《민족해방전선의 확대, 피끓는 애국용사들이 김사장부대에 속속가입》이라고 제목한 《3.1월간》의 기사에서 조선의 애국청년들이 하루에도 7~8명씩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김일성동지가 령솔하는 항일유격대에 자원입대한 사실을 소개한것은 하나의 뚜렷한 실례로 된다.

혁명적출판물은 또한 유격대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 그들을 군민일치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특히 유격대에 대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출판물들이 이렇듯 거대한 역할을 수행할수 있은것은 그것이 맑스—레닌주의출판물에 고유한 당성, 전투성, 사상성, 인민성 등의 특성을 자체에 체현하고있은데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들에 체현된 철저한 당성, 전투성, 사상성, 인민성은 우리 당 출판물이 계승한 빛나는 전통으로 된다.

이 모든 특성들은 호상 밀접한 련관속에서 통일적으로 작용하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들로 하여금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한 령도핵심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교양하며, 철저한 반제사상과 확고한 자주정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게 함으로써 그들을 조국광복의 성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전투적 무기로 되게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의 맑스—레닌주의적당성은 유격대원들과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고 제시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적극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교양하는 투쟁에서 나타났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은 당시의 조선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력량관계, 계급투쟁의 구체적정황과 전망을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고 그에 알맞게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자주적로선이며 가장 정확한 전

략전술적방침이였다. 이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세계에서 류례를 찾아보기드문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를 달성케 하는 가장 중요한 담보였다.

그러므로 혁명적출판물은 유격대원들과 인민대중속에서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사상과 리념으로 숨쉬고 말하며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을 자기의 첫째가는 임무로 간주하였다.

《3.1월간》은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그 해설론문, 파거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분석한 론설, 항일무장투쟁의 당면임무를 제기하는 전투적론설들을 많이 게재하였다. 신문 《서광》도 역시 그이께서 직접 집필하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조선민족해방동맹의 활동방향에 대한 문제 등 주요한 론설들을 체계적으로 게재하였다.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기관지 《화전민》을 비롯한 각 지방 혁명조직들의 출판물에는 《3.1월간》과 《서광》 등에 발표된 김일성동지의 론문들을 광범히 전재하여 혁명군중을 항상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였다.

《종소리》는 또한 대원들과 혁명군중이 김일성동지가 계신 지휘부를 조선혁명의 참모부로, 조선인민의 심장으로 깊이 신뢰하고 그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으며 지휘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고귀한 품성을 높이 찬양하고 그러한 모범을 일반화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출판물들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는 철저한 반제혁명사상과 계급적원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일관된 그의 전투성이였다.

적대계급으로 분렬되여 착취계급의 전횡이 지배하는 사회제도하에서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은 《…그 사명으로 보아 사회의 초병이며 권세가에 대한 꾸준한 폭로자이며 자기의 자유를 열성적으로 보호하는 인민정신의 보편적인 눈이며 거창한 목소리인것이다… 출판물의 첫째가는 의무는 현존 정치제도의 모든 기초를 파괴하는 데 있다》 (맑스 엥겔스전집 제6권, 273~276페지).

바로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은 일제의 침략적, 략탈적 본질과 만행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그 불가피한 멸망을 론증하였으며 조선인민이 비참한 생활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하며 일치단결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으로 대중을 교양하였다.

《3.1월간》은 그 창간호에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나라의 재부와 재산, 가옥과 옥토는 놈들에게 그 어느것이나 다 강탈당하고 여러 천만의 동포형제자매들이 해외로 쫓겨가지 않으면 실업, 아사, 동사하게 되고 도처에서 리유없이 학대받고 체포, 총살, 감금당하고 우리의 자매들은 놈들에게 마음대로 모욕당하고 우리 선조들의 무덤과 사당은 놈들의 발끝으로 함부로 유린되고 우리들의 모든 언론, 행동동과 자유는 놈들의 무리한 법률, 경찰의 유린밑에 모두 잃어버렸다… 참으로 비참한 멸족의 총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면서 일제의 만행을 통렬히 규탄하였다.

또한 《3.1월간》은 《우리 타지오방송》이라는 고정란에 실린 지방통신자료에서 기아에 시달려 병중에 있는 한 부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저 저주로운 왜놈들은 우리 늙은 부부가 죽도록 지어놓은 식량까지 군용이라고 빼앗아가고 아이들도 친척도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있다. 증오스러운 왜놈들이 언제쯤 되면 멸망할것인가? 왜놈들이 멸망하면 죽은 백골까지도 춤출것이다》라고 일제의 야수적략탈만행을 폭로함으로써 원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3.1월간》은 《…우리들의 장래에는 오직 하나의 살길이 있을뿐이다. 즉 2천 300만 민족이 총동원으로… 강도왜놈들과 피로써 싸워 나라의 독립을 완성하는데 있다》고 투쟁의 길을 명시하였다. 청년들은 강제징용과 징병을 반대하며 농민들은 강제공출과 착취를 반대하여 나서도록

호소하였으며 로동자들에게는 군수품생산을 태공하며 도처에서 집단적인 반전투쟁을 전개할것을 선동하였다.

당시의 혁명적출판물들은 이러한 전투성으로 하여 유격대원들과 대중을 견결한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출판물들의 고상한 사상성은 유격대원들과 인민대중을 맑스—레닌주의사상,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열렬한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선전교양자적역할에서 잘 나타났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속에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선전하며 사회발전법칙에 관한 과학적지식을 보급하는것을 자기의 일관한 기본임무로 인정하였다.

이 시기에 발행된 《공산당선언》,《레닌주의 제문제》 등의 맑스—레닌주의서적과 《조국광복회 10대강령》,《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등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수다한 소책자들과 론설들은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을 맑스—레닌주의로 무장시키는 사상적량식으로 되였다.

혁명적출판물은 맑스—레닌주의사상교양을 김일성동지께서 견지한 주체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켰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확고부동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 것은 조선혁명수행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이였으며 특히 좌경모험분자들이 관료주의적명령과 지시를 내려먹이려 하였으며 일부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이 인민의 혁명력량을 믿지 않고 이미 파산된 외세의존사상에 매여달리고있던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부단히 해설선전함으로써 유격대원들과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라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도록 하며 조선혁명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창조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화전민》은 《우리 생명보호와 전민족의 해방은 우리 손에 있으며 우리들의 전투에 있다… 망국노의 더러운 이름을 벗기 위하여…자기로써 자기를 구하는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잘 싸우는데 오직 조선사람의 살길이 나온다…》고 철저하게 자주사상을 강조하였다.

혁명적출판물은 또한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을 철저한 자주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좌우경기회주의와 사대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폭로하는데 많은 지면을 돌렸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에서는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민주주의적개혁들이 실시되였다. 그러나 일부 좌경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쏘베트정권을 선포하고 당장에 사회주의혁명과업을 실시하자고 제기하였다. 일부 사대주의자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조선혁명에서 손을 떼고 중국혁명에 나서라고 떠들었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조국광복회강령에서 《일본제국주의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것》을 천명한 김일성동지의 인민정부로선을 해설선전함으로써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혁명적출판물은 협애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다. 1930년대전반기 민족배타주의자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이〈민생단〉》이라는 근거없는 주관적판단에 사로잡혀있었으며 종파분자들은 반《민생단》투쟁을 저들의 음모책동에 리용하였다. 혁명대오에서는 일시적이나마 호상불신, 호상의심하며 지어 일부동지들을 모해하는 참상까지 빚어졌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제의 흉책에 도움을 주는 해독행위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1930년대전반기에 종파분자들과 민족 배타주의자들이 조.

선혁명운동에 끼친해독과 그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소한 종파주의적 및 민족 배타주의적 사상요소와도 견결히 투쟁하고 적아를 옳게 구분하며 군중을 믿고투쟁속에서 그들을 검열하며 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 김일성동지의 가장 정확한 혁명적립장을 해설선전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열렬한 선전자로, 어떠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고무자로 되였다.

혁명적출판물은 유격대원들과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사상교양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과 결부시키는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혁명적출판물의 매 구절에는 유구한 력사와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있으며 선조들의 백골이 묻혀있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이 맥맥히 깃들어있었으며 조국을 침해한 원쑤를 증오하고 그를 맞받아 나아가는 전투적기백이 흘러넘쳤다.

조국광복회창립선언문에서는 《…우리 민족 자자손손, 세세년년 소중히 지키고 번영시켜온 화려한 3천리강산이 일제강도에게 침노당하고 슬기로운 조선민족이 노예로 억압착취당하고있는것이 통분》함을 지적하면서 《조선민족의 애국사상과 열렬한 독립의 정신은 과거나 현재나 다름없이 불타고있다》고 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선조들의 반침략애국투쟁의 슬기로운 모습을 소개하면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빛나는 민족적전통을 가진 우리 인민이 결코 일제의 노예로 될수 없다는것,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가 절대로 놈들의 구두발밑에 짓밟혀 있을수 없다는것을 력설하였다.

《3.1월간》의 《애국동포들중에서 모연운동, 반일장병들에게 환영기 증정》이라는 기사에서는 《애국동포들의 열렬한 성원에 의하여 돈지갑에서 1전, 2전, 혹은 10전, 1원씩》 모은 돈으로 환영기를 만들어 조선인민혁명군장병들에게 증정한 애국사업의 산실례를 통하여 대중의 애국심을 북돋아주었다.

혁명적출판물의 이러한 활동은 유격대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 그리고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무한히 사랑하고 그것을 해치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자애내게 하였다.

《3.1월간》에 실린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등의 해설론설들은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에게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하게 하고 그들이 해방된 조국땅에 조국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 념원으로 불타게 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여있었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할것을 강조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할힌골, 하싼호사건들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직접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한 사실을 소개선전하였다.

《3.1월간》은 《국제소식》, 《문답란》 등에서 《…각국민족들과 련합전선을 굳게 맺는것》은 《…우리 독립운동이 승리할수 있는 조건이며 환경》이라고 지적하면서 반제공동전선을 확대할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시 반파쑈운동의 초점이였던 에스빠냐의 민족해방혁명을 지원할데 대하여서도 전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일제의 중국내륙침공, 쏘독전쟁의 발발 등 소식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들에게 국제정세발전의 추세를 알려줌으로써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들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혁명적출판물들은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론증하고 조선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확대강화하며 다가올 민족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데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립장을 부단히 해설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들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보장하고 인민성의 훌륭한 모범을 구현하였으며 인민적문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인민적문풍은 철저하게 인민의 립장에 서서 글을 쓰는 문필가들의 인민적작풍이며 그 결과가 글에서 나타난 고상한 풍격이다. 인민적문풍은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대상에 맞게 알기 쉽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글을 쓰며 사상이 명확하고 혁명적정열로 넘쳐 흐를것을 요구한다.

혁명적출판물은 이러한 출판물의 일반적요구와 당시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의 민족적감정과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잡지와 신문의 제목부터 《3.1월간》, 《서광》, 《화전민》, 《종소리》 등으로 달았으며 기사와 론설제목 하나를 다는데도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또한 기사나 론설들에서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이 《헤게모니》요, 《이데올로기》요 하던 따위의 옳지 못한 풍을 철저히 배격하고 알기 쉬운 말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왜놈들의 통치에 신음하는 소년들에게 격함》, 《왜놈들의 강도전쟁에서 먼저 희생되고 있는 재만조선인의 살길》 기타 일의의 론설들이 다 소박하고 생동하였다. 또한 혁명적출판물의 기사, 정론들은 사상의 명료성과 혁명적열정 그리고 추악한것을 증오하고 아름다운것을 사랑하며 옹호하는 정신으로 맥박치고있었다. 례컨대 원쑤 일제를 폭로할 경우에는 《살인강도 일제》, 《살무사 같은 일제강도》, 《날강도》, 《흡혈귀》 등 경멸적이며 증오에 찬 말들을 썼다면 우리의 것에 대하여서는 《무궁화강산에 진달래 피는 조국》, 《삼천리금수강산》, 《정의의 싸움》, 《해방의 웨침》 등으로 우리 말을 더욱 아름답고 풍부하게 다듬어 썼다.

혁명적출판물들에 체현된 인민성은 이전시기의 출판물에 내포되여있던 사상의 불명료성, 불명확한 표현들을 극복함으로써 모든 독자들이 그 론설과 기사의 사상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였으며 출판물이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의 진정한 벗으로 절실한 사상적량식으로 되게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상한 당성, 전투성, 사상성, 인민성은 항일무장투쟁시기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의 주요한 특성들이였다.

* *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출판물들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들과 전통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밀접히 관련되여있었다. 그이는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제기된 혁명과업에 상응하게 출판물들의 편집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자신이 많은 글을 직접 쓰시고 일군들을 문필가로 교양육성하며 출판기재보장과 배포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깊은 관심을 돌려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충실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이의 높은 혁명사상과 구체적인 지도를 받들고 온갖 곤난을 극복하면서 출판선전활동을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일제군경의 대대적인 《토벌》작전, 로천과 진막속에서 편집사업을 해야 하였던 불리한 사업조건, 아무런 인쇄시설도 없고 출판기재마저 마음대로 구할수 없었던 사업상 애로, 좌우경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 등 그야말로 많은 난관과의 투쟁속에서 출판선전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적진속에서와 전투행군서렬에서 한손에는 총을 쥐고 다른 손에는 펜을 잡고 영웅적으로 출판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출판선전활동과정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투쟁경험들은 바로 해방후 우리 당 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였다.

해방후 우리의 당출판물은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출판물들이 추켜들었던 혁명적기치와 그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할수 있었다.

당정책관철과 법질서

방 계 문

오늘 우리 당은 현시기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촉진시켜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제기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규률과 법질서를 강화할것을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법의 역할을 높이고 혁명적규률과 법질서를 강화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다아는바와 같이 계급사회에서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회제도를 보호하고 자기의 정책을 실현하며 사회를 다스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주권을 통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의무력을 가지는 행동규범으로서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지배계급도 자기의 의사와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을 이에 무조건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고 공고히 할수 없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란 원래 강제의 분야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도 결코 강제를 부인할수 없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그 당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한후에도 계급을 완전히 페절하고 무계급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법은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고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계급투쟁의 예리한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사회주의법의 혁명적기능을 높이지 않고서는 계급적원쑤들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외부로부터 기여드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은 낡은 착취제도를 회복하여보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며 부르죠아적 및 봉건적반동사상을 부단히 침습시키려고 시도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원쑤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며 자기들의 옛처지를 회복하여보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고있다.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적대적요소들은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원쑤들의 파괴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한다. 특히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있는 우리의 형편에서는 적들의 파괴암해활동과 사상적 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중요하게 나서며 우리는 여기에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우리 법의 독재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철저히 진압할수 없으며 원쑤들의 책동을 미연에 방지할수 없다. 원쑤들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이 해이되고 규률이 서었지 않으며 제도와 질서가 문란한 틈을 노리고있다.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강한곳에서는 원쑤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며 배겨내지 못한다.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반범죄와의 투쟁을 위해서도 법의 기능을 높이고 혁명적규률과 법질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일반범죄자들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착취계급의 사상과 타락한 생활양식에 물젖은자들이다. 이들은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침해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인민들의 생활에 손실을 준다. 이들은 사회주의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좀먹는 《부르죠아의 친형제》이다. 이들은 언제나 적대계급의 반혁명적책동에 리용될

수 있다. 레닌이 지적한바와 같이 부르죠아요소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여 2중으로 투쟁하는바 한편으로는 음모와 폭동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작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매수와 무규률, 방종, 혼란의 강화를 위하여 온갖 부패분자와 온갖 약점을 리용하는 방법으로써 내부에서 작용하고있다》(레닌전집 제27권, 329～330페지).

일반범죄자들은 단순한 교양의 대상인것이 아니라 법적제재의 대상이다.

일반범죄를 반대하는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잔재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이다. 이와의 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할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할수 없다. 프로레타리아독재란 착취자들과 불량자들을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혁명적정권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로동계급화하는데 있다.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인입하며 로동계급자신을 교양하고 전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과거로부터 수천년동안 내려온 낡은 사상잔재와 인습을 뿌리뽑고 그들을 새로운 사회주의적규률과 생활양식에 익숙시키는 투쟁은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의 하나의 표현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법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행동규범을 규정하면서 응당 수행하여야 할 긍정적인 행위와 규탄을 받아야 할 부정적행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사회주의법의 많은 규범들은 공민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공산주의도덕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행동규범의 명시와 준수에 대한 통제, 위법행위와의 투쟁은 새로운 규률의 배양과 공산주의사상도덕의 교양에 기여한다.

낡은 사상인습과의 투쟁에서는 인내성있는 교양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사회주의법의 조직적, 통제적 기능을 높임으로써만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법의 역할을 높이고 혁명적규률과 법질서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는 경제문화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하게 제기된다. 생산수단이 사회화되고 나라의 살림살이가 국가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일이 국가의 법규에 의해서 규정되고 제도화된다. 이것은 사회주의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건설의 규모와 범위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인민경제 각 부문간의 련계도 더욱 밀접해지고있다. 이에 따라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와 경제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조직적통제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규제의 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치밀하여졌다. 오늘 국가기관, 기업소 일군들의 모든 활동이 국가의 법규범에 의하여 더욱 세밀하게 규정되고 그 정확한 집행에 대한 더욱 엄격한 요구가 제기되고있다. 국가의 법규범에 대한 사소한 위반도 그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며 사회주의건설에 커다란 후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법의 역할을 높이고 혁명적규률과 법질서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정확히 집행하는것을 헌법, 형법 등을 지키고 그 어떤 범죄행위나 하지 않으면 되는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법의 역할을 높이고 혁명적규률과 법질서를 강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경제관계의 법규들을 엄격히 지키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는것이다.

인민경제계획과제를 비롯하여 국가기관, 기업소들에 부과하는 경제적과업들과 경제를 운영하며 나라의 재부를 관리하는 제도와 질서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엄격한 법이며 모든 국가기관들

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법적의무이다.

국가계획을 자의로 변경하거나 계획외 공사를 진행하며 협동생산계획을 잘 수행하지 않는것들은 다 법적의무를 위반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의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해당 부문에 부과된 법적인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제정된 제반 국가법규들을 정확히 준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의 모든 자원과 재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재산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이로부터 국가의 법규들에서는 원료, 자재, 기계, 설비 등 국가물자들과 자금, 로력을 잘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며 토지, 산림, 하천 등 나라의 자원을 알뜰히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 기술경제적대책들이 규정되고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잘 지키고 정확히 집행함으로써만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관리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다.

⁂ ⁂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질서를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이다.

우리의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발로되는 위법행위는 대부분 그들의 법의식이 부족한데서 생기는것이다. 우리의 일부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법질서의 강화가 가지는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데로부터 국가법규의 준수를 차요시하는 경우가 있다.

당정책과 국가의 법규는 서로 다른것이 아니다. 우리의 법은 우리 당정책을 법률적형식으로 표현한것이다. 레닌은 정책과 법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법령이란 하나의 정치적조치이며 하나의 정책이다》(레닌전집 제23권, 51페지)라고 하였다.

당정책의 철저한 관철은 법질서의 확립이 없이는 실현될수 없다. 당정책이 요구하는 과업들과 수행방도들은 국가적의무력을 가진 법규들로 제정되고 그 집행이 법적으로 통제되는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통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당정책과 당이 제기하는 과업들이 법으로 제정되면 그것은 정치도덕적권위와 아울러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의 정확한 집행과 철저한 관철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자체의 정책들 가운데서 국가적활동으로 구체화하고 국가적의무력을 부여하여 집행시킬 필요가 있는것은 꼭 이를 인민정권을 통해서 법령, 정령, 내각결정, 명령, 성령, 규칙 기타의 각종 국가법규로 만들어 관철시킨다.

당정책을 직접 구현한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것과 당에 대한 충실성은 서로 떼여서 생각할수 없다.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당에 충실할수 없고 당에 충실하지 않고 법을 잘 집행할수 없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사업에서의 높은 책임성은 국가의 법규와 규률을 잘 지키고 모든 일을 규정된 제도대로 정확히 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의 법자체가 당의 정책을 옹호하며 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것이기때문에 법을 정확히 실현한다는것은 당의 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한다는것이며 따라서 당의 령도를 받는다는것이다》(김일성선집 제5권, 452페지).

법의식이 부족한 일부 일군들은 국가법규를 무조건적으로 준수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의로 해석하며 《창발적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법의 요구를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규는 무조건적으로가 아니라 《적절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아 《실정에 맞지 않는듯한》 법규는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듯이 인정한다. 이러한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당정책을 위반하려 하지 않

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정책의 관철에 손실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만약 사람마다 국가의 법규들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집행한다면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지도를 보장할수 없으며 국가의 엄격한 법질서와 규률을 확립할수 없을것이다.

당정책을 표현하는 우리의 법에는 전국가적견지에서 절실한 과업들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들과 사업절차들이 담겨져있다. 주관적으로 일을 잘하겠다고 하면서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는것도 결국 전국가적규모에서의 고려와 전인민적리익의 견지를 떠나고 당의 지시를 위반하는것으로 되며 과학기술적으로 면밀히 연구된 전국가적방침에 자기 개인의 협소한 경험과 소총명을 가지고 대체시키는것으로 된다. 모든 곳에서 법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법질서의 확립이란 있을수 없다. 일군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요구에 맞지 않는 법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그것을 자의로 해석하고 위반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한있는 해당상급기관에 제기하여 해결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군들의 창발성은 당이 제시한 정책적요구와 이를 구현한 국가의 법규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더 빨리 집행하겠는가 하는데서 발휘되여야 한다. 국가의 법규를 걸어서 대하거나 그것을 자의로 해석하고 되는대로 집행하는것은 당정책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혁명가적기풍이 부족한 표현이다.

법의식을 높이며 법질서를 강화함에 있어서 각급 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모범을 보이는것이 중요하다.

기관, 기업소들의 지도일군들이 국가의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는것은 그들의 직책상인무로 하여 중요한 동시에 그들의 교양자적임무로 하여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단위책임일군들은 자신이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데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아래일군들이 법을 위반하는것을 허용하거나 더우기 《내가 책임질테니 하라》는식으로 하부에 법에 위반되는 일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은 혁명적규률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의 법은 근로자들의 리익을 직접 표현하고있기때문에 그들은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데 혈연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착취자국가의 법은 소수 착취계급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정책을 표현하며 사회주의법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표현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정책을 반영하고있다.

그러므로 대중들속에서 우리 법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시키면 그들은 법을 더욱 자각적으로 지키게 된다.

근로자들에게 우리 법의 계급적본질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당정책을 관철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법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똑똑히 알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이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들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이 가지는 의의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법령, 결정, 지시를 잘 알게 될 때 그들은 옳고 그른것을 분간할수 있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처리할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준법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때 그들은 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위법현상들과 원칙적인 투쟁을 진행할수 있다.

⁂

혁명적규률과 법질서를 강화하고 위법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인민정권기관들과 사회안전, 사법, 검찰 기관들의 법적통제의 기능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주권기관으로서의 인민정권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공고하고 정연한 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제도를 보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촉진을 보장하는것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준법의식교양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법령의 준수와 집행을 옳게 감독통제함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에서는 인민정권기관들에 직접 소속되지 않은 전문적인 공업, 농업, 건설, 관리기관들이 활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지방인민정권기관들 앞에는 법적통제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국가의 법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집행에 대한 주도세밀한 조직사업과 검열통제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사상투쟁을 전개하고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충분히 해설하고 교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사상과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는데 대해서는 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제재도 적용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를 낳는 중요한 근원의 하나는 개인리기주의, 공명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낡은 사상잔재이다. 이러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는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추궁하고 응당한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사회안전, 사법, 검찰, 검열 기관들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며 발생한 사건사고를 철저히 구명하여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법질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법적제재는 다만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만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법을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하며 한사람을 벌주어 여러 사람을 교양하기 위한것이다. 만약 우리가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엄중한 위법현상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어루만지게 된다면 사회에 엄정한 법질서와 규률을 세울수 없다. 법을 위반한자에게 반드시 추궁하고 책임을 물을 때만이 법질서가 확립되고 사람들을 새 규률에 빨리 익숙시킬수 있으며 위법행위와의 군중적인 투쟁의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조성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극소수의 락후한 분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적제재는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며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안정된 명랑한 분위기를 보장하는 담보로 된다.

혁명적규률과 법질서를 강화하는 사업은 전문적인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광범한 군중을 발동시켜 그들이 이 사업에 주인답게 나서게 함으로써만 법질서를 강화하는 문제는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전체 군중이 발동되여 경각성있게 감시하고 위법행위와 투쟁하게 된다면 위법현상이 생기기도 어렵고 수행된 범죄가 은폐되여있을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법질서를 강화하고 일반범죄를 근절하며 반혁명분자를 진압하는 사업을 당의 요구대로 모두 군중로선을 관철시켜 전인민적투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규률과 법질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미제의 아세아전략과 그 위기

허 석 태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은 그들의 세계제패계획의 주요한 일환이다.

사회주의진영국가들을 《봉쇄》하고 파괴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세계제패를 실현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전후 줄곧 추구하여온 대외정책의 내용이다.

이러한 야망을 실현함에 있어서 미제는 아세아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아세아는 군사전략상 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이 지역에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함께 거대한 자연부원이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제국주의련쇄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과 반혁명,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아세아에서의 력량관계는 제국주의에는 극히 불리하게 사회주의에는 더욱 유리하게 변화되고있다.

최근년간 아세아에서의 정세발전은 아세아사회주의국가들의 위력이 급격히 장성하고 민족해방력량의 진출이 전례없이 강화됨으로써 제국주의식민지체계와 그 침략적지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아세아사회주의국가들의 출현과 그 위력의 급격한 장성은 이 지역에서의 력량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며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의 지반을 밑뿌리채 뒤흔드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의 급격한 발전과 그 영향력의 증대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소멸하는것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는 미제의 아세아전략의 기본이 사실상 이미 파탄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직면하고있는 심각한 위기를 수습하려고 망상하면서 이 지역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그들은 아세아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규합하여 《반공》군사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을 반대하며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막아보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과 때를 같이하여 대만을 강점하였으며 《안보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을 자기의 손아래 동맹자로 끌어넣었으며 그의 재무장을 로골적으로 추진시켰다.

이와 함께 미제는 동남아세아에 《세아토》를, 중근동에 《쎈토》를 조작한데 뒤이어 《동북아세아군사동맹》 조작책동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침략적군사쁠럭들을 구라파의 《나토》와 련결시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파괴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이 지역에서 장성하는 혁명력량을 저지시킬수 없었으며 그것은 오히려 인민들의 반제, 반미 투쟁의 불길을 높이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제의 정치, 군사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력량관계를 저들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전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선전쟁에서의 미제의 패배는 그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의 파탄과 이 지역에서의 위기를 촉진시키는 결정적계기로 되였으며 나아가서 미제의 세계전략의 파산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였으며 이것은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의미하는것이였다》(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아물리지 못한채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련속적인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오늘 남부웰남에서의 사태는 미제의 아세아전략의 위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하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서 군사적으로뿐만아니라 정치도덕적으로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있으며 진퇴량난의 곤경에 처하여있다.

웰남전쟁에서의 미제의 패배는 민족해방운동을 교살하기 위한 그들의 군사전략이 이미 쓸모없는것으로 되였으며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싸우는 아세아인민들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아세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아세아에서 미제의 식민주의의 생명선은 걷잡을수 없이 끊어져가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제의 지위는 현저히 약화되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이 지역에서 쫓겨날 날이 가까와오고있다는것을 보여줄뿐만아니라 그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이 전면적인 파산에 직면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집중하고있는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 가고있는 저들의 침략적지반을 수습하려는데 있다.

사실상 아세아에서의 정세발전은 미제의 종국적멸망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추진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미국지배층들까지 《아세아가 인류의 장래운명을 결정할 전투장》이라고 떠들면서 이 지역에서의 사태발전에 대하여 우려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는 아세아에서의 사태발전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발악하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직면하고있는 군사정치적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구라파 지역에서는 긴장상태를 일시 완화시키면서 《동란》의 지역인 아세아에 자기의 모든 력량을 집중하려하고 있다.

세계의 한 지역에서는 긴장상태를 일시 완화시키면서 다른 지역에 력량을 집중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강화하는것, 이것은 현시기 미제의 세계전략추진을 위한 주요한 책동이다.

미제의 이러한 전략은 사회주의나라들을 각개격파하며 민족해방운동을 하나하나 말살함으로써 결국은 사회주의진영전체와 세계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없애버리자는것이다.

미제는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면서 될수록 큰 나라들과의 관계는 악화시키지 않고 우선 분렬된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먹어들어가기 위한 음흉한 책동을 꾸미고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한 반격을 피하며 저들의 침략정책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하여보려하고있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정세를 전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현시기에는 어느한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완화시킨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전반적국제정세를 완화시킬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손쉽게 다른 지역에 힘을 집중하게 해줄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모든 반제력량은 힘을 합쳐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함으로써 그들이 어느 한 지역이나 개별적나라에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

아세아사회주의국가들을 《봉쇄》하고 파괴하며 이 지역에서 혁명력량의 장성을 가로막으려는것은 현시기 미제의 아세아전략의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본전략은 더욱더 많은 미국무력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자기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아세아에서의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는데 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전쟁으로 저들의 침략정책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방대한 무력과 추종국가병력까지 대량적으로 동원하여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공격하며 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미제는 미국본토로부터 직접 무력을 아세아에 증파하는 한편 구라파를 비롯한 기타 지역의 일부병력까지 아세아와 태평양지역에 이동시키고있다.

오늘 아세아와 태평양지역에는 해외주둔 미군무력의 절반이상인 70만명이 배치되고있으며 해외군사기지 2,000여개중 1,000개가 이 지역에 포치되고있다. 미제는 태평양함대에 폴라리스잠수함까지 배치하고 극동무력의 핵장비를 강화하고있을뿐만아니라 괴뢰군과 추종국가들의 상비군을 아세아에서의 군사적책동에 대대적으로 동원시키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방대한 무력에 의거하여 이 지역에서 로골적인 전쟁정책을 추진시킴으로써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에서 《반공》군사동맹체제의 형성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들은 아세아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규합하여 광범한 《반공》동맹에 망라시킴으로써 그들을 자기에게 칠저히 예속시키려 하고있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는데 동원하려 하고있다.

미제가 떠들고있는 《태평양공동체》구상이 바로 이러한 책동의 주요한 일환으로 되고있다. 그들은 아세아지역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단일한 《반공》동맹을 형성하여 그것을 이미 와해상태에 있는 군사쁠럭들과 《동맹》을 대신케 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군사, 경제적으로 《봉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공》동맹을 형성하려는 책동에서 일본, 남조선, 대만에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구상으로부터 《한일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되였고《동북아세아군사동맹》조작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아사》의 부활이 추진되고있다. 미제의 계획에 따라 미제와 일본사또정부, 남조선괴뢰들간에는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고있는것이다.

미국출판물들까지 《워싱톤의 희망은 미국이 현재 일본, 남조선,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남부웰남, 영국 등과 각각 체결하고있는 제한된 동맹조약을 단일한, 광범한 집단안전보장체제로 발전시켜 앞으로 인도, 파키스탄도 이에 인입하는것이다》라고 한것은 이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은 현시기 그들의 아세아전략의 주요한 한고리이다. 미제는 이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동남아세아에서 처하고있는 위기에서 벗어나며 나아가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기 위한 침략지반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미제는 이미 웰남전쟁에 38만명의 미군을 파견하고 그 수를 앞으로 60만~80만명으로 증가시키려 하고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북부웰남에까지 지상전을 확대할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전쟁에서의 전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야수적인 전쟁수단과 함께 각종 기만적인 《평화》공세도 강화하고있다.

미제의 악명높은 《평화협상》소동이

바로 이러한 책동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미국지배층들이 떠들고있는 《평화협상》은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고 나아가서 긴장상태의 책임을 웰남민주공화국에 전가시키며 이 지역에서의 저들의 침략정책을 정당화하면서 전쟁을 계속 확대하기 위한 음모에 불과한것이다.

미국대통령 존손을 두목으로 하여 부대통령 험프리, 국무장관 러스크, 대통령특사 해리맨 등 고위관리들이 세계도처에 돌아다니면서 《평화협상》을 요란스럽게 선전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얼마전에 서울에서 있은 《아세아 및 태평양지구각료리사회의》와 그에 뒤이어 소집된 이른바 《마닐라회의》 역시 요란스러운 《평화》의 간판밑에 진행되였으나 그 주되는 목적은 갈팡질팡하는 아세아추종국가들을 《철저히》 묶어세우고 웰남침략전쟁에 요구되는 대포밥을 더 많이 긁어모으며 미제가 일관하게 추구해온 아세아에서의 《반공》군사블럭체제를 조속히 완성하자는데 있었다.

이것은 《아세아인끼리 싸우게 하라》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의 기본방침에서 나온것이다.

웰남침략전쟁의 확대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는 라오스와 캄보쟈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더욱 로골화하고있으며 동남아세아와 아세아의 전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

미제는 우리 나라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 6만명의 미군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있으며 끊임없이 전쟁도발소동을 벌리고있다.

특히 지난 10월말 존손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힘의 대결》을 부르짖으면서 박정희괴뢰도당과 새 전쟁계획을 모의하고 돌아간후 그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아세아에서 당하고있는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도발하려 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현시기 미제의 아세아전략에서 일본군국주의는 그 《돌격대》적역할을 담당하고있다.

미제는 일본의 전략적위치와 인적 및 물적자원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복수주의적야망을 저들의 아세아침략책동에 리용하려 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동맹자》로 내세우고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미제는 일본군국주의를 급속히 재생시켰으며 되살아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미제의 가장 충실한 《동맹자》로서 그들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나서고있다.

미제는 오끼나와를 영구강점하고 그곳을 아세아침략을 위한 핵기지로 전변시켰을뿐만아니라 일본 전령토에 200여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였으며 일본을 《아세아의 병기창》으로 만들었다.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아세아에서 옛침략계획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미제의 계획에 따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벌써 조선과 기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계획까지 짜놓고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궁지에 빠져 허덕이는 미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막대한 량의 무기와 군수품을 보내주고있으며 자기의 령토를 웰남전쟁을 위한 미제의 침략기지로 내맡기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그의 침략적야망을 철저히 파탄시켜야 한다.

미제는 자기의 아세아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적침략과 함께 경제적침투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군사적침략과 경제적침략은 제국주의자들의 대외침략정책에서 떼여놓을수 없는 두 측면이다.

아세아의 신생독립국가들속에서 자주적발전의 지향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조

전에서 미제는 경제적수단에 더욱 중요한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제는 《협조》라는 간판밑에 아세아의 신생독립국가들에 침투하여 전복음모를 하고 이 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며 그들을 반제투쟁에서 떼여내려 하고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들에 자기의 식민지지반을 확대할뿐만아니라 그들을 《반공》뿔럭에까지 끌어들이려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인도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흉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미제는 인도가 처한 경제적 난관을 리용하여 인도의 반동들에게 약간한 경제적《원조》를 주는 대신 그들을 사촉하여 국내혁명력량을 탄압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적대행동에로 내몰고있다.

제반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정치, 군사적 목적과 련결되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진정한 《협조》란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들을 예속시키고 침략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그처럼 떠드는 《동남아세아개발계획》 역시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형식상 《메콩강개발》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 《계획》에는 공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군》 및 《계획참가국》들의 경찰군까지 파견할것이 예견되여있다.

이것은 이 《계획》이 《개발》을 위한것이 아니라 그 진짜목적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시설을 강화하며 날로 높아가고 있는 인민들의 반미투쟁을 말살해 보려는데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 *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미제는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지만 아세아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있다.

히틀러가 그러했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모한 침략과 전쟁책동을 계속 벌려놓음으로써 사실상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십자포화》에 걸려들었으며 멸망의 운명에 직면하고있다.

오늘 아세아에는 미제의 침략정책을 파탄시키며 그들을 이 지역에서 종국적으로 쫓아낼수 있는 주체적력량이 더욱 자라나고있다.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들이 있으며 반제, 반미 투쟁에서 각성되고 단련된 혁명적인민들과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들이 있다.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의 력량의 장성과 그 영향력의 강화는 이미 막을수 없는 힘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책동을 격파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또한 장기간의 반제 투쟁에서 단련된 이 지역인민들의 날로 앙양되고있는 반제, 반미 해방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이 지역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위기에 몰아넣게 하는 주되는 요인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에 대한 침략책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인민들의 투쟁도 또한 앙양될것이며 그들을 더욱더 위기에 몰아넣을것이다.

남조선, 남부월남에서의 사태발전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강화되는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있으며 이 투쟁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이 망라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예

속화정책과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의 투쟁은 대중성과 조직성을 띠면서 더욱 급속히 확대발전하고있다.

남부윁남인민들은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의 령도밑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투쟁하고있으며 남부윁남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헤여나올수 없는 위기에로 몰아넣고있다.

남부윁남해방군과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각종 전략전술을 파탄시키고 오늘 남부윁남령토의 5분의 4와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였으며 적들을 완전히 수세에 빠뜨리고있다.

지난 우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경험과 오늘 남부윁남에서의 현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인민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그 어떠한 제국주의침략도 능히 격파할수 있으며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아세아에서 미제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제국주의호상간의 모순과 대립도 날로 격화되고있으며 그것은 결국 《동맹국》내부에서 미제의 고립을 촉진시키고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모험적인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끌려들어 가는것을 원치 않고있다. 아세아문제에서의 미국과 프랑스간의 대립은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프랑스는 미제의 동남아세아정책을 지지하지 않고있을뿐만아니라 지어 그에 도전해나섬으로써 사실상 미제를 후면으로부터 타격하고있는것이다. 미국출판물까지 《미국은 동남아세아에서 두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있다. 제2전선은 프랑스와 진행하는 침묵리의 진정한 전쟁인데 공산당과의 전쟁과 같이 격렬하다》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은 아세아와 세계인민들뿐만아니라 자국 인민들로부터도 강력한 반대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미제의 방대한 무력동원과 재정지출은 근로대중들에게 전례없이 무거운 전쟁부담을 들씌움으로써 미국에서의 사회계급적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고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도에 이르게 하고있다.

자국 지배층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미국인민들의 진출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성격을 띠여가고있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의 위기는 또한 그들의 군사전략상 취약성에서도 볼수 있다. 아세아인민을 반대하는 그들의 전략전술은 이미 밑창이 드러났다.

조선전쟁에서 패배한 미제는 남부윁남에서의 《특수전쟁》을 통하여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새 전략전술을 써보려고 《스테일리—테일러계획》, 《맥나마라계획》 등 온갖 방법을 다 《시험》해보았으나 남부윁남해방군과 인민들에 의하여 그것이 걸음마다 파탄됨으로써 지금 미제는 완전히 수세에 빠져있으며 싸우는 인민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다.

미제는 또한 아세아침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심히 제한된 병력원천과 머나먼 불리한 후방공급선을 가지고있다.

그들은 윁남침략전쟁에서만도 심각한 병력부족 특히는 비행사를 포함한 기술병종의 부족에 허덕이고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그들이 만일 이 전쟁을 아세아 전지역에 확대한다면 병력부족의 상태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병력부족과 함께 후방공급선은 그들의 아세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난관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윁남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금년 1월한달동안에만도 200척의 선박으

로 120만톤의 전쟁물자를 수송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만약 미제가 아세아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경우에 이러한 난관이 더욱 증대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더구나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과 재정원천은 심히 제한되여있는것이다. 세계도처에서 반미투쟁이 고조되고있는 조건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침략전쟁을 위하여 미주와 세계 기타 지역의 병력을 크게 이동시키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면할수록 이러한 위기는 더욱더 심화될것이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은 날이갈수록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있으며 종국적인 파탄에 직면하고있다.

＊ ＊

오늘 아세아에서의 사태발전은 미제의 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미제국주의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전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진영의 안전과 세계평화도 기대할수 없다.

조성된 정세는 아세아인민들을 비롯하여 전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이 아세아에서의 미제의 침략책동을 더욱 날카롭게 폭로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현정세하에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이러저러한 지역과 나라들에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우와 같은 문헌).

우리 당은 항상 반제, 반미 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에 굳건히 서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으며 또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미제의 침략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있으며 그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을 일격에 격파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우리 인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받들고 나라를 더욱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킴으로써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것이며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더불어 미제의 아세아 침략정책을 종국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

1966년 《근로자》 차례묶음

문 헌

편집국론설

당 건 설

정치 및 철학

경제건설

남조선 및 국제 관계

평론 및 서적해제

문답학습 및 자료

근로자 제12호 (루계 298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6년 12월 10일　　발 행 • 1966년 12월 14일

7—63449　　값 50전